제3의 성서

제3의 성서

12권으로 구성된 계시서『진정한 생명의 책』
에서 발췌한 신성한 계시의 총서

발행 정보

저작권 저작권법(UrhG) 제2조에 의거:

연도: 2026

ISBN:

표지 디자인:
Bookmundo 표지 생성기

출판 포털:
Bookmundo
Delftsestraat 33
NL – 3013AE 로테르담
네덜란드
infor@bookmundo.com

독일에서 인쇄:
CPI Books GmbH

독일 국립도서관은 이 간행물을 독일 국립서지목록에 등재합니다 (2부의 의무 기증본이 독일 국립도서관(DNB)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 및 그 모든 부분은 저작권법 § 2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2권으로 구성된 저서 『진정한 생명의 책』(Libro de la Vida Verdadera)은
전 인류에게 남겨진 유산이며

이며,

멕시코 시티의 "교육부 저작권 총국(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번호 26002, 20111 및 83848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 Asociación de Estudios Espirituales Vida Verdadera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C.P. 06000

번역 및 편집:
트라우고트 겔텐보트; 발터 마이어;

2016년 10월 기준
편집 (새로운 철자법 및 레이아웃):
Buchdienst zum Leben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제3의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이 독일어판을 바탕으로 **DeepL** 번역 프로그램(비즈니스 버전) -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을 통해 현재 약 35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고트홀트 겔텐보트(Gotthold Göltenboth)가 번역하고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한 원본 독일어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본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내용상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죄가 되며 신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편집 및 번역에 대한 책임은 이 글들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영적 이름)***가 맡고 있습니다.

본명: 안나-엘리자베스 호스
거주지: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이메일: hoanna64@yahoo.com
인터넷: https://www.anna-maria-hosta.de

주님께서 안나 마리아 호스타에게 하신 말씀:
호스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호스 – 성 - **t** - 성체 - **A** - **안나** – 2017년 그리스도로부터 영접함
2017년 3월 25일
예수님께서 안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인(印)의 시대"* …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활용하라.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가르침을 받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너는 온 세상에 나를 널리 알리는 법을 아직 배워야 한다."

“이 책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멕시코 D.F.에 위치한 *멕시코 시티(Mexiko D.F.)의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번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스페인어 원작자인 안나 마리아 폰 예수스가 1949년에 사망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제 이 저작물들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에 의해 독일 국립도서관에 등록되고 있다.

예수의 말씀

... "나는 너희가 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으로 책들을 엮고, 나중에 그 중에서 발췌문과 해설을 만들어 너희 이웃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6, 52 *)

** 소수점 앞의 숫자는 가르침의 번호를, 소수점 뒤의 숫자는 『참된 생명의 책』 12권 중 해당 절 번호를 나타냅니다.*

... "인류가 마침내 '제3의 성서'로 인정하게 될 이 책을 통해 너희는 나의 대의를 수호해야 한다. 인류는 '초기 시대'의 법과 제1, 제2 성서에 기록된 내용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3의 성서는 이제 사람들이 준비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변경해 버린 것들을 통합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348, 26)

... "너희를 부르는 이 목소리는 신성한 스승의 목소리다.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것이다. 이 저작의 정수는 앞으로 모든 질서가 얹혀질 초석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지닌 분은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사랑과 고양의 성소로 변화시키시며, 오직 어둠만이 있던 곳에 빛을 밝혀 주실 것이다." (50, 2)

독자 참고:

인간은 단지 육체 그 이상이다. 그는 육신을 입은 영적 존재이다. 이 영적 존재는 영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은 영혼을 통해 육체를 이끈다.

구어체에서는 '영'과 '영혼'이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는 특히 가톨릭 교회의 규정에서 기인한다.

번역의 기초가 된 스페인어 원문에서는 두 용어가 함께 언급되어 그 관계가 명확히 설명된 구절을 제외하고는, 두 용어 모두 "espiritu"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구분을 위해 "영"은 스페인어로 "양심"과 "의식"을 뜻하는 "conciencia"로 표현되었다.

독일어 번역에서 "espiritu"를 단일 용어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초래했을 것이므로, 번역자들은 최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espiritu"를 상기 설명에 따라 각각 '영(Geist)', '영혼(Seele)', 또는 '영혼(Geistseele)'으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생길 경우, 계시문의 본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문

본서는 1956년부터 1962년 사이 멕시코에서『Libro de la Vida Verdadera』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12권의 신성한 계시 모음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계시나 가르침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창조주, 심판자, 그리고 아버지로서,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이자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하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신성한 스승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방대한 가르침의 텍스트 중에서 주제별로 정리된 발췌본에 내용과 언어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각 주제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수적인 구절들을 찾아 선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원본의 한 구절에 담긴 특정 진술을 위해, 때로는 그와 맥락상 연관된 여러 구절을 독일어 요약본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드러났다. 다른 본문들의 경우, 주제가 서로 다른 더 긴 원본 구절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수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독일어로 번역된 이 책의 스페인어 원문을 번역할 때, 그 내용이 신의 말씀의 본질을 담고 있기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능한 한 스페인어 원문의 문구를 그대로 재현하려 했기에, 때로는 다소 특이하고 생소한 단어, 개념,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경우에는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각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유려하고 이해하기 쉬운 독일어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언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해당 구절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독일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종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피했습니다.

비록 음성 전달자들이 황홀한 상태에서 계시문의 작성에 의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신성한 계시를 위한 도구로서 다소 발달된 언어 및 개념 형성 능력을 제공했을 뿐이며, 비록 계시문의 언어적 위력이 그들의 일반적인 표현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들의 언어적 명료성과 표현 가능성은 여전히 각 전달자의 영적·정신적 준비 상태와 어휘력( )에 달려 있었다.

"영(Geist)"과 "영혼(Seele)"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상 정확한 번역은 특별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스페인어판에서 "영혼"을 뜻하는 "alma"나 "anima"라는 용어가 전혀 없고, 대신 "영"을 뜻하는 "espiritu"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espiritu"를 본래의 의미인 "영"으로 번역할지, 아니면 "영혼"으로 번역할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최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만 했다. 이러한 부분적인 용어 혼용의 원인은 신의 계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이들의 언어 습관과 멕시코에서『참 생명의 책』을 나중에 편집하고 처음 출판할 때 내린 잘못된 결정에 있었다.

주제별로 구성된 이 개요서는 관심 있는 독자와 깨달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가, 1950년 말 이전, 즉 1884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류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와 가르침으로 계시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성령의 가르침, 즉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명확한 주제 구성 덕분에 목차를 통해 독자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견해가 다른 이들과의 토론 또는 성령 형제자매들과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주제와 본문 구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제목으로 이 개요서를 집필할 사명과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새로운 말씀 안에서 주셨습니다. 각 장은 각각 하나의 주제를 다루며(제61장부터 제63장 제외), 이전 장을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교리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권장되며 필수적입니다.

매일 영적 양식과 지침을 얻기에는 특히 9-11장, 16-18장, 20-22장, 32-36장, 43-45장, 59-61장, 63장 및 65장이 적합하며, 이 중 독일어 번역판인 "진정한 생명의 책(BUCH DES WAHREN LEBENS)" »Libro de la Vida Verdadera«의 독일어 번역판에 수록된 완전한 가르침들을 특히 주목해야 하며, 이 책들은 을 통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심 있는 독자나 신자는 신성한 계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읽는 과정에서 이 제3의 성서와 마찬가지로 영과 마음에 깊은 기쁨과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서문

어떤 교파나 신앙 집단에 속하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책의 제목인『제3의 성서』를 오만함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계시 작품이 그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며, 성경은 성서이자 신앙의 기초로서 이미 완성되어 더 이상의 속편이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 학자라면,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가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전해진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작별 설교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재림에 대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진리의 영", "위로자",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차면 임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대로 알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3:12)

이 서문은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집필 경위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떤 방식과 어떤 외부적 상황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왜냐하면 계시 자체에 포함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어 의구심과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서문은 하나님의 영이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로서 남기신 '제3의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최고의 권위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발산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누가복음 21장 27절)의 성취이며, 이는 성령의 언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내려진 신적 계시를 주제별로 정리한 이 하나님의 제3의 성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의 재림에 대한 진실된 증거이며, 인류에게 전하는 그분의 시대에 맞는 메시지와 가르침을 응축한 형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침이 되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지상에서의 존재 의미,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겪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시대"의 도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사건들과 변화에 대해 더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중세 수도원장 요아킴 디 피오레와 그 후의 여러 인물들이 이미 이 시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예언자들의 시대부터 인류에게 약속되어 온, 지상에 임할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국이다.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 재림과 함께, 이 영의 시대와 인간의 영성화 시대는 이미 도래하였으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새로운 사랑의 말씀으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기독교계의 모든 기대와는 달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1866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세상"과 기독교계가 눈치채지도 못하고 외면한 채,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중심지인 로마에서도, 아토스 산의 정통 신앙의 중심지에서도, 혹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유대-기독교의 고향 예루살렘에서도, 또는 개신교 신학과 종교 철학의 환경에서도 아닌, 소위 제3세계 국가인 멕시코에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권력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지배적인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가 아니라, 멕시코시티의 교외나 변두리에서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가난과 무의미함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로 설립된 카리스마적 기독교 영성 공동체나 형제회 안에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 영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

이 계시들의 상당 부분은 1950년 이전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속기로 기록되고 필사되었으며, 나중에 "Libro de la Vida Verdadera"(한국어로 "진실한 생명의 책")라는 제목의 12권짜리 전집으로 출판되었다. 최근 몇 년간, 이전의 모든 가르침들이 더욱 확장되고 심화된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저작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신중하게 선별된 본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모음집과 주제별로 정리된 발췌문들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인류, 특히 기독교인을 위한 '제3의 성서'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서론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 중대한 선언의 진리가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정된 나라로 멕시코가 선택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주민들의 인디언 조상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강제로 '기독교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민족들과 그들의 오늘날 후손들은 수세기에 걸친 억압과 노예 생활을 통해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 특히 유럽인들보다 더 큰 형제애, 인간애, 마음의 겸손, 그리고 관용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기에 옛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성숙한 영혼들이 현재 멕시코 민족 안에서 태어났으며,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탄생, 즉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은 로마나 그리스의 권력과 문명의 중심지에서도, 심지어 유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딴 곳에서 빈곤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예수의 고향이자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갈릴리였다. 이에 대해 옛날 서기관들은 우월감을 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같은 착각과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지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은밀한 생각, 즉 "멕시코에서 무슨 좋고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곳의 영적 계시들이 진정으로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 계시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가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분명히 충만해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에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생각과 계시, 권면, 가르침에 담긴 지혜와 심오함은 그 발원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하고 있다. 어떤 속임의 영이 어두운 의도를 품고 이 모든 것을 단지 흉내 낼 수 있겠는가? 이 가르침들은 인류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고상함을 도모하는 데에만 기여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악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계시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정성을 지닌다는 또 다른 근거는, 이 계시들이 그토록 긴 기간에 걸쳐, 그토록 다양한 전달자와 계시 장소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 성격 면에서 일관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단 하나의 계시 근원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어둠의 세력이 온 나라를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유혹적인 속임수를 벌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며, 인간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지상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재림을 증언하는 이 계시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대한 근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표적"에 대한 약속들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포함한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킨 사건들이 벌어진 시기에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들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진정한 생명의 책』제1권의 서문인 "성경적 약속에 비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에르네스토 엔커린(Ernesto Enkerlin)의 연구서『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책 모두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되었습니다.

19세기 기독교계에는 소위 "하나님의 필사자"라 불리는 야콥 로르버를 통해, 이 세계 지역,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적 재림의 장소인 멕시코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계시 저서 중 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재림이 큰 바다, 즉 대서양 너머의 한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스도 복음 요한 94, 14-15). 로르버의 계시를 믿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이미 성취된 예언이 아닌지 자문해 보고, 미주 대륙의 어느 나라에서 이 주장을 내세우며 그에 부합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탐구해 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시된 창조 지식의 규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여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19세기 60년대 초 멕시코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로케 로하스(Roque Rojas)라는 이름의 평범한 서민 한 사람이 1861년 6월 23일,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첫 소명 체험을 하고, 주님의 지상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알리는 환상을 보았다.* 그 후 또 다른 위대한 환상을 통해 신성한 소명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된 그는 황홀경 상태에서 받은 메시지와 환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설득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점차 신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그

후 영적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 그는 첫 번째 모임 장소를 설립했으며, 그곳에서 1866년 9월 1일 엘리아스가 그를 통해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일곱 남자와 여자가 새롭게 설립될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임되었는데, 이들은 각 구원의 역사적 시대를 상징하는 일곱 인을 상징했다.
*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3의 시대(Die Dritte Zeit)" 서문(라이클 출판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69년 성주간(부활절 전 주간)에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로케 로하스가 기대했던 경외심과 경건함을 보이지 않자, 그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그 때까지 엘리아스를 통해 받았던 신성한 계시들을 파기해 버렸다. 그는 모임 장소를 폐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축복 가득한 사역을 조기에 끝내버렸다. 그러나 그가 뿌린 선한 씨앗은 다른 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으며, 몇 년 후인 1884년, 일곱 인(七印) 교회 중 한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선교 사명에 충실했던 한 여성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신성한 계시는 1950년 말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신자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으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적 사역이라 칭하신 이 기독교 영성주의 운동은 전국에 걸쳐 수천 명의 신도를 둔 수백 개의 교회를 포괄하게 되었다.

신자들은 일요일 오전마다 소박한 교회당이나 사적인 장소에 정기적으로 모였으며, 한 명 이상의 말씀 전달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은 청중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따라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치유 예배가 열렸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계는 가르치고, 조언하며, 치유하는 방식으로 영적으로 임하셨다. 육체와 영혼에 대한 많은 영적 치유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문서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별다른 일이나 전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고하시고 정하신대로, 1950년 연말을 기해 신적 계시와 하나님의 영계에 대한 계시들이 종료됨에 따라, 영적 사역 내부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따르고 더 이상의 영적 계시를 포기한 교회들과, 반면 이를 따르지 않고 이제 그들의 대변자들을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급 영계와 속이는 영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와 영의 계시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준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불순종하는 교회들은 신실함을 지킨 교회들보다 서민들에게 훨씬 더 큰 매력을 발휘했는데, 신실함을 지킨 교회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소규모 그룹으로 흩어지거나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르침의 구절을 읽고 그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조용한 경건 모임보다 인간의 오락과 자극을 추구하는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50년 이후 한 무리의 남녀들(대부분은 과거의 전도사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르침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책으로 엮어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주로 당시 집회 내용을 속기한 기록을 바탕으로 필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타자기 원고의 사본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 사본들은 요청에 따라 복사본으로 전달되곤 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계시의 원고가 수집되었으며, 그중에서 마침내 366편이『Libro de

la Vida Verdadera』(한국어: 『진실한 생명의 책』) 전집에 수록되도록 선정되었다.

비록 이 원고들이 전체 계시 중 일부, 특히 1950년 이전 마지막 몇 년간의 것만을 대표할 뿐이지만 — 이는 최근에야 "발견된", 한 전직 음성 전달자의 유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미발표 계시 원고들이 담긴 방대한 묶음에서도 입증되듯이 — 이처럼 방대한 수의 계시를 고려할 때,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인류에게 전하고자 했던 모든 주제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2년 독일에서는 이 전집의 첫 번째 독일어 선집이 『제3의 시대(Die Dritte Zeit)』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님의 계시 말씀이 독일어권 내의 제한된 인원에게도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는 『진정한 생명의 책(BUCH DES WAHREN LEBENS)』의 독일어판을 출간하고 있으며,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영적 연구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협회는 계시 원고의 관리 및 보존과 선집의 신판 발행, 그리고 관련 서적 출판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협회는 오늘날에도 이를 본연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으나, 양심의 빛 아래 개인의 자기 책임성을 기초로 하는 종교 운동의 중앙적 지도에는 그 사명을 두지 않습니다.

이 책을 펼치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준비된 인간 도구들— 일부는 세속적인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종종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지혜,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신성한 권위를 말할 나위도 없이—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설득력 있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말씀과 계시를 영적으로 읽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지상 생애 및 사역 기간 동안의 사건들과 계시에 대한 확인과 해설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부분적으로 획기적인 수정을 가하는 풍부한 새로운 영적 통찰을 제시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 마리아의 신성, 내재된 신의 불꽃과 영혼의 영원한 발전을 지닌 인간의 본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 최후의 날 또는 최후의 심판, 구원 교리와 죄 사함, 죽은 자의 부활 및 영생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실천과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준과 목표가 제시되고, 익숙했던 것들이 의문시되거나 폐기되는데, 이는 특히 예배 의식과 성당 건축에 해당한다.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일치한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적 실천이나 과시적인 경건함 대신 — 내면의 기도 생활과 자신의 양심에 따른 개별적인 행동;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비롯된 계산적인 자선 대신 —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행동. 여기서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배려, 존중, 동정, 애정, 위로, 도움, 지원; 편안하고 맹목적인 믿음 대신 — 깨달음과 영적 지식에서 비롯된 생생하고 분별력 있는 믿음.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시에서 먼저 현장에 있던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을 종종 "(나의) 백성", "제자" 또는 "일꾼"이라 부르셨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하셨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분의 말씀은 온 영적 이스라엘, 전 세계의 온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과 인종, 종교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새로운 종교 공동체, 교회 또는 종파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인간과 그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제도를 갱신하고 영성화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인류를 위한 그의 제3의 성서를 거부하는 자는 그분 자신과 그 안에 계시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메시지 자체에 담긴 이 경고의 말씀을 누구나 깊이 숙고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마태복음 25:1-13)와 "왕의 혼인 잔치"(마태복음 22:2-14)에 담긴 경고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는 이 말씀이 꺼져가는 성령의 등불을 위한 거룩한 기름이며, 주님의 상에서 나오는 빵과 포도주, 곧 영혼의 영원한 양식과 위로이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서문 11

서문 14

목차 24

I. 그리스도의 재림 - 제3의 계시 시대 44

제1장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44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서론적 개관 44

희망과 기대 46

성경의 약속들 50

성취된 징조들 52

제2장 - *제3시대의 여명* 54

첫 번째 계시 54

전 세계의 메시지와 징후 55

주님의 선구자로서 엘리야의 사역 58

제3장 –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영적 태양* 63

주님의 오심 63

모든 이의 눈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66

제4장 – *신성한 계시를 통한 가르침* 70

계시의 근원 70

계시의 장소와 계시의 수령자들 71

신성한 계시의 전달 76
계시의 형태 82
계시의 시간적 한계 84
제5장 – *새로운 신의 계시의 이유* 85
하나님의 구원 의지 85
오류와 외형화된 숭배 형식의 제거 87
진정한 삶에 대한 깨달음 91
인간의 발전, 영성화, 그리고 구원 95
제6장 – *제3의 성서와 생명의 대서* 97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지혜의 책 97
제7장 – *영적 가르침의 효과와 의미* 105
계시의 영향 105
새로운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과 희망 108
제8장 –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하느님의 사자들* 117
계시 교회들의 빛과 그림자 117
진정한 제자, 새로운 사도들 124
전 세계와 모든 시대의 하느님의 사자들 127
II. 제1 및 제2 계시 시기의 회고 132
제9장 –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인물들 132
타락의 이야기 132
의지의 자유와 원죄 133

대홍수 134
아브라함의 희생 정신 135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의 사다리 136
요셉과 그의 형제들 138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139
참 하나님을 위한 엘리야의 투쟁 140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141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초기 왕들 142
제10장 – 때가 차매 143
예언적 예언들 143
유대 민족의 메시아 기대 144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145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경배 146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사랑의 유대 146
예수의 지식과 지혜 147
나사렛의 인간 사회가 보인 무지 148
제11장 –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 149
요단강에서의 세례; 광야에서의 준비 기간 149
예수님과 하느님의 일치 150
예수를 기대하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 151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손님으로서의 예수 152
지칠 줄 모르는 설교자 예수 153

예수님의 어린이와 자연에 대한 사랑 154
예수의 가르침 155
예수의 "기적" 156
간음한 여인 159
마리아 막달레나 160
니코데모와 환생 문제 161
예수의 변모 162
고백할 용기의 부족 163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163
작별의 예고 165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166
최후의 만찬 168
제12장 –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 169
예수님의 평생의 수고와 고난 169
유다의 배반 170
예수의 수난 172
저 세상에서의 예수의 구원 사업 179
부활 후 예수님의 현현 181
제13장 - 예수와 그 사도들의 사명과 의미 184
옛 신의 형상과 그 전통에 대한 바로잡음 184
예수의 모범 185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 186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명, 수련 기간 및 시련 187
사도 요한 188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190
사도들의 모범 192
기독교의 확산 193
III. 교회 기독교의 시대 195
제14장 – 기독교, 교회 및 예배 195
기독교의 발전 195
예배 행위 196
성직자 197
성찬식과 미사 200
세례 202
죽은 자를 기리는 일 204
물질적 상징, 십자가, 유물 205
성인 숭배 207
교회 축일 208
잘못된 예배 형식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느님 210
제15장 - 가짜 그리스도인, 교회의 이단과 부패 212
이름만 기독교인 212
불신자와 신앙 광신자 214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과 그 결과 215
기독교의 왜곡과 문제점 218

IV. 법 –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221

제16장 - 신성한 법 222

신성한 법의 힘 222

영적 사역 속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 223

신성한 법칙에 대한 무시와 그 결과 225

최고의 법의 성취 227

제17장 - 하나님을 숭배하는 새로운 방식 229

예배 형식의 발전 229

헌신과 믿음이 없는 겉치레 기도 231

진정한 기도 233

완전한 기도의 네 가지 측면 236

말 없는 자발적인 마음의 기도 238

매일 드리는 기도 240

자성(自省)의 날로서의 안식일 242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43

중보의 축복 246

기도의 필요성 247

기도 생활의 유익한 효과 248

기도의 힘 250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25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255

제18장 - 자비의 행실과 사랑의 핵심적 중요성 259

선행이 가져다주는 소급적 축복 259
진정한 자선과 거짓 자선 261
영적 및 물질적 사랑의 실천 263
사랑의 포괄적인 의미 264
사랑의 위대한 힘 268
V. 하나님의 계시 형태와 역사 269
제19장 – 하나님의 삼위일체 269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일체성 269
하나님의 세 가지 계시 방식 271
창조주 영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 275
그리스도,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277
성령 —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279
제20장 - 하느님의 모성적 사랑, 마리아 280
겸손함 속의 마리아의 지상 삶 280
마리아와 예수 281
마리아의 동정성 282
여성을 위한 마리아의 모범 284
인류의 중재자, 위로자, 공동 구세주이신 마리아 285
마리아의 신성한 본성 288
마리아의 보편적인 광채 289
제21장 – 하나님의 전능, 전재, 그리고 그분의 정의 290
하나님의 능력 290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292
운명의 시련 296
하나님의 정의 297
제22장 – 하나님의 사랑, 보살핌, 그리고 자비 302
하늘 아버지의 사랑 302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 304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겸손 307
하나님의 연민과 함께 아파하심 308
하나님의 용서, 은총, 자비 310
제23장 –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 311
신성한 영감 311
신성한 계시를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기 314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 방식 316
신성한 계시의 필요성 318
신성한 계시의 무한함 319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존 322
VI. 창조 323
제24장 – 영적 창조와 물질적 창조 323
영적 존재들의 창조 323
창조 사업에서 위대한 영들의 활동 324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생각 324
영적 존재들을 위한 물질 세계의 창조 325

인간의 창조 326
낙원에 대한 기억 327
인간의 본성 328
창조주와 피조물의 일체성 328
제25장 - 자연 329
자연의 법칙 329
자연 속의 하나님의 현존 330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영적 세계의 비유 330
자연에 대한 하느님의 자녀들의 권능 331
인간과 자연 333
제26장 - 다른 세계들 336
그리스도의 보편적 빛 336
세계들 사이의 영적 연결 337
다른 세계와 생명체들을 알아가기 338
별들의 운명 340
제27장 - 저 세상 341
영적 삶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 341
"천국"과 "지옥" 341
천국의 음악 346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347
VII 완전함을 향한 발전의 길 348
제28장 - 죽어감, 죽음, 그리고 저편에서의 각성 348

영혼의 불멸 348
이 세상을 떠날 준비 350
다른 세상으로의 이행 352
"죽음의 잠" 354
저 세상에서의 재회 355
자신의 양심을 통한 영에 대한 심판 355
되찾은 영적 의식 360
제29장 - 내세에서 영혼의 정화와 승화 362
양심의 가책, 회개, 그리고 자책 362
균형 잡힌 정의 364
영혼들의 하나님 나라로의 승천 366
제30장 - 환생을 통한 영혼의 발전 370
발전의 법칙 370
"육체의 부활" — 올바르게 이해하기 372
영혼들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 374
과거의 지상 생활과 자신의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 375
영적·정신적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인 사랑 376
환생의 다양한 이유 377
완전함으로 가는 길 378
삶의 보편적 학교 380
환생 교리의 설득력 383
영혼의 환생 경로 383

제31장 - 구원, 구속 및 영원한 구원 387
구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의 바로잡기 387
"천국"은 쟁취되어야 한다 393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 397
모든 영혼을 위한 구원과 구원 399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403
VIII. 인간 405
제32장 - 인간의 화신, 본성 및 사명 405
지구에서의 육화 405
육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영에 의한 인도 407
인간 내에서의 영혼, 정신, 양심의 의미와 역할 409
인간 안의 하나님의 성전 415
제33장 -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결혼과 가정 416
남자와 여자의 관계 417
남자의 본성과 사명 419
여성, 아내, 어머니 422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424
아이들과 처녀들에게 보내는 말씀 426
결혼과 가족 428
제34장 - 의지의 자유와 양심 431
양심과 의지 자유의 중요성 431
의지 자유의 남용 435

양심의 충동에 따르는 것의 필요성 437
의지 자유와 양심 사이의 갈등 438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심의 연마 440
제35장 - 생각과 감정, 의지의 힘 442
생각의 발신과 수신 및 그 영향 442
감정, 소망, 또는 두려움의 힘 445
자기 극복의 부족 446
IX 신성한 지혜의 가르침 447
제36장 - 믿음, 진리, 그리고 깨달음 447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447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449
영적이며 신성한 것에 대한 인식 451
영적 깨달음을 위한 전제 조건 452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의 확장 453
제37장 -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이해 456
성경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해석 456
사도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계시 461
제38장 - 세 가지 계시 시기와 일곱 봉인 시대 463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적 연관성 463
하나님의 세 성서 466
제3의 시대 469
구원사의 일곱 시대 470

제39장 - 세속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475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과 그 실패 475
유대 민족의 세속적 성향과 영적 성향으로의 분열 476
영적 이스라엘 백성 479
144,000명의 선택받고 표식된 자들 482
제40장 – 선과 악의 힘 486
선과 악의 기원 486
교만과 겸손 491
선함,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 492
악, 악에 타락한 인간 494
선과 악의 투쟁 495
유혹과 미혹 497
도덕적 범죄 498
악의 무력함과 덧없음 499
용서의 힘 500
제41장 - 현세와 내세의 연결 501
영적 세계를 통한 영감과 도움 501
혼란스럽고 악의적인 영들 505
영들이 인간을 두고 벌이는 싸움 508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의 연결 510
제42장 - 죄와 속죄, 시련과 고통 514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 514

속죄의 법칙 516
시련과 고통의 원인 517
시련 속의 믿음, 순종, 겸손 520
고통과 아픔의 의미 521
제43장 - 질병, 치유, 그리고 갱신 524
질병의 기원과 의미 524
자신의 힘으로 치유하기 525
인간의 갱신 527
제44장 - 신성한 의미에서의 삶 528
필요한 균형 528
선한 기쁨과 해로운 기쁨 528
축복이자 재앙인 부 530
나눔의 법칙 532
의무와 사명의 이행 533
제45장 - 예정, 삶의 의미와 성취 535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535
삶의 학교 539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 540
X 물질주의와 영성주의 543
제46장 - 길을 잃은 물질주의적 인간 543
인간의 정신적 나태, 무지, 그리고 오만 543
포기와 노력, 책임에 대한 의지 부족 547

인간의 영적 비참함 550
잘못된 세속적 행동과 그 결과 552
제47장 - 물질주의와 영성주의 555
지배적인 물질주의의 영향 555
영성주의의 본질 556
누가 정당하게 영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 557
종교와 교파 속의 영성주의 559
제48장 - 영적 은사와 영성화 561
인간의 영적 능력 561
진정한 영성의 전제 조건과 특징 566
영성의 축복된 효과 567
XI 인류 568
제49장 - 종교와 사법 568
어떤 종교나 교파도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568
종교들의 발전 저해성 571
종교와 과학의 관계 573
세속적 정의의 가혹함과 불공정함 574
인간의 냉혹한 독선 575
필요악으로서의 지상 사법 576
제50장 - 교육과 과학 577
허영과 지식에 대한 자만 577
물질주의적 이성적 사고의 결과 579

하나님과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새로운 과학적 통찰의 영감 584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인정 587
제51장 – 통치자, 권력 남용, 그리고 전쟁 588
세속적인 권력과 위대함에 대한 덧없는 망상 589
사람들과 민족들에 대한 자의적인 권력 행사 590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 593
전쟁의 부도덕함과 무의미함 595
제52장 - 불의와 인류의 쇠퇴 598
강자에 의한 약자의 억압과 착취 598
인류의 타락 601
미성숙한 인류의 뒤집힌 세상 603
XII 인류의 심판과 정화 606
제53장 - 심판의 때가 왔다 606
인류의 씨앗이 맺은 열매 606
심판 속 인류의 정화 608
심판 속의 하나님의 사랑 610
제54장 - 세계관, 종교 및 교회의 투쟁 612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이 도래하기 전의 영적 투쟁 612
지구상의 영적 패권을 둘러싼 투쟁 614
영성 교리에 대한 탄압 615
영적 계시와 영적 치유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 618
제55장 - 심판 속에서의 지구와 인류의 정화 619

정화 심판에 앞서 하나님과 자연이 보내는 경고의 목소리 619
악의 권세와 지배는 깨어질 것이다 622
종말론적 전쟁, 전염병, 재앙 및 파괴 625
자연과 지진해일 626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와 자비 630
심판의 영향 631
XIII 세계와 창조의 변화와 완성 632
제56장 -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의 승리와 인정 633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한 영적 가르침의 전파 633
새로운 말씀의 인정을 위한 투쟁 633
성령의 가르침의 힘 634
전 세계에 퍼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인식 637
제57장 - 모든 영역에서의 회개와 변화 638
새롭고 더 깊은 깨달음 638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한 계몽 641
인간의 변화 643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와 격변 647
제58장 -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과 창조의 완성 649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을 지배하는 힘 649
새로운 인간 650
약속의 땅이자 천국의 반영인 지구 653
창조의 완성 656

회복된 창조의 조화를 찬양하는 노래 657
XIV 선교의 사명 659
제59장 -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 659
책의 제본, 발췌본 및 번역에 관한 지침 659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을 알 권리가 있다 660
영적 가르침의 전파를 위한 지침 662
제60장 -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활동하기 664
새로운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질, 미덕, 그리고 능력 665
말씀을 전할 때의 올바른 태도 671
말씀 선포의 올바른 방식 673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라는 사명 678
세계 선교를 향한 출발의 시기 681
XV. 권면, 경고, 가르침 682
제61장 - 주님의 권면과 경고 682
계명과 명령 682
믿음, 소망, 사랑, 겸손, 확신 685
기도, 연구, 경각, 갱신, 영성화 687
계시 교회들에 대한 경고 689
1950년 이후의 계시 지속에 대한 경고와 거짓 “그리스도 계시” 691
악덕, 위선, 타락 693
잘못된 참회와 잘못된 기대 695
지상의 민족들과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697

제62장 – 멕시코에 모인 청중들을 위한 말씀 699

멕시코에 있는 청중들을 위한 말씀 699

제63장 -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 724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 724

영적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737

제자도와 영성 740

발달 756

정화와 완성 762

이 세상과 저 세상 767

신성한 계시 772

인간과 그 소명 776

악덕, 과오, 타락 785

인류의 정화와 영성화 789

XVI. 예언과 비유, 위로와 약속 791

제64장 – 예언들 791

옛 예언과 새로운 예언의 성취 791

1945년 1월 10일,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내려진 위대한 민족 예언 ... 793

전쟁과 자연재해 — 하늘의 징조 796

멕시코 교회들의 분열에 대한 예언 797

제65장 – 비유, 위로와 약속 798

나쁜 청지기들의 비유 798

사막을 건너 큰 도시에 이르는 비유 800

왕의 관대함에 관한 비유 804
복된 자들과 축복 806
상향 발전을 위한 격려 808
하느님의 부르심 809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소:..... 809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호소: 810
고생하고 짐 진 자들에게 보내는 부르심:..... 810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호소: 811
1866-1950년 멕시코의 신성한 가르침 812

제3의 성서

I. 그리스도의 재림 - 제3의 계시 시대

***제1장**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서론적 개관
1. 태초에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했다. 최초의 인간들은 그 신성한 힘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그 힘이란 곧 모든 피조물의 근원인 영의 본질이었다.
2.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께는 오직 권능과 정의만을 돌렸다. 사람들은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신성한 말씀을 이해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이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일 때 주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했으나, 자연의 힘이 거세게 발현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것으로 여겼다.
3.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품은 무서운 신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믿을 때면, 그분을 달래기 위해 번제와 제물을 바쳤다.
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제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신성한 정의에 대한 두려움, 즉 형벌에 대한 공포가 초기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께 공물을 바치게 한 것이었다. 5. 그들은 신성한 영을 단순히 '하나님'이라 불렀을 뿐, 결코 '아버지'나 '스승'이라 부르지 않았다.
6. 하나님은 정의이시지만, 그 정의는 완전한 정의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로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시작한

이들은 족장들과 최초의
예언자들이었다.
7. 인류는 영적 발전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며
순례를 계속했고,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자녀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신성한 신비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처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9. 완전한 사랑이 사람이 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을
취해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10.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현존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조차
겸손하고, 동정심 넘치며,
사랑스럽게 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수들에게는 강하고 교만한
분으로,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고 무서운 분으로 여겼다.
11.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한
이들이 많았던 것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 그 말씀을 믿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고통과
불치병을 단지 한 번의 어루만짐,
끝없는 연민의 시선, 희망의 한
마디로 치유하시는 그 방식,
새로운 세상, 빛과 정의로 가득
찬 삶에 대한 약속이었던 그
가르침은, 그 신성한 사람이
아버지의 진리이며,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에 사랑할 수도
없었던 그분의 신성한 사랑임을
깨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지워질 수 없었다.
12. 그 지극한 진리의 씨앗은
인류의 마음에 영원히 뿌려졌다.
그리스도는 씨를 뿌린 이셨고,
여전히 그 씨앗을 가꾸고 계신다.
그 후 그분은 열매를 거두시고

영원토록 그 열매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그분은 더 이상 "내가 배고프다"거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니, 마침내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이 태초부터 그들을 사랑해 오신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 제자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느냐? 그분 자신이시다.

14. 인류여, 다시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다. 나를 알아라. 내가 드러내는 모습이 소박하다고 해서 나의 현존을 의심하지 말라. 나에게는 오만함이 있을 수 없다.

15. 내가 세상에 살았던 그 시절의 삶을 통해 나를 알아보라.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것처럼 겸손하게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296, 4-16)

희망과 기대

16. "제2시대"에 내가 떠난 후, 나를 믿는 신앙을 간직한 이들 사이에서 대대로 나의 재림이 기대되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신성한 약속이 전해졌고, 나의 말씀은 나의 귀환을 목격하고자 하는 갈망을 살아있게 했다.

17. 모든 세대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서 성취되리라는 기대 속에, 자신들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세대라고 믿었다.

18.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의 약속은 점점 더 밀려났으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356, 4-5)

19. 세상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은 그들에게 닥친 나의 공의의 온전한 무게를 느끼고 있고, 너희를 부르는 나의 빛과 나의 목소리가 온 인류에게 느껴지고 있다.

20. 사람들은 나의 임재를 느끼며, 내려와 그들 위에 머무는 나의 보편적인 광선을 감지한다. 그들은 이 작품*을 알지 못하고, 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음에도 나를 예감하며, 그들의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려, 나에게 묻는다. "주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덮친 이 시련과 고통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주님은 이 세상의 탄식을 듣지 못하시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앙 단체와 종교 공동체에서 내 자녀들의 영이 일어나 나를 찾고, 간구하고, 묻고, 기다리고 있다. (222, 29)

** 1866년 멕시코에서 선구자 엘리아스를 통해 시작된, 말씀과 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

21. 사람들은 나에게 묻고 말하되, "주님, 주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다른 때에는 우리 지상 세계까지 내려오셨으면서도, 지금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은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불경함이 이제 그토록 커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잃어버린 자, '눈먼 자', '나병 환자'를 찾으셨는데 — 지금 세상은 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22. 주님은 사도들에게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그리고 오실 때의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징조를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23. 보라, 사람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의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며, 마침내 잠시 나를 보게 되더라도 나를 부인한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며, 나를 바라는 자들을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다.

24. 그러나 진실로, 이 시대에 내 계시의 표징들은 컸으니, 심지어 강물처럼 쏟아져 땅을 적시는 사람들의 피조차도, 성령으로서 너희 가운데 계신 나의 때를 알리는 표징이 되었다. (62, 27-29)

25. 아무도 내 임재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미 예수를 통해 나는 진리의 영으로서 내 출현을

예고할 사건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나는 내 오심이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했으니, 결코 오지 않을 물질적인 현현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도록 하라.

26. 유대 백성을 보라.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가 그들이 기대하는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메시아는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7. 인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나를 기다리기보다, 너희의 믿음에 따른 상상에 따라 나를 계속 기다리기 위해 나의 새로운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99, 2)

28. 세상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나는 내 오심이 영적인 것이 될 것임을 너희에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나를 맞이할 준비를 결코 하지 못했다.

29.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 그들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 그 누구보다 비천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기적들을 보고, 세상에 태어나 자라 죽으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제2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으로 오지 않는 한, 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30. 내가 영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증거들은, 그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주의가 어떤 이들의 눈앞에 마치 어두운 눈가리개처럼 드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31.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으로부터 기적을 받아 그분의 현존이나 존재를 믿고 싶어 하는가.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땅에는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구유가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나를 죽게 하는 또 다른 골고다도 없을 것이다. 이제 참된 생명으로 부활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느낄 것이며,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완고하게 머무르는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내가 죽는 것을 느낄 것이다. (88, 27-29)

32. 보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경전을 연구하고, 선지자들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관해 하신 약속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지.

33. 그들이 "스승이 가까이 계시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혹은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분의 재림의 징조는 분명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이는 것을 들어보라.

34. 어떤 이들은 나를 찾고 부르며, 어떤 이들은 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은 영 안에서 나의 오심을 예감한다.

35. 아, 만일 모든 이에게 이미 그와 같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만일 모든 이가 지극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고 있었다면! (239, 68-71)

36. 보라, 모든 교파와 종파의 사람들이 내 오심을 알리는 징조를 발견하리라는 희망으로 시간과 삶과 사건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로, 내가 이미 오랫동안 나를 드러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러한 방식의 계시가 끝날 것임을 알지 못한다.

3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하노니, 나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을 직접 목격한다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단호히 나를 거부할 것이다.

38. 그들에게는 오직 증언들만이 전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내가 내 자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결국 믿게 될 것이다.

39. 너희 또한 마음속으로 나를 조바심하며 기다렸으나, 나는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이 시대의 나의 일꾼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255, 2-4)

성경의 약속들

40. 나는 예수님을 통한 계시에서 성령의 오심을 너희에게 예고하였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성(神性)으로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라고 믿었으니, 내가 성령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인간 지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그 시기를 준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8, 4)

41. 누가 내 새로운 계시들을 보고 놀라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옛 시대의 족장들은 이미 이 시대의 도래를 알고 있었고, 다른 시대의 선견자들은 그것을 보았으며, 예언자들은 그것을 예고했다.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약속이었다.

42. 내가 제자들에게 나의 재림을 알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실지를 알려 주었을 때, 그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진 지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었다.

43. 이제 너희는 그 시대의 흐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누가 이에 놀라겠는가? 오직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자들, 혹은 내 약속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자들뿐이다. (12, 97-99)

** 여기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어둠"이라는 용어는 "무지", "무식"을 의미하는 반면, "빛"은 그 반대 의미로 "지식", "깨달음"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다.*

44. 내가 너희가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너희가 내 계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빠질 오류를 예견하였기에,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어 많은 비밀을 밝히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내 재림을 예고하였다.

45. 왜냐하면 내 예언의 말씀의 핵심에서, 나는 이 시대에 시나이 산에서처럼 번개와 천둥 속에서 오지도 않을 것이며, '제2의 시대'

때처럼 사람이 되어 내 사랑과 말씀을 인간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 지혜의 광채로 너희 영에게 임하여, 영감의 빛으로 너희 이성을 놀라게 하고, 너희 마음이 이해하는 한 목소리로 너희 마음의 문 앞에서 부르짖으리라 하셨다. 그 예언과 약속들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46. 내 빛을 보고 내 영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와서 가르치고 진리를 드러내겠다고 예고했던 바로 그 영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너희가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하다. (108, 22-23)

47. 두려움이나 부지런함이 부족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세의 율법만을 따르는 이들이 많으며,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약속된 위로자 성령을 기대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내려왔으나, 그들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48. 천사들이 이 계시들을 알렸고, 그들의 외침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웠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차렸느냐? 내 임재를 증언하기 위해 너희에게 온 것은 바로 영계이다. 기록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된 파멸은 인간의 오만과 허영을 꺾을 것이며, 그렇게 겸손해진 인간은 나를 찾고 나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179, 38-39)

49. 그 당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할 전부는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하려면, 내가 먼저 떠나고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 내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나는 시련의 때에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노라." 그러나 그 위로자, 그 설명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너희를 깨우치고, 과거의 가르침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다. (339, 26)

50. 지혜 안에는 너희 마음이 갈망하는 치유의 연고와 위로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한때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위로의 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길을 멈추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263, 10-11)

성취된 징조들

51.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내가 현재 인류에게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징조를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는 자신의 삶과 노력을 물질적 진보에 바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무자비하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 속에서 그들은 마치 눈먼 자처럼 살아가며, 방향을 잃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며, 새로운 새벽의 밝은 빛을 볼 수 없고,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52. 이 인류는 내가 시대를 통해 그들에게 베풀어 온 계시들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가르침과 말을 더 믿어 왔다. 너희는 과연, 아버지께서 그 의로움으로 너희가 걸음걸음마다 목격하는 것보다 더 큰 표징들을 보내시어,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서 나의 계시를 선포할 때라고 예언된 시기임을 너희가 느끼고 하게 믿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이제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때때로 너희에게 '내 목소리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93, 27-28)

53.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의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나는 옛날에 예언되었던 표징들, 곧 나의 재림을 예언했던 것들이 온 땅에 감지되도록 하셨다.

54. 그러므로 이 복음이 열방에 전해질 때,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 전해졌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조사하게 될 것이며,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내 재림에 관해 예고되고 약속되었던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법만을 가지신 분께 합당하게, 충실히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51, 49)

55. "제2의 시대"*에 나는 사도들에게 나의 새로운 계시를 알렸고, 그들이 그 시대를 예고할 표징이 무엇인지 묻자, 나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주게 될 증거들도 알려 주었다.

**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3개의 큰 단계, 시대 또는 "시대"로 나누시는데, "제2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제38장 참조).*

56. 전조들은 마지막까지 나타났으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때임을 알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내가 너희와 나누는 이 영적 계시가 진실이 아니라면 — 왜 표징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기대하던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셨겠느냐? 아니면 너희는 유혹자가 너희를 속이기 위해 온 창조물과 자연의 법칙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느냐?

57. 나는 너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세주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때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신을 입은 영혼은 그 발전과 깨달음, 경험을 통해 이미 충분히 깨어 있어, 아무리 많은 속임수를 동원한다 해도 어둠을 빛으로 포장하여 그들에게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5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 길에 몸을 맡기기 전에, 원하는 만큼 검증해 보라! 이 말씀은 모든 이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내가 그 일부를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 따로 남겨 둔 적이 결코 없음을 깨달아라. 이 저작에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가르침도 숨기려 하는 책이 없음을 보라.

59. 그러나 나는 그 "두 번째 시대"에 나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도 나와 함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가 이

시대에 이를 마음에 새기도록 처녀들의 비유를 가르쳤다. (63, 79-80)

60. 징조들과 재앙들이 닥쳤고, 내가 회당에도, 그 어떤 교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 세상은 내가 내 말씀을 어길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는가? (81, 41)

제2장 *- 제3시대의 여명*

첫 번째 계시

1. 오늘은 기억의 날이다: 오늘과 같은 날에, 나는 나의 새로운 지시와 계시를 선포하기 위해 나의 첫 번째 대변자들을 성별하였다. 엘리야의 영이 로케로하스*를 통해 빛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이 곧 그 길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 이 첫 번째 대변자의 이름은 "로케 로하스"라고 발음한다.*

2. 그 순간은 엄숙했으며, 참석자들의 영혼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떨었다. 마치 시나이 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떨었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스승의 우측과 좌측에 영적으로 나타났을 때 타보르 산에서 예수의 변모를 목격한 제자들이 떨었던 것처럼 말이다.

3. 1866년 9월 1일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자, 새로운 날의 여명이었다. 인류에게 다가온 "제3의 시대"의 시작이었다.

4.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주신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끊임없이 성취되어 왔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여러분, 그 예언들과 약속들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들이 선포되고 그 약속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 중 누가 이 땅에 있었겠습니까? 오직 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이제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5. 내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나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그
"구름"에 대해 알고 있는가?
진실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구름 위"에서 다시 오리라
하였고, 나는 그것을 성취하였다.
1866년 9월 1일, 내 영은
상징적인 구름 위에 올라와
너희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하게 했다. 그 후,
1884년에 나는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

6. 나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 줄기 빛 속에
깃들어 인간의 이해력에 그 빛을
내려놓기 위해 왔노라. 이것이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 뜻으로 택한 수단이며,
나는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 품는
믿음을 너희에게 인정해 주리라.

7. 모세가 너희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구원과
자유로 가는 길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니라. 이제
너희 귀에 닿는 것은 이
피조물들의 인간적인
목소리이며, 내가 현존하는
신성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불완전한 존재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에, 너희가 이를
믿는 것은 공로가 되는 일이다.
(236, 46-50)

8. 1866년에 이 사역의 제자인
최초의 영성주의자 공동체가
생겨났다. 내 영의 빛 아래서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은 그 첫
제자들은, 이제 너희가 그 완결을
앞두고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메시지의 광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55, 10)

전 세계의 메시지와 징후

9.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와야 했던 엘리야는
1866년에 처음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 그
계시와 시기가 일치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징후와
사건들을 탐구하는 데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 보지 않겠는가?
다시금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즉
고대에는 마법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하늘이 신성한 부르심인

징조를 주었음을 증언할 것이다. (63, 81)

10. 이 말씀을 듣는 이 지상의 한 지점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임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나의 계시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11.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계시를 알리는 선구자로서 너희 가운데 나타났던 엘리야는, 너희가 사는 이 땅에만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구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다.

12. 사방에서 내 도착을 알리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뒤흔들린 자연은 땅을 뒤흔들었고, 과학은 새로운 계시 앞에서 경탄했으며, 영적 세계*는 사람들에게 다가왔으나, 그럼에도 인류는 새로운 시대의 전조인 그 외침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이 표현은 더 높은 저세상 차원의 거주자들, 즉 하나님의 영계 속 빛의 영들을 가리킨다.*

13. 신성한 빛의 홍수가 쏟아져 내려,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에 물들어*, 영혼의 완성과 지상 생활의 도덕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는 거리가 먼 채 — 그 빛을 오직 자신에게 왕좌와 영광, 육체의 안락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동료 인간의 생명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만 사용했다. 그들의 눈은 내 빛의 강렬함에 눈이 부셨고, 그들의 허영심은 그들에게 파멸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바로 이 빛을 통해 진리를 찾고, 길을 발견하며, 구원받을 것이다.

** 이는 "영적인" 것의 반대, 즉 오직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된 인간의 삶과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14. 이 빛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을 신성한 메시지로 받아들인 이들은 양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게 하고, 그들의 행위에 지침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고,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5. 여러 종파와 교파의 대표자들은 나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마음과 자존심, 그리고 허영심이 나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땅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느끼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 고독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임과 형제단, 연합체가 생겨났다. (37, 76-81)

16. 내가 이미 떠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재림을 준비하려 애쓰는 종교 공동체들이 있다.

17. 나는 모든 이를 부르셨고, 진실로 나의 부르심과 내가 현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문은, 나를 증언하는 증거들과 함께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에 전해졌다. 회개한 죄인들, 믿지 않던 자들의 회심, 부활하는 "죽은 자들", 치유받는 불치병자들, 그리고 악령에서 해방되는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그것이다.

18. 그러나 나는 많은 이들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명성에 취해 있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너무 겁을 먹어 진리의 영으로서 나의 계시를 알리기를 꺼려했다. 나는 내게로 와서 나의 사랑을 신뢰한 모든 이를 받아들이고 가르쳤다. (239, 17-19)

19. 다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로 올 것이며, 그들은 너희가 이 시대에 목격한 영적 사건들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와 예언들에 대해 간절히 묻게 될 것이다.

20. 이는 세계 여러 곳에서, 나의 신성한 광선이 서쪽의 한 곳에 내려와 이 시대의 인류에게 말씀하신다는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 때가 되면, 너희는 다른 민족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오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주요 종교의 지도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276, 45)

22. 세상은 나의 새로운 현현에 얼마나 무관심한가! 깨어 나를 기다리는 자는 얼마나 적고, 잠들어 있는 자는 얼마나 많은가!

23. 나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 시대에 내 현현의 실제적인 형태를 모두 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오래된 신앙관의 영향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내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으며, 오직 극소수만이 진실을 짐작하고 내 오심이 영적인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24.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떤 형상을 취할지, 어느 시각이나 어느 날에 지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또 어느 장소에 나타날지 궁금해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특정한 모습이나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스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의 영이신 그분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25. 이 메시지가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환희의 순간이 될 것이니,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예감과 믿음이 확인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내 메시지의 진실을 부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메시지가 자신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일이나, 그것이 드러날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279, 41-44)

주님의 선구자로서 엘리야의 사역

26. 나는 "제3의 시대"*에 엘리야를 돌아오게 하였으며, 스승인 나는 그 "제2의 시대"에 그를 예고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오리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보다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 제38장 참조.*

27. 스승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므로, 엘리야는 "제3의 시대"에 나보다 먼저 와서 영혼들을 깨우고, 성령의 시간이 문을 열었음을 그들에게 예감하게 하였으며, 모든 영혼에게 눈을 뜨고 제2의 시대에서 제3의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 "제3의 시대"에 엘리야의 계시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나는 그를 의로운 사람, 로케 로하스를 통해 드러나게 하였다.

28. 엘리야는 저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 사람을 깨우치고, 그에게 영감을 주며, 그를 굳건하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길을 인도했다.

29.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사람들 중에서 로케 로하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고, 나의 자비로 준비된 그의 영혼을 보냈다. 나는 그에게 나에 의해 준비된 육체를 주었으며, 너희는 그가 겸손했음을, 아버지가 그의 겸손과 덕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음을 알고 있다. 그는 예언자이자 대변자, 선견자, 그리고 지도자였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백성들에게 빛나는 본보기를 남겼다.

30.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으며, 예언자 엘리야처럼 박해를 받아 산 정상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만 했다.

31. 그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스승과 마찬가지로, 그를 믿고 따르며 곁을 지킨 이들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의 손에서는 치유의 힘이 흘러나와 기적을 행했는데,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입술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의 입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충만한 조언을 내뱉었다. 32. 그의 정신은 위대한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의인과 사도, 예언자들처럼 황홀경에 빠질 수

있었다. 그의 영은 이 세상과 육신을 떠나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 겸손히 주님의 비밀 보물창고 문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러한 승천을 통해 엘리야의 영은 스승의 광채가 닿기도 전에 첫 증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다. (345, 57-58)

33. 로케 로하스는 믿음과 선의로 가득 찬 남녀들을 한데 모았으며, 그곳, 그의 첫 모임의 품 안에서 엘리야는 사자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선지자 엘리야라. 타보르 산에서 변모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는 첫 제자들에게 첫 가르침을 주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영성화의 시대를 알리고 곧 신성한 스승의 광채가 내려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34. 어느 날, 로케 로하스의 소박한 모임 장소가 이 남자의 말씀을 믿는 추종자들로 가득 찼을 때, 엘리야는 그의 대변자의 이성을 깨우치기 위해 내려왔고, 나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 신자들 중 일곱 명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들은 일곱 인을 대표하거나 상징할 자들이었다.

35. 그 후, 내가 계시하겠다고 약속한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그 일곱 명의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순결한 신랑의 도래를 기다리며 깨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 마음은 다미아나 오비에도의 것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끈기와 준비를 보상받아 가장 먼저 신성한 광선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처녀였다.

36. 다미아나 오비에도는 여섯 번째 인*을 대변했다. 이는 여섯 번째 인의 빛이 바로 이 시대를 비추는 빛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1, 6-9)

** 요한 계시록에 기반한 이 용어는 '일곱 봉인' 중 여섯 번째 봉인을 가리키며, 이는 구원 역사상의 세 시대 내 7개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제38장 참조).*

37.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의 현존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는 다시 한번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었고, 주님의 임박한 오심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시켰다. 그리하여 여섯 번째 봉인이 풀려 그 내용이 드러났고, 정의와 빛의 강처럼 인류 위에 쏟아져 내렸다. 이와 같이 많은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었다.

38. 엘리야는 예수와 모세처럼 너희 영의 눈을 밝혀 주어, 너희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모세는 너희에게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너희에게 이웃에 대한 연민을 더욱 더 갖도록 명하셨으며, 곧이어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셨다. (81, 36-37)

39. 인류를 감싸고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영혼 속에 빛이 비치면, 그들은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느낄 것이다.

40.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에, 그의 영이 인간의 이해력을 통해 드러나야 했고, 그는 예언자 엘리야의 그 상징, 즉 구름 위에서 불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들 앞에 나타나야만 했다.

41. 엘리야는 이 시대에 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선구자로 왔다. 그는 예언자로서, 투쟁과 시련이 따르지만 동시에 그의 계시의 지혜가 있는 새로운 시대를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 왔다. 그는 빛의 수레를 타고 와서 너희가 그 위에 올라타도록 초대하며, 구름 위로 너희를 들어 올려 평화가 지배하는 영적 고향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를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초기 시대'에 백성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를 따르라. 그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그를 본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 (31, 58-59)

42. 인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권능의 영인 엘리야는 언제나 나의 선구자였다. 오늘 그는 다시 한번, 나의 대변자로서 봉사해 온 표식 받은 자들*과 모든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

** 표식 받은 자들(스페인어: marcados) 또는 인침 받은 자들(요한계시록 14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그분으로부터 이마에 신성한 삼위일체의 표식을 받은 이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39장 마지막 단락 참조)*

43. 너희가 내 뜻을 알기 위해 준비하고 내 가르침을 연구하면, 엘리야가 너희를 도우러 와서 너희의 버팀목이자 친구가 될 것이다.

44. 엘리야는 모든 존재를 비추고 인도하며 나를 향해 이끄는 신성한 광선이다. 그를 너희의 선구자이자 중재자로 사랑하고 숭배하라. (53, 42-44)

45. "제3의 시대"의 선구자이자 전령인 예언자 엘리야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죄인의 흉터를 자신의 망토로 가리며 그가 새롭게 되기를 희망한다. 엘리야는 무지와 죄, 광신주의, 그리고 인류의 물질주의로 인해 생겨난 어둠과 싸우기 위해 그의 무리와 군대를 무장시키고 있다. (67, 60)

46. 이제 이미 준비되고 깨어난 모든 이의 임무는 세상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해 약속된 엘리야가, 한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물질주의에 노예가 된 지상의 민족들을 파라오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현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47. 너희 이웃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으며, 그의 현존은 영적 차원에 있었고, 모든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임을 전하라.

48. 너희의 목자는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참된 길로 되돌려 보내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니, 그 길이 영적인 영역에 속하든, 도덕적인 영역에 속하든, 혹은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든 상관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민족들은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은 정의와 사랑의 법칙으로 연합하여, 그 이해와 형제애의 결실로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합된 그들은 타락과 물질주의, 거짓과 싸우는 전장으로 이끌려 갈 것이다.

49. 이 싸움 속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불멸과 평화를 말하는 삶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는 것을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괴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무지와 이기심, 그리고 물질적·영적 몰락과 고통을 초래한 타락한 정욕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0, 34-36)

50. 엘리야는 하나님의 광선이며, 그 빛으로 너희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의 시대인 이 시대의 속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며,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광야를 인도할 것이다. (236, 68)

제3장 –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영적 태양

주님의 오심

1. 나는 새로운 발견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시대에 인류 가운데 임재하고 있으며, 너희가 한때 내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겸손함으로 너희 가운데 내 임재를 느끼게 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구간의 궁핍함 속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다. 아니, 더 이상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이 육신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이며, 보편적이며, 무한하다.

3. 만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룬 모든 것이 의롭고, 허용되며, 선한 것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내가 다시 내려와

너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류가 나에게 바치는 모든 행위가 선한 것은 아니다. 많은 과오와 불의, 많은 일탈과 악행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일에 가장 깊이 몰두해 있을 때, 나의 자애로운 사랑이 그를 깨우쳐 그가 잊고 있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다.

4. 영과 영으로 나를 들을 수 없었던 물질화된 인류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나는 인간의 지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이용해야만 했다.

5. 내가 너희에게 내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러하다. 너희가 주님과 영과 영으로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높이 올라갈 수 없었기에, 나는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다. 즉, 너희가 아직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곳, 신성한 곳에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뇌 속에 자리 잡은 너희의 이성 기관을 사용하여, 나의 신성한 영감을 인간의 말과 물질적인 소리로 옮겨야만 했다.

6. 인간은 더 넓은 지식이 필요하며, 지혜를 전하기 위해 인간에게 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일 너희가 이 대변자들의 이성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짧은 계시를 위한 선택된 수단 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매우 위대하다. 너희는 내 계시가 사람들에게 호화롭고 성대한 의식을 동반하여 전달되기를 더 바랐을지 모르나, 그러한 것들은 인상을 주었을지라도, 실상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된 빛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7. 내가 번개와 폭풍 속에서 내려와 내 권능을 직접 느끼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가

임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는가! 그러나 그때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시 깃들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생각도 되살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사랑의 감정이 그분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변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이시지만, 그 힘으로 너희를 정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힘으로 너희를 지배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다른 힘, 곧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8. 오늘날 우주에 말씀하시는 분은 신성한 영이시다. 그분께서 다른 시대에는 너희가 명확히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에 빛을 비추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날의 여명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를 거짓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너희의 의심을 없애어 너희의 영혼과 이성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의 본질과 내 법의 공의를 알게 된 후, 너희는 너희의 관념이 너희에게 부과하고, 진리에 대한 미미한 인식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왔던 한계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10. 더 이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너희가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자 할 때만, 너희 양심이 그 길을 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에게 온전한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에게 주어진 부분만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11. 백성아: 내 오심이 전쟁과 거센 자연의 힘, 전염병, 그리고 혼돈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되었다고 해도,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임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2. 이제 내 재림에 대해 말해졌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세상이 죽음과 씨름하고, 지구가 죽음의 신음 속에서 떨며 흔들리면서 새로운 인류를 위한 길을 닦아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온다. 그러므로 "제3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의와 형제애, 평화를 품고 이를 고무하는 사랑의 부르심이다.

13.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때 그분의 제자들 안에서 싹트었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났다. 그분의 가르침은 퍼져 나갔고, 그 의미는 온 세상에 전해졌다. 오늘날의 이 가르침 또한 그렇게 퍼져 나갈 것이며, 이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296, 17-27, 35)

모든 이의 눈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1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니, 다시 돌아오리라." 그 후, 그들의 스승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구름 위"에서 오시며, 빛의 광선을 땅으로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15. 이제 내가 "구름 위"에 있으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나의 신성을 전하는 사자이자 너희의 훌륭한 조언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영적 존재들이다. 그 빛줄기들은 너희에게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주고, 모든 지성을 지혜로 충만하게 하는 나의 말씀이다.

16.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바로 내 임재를 느끼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142, 50-52)

17. 인간은 자신의 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모든 이가 나의 현존을 느낄 것이다.

이는 내가 이미 그 당시 너희에게, 때가 되면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18. 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내 말씀과 옛날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고된 바로 그 시대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의 감각과 능력을 통해 나를 보게 될 시대이다.

19. 그들이 나를 보았다고 말하기 위해 나를 인간의 형상으로 제한하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영이 나를 느끼고 그들의 이성이 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나를 보았다고 온전히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지성은 너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보게 하기 위해 내가 나의 현존을 인간의 형상 이나 어떤 상징적 형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21. 그 "제2의 시대"에 나를 보거나 나와 함께 걸었던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는가. 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이 영 안에서 나를 바라보았고, 나의 빛을 통해 나를 알아보았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나의 현존을 기뻐했다.

22. 너희의 눈을 모두 뜨고, 너희의 믿음을 통해 너희가 빛의 자녀들임을 증명하라. 너희 모두는 나를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믿음이 필수적이다. (340, 45-51)

2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인류가 사랑이 없고 의와 선을 저버린 탓에 나를 더욱 대적한다면,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길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리라.

24. 그러면 너희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박해했던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깨달음을 얻어, 선과 사랑과 정의의 길에서 나를 따르러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5. 그들에게 내가 말하리라. "여행을 하는 자들아, 잠시 멈춰 이 수정처럼 맑은 물의 샘에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지운 힘든 삶의 여정에서 휴식을 취하라. 너희의 근심을 내게 맡기고, 내 시선이 너희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라. 내가 너희를 은총으로 채워 주고 위로해 주려 함이니라." (82, 46)

26. 나의 사랑은 너희 마음의 가장 섬세한 현을 떨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양심과의 조화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신성한 교향곡을 듣게 할 것이며,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영적 형상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가장 완전한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눈이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너희 모두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었으나, 각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내가 내 모습을 제한할 것임을 너희에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를 오를 때, 너희는 틀림없이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28. 지금 어떤 식으로든 나를 상상하려 하지 마라. 생각해 보라. 너희의 영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본질이며 빛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 너희 주님의 우주적 영은 과연 어떤 형상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헤아릴 수 없는 신비는 나의 '신성한 지혜의 책' 안에 두어라. (314, 69-70)

29. 나의 "제2의 시대"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며, 나의 영적 군대가 나와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인류는 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다.

30. 그러므로 모든 종교 공동체는 자기들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한때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그를 몽상가로 여겼던 바로 그
자들이다.

31. 오늘 나는 내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모든
영광을 뵙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땅과 그
주민들은 정화될 것이며,
영혼의 미덕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행복이
되어, 너희에게 끝이 없는
무한한 '낮'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기적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너희 자녀들이 내 영과
대화하며, 죄에서 벗어나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가? (181, 74, 81)

32. 만일 인류가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의
예언들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다면, 그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메시아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셨던 '두 번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지금 내가
영으로 오신 이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33. 내 가르침의 핵심은 두
시대 모두에서 동일하다.
그것은 너희가 이 생을 비록
덧없는 곳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대하며, 진정한
형제애의 온기를 서로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34. 또한 영혼이 이 생을 마친
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그 세계들, 즉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내 소망은, 너희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낯설게
느끼지 않고, 너희의 영성화와
내면의 깨달음이 너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마치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가 이미
이곳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소망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82, 9-10)

35. 나는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이다. 내가 두드리는데 너희는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문을 열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나는 마치 마을에 들어와도 자신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방랑자 같고, 낯선 땅에 들어섰으나 자신의 언어로 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 같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러하다. 언제쯤 너희는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인가? 오, 사람들아, 언제쯤 너희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제들에게 알아보였던 것처럼 나를 알아볼 것인가? (90, 1)

제4장 – *신성한 계시를 통한 가르침*

계시의 근원

1.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 계셨던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며, 너희가 오늘날 성령을 통해 알고 있는 그 말씀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이요, 법이요, 메시지가요, 계시가요, 지혜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것을 받고 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오직 한 말씀, 오직 한 성령만이 있기 때문이다. (13, 19)

2. 너희는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빛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말씀 속에 있다. 그 근원은 선(善)에 있으며, 신성한 사랑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우주적 빛에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모든 빛의 한 줄기나 불꽃이며,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이 그 힘으로 진동하고, 맥동하며, 끊임없이 궤도를 그리게 하는 무한한 힘의 일부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성한 광채라고

부르는 것이며, 영혼을 비추고 생명을 불어넣는 신성한 영의 빛입니다. (329, 42)

3. 지금 이 순간, 언제나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신성한 약속, '제2의 시대'에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분, 인간의 말씀이 되신 신성한 말씀; 사랑과 빛과 지혜의 영이시며, 한 줄기 빛으로 제한되어 인간의 영과 영혼과 이성을 감싸며, 그로 하여금 내 생각을 전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90, 33)

4. 나는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모욕당하며, 피고인으로 몰린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제2의 시대"에 예수 안에서 내게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희에게 온다.

5. 너희는 나를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나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돌아온다. 나는 위선이나 거짓의 외투 뒤에 내 영과 진리를 너희 눈앞에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알아볼 수 있으려면, 먼저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29, 27-28)

6.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스승이 계시니, 곧 사람들이 갈릴리의 랍비라 부르던 그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유효한 가르침, 곧 사랑의 가르침을 준다. 오늘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잔치는 영적인 것이며, 빵과 포도주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오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8, 33)

계시의 장소와 계시의 수령자들

7. 내가 아버지의 "말씀"임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받는 신성한 본질은 창조주의 영으로부터 오는 빛이며, 내가 너희 각자에게 내 영의 일부를 남겨 두었음을 기억하라.

8. 그러나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를 둘러싼 가난함과, 너희가 모인 이 공간의 소박함을 보며,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게 묻는다. "스승님, 왜 이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합당한 화려한 제단과
엄숙한 의식을 드릴 수 있는 그
거대한 성전이나 대성당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9. 스승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내가 대답하노니,
사람들이 나를 이 가난으로 이끈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가 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너희
도시의 가난한 교외에 있는 이
소박한 거처를 선택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물질적인
공물이나 겉으로 보이는 제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임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와 겸손을 설교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 안에서 영성을
찾게 하려 함이라. (36, 24-25)
10. 어떤 이들은 이 모임
장소들의 초라함과 소박함,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매개자들의 평범함을 들어 내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한다면,
그분이 결코 화려한 의식이나
경배, 혹은 부를 추구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1. 이 장소들은 내가 당시
태어나셨던 마구간과
짚더미만큼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다. (226, 38-39)
12. 내가 이 나라를 나의 새로운
계시를 위해 마지막 순간에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이 땅, 이 민족, 너희의
영혼은 내가 준비한 것이며, 나의
임재의 시기 또한 나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었다.
13.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곧 이성과 영혼을 순수하게
간직한 이들 가운데서 나의
계시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나는 모든 이가 내게로 오도록
허락하였으니, 나의 식탁에는
차별도 특혜도 없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내려진 나의 말씀은
형식이 단순하고 겸손하여
너희가 이해하기 쉬웠으나, 그
뜻은 맑고도 깊어 너희 영에 깊이
스며들었으니, 이는 내가 모든
지식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그 비밀과 신비는 너희 무지의 산물일 뿐이다. (87, 11-12)

14. 나를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내 일을 마치 나무처럼 다루어, 첫 가지들을 잘라내어 여러 지역으로 옮겨 심었다. 어떤 이들은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했으나, 다른 이들은 길을 잃었다.

15. 초라한 모임 장소의 그늘 아래 모인 무리들은 소수였다. 그러나 그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무리가 커지자, 나는 그들에게 연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모두가 한 분 스승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가르침을 동일한 방식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씨앗이 "일꾼"*들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들" 비유에 대한 언급.*

16. 새로운 언약의 영적 성막 앞에서 무리들은 순종과 복종, 그리고 선의를 맹세했다. 그러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나무 가지를 휘두르자, 어떤 이들은 약해졌으나 다른 이들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새로운 "일꾼"들에게 "밭"을 가꾸는 법을 가르쳤다.

17. 이 계시의 위대함을 깨달은 몇몇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어 줄 지식과 권능을 얻기 위해, 내 뜻보다 더 깊이 내 비밀에 파고들려 했으나, 곧바로 내 공의 앞에 서게 되었다.

18. 이 사업의 위대함을 그 순수함과 소박함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다른 이들은, 내 계시들에 엄숙함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종파와 교회의 의식과 상징, 예식을 차용하였다. (234, 27-30)

19. 이 계시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 비록 이성을 연마한 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 중에서도 불신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영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20. 이 계시를 부정하려는 논리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아무것도 내 메시지의 흐름을 막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 일을 더 많이 반대할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불타올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21.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신의 권능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2. 백성들이 이 모임 장소들 안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임재와 보호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하였으며, 나는 그들의 믿음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329, 28-30, 37)

23.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도 무리가 생겨났으니, 그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녔으나, 나를 따르기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내 현존을 믿기 위해 직접 보아야만 했던 새로운 도마도 있었고, 비록 나를 믿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나를 부인할 새로운 베드로도 있었으며, 돈과 아첨을 위해 내 말씀과 진리를 팔아 나를 배반할 새로운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었다.

24. 이 백성을 이루는 무리는 끊임없이 늘어났고, 도시와 지방,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 백성 가운데서 진리와 의의 사도들,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열정적인 헌신적인 일꾼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예언자들이 일어났다. (213, 72-73)

25. 나의 새로운 계시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무지와 오류, 그리고 나의 이전 계시들에 대해 사람들이 내린 잘못된 해석을 없애기 위해, 계시의 장소와 전달 방식을 바꾸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정오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을 보다가, 그 후 서쪽에서 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내 영의 빛은 시간이 흐르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왔으니, 이는 너희가 나의 영광과 능력을 특정 장소나 사람, 혹은 인종에 국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10, 9)

26. 소수만이 나를 듣는 것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니,

그들은 내일 동료들에게 그에 대한 증언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면, 대다수는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 오지 않았을 것임을 나는 안다. 그들은 나를 부인하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27.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하찮은 곳들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의 씨앗을 싹트게 한다. 나는 순수한 마음들을 한데 모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들이 물질주의적 삶의 소란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사랑과 영원, 영, 참된 인간적·영적 가치에 대해 말하여, 그들이 감각이 아닌 영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한다.

28. 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제자라 부르며, 한때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고 이웃에게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은, 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큰 만족을 느끼며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사랑의 길을 보여 주셨기에,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고양된 마음으로 일어섰다.

29.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부인하고 조롱할지 모르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들에게 이 은총이 부인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나의 제자로 남을 것이다. (191, 33-36)

30. 세상은 내 목소리가 그들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비록 믿음에 있어 죽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다가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31. "죽은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과 천민들은 아주 큰 무리를 이룬다. 내가 그들에게로 갈 것이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야말로 나의 임재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력자들—권력과 부, 세상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어쩌면 몇 가지 영적인 선물이거나 영원 속의 한 자리 정도일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관심사가 아니다!

32. 이것이 바로 내가 육체와 영혼이 병든 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내 가르침을 전한 이유이다. 그들은 나를 갈망했고, 나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 인류 앞에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내 현존을 느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291, 32-34)

신성한 계시의 전달

33.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한 이 계시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마치 자신의 영을 부인하고, 무수한 시련과 고통, 투쟁을 통해 도달한 영적·이성적 수준을 자각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34. 내가 너희의 이성이나 영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고 하등한 피조물들의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35.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사람이 자신 안에 영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는가?

36. 내가 지성이기에, 나는 너희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며; 내가 영이기에, 나는 너희의 영에게 말하노라. 그러나 내 계시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를 영으로 여기고 인식하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음속에 많은 그릇된 관념을 키워 왔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인간의 형상을 띤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상징과 형상을 통해 나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야만 나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관념들입니다.
37. 수세기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나를 찾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의식을
거행하는 그림과 조각상들의
침묵에 익숙해졌으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하느님을 뵙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을 느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인간에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높다고
말함으로써, 나에게 경외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과 같은 하찮은
피조물들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내
영이 너희에게 계시해 준 가장
아름다운 것, 즉 겸손을 부정하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이다.
38.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가오실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사건, 즉 신성한 사랑의
증거 위에 너희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가? 영혼이 어두워지고
이성이 약해진 죄 많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이해력에, 내가 나의
신성한 음성을 인간의 말로
변모시켜 그들에게 들려준
것보다 더 실감 나고 인간적인
접근이 또 어디에 있었겠느냐?
39.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겸손, 그리고 연민의 가장
큰 증거였으며, 나는 이를 피로
인치어 너희가 항상 명심하게
하였으니, 바로 진흙과 어둠과
악덕 속에 가장 깊이 빠져 있던
자들을 위해 내가 내 말씀을
육신으로 오게 하고 내 피의
생명수를 흘렸으므로, 누구도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가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0.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지금
내 현존과 계시를 부인하는가? 왜
그들은 하느님께서 무한하시고
인간은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하찮으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
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부인하는 자는 그 '두 번째 시대'에 세상에 계신 나의 현존도 부인하며, 나의 사랑과 나의 겸손도 부인하는 것이다.

41. 죄인인 너희가 죄로 인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실수를 저지를수록, 너희 영혼을 더럽힐수록,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 빛을 주고, 손을 내밀어 너희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낀다.

42. 내가 내 자녀들에게 다시 나타나면 많은 이들이 나를 부인할 것임을 알았기에, 나는 이미 그때 내 재림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의 내 현현은 영적인 것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의심한다면, 복음서에 내 말씀을 기록한 그 네 제자의 증언을 통해 확신하라.

43. 나는 지금 영으로 여기 있으며, 빛나는 "구름"으로부터 너희에게 내 말씀을 보내고, 이 대변자들을 통해 그것을 인간화한다. 이는 너희 모두가 도달하게 될 그 계시, 즉 영과 영의 대화에 대한 예비적인 가르침이다. (331, 1-10, 13)

44. 신성한 생각들은 황홀경에 빠진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말로 옮겨졌으며, 이 말들은 문장으로 결합되어 영적인 가르침을 형성하고 확립하였으니, 64장 4절은 계시와 완전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45. 이것이 바로 약속된 위로자이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예고된 진리의 영이다.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너희는 영에 힘이 있어 마음의 고귀함과 소박함, 지혜와 자비로 너희를 인도할 그분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이다. (54, 51-52)

46. 나의 가르침은 너희의 이성에 빛을 비추기 위해 너희에게 온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온 방식에 대해 놀라지 말라.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또한 그것을 일상으로 만들지도 말라.

47. 나의 신성한 빛이 나를 대변하는 그 사람의 이성에 닿으면, 그것은 진동으로

응축되어 지혜와 사랑의 말로 변환된다. 내 영이 이 형태로 너희에게 닿기 위해 하늘 사다리의 몇 계단을 내려와야 하는가! 또한 내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너희에게 전해 주기 위해, 나는 내 "영적 세계"도 너희에게 보내야만 했다. (168, 48)

48. 나는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뇌는 창조주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된 '장치'로서, 그 안에서 영혼의 빛인 지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49. 이 "장치"는 너희가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모형이다. 너희는 그 형태와 구조를 너희 창조물의 본보기로 삼겠지만, 너희 아버지의 작품이 지닌 완전함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가 창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의심하는가? (262, 40-41)

50. 모든 시대에 걸쳐 스승으로서 나의 사랑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르침을 세심하게 고려해 왔으며, 나는 언제나 그들의 영적 성숙도와 지적 발달 수준에 맞춰 그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다.

51.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가 만들어 낸 인간의 말과 가르침이 너희 영혼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빛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영원함과 사랑에 대한 갈증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곁에 머물며, 겸손하고 무지하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그들을 영( )과 영혼의 황홀경에 빠지게 하여, 그들의 입에서 "제3의 시대"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한다.

52. 내 신성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전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들은 세속화와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이처럼 자신의 개성을 뒤로 하고 허영심을 다스림으로써,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이성 기관을 신성한 영감에 바침으로써 존재의 완전한 헌신을 이루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에서 지혜와 온유,

정의, 치유와 평화가 가득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53. 내 영이 그 뇌리에 내려오지 않고 오직 내 빛의 한 줄기만이 그들을 비추는 것뿐인데도, 어떻게 음성 전달자들이 그토록 많은 지식을 말로 표현하고 청중들의 영혼에 그토록 많은 생명의 정수를 쏟아 부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태양이라 부르는 그 왕의 별 또한 지구를 비추기 위해 지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 그것이 멀리서 너희 행성으로 보내는 빛만으로도 지구를 빛과 온기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54.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영은 무한한 광채를 지닌 태양처럼, 영적인 피조물과 물질적인 피조물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빛을 통해 만물을 비추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느니라.

55. 그러므로 내 빛이 있는 곳에는 내 영도 함께 계심을 깨달으라. (91, 12-16)

56. 내 영의 빛의 불꽃, 곧 신성한 말씀의 반영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대변자의 영 위에 내려오는 것이다. 어떤 인간의 대변자가 "말씀"의 온전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57. "말씀"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대변자는 단 하나의 원자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빛줄기 속에서, 그 본질 속에서 너희는 무한한 것,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8.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도, 작고 제한된 표현을 통해서도 이를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에 있으며, 모든 것이 나를 말해주고, 큰 것도 작은 것도 똑같이 완전하다. 인간은 단지 관찰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된다. (284, 2-3)

59. 나의 "말씀"은 다시 육신을 입지 않았다. 나는 이 시대에 "구름 위"에 있으니, 이는 내 광선이 발산되는 저 세상의 상징이며, 그 광선은 목소리의 전달자의 이성을 비춘다.

60. 나는 인간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나의 결심은 완전하다. 나는 인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합당하다고 여긴다. 그는 나의 자녀이며,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이용할 수 있다. 내가 그를 그 목적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를 매개로 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61. 인간! 그는 지성과 생명과 의식과 의지 그 자체이기에, 내 모든 속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영이 영원에 속해 있기에, 나의 형상이다.

62. 종종 너희는 너희가 믿었던 것보다 더 하찮고, 또 다른 때에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217, 15-18)

63. 너희가 조금만 생각하고 경전을 연구한다면,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의 영적 내용이 표현되었으며,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시 백성들이 행하던 물질화된 숭배의 오류 없이 사람들에게 훈계와 계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쳤으며,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64. 백성아, 그 예언자들과 현재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변자들 사이에 큰 유사점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 후자들의 입술에도 내 율법의 정수를 얹어 주며, 그들의 말을 통해 내 영감이 너희에게 닿게 하고, 청중들이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주님을 찾도록 촉구하는 가르침이 그들로부터 빛나며 쏟아져 나온다. 그들은 수많은 청중 속에 정탐꾼이나 광신자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아버지가 그들을 통해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의 길을 열어줄 이 가르침을 주시도록 합니다.

65. 백성아, 그 예언자들과 이 대변자들 사이에는 단지 큰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완전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들은 이들을 예고하였고, 오래전에 그들이 예언했던 것을 지금 이 종들이 체험하고 있다. (162, 9-11)

66. 나의 모든 대변자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 준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것은 아니었으며, 종종 나는 쓸모없는 일, 심지어 죄악에까지 몰두하고 있던 불순한 지성의 그릇들에 내 빛을 내려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나의 공의를 불러일으켰으니, 그들의 이성은 영감을 잃었고, 그들의 입술은 신성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를 잃었기 때문이다.

67. 이러한 경우, 청중들은 그 초라한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대신 내 존재를 느끼고 나의 본질을 받아들이기 위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나의 자비가 그들에게 보내준 본질로 양분을 얻었으나, 말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은 메시지를 막아 버렸고, 그로 인해 참석자들은 아직 그러한 형태로 나의 영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영 사이에서 스승과 대화를 나누도록 강요받았다. (294, 49)

계시의 형태

68. 스승의 가르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그 안에 동일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자비로 끝난다 — 이 두 단어 안에 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 바로 이러한 고귀한 감정들이 영혼에게 빛과 진리의 영역에 도달할 힘을 주는 것이다. (159, 26)

69. 너희는 내가 "제2의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의 외형적 형식과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너희 말이 옳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당시

그분이 사시던 민족들의 표현 방식과 관용구를 사용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나 또한 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정신적 성향에 맞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 오늘날 전해진 그 말씀이 전달하는 영적 내용은 동일하며, 하나이며, 변함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성이 닫혀 있는 많은 이들은 이를 간과해 왔다. (247, 56)

70. 오, 불신자들아! 와서 자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이 너희의 의심을 극복해 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씀의 표현 방식이 내가 예전에 쓰던 것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나는 너희에게 형식과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변함없는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노라.

71. 본질, 즉 그 의미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신성한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형식, 혹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또 다른 부분을 알게 하는 방식은, 너희가 도달한 수용 능력이나 발전 단계에 맞춰 항상 조화를 이루며 나타난다. (262, 45)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임재하는 저세상 존재들

7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비추는 순간마다, 이곳에는 수천 수만 명의 육체를 벗은 존재들이 내 계시에 함께하며 내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그들의 수는 물질계에 모인 자들의 수보다 언제나 더 많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나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려 한다. (213, 16)

73. 너희는 지상에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의 이 말씀을 듣지만, 너희보다 더 높은 삶의 단계에 있는 그곳의 주민들, 즉 다른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이를 듣는다. 또한 그곳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더 높은 삶의 차원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이를 듣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3시대"에 빛의 영들과 함께 펼치시는 이 "연주"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74. 내가 말했듯이, 나의 광선은 보편적이며, 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나의 영적 본질 또한 보편적이다. 심지어 영들이 도달한 가장 높은 단계에서도 그들은 나를 듣는다. 너희는 현재 이 계시를 통해, 인간을 통해 전달되는 가장 불완전한 방식으로 나를 듣고 있다.

75.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더 높은 계시에 대비시켜, 너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이 지구를 완전히 떠날 때, 새로운 삶의 단계와 합일하여 아버지가 너희의 영과 함께 펼치는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하리라.

76. 오늘 너희는 아직 물질계에 머물러 있으니, 이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과 영을 위로하라. 그리고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했던 존재들, 즉 너희가 여전히 아버지, 남편, 아내, 형제, 자녀, 친척 또는 친구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른 삶의 단계에 있으며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이 다르니, 비록 그들이 같은 기쁨과 같은 위로, 같은 격려와 같은 양식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345, 81-82)

77. 나는 모든 세계에 내 빛의 광선을 보낸다. 너희에게는 이 빛을 인간의 말의 형태로 전달하였으니, 다른 고향들에게는 영감을 통해 전달되는 것과 같다.

78. 그 신성한 광선의 빛 속에서 모든 영들은 그 광선을 하늘의 사다리로 삼아, 너희 모두에게 약속된 영적 왕국, 곧 내 신성의 영적 입자인 너희 모두를 그 지점으로 인도하는 사다리로 삼아 하나가 될 것이다. (303, 13-14)

계시의 시간적 한계

79. 나의 왕국은 고통받는 인류에게 내려오고, 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울려 퍼지니, 이는 나를 듣는 자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 함이라.

80. 모든 시대에 나는 인간과 나의 신성 사이에 중재자들을 두었으니, 그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었으며, 내가 그들을 사용하였다. 이제

나는 나의 가르침을 전할 새로운 사자들을 준비하여, 이 기쁜 소식이 인간들 사이에서 영적 삶으로의 각성이 되게 하리라.

81. 고귀한 영적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잠들어 있는가! 그들은 깨어날 것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때 그들의 영적 성장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겸손할 것이며 결코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230, 61-63)

82. 내 일이 변질되지 않은 채 인류에게 전해져야만, 인류는 구원의 십자가를 품음으로써 내 법을 이행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83. 나는 인간, 온 인류에게 이를 약속하였으며, 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므로 이를 성취할 것이다. 나는 제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내 말씀의 황금 밀을 보내리니, 이는 사람들이 조만간 영과 영의 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50년 이후로는 내가 이곳에서든 다른 어떤 곳에서든 다시는 음성 전달자의 지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91, 43-44)

제5장 – 새로운 신의 계시의 이유

하나님의 구원 의지

1. 세상에 무지가 없고, 피가 흐르지 않으며, 고통과 비참함이 없다면, 내 영이 너희의 감각에 감지될 수 있도록 물질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오직 나의 사랑만이 이 시대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내가 온 것이다.

2.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 너희가 파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너희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작은 일부이므로,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말씀과 영감 속에서 영혼에게 생명인

진리의 빛을 너희에게 준다. (178, 79-80)

3. 내가 여기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희가 끊임없는 적대감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고도 내 평화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어둠과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위대한 전사로서 왔으며, 나와 함께 선의 영들, 즉 영적 세계도 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왔다. 이 싸움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까지이다. 그러나 나는 고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고자 할 뿐이다. (268, 31)

4. 내 말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다시금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누구를 망신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위선자를 위선자라 불렀고, 간음자를 간음자라 불렀으며, 악인을 악인이라 불렀다. 진리는 왜곡되어 있었기에, 다시 빛을 발해야만 했으며, 지금처럼 진리가 은폐된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진리는 다시금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야만 한다. (142, 31)

5.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제자들에게 나의 재림을 선포하고 약속하였다. 나는 내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 즉 자연의 징조와 인류의 사건들, 전 세계적인 전쟁, 그리고 절정에 달한 죄악을 너희에게 예고했다. 세상이 착각에 빠져 나를 다시 인간으로 기대하지 않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구름 위" 즉 영으로 오실 것임을 그들에게 알렸다.

6.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여기 영으로 오신 스승이 계시며 세상에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 평화와 빛의 왕국의 주님이 계시니, 그분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 구원받을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방주를 짓고 계신다. 마치 노아가 인류의 씨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었던 "첫 번째 시대"와 같이 말이다. (122, 52-53)

7. 내가 이 시대에 나를 드러낸 방식은 "두 번째 시대"와는 다르지만, 나의 의도는 동일하다.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마주쳤으나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회오리바람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8. 유혹이 온 힘을 다해 거세게 몰아치고,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넘어져 큰 고통을 겪었다. 그는 고통의 잔을 비우며 깊은 혼란 속에서 나를 부르짖었고, 아버지는 그와 함께 계셨다.

9. 잔에는 아직 누룩이 남아 있지만, 나는 너희가 불순종의 결과로 겪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내 말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큰 고통이 닥쳤을 때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될까?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337, 38)

** 이 이름은 이스라엘 국가의 주민이나 유대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자세한 내용은 39장 참조).*

10. 나는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찾는다. 나는 너희 영혼에 그토록 많은 은총과 은사를 주었기에, 내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는 내 영의 일부이며, 내 본성의 일부이다. — 그토록 열정적이고 사랑으로 너희를 찾는 이가 어찌 악할 수 있겠느냐?

11.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내려올 때마다, 무리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는 자들을 발견하노라.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를 가장 많이 묻는 자들이라. 그러나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언제나 그들의 질문에 답하노라.

12. 오늘, 가장 늦게 온 이들이 내게 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기에, 나는 그 의미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287, 19-20)

오류와 외형화된 숭배 형식의 제거

13. "제3의 시대"가 인류에게 완전히 도래했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 지 약 2000년이

지났으나, 지나간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은 아직 온
인류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나에게 경의를 표하며, 모두는
오직 나의 것이기도 한 단 하나의
신성한 영을 찾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 사이에 일치를 보지
못하며, 그들 사이에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양과 깨달음을
보지 못하므로, 나는 성령으로서
그들을 내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고, 나의 진리의
가르침과 변함없는 말씀,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법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노라. (316, 4)

14. 이성의 혼탁함, 믿음의 결핍, 진리에 대한 무지는 영혼에게 어둠이며, 그렇기에 인류는 오늘날 잘못된 길에 서 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15. 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혼란, 불확실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러한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너희를 이 어둠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왜 다시 나를 인간으로 원하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죽었고, 내 왕국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를 통해 나는 영혼이 영원하고 불멸임을 너희가 깨닫게 했다. (99, 7-8)

16. 이 시대의 내 말씀은 너희에게 과거를 상기시키고, 비밀을 드러내며, 다가올 일을 예고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무력화시킨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수호자인 내가 나의 열정과 정의의 칼을 들고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고, 위선과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며, 다시금 진리의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오기 때문이다.

17. 너희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책이나 사람들의 조언, 또는 계명 속에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라.

18. 너희 모두는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미 굳건한 땅 위에 서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너희는 폭풍우 치는 밤 한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으니, 각자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 이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19.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라. 나는 율법이라는 항로를 벗어나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 다시금 너희에게 다가온다. 내가 너희의 길을 비추어, 너희가 육지에, 곧 너희를 기다리는 그 축복받은 땅에 도달하게 하리라. 그곳은 그 품속에 영을 위한 무한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느니라. (252, 37-40)

20. 옛날에 신성한 가르침에 잘못된 해석을 붙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의 가르침은 왜곡되었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는 이가 극히 드물기에, 스승이 다시 오셔서 너희가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야만 했다 .

21. 비록 내가 그 당시에도 다시 오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했었지만, 나는 또한 이 말을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인류가 내 가르침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길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재림을 예고했던 바로 그 때이다. (264, 35-36)

22. "제2의 시대"에 그리스도, 즉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지상에 거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영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며, 인류에게 하신 약속, 즉 새로운 시대에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지극한 위로와 진리의 빛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밝히며 설명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91, 33)

23. 인류는 방향을 잃었으나, 나는 성령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24. 세월이 흐르면서 내 제자들이 남긴 그 기록들은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었기에, 교파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 그러나 나는 인류를 하나의 빛과 하나의 뜻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내 모든 가르침을 설명해 주리라. (361, 28-29)

25. 오늘날 세상에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사고의 더 큰 자유를 추구할 것이며, 자신의 영혼이 짊어지고 온 속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제는 민족들이 영적 양식과 참된 빛을 갈망하며 광신주의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될 때이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단 한 순간이라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탐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행복을 맛본 자는 그 누구도 다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의 눈은 빛을 보았고, 그의 영혼은 신성한 계시 앞에서 황홀해했기 때문이다. (287, 51)

26. 나는 사람들이 대대로 내 가르침을 점점 더 신비화하고, 내 법을 변질시키며, 진리를 왜곡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으며, 가장 잔혹하고 비열하며 비인간적인 무기로 서로를 죽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27.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렀고 약속된 날이 왔으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선택한 방식을 비난하지 말라. 세상을 심판할 자는 내가 아니니,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인류를 심판하는 자이다.

28.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왕국을 세우고 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으로, 그 권능은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에서 비롯된다.

29. 나는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것을 보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항상 나를 비단과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상상하려 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정반대를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언제나 내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려는가? (279, 61-64)

30. 나는 이미 너희에게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니, 이는 누구나 자신의 종교를 완전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을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그랬다면 내가 이 시대에 와서 너희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1. 나는 영감을 통해 너희에게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주노니, 이는 너희의 예배 형식 속에 이교가 지배하고 있으며, 광신주의라는 악한 씨앗이 너희를 무지와 증오로 오염시켰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32. 나의 오른손에는 빛의 검이 있다. 나는 모든 반항과 현존하는 모든 악, 그리고 모든 거짓을 파괴하는 전사이자 왕이다. 나의 싸움이 끝나고 마음들이 기도하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 되는 법을 배웠을 때, 너희 영의 시선은 무한한 빛과 영원한 평화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왕국이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며,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곧 다스리기 위함이다." (279, 72-74)

진정한 삶에 대한 깨달음

33. 모든 사람은 내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며, 피조물들의 운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로부터 관심도, 존경도 받지 못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창조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이웃의 운명에 대한 권능을 가진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왜 내 앞에 엎드려야 하겠는가?

34. 이처럼 인간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나의 공의를 도전해 왔다. 나는 그에게 진리를 찾을 시간을 주었으나, 그는 나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로 왔으나 사랑받지 못하였고, 그 후 스승으로 왔으나 이해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해야 하므로, 이제 나는 심판자로 온다. 나는 인간이 나의 공의에 반항할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심판자로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복수하셨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35.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수의 감정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고통을 보내실 수도 없다.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해 그 고통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나의 신성한 정의는 너희의 고통과 심지어 너희의 죽음 위에 있다. 고통과 장애물, 실패는 인간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시련이며 , 그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그가 차츰 거두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삶의 위기마다 내 빛을 너희 영혼에 비추어, 그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90, 5-7)

36. 진리의 영이 내려와 비밀을 밝히고, 너희가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너희의 고통 위에 쏟아져 내리는 신성한 위로이시니, 이는 신성한 심판이 처벌도 복수도 아니며, 오직 너희를 빛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기 위한 사랑의 심판임을 너희에게 증언해 주기 위함이다. (107, 24)

37. 상승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자신에게 계시된 그 빛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더 이상 떼어낼 수 없음을 알라. 그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든, 몇 번이고 지상으로 돌아오든, 그가 한때 신성한 빛의 불꽃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그의 존재의 가장 순수한 곳에서 예감이나 신성한 영감으로서 끊임없이 솟아오를 것이다. 때로는 달콤한 깨어남처럼, 혹은 천상의 노래처럼 되살아나, 영적 고향으로의 귀환을 갈망하듯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생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이다. 겉보기에는 영이 자신의 과거를 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잃지 않는다.

38. 지금 이 순간, 이 형태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성한 말씀임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그들이 내게 그 이름을 부여하기를 원치 않거나, 이 말씀을 신성한 스승의 것으로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생각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바를 깊이 생각한 끝에, 그것이 인류에게 빛과 진리를 담고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면, 그것을 지상에서 나아가는 길의 척도로 삼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39. 나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지혜를 전하고 있음을 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그것은 나의 진리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 아는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오직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때때로 나의 계시에서 인류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143, 54-56)

40.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매우 미미하고, 그들의 믿음은 매우 작다.

41. 종교들은 수세기에 걸친 꿈속에서 잠들어 있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깨어날 때조차 내면에서만 활발할 뿐, 전통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울타리를 뚫고 나가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한다.

42. 빛을 갈망하고, 순수한 영적 환경을 갈망하며, 진리와 진보를 갈망하는 자들, 곧 천대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소박하고 무지한 자들이야말로 그 울타리를 벗어날 것이다. 영성화의 시대에 내 새로운 계시의 때가 다가옴을 느낄 때, 바로 그들이 종을 울리고 깨우침을 알리는 신호를 울릴 것이다.

43. 사람들은 영적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이 들어서야 할

존재이며,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44. 사람들은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며 빛을 간청하고 애원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영적 삶이 신비이며,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내려는 소망은 오만이자 신성모독이라고 듣게 된다.

4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와 빛을 갈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샘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영혼들이 마시기를 갈망하는 그 지혜의 물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실 분은 바로 나일 것이다. 나는 "비밀"들이 사라지도록, 나의 진리의 샘물을 모든 영과 모든 이성에 쏟아 부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을 위해 비밀로 자신을 감추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46. 비록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너희는 단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희 아버지 안에는 너희가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 속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 너희가 스스로에게 뚫을 수 없는 비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적 삶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47. 과거에는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영적 깨달음의 빛 속으로 나아가라는 광범위한 권유도 없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과거의 인류가 오늘날 느끼는 것과 같은 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항상 찾고 헤매기는 했지만, 그것은 빛에 대한 진정한 갈망보다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48.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이끄는 길을 찾고, 생명과 지혜의 샘물인 그 물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모든 외적인 숭배를 버리고 마음속의 모든 광신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감성과 진실함, 고양감과 진심어린 정성으로 가득 찬 새롭고 낯선 경건함 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기도가 될 것이다.

49. 이것이 빛으로의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며, 영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성령이 인간에게 참된 기도를 계시할 수 있다면, 그분은 또한 자신이 지닌 모든 능력을, 그리고 그 능력을 펼치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그에게 계시할 수 있을 것이다. (315, 66 75)

50. 너희는 나의 계시에서 '제2의 시대'와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나는 성령의 빛을 통해 너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진리를 계시하였으며, 영과 영의 대화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새롭고 지극히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계시할 것이다. 나는 이 계시의 시대에 여섯 번째 봉인의 모든 내용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며, 이는 내가 일곱 번째 봉인을 풀게 될 시기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이며, 영적 세계가 모든 영혼의 고향이자, 높은 저편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무한하고 경이로운 아버지의 집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행한 행위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316, 16)

인간의 발전, 영성화, 그리고 구원

51. 나는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단지 너희의 물질적 본성을 제어하기 위한 도덕적 재갈로만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를 통해 영적 완성에 이르는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

52. 나는 너희 가운데 새로운 종교를 세우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내 진리에 기초한 기존 종교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이를 위한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이며,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호소이다. 신성한

뜻을 이해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진보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도록 이끌림을 느낄 것이다.

53.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져야 할 영성화를 깨닫지 못하는 한, 평화는 아직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현실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자는 죽음도, 자신의 영혼을 기다리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3, 12-13)

54. 나는 이 계시들을 통해 너희에게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육체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계시를 통해 너희의 영적 발전에 대해 말해주는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혜택만을 주려 했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럴 거라면 내가 직관으로 깨우치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준 과학자들에게, 너희의 육체적 고통을 치유할 치유 연고를 자연에서 얻도록 맡기면 충분했을 것이다.

55. 나의 사역은 너희 행성 너머, 너희를 둘러싼 그 무수한 세계들과 함께 더 넓은 지평을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끝이 없는 그 지평들은 너희에게 속한 영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311, 13-14)

56. 나의 영적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목표나 과제가 있다. 하나는 유배된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이 자신의 구원과 승화, 혹은 완성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지닐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다.

57. 이 말씀은 영성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오직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또는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과정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현실'이라 부르며, 진정한 현실이 존재하는 영원한 것을 오해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58. 이 메시지가 나라에서 나라로, 집에서 집으로 전해져, 빛과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남기게 하라.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영혼이 성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휴식을 취하게 하라. 매 순간이 영적 세계로 돌아가는 순간이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행실과 뿌린 씨앗에 따라 영적 삶에 도착했을 때 거두게 될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을. (322, 44-46).

제6장 *– 제3의 성서와 생명의 대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지혜의 책

1. 내 말씀의 책은 신성하고 참된 사랑의 책이니, 그 안에서 너희는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손에 잡으라. 그러면 너희는 성장하고 영원한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며, 나의 완전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단 한 마디라도 생략하거나 덧붙이는 자는 나의 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것이다.

2. 이 말씀을 본래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라. 이는 내가 인류에게 남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기 때문이다. 나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동료들에게 알리고, 이를 성실히 보존하라. 너희는 이 유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장차 인류는 이 가르침 속에서 내 계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가르침의 빛이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4. 이 글들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생수의 샘처럼 물려질 것이니, 그 물줄기는 마르지 않고 솟아나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시대를 거쳐 받아온 신성한 계시들을 설명해 줄 '생명의 큰 책', 즉 영성화의 책을 깊이 연구하라.

5.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지식이 그 본래의 진리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에게 예고된 바로 그 때이기 때문이다.

6.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책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참된 열망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높이려 탐구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빛을 얻게 될 것이며 나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이다.

7. 옛날의 신화들과 오늘날의 신화들은 무너질 것이며, 모든 평범하고 거짓된 것들은 쓰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더 이상 불완전함으로 양육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 영혼은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니, 오직 진리만이 그에게 유일한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이 가르침 속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영성 부족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했던 내 계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옛날부터 나는 나의 사자들, 전령들, 그리고 "통역자들"을 통해 그것을 너희에게 맡겨 왔으나, 너희는 그것으로 신화와 전통만을 만들어 내는 데에만 이용했을 뿐이다. 수세기에 걸친 혼란과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경외심과 사랑으로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라. 그러나 단지 이 책을 소유하는 데 그친다면 너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아니,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책은 너희를 깨우치고 가르쳐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범과 사랑, 그리고 도움의 손길로 가르쳐라. (20, 1-8)

9. 나의 가르침의 책은 이 시대에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 준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류가 마침내 '제3의 성서'로 인정하게 될 이 책을 통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대의를 수호해야 한다.

10. 인류는 오직 "초기 시대"의 법과 제1, 제2 성서에 기록된 것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3 성서는 이제 사람들이 준비와 이해의 부족으로 왜곡해 온 것들을 통합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인류는 나의 메시지를 연구해야만, 각 단어의 핵심을 꿰뚫어 보며, 단 하나의 이상, 단 하나의 진리, 그리고 그들을

영성화로 이끌어 줄 바로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48, 26)

11. 나는 과학자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너희에게 계시한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위대함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의 지혜를 갈망하며 나에게로 나아가지 않았다.

12. 다양한 종파와 종교 공동체에서 영혼에게 위대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영적 지식을 가르쳐야 할 성직자들의 마음은 닫혀 있다.

13. 나는 과거에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긴 율법과 가르침들이 은폐되고, 의식과 외형적인 숭배, 전통들로 대체된 것을 보았다.

14.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이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것과, "제2의 시대"에 예수님의 입에서 들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너희는, 너희의 신앙과 행실로,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어리석은 전통을 따르기 위해 신성한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93, 10-13)

15. 나는 너희가 메시지, 계명, 예언,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나의 사자들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었다.

16. 이와 같이 나는 모든 과거 가르침의 내용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합하였다.

17. 영성주의는 세 성서가 하나의 영적 책으로 통합된 유산이다. (265, 62-64)

18.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성주의라고 불리는 이 가르침은,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께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게 될, 인간을 위해 미리 정해진 길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웃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책이다. 영성주의는 선하고, 순수하며, 완전한 것을 명하는 법이다.

19. 이 법을 따를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자유 의지를 누리고 있어, 심판받을 때 그 투쟁과 모든 행위가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나의 자녀들 중 첫 번째 자부터 마지막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비추고 그들에게 온기를 주었던 신성한 사랑의 불꽃임을 깨달으라. (236, 20-22)

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의 관계

21. 영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영혼의 삶 모두를 위한 실천적인 가르침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은 없다. 이 가르침은 너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너희와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의 온갖 일과( ) 동안 너희를 따르고, 너희 영혼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와 하나가 된다.

22. 너희의 예배에서 전례와 전통을 제거할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의 발전의 길을 비추는 더 큰 빛이 필요함에 직면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낡은 관념을 초월하게 될 인간의 영일 것이다. 곧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은 선과 자비, 지혜,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3. 영성주의는 그리스도께서 한때 선포하신 말씀 중 단 하나도 지워버리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 되므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스승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상반될 수 있겠는가? 만약 너희가 이 가르침의 진의를 진정으로 깊이 헤아린다면,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말한 모든 것의 설명이자 해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미래의 인류는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율법을 더 순수하고, 더 높고, 더 진실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

24. 너희가 동료 인간들이 종교를 실천하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그들이 과거에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제는 내적 공감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영혼이 스스로 깨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양육해 줄 수 있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인류의 외적인 예배 행위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283, 27-30)

25. 이 겸손하고 소박하지만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찬 책에서 사람들은 모든 의문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과거에 부분적으로만 계시되었던 가르침의 완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고대 문헌에 상징으로 숨겨진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26. 이 영적 메시지를 받은 후 그 내용의 진실을 확신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과 우상 숭배, 광신주의와 싸우고, 자신의 이성과 마음을 온갖 불순물로부터 정화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니, 이제 영혼은 자신을 기다리는 영원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으로만 숭배를 계속하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기만 고집하며, 영혼의 성장이나 발전을 믿지 않는 자들—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뒤처지게 될 것이며, 자신의 뒤처짐과 무지를 깨닫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305, 4-5)

새로운 말씀을 둘러싼 논쟁

27.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 비록 나를 알고 있음에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놀라움은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계시했던 것의 핵심을 탐구하지 못한 너희의 소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때문에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낯설거나 새롭게 느껴질지 모르나, 실은 이 빛은 언제나 너희 삶에 함께해 왔던 것이다. (336, 36)

28. 이 시대와 '제2의 시대'에서 나의 가르침은 인류를 뒤흔들 것이다. 위선자들은 진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거짓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리가 빛을 발할 것이다. 진리는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거짓을 이겨낼 것이다.

29. 인간은 이성과 진리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나, 비록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믿도록 강요받았던 모든 것은 스스로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널리 퍼질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일의 시작과 목적을 동료 인간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이 일의 큰 부분이 맡겨져 있다. (237, 28-29)

30. 인류는 나의 말씀과 나의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위한 빛을 갈구하며, 정의를 외치고 위로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결정적인 시기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수세기 동안 진리로 여겨져 온 많은 관념과 이론, 심지어 교리들조차 무너져 내리고 거짓으로 배척될 것이다.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는 그것에 가장 사로잡혀 얽매여 있던 자들에 의해 맞서 싸워지고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고, 그 빛과 내용, 본질이 파악되고 체감될 것이다.

31. 과학자들이 매우 큰 혼란을 겪는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의 영혼에 빛이 비치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2.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신앙 고백과 교리,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책에서 얻은 지식이 바로 너희가 내 새로운 제자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너희에게는 책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150, 11 13)

33.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거대한 교회들과 작은 종파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나, 어느 쪽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진리는 명백하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무한히 깊으며, 이는 너희가 싸워 승리할 강력한 무기들이다.

3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질주의와 불신으로

가득 찬 지상의 한 민족이 일어나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칭할 권리를 부정하고, 메시아의 재림을 경험했다는 너희의 증언을 부인할 것이니, 그 민족은 바로 유대인이다.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민족은 자기 가운데서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다시 지상의 모든 민족 위에 세울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민족은 내가 항상 그들에게로 왔음을 알고 있으며, 이 '제3의 시대'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오시겠는가?' — 그러나 보라, 여기 내 가르침이 있다! (332, 10)

35. 이곳의 이 영적 공동체는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너희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권력자들은 너희를 눈여겨보지 않지만, 영성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 사이, 영성주의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싸움은 온 인류에게 내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구약성경이 신약과 삼약과 합쳐져 하나의 본질로 통합될 것이다.

36. 너희 중 많은 이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르며, 완전한 일이다. (235, 63-64)

참된 생명의 위대한 책

37. 나의 말씀은 영원히 기록되어 남을 것이며, 너희는 그것으로 제3의 시대의 책, 제3의 성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엮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세 시대 모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지혜를 남기기 위해 그분의 "금 깃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 이 용어는 주님의 말씀을 속기하여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신성한 계시에 참여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38. 모세는 아버지가 "첫 번째 시대"의 사건들을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두루마리에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신 첫 번째 "금 깃펜"이었다. 모세는 여호와의 "금 깃펜"이었다.

39. "제2시대"의 나의 사도들과 후계자들 중에서 예수께서는 네 명의 "펜"을 두셨는데, 이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스승의 "금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사랑과 깨달음, 영적 진보의 끈으로 신약과 결합되어야 할 때가 이르자, 그것들은 하나의 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40. 이제 너희가 다시 내 말씀을 갖게 된 "제3의 시대"에, 나는 또한 그것이 글로 남도록 "황금 깃털"들을 임명하였다.

41. 때가 되면 너희는 하나의 책을 엮게 될 것이며, 이 "제3의 시대"의 책은 — 때가 되면 — 제2의 시대와 제1의 시대의 책과 마찬가지로 통합될 것이며, 그 후 '세 시대'의 계시, 예언, 말씀들로부터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한 '생명의 대서*'가 탄생할 것이다.

** 『참된 생명의 책』 제85장 24절의 해설문: "너희는 이 (현재 작성 중인) 유언서나 책이 이전의 것들과 합쳐지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책에 세 시대의 계시와 가르침을 통합하여, 그것들의 정수를 추출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창조한 이이기 때문이다."*

42. 그러면 너희는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진리와 영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모든 예언이 인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미리 정해진 역사의 흐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그들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43. 나는 나의 새로운 선택받은 자에게 모세와 '제2시대'의 네 제자가 받았던 것과 같은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말씀이 완전한 순수함과 온전한 명료함, 그리고 진리 안에서 기록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일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그 책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뺀다면, 내가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44. 자,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집필하기 시작한 이 책을 누가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실로 — 아무도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인류는 갈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너희의 책을 요구할 것이며, 그때 그들은 깨어나 내 말씀을 탐구하고 토론하게 될 것이다. 그 사상적 논쟁 속에서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 등 여러 진영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 말씀의 증거와 지혜의 책이 열방에 전해질 것이며, 모든 이가 나의 가르침을 논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투, 즉 말과 사상과 이념의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이가 진리와 영 안에서 '생명의 위대한 책'이 주님께서 쓰신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내 뜻대로 형제처럼 서로를 껴안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45. 왜 "첫 번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만으로는 세상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를 이루지 못했는가? 왜 이 시대에 내가 1866년부터 내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세 권의 책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그러면 인류는 그 빛을 따르게 될 것이며, 바벨의 저주는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참된 삶의 위대한 책( )을 읽게 되고, 모두가 같은 가르침을 따르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58, 58-66).

제7장 *– 영적 가르침의 효과와 의미*

계시의 영향

1. 이 말씀을 마주한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 내면과 외면, 즉 영과 육체 모두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여기서 내 말씀을 듣는 동안, 그는 삶과

죽음, 신성한 정의, 영원, 영적 삶, 선과 악을 생각한다.

2. 내 목소리를 듣는 동안, 그는 자기 안에서 영혼의 현존을 느끼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 낸다.

3. 그가 내 말씀을 듣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모든 이웃과 하나가 된 것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 영적 영원 속의 형제자매로 인식한다. 그들은 육신으로만 연결된 이들보다 그에게 훨씬 더 가깝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를 뿐이기 때문이다.

4. 나를 듣는 사람 중, 내 시선을 느끼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감히 내 앞에서 자신의 치욕을 숨기거나 미화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깨우치되, 결코 누구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 않는다. 나는 결코 망신시키지 않는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가운데 간음한 자, 자녀를 죽인 자, 도둑, 악덕과 결함을 발견하노니, 그것들은 죄를 지은 자들의 영혼에 나병과도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 마음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내 말씀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너희에게 악과 유혹을 이길 무기를 주고, 어떻게 갱신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치며, 너희 본성 속에 선하고 고상하며 순결한 것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고, 모든 비천한 것, 모든 거짓된 것, 그리고 영혼에 해로운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혐오감을 심어줌으로써, 내 가르침의 힘을 증명하고자 한다. (145, 93 65-68)

6. 오늘 너희는 여전히 빛을 앞둔 어두운 날들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빛은 안개 낀 하늘의 작은 틈새를 이용하여, 지상의 몇몇 지점에 닿는 덧없는 광선을 통해 스며들어,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떨게 하며 깨어나게 한다.

7. 이 빛에 깜짝 놀란 모든 이들은 자신의 길을 멈추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 는 세상의 빛이며, 영원의 빛이며, 진리이자 사랑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진 바로 그분이다."

8.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사울처럼, 그들은 모든 자만심을 꺾고, 오만을 누르고, 겸손히 고개를 숙여 마음으로 내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이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야 제가 무지함으로 주님을 박해했음을 깨닫습니다!"

9. 그 순간부터 이 마음들은 작은 제자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제3의 시대'에 오늘날까지 내 새로운 제자들 가운데서는, 내 제자들을 통해 나를 그토록 박해했던 자이자 그 후 그토록 열렬히 나를 사랑했던 자와 같은 헌신을 가진 사도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9, 21-24)

10. 교회들은 수세기에 걸친 관행과 정체라는 잠에 빠져들었고, 그 동안 진리는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과 신성한 스승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에서, 이 시대를 위해 약속되었던 진리의 영의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한다. (92, 71)

11. 나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분노할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 혼란 속에서 인간에게 인간적 본성 외에 영적 존재의 일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거나, 비록 인간의 영혼을 믿기는 하지만 전통과 신념의 관습에 얽매여 영혼을 위한 무한히 긴 발전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일 것이다. (305, 65)

12. 나는 이 말씀들을 글로 남겨둘 것이며, 그것들은 미래의 내 제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연구할 때, 그 말씀들을 신선하고 생생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순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들의 스승임을 느끼며 기쁨에 몸서리칠 것이다.

1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오직 내 말을 들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내 말을 통해 여기 있는 자와 없는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든 시대를 위해, 죽어가는 자와 살아 있는 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위해 말하고 있다. (97, 45-46)

새로운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과 희망

14. 나는 고통받는 자, 즉 혼란에 빠진 자, 우는 자, 죄인, 그리고 나를 찾은 자에게 위로를 주는 사랑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강이 되어,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더러움을 씻어내게 한다. 또한 그것은 안식과 평화가 있는 영원한 고향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15. 어떻게 너희는 삶의 투쟁 — 그 희생과 역경, 시련 — 이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 속에서 정당한 보상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 법과 내 가르침, 그리고 그 계시와 약속들은 너희 마음속에서 하루의 수고를 이겨내는 원동력이자, 위로이며, 치유하는 연고이다. 오직 내 가르침에서 멀어질 때만 너희는 굶주리고 약함을 느낀다. (229, 3-4)

16. 인간 피조물에 대한 나의 신성한 사랑으로, 나는 그들이 나의 업적을 탐구하고 모든 피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숨기신다고 하여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이유가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나는 너희를 지으시고 자유의지의 은사를 주었으며, 비록 인간이 이 자유를 남용하여 나를 상처 입히고 내 율법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해 왔다.

18. 그러나 오늘 나는 그들에게 내 용서의 어루만짐을 느끼게 하고, 내 지혜의 빛으로 그들의 영혼을 비추어, 내 자녀들이 하나씩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리라.

19. 내 빛이신 진리의 영이 너희 영혼 안에서 빛나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고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104, 9-10)

20. 나는 이 땅의 이 곳에서 내 존재를 드러냈으며, 모든 인간을 위한 선물로 내 말씀을 남길 것이다. 이 선물은 인류의 영적 빈곤을 없애 줄 것이다. (95, 58)

21. 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방식과, 신성한 법에 따라 사는 올바른 방식을 심어 주리니, 그 법을 지키는 것만이 주님께서 너희 각자에게 인정해 주실 유일한 것이니라.

22. 마침내 너희는 내 말씀의 내용이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오, 인간들아. 그러면 너희는 내 가르침이 단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성한 음성이 아니라, 모든 영들의 표현이기도 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3. 나의 말씀은 용기를 북돋우는 목소리요, 자유를 향한 외침이며, 구원의 닻이다. (281, 13-15)

하나님의 말씀의 힘

24. 나의 가르침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 측면을 발전시킨다: 그것은 마음을 감수성 있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이성을 깨우고 심화시키며, 영혼을 완성하고 고양시킨다.

** "마음"과 "영혼"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마음"(스페인어 "corazón")은 심리학이 다루는, 세속적이고 한, 또한 육체에 의존하는 영적 삶을 상징하는 반면, "영혼"(여기서는 "espíritu")은 그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불꽃, 즉 영에 의해 그 "음성"인 양심을 통해 인도받는, 더 높고 영원한 영혼의 측면을 가리킨다.*

25. 내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내 지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의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너희가 고취해야 할 영혼의 이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직 이성만을 발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26. 너희 존재의 모든 소질은 내 말씀 안에서 빛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길을 따라 무한히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다. (176, 25-27)

27. 나의 가르침은 그 본질상 영적이며, 빛이자 힘으로, 너희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다. 나의 말씀은 단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빛이다.

28. 너희가 영혼으로 나를 듣고, 영혼이 양분을 얻어 이 가르침의 의미를 활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을 정화하고, 이성을 맑게 하며, 양심이 너희를 인도하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존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말이다. 영혼이 깨달음을 통해 점차 얻어가는 그 고양감, 서서히 도달하는 그 순수함은 마음의 감정과 육체의 건강에 반영될 것이다.

29. 정욕은 점점 약해지고, 악덕은 서서히 사라지며, 광신과 무지는 내 법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깊은 깨달음에 점점 더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284, 21-23)

30.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고 인류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이 가르침은, 곧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연고처럼 전해져 위로를 주고, 믿음을 불태우며,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너희를 죄와 비참, 고통, 그리고 죽음 위로 들어 올릴 것이다.

31. 그럴 수밖에 없으니, 바로 나, 신성한 의사이자 약속된 위로자가 너희에게 이를 계시하였기 때문이다. (295, 30-31)

32. 너희가 일단 영적으로 깨달은 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희의 물질주의가 내 제자들의 고양된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제자들은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덧없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고귀한 열망과 소망을

품고 있으므로, 그들의 만족감은 클 것이다.

33. 나의 제자들은 영성의 모범을 통해 세상에 말할 것이다. 즉, 영혼을 세상의 거짓 보물에 묶어두는 대신, 신성(神性)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통해 말할 것이다.

34. 나는 다가올 시대에 물질주의자들이 이 가르침을 알게 되면 분노할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오직 나의 말씀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 줄 것이다. (275, 5-7)

35.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일과에서, 내가 너희의 조력자가 되리라. 나의 가르침은 세상에 큰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풍속과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내가 머지않아 지상에 보내게 될 영혼들은 이 세상의 회복과 상향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모든 예언들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해설하고 사건들을 해석할 것이다. (216, 27)

36. 이 "제3의 시대"는 부활의 시대이다. 영혼들은 죽은 자와 같았고, 육신은 무덤과 같았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나와서 빛과 자유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스승이 그들에게 오셨다.

37. 그들 중 진리의 눈을 뜨고, 자신의 삶과 행실, 그리고 감정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유배지나 눈물과 속죄의 골짜기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평화가 주는 참된 평화의 기쁨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8. 이 생에서 느끼는 그 고양된 상태는, 더 나은 세상에서 영혼이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와 빛의 반영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나 자신이 그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공로에 걸맞은 안식처를 선사할 것이다. (286, 13)

신학자와 유물론자들의 반응

39.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이 유혹자였으며, 그 또한 기적을 행하여 스스로 선택받은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놀라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계시를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비록 그들의 입술로는 항상 진리를 전파한다고 장담하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악과 어둠을 섬기는 자들에 속할 것이다.

40.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열매는 이 말, 곧 단순한 마음을 가진 남녀인 이 목소리의 전달자들의 이해력을 넘어 들리게 된 이 말씀이다. 인류는 그 열매와 그것을 누린 자들의 영적 성장을 통해, 내가 곧 그 나무임을 알게 될 것이다.

41.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적 사역이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교리를 연구하고 이해했다고 확신하며, 인류가 이룬 영적 발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철학과 과학에 대한 지식에 자만해져 있다.

42. 그들은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날 때, 오늘날 사람들의 영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이 "새로운 사상"이라 부를 것들에 대해 저주를 퍼부을 것이며, 이 운동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퍼뜨릴 것이다.

43. 그러면 그들은 경전과 예언들, 그리고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준 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새로운 계시, 나의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오늘날 성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반대하려 할 것이다.

44. 내 말씀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경전을 통해 심지어 물질 너머의 것, 혹은 그들이 한때 받아들였던 지식과 개념 밖의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며,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를 거짓 신이라 부를 것이다.

45. 그러나 너희가 이를 듣더라도, 비록 너희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느껴지더라도, 너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면의 감동을 통해 너희 스승이 이미 이를 예고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러한 시련을 견뎌내도록 격려해 주셨음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4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가는 길에서 기만과 위선, 미신, 종교적 광신, 우상 숭배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누구도 그 잘못 때문에 정죄해서는 안 된다. 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일은 오직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자, 누가 거짓 신이고, 거짓 그리스도이며, 악한 사도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인지를 아시는 나에게 맡겨라. (27, 32-35)

47. 사상, 신조, 종교, 교리, 철학, 이론, 과학 간의 전쟁이 닥칠 것이며, 내 이름과 내 가르침이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나의 재림은 논의되고 거부될 것이며, 그 후 위대한 신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다시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때 나는 무한한 곳에서 그 마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그들의 길에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146, 8)

영의 가르침이 미치는 영향

48. 내 빛이 온 세상에 퍼짐에 따라, 사람들은 모든 교리 속에서 나의 진리를 찾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유이다.

49. 이는 예언된 바가 성취된 것이다. 그들 중 누가 진리를 대변하는가? 누가 양의 가죽을 쓴 굶주린 늑대를 숨기고 있는가? 누가 깨끗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내적 순수함을 장담하는가?

50. 너희는 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영성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인류는 인간 사고의 발전에 따라 너무나 많은 신앙 고백과 세계관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51.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종파와 교파가 생겨났고,

너희로서는 그들 각각에 담긴 진리의 내용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52.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을 밝히며, 점차로 각자는 자신의 행위를 완성하고 더 완전하고 높은 길로 이끌기 위한 기초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53. 모든 종파와 교회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내 사업에 속한 것을 찾으려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을 찾으려면, 그들이 영혼을 고양시키고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63, 4-8, 29)

54. 이 땅에는 많은 종교 공동체가 있으나, 그중 어느 것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거나 서로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은 나의 영적 가르침일 것이다. 세상은 이 빛의 진전을 헛되이 막으려 할 것이다.

55. 내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할 때, 자연의 힘이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나, 내 일꾼들의 기도를 통해 그 힘은 누그러질 것이며, 그리하여 세상은 내가 그들에게 준 권능의 증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243, 30)

56. 내 말씀이 열방에 전해질 때 세상은 동요할 것이니, 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영혼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물질주의적 사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야에 펼쳐지는 빛나는 지평선에서 위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영혼이 어둠에 잠겨 이 빛을 거부하며 버티는 자는, 여전히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57. 영성으로의 마음가짐의 변화는 민족들 사이에 우정과 형제애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갈등이 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서로 맞서게 되는 것은 내 뜻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249, 47-48)

58. 만물을 심판하는 때가 왔으며, 모든 행위와 모든 종교 공동체가 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잘못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오직 진리만이 빛날

것이기에, 사람의 영혼에서는 비통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인류에게 각성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내게 말하리라.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참된 빛을 주소서." 그리고 그 빛과 그 도움은 성령의 가르침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교훈이 될 것이니, 내가 모든 이의 아버지이기에 그 교훈은 그들 모두에게도 속한 것이다. (347, 27)

새로운 계시 말씀의 의미

59. 겉보기에는 이 계시에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앞으로 이 계시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60. 이 백성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의 위대함을 예감하며,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일으킬 파장을 이미 느끼고 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믿는 데 만족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의 위대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이 승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보석이라.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지 않았기에 그 신성한 빛줄기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야말로 빛이 가장 밝게 비친다고 말했으니, 마찬가지로 이 물질주의와 죄악의 시대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져온 진리가 온전한 광채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1. 그분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심받았음을 잊지 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옷차림을 보고 그분을 판단했고, 그분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자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나중에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에게는 낯설게 여겨지는 가르침을 전파하게 될 그분 — — 그들은 마을을 전전하며 초라한 옷차림을 드러내던 그 순회

설교자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왕일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2.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직 영으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의 위대함을 믿기 위해 감각을 현혹하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63. 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내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바치고, 부활해야만 했다.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면, 이제 내 영은 어떤 잔을 마셔야 하겠느냐? 인류여, 내가 너를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겠느냐? (89, 68-69; 71, 73)

64. 내 가르침이 인류의 물질적 진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스승의 스승인 나는 인류에게 상향 발전과 진정한 진보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나의 말씀은 영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 심지어 감각에도 말하고 있다. 나의 가르침은 영적인 삶을 영감 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과 모든 길에 빛을 비춘다. 왜냐하면 나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을 이 생을 넘어선 고향으로 인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도 닿아 이 행성에서 즐겁고 인간답고 유익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173, 44)

65.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제3의 시대"는 위대한 비밀들이 밝혀지는 시대이다.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내가 현재 너희에게 계시하고 있는 진리 앞에서 그들의 지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66. 지금은 사람들이 내 지혜의 빛을 향해 눈을 뜨야 할 때이다. 그 빛은 내가 가르침으로 변환한 것으로, 너희가 이를 통해 영적으로 참된 삶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90, 51-52)

67. 사람들은 나의 계시에 대해 진실을 부정하려 하겠지만, 사실과 증거, 그리고 사건들이 이 진실을 대변할 것이며, 이는 나의 백성의 입을 통해 "제3의 시대"의 위대한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다. 또한 문헌을 통해서도 나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질 것이니, 이는 내가 태초부터 나의

사자들에게 심어준 허용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너희가 나의 진리를 지키고,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기를 원할 뿐이다. (258, 6)

68. 그 "제2의 시대"에, 내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마음만이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나중에 구세주의 탄생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정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너희에게 내 계시를 시작한 것, 즉 성령으로서 내 오심을, 내일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으로 정해질 것이다. 69. 신성한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258, 41-43).

제8장 *–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하느님의 사자들*

계시 교회들의 빛과 그림자

1. 만일 내가 모든 민족에게 내 말씀을 전했더라면, 대다수는 그것을 거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허영과 물질주의, 그리고 허세 때문에 영성, 겸손, 형제애를 말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직 사랑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형태의 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은 아니다.

2. 그리스도께서 당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바위 동굴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 또한 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축복받은 밤에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했던 동굴과 구유와 닮은 이 땅의 한 구석을 발견하였다. (124, 13-14)

3. 이곳의 이 소박한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할 성직자 없이도 스스로 길을 걷고, 의식과 상징 없이도 나에게 경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수세기에 걸친 어둠 속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는 호소가 되어야 하며, 나의 많은 자녀들에게

갱신과 정화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94, 39)

4. 내 가르침의 그늘 아래에서는, 거기서부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동료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왕좌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누구도 왕관을 쓰거나 자줏빛 망토를 두르지 않을 것이며, 심판하고, 용서하고, 정죄하거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고해 신부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만이 의롭고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혼을 심판할 수 있다.

5. 나는 바로잡고 가르치며 인도할 사람들을 보낼 수는 있으나, 심판하고 벌할 사람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될 사람들을 보냈을 뿐, 주인이나 아버지가 될 사람은 보내지 않았다. 영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아버지는 나이다. (243, 13-14)

6. 나는 이 시대에 내 율법을 진정으로 따르고, 진리와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백성을 양성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다른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 안에서 비춰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누구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나, 그들의 미덕과 행실, 그리고 영적 의무 수행은 그들의 길을 지나는 모든 이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며, 내 율법을 어기는 모든 이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7. 이 백성이 일단 강하고 많아지면, 그들의 이웃들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니, 그들의 행위의 순결함과 하느님을 경배하는 진실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묻게 될 것이다. "성전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줄 아는가? 누가 이 수많은 무리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세울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도록 가르쳤는가? 새들처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실을 잣지도 않으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순회 설교자들과 선교사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8.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 율법을 열정적으로 따르며 세상의 정욕에 맞서 굳건한 이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길러진 것이 아니니라. 선행을 기뻐하며, 영감으로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의 소식과 치유의 향유를 전하는 이 무리들은, 지상의 그 어떤 종교 공동체의 교사나 성직자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너희 세상에는 참된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진리의 뿌리는 의식의 화려함이나 예식, 혹은 부나 세속적인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진리는 순수하고 고귀하며 진실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들은 어디에 있는가? (154, 12-14)

9. 나는 이 사역 안에서 그들에게 다양한 임무와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기 위해 많은 자녀들을 부르었으며, 너희의 성장과 재능에 따라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모아 나의 백성,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를 이루었다.

10. 어떤 이들에게는 지도자의 직분을 맡겼으며, 그들의 임무가 무겁고 힘겨운 일이 되지 않도록 백성을 여러 공동체로 나누었다.

11. 다른 이들에게는 대변자의 은사를 맡겨, 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내 영감이 인간의 말로 변한 것을 전하게 하였노라.

12. 어떤 이들에게는 예지력의 특권을 주어 그들을 예언자로 삼았고, 그들의 매개를 통해 앞으로 올 일들을 선포하게 하였다.

13. 백성의 순례 여정을 돕고, 청중 무리와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는 데 도움을 주는 교회 지도자들의 조력자가 될 자들에게는 "기둥"의 임무가 주어졌다.

14. 다른 이들은 중재의 은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영적 세계의 도구로 훈련되어 그 메시지를, 곧 나의 사역에 대한 해설을 전하고, 또한 병자들을 위한 위로인

치유의 향유를 지닌 자로서, 그들의 치유하는 영적 기운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자비를 베풀게 하려 함이다.

15. 내가 너희에게 남길 책, 즉 이 시대의 나의 계시, 가르침, 예언을 기록하는 자를 나는 "금붓"이라 불렀다.

16.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굳건함과 안정, 그리고 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자들에게 "초석"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였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말과 조언, 그리고 모범은 바위처럼 변함없어야 한다.

17. 그러나 이제 내 계시의 이 시기가 끝을 향해 가니, 나는 모든 직분을 바로잡으며, 이처럼 중대한 임무를 맡도록 선택된 모든 이에게,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깨닫도록 부르짖는다. 이 성찰의 시간에 나는 모든 이를 돕겠다. (335, 27-28)

18. 언제나 그랬듯이, 부름받은 자는 많았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었다. 이는 내가 제때에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자들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며, 나머지에게는 그들이 또한 선택받을 그 때를 기다릴 줄 알도록 빛을 주기 때문이다.

19. 임무를 맡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부름만 받은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제자와 일꾼의 대열에 합류했는가! 그들의 영혼은 이 십자가의 짐을 지기에 필수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이성은 내 영감을 받아들일 만한 빛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의 대열에 들어선 후 무엇을 했는가? 신성모독을 일삼고, 분위기를 오염시키며, 나쁜 성향으로 다른 이들을 감염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불화를 조장하며, 내 이름과 내가 제자들에게 부여한 영적 은사를 이용해 이윤을 챙겼다.

20. 누구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하지 마라. 너희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예리한 심판자의 시선만이 그들을 놓치지 않으며, 나는 그들의 양심에 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말하게 한다.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제때에 너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속히 내 식탁에
앉혀 화해와 용서의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306, 53-55)
21. 이것이 진리이다: 내 사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두가 이를 깨달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내
사역에 속해 있고, 다른 이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다고.
22. 사랑으로 나를 따르는
이들은 내 말씀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바로잡아 주고,
망신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을 행동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만든다.
23. 이러한 완성을 추구하는
대신,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기보다 단지 칭찬과
우월감, 아첨, 혹은 생계만을 찾는
자들은, 내 말씀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내 것과는 다른,
자기들의 뜻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들은 내 계시의 시간 동안
청중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나중에 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내
말을 경청하는 것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140, 72-74)
24. 나는 혼란과 불순종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때 그 "일꾼"이 일어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의 계시가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나의 뜻에
저항하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올 것이다.
25. 내가 사명과 은총을 맡긴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가.
1950년 이후 내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무지가 퍼져가는지
내가 보고 있다.
26.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간은 나의 돕는 사랑과 권능과
은총을 가로막고, 율법과 조화와
진리의 참된 길에서 벗어나 있다.
27.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지파마다 갈라질 것이며, 또다시
분열되어 내가 그들의 손에 맡긴

순수하고 맑은 율법을 짓밟으려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옛길을 찾게 되고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이단 집단으로 향하여 혼란과 어둠에 빠지고, 인간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듣기 좋지만 거짓된 말들에 탐닉할 것이다.

28. 교회와 종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서로를 부인하며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보석을 빼앗고, 새 언약의 궤를 차지하기 위한 구실을 찾게 될 것이며, 내일쯤에는 자신들이 인류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며 나의 신성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363, 47-49, 51, 57)

영적 사역에 관한 청취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

29. 나는 내 계시가 끝난 후, 너희가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를 따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영성주의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실천해 온 것은 영성이 아니라, 단지 내 사역에 대한 너희의 상상일 뿐이었으며, 그것은 진정한 영성과는 거리가 멀다.

30. 너희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강해져야 하며, 습관을 고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너희 가운데 이 가르침의 진리와 순수함이 빛나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1. 내 가르침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너희의 예배 형식과 의식의 외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52, 28-30)

32. 너희에게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내 가르침을 들으라. 그리하여 그 가르침이 너희를 빛과 은총으로 채워, 너희가 영성으로 향하는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라. 너희가 물질주의와 오류로 가득 찬 의식을 계속해 왔기에, 너희는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것이다.

33. 오늘까지 너희에게는 너희의 형상들과 의식과 상징들을 없애고, 무한한 곳에서 영적으로 나를 찾으려는 믿음이 부족했다. 너희에게는 영성인이 될 용기가 부족했고, 너희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잘못들을 숨기기 위해 일종의 가짜 영성을 만들어 냈다.

34. 나는 너희가 위선적이기보다는 진실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너희 삶을 철저히 정화하고 세상에 이 일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장 명확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를 영성가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러하라. 너희가 내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한, 내 가르침에 대해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행실로 인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35. 무엇보다도 내 일이 무엇인지, 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의 임무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깨달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길을 가는 데 너희의 발걸음을 이끌 만한 합당한 인도자가 없을 때, 양심과 내 가르침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어떤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71, 27-30)

36.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의 계시가 시작된 이래로, 나의 뜻은 너희가 영적 은사를 실제로 적용하고 영적 사명을 시작하여, 내가 떠나는 날이 왔을 때 이미 여정의 일부를 걸어왔기에, 그토록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37. 어떤 이들은 신성한 생각을 해석할 줄 알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38.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오류들이다. 나는 인류가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 온

이들을 조롱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267, 65-67)

39. 어떤 이들은 오직 내 말씀의 의미에만 관심을 두고 항상 자신의 영혼의 진보와 발전을 갈망했던 반면, 다른 이들은 외형적인 의식에 더 흥미를 느꼈다. 마찬가지로, 전자들은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기뻐했던 반면, 후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언급되는 것을 불편해했다.

40.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알려졌어야 했으나 숨겨졌던 모든 일로 인해, 누가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나만이 알고 있다. (270, 8-9)

41.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화합은 영적인 것이며, 너희가 자신의 정욕과 독선에서 벗어나야만 이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2. 각자가 자신의 것을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것을 거짓이라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43. 광신주의는 어둠이며, 맹목이며, 무지이며, 그 열매는 결코 빛날 수 없다. (289, 8-10)

4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뜻대로 너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너희를 흩어 버릴 것이며, 너희의 삶이 너희가 설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를 그들 가운데서 쫓아낼 것이다.

45. 만일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다른 예배 형식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46. 나는 너희에게 내 계시의 마지막 3년을 맡기니, 이 백성의 통합을 위해 힘쓰라. 영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연합을 이루어서, 조화와 일치를 가득 담은 너희의 활동이, 각기 다른 모임 장소와 각기 다른 지방에 있는 너희 모두가 오직 한 분 스승, 곧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게 하라. (252, 69-71)

진정한 제자, 새로운 사도들

47. 보편적이고 무한한 이 일을 제한하려 하지 말고, 너희의 영적

성장에 한계를 두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선한 행실과 학문의 길에 더 깊이 몰입할수록, 더 큰 계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 신성한 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존재 안에서 그것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48.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 제자를 가르치는 단순함이다. 그도 스승처럼 단순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자는 신비한 힘이나 비범한 능력으로 남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말의 진실과 행위의 힘으로 설득하고 개종시켜야 한다.

49. 참된 제자는 그 단순함으로 인해 위대해질 것이다. 그는 스승을 이해할 것이며, 동시에 동료 인간들에게도 자신을 이해시킬 것이다. (297, 15-17)

50. 예수님의 제자란, 말씀으로 정복하고, 설득하고 위로하며, 고양시키고 깨우치는 자로서, 정복당한 자를 자기 자신과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로 만드는 자이다.

51. 그리스도의 사도는 오직 자신의 고통이나 걱정만 생각하며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에게 헌신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뒤로 한 자에게 아버지께서 즉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로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희망의 미소, 슬픔에 대한 위로, 고통에 대한 한 방울의 치유제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잊은 자는, 돌아왔을 때 축복과 기쁨과 평화인 빛으로 밝혀진 자신의 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93, 32-33)

52. 이 시대에 내 식탁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사도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영혼을 이 식탁에 앉히리라.

53. 이 시대에 영성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열정적으로 지키는 사도의 발자취를 그 길 위에 남겼다.

54.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에서 여인은 남자와 나란히 설 것이며, 나를 섬기기 위해 정해진 나이는 없을 것이다.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어린 소녀도, 어머니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며, 그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어린 시절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69, 16-17)

55.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곳에도 너희의 것이 없다고 말하노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간에게 단지 지나가는 곳일 뿐이기 때문이다.

56. 나는 너희에게 결코 물질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참된 삶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시금 나의 가르침에 맞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사랑과 지혜와 정의로 이루어진, 영원히 유효한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즉시 이해되지 않을 것이며, 인류는 다시 나를 정죄하고,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가르침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나의 가장 맹렬한 박해자들이 나중에는 나의 가장 충실하고 헌신적인 씨 뿌리는 자들이 될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리에 대한 아주 큰 증거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57. "두 번째 시대"의 니고데모, 즉 제사장들 중의 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가 지혜롭고 심오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나 나의 사역을 성실히 탐구하고 그분께로 돌아설 것이다.

58. 한때는 맹렬한 분노로 나를 박해했으나 나중에는 나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다시 내 길에 나타날 것이며, 곳곳에서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173, 45-48)

59.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들,
세상과 영의 거대한 투쟁에
익숙한 이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들이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려는
욕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양된 순간에 그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이 자비를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느꼈기 때문에,
이기심에 거처를 제공할 수 없다.
(54, 53)

전 세계와 모든 시대의 하느님의 사자들

60. 지상의 민족들은 영적인
빛이 부족했던 적이 결코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곳의 이 민족만이 예언자와
사자들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노라.

61. 그들의 가르침에 담긴 빛과
진리,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것과 닮은 점을 바탕으로
너희는 그들의 말을 판단할 수
있다.

62.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살았고, 다른 이들은
내가 인간으로 계셨던 후에
활동했으나, 모두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다.

63. 그 가르침들은 — 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 왜곡을
겪었다. 왜냐하면 그 본래의
의미를 바꾸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훼손했거나,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숨겨졌기
때문이다.

64. 사자들과 예언자들과 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은
오직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도덕뿐이다. 그렇다면 왜
민족들은 진리와 도덕, 그리고
삶에 대해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65.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에
의해 왜곡되어 온 이 진리는
회복될 것이며, 그 빛은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비추어질 것이니,
비록 그것이 언제나 내 신성의

자녀들의 발전의 길을 비추어 온 바로 그 빛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보일 것이다.

66.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죽은 이들이 많으며, 자신 안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을 당한 이들도 많다.

67. 하늘이 오직 영과 사랑, 도덕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준 이들만을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하늘은 또한 과학의 좋은 열매, 즉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며 고통을 완화해 주는 지식을 너희에게 선사한 이들도 보내셨다. 그들 모두는 나의 사자들이었다.

68. 영적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나 과학적 발견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도록 가르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나의 사자들이다.

69.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세상, 아름다움과 선함에 무감각한 인류의 무지를 깨달았을 때, 모두 쓰라린 잔을 마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내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내 모든 가르침이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 영적 찬란의 시기가 가까워졌음을 믿을 수 있겠지만, 비록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심판받고 정화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21, 9-16)

70.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을 깨우치려 할 때마다, 나는 그 빛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선구자나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영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만이 나의 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라, 제자들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든 선을 심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사자이다.

71. 너희는 삶의 모든 길에서,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과학 분야에서도, 통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은 선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 사자들을 만날 수 있다.

72. 나의 좋은 종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물러서기보다는 차라리 그 길 위에서 죽기를 택한다. 그의 모범은 이웃의 삶에 빛의 씨앗이 되며, 그의 행적은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아, 인류가 내가 그들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중대한 사명을 띤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그 위대한 모범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길을 택하기 때문이다. (105, 13-15)

73. 그러나 인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내 길, 즉 지혜와 사랑과 평화의 길인 믿음의 길을 상기시켜 주도록 한 그 사람들을 너희는 어떻게 대했느냐?

74. 너희는 그들의 사명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너희의 이론과 교파에 근거한 위선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했다. (263,18-19)

75.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계시를 중심으로 모인 이 백성은,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지상의 다른 민족들 위에 두신 백성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시선을 두신 유일한 이유는, 새로운 신성한 계시가 내려올 때마다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해 온 영혼들로 그들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언자, 사자, 선견자, 족장들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자녀들이다.

76. 이 시대에 누가 그들보다 더 잘 나를 영접하고, 내 계시의 새로운 형태를 이해하며, 내 약속의 성취를 증언할 수 있겠느냐? (159, 51-52)

77. 나는 대다수가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내려왔다. 나머지 이들은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으며, 내가 그들을 보내었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나를 드러내 보였노라. 이들은 내게 충실했던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 그들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았고, 그들의 영은 나의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노라. 나는 현재 그들을 통해

세상에 지혜의 큰 보물을 주고 있노라. (269, 2)

78. 소수로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꿰뚫는 시선은 이제 나의 임재의 때가 왔음을 그들의 영으로 느끼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어디서나 발견한다. 그들은 너희처럼 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 안에서 그들은 내가 다시 인류 가운데 있으며, 영적으로 '구름 위'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예감의 능력을 통해 보게 할 것이며, 나머지 이들에게는 내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하여 내 영의 임재를 느끼게 하리라. (346, 13)

79. 머지않아 직관적인 자들, 영감을 받은 자들,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이 일어나 각 나라에서 그들이 영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증언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 백성은 이 대변자들을 통해 나를 들은 자들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나는 나중에 씨 뿌리는 자들이 와야 할 길을 준비하고 밭을 갈아엎기 위해 내 종들을 지구의 여러 곳으로 보냈노라.

80. 나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축복하노니, 그들의 하루 일과가 고통스럽고 그들의 길은 가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조롱과 비웃음, 중상모략과 악행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들은 — 예지력과 영감을 받아 — 자신들이 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으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길의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284, 50-51)

81. 나는 너희를 내 왕국으로 초대한다. 나는 어떤 차별도 없이 지상의 모든 민족을 부르나, 그러나 모든 이가 내 말을 듣지는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82. 인류는 등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을 걷고 있다. 그러나 오류가 드러나는 곳에는, 내가 빛을 비춘 이가 나타나 , 주변에 빛을 퍼뜨릴 것이다. 그는 깨우고 뒤흔드는 경보음을 울리기 위해

내 신호를 기다리며 깨어 있는 영적 파수꾼이다.

83. 그 사자들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게 하라.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현재 알지 못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를 묶고 있는 물질주의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며, 너희를 나에게로 끌어올리는 영적 자유를 얻도록 도울 것이다. (281, 33)

84. 만일 누군가 나타나 자신이 다시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그를 믿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고 너희에게 예고했을 때, 그것은 영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한다면, 그를 의심하라. 참된 사자들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떠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행실로만 자신을 증명한다. 그 사람이 주님의 사자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85. 나는 너희가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나, 너희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86.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등불로 세워, 그들이 동료들의 길을 비추게 하리라. (131, 5-7)

87.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부터 이 길을 따르는 누구도 내 율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자신의 양심 외에는 다른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8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범과 영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큰 빛과 강한 영혼을 지닌 남녀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89.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영들을 땅에 보내어 너희에게 길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상기시켜 주게 했을 것이다. 그들도 너희 곁에 있어 너희를 보호하고 동행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하다. 90. 누가 그들을 보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면, 인류와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 안에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위대한 영들의 임재를 너희 위에 느낄 것이다. (255, 40-41)

II. 제1 및 제2 계시 시기의 회고

제9장 –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인물들

타락의 이야기

1. 지구를 처음 거주했던 인류에 대한 역사적 전승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마침내『초기 시대』라는 책에 기록되었다. 이는 지구에 살았던 그 최초의 인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비유이다. 그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은 그들로 하여금 대자연의 어루만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존재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고,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제한 없는 형제애가 있었다. (105, 42)

2. 신성한 비유를 통해 나는 첫 인간들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첫 지식을 얻도록 영감을 주었으나, 내 계시의 의미는 잘못 해석되었다.

3. 인간이 먹었던 생명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졌을 때, 그것은 단지 인간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로부터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50, 42)

4.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최초의 법이었다, 오 백성아. 나중에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번성하고 인류 종족이 계속 성장할 것을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그들의 영혼이 방해받지 않고 꽃피고 발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법이 인류 종족의 번성을 목표로 했다면 — 어떻게 너희는 그 동일한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이행했다는 이유로 너희를 벌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 안에 그런 모순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5. 보라, 인간들은 단지 인간 내면의 영혼의 각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비유에 대해 얼마나 물질적인 해석을 내렸는가. 그러므로 내 가르침을 깊이 헤아리고, 더 이상 너희가 최초의 지구 거주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불순종함으로써 지게 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신성한 정의에 대해 더 높은 관점을 가지라. (150, 45-46)

6. 이제 너희는 내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때이다. 즉, 이것이 영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며, 너희는 선한 행실과 빛나는 생각으로 우주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자 하는 모든 이, 즉 완전함을 추구하는 모든 이를 나는 환영한다. (150, 48-49)

의지의 자유와 원죄

7. 너희는 나에게, 자유 의지 때문에 실수와 오류에 빠졌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나는 너희에게, 이 은총을 통해 너희가 발전의 시작점에서 출발했던 지점을 무한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8. 자유의지 외에도, 나는 아무도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영혼의 영에 나의 빛을 주었으나,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거나 영적 빛을 갈망하며 내면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은 자들은 곧 인간 삶의 무수한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영혼을 위한 내 법의
버팀목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9. 단 한 번의 잘못이 많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이는 불완전함이
신성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순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방금
저지른 잘못을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온유하게
간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맞아들이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실수를 만회하도록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사명을
확고히 하셨다.
11. 모든 이가 첫 불순종 후에
온유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요, 많은 이들이 오만과
원한으로 가득 차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부끄러움에 차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겸손의 증거인 회개와
개선을 통해 정화되기는커녕, 내
사랑이 정한 법칙 밖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2. 이에 내 공의가
발동되었으니, 이는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포괄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13. 그 최초의 죄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오점을 벗어날 수 없는가? 그들은
한 번의 추락에서 또 다른
추락으로, 심연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오직
내 율법을 실천하는 것만이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20, 40-46)

대홍수

14. 인류의 초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순수함과 소박함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발전과 자유 의지 로 인해 죄도
더욱 많아지고 점점 더 빠르게
번져 나갔다. 그들의 미덕이

아니라, 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위반 행위들이 그러했다.
15. 이에 나는 노아를 준비시켰으니, 그에게 영과 영으로 내 뜻을 알렸노라. 이는 인류 태초부터 내가 사람들과 맺어 온 대화 방식이니라.
16. 내가 노아에게 말하였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리라. 이를 위해 나는 큰 홍수를 보내리라. 방주를 짓고 네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 네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 한 쌍씩을 그 안에 태우라."
17. 노아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재앙은 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악한 씨앗은 뿌리째 뽑혀 나갔고, 선한 씨앗은 나의 곡창에 간직되어, 내가 그것으로 내 의의 빛을 품고 내 율법을 지키며 선한 풍속을 따라 사는 법을 아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였다.
18. 너희는 그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육체와 영혼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내 자녀들아. 그들의 영혼은 나를 통해 보존되었고, 심판자이신 그들의 양심 앞에서 깨어났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302, 14-16)

아브라함의 희생 정신

19. 너희가 고난의 잔을 끝까지 비워야 할 필요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시험의 가장 힘든 순간을 겪지 않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20.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극히 사랑하던 아들 이삭의 목숨이 요구되었음을 기억하라. 그 조상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고통을 이겨내며, 너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순종과 믿음, 사랑, 겸손의 시험 속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증명했기에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손이 더 높은 권능에 의해 막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저지당했을 때, 그의 내면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그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찬양하며 그분의 지혜를 경탄했는가! (308, 11)

21.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구세주의 희생적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함으로써, 그가 나에게 보인 사랑을 시험했을 때 말이다.

22. 올바르게 고찰해 보면, 너희는 그 행위에서 나중에 "독생자"의 희생이 **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유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이 성경적 표현은 세상에 태어난(또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23.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화신이었고, 이삭은 예수의 형상이었다. 그 순간, 족장은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 무고한 자의 피가 백성의 죄를 씻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살과 피인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백성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보다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24. 순종적인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던 참이었다. 고통에 압도되어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나의 권능이 그를 붙잡아 아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으니, 그 상징이 사랑과 순종의 증거로 남게 하려 하심이었다. (119, 18-19)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의 사다리

25.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십니까? 그 사다리는 영혼의 삶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26. 계시가 내려질 당시 야곱의 육신은 잠들어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깨어 있었다. 그의 영혼은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통해 승천하였고, 빛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온 인류를 뜻하는 그의 백성을 위해 영적 계시와 진리의 유언으로 보존되어야 할 천상의 메시지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27. 야곱은 그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영적 상승의 길을 나타내는데, 이 길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시작하여, 영혼이 모든 물질적 영향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빛과 본질과 합일될 때 끝이 난다.

28. 족장은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는 빛을 갈망하거나, 속죄하고 정화하여 영적 세계로 돌아갈 때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임무를 띠고, 영혼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에 이르는 영적 발전의 길이다.

29. 그러므로 야곱은 사다리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상징적인 형상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너희의 완성과 노력의 목표이자, 무한한 행복이라는 최고의 상급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는 힘든 투쟁과 긴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도달하기 위한 끈질긴 인내에 대한 보상이다.

30. 영혼은 항상 운명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상승하기 위한 공덕을 쌓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시험은 언제나 야곱의 사다리를 상징하며, 여러분에게 한 단계 더 올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31. 오 제자들이여, 이는 위대한 계시였으니, 영혼이 신성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참된 것을 숭배하도록 깨어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적 삶의 시기에, 그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영적 삶에 대해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32. 그 메시지는 한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한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 본질은 영적이었기에 보편적인 의미를 지녔다. 바로 그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으리라. 너희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315, 45-50)

요셉과 그의 형제들

33.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로 향하던 몇몇 상인들에게 팔려갔다. 요셉은 아직 어렸으나 이미 위대한 예언의 은사를 보여준 바 있었다. 질투가 형제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은 요셉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내쫓았다. 그러나 그의 종을 지켜보시던 주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그를 크게 세우셨다.

34.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세상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이집트는 요셉의 조언과 영감을 따라 그 재앙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35.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다. 그들은 형제 요셉이 파라오의 대신이자 참모가 되었음을 깨닫고 크게 당황했다. 그를 보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형제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권능과 덕과 지혜로 충만하여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팔아넘겼던 그 예언자는, 주님께서 어릴 적부터 그의 입에 담아 두셨던 예언의 진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다. 그들이 학대하고 팔아넘겼던 그 형제는 그들을 용서했다. 이해하느냐,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인정받았듯이, 너희는 언제 나를 알아볼 것인가?"라고 말했는지 알게 되었다. (90, 2)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36. "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 그리고 물질주의로 인해 어떤 이들은 신성모독을 저질렀고, 어떤 이들은 배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반항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와 인내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의 불순종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신 그 아버지께 겸손하고 순종하도록 했다. (343, 53)

37. 모세는 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으나, 백성들은 더 많은 증거를 원했다. 사자가 무리를 시나이 산 기슭까지 이끌고 가자,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를 존중하시어 그에게 큰 증거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38. 백성들은 모세가 그의 믿음을 통해 듣고 보았던 그분을 직접 듣고 보고 싶어 했기에, 나는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시고 몇 시간 동안 내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너무나도 위엄 있어 사람들은 두려움에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몸은 떨었고, 그 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영혼은 전율했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에게 간청하여, 더 이상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청해 달라고 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과 직접 소통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9, 32, 34)

39. 인생의 거대한 전투 속에서 너희 영혼을 굳건히 하라.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졌던 것처럼 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광야가 얼마나 광활한지, 무자비한 태양과 불타는 모래가 어떤지 아느냐? 적들이 매복하고 있어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 고독과 침묵, 그리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위대함을 깨달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니라. 그 백성이 사막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으니, 곧 빵과 물, 쉴 수 있는 안식처, 오아시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이자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며 영혼을 드높일 수 있는 성소였다. (107, 28)

참 하나님을 위한 엘리야의 투쟁

40. "초기 시대"에 엘리야는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보았으나, 그들이 이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세상은 왕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신성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등을 돌리고 백성들을 타락과 거짓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아 놓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41. 엘리야는 그 시절에 나타나 그들에게 의로움으로 가득 찬 말로 말하였다. "너희의 눈을 뜨고, 너희가 주님의 율법을 더럽혔음을 깨달아라. 너희는 그분의 사자들의 본을 잊고,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숭배에 빠져 있다. 너희는 깨어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의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분을 형상화한 모든 우상을 향해 눈을 들어라."

42. 엘리야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악한 백성에게서 물러가라.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할 때까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하라."

43. 엘리야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내 목소리가 명령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는 떠나갔다.

44. 그날부터 땅은 메말랐고, 비가 내릴 시기가 지나갔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들판은 가뭄을 겪었으며, 가축은

하나둘씩 시들어 갔고,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땅을 파고 물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강은 말라버렸고, 풀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시들어 갔으며, 사람들은 신들을 부르며 그 물이 다시 돌아와 씨를 뿌리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45. 엘리야는 신의 명령에 따라 은둔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렸다. 남자와 여자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을 새로운 땅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행렬이 보였고, 모든 곳의 땅은 메말라 있었다.

46.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엘리야가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왕을 찾아가라. 내가 네게 표적을 주면, 비가 다시 이 땅에 내릴 것이다."

47. 겸손하고 순종적인 엘리야는 그 백성의 왕에게 나아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후 그는 아버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했고, 그러자 표징들이 나타났다.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 불꽃이 보였고, 이어서 생명을 주는 비가 쏟아져 내렸다. 들판은 다시 푸르름으로 물들었고, 나무들은 열매로 가득 차며, 풍요가 찾아왔다.

48. 백성들은 이 증거를 보고 깨어났으며, 엘리야를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훈계하셨던 아버지를 기억해 냈다. 그 당시 인류를 깨우치기 위한 엘리야의 기적은 무수히 많았고 매우 컸다. (53, 34-40)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49. 예언자와 선구자, 빛의 영들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들 중 일부를 다른 민족들에게도 보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사자가 아니라 신으로 여겼고, 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종교와 숭배를 만들어 냈다.

50.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 지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과 안락으로 가득 찬 안락의 침상에 잠들어 있었다.

51. 아버지는 한 지파가 백성을 방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다른 지파는 땅을 경작하며, 또 다른 지파는 어부와 선원으로 구성된 완벽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 또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숭배하는 임무가 맡겨졌으며, 이처럼 백성을 이루는 열두 지파는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 그 전체가 조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옛날에 지녔던 영적인 능력은 여전히 너희에게 남아 있다. (135, 15-16)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초기 왕들

52. 선지자들은 큰 진실함으로 말하였으며, 거의 항상 혼란과 타락의 시기에 이 땅에 내려왔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였으며, 그들이 선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정의의 큰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경우에는 신성한 율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어질 축복을 예언하기도 했다.

53. 그러나 그 예언자들이 전한 것은 선과 정의, 그리고 상호 존중을 실천하라는 권면이었다. 그들은 영혼의 삶과 그 운명, 그리고 발전을 계시하지 않았다. 내가 나의 대리자로 삼기 위해 선택하였고, 그를 통해 모든 시대를 위한 율법을 전한 모세조차도 너희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54. 아버지의 법에는 지혜와 정의가 담겨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살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눈앞에서 인간으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모세는 육체적 죽음의 문턱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불순종한 영혼들의 속죄가 어떠한지, 혹은 삶의 사명을 지혜롭고 부지런히 수행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어떠한지 인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55. 그 후 영적 은사와 영감으로 충만한 다윗이 통치하였는데, 그는 고양된 순간과 황홀경 속에서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편을 지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의 가장 훌륭한 제물을
바치도록 권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사랑과
영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영혼의 경이로운 존재와 그 발전,
그리고 그 목적( )을 밝혀줄 수는
없었다.
56. 그리고 그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마찬가지로 그에게
부여된 지혜와 권능이라는
위대한 은사를 증명하여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의 조언과 판결,
격언이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솔로몬은 — 만일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와
물었다면: "주여, 영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를 다해도 이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339, 12-15)

제10장 – 때가 차매

예언적 예언들

1.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의 숭고한
모범을 통해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2. 먼저 그분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방식과, 인간으로서 그분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어떠할지를 예고하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나타나실 때, 예언을 아는 자가
그분을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내가 예수로 임재하기 수세기
전,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예언을
비롯한 여러 예언을 통해 나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4. 다윗은 내가 오기 수 세기
전에, 고통과 예언적인 의미로

가득 찬 시편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그 시편들에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신 일곱 말씀 중 하나를 언급하며, 군중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갈 때 보일 경멸과, 사람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을 듣고 내뱉을 조롱의 말들, 인간의 배은망덕함 앞에서 내 육신이 느낄 버림받음, 내가 겪게 될 모든 고문, 심지어 그들이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을 방식까지 예견했습니다.

5. 나의 모든 예언자들은 나의 오심을 예고하고, 길을 준비하며, 그 날이 왔을 때 아무도 착각하지 않도록 정확한 특징들을 알려 주었다. (40, 1-5)

유대 민족의 메시아 기대

6. 세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번째 시대"에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의 위대한 예언자들은 메시아, 즉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고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예고했었다. 그 백성이 고통을 겪을수록 약속된 분의 오심을 더욱 간절히 바랐고, 굴욕과 억압의 잔을 마실수록 메시아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였으며, 구세주의 도래가 가까웠음을 알려줄 징후와 표징을 사방에서 찾아다녔다.

7. 대대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해진 신성한 약속은 오랫동안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8. 마침내 내가 내 백성에게 왔으나, 비록 모두가 나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이들은 물질적인 해석으로 나를 대했다.

9. 그러나 내 임재를 느끼고 내 말씀의 빛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내 계시를 믿은 이들의 진실함과 사랑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나를 충실히 따르고 내 안에서 영적 구세주를 본 이들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진리를 증언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10. 비록 나의 메시지는 지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의 부르심은 선택된 백성의 마음에 닿아 그들이 훗날 내 말씀의 대변자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 백성만이 나의 임재를 느낀 것은 아니었으니,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나의 도래를 알리는 징조를 발견하고, 내가 지상에 머무는 시기를 예감하였다. (315, 17-19)

11. 모든 시대와 모든 신성한 계시에서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12. 메시아는 아직 지상에 오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었고, 이미 예언자의 영혼은 요한에게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훗날 세례 요한이라 불리며, 인간들 가운데 임할 "말씀"의 현존이 곧 천국의 임박을 알리는 것이 될 것임을 선포하였다. (31, 61-62)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13. 이미 "초기 시대"에 조상들과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단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고, 한 여인에게서 육신을 얻기 위해 오셨다.

14. 하나님의 모성적 영 또한 인간이 되어야 했고, 여성이 되어야 했으며, 순결의 꽃이 되어야만, 그 꽃잎에서 예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었다. (360, 26)

15. 나사렛에는 순결과 다정함의 꽃, 마리아라는 이름의 약혼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예고한 바로 그 여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태중에서 참된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주님의 영적 사자가 그녀에게 와서, 그녀가 이 땅에 가져온 사명을 선포하며 말하였다. "은총을 받은 이여, 평안하시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모든 여자 중에서 복이 있도다."

17. 신성한 비밀이 드러날 때가 이르렀고, 메시아이자 구세주, 구원자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참이었다. 그러나 내 임재를 느낀 마음은 얼마나 적었으며, 내 진리의 빛 속에서 천국을 알아볼 준비가 된 영혼은 얼마나 적었는가. (40, 6-7)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경배

18. 오늘날 인류는 동방에서 온 몇몇 현자들이 베들레헴의 구유로 와서 신성한 아기를 경배했던 그날을 기념한다. 오늘 몇몇 마음이 나에게 묻는다. "주님, 그 위대하고 지혜로운 신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신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19. 그렇다, 내 자녀들아, 내 면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바로 학식과 권세와 부유함이었다.

20. 그곳에는 목동들과 그들의 아내,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소박하고 건전하며 단순한 예물을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를 맞이하고 환영했으며, 천상의 자애로움을 몸소 보여주는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겸손과 순수함, 소박함을 상징했다. 그러나 양피지 두루마리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약속을 간직하고 있던 자들은, 세상에 누가 오셨는지조차 짐작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146, 9-11)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사랑의 유대

21.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마리아 곁에서 보내셨으며, 그녀의 품과 곁에서 모성애를 누리셨습니다. 여인이 되신 신성한 자애로움은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신 첫 몇 해를 달콤하게 해주셨는데, 이는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너무나 큰 괴로움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22. 예수님의 육신이 형성된 마리아의 품에서, 그리고 스승이 함께 살았던 마리아의 곁에서, 마리아에게 영적 고양과 순결, 거룩함이 결여되었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23.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나의 모든 것, 즉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 (39, 52-54)

예수의 지식과 지혜

24. 사람들은 그들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지식을 얻기 위해 에세네파에 계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살아오신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신성한 분은 인간적인 것에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머무른 곳은 어디든지, 그것은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지혜를 전하기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너희 스승이 열두 살 때 그 시대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 율법학자들을 지극히 놀라게 하셨을 때, 이것이 그 증거가 아니었는가?

25.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의 약점을 돌리며, 신성하고 흠이 없는 그분에게 자신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더러운 것을 던지는 것을 즐긴다. 이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26. 너희가 바라보는 자연의 모든 기적이 신성한 생각의 물질적 구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육신이 너희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의 생각이 물질화된 것임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신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만 너희를 사랑하셨다. 나의 진리는 절대적인 빛과 무한한 힘을 품고 있기에 결코 왜곡될 수 없다. (146, 35-36)

27. 나는 "제2의 시대"에, 너희를 이 땅으로 이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올바른 때를 기다려야 하는 방법에 대한 본보기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28. 나는 내 몸, 즉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그 예수께서 신성한 사명, 곧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일을 그분을 통해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에 이르기를 기다렸다.

29. 그 육신—마음과 이성—이 온전히 성숙해졌을 때, 내 영은 그의 입술을 통해 말하였고, 내

지혜는 그의 이성을 가득 채웠으며, 내 사랑은 그의 마음에 깃들었고, 그 육신과 그를 비추는 신성한 빛 사이의 조화는 너무나 완전하여, 나는 종종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30.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세상에서 얻지 않으셨다. 그리스인, 칼데아인, 에세네파, 페니키아인, 혹은 그 누구에게서도 그 빛을 얻지 않으셨다. 그들은 아직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했고, 나는 땅 위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르치셨다.

31. 예수께서는 천국과 사랑과 정의의 법, 빛과 생명의 가르침을 선포할 때가 올 때까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실천적인 이웃 사랑과 기도에 바치셨다.

32. 그 당시 내가 선포한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나 당시 알려진 어떤 학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3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학식을 빌려 썼더라면, 나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찾았을 것이며, 바로 그들 중에서 내 사도 무리를 이루었을 것이다. (169, 62-68)

나사렛의 인간 사회가 보인 무지

34. 내가 찾아간 백성들이 나에게 보호해 줄 거처를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집트와 같은 백성의 품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이 겪어야 했던 유일한 고통은 아니었다.

35. 내가 이집트에서 돌아와 나자렛에서 살 때, 나는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고 불신과 시기심 어린 말들로 상처를 입었다.

36. 나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오해를 받았다. 내 삶과 행적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나를 믿지 않았다.

37. 그러므로 설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나는 나자렛을

떠나며 이렇게 말해야만 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믿음을 얻지 못한다. 그의 말이 들리려면 고향을 떠나야 한다." (299, 70-72)

제11장 –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

요단강에서의 세례; 광야에서의 준비 기간

1. 신성한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나올 그 시간을 기다려 온 사랑이 넘치고 겸손한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는 세례의 물을 받으시려고 요단강 가에서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화를 갈망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나의 백성들아. 혹시 어떤 의식을 거행하려고 가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인간이 사라져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될 그 시간이 왔음을 아셨으며,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질 행동을 통해 그 시간을 표명하고자 하셨습니다.

2. 그 상징적인 물은 씻어낼 어떤 흠도 없었지만, 인류의 본보기가 된 그 육신을 세상과의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그분이 뜻대로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는 신성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3.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 위에서 영생의 말씀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랍비, 스승, 사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 (308, 25-27)

4. 그 후 나는 명상하고, 너희가 창조주와 대화하도록 가르치며,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역을 묵상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역을 완수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정화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사막으로 물러났다. 그러니 너희 존재의 고요함 속에서 너희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채 — 정화되고, 강해지며, 결의를 다진 채 — 흔들림 없이 너희의 어려운 사명을 완수해 나가라. (113, 9)

예수님과 하느님의 일치

5. 3년 동안 나는 예수의 입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셨으나, 그 어떤 말이나 생각도 그 이성에 의해 왜곡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행동도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예수와 그리스도, 즉 인간과 영이 하나였기 때문이며, 이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하나이신 것과 같다. (308, 28)

6. 내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아버지와의 하나이시니라.

7. "제2의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인 이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축복받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나, 오직 그분의 인간성에 한해서만 그러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존재하느니라. (9, 48)

8.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 인간적인 형상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성한 것에 대해 눈과 귀가 막혀 있던 자들에게 나를 보이고 들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예수의 몸이 여호와의 형상이었더라면, 그는 피를 흘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몸이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간적이고 감수성이 있는 몸이었다. (3, 82)

10. 예수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었다. 하나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본성으로, 나의 뜻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된 것이며, 내가 '인자'라고 불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성한 본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영이었다. 이 신성한 본성 안에 아버지의 "신성한 말씀"이 있어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단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21, 29)

11.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흠 없는 사람인 예수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12. 인간 예수께서는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이 세상에서 자라지도 않으셨으며, 죽으시지도 않으셨으니, 그분은 사랑의 음성이시며, 사랑의 영이시며, 신성한 말씀이시며, 창조주의 지혜의 표현이시며, 영원히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91, 28-29)

예수를 기대하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

13. "제2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내가 예언자들이 전한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민족의 품에 나타났을 때, 내 존재는 예언자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적들을 쓰러뜨리고, 왕들과 압제자들을 굴복시키며, 그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재물과 세상의 혜택을 베풀어 줄 분으로 기대했던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14. 그 백성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 가난하고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몸은 단순한 옷 한 벌로만 가려져 있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중에 평범한 장인으로 일하고 계셨기에, 그들은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곧 약속된 분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신성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승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행적을 보여주셔야만 했다. (227, 12-13)

15. 언제나 나의 현존을 발견하는 이들은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성은 맑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인간적인 이론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 "제2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오심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셨을 때 그를 직관적으로 알아본 것은 오직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영을 지니며, 마음의 짐이 없는 사람들뿐이었다.

17. 신학자들은 손에 예언서의 책을 쥐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징조와 시기, 방식에 관한 말씀들을 매일 되풀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내 말을 듣고도 내가 약속된 구세주임을 부인했다. 그들은 나의 행적을 보았으나, 진정으로 그것들이 모두 예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다. (150, 21-23)

18.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의심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나의 신성을 논하고 심지어 부정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내게 큰 영적 고양을 인정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도 아버지께 도달하기 위해 영혼의 발전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170, 7)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손님으로서의 예수

19. 너희의 임무는 지상에서 걸으신 너희 신성한 스승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다. 기억하라: 내가 어느 가정에 나타나든지, 나는 그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병자들을 고치며, 사랑이 지닌 신성한 권능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였다.

20.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어떤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적이 결코 없었다. 나는 그곳을 떠날 때 그 주민들의 마음이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알았으니,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 천국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21. 때로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찾아갔고, 때로는 그들이 나를 찾아왔으나, 어떤 경우든 나의

사랑은 내가 내 말씀의 의미를 통해 그들에게 준 영생의 양식이었다. (28, 3-5)

지칠 줄 모르는 설교자 예수

22. 내가 어느 계곡의 고독 속으로 물러났던 몇몇 경우, 나는 눈 깜짝할 사이만 홀로 있을 수 있었으니, 나를 듣고자 간절히 바라는 군중들이 스승의 무한한 자비의 시선을 갈망하며 그분께 다가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며, 그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내 무한한 자비의 따뜻함을 쏟아 부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피조물 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인 영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영의 참된 고향인 천국에 대해 말하여, 그들이 내 말씀으로 내면의 불안함을 달래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려 했다.

23. 군중 속에 숨어 있던 누군가가 내 진리를 소리 높여 부인하고 내가 거짓 예언자라고 주장하려던 적이 있었으나,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말씀이 그를 앞질렀다. 다른 경우에는, 어떤 모독자가 나를 비방하도록 내버려 두어, 군중 앞에서 스승이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에게 겸손과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24. 내 온유함에 부끄러움을 느낀 몇몇은 즉시 자리를 떠나, 자신의 의심으로 그분의 행적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신 분을 상처 입힌 것을 뉘우쳤다. 기회가 닿자마자 그들은 내게로 와서, 길을 따라 나를 따랐다. 내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히 내게 말을 걸지도 못한 채, 이전에 내게 가했던 모욕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들을 불러 세우고, 내 말씀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28, 6-7)

25. 들으라.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무리 지어 내게로 왔으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허영에 찬 자들, 통치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나를 듣기 위해 몰래 나를 찾아왔다 . 어떤 이들은 나를 존경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나를
거부했다.
26.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무리가
내게로 와서 아침, 오후, 밤에 내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언제나
스승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스승이
자신을 잊고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의 몸이 약해지거나
목소리가 쉴까 봐 언제 식사를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자기 안에서 양식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41, 23)

예수님의 어린이와 자연에 대한 사랑

27. 가끔 내가 혼자 있을 때면,
아이들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와
작은 꽃을 내밀거나,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거나, 내게 입을
맞추곤 했다.
28.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 내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하며
걱정하곤 했다. 제자들은 이것이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내 곁에서
쫓아내려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해야 했다.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단순함, 그리고
천진난만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29. 나는 그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보고
기뻐하였으니, 마치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았다. (262, 62-64)
30. 예수님께서 땅의 온갖
피조물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 모른다. 스승님께서
새들과, 들판과, 바다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 그러나 그들은
스승님께서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스승님
안에 모든 피조물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분의 모든 '자식'들을
이해하시며, 그분을 통해 창조된
모든 것에게서 찬양과 사랑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창조자 영이
살아 계심을 알았습니다.

31.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새나 꽃을
어루만지시며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시선을 발견했는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지혜에서 비롯된 그토록 많은
영광과 경이로움에 둘러싸여
계실 때 느끼시는 신성한 기쁨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영광 앞에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토록 많은 화려함에 대한 인간
피조물들의 무감각함과 맹목성을
보실 때 스승님의 눈에서 종종
눈물을 보기도 했다. 그들은
스승님께서 나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나병 환자 를 보실
때, 혹은 완전한 사랑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남녀들을 보실 때, 스승님께서
자주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목격했다! (332, 25-26)

예수의 가르침

32.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와
온유, 사랑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너희에게 원수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으며,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너희가 받은 선과 마찬가지로
악에 대해서도 항상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선포하셨다.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이웃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셨고, 몸과
영혼의 건강을 찾는 방법, 그리고
너희의 삶으로 부모의 이름을
공경하여 너희 자녀들에게도
공경받을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주셨다.

33.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가 지켜야 할 계명 중
일부이다. (151, 35-36)

3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며,
그것이 자신들의 관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전통과 혼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로 그것을 성취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다.
35. 확실히 나는 그 백성의 많은
전통들을 무시하였으니, 더 높은
가르침을 가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전통들이
사라져야 할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149, 42-43)
36. 내가 모세를 통해 인류에게
준 율법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부터 인간을 위한 길과
영혼을 위한 길은 분명히
제시되어 왔다.
37. 모세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생활을 위한 부수적인 법들도
제정하였으며, 영적 신 숭배
안에서 전통과 의식과 상징들을
도입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당시
인간 정신이 밟아가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38. 그러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전통과 의식과 상징과
제사를 없애고 오직 율법만은
그대로 두셨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에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다.
만약 나의 가르침이 전통들을
없애게 된다면, 그것은 백성이 그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따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254, 17-18)
39. 현재 내 말씀은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시대와 세기, 시대는
지나가겠지만, 예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가 그 당시 내가 말했으나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한다. (114,
47)

예수의 "기적"

40. 그 가르침이 마음속에
믿음을 불태우게 하려고, 나는
동시에 기적을 행하여 그들이 그
가르침을 사랑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 "기적"들이 가능한 한
실감 나게 하려고, 나는 병자들의

몸에서 기적을 행하였고, 눈먼 자와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귀신 들린 자, 나병환자를 고쳤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였다.

41.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역사는 그 이름들을 후세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간직해 두었다. (151, 37-38)

42. 신성한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빛의 존재들과, 반항적이고 무지했던 다른 존재들이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 인류 가운데서는 과학으로도 해방시킬 수 없었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했던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났다. 율법 교사들도 과학자들도 그 병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없었다.

43.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를 가르치고 사랑의 증거를 주기 위해 내가 미리 예정해 둔 것이었다. 나는 예수를 통해 그의 피조물들을 치유해 주었으니, 이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일이었다.

44. 예수의 능력에 대해 듣고 그분의 기적을 알고 있던 불신자들은, 그분을 잠시라도 흔들리게 하고 그분이 무오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까다로운 증거들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킨 일, 즉 내가 그들을 만지거나 바라보거나 명령의 말씀을 건네는 것만으로 그들을 정상적인 인간 상태로 되돌려 놓아, 그 영들이 그들의 정신을 떠나고 그들 모두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도록 한 사실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45. 이러한 능력을 목격하고 바리새인들과 학자들, 서기관들, 세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알 수 없는 힘의 소행으로 돌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치유받은 병자들은 그의 이름을 찬양했다.

46. 어떤 이들은 단 하나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스스로를 '군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47. 스승의 일생 내내 영적 현현이 잇달아 일어났다. 어떤 것은 열두 제자가 목격했고, 다른 것은 , 즉 야외와 가정에서 백성들이 목격했다. 그것은 기적, 즉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339, 20-22)

48. 너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성한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49.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기적을 돌리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의 행적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으니, 이는 모든 영혼 속에 활용되지 않은 채 존재하지만 너희가 아직 사용할 줄 모르는 그 신성한 힘이다. 너희는 사랑의 힘을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속에서 사랑 외에 무엇이 작용했겠느냐?

51. 들으라, 제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도구의 겸손함이 필요했고, 예수께서는 언제나 겸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 모범을 보이시며, 한 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담긴 겸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진실은 그분이 너희에게 겸손의 교훈을 주려 하셨다는 것이다.

52. 그분은 이 겸손, 즉 아버지와의 일치가 그분을 인류 앞에서 전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53. 오, 사랑과 겸손과 지혜를 베푸시는 그 지극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변모여!

54. 이제 너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분은 순종하셨고, 겸손하셨으며, 율법과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사랑하는 법을 아셨기 때문이다.

55. 그러므로 너희는 비록 영적 사랑의 능력 중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에 너희는 신성한 사랑이 일으키는 일들, 즉 너희가 기적이나 신비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56.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셨던 적이 있는가? 그분은 너희에게 권능과 지혜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학문이나 수행, 혹은 신비한 지식을 사용하셨는가? 오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복된 사랑뿐이었다.

57. 아버지의 법에는 모순이 없으니, 그 법은 지혜로워 단순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혜롭다.

58. 스승을 이해하라. 그분은 너희의 교과서이다. (17, 11-21)

59. 예수님을 살리신 영은 바로 나의 영, 곧 너희의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으니, 이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느꼈다. 자연의 본질을 연구해 온 학자들이 내게 와서, 그들이 나의 가르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위대한 자와 작은 자, 덕 있는 자와 죄인, 무고한 자와 유죄한 자 모두가 내 말씀의 본질 을 받아들였으며,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내 임재를 허락했다. 그러나 많은 이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선택받은 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내 곁에 있던 이는 그보다 더 적었다. (44, 10)

간음한 여인

60. 나는 죄인들을 변호했다. 간음한 여인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군중에게 쫓기고 정죄받으며 내게로 끌려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내게 물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제사장들은 내가 "정의가 실현되게 하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며,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려 했다. "어찌하여 사랑을

설교하면서 이 죄인이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녀를 풀어주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당신이 —
당신 말대로 — 확증한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1. 내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는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 땅의
흙에 그들을 정죄한 자들의 죄를
적었다. 그들은 다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얼굴을 가린 채 물러났다. 누구도
흠이 없지 않았고, 내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았다고 느꼈기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여자를 고발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다른 이들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엄격함보다
사랑으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더 쉽다. (44, 11)

마리아 막달레나

62. 마리아 막달레나 — 세상이
그녀를 '죄인'이라 불렀던 그 여인
— 은 나의 따뜻한 마음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63. 그녀는 곧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이 약한 채로 죄 사함을
구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을 곧 찾았으나,
다른 이들은 얻지 못한다.
64.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회개를 자랑하지 않았음에도
용서받았다. 그녀는 너희가
그러하듯 죄를 지었으나, 그 대신
깊이 사랑했다.
65.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행동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에서
넘쳐흐르는 진심이다. 너희가 —
너희와 같이 —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시선을 나를 향해 두어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잘못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66.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서 넘쳐흐르던 사랑을 그녀는 스승의 가르침에 바쳤다.

67.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용서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화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죄인이 받은 용서 덕분에 그녀는 단 한 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내 제자들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순간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 천대받던 마리아는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68.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내 십자가 아래와 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특권이 주어졌다. 그녀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곧 구원을 얻었다.

69. 그녀의 마음속에도 사도의 영이 있었다. 그녀의 회심은 진리의 빛처럼 빛난다. 그녀는 내 발 앞에 엎드려 나에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죄에서 해방되겠습니다."

70. 그러나 너희는 — 얼마나 자주 긴 기도로 너희의 잘못을 가리며, 너희가 죄가 없다고 나를 설득하려 하는가.

71. 아니요, 제자들아, 그녀에게서 배우고, 너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많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진리를 너희 마음속에 꽃피우면, 너희는 위대해질 것이다. (212, 68-75)

니코데모와 환생 문제

72. 그 당시 나는 선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 대화하고자 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해도 놀라지 말라." 누가 그 말씀을 이해했겠는가?

73. 나는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나의 가르침 중 단 하나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 생명이 품고 있는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상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이 지상을 걸어가는 동안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151, 59)

예수의 변모

74. "제2시대"에 예수께서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한 산을 올랐고, 스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어넣고 계실 때, 그들은 갑자기 주님의 몸이 변모하여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오른쪽에는 모세의 영이, 왼쪽에는 엘리야의 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75. 그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신성한 빛에 눈이 부셔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곧 진정하고 스승께 왕들의 자색 망토를 그분의 어깨에 두르고,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두르자고 제안했다. 그때 그들은 무한한 하늘( )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76.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고개를 들어 보니 스승님만 계셨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77.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너희 눈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육신을 보이지 않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후 너희가 인류가 예수로 알았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랬건만, 너희는 그 새로운

변모* 앞에서조차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 (29, 15-18)
** 이 현상은 초심리학에서 "변모(Transfiguration)"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고백할 용기의 부족

78. 내가 그 당시 사람이 되어 너희 가운데 살았을 때, 밤에 모두가 잠든 사이, 들키기를 두려워하여 몰래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들은 내가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향해 소리치고 나를 거슬러 화를 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의 회한은 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빛의 선물을 남겼고, 내가 그들의 몸에 치유의 향유를 부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깊어졌다.

79.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내 앞에 나타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오직 진리만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 해가 뜰 때 햇살을 받으러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언제 그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그것을 숨기지도, 부인하지도, 그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80.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내게서 몰래 귀를 기울이면서도 어디로 갔는지 부인하고, 들은 것을 숨기며, 때로는 내게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부끄러워하는가? (133, 23-26)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81. 내가 "제2의 시대"에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말씀은 — 의미와 형식 면에서 완전하여 — 모든 이에게 들렸다.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나의 시선은 각자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어떤 이에게는 의심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내게 말하였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나에게 기적을 바라는 병자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할 때, 조롱을 감추려 했고, 또 어떤 마음속에서는 나를 향한 증오와 나를 침묵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기도 했다.

82. 내 진리에 상처를 받은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 즉 바리새인들이었다. 내 말씀이 그토록 분명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위로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 비록 그 말씀이 언제나 강력한 기적들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인간 예수로서 판단하고, 내 삶을 파헤치며, 내 옷차림의 소박함과 물질적 소유의 절대적 결핍에 주목함으로써 내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려 했다.

83. 그러나 나를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내 제자들까지 정죄하며, 그들이 말을 하든, 길을 따라 나를 따르든, 식탁에 앉든 간에 그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어느 날, 내 제자들이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육체의 청결을 영혼의 순결과 혼동한 가련한 자들! 그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빵을 만질 때, 손은 깨끗할지언정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356, 37-38)

84. 그들은 내 발걸음마다 나를 캐물었다. 나의 모든 행실과 말은 악의적인 의도로 판단받았으며, 대부분은 나의 업적과 증거를 보고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의 이성은 오직 영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85. 내가 기도할 때면 그들은 말하였다. "자기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왜 기도하는가?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종교적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86. 제자들이 먹을 때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자신이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그가 살기 위해 왜 먹어야 하는가?" 그들은 내가 인류가 긴 정화의 시간을 거친 후 어떻게 살아갈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적 비참함( ), 육체의 필수적 욕구, 그리고 육체적 감각의 정욕을 초월한 영적인 세대가 탄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0, 11-13)

작별의 예고

87. 예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둘러쌌다. 그 제자들에게는 스승께서 신성한 가르침을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들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않았고,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도 없었으며, 그 무리를 둘러싼 분위기에는 온통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히 황홀해하던 어느 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너희 곁을 떠나고, 너희는 마치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들처럼 남겨질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너희는 한동안 홀로 있게 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증언을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일하라. 그러면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고향으로 데려가리라."

88. 그 말씀은 제자들을 슬프게 하였고,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예수께서는 작별을 말씀하시며 그 예고에 더욱 힘을 주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영이 떠나지 않고 앞으로도 세상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다.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그분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할 때, 그분은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354, 26-27)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89.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섰을 때, 군중들은 환호하며 나를 맞이했다. 마을과 골목길에서 남녀노소가 무리를 지어 몰려와, 스승이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과 권능의 증거를 경험한 이들이었다. — 이제 볼 수 있게 된 맹인들, 이제 '호산나'를 노래할 수 있게 된 벙어리들, 침상에서 일어나 유월절에 스승을 뵙기 위해 서둘러 달려온 절름발이들이었다.

90. 나는 이 승리가 덧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제자들에게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언해 두었다. 이는 나의 투쟁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오늘날 그 사건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나는 너희에게 내 진리의 빛이 무지와 죄와 기만의 어둠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음을 말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덧붙여야겠다.

91. 예루살렘으로의 그 입성이 내 대의의 승리를 의미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회심한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자들이 많았는데 말이다.

92. 설령 그 사람들이 모두 내 말씀에 회심했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세대가 더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93. 그 환희의 순간, 그 짧고도 승리의 입성은 오직 빛과 선과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승리, 곧 반드시 올 날이자 너희 모두가 초대받은 그 날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다.

94. 그때 내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면, 어떤 축제도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 중

마지막 한 명까지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말할 수 없으시며, 승리를
기념하실 수도 없기 때문이다.
(268, 17-21)

95. 너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2의 시대"에 호산나를 불렀던
그들과 같다. 오늘, 내가 영
안에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니,
너희는 더 이상 내 길에 너희의
겉옷을 펴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주님께 거처로 바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오늘 너희의
호산나는 더 이상 목청껏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이 호산나는 너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의 찬가이며, 너희
주님께서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신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의 찬가이다.

96.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를
따랐던 그들과 다름없다. 거대한
군중이 내 사랑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를 둘러쌌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이
환호성으로 도시를 뒤흔들었고,
심지어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 내게 말하였다.
"스승님, 당신이 평화를
가르치신다면 — 어찌하여
당신의 추종자들이 이런 소동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말할
것이다." 이는 환희의
순간이었으며, 의를 갈망하고
목마른 이들, 즉 오랫동안 예언의
성취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
온 그 영혼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신
절정이었기 때문이다.

97. 내 백성은 바로 그 환호와
기쁨으로 이집트에서의 해방도
기념했다. 나는 그 유월절의
기념을 내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것은
단순히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나는 희생의 어린
양이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서 나 자신을 바친 것이다. (318, 57-59)

최후의 만찬

98. 예수님께서 그 민족의 전통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계시하노라. 내 피와 내 몸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빵을 먹으라. 그리고 이를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99. 스승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희생을 기념했다.

100. 세월이 흐르면서 교파로 나뉜 민족들은 내 말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렸다.

101. 오늘 나는 그 시간,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깊은 지혜와 무한한 사랑의 교훈이 되었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느꼈던 바를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내가 빵과 포도주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그것들이 영혼의 양식이자 생명인 사랑과 같음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기념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말했을 때, 스승은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양식으로서 너희 자신을 사람들에게 바쳐야 한다는 뜻이었다.

102. 너희가 이 가르침들로 행하는 모든 의식은, 너희가 내 가르침과 본보기를 너희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익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 공로가 있다. (151, 29-32; 34)

103. 지금 너희가 내 주위에 있는 것처럼, '제2의 시대'의 그 마지막 저녁에도 그랬다. 예수님께서 그 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해가 막 지고 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예수님 안에도,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들을 가르치고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그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직 알지

못했던 제자들 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의 주님께서 떠나시려 하고 계셨으나, 그들은 아직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울면서 가슴에 잔을 꼭 껴안았고, 요한은 눈물로 스승의 가슴을 적셨으며, 마태와 바르톨로메오는 내 말씀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빌립과 도마는 식사하는 동안 마음의 아픔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작은 야고보)와 야고보(큰 야고보), 다대오, 안드레아, 시몬은 슬픔에 잠겨 말문이 막혔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내게 전한 바는 많았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또한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있었으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04.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과 권면을 하시고 나자, 그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의 영혼은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그토록 많은 빛을 바라볼 수도 없었기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태워버렸기에 그는 떠나버린 것이다. (94, 56-58)

105. 예수님의 신성한 소망은 제자들이 그분의 구원의 가르침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다.

106.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씀의 절정에서, 그것은 동시에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마지막 대화이기도 했기에, 그는 사랑 어린 어조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7. 그분은 그 지극히 높은 계명의 빛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254, 59)

제12장 –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평생의 수고와 고난

1.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내 삶을 본보기와 교과서로 삼았다.

나는 모든 고통과 유혹, 투쟁,
가난, 노동, 박해를 겪었다. 나는
가족들의 배척과 배은망덕,
배신을 경험했고, 긴 하루의
노동과 굶주림, 목마름, 조롱,
고독, 그리고 죽음을 겪었다. 나는
인간 죄악의 온갖 짐이 내게
얹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인간이 내 말씀과 찔린 내 몸,
심지어 내 마지막 갈비뼈까지 볼
수 있는 곳에서 내 영을
탐구하도록 허락했다. 비록
하나님이었으나, 나는 조롱받는
왕이 되고, 벗겨진 자로
전락했으며, 게다가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강도들이 죽은
언덕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이 났는데, 이는 내가
단지 말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217, 11)

2.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성찬식이 끝났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셨다. 그분은 평소
기도하시던 감람원으로
떠나가셔서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배반할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체포하러 온 무리를
데리고 다가왔다.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누구냐?"라고 묻자,
유다는 스승에게 다가가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온한 태도를 보고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꼈으며,
다시 물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나다." 그리하여
나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3. 그들은 나를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
끌고 갔다. 그들은 나를 심문하고,
나를 심판하며, 내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황제의 나라를
무너뜨릴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고발했다. (152, 6-7)

유다의 배반

4. 너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에 내 사랑을 드러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를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나를 배반한

자와 나를 박해하고 심판한 자들에게도 그러했다. 이제 너희는 내게, 그 모든 조롱을 허락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들에게 생각과 행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내가 나를 드러낼 적절한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하여 모든 이가 내가 세상에 가르친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5. 나는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배반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그는 악한 생각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제자의 배신 앞에서 나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6. 너희에게 그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내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필요는 없었다. 스승은 사람들이 제공한 어떤 기회에서도 그 겸손을 증명하셨을 것이다. 그 제자에게는 스승이 세상에 자신의 신성한 겸손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임무가 주어졌다. 비록 너희가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나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노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온전히 나를 바치기 위해 왔으며, 만약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순간의 어둠 속에서 스승께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과 충성을 잃어버린, 너희의 형제인 그를 저주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없다. 너희가 내 죽음의 책임을 그에게 돌린다면 — 내 피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흘려졌음을 알면서, 어찌 그를 축복하지 않는가? 너희 중 누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90, 37-39)

예수의 수난

7. 내가 대제사장 카이파에게 심문을 받을 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맹세하노니, 네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냐?" 하니,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말한 대로이다." (21, 30)

8.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내 행적을 경탄하며 축복하던 수많은 마음이, 이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굴며 나를 모욕하는 자들의 편에 섰다. 그러나 그 희생이 매우 컸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9. 세상과 그 일부인 너희는 아무도 겪을 수 없었을 만큼 나를 모독하고, 조롱하며, 비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게 마시게 한 잔을 인내로 비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사랑의 소명( )을 완수하고 내 자녀들에게 온전히 나를 바쳤다.

10. 피투성이가 되어 헐떡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하느님을 믿은 이들은 복되도다.

11. 그러나 나에게는 더 무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록된 바였기에, 내가 참 메시아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 (152, 8-11)

12.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가르침에 대해, 나는 이미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구세주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마음은 그분이 두드리신 문이었습니다. 구경꾼들 가운데에는 군중을 다스리는 자, 교회의 지도자, 세리, 바리새인, 부자, 가난한 자, 타락한 자, 그리고 순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분의 행적을 보고 은혜를 입었기에 그 시간에 죽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반면, 다른 이들은 무고한 피에 대한 갈증과 복수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비웃으며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조롱했던 그분의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단지 한 민족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민족과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보내시며, 자비로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13. 그 시선은 그분을 위해 울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통을 즐기는 자들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었는데, 이는 스승의 사랑, 곧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미쳤기 때문이다. (103, 26 27)

14. 예수님의 존재를 불안하게 여긴 자들에게 선동된 군중이 그분을 해치고 채찍질하여, 그 매질로 인해 그분이 평범한 인간처럼 피를 흘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씨름하다 죽는 것을 보게 된 그날,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만족스럽게 외쳤다. "보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왕이라 여기고, 메시아인 양 행세하던 자를!"

15. 예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셨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군중 앞에서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운 자들이었다. 그들은 율법 교사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죄할 때 실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반면 군중 속에는 그들이 목격한 불의를 보고 고통에 찢긴 마음들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의인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얼굴들도 있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계셨는지 알고, 스승께서 떠나가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던 이들은, 소박한 마음과 겸손한 , 그리고 너그러운 정신을 지닌 남녀들이었다. (150, 24-25)

16.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씨름하며, 사형 집행인들의

학대와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분을 향해 눈을 들어 무한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17. 나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었기에, 그 신성한 용서 안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포함시켰노라. 진실과 영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 축복받은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를 또한 보았노라. (268, 38-39)

18. 내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군중을 바라보았을 때, 마리아를 보았고, 요한을 가리키며 그녀에게 "여인아, 이 사람이 네 아들이다"라고 말했고, 요한에게는 "아들아, 이분이 네 어머니다"라고 말하였다.

19. 요한은 그 시간에 다음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였으니, 군중은 너무나 눈이 멀어 내가 "목마르다"고 말했을 때 육체적인 갈증이라고 생각하고 쓸개와 식초를 내게 건넸으나, 실은 내 영혼이 느낀 것은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기 때문이다.

20. 두 죄수도 내 곁에서 죽음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며 파멸로 치닫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의 빛에 비추어 깨달음을 얻었다. 비록 자신의 하나님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분의 신성을 믿고 그분께 말하였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면 나를 기억해 주오." 그러자 나는 그 깊은 믿음에 감동하여 대답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1. 그 시각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던 폭풍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은 그분의 고독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의 희미한 반영에 불과했으며, 신성한 영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실재적이어서, 잠시 약해졌던 육신이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 내가 사람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죽는 법도 가르쳤으며,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모욕하고 고문한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었다.

23. 그리고 영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하셨을 때, 그 완전한 가르침의 본보기는 완성되었다. (152, 12 161 17)

24. 디마스에게는 구원을 얻기에 한 순간이면 충분했고, 그것이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말했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예수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바로 메시아이자 구세주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은 회개와 영혼의 온전한 겸손으로 그에게 자신을 맡겼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날 바로 낙원을 약속해 주었다.

2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으나 생의 마지막에 겸손과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나에게 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내가 자비로운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그를 지상의 고난에서 들어 올려 고귀하고 고양된 삶의 행복을 맛보게 하리라. (94, 71-72)

26. 그렇다, 사랑하는 디마스여, 너는 빛과 영적 평화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네 믿음에 대한 상으로 네 영혼을 그곳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예수님 안에 — 그분께서 죽어가시며 피를 흘리시는 모습 그대로 —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의심했던 이들에게, 과연 누가 그분의 오른편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 누워 있던 강도 안에 빛의 영이 숨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27. 시간이 흘러 영혼의 평온이 다시 찾아오자, 나를 거부하고 조롱했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내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왔기에, 그들의 회개는 컸고 나를 따르는 그들의 사랑은 꺾일 수 없게 되었다. (320, 67)

28. 제2시대에 나의 그릇이 되어 준 육신이 죽음의 고통에 빠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을 할 때, 나의 마지막 말 중에는 그 순간에도, 그 후 오랜 시간 동안에도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9.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소심함이나 흔들림, 혹은 순간적인 약함이라고 생각하여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으며, 그 후에 내가 완전한 힘과 명료함을 드러내는 다른 말들을 더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30. 이제 내가 너희의 오해에 빛을 비추고, 너희가 비밀이라 불렀던 것들을 밝히기 위해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죽음의 고통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으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했던 예수의 육신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으나, 죽음은 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셨고, 이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고문당한 몸, 그 찢겨진 살이 영과의 분리를 느끼며 고통에 찬 목소리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그것은 상처 입은 어린 양이 목자를 부르며 내뱉은 부드럽고 고통스러운 탄식이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 곧 "말씀"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그분의 고난이 진실했다는 증거였다.

31. 너희는 이 말씀을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 돌릴 수 있겠느냐? — 이제 너희는 그것이 사람들의 맹목으로 인해 모욕을 당한 예수님의 육신이 내뱉은 신음이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어루만짐이 그 고문당한 육신 위에 내려앉자,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이러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다 이루었다." (34, 27-30)

3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죽어 가시는 그분의 사랑과 정의의 음성에 가슴이 떨리지 않은 영은 없었다. 그분은 마치 자신의 말씀으로 전하신 진리 그 자체처럼 벌거벗은 채로 죽어 가셨다. 예수의 생애를 연구한 이들은 그분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분과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분의 모범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신성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33. 나는 온유하게 희생의 길로 나아갔으니, 내 피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사랑으로 말하며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숭고한 가르침을 전하고 완전한 본보기로 영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34. 인류는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내 뜻을 꺾으려 했으나,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신성모독으로 유혹하려 했으나, 나는 모독하지 않았다. 군중이 나를 모욕할수록 나는 그들에게 더 큰 연민과 사랑을 품었고, 그들이 내 몸을 더 심하게 해칠수록,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 몸에서 더 많은 피가 흘러나왔다.

35. 그 피는 내가 인간의 영혼을 위해 길을 제시한 사랑의 상징이다. 나는 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의 말씀을 남겼고,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내 계시의 보물을 남겼다.

36.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인류는 세상에 누가 계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업적은 완전하고 신성한 것으로, 초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이 흘렀는가! 영혼들 속에 얼마나 많은 양심의 가책이 솟아났는가! (29, 37-41)

37.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일곱 마디 기도로 사명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스승의 제자이자 추종자인
너희가, 이 삶을 순종과 겸손의
헌사로 아버지께 바치지 않고
떠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보호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는 다른 곳에서야 비로소
다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이다.
38. 예수님의 온 생애는
아버지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겪으신 그
시간들은 사랑과 중보와 용서의
기도였다.
39.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길이다, 인류여. 너희
스승을 따르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나의 품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한다. (94, 78,
80)
40. 나, 그리스도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셨다.
그 능력은 영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이성으로 빛이
필요하며, 164장 12절
마음속으로 평화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랑 그 자체인 그
능력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쏟아져 그들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죽음의 순간에 내 몸 또한 필요로
했던 그 능력을 내 몸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
41. 나는 내 육신의 찌르는 듯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해
고통을 겪고, 미성숙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죄인들에 대한
나의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너희에게 신성하고 인간적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42.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타낸
모든 능력—나병 환자를
고치거나, 눈먼 자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거나, 절름발이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죄인들을 회개시키거나, 죽은
자를 살려낸 것 — 내가 군중들
앞에서 드러낸 모든 권능, 즉
자연계에 대한 나의 주권과 생사(

生死)에 대한 나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나의 진리를 증명해 주기 위해 드러낸 모든 권능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려 했기에, 내 육신이 그 수난을 겪고 그 고통을 겪도록 허락한 것이다.

43. 비록 내 권능으로 내 육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너희 눈에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겠느냐? 만약 내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 가능한 본보기를 남겼겠느냐?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내 능력을 버리고, 신성한 힘을 거절하여 육체의 고통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슬픔, 고독, 죽음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느끼고 체험해야만 했다.

44.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이 진실했기에,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입술은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열이 나고 지친 예수님의 몸을 압도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몸을 통해 학대받고 조롱당하신 하나님의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피를 흘리신 바로 그 눈먼, 배은망덕하고 오만한 자녀들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45. 예수께서는 그분을 움직이시는 영, 즉 165장 12절의 신성한 영으로 인해 강하셨으며, 고통에 무감각할 수도 있었고 박해자들의 공격에 대해 무적일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군중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땅에 쓰러지는 것을 느끼며, 육체의 힘이 다하고, 육신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잃은 후에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필요했다.

46. 그리하여 나의 지상 사명은 완수되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왕으로 선포했던 그분의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320, 56-61)

저 세상에서의 예수의 구원 사업

47. 인류의 초기에는 영적 발달이 너무나 미약하여, 육체적

죽음 이후 영혼의 삶에 대한 내적 인식이 부족하고 최후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영혼은 육신의 껍질을 벗어날 때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잠에서 깨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자마자, 창세 이래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혼란에서 벗어나 창조주에게로 승화하기를 갈망하던 수많은 존재들에게 빛을 보내셨다.

48.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었고,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이 잠들어 있던 그 영혼들을 깨워 그들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죽으셨을 때, 신성한 영은 영적 세계와 심지어 무덤들 속까지 빛을 비추었으며, 그곳에서 육신 곁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던 영혼들이 나왔다. 그 존재들은 그날 밤 세상을 떠돌며, 구세주가 모든 존재에게 생명이었으며 영혼은 불멸임을 증언하듯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41, 5-6)

49. 남자와 여자들은 저 세상에서 오는 징후와 부름을 받았다. 노인들과 아이들 또한 이 현상의 목격자였으며,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며칠 동안, 하늘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영적 계곡의 존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르짖었고, 스승께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날, 그분의 빛은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려 온 존재들을 갈망하며 모든 동굴과 구석구석, 물질적·영적 거처로 스며들었다 — 길에서 벗어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사슬에 묶여 불의의 짐을 지고 있는 존재들과, 죽은 줄로만 알고 육체에 묶여 있던 다른 영혼들까지 — 그 모든 이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세계로 일어섰다.

50.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한때 자신의 가족이었던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존재에 대한 증거를 남겼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은 그 슬픔과 고통의 밤에 이러한 현현들을 목격했다.

51. 사람들의 마음은 떨렸고, 아이들은 오랫동안 죽어 있다가 이날 단 한 순간만 돌아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스승에 대해 증언하고, 동시에 그분 역시 그분의 자녀들이며, 그분이 치유하시고 무지에서 해방시켜 주신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거주하는 영적 들판을 가꾸셨다. (339, 22)

52. 내가 내 육신을 떠났을 때, 나의 영은 영적 존재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다.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신성한 사랑에 대해 말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삶의 참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5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의 영은 무덤에 단 한 순간도 머물지 않았으니, 다른 생명 세계들에서 행해야 할 많은 선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무한한 영은 그들에게 — 마치 이전에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 많은 계시를 전해야 했다.

54. 영적 존재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계들도 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살며 빛을 갈망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에는 어둠이 깃들어 있으며, 전쟁과 정욕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길의 문을 잠그는 열쇠임을 알고 있다.

55. 반면 사랑은 진리인 빛의 왕국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56. 이 땅에서 나는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나를 드러냈고, 저 세상에서는 높은 영적 존재들에게 직접 내 뜻을 전하여, 그들이 나의 영감을 직접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자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 높고 빛나는 존재들은 — 이곳에서 너희에게 그러하듯이 —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213, 6 11)

부활 후 예수님의 현현

57.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며칠 후, 제자들이 마리아 주위에 모여 있을 때, 나는 비둘기의 영적 형상으로 상징된 나의 현존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였다.

그 축복받은 시간 동안 아무도 감히 움직이거나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영적인 형상을 바라보며 참된 황홀감이 감돌았고, 겉으로는 떠나신 것처럼 보였던 스승께서 영원히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힘과 확신으로 뛰고 있었다. (8, 15)

58.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영으로 오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영적 존재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라.

59.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선교 사명을 위해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준 그 계시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60. 내가 떠난 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슬픈 것이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그들의 얼굴을 흘러내렸고, 매 순간 가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으며, 그들은 많이 기도했고,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은 나를 팔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를 부인했으며, 거의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나를 버렸다는 것을.

61.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완전함의 스승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다양한 신앙관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62. 바로 그때 내 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불태우며, 내 가르침의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였다.

63. 나는 제자들에게 내 영을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에게 인간의 형상을 부여했으나, 나의 현존은 여전히 영적인 것이었으며, 보라, 그 출현이 나의 사도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중요성을. (279, 47-52)

64. 나의 희생은 완성되었으나, 그들의 내면에서 의심과 고통, 혼란과 두려움의 폭풍이 일고 있었기에 그 마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기에, 나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 나의 무한한 자비를 다시금 증명해 주었다. 내 말씀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나는 이 세상에 있었을 때의 그 육신의 형상이나 모습을 취하여 인간으로 나타나 보였고, 내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며, 내 말씀으로 그 낙담한 영혼들 안에 믿음을 다시 불태워 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교훈이었고, 지상에서 나를 따랐던 이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이었으며, 그들은 믿음과 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힘을 얻고, 영감을 받으며, 변화된 것을 느꼈다.

65. 그들 모두가 목격했던 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베푼 계시와 증거들을 완강히 부인하는 자가 한 명 있었기에,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내 영적 현존을 그의 육체적 감각으로 직접 만져보게 해야만 했다.

66. 그러나 그 의구심은 나에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아니, 마을과 도시, 그리고 시골의 수많은 추종자들, 곧 나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 일들 때문에 나를 따르던 이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두려움에 찬 의문, 당혹감이 일었다. 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끝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67. 나는 그들 모두에게 연민을 느꼈기에, 비록 더 이상 인간으로서 지상에서 그들을 돕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었다. 모든 가정과 가족, 그리고 모든 민족 안에서, 나는 나를 믿는 마음들에게 내 영적 임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내 존재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스승을 잃어야만 했던 그 그리스도인 민족의 투쟁이 시작되었으니, 그들은 일어나 스승이 그들에게 계시해 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는 모두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알고 있다. (333, 38-41)

68. 내가 "제2의 시대"에 제자들에게 구름 사이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내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슬픔에 잠겼으니, 그 순간
그들은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주님의 천사 사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의 사람들아,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이 예수를, 너희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9. 그러자 그들은 스승께서
사람들에게 돌아오실 때
영적으로 오실 것임을 깨달았다.
(8, 13-14)

제13장 - 예수와 그 사도들의 사명과 의미

옛 신의 형상과 그 전통에 대한 바로잡음

1.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니신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너희에게 준 가장 분명한
교훈의 본보기였다. 예수는
너희를 창조하신 분의 고귀한
성품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창조주가 지상에 보내신
살아있는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신, 무섭고 복수심에 불타는
재판관으로 보았으나, 예수님을
통해 그분은 너희를 그 오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2. 스승 안에서 육신이 되신
신성한 사랑을 보라. 그분은
겸손과 희생, 자비의 삶을 통해
너희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너희를 벌하는
대신, 그분은 사랑의 참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에게 자신의
피를 바치셨다. 그 신성한
메시지는 인류의 삶을
비추었으며, 신성한 스승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교회와 종파의 근원이 되어,
그들이 나를 찾고 또 여전히 나를
찾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다.

3. 인류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죽으셨기에,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믿기는 한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재판관들과 처형자들 앞에서 겪으신 고난에 로 내면이 감동받으며, 점차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정녀 안에서 시작되어 베다니의 "구름" 속에서 끝난 그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신 모든 것의 의미와 그 파급력은 오늘날까지도 올바르게 해석되지 못하였다.

4. 나는 "말씀"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던 바로 그 "구름" 위에 다시 내려와야만 했다. 이는 너희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사역, 그리고 죽음으로 너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의 의미를 밝혀주기 위함이다.

5. 당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은, 어둠을 밝히고 인간의 이성이나 마음이 꿰뚫을 수 없었던 신비들을 설명하기 위해 온 이 신성한 계시이다. (81, 46-49)

6. 나는 "제2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나의 모범을 통해 나의 진리를 설교했다. 나는 완전한 사랑의 가르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무고하고 무지한 존재들을 헛되이 희생시키는 관행을 폐지했다. 너희는 나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 백성이 전통적인 명절에 나를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7. 실로 내 피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흘려졌다. 내 신성한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시대와 모든 시대의 인류에게 쏟아져, 인류가 그 본보기와 그 말씀, 그 완전한 삶에서 영감을 얻어 구원, 죄의 정화, 그리고 영혼의 고양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276, 15)

예수의 모범

8. 예수님께서 너희가 따라야 할 원칙들을, 너희가 멀어졌던 그 원칙들을 너희에게 보여 주셔야만 했다.

9.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온유함과 사랑,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보여주었으며, 너희의 마음이 감동받고 이성이 깨어나도록 너희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셨다. 마음들은 선을 향해 거듭나야 했으며, 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보는 고통은, 너희 모두가 아버지의 품에 이르기 위해 사랑을 위해 고통받아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 가시와 같았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약속한 것은 영원한 평화, 영 안에서 끝이 없는 지극한 행복이었다. (240, 23 24)

10. 그리스도는 너희의 본보기가 되시며, 또 그래야만 한다. 내가 그 당시 인간이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오신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무한한 사랑, 신성한 지혜, 끝없는 자비,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었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를 본보기로 삼으라. 그러면 너희도 내가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승으로서 왔으니, 이는 너희에게 이행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거나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12.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행실을 행할 때, 내가 앞서 너희에게 말한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임을 깨달아라. (156, 25-27)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

13. 인류가 연구할 수 있도록 지침이자 열린 책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세대, 그 어떤 인종에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계명이나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나선 이들은 나에 의해 지상에 선구자이자 사자로 보내졌을 뿐, 신성(神性)으로 보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성으로서 너희에게 오셨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받아들인 것 중 가장 명확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가져다주셨다. (219, 33)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명, 수련 기간 및 시련

14. 너희는 내가 설교 활동을 하던 그 시절, 즉 내가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3년을 떠올렸다. 그들은 나의 모든 행적을 보았으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스승 안에 있던 순수함과 온전한 위엄, 그리고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15. 그 당시 나의 행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지상에서 나의 삶은 소박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나의 임재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위대함을 예감했다.

16. 그리하여 나는 제자들을 택하였으니, 그중 몇 명은 강가에서 만나 "나를 따르라"고 부르며 부르셨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달았고, 그렇게 나는 한 명 한 명을 택하였다. (342, 21)

17. 내가 세상에 계실 때 설교하던 동안, 나는 결코 제자들이 이미 스승이 되었다거나 그들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아직 제자였으며, 내 말씀의 빛에 매료되어 기꺼이 나를 따랐지만,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하여 나중에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성한 사랑의 끌로 다듬어지고 있던 바위 조각들이었으니, 훗날 그들도 돌을 다이아몬드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56, 39)

18. 나는 모든 시대에 걸쳐 제자들을 시험해 왔다. 내가 베드로를 몇 번이나 시험에 들게 했는지, 그중 단 한 번만 그가 흔들렸다. 그러나 이 일로 그를 나쁘게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불타올랐을 때, 그가 설교하고 진리를 증언할 때, 그는 사람들 가운데 횃불과 같았기 때문이다.

19. 도마를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내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의심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라.

스승님을 은 삼십 닢에 팔아넘긴
그 사랑하는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그보다 더 큰
회개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20.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가르침을 남기려 했다. 그들은
자신의 비겁함을 뉘우치고,
변화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념했다. 그들은
진정한 사도들이었으며, 모든
세대를 위한 모범을 남겼다. (9,
22-23)

사도 요한

21. 기억하라: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매장되었을
때, 당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그들의
믿음이 불타오르고 내 말씀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이
굳건해지려면, 그들의 눈이 나를
다시 보고 그들의 귀가 나를 다시
들어야만 했다.
22.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단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은 이가 있었다.
그는 충실하고 용감하며
열정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제자 요한이었다.
23.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마리아를 그에게 맡겼으니,
그들이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때,
그가 앞으로도 그 흠 없는 마음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녀의
곁에서 그를 기다리는 싸움을
위해 더욱 힘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24. 그의 형제들인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씩 사형
집행인의 칼날 아래 쓰러지며,
그들의 피와 생명으로 그들이
전파했던 온전한 진리와 스승의
이름을 증언하는 동안, 요한은
죽음을 이기고 순교를 면했다.
25. 그가 황야로 추방되었을 때,
그를 쫓아낸 자들은 그들이 그를
내쫓은 그 섬에서,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시대들의 위대한
계시가 내려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 계시는 그가 차츰차츰 겪어 나가는 것, 곧 사람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과 성취될 모든 일에 대해 말하는 예언이었다.

26. 요한은 형제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스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후, 그들과 떨어져 홀로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 기도했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27. 기도와 침묵, 내면으로의 침잠, 그의 존재의 순수함, 그리고 생각의 선함이 기적을 이루었으니, 그 사람, 그 영혼은 다른 영혼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성취해 냈다. (309, 41-45)

28. 내가 이 세상의 주민들을 바라볼 때,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알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 말한다는 것을 보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29.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해 인류에게 주었던 계시의 설명이자 성취이다. 내가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 살던 시절, 영으로 하늘 높이, 신성한 차원, 무한한 곳으로 데려가 상징을 통해 그 기원과 목적, 알파와 오메가를 보여주었던 계시의 설명이자 성취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올 사건들을 보았다.

30. 그는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나, 내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 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기록하였다.

31. 요한에게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의 은신처로 찾아온 제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에게 스승님이 어떠하셨는지, 그분의 말씀과 기적은 어떠했는지 간절히 물었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로 스승님을 본받았던 요한은 그의 말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이가 들어 몸이 이미 세월의 무게에 굽어졌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스승에 대해 증언하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32.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요한의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보고, 그 사도가 쌓아온 모든 지혜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가 스승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혀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어떤 대답 대신 그들은 언제나 오직 그 한 마디,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을 들었다.

33. 그토록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람들은 속았다고 느끼며, 노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기억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은 나의 말 한 마디도 잊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온 율법을 요약하는 그 한 가지 핵심, 곧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35. 그토록 사랑받던 제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기억에서 지울 수 있었겠느냐? (167, 32-37)

36. 내 떠남 이후인 "두 번째 시대"에, 너희의 하늘의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셨다.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 그들은 마리아의 사랑 가득한 품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그녀의 말씀은 날마다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다. 신성하신 스승님 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마리아의 격려를 받아, 그들은 여정을 이어갔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시자 그들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랐다. (183, 15)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37. 내 제자 베드로가 사울에게 죽을 지경까지 쫓기던 일을 잊지 말라. 나는 그 충실한 사도에게 그가 시련 속에서 홀로 있지 않으며, 내 능력을 신뢰한다면 내가 그를 박해자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임을 보여 주었다.

38. 사울은 베드로를 체포하러 찾아다닐 때 내 신성한 빛에 깜짝 놀랐다. 내 빛은 사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으니, 그는 내 임재 앞에서 땅에 쓰러져 내 사랑에 정복당하고, 내 제자에게 가하려던 일을 끝내지 못한 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온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는 서둘러 베드로를 찾아 나섰으나, 그러나 더 이상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고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청하기 위함이었다.

39.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는데, 그 이름의 변화는 그 사람의 완전한 영적 변화, 즉 그의 완전한 회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308, 46-47)

40. 바울은 열두 사도 중 한 명이 아니었으며, 내 식탁에 함께 앉지도 않았고, 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길을 따라 나를 따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이들을 친절한 눈길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제자들에게 맡겨 방금 싹트기 시작한 그 씨앗을 파괴하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내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 겸손한 예수가 약속된 구세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41. 사울은 자신의 구세주께 대항하여 일어섰다. 그는 내 제자들과,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 내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들에게로 나아온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때, 그는 내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 가장 민감한 곳을 건드렸고, 그의 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는 즉시 나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42. 세상이 그의 모든 행적 속에서 믿음과 이해의 자극이 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 널리 알려진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회심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

43. 그 후로 스승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에 헌신하게 된 이 사람의 삶을 굳이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가?

44. 바울은 내 말씀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증언은 언제나 사랑과 진실함, 성실함,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과거의 물질주의는 지극히 높은 영성으로, 그의 거친 성품은 끝없는 온화함으로 변모했다. 그리하여 내 사도들을 박해하던 자가 내 말씀의 가장 열정적인 전파자가 되었고, 그가 위해 살며 자신의 삶을 바친 주님의 신성한 메시지를 여러 나라와 지방, 마을로 전하는 지칠 줄 모르는 순회 전도자가 되었다.

45. 사랑하는 백성아, 여기 회심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있으며, 비록 나를 아직 듣지 못했더라도 사람이 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157, 42-47)

사도들의 모범

46. 그 "두 번째 시대"에, 제자들이 스승 없이 세상을 떠돌 때, 나 외에 누가 그들을 격려했느냐? 그들 각자의 업적이 너희에게 경이롭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졌기에, 세상에서 마치 늑대들 사이의 양처럼 지내며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 속에서 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을 낙담하게 하지 않았다.

47. 그들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졌으며, 그 은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법을 알았다.

48. 내 사도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서 내 가르침은 변함없이, 온전한 순수함과 진실함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영혼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 속에서 힘과 지혜, 위엄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49. 너희는 갈릴리의 그 가난하고 겸손한 어부들에게서 훌륭한 본보기를 볼 수 있다. 사랑으로 영적인 어부로 변화된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통해 민족들과 왕국들을 뒤흔들었으며, 그들의 끈기와 희생으로 민족들의 회개와 영적 평화의 도래를 준비하였다. 왕들부터 거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참된 기독교의 그 시절에 나의 평화를 경험했다.

50.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졌던 그 영성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나는, 너희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할 것임을 알았기에, 내 재림을 예고하고 약속해 두었습니다. (279, 56-60)

기독교의 확산

51. 제자들의 입술과 행위에 담긴 나의 가르침은 무지와 우상숭배, 그리고 물질주의와 싸우는 사랑과 빛의 칼이었다. 자신들의 신화와 전통이 곧 멸망할 것을 본 자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으나, 동시에 진리를 갈망하고 죄의 짐을 진 자들을 위한 희망과 믿음의 빛나는 길이 열리자 다른 이들의 가슴에서는 환희의 찬양이 흘러나왔다.

52. 영적인 삶을 부정하던 자들은 천국에 대한 계시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으나, 그 존재를 예감하고 거기서 의와 구원을 기대하던 자들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

53. 마음속에 자기의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축복받은 갈망을 간직해 온 사람들은, 내 말씀에 깊이 몰입할수록 그들의 길이 밝아지고 이성이 맑아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의 영과 마음에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참된 영적 양식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 안에 있던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을 채워 주었고, 그 완전함과 깊은 의미로 그들의 영이 품은 모든 갈망을 넘치도록 충족시켜 주었다.

5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영원으로 이끄는 더 빛나는 길이 열렸다.

55. 믿음으로 빛을 받아 내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에게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고양과 사랑, 그리고 다정함의 감정이 깨어났는가! 단 한 순간도 낙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할 줄 알았던 그 마음들을, 얼마나 큰 용기와 불굴의 의지가 함께했는가!

56. 혹시 스승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 백성들아: 신성한 사랑의 물질적 현현이었던 그 피의 영적 정수는 마르지도 않고, 결코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며, 살아 있고 생명의 온기를 띠고 있다.

57. 그 이유는, 그 마음들 속에도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고, 스승의 교훈을 배웠음을 증명하기 위해 심지어 피까지 흘렸다.

58. 그 너그럽게 바쳐진 피는 장애물과 시련을 극복했다.

59. 내 말씀의 제자들의 영성과, 옛 전통에 얽매인 광신도들이나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좇아 살았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물질주의, 이기주의, 무지 사이에는 얼마나 큰 대조가 드러났는가! (316, 34-42)

60. 삶의 길을 선한 모범적인 행실로 채우라. 내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라. 내 "제2시대"의 사도들 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들은 내 가르침을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 결코 감각적인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인류가 그 후 빠져들게 된 우상 숭배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그들의 손은 결코 제단을 세우지 않았으며, 영적인 신 숭배를 위한 궁전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고, 병자들에게 건강을, 가난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으며, 그들의 스승처럼 길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

61. 오늘날 너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내 사도들이 실천하고

가르쳤던 교리의 그림자조차
되지 못한다!
62.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는
그 제자들 안에서 겸손과 사랑,
자비와 고양의 완전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입으로
선포한 진리를 자신의 피로
확증하였다.
63. 인류는 이제 너희의 증언을
믿기 위해 더 이상 너희에게 피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진실함을
요구할 것이다. (256, 30-33)

III. 교회 기독교의 시대

제14장 – 기독교, 교회 및 예배

기독교의 발전

1. 내가 "제2의 시대"에 떠난 후,
나의 사도들이 나의 사역을
이어갔고,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밭을 경작하는
새로운 일꾼들이었으니, 그 밭은
주님의 피와 눈물, 말씀으로
비옥해졌으며, 열두 사도와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수고로
가꿔진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대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나의 사역과 가르침을
점점 더 신비화하거나 왜곡해
갔다.
2. 누가 인간에게 나를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가? 누가
그에게 나를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누가 그에게 마리아의
형상, 천사의 모습, 혹은 아버지의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가?
아, 믿음이 작은 너희 인간들아,
내 존재를 느끼기 위해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가시화해야만
했던 너희들아!
3. 아버지의 형상은 예수였고,
스승의 형상은 그의
제자들이었다. 나는 "제2의
시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아버지 그분 자신임을 뜻하는
것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

4. 내가 인간으로서 죽은 후, 나는 사도들에게 살아 계신 분으로서 나타나, 내가 곧 생명이며 영원이며, 육신을 입고 있든 그렇지 않든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우상 숭배와 광신에 빠지게 되었다. (113, 13-17)

5.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인류가 그 생수를 마셨더라면 그들 가운데 이토록 큰 비참함이 없었을 것이다.

6.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해석과 편의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호했다. 나는 전통을 버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전했으나, 오늘날 너희는 내게 와서 너희 영혼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텅 빈 의식과 예식을 바치고 있다. 너희 행위에 영성이 없다면 그 안에 진리가 있을 수 없으며, 진리를 품지 않은 것은 너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한다.

7.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 눈빛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내게 말하였다. "주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처럼 이 산 위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8. 이것이 바로 내가 언제나 가르쳐 온 것이다. 보라, 진리는 너희 눈앞에 있었으나 너희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겠느냐? (151, 2-5)

예배 행위

9.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행위나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내면의

성전을 비추는 빛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빛은 너희를 채찍질할 수 있는 모든 폭풍의 파도를 꺾어 버리고, 인류의 어두운 안개를 걷어낼 것이다.

10. 더 이상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광신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외적인 예배 의식을 행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배은망덕함은 참으로 크다. (21, 13-14)

11. 길을 잃은 인류를 보라. 길을 잃은 것은, 기독교를 자칭하는 거대 교회들이 내 가르침 그 자체보다 의식과 겉모습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의 행실과 십자가의 피로 인봉한 그 생명의 말씀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지 않고, 낡고 먼지 쌓인 책 속에 갇혀 침묵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

12.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제자가 거의 없다. 고통받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픔을 달래주는 자들, 덕을 실천하며 자신의 모범을 통해 그것을 전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13. 내 가르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14. 나는 이 시대에 돌로 지은 성전을 찾아가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물질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찾는다. (72, 47-50)

15. 종교 공동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채로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영적 각성도 영적 이상에 대한 깨달음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도, 실천적인 이웃 사랑이 깃들 공간도 없을 것이다. 무거운 인간적 갈등을 해결해 줄 빛은 비출 수 없을 것이다. (100, 38)

성직자

16. 너희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그저 그것을 갈망하는 데 만족하며,

온갖 수단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약간의 마음의 평안과 안락함, 만족감을 얻으려 애쓰지만, 결코 영혼의 진정한 평화는 얻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주님의 뜻에 대한 자녀의 순종만이 그것을 얻게 한다.

17. 세상에는 내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사람, 내 가르침을 잘 해석해 줄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류는, 비록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후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 참된 가르침으로 깨우쳐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8. 날마다 — 교회당, 성당, 대성당에서 — 내 이름을 부르며 내 말씀을 되풀이하지만, 내면이 감동받는 이도 없고 그 빛에 전율하는 이도 없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진 효력이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 있다고 믿지만, 그것을 암송할 필요가 아니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9.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며, 생생하고, 삶과 밀접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므로, 그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 불쌍한 인류여 — 빛이 그토록 가까이 있음에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평화가 손에 닿을 듯함에도 두려움에 떨며 탄식하고 있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신성한 빛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누군가가 무자비하게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오노라. 너희를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내가 그 당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영원히 유효하며, 너희가 그 신성한 말씀을 과거 시대의 낡은

가르침으로 여겨서는 안 됨을 증명해 보이리라. 왜냐하면 내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었던 사랑은 영원하며, 그 사랑 안에 이 방황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제멋대로인 정욕의 시대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307, 4-8)

21. 나는 맹목적인 믿음, 즉 깨달음 없는 믿음, 두려움과 미신으로 얻은 믿음을 설교하는 자들을 꾸짖는다.

22.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과 모든 재앙, 기근, 전염병을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라고 규정하며 이를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23.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다.

24. 이것이 바로 과거의 경전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린 결과이다. 그 경전들의 신성한 언어는 계시와 예언이 기록된 인간 언어의 핵심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진리에 대한 가장 작은 지식도 없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죽음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한다. (290, 16-19)

25. 너희는 이미 "제3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영적으로 뒤처져 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영적 목자들은 영생에 대해 그들에게 거의, 때로는 전혀 계시하지 않는다. 나도 그들에게 내 지혜의 책에 담긴 비밀을 드러내 주었거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그들은 왜 침묵하는가? 왜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245, 5)

26.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아버지를 향한 완전하고 영적이며 순수한 숭배를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 주님의 성전 문턱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영혼은 내 현존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영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이성에 비추는 빛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27.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종교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영혼이 영성화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의식과 전통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으며, 영혼은 나의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고 있다. (138, 43-44)

성찬식과 미사

28. 나는 결코 신비에 싸여 사람들에게 온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신성한 것을 계시하거나 영원한 것을 어떤 물질적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비유적인 말로 말했을 때, 그것은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본질을 찾으려 하기보다 형태나 사물, 상징을 숭배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수세기에 걸쳐 정체되어 모든 것에서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9.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던 시절, 내 피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상징되었던 때부터, 그 희생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 흘리실 피의 예표였음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전통과 의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다른 이들은 내 몸으로 양육받는다고 믿으면서도, 물질적인 빵을 먹을 뿐, 내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의 의미를 양식으로 삼는 자가 바로 나로부터 양육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30. 진실로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그리고 그 소수란 바로 영으로 그 가르침을 해석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신성한 계시를 한 번에 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설명해 주고 있음을 명심하라. (36, 7-9)

31. 이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 앞에 스승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천상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참된 생명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둘러앉았던 식탁은 천국의 상징이었다. 그곳에는 자녀들에게 둘러싸인 아버지가 계셨고, 생명과 사랑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있었으며, 신성한 음성이 울려 퍼졌고, 그 본질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조화였으며, 그곳에 가득했던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평화였다.

33. 너희는 스승께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아침 시간에 스스로를 정화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하다. 오늘 나는 너희가 내 몸과 피를 상징했던 빵과 포도주를 기념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새로운 시대에 너희는 오직 내 말씀의 신성한 의미 안에서만 그 양식을 찾을 것이다. 너희가 내 몸과 피를 찾으려 한다면, 창조의 신성함 안에서 찾아야 하리니, 나는 오직 영이기 때문이다.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되, 내 잔도 채워다오. 나도 너희와 함께 마시고 싶으니,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노라.

34. 이 메시지를 너희 형제들에게 전하고, 피는 생명인 만큼, 참된 사랑인 영생의 상징일 뿐임을 배우라. 너희를 통해 나는 나의 새로운 계시로 인류를 비추기 시작한다. (48, 22-25)

35. 나는 너희에게 평화와 새로운 가르침을 가져온다. 나의 "제2의 시대"에 대한 희생 제사가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에 바치던 무고한 동물들의 제사를 폐지했다면, 오늘날 나의 신성한 말씀의 양식은 너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의 빵과 포도주로 내 몸과 피를 상징하지 않게 하였다.

36.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은 신성한 영으로 양육받아야 한다. 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자는 진실로 양육받은 것이다. 그는 단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신 것뿐만 아니라, 양육을 위해 내 영을 받아들인 것이다.

37. 이 하늘의 양식을 맛본 자가, 과연 다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과 모양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겠느냐?

38. 때때로 나는 와서 전통과 의식과 관습을 없애고, 너희의 영 안에 오직 법과 내 가르침의 영적 핵심만을 남기리라. (68, 27)

세례

39. 백성아, 그 당시 세례자 요한이라 불리는 요한은 자신의 예언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행위는 원죄로부터의 정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구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요단강으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미 너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 분이 오고 계신다."

40. 이 신성한 불에서 모든 영들이 태어났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순결하고 맑게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에서 불순종이 가져온 죄로 더러워졌다면, 내 영의 불이 그들에게 다시 쏟아져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그들의 얼룩을 지워버리며, 그들에게 본래의 순결함을 되돌려 준다.

41. 너희가 이 영적 세례를, 사람이 창조주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행위를 통해 얻는 정화라고 이해하기보다, 하나의 의식으로 변질시키고 행위의 상징적 의미에 만족한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너희 영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42. 그렇게 행하는 자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마치 영적 세례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정화하시고 빛 속에서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 신성한 불에 대해 말했던 그의 예언과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같다.

43. 요한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불러, 정화의 상징인 그 물을 그들에게 부어 주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실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선과 의로움, 그리고 정의의 길에 머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시점에 그에게로 왔다. 보라,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개선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통한 진정한 갱신 대신, 물을 통한 상징적인 정화

의식을 행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의식적인 행위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인간에게 분명한 노력과 포기, 나아가 자기 희생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양심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도덕적 또는 영적 상태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는 의식, 특정 행위, 그리고 예식을 지키는 데 만족함으로써, 겉으로만 죄를 덮어두기를 선호해 왔다.

44. 제자들아,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이다. 너희가 그러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99, 56-61)

45. 발전의 법칙에 따라 영혼들을 육신으로 보내시는 분은 바로 나이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의 영향들이 나의 신성한 계획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야심찬 권력 추구를 넘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6. 모든 인간은 지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며, 그 운명은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두셨고, 그 영혼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들은 헛되이 의식을 치르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린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어떤 물질적 생애에서도 물은 내 법에 대한 영혼의 범법을 씻어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한 영혼을 보내신다면, 종교의 성직자들은 세례를 통해 그 영혼을 어떤 더러움에서 씻어내려 하는가?

47. 이제 너희는 인간의 기원이 죄가 아니라, 그의 탄생이 자연법의 성취 결과임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이 법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루는 모든 피조물이 성취하는 법이다. 내가 "인간"이라고 말했지 "그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존재를 창조할 내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영혼은 오직 나로부터만 나온다.

48.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주적 법칙이다. 별들도 다른 더

큰 별들로부터 나왔고, 씨앗도 번식하였으나, 나는 그들이 이 사실로 인해 죄를 지었거나 창조주를 모독했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신성한 계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왜 죄인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법칙을 이행하는 것이 결코 인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49. 사람을 더럽히고 영혼을 발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저급한 정욕, 즉 방종과 악덕, 음행이다. 이는 모두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50. 진리를 찾을 때까지 연구하고 탐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의 창조주의 계명을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선한 행실의 모범을 통해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37, 18-23)

죽은 자를 기리는 일

51.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들이 무덤에 안장한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 없이 간직하고 있으며, 그들의 유해를 묻은 장소에 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 삶의 진정한 의미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면, 그 육체가 분해되어 원자 하나하나가 그것을 구성했던 자연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삶은 계속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52.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탓에, 모든 시대에 걸쳐 육체를 숭배하는 일련의 광신적인 의식을 만들어 냈다. 그는 물질적 삶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며,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인 영혼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영적인 삶을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먼가!

53. 이제 너희는 '죽음'을 나타내는 묘비가 '소멸과 생명'을 표현해야 할 그곳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연이 만개해 있고, 그곳에는 피조물과 생명체의 더 비옥하고 무궁무진한 자궁인 흙이 있기 때문이다.

54. 이 가르침들이 이해된다면, 인류는 물질적인 것에 그 가치를, 신성한 것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떠난 자들에 대한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이다.

55. 인간은 영과 영 사이에서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고 사랑해야 한다.

56. 제단은 애도의 상징이며, 묘비는 무지와 우상 숭배의 증거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진정으로 너희를 깨우쳐야만 한다. 나의 가르침은 이해될 것이며, 사람들이 물질적인 선물들을 고귀한 생각들로 대체하는 때가 올 것이다. (245, 16-21)

물질적 상징, 십자가, 유물

57. "초기 시대"에 너희는 상징물들을 알고 있었다. 곧, 율법판을 간직하고 있던 언약궤를 보호하던 성막이나 성소 말이다. 그 상징들이 그 임무를 다하자, 나의 뜻은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땅에서 없애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치워버렸으나, 그 교훈적인 상징들의 의미나 본질은 나의 종들의 영 안에 기록된 채로 남겨두었다.

58.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루어진 '제2의 시대'에, 나는 기독교의 가장 높은 상징인 십자가와 가시관, 성배, 그리고 인류가 열광적으로 숭배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였다. (138, 36)

59. 인류는 예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의 가르침과 증언을 너희는 믿고 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조각상 속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너희의 악함을 드러내는 희생양으로 그분을 내세우며 보낸 수세기가 너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가?

60.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통해 나를 기념하는 대신, 왜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찬 나의 부활을 기념하지 않는가?

61. 너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형상을 묘사한 그림을 볼 때, 어떤 이들은 때로 그분이 연약하고 비겁하거나 겁 많은 사람이라고

믿곤 했다. 그러나 나는 영이시며, 너희가 희생이라 부르는 것, 즉 내가 사랑의 의무라 부르는 것을 온 인류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겪으셨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다.

62. 내가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생각한다면,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나 권력이나 고문 따위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고통받고 피 흘리며 죽었을 때, 그것은 너희에게 나의 숭고한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63. 사람들은 그 교훈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했고, 곳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형상을 세웠는데, 이는 사랑과 존경 없이 자칭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분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승이 목숨을 바친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매일 상처를 입히는 인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21, 192 15-19)

64. 너희가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마지막 십자가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 서로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그 상징을 대체한다면,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의 신앙과 외적인 신숭배는 영의 숭배와 신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65. 너희의 예배와 상징들이 적어도 너희의 전쟁을 막고, 너희가 악덕에 빠지지 않게 하며, 너희를 평화 속에 머물게 할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보라, 너희는 너희 말로는 거룩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너희가 신성하다고 여겼던 것을 짓밟고 있다.

66.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온 땅에 단 하나의 교회도, 제단도, 상징이나 형상도 없이, 대신 영으로 기도하고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며, 중재자 없이도 그분을 믿을 줄 알며, 내가 내 가르침으로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며, 내 피의 발자취로 표시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발자취는 내가 내 가르침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남긴 것이다. (280, 69-70)

성인 숭배

67. 내가 너희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희가 많은 의인들의 영혼을 성인으로 선포하여 마치 신인 양 그들에게 기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인류여, 얼마나 무지한가! 사람들이 어떻게 단지 인간의 행적만을 근거로 한 영혼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68. 나는 너희가 형제들이 그들의 행실과 삶, 그리고 덕행으로 남긴 좋은 본보기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서는 자이다. 또한 나는 너희가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영적 도움과 영향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너희는 그 영혼들의 겸손을 모욕하는 데만 쓰이는 제단을 그들에게 세우는가? 왜 마치 그들이 신인 양 그들의 기념을 위한 숭배를 만들고, 자기 형제들을 숭배하는 데 몰두하느라 잊어버린 아버지의 자리에 그들을 앉히는가? 너희가 이곳에서 그들에게 안겨준 그 명성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69. 사람들은 그들이 성자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한 나의 심판을 무엇이랴? 그들은 그 존재들의 영적 삶이나,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얻은 지위에 대해 무엇이랴?

70. 아무도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이 계시들을 통해, 내 종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룬 공로를 지워버리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너희가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혜가 크며, 내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 너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종교적 광신, 우상 숭배, 미신이 솟아나는 너희의 무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71. 만일 너희가 그 존재들의 영이 너희 삶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영적 세계의 일부인 그들에게 신뢰하라. 그리하여 너희와 그들이 주님의 길 안에서 하나 되어 영적 형제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라.

바로 그 사명이 내가 내 모든 가르침의 결과로 기대하는 것이다. (115, 52-56)

교회 축일

72. 하늘이 열려 나를 맞이했던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며 교회로 달려가는 이 날,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전통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오늘날 나의 신성한 수난을 형상화하는 의식에 불과하다.

73. 제단과 상징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향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거룩한 사건들을 형상화하지 말고, 눈에 띄기 위해 특별한 예복을 입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4. 마음으로 나를 부르라.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의 본을 따르라. 너희의 회개를 나에게 바치면, 천국의 문이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열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75. 나와 나의 수난에 대해 만들어지는 거짓되고 속된 묘사들을 피하라. 아무도 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모범과 가르침을 살아가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지상에서 스승을 구현한 것이 될 것이다. (131, 11-13, 16)

76. 인류여, 너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들에, 너희 마음속에 평화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 되고 행복한 가족처럼 모습을 드러내라.

77. 나는 그 시절 나의 세상에 오심을 기념할 때 모든 마음이 진심 어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성찰과 묵상을 위한 시간을 내어, 그 기쁨이 내면의 것이 되게 하고, 기념의 축제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78. 오늘날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념일을 세속적이고 무의미한 축제로 만들어, 영의 기쁨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과는 거리가 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79. 만일 사람들이 이 날을,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이 되신 사실 그 자체가 확고한 증거인 신성한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영에 바치는 데 사용한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믿음은 너희 존재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날 것이며, 그것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끄는 길을 안내해 줄 별이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은 선함으로 가득 차서, 삶의 여정에서 궁핍한 이들에게 자선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정을 아낌없이 베풀게 될 것이다. 너희는 형제자매 이상의 유대감을 느끼며, 너희를 모욕한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즉 부모도, 거처도, 사랑도 없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전쟁이 인간 삶의 모든 선하고 고귀하며 거룩한 것을 파괴해 버린, 평화 없는 민족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도가 순수하게 내게 닿아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 우리 형제자매 중 끔찍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80.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러할 것이다. 너희가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기도하며 연민을 가졌으니, 너희 집으로 모여 식탁에 앉아 그 축복받은 시간에 기뻐하라.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기쁨이 진실하다면, 그로부터 평화와 희망의 숨결 이 흘러나와,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의 진통처럼 어루만질 것이니라.

81. 아무도 내가 너희가 일 년 중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지내는 가장 순수한 축제를 너희 마음에서 없애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단지 너희에게 세상에 마땅한 것을 세상에 주고, 영혼에게 마땅한 것을 영혼에게 주도록 가르치고자 할 뿐이다. 너희가 인간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축제를 거행한다면,

왜 이 축제는 영혼에게 맡기지 않는가? 그리하여 영혼이 어린아이가 되어 내게 사랑의 선물을 바치러 오게 하고, 목자들의 소박함을 얻어 나를 경배하며, 진정한 지혜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지혜 앞에 자신의 지식을 바칠 수 있도록 현자들의 겸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까?

82. 나는 이 며칠 동안 사람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기쁨을 꺾고 싶지 않다. 이는 단지 전통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내 자비가 너희를 어루만지고, 내 빛이 너희를 비추며, 내 사랑이 망토처럼 너희를 감싸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희망과 기쁨, 그리고 다정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끼게 되며, 무언가를 베풀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로 충만해진다. 다만 너희는 그 감정과 영감을 항상 그 진정한 너그러움과 순수함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이유인 영혼이 그 순간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 정화되고 구원받도록 허락하지 않은 채, 그 기쁨을 세상의 쾌락 속에서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육신이 되신 그 신성한 사랑은,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을 찾도록 하기 위해, 각 사람의 삶의 길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299, 43-48)

잘못된 예배 형식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느님

83. 인간은 물질에 얽매여 있기에, 감각적인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야 하며,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므로 나를 보기 위해 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영적으로 감수성을 기르지 않았기에, 나의 존재를 믿기 위해 항상 물질적인 기적과 증거를 요구하며,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며, 내가 그에게 주는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나에게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교회, 모든 종교 공동체, 모든 종파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들은 물질주의와 광신주의, 우상 숭배, 비밀주의, 사기,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차 있다.

84. 내가 그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오직 의도뿐이다. 이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이 내게 닿는가? 내 자녀들의 영적 혹은 육체적 궁핍, 그들의 작은 사랑,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내게 닿는 것이며, 나는 모든 이와 함께 있다. 나는 교회나 형식, 의식을 보지 않는다. 나는 모든 내 자녀에게 똑같이 다가간다. 나는 기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들을 내 품에 안아 포옹하며, 그들이 나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이 온기가 시련과 시험의 길에서 그들에게 자극과 격려가 되게 한다. 그러나 내가 인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에 휩싸여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85. 나는 인간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영혼이 나를 향해 고양되어, 그 고양 속에서 아버지의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전례와 의식의 허울뿐인 광채는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진정한 승천에 도달했을 때, 새롭게 되어 인간의 궁핍에서 벗어나 감각의 속박과 정욕, 악덕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찾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코 아버지께 자신들이 지상의 벌레라고 말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들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360, 14-16)

86.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 공동체가 있으며, 그 대다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며, 서로를 신성한 스승의 제자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87. 너희는 그들이 모두 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교파들을 화해와 평화로 이끌어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서로 거리를 두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을 영적으로 갈라놓고 분열시켜, 결국 그들은 서로를 적이나 낯선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모두가 자신이 진리의 소유자이며 다른 이들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단과 논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두의 통합을 위해 싸울 힘과 용기를 갖지 못했으며, 모든 신앙적 신념과 모든 신 숭배 속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려는 선의도 없습니다. (326, 19-20)

제15장 - 가짜 그리스도인, 교회의 이단과 부패

이름만 기독교인

1. 인류의 대다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지만, 스승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평화로 이미 나머지 사람들을 이겨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제2시대"에 유언으로 남긴 가르침은 인류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며, 사람들의 행실 속에서 살아 숨 쉬지도 않고 꽃피지도 않는다. 그것은 먼지 쌓인 책 속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나는 사람들에게 책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2. 책 대신에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삶과 말씀, 그리고 행적, 인간으로서의 나의 고난과 죽음을 가져왔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인류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평화도, 은혜도 갖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분을 본보기로 삼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316, 5)

3. 제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 마음속에서 낡은 신앙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형제들을 모욕하고, 경멸하며, 위협하는 신앙 집단들로 나뉘어 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4. 어떤 이들은 여호와를 인간적인 결점이 가득한 늙은이로 묘사하며, 복수심에 불타고 잔인하며, 지상에서 너희가 만나는 가장 악한 재판관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그분을 그린다.

5.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누군가를 조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인식을 정화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지금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나를 숭배했는지 알지 못한다. (22, 33-35)

6.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민족들이 어떻게 전쟁으로 서로를 멸망시키고, 심지어 형제들을 죽이러 가기 전에 기도하며, 내가 그들에게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주기를 간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 대신 증오가, 용서 대신 복수가 지배하는 곳에 내 씨앗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67, 28)

7. 나는 다양한 신조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물질적 부를 제자리에 두는 법을 알지 못하여, 영적인 것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고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나의 법을 지켰다면,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약속의 땅의 빛을 바라보고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8. 너희는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신성을 믿는다고 주장하며, 또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믿음과 내가 정하신 바에 대한 순종은 얼마나 미약한가!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서 참된 믿음을 일깨워, 내가 너희를 위해 닦아 놓은 길에서 너희가 강해지도록 하리라. (70, 12-13)

9. 오늘 나는 너희가 목숨을 바치라고 너희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 진실함, 성실함, 이타심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를 통해 너희를 지도하며, 이 제3의 시대에 내 신성의 제자들을 양육하노라. 이는 너희가 세상의 흐름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을 내가 보기에, 너희가 그토록 많은 비참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11. 큰 불평등이 만연해 있나니, 이는 내가 왕이라 칭하기 위해 왕관만 부족한 주인들을 보며, 진정한 노예인 피지배자들을 보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투쟁이 불붙었도다. 세상에서 부자가 된

그 주인들 중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내 이름을 거의 알지 못하느니라.

12. 이웃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쌓아 올리며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동정심을 알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13.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싸움이 올 것이며, 인류는 이 대립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승리가 오기 위해 인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겠는가! (222, 43-45)

불신자와 신앙 광신자

1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진실로 여기는 거짓된 확신이나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불확실함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편이 너희에게 더 낫다. 의심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정직한 부정은, 거짓된 것에 대한 위선적인 동의보다 너희에게 덜 해롭다. 이해를 갈망하는 정직한 의심은, 어떤 신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보다 낫다. 빛을 간절히 갈구하는 절망적인 불확실성은, 광신적이거나 우상 숭배적인 확신보다 낫다.

15. 오늘날 어디를 가나 불신자들과 실망한 자들, 그리고 원한에 찬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반항적인 자들로, 종종 다른 이들보다 더 명확하게 보며, 의례적인 행태를 그저 그런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자들로부터 들은 확신들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잡한 이론들은 두려움을 달래줄 맑은 물을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반항적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스스로 학식 있고 위대하다고 여겨 그 질문에 답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의 빛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신성한 가르침의 대가라고 자칭하는 많은 이들보다 더 명확하게 느끼고, 보고, 감지하고, 듣고, 이해한다. (248, 12)

17. 진리는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한가! 영성은 얼마나 분명하고 단순한가! 그런데도 — 광신과 전통이라는 어둠 속에 완고하게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의 이성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의 마음은 그에게 있어 신이자 법이었던 것, 즉 전통과 의식을 버리기를 거부한다.

18. 너희는 내가 내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내 자녀들아, 나의 자비는 무한히 크니, 바로 그들에게 내가 다가가 그들의 감옥을 벗어나게 도와주어, 그들이 빛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련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을 넘어서는 시련이 아니라, 모든 영혼과 삶,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게 맞춰진 교훈이 될 것이다.

19. 그곳, 그 어두워진 정신들 가운데서, 종교적 광신과 무지로 병든 그 마음들 가운데서, 너희는 위대하고 열정적인 진리의 전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쇠사슬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는 그날, 그들은 환호를 참지 못하고 목청껏 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왔으며, 영성의 사다리를 통해 세상을 참된 왕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318, 48-50)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과 그 결과

20. 나는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한 영적 내용으로 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며, 너희가 잊어버렸거나 조상들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외면했던 나의 가르침들을 많이 상기시켜 주었다.

21. 너희는 내 가르침을 너무나 심하게 어겼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는 내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 놓았으나, 그 길에 내 이름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그 오류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다.

22. 그러므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깨달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온전히 분명히 말하노니, 영혼의 환생은 사실이며, 그것은 인류 태초부터 신성한 정의와 사랑의 빛으로서 존재해 왔으며,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영혼을 완성해 나가는 긴 여정에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66, 63-65)

23.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해 밝혀준 것은 매우 적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무기력함에서 깨어날 것이며, 망설임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그들이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내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의 용서와 은총, 그리고 지혜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리라.

24. 그때 인류가 교회들이 단지 지상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인류는 영적 발전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될 것이다. (109, 15-16)

25. 내가 예수로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시절 이후로, 나는 항상 "군사"나 사도로 온 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행실로 내 가르침을 확증하고, 인류가 내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을 막게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씀을 불완전하게 해석한 많은 "귀머거리"와 "눈먼 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여, 이로써 다양한 종파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 어떻게 내 율법의 가장 높은 계명에 따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2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문명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니,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나의 정의와 사랑의 법칙을 기초로 한 세상을 세우지 않는 한, 그들은 평화와 영의 빛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 덕목 위에 진정한 발전의

세상을 창조하고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과학과 도덕의 면에서도 말이다. (192, 17)

27. 오직 갱신과 완전함에 대한 이상만이 너희를 진리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28. 신성한 법의 해석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너희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며, 오직 너희가 회개를 표명하고 육신을 채찍질하고 상처 입히며 하나님께 물질적인 제물을 바칠 때에만, 그분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

29. 너희가 거룩한 계시의 위대한 스승이라 칭송하는 자들, 그러나 내가 그릇된 자들로 여기는 자들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가르침의 빛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노니, 이 가르침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24, 46-47)

30. 사람들은 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숨겨 버리고, 그 대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신 분의 그림자조차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려 했다.

31. 오늘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스승에게서 등을 돌린 대가를 겪고 있다. 너희는 고통에 둘러싸여 있고, 너희의 비참함에 짓눌려 있으며, 무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과 은사가 깨어나, 마치 전령처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할 때가 왔다.

32. 사람들의 교회와 과학, 사법부는 그들에게 낯설고 해로운 영향으로 여겨지는 것의 확산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의 각성과 진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을 것이다.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 (114, 5-8)

33. 땅 위에서 나를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많은 이들이 내게 등을 돌린 이유이다.

34.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나를 그들의 마음에서

추방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겠으나, 진리를 왜곡하여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을 내세운 자들은 심판하리라.

35. 의롭고, 건전하며, 선한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시대에 선포해 온 진리가 담겨 있다.

36. 너희가 다시 진리를 사랑해야 할, 즉 다시 의롭고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될 때가 왔다. 너희는 나에게서 태어났으니, 높고 영원하며 순수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125, 22-25)

37. 그렇다, 이스라엘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을 숭배하기를 갈망해 왔고, 귀는 듣기 좋은 말에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제2의 시대"에 기독교 교리로 가져온 것을 "종교"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변질시켜 버렸다.

38.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기심과 탐욕, 허영심이 깨어났으며, 그것들은 백성이 자신들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노예로 만들며, 죄에 묶어 어둠과 방황, 혼란으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를 왕과 주인으로 삼았다. (363, 36)

39. 이 시대의 신학자들은 나의 말씀과 새로운 경전을 연구하며 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마치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며 내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대체하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세 가지 계시가 내가 항상 가르치고 따랐던 유일한 율법임을 깨닫게 해 주리라.

40. 이 시대에 나를 정죄하는 자들 중 많은 이는 "제2의 시대"에 의심했던 자들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존하여 다시 지상으로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내 율법의 승리를 목격하고 그들의 눈을 빛으로 열게 하려 함이다. (234, 46-47)

기독교의 왜곡과 문제점

41. 이 인류의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도 알지 못한다.

42. 너희는 내가 한때 너희에게 주었던 내 말씀과 내 본보기, 내 가르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43. 너희는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발전한 인간들인가? 왜 너희는 너희 영의 행실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너희는 이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오직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4.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을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대한 성전으로 바꾸고, 인간의 삶이 아버지께 드리는 끊임없는 사랑의 선물이 되어, 모든 이웃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창조주이자 스승께 경의를 표하게 하려고, 율법의 참된 성취를 가르쳐 주었다.

45. 그러나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 내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거짓과 이기심이 진리와 이웃 사랑을 대체하였고, 교만과 허영이 온유와 겸손을 대체하였으며,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 그리고 무지가 빛과 고양, 영성을 대체하였고; 의무감과 정직함이 있어야 할 곳에는 이윤 추구와 신성 모독이 지배하고 있으며, 형제자매 간의 증오와 거침없는 다툼이 형제애와 평화, 사랑을 대신하고 있다.

46.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2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내 성전에 가서 거기서 상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리라. "기도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나는 모든 사람이 참된 제단 앞에서 섬기도록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오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무지함으로 인해 길을 잃지 않게 하리라. (154, 15-20)

47. 나를 따르려 했던 모든 이가 나와 내 사도들의 본을 본받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이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어, 우월감과 오만함으로 마음을 채우고 오직 부와 화려함, 영예만을 좇았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의 궁핍을 잊어버렸고, 타인의 비참함과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옮겨 다니며, 나를 자유롭게 찾기 위해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려는 영적 욕구를 갖게 되었다.

48. 예전에는 성자나 반신으로 여겨졌던 자들이 오늘날에는 실망한 인류에게 배척받고 있다.

49. 사람들은 더 이상 고해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사면받으려 하지 않으니, 그들은 그것을 합당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두렵게 하지 못한다.

50. 이러한 영적 방황을 틈타, 늑대가 덤불 뒤에 숨어 있다.

51. 나의 신성을 섬기는 모든 종과 모든 대표자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임무를 지녔으나, 이는 그들이 이 시대에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누구나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누구나 가장 강해지려 하며, 오직 나만이 모든 이 안에 계신 유일한 강자임을 잊고 있다.

52. 이제 너희는 내가 '제2의 시대'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나의 말씀만이 영혼을 가리는 어두운 장막을 걷어낼 수 있고, 오직 나의 사랑만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0, 23-28)

53. 내 율법을 어긴 중대한 죄와 과오에 대하여 내 심판이 내릴 것이다. 완전하신 스승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을 과오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벌하는 것이다.

54. 나는 무지함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고의로 죄를 지은 자를 회개로 이끄나니, 그리하여 둘 다 나의 용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도록 하리라. 이것이 내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55. 여러 교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성직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이들을 영성화시키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그릇된 길을 회개하고, 영혼에게 죽음과 어둠인 인간의 물질주의와 싸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내 진리를 사용하고, 내 말씀을 무기로 삼으며, 내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56. 나는 어느 한 교파를 특별히 편애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편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2, 27-30)

57. 영성으로 가득 찬 나의 가르침은 이 민족의 마음속에 싹트어, 장차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져 나가, 정화하고, 깨우치고, 심판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58. 그러면 민족들은 참되고 영원한 영적 삶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다양한 숭배 형식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오직 내 법의 본질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59. 인류는 영성이 부여하는 힘을 깨닫게 될 것이며, 수 세기 동안 그들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릴 것이다.

60. 사람들이 선한 뜻을 품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지상에 수백만 개나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61. 겉모습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며, 경외심도, 선의도, 상처를 준 것에 대한 후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상징과 숭배의 형식은 그 시대가 지났으므로 사라질 것이며, 내면의 경배야말로 사람을 빛으로 끌어올리고, 고양시키며, 나를 향해 인도할 것이다. (280, 63-67)

IV. 법 –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제16장 - 신성한 법

신성한 법의 힘

1. 내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 이유는 그들의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내 가르침의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2. 나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 문화와 문명, 그리고 법을 가진 인간들만이 덧없는 존재이며, 그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영이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세운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모든 시련을 겪은 후, 신성한 지혜의 샘에 묻는 바로 그 사람이, 내 법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영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언제나 열려 있는 책을 바라보게 된다. (104, 31-32)

3. 나는 내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어 그들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리를 드러내 주었으나, 너희도 보듯이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믿고, 해석하고 있다.

4. 사람들의 이러한 다양한 사고방식은 분열을 초래하였으니, 각 민족과 각 인종은 서로 다른 길을 따르고 서로 다른 이상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5. 대다수는 신성한 법의 성취가 초인적인 희생과 포기, 노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빛나고 참된 길에서 멀어졌으며, 자신들에게 더 쉽게 따를 수 있는 법 준수와 예배 의식을 가진 종교 공동체와 종파를 스스로 세우는 것을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느끼는 빛과 고양에 대한 갈망을 달랠 수 있다고 믿는다.

6. 수세기와 수많은 시대가 지나갔으나, 사람들은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내 계명을 무시할 때야말로 그들이 세상의 육체와 영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물질에 매몰된 사람들이 그토록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 지혜, 그리고 영광을

찾게 될 것임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7. 너희를 둘러싼 도덕적, 과학적 세계는 물질주의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 즉 인류의 물질적 발전만을 추구해 온 사람들의 작품이다. 나는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그 한계를 시험하며, 그 결과를 깨닫고, 그 열매를 거두어 경험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 빛 속에서 나의 정의가 드러날 것이며, 그 정의 속에 사랑인 나의 법이 임할 것이다. (313, 60-64)

8. 만일 내가 너희가 내 뜻이 아니라 너희 뜻대로 내 가르침을 너희 삶에 적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는 결코 영적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너희 영혼이 발전하고, 꽃피우며, 완성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9. 보라, 종교 안에서 나태해진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신성한 법이 명하는 바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신화를 끼워 넣고 그릇된 교리로 채움으로써 법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려 했기에, 더 이상 빛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0.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영으로 나를 찾고,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모든 특성, 은사, 능력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5, 6-8)

영적 사역 속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

11.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이며, 나의 목소리는 곧 법이다. 오늘 너희는 그것을 다시 듣게 되니, 그것을 돌에 새길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내 말씀을 보내야 할 필요도 없다. 너희의 영에게 다가와, 인간이 의로워지고 창조주와 화해하며, 기록된 바와 같이 정화될 시대의 시작을 계시하는 것은 바로 나의 신성한 목소리이다. (15, 8)

12. 나는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완전한 가르침을 주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깊이 성찰하라. 그러면

사랑이 생생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13. 나는 너희가 예수와 같아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분 안에는 너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그분 안에 계신 분이 제한된 형상의 하나님 자신이셨기에,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14. 나의 영원한 법은 언제나 이 사랑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왔다. 나는 태초에 너희에게 "너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였다.

15. 그 후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영감을 주는 말씀을 주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6. 이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계시해 주었다. 또한 너희가 이웃에게 자비를, 또다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비는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167, 15-19)

17. 나는 이 영적 가르침이 세계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종교를 전한 적이 없으며, 오직 율법만을 전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지상에서 승리하고 인류의 존재를 비추기 위해 영원히 유효할 법은, 내가 너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가르침 속에서 설명해 준 사랑의 법이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할 뿐이다.

18. 인류는 사랑하는 법과 참된 사랑의 실천을 배우기까지 여전히 많은 거짓된 사랑과 자선의 행위를 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이 더 높은 깨달음으로 상승하여 마침내 유일한 법, 즉 모든 이가 도달하게 될 영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르침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여전히 여러 교파를 전전해야 할 것이다.

19.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오직 사람 안팎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빛만이 남을 것이다. 그 성전 안에서 너희는 모두 순종과 사랑, 믿음과 선의의 단일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12, 63-65)

신성한 법칙에 대한 무시와 그 결과

20. 이 경건한 기념의 아침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내가 모세를 통해 인류에게 보낸 그 율법을 너희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계명들이 과연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느냐?

2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축복받은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없으니, 이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목숨을 빼앗고, 결혼을 파기하며, 스스로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있다.

22. 너희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듣지 못하느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평화를 빼앗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데도 인류는 내 율법을 안다고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내 계명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5, 1-3)

23. "두 번째 시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기도와 하나님 숭배를 위한 성소인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시고, 스승께서는 열정을 담아 그곳을 모독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도록 사람들의 영을 인도할 임무를 맡은 자들보다 죄가 덜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명예욕과 허영심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모시켰고, 그 지배는 무너져 내렸다.

24. 오늘 나는 내 율법을 더럽힌 자들을 벌하기 위해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이 가져온 결과를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헤아리고 내 율법이 굽히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려 했다. 나는 인간에게 올바른 길, 곧 바른 길을 보여주었으니, 그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공정한 법의 엄중함에 스스로를 내맡기게 될 것이니, 그 법 안에 내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41, 55-56)

25. 나는 나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 성벽도 탑도 없는 성전이라,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26. 바벨탑은 여전히 인류를 분열시키고 있으나, 그 기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질 것이다.

27. 우상 숭배와 종교적 광신주의 또한 그들의 높은 탑들을 세웠으나, 그것들은 허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법들 — 신성한 법이든 인간의 법이든 — 은 거룩하며, 그것들 스스로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29. 인류는 스스로를 우상 숭배자라고 여기지 않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 (122, 57)

30. 혼돈이 다시 찾아온 것은 덕이 없기 때문이며, 덕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율법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며, 예수의 가르침이 오직 과거의 시대에만 적용되기 때문도 아니다. 둘 다 그 영적 내용에 있어 영원한 법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치 누구도 강제로 마시게 할 수 없는 샘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라. 오히려 이 사랑의 샘에 다가가는 모든 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144, 56)

31.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라. 내 영이 지상에서 너희의 고통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며,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빼앗아 내 즐거움을 삼으려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여 온다. 그 율법들은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므로,

너희의 존중과 경의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32.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오직 "황제"만 있을 뿐이며, 그들은 주님께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적어도 세상에 필요한 것만 나누어 주었다면, 너희의 고통은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둔 그 "황제"는 너희에게 터무니없는 법들을 강요하고, 너희를 노예로 만들었으며, 그 대가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너희의 목숨을 앗아간다.

33. 내 법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라. 내 법은 육체도 영혼도 얽매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너희를 설득하고 자비로 너희를 인도할 뿐이다. 이 법은 이기심이나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하고 보상해 준다. (155, 14-16)

최고의 법의 성취

34. 주님께서 너희에게 "너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스승께서 사랑의 가르침을 설교하셨다면,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된 이 영적인 목소리는 너희에게 사랑의 법에 굳게 매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법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군대조차 갖지 못한 힘이 있으며, 너희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우는 모든 것은 영생을 누릴 것이므로, 그 정복은 확실하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293, 214 67)

35. 나는 너희가 부당한 위협 아래서 살지 않게 하고, 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자들이 너희에게 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만 내 법을 지키지 않게 하려고, 영혼의 참된 삶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36. 내 율법을 깨달아라. 그것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구도 망신당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된

말이나 예언,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된 해석에 자리를 내주지도 않을 것이다.

37. 내 법은 단순하며,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을 항상 가리켜 준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너희를 하얗게 빛나는 도시로, 너희의 도착을 기다리며 문을 열어 두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길이다. (32, 9)

38. 언제쯤 너희는 내 율법을 실천할 때에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겠느냐?

39. 너희는 물질적 삶에는 생존하기 위해 적응해야 할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인 영역에도, 인간이 신성 안에 존재하는 영생의 근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188, 62)

40. 오직 나만이 너희의 구원이심을 기억하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내 법은 너희 영혼의 길이자 인도자가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41. 내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갈림길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225, 31-32)

42. 나는 너희의 깨달음이 커질수록,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도 그만큼 커질 것임을 안다.

43. 내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참된 생명을 사랑하라. (297, 57-58)

44.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너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특정 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임무만을 맡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지녀야 할 첫 번째 의무는 바로 너희 자신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창조주의 살아있는 형상임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133, 72)

45. 내가 지상의 내 백성에게 맡긴 사명은 크고 매우 까다롭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시대에 그들을 찾아가 내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율법의 내용을 조금 더 계시해 주었다.

46. 사랑과 선과 정의의 법은 내가 모든 시대에 그들에게 전해 온 영적 유산이었다. 교훈을 거듭하며 나는 인류가 그 법이 단 하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깨닫게 이끌어 왔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일부인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47. 사랑은 지혜와 위대함, 힘과 고양,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며 씨앗이다. 이것이 창조주가 영혼을 위해 제시한 참된 길로, 영혼이 단계마다, 거처마다 나와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48. 만일 인류가 태초부터 우상 숭배의 의식과 종교적 광신에 빠지는 대신 영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의 두려움과 비참함으로 인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이 세상은 영혼들이 이 생을 마친 후, 상승 발전의 길에서 도달해야 할 영적 고향에 이르기 위해 공덕을 쌓는 평화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이다. (184, 35-38)

제17장 - 하나님을 숭배하는 새로운 방식

예배 형식의 발전

1. 인류는 얼마나 더디게 하나님 숭배의 완성에 다가가고 있는가!

2.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전할 때마다, 그것은 너희의 발전 단계에 비해 너무나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시대를 허락한 것은, 그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너희 삶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라. (99, 30-31)

3.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에 바친 동물 제물은 그분께서 받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영을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방식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서 너희에게 와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신성한 계명을 가르쳐 주었다.

4.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2의 시대'에 예수의 사역을 통해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들은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잘못 해석되어 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고했던 대로, 나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다시 왔다. 그 당시 나의 희생은 수많은 동물 제사를 없애 주었으며, 나는 너희에게 더 온전한 하나님 숭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5. 이 시대에 내리는 나의 새로운 계시는, 상징적인 예배 형식이 단지 내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를 먼저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할 것이다. (74, 28)

6. 기도는 내가 인간에게 영감을 주어 나의 신성과 대화를 나누게 한 영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태초부터 너희 안에서 갈망으로, 영혼의 필요로, 시련의 시간에 피난처로 드러났다.

7. 참된 기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알지 못하며, 그 안에 담긴 건강과 은혜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비록 나에게 다가가고, 나와 대화하며, 자신의 간구를 나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는 하지만,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는 것만으로 바치는 제물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져, 곧바로 나에게 바칠 물질적인 것을 찾아 나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잘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 이처럼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광신, 의식과 외형적인 예배에 빠져,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받은 자유를 박탈해 버렸다. 오직 고통이 매우 심하고, 고뇌가 인간의 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만,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형식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며, 우상들을 무너뜨리고는 몸을

일으켜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친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

9. 보라, 이 물질주의 시대에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느라 분주한 것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곳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신비를 발견하였으니, 바로 마음에서 솟아나와 간절한 구조 요청으로, 탄식으로, 간절한 청원으로 내게 닿는 그 기도 말이다.

10.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간구한 기적을 자신의 여정에서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영혼의 언어로 말하는 것 외에는 하느님과 대화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61, 22-24, 27)

헌신과 믿음이 없는 겉치레 기도

11. 오, 모든 신앙 고백을 가진 나의 자녀들아, 영혼의 가장 고귀한 감정을 죽이지 말고, 겉치레의 관습과 의식으로 이를 달래려 하지도 말라.

12. 보라: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줄 수 없을 때, 그녀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온 정성을 다해 축복하며, 입맞춤으로 덮어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물로 흠뻑 적셔 주지만, 결코 텅 빈 사랑의 제스처로 아이를 속이려 하지 않는다.

13. 어떻게 너희는 나, 신성한 스승이, 영적인 가치도, 진리도, 사랑도 전혀 없는 의례 행위에 만족하는 것을 용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 영혼을 속이려 하며, 영혼이 진리에 관해 실제로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분을 얻은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21, 20-21)

14.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총으로, (영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지침이 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되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되고, 자신을 치유하고 모든 질병에서 회복하기 위한 연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참된 기도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려고

시도할 때조차 영혼으로 나에게 말하기보다는 입술로만 기도하고, 공허한 말과 의식과 위선을 사용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형식과 관행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볼 수 있겠는가?

16. 참된 기도가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와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자이다. (39, 12-14)

17.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 이웃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창조주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들의 기도가 거의 항상 육체의 비명이며, 두려움의 표현이자, 신앙의 부족, 반항, 혹은 나에 대한 불신의 증거임을 알게 하라.

18. 너희 이웃들에게, 내 영을 감동시키거나 내 연민이나 자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몸을 고문하거나 찢어발길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라. 육체적 고통과 참회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자들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기쁜 제물인지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며, 또한 너희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19.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너희 눈물의 눈물과 마음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곧 나에게 냉혹함, 무감각, 무관심, 이기심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런 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느냐?

20. 너희는 나를 알아가려고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이성을 영과 조화를 이루며 생각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78, 17-20)

21. 오늘은 잠시 지상을 뒤로 하고 영으로 내게로 오라.

22.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 방법을 놓쳐 왔기에, 감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얻지도 못했고, 내 사랑으로 삶의 길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23. 인간이 그토록 쉽게 빠지는 우상 숭배는 마치 독과 같아서, 그로 하여금 내적 기도가 주는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

24. 사람들은 단지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비참함을 짊어지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는 당연한 일이다, 제자들아. 왜냐하면 내 영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에 다가갈 수단이 없다면, 인생의 유혹을 이겨낼 만한 영적 힘을 인간이 과연 얼마나 가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심연과 어둠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지만, 정작 일어나 산 정상과 빛 속에서 나를 만날 수도 있음에도 말이다.

25. 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깨달았더라면 — 얼마나 많은 초인적인 업적을 이루어 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물질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신성함마저 만지고 볼 수 있도록 물질화하려 애쓰고 있다. (282, 61-64)

진정한 기도

26. 나는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그들의 기도가 영적일수록, 내가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평화는 더욱 커진다.

27. 이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 신성한 존재의 현존을 느끼기 위해 형상이나 물건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현존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8.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내가 한때 말했으니, 이제 다시 말하노라. 세상의 것들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영적인 것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요, 나의 영적 임재를 믿는 자는 그것을 느끼고 기뻐해야 하리라.

29. 지상의 사람들은 언제쯤 직접적인 기도를 통해, 혹은 — 이는 같은 의미이니 — 영과 영 사이의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서 나를 느끼는 그 기쁨을 자신의 영에게서 박탈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까? 바로 내 빛이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자신의 오류를 깨달을 때이다.

30.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명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다. 그러나 광신과 우상 숭배가

배제한 기도로, 그리고 나의 신성한 말씀에 대한 차분하고 깊은 묵상으로 해야 한다.

31.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기도하고 명상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를 위해 특별히 정해진 장소나 순간이 있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너희가 사는 세상보다 너희의 영이 더 큰데, 도대체 왜 세상에서 특정 장소를 찾아가 기도하겠느냐? 내가 무한한 존재인데, 왜 나를 형상이나 그처럼 제한된 장소에 가두겠느냐?

32. 사람들의 영적 빈곤과 세속적인 시련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그들의 불완전한 기도 방식에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 깨달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다. (279, 2-7)

33. 너희가 항상 같은 내적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에, 따라서 항상 같은 평화나 같은 영감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34. 영감을 받아 생각이 고양되는 순간도 있고, 완전히 무감각한 채로 머무르는 순간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메시지를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 너희는 기도하는 순간에 영혼과 협력하도록 마음과 심지어 육체까지 훈련시켜야 한다.

35. 영은 언제나 나와 하나 되기를 준비하고 있으나, 그 순간에 고양되어 지상 생활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올바른 상태가 필요합니다.

36. 참된 기도에 이르도록 힘쓰라. 기도를 아는 자는 평화와 건강, 희망, 영적 힘,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열쇠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7. 내 율법의 보이지 않는 방패가 그를 박해와 위험으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 그는 입에 보이지 않는 칼을 지니고 다니며,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등대가 폭풍 한가운데서 그의 길을 비춰 줄 것이다. 그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하든 이웃을 위하든, 기적은

언제나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다.

38. 기도하라, 이 고귀한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라. 왜냐하면 이 힘이야말로 미래의 사람들, 즉 육신에 있으면서도 이미 그들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를 사람들의 삶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39. 가장들은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인도할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40. 병자들은 기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통치자들은 기도로 빛을 구함으로써 그들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며, 과학자 또한 기도의 은사를 통해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40, 40-47)

41. 제자들아: "제2의 시대"에 내 사도들이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42.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기도와 그 의미, 그 겸손과 믿음에서 영감을 얻어, 너희의 영이 내 영과 대화를 나누게 하라.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입술이 그 축복받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 고유의 언어로 내게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6, 64)

43. 너희 입술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중 많은 이가 이를 기계적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 이 기도가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너희가 매 구절을 깊이 묵상하여, 그 후 영감을 받고 나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란다.

44. 나는 너희에게 아이를 진정으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강력하고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열정과 경외심, 고양된 마음과 사랑, 믿음과 희망으로 발할 때, 거리는 사라지고 공간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과 영이 대화하는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멀리 계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멀리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두 손 가득 내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166, 52-53)

완전한 기도의 네 가지 측면

45. 영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또 힘쓰라. 나는 너희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배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물질적 무기보다 우월한 '무기'로서 기도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면 가장 훌륭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46. 기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기도는 청원, 중보, 경배, 그리고 영적 묵상이다. 기도의 모든 부분은 필수적이며, 하나는 다른 것에서 비롯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청원이란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 즉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내 자녀들아,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 될 때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구원에 반하는 것을 구하는 일에는 조심하라. 왜냐하면 오직 물질적 재물과 육체적 쾌락, 그리고 덧없는 권력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쇠사슬에 묶어두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7. 육체적 쾌락은 오직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로 넘어간 후에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 육체적 욕망의 영향은 그곳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갈망에 시달리며, 환생하여 물질적인 삶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금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오직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

48. 기도의 두 번째 형태인 중보기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로 그 사랑이다. 가까운 형제자매와 먼 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고 이 세상의 덧없는 통치자들의 폭정을 견뎌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49. 오, 나의 자녀들아, 준비하라. 너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되, 이 중보기도에서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형제나 부모, 자녀가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이 생에 머물도록 고집하지 말라. 차라리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고통 속에서 정화되기를, 그 고통이 영혼의 상향 발전을 촉진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므로 스승께서는 이미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어떤 자녀보다도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50. 기도의 세 번째 유형인 신성한 영에 대한 숭배는, 온전한 모든 것에 대한 숭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 너희는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온전함과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배를 통해 너희는 모두 도달해야 할 완전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경배는 너희를 영적 묵상으로 이끌어 준다. 이 영적 묵상은 경배와 함께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신성한 영과의 연합으로 이끈다. 그 근원은 너희가 아버지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는 원천이다.

51.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간구로부터 시작하여 영적 묵상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52. 그러면 너희가 잘 준비되었을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싸워서는 안 되며, 이웃들이 이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투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358, 10-17)

말 없는 자발적인 마음의 기도

53. 백성아, 여기 성령의 음성이 있다. 이는 너희의 이성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로서, 너희에게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교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가서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새롭고, 더 진보적이며, 더 영적이고, 더 완전한 방식을 계시하는 것이다. (293, 66)

54.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크게 해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들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최고의 제자들이 아니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신성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55. 반면에, 내 가르침의 단 한 조각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화하는지 보라. 그에 대한 예를 원하느냐?

56.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말로만 기도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었고, 그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그는 참된 기도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집중하며 생각을 하나님께로 올렸더니,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

57. 그는 주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떠올랐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법을 모르는데 말입니다."

58. 그러나 그 눈물과 흐느낌, 그 내면의 기쁨, 심지어 그의 당혹감마저도 아버지께는 그 어떤 인간의 언어나 책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59. 주님께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의 더듬거리는 말은, 부모에게 기쁨과 황홀함을 주는 어린아이의 첫 말과 닮아 있다. 부모는 생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존재의 첫 발성을 듣기 때문이다. (281, 22-24)

60.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은 인간의 말이 영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빈약하고 축소시킨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물질적인 입술을 잠잠하게 하여, 높이 치솟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언어로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숨겨 간직하고 있는 신비를 표현한다. (11, 69)

61. 너희가 아버지를 찾아 생각을 높이 향하는 것을 볼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지.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임재를 느끼게 하고 평안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 주리라.

62. 나를 찾으라, 나와 대화하라. 너희의 생각이 너무 서툴러서 청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개의치 말라.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것이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듯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하라.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내게 너희의 탄식을 털어놓으라. 너희가 모르는 것, 너희에게 낯선 모든 것을 내게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스승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영혼이 내게로 향하는 그 축복받은 순간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빛과 힘과 축복과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36, 15)

63. 침묵 속에서 나에게 너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너희의 갈망을 나에게 맡겨라.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가 너희 영혼과 아버지 사이의 완전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될 때까지, 점차 너희만의 기도를 만들어 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110, 31)

64. 기도는 필요에 따라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원한다면, 몸이 지치지 않거나 다른 의무가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영적 황홀경 속에서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다. 또한 갑자기 닥친 시련에 직면했을 때는 단 1초로만 제한될 수도 있다.

65. 너희의 이성이 기도를 구성하려고 애쓰는 말들이 내게 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드러내는 사랑과 믿음, 혹은 간절함이 내게 닿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익숙한 대로 생각이나 문장, 아이디어를 정리할 시간이 없을 때, 너희의 기도가 단 1초밖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66. 너희는 어디서나 나를 부를 수 있다. 나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40, 36-38)

67. "제2의 시대"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곳인지 물었을 때, 스승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루살렘도,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영과 영 사이에서 경배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68. 제자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본보기로 보여주며,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 아버지께 닿는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기도에는 순종과 겸손, 죄의 고백, 감사와 믿음, 소망, 그리고 경배가 담겨 있어야 한다. (162, 23-24)

매일 드리는 기도

69. 사랑하는 제자들아: 매일 영적 기도를 실천하고, 너희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온전한 의지를 그 안에 쏟아 부어라.

70. 명심하라: 너희가 스승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 순간에 무한한 평화를 체험하는 것 외에도, 이는 너희가 나의 신성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 안에서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파악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너희는 어떤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불분명한 점을 해소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축복받은 영적 대화의 시간 속에서 너희의 모든 감각이 밝아질 것이며, 너희는

선을 행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질 것이다. (308, 1)

71. 기도가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짧더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양심의 빛으로 그 기도를 면밀히 성찰하여, 자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72. 기도 중에 고양되어 시간의 개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영성화의 징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몇 순간일지라도, 너희는 시간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물질주의의 노예들이 오직 자신의 쾌락이나 돈을 늘리기 위해서만 갈망하는 바로 그 시간이다.

73.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 방식과 삶, 말투, 감정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12, 30-32)

74. 나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고 너희에게 가르쳤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기도를 길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5분간의 기도를 요구했는데, 이는 너희가 그 순간에 진정으로 너희 아버지께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이웃에 대한 영적, 물질적 의무에 바쳐야 한다. (78, 52)

75. 이제 나는 너희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고귀한 감정에서 비롯되도록,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이 너희를 막거나 물러서게 하지 않도록 준비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새날의 빛을 맞이하여 눈을 뜰 때, 기도하고, 생각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내 빛의 영감을 받아 하루 일과를 세운 다음, 이제 삶의 투쟁을 향해 나아가라. 그 과정에서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단 한 순간도 순종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7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머지않아 너희의 굳건함과 너희 행위의 결과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262, 7-8)

자성(自省)의 날로서의 안식일

77. 이미 "초기"에 나는 너희에게 일곱째 날을 나에게 바치라고 가르쳤다. 사람이 6일 동안 세속적인 의무를 다하는 데 전념했으니, 적어도 하루는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첫날을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그리하여 그가 그날에 자신의 수고로부터 쉬고 영적인 묵상에 전념하며,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78. 안식의 날이 제정된 것은, 사람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땅의 고된 삶의 투쟁을 잊고, 양심이 그에게 말하여 율법을 상기시키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속으로 회개의 고귀한 결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79. 안식일은 예전에는 휴식과 기도, 그리고 율법 공부에 전념하던 날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전통을 따르는 데만 급급하여 이웃에 대한 형제애와 이웃에게 지고 있는 영적 의무를 잊어버렸다.

80. 세월이 흐르고 인류는 영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도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81. 예수께서는 이를 통해, 비록 성찰과 육체적 휴식을 위한 날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어느 날이나 어느 시간도 미리 정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82. 스승께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날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여전히 안식의 날로 지키는 반면, 다른 이들은 주일을 선택하여 예배를 드렸다.

83.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며,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너희는 많은 경험을 겪으며 성장해 왔다( ). 오늘날 너희가 세상의 고단함에서 쉬기 위해 어느 날을 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을 매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기도를 위한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루 중 어느 때나 기도하기에 적합하며, 너희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166, 31-35)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84. 너희 모두는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다. 누가 나처럼 너희의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통을 알고, 너희의 슬픔과 낙담을 안다. 너희 세상에 만연한 그토록 큰 불의와 배은망덕함 앞에서 말이다. 나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며 고생해 온 자들의 지침을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생에서 홀로 남겨진 이들의 공허함을 알고 있다. 너희 모두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나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동반자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치유가든, 사명이든, 빛이든,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262, 72)

85. 비참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며, 그 속에서 너희는 기도하고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 풍요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때 너희는 나에게 감사할 말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86. 오, 축복받은 병자들아, 병이 너희를 짓누를 때 절망하지 말라. 너희의 영혼은 병들지 않았느니라. 기도로 내게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과 영성화가 너희에게 육체의 건강을 되찾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방식대로, 즉 영적으로 기도하라. (81, 43-44)

87. 시련의 순간에 짧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를 드리면, 너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주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내 뜻이 너희의 뜻이고, 너희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5, 7)

88.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의 기도는 너희의 일상적인 계획과 행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너희의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청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싶다면, 그저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이해하고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이 단순한 문장, 이 생각은 너희가 다른 때에 나에게 청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더욱 단순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89. 이것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구하며 너희를 위해 가장 잘 말해 줄 기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입술이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그것을 느껴야 한다.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느낀다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분의 언어를 이해한다. 이것을 아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가 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47, 52-54)

90. 나는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쳤으나, 너희가 자신을 위해 간구할 때도 나는 너희의 말을 듣는다. 나는 그 기도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너희의 간구에 따라 주었던 그 시절은 지났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내 뜻은 너희가 제자처럼 행동하며 기도할 때 너희의 영과 마음을 내게 바치되, 내가 그 안에서 읽고 내 뜻을 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296, 69)

91. 너희가 나에게 묻거나 청할 때, 너희의 문제를 나에게 명확히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가장 잘 다듬어진 문장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말라. 그 순간 너희의 영혼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마음과 뜻이 깨끗하여 내 영감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충분하다. 너희 내면에서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없다면, 내게 훌륭한 말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너희가 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286, 9-10)

92.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많은 만족을 주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기도는 너희가 삶의 투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그분 안에서 빛과 힘을 구할 때, 너희의 아버지께 청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93. 기도할 때, 너희의 이성에는 곧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니, 이는 선과 악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게 해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면의 준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94. 인내로 너희의 고난을 견뎌라. 만일 너희가 시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의미를 너희에게 밝혀 주어,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리라. (333, 61, 62, 75)

95. 너희의 입술이나 생각이 나에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고통을 동정하소서 — 주님, 저에게 용서를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의 무지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96. 내게 너희의 고통에 동정심을 가져 달라고 말하다니? 내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청하다니?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간청하다니 — 사랑과 은총, 자비와 용서, 그리고 연민 그 자체이신 나에게?

97. 지상에서 마음이 굳은 자들을 감동시키려 하고, 이웃에 대한 연민의 흔적조차 없는 자들에게 눈물과 간절한 간청으로 동정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너희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런 말이나 생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6, 41-43)

98. 지상의 인간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만족하라. 너희 영혼과 육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내게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너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분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337, 21)

중보의 축복

99. 말로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로 축복하고, 너희 이웃에게 빛의 생각을 보내라. 너희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기억하라: 내 일에 관여하는 자는 언제나 나를 자신의 수호자로 두게 될 것이다.

100. 너희가 사랑으로 뿌린 씨앗은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21, 3-4)

101.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니. 또한 너희에게 선을 베푼 자나,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라. 비록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나, 어떤 식으로든 너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35, 8)

102.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모든 것과 모든 이를 마음과 영으로 축복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축복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온기를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를 닮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축복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평화와 힘, 그리고

마음의 온기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보내는 이에게 닿을 것이다.

103. 만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서로를 축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온 땅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 것이며, 전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04. 이 기적이 현실이 되려면, 너희는 덕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고양시켜야 한다. 너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142, 31)

105.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 이웃의 복을 위해 바라는 모든 것 — 그것을 내게 구하라. 구하라, 너희의 기도를 고통받는 이의 기도와 합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리라. (137, 54)

기도의 필요성

106. "깨어 기도하라"고 나는 너희에게 거듭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자비로운 충고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기를 원한다.

107.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필요하고 물질적이며 때로는 무의미한 생각에 빠져, 그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형제 살해의 전쟁을 조장하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생각은 마치 빛의 칼처럼 오늘날 많은 존재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장막과 유혹의 올가미를 찢어 버린다. 그것은 너희의 주위를 영적인 힘으로 채우고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작용한다. (9, 25-26)

108.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에 너무 몰두해 있어, 기도와 이 생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영적 성찰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에,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묻는다면 즉시 응답을 받는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는 기도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06, 33)

109. 너희는 너희 영혼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올바르게 주고, 세상에 마땅히 돌아갈 것을 돌려줄 줄 아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참된 기도의 시대, 광신에서 벗어난 하나님 숭배의 시대가 될 것이며, 너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110.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기보다 먼저 기도로 아버지께 여쭈어본다면, 어떻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며,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동시에 자신이 겪는 시련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한다. (174, 2 3)

기도 생활의 유익한 효과

111.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말해 왔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들은 내가 제시한 빛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통해 병자들은 건강해지고, 불신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평화가 영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112. 사람이 내 은총을 거절하고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이 인간 삶의 속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69, 7-8)

113.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은 생명도 힘도 없다는 것을 알라. 너희는 어떻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그 감정이 싹트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묻는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스승께 더 가까이 이끌 것이며, 그 스승은 바로 나다.

114. 기도 속에서 너희는 위안과 영감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증인이나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귀한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너희의 영은 이 달콤한 친밀의 순간, 영적인 대화와 축복 속에서 하나가 된다. (166, 43-44)

115. 친한 친구나 자비로운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고통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최선의 길, 곧 너희가 찾는 해결책을 조언해 주리라.

116. 너희 영혼이 짐에 눌려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판단을 내리며, 너희의 개선 의지를 북돋우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주리라.

117. 오직 내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너희를 은총 안에 머물게 하고, 너희의 영적·육체적 건강을 지켜 줄 것이다. 너희가 얻는 경험은 너희 영혼 속에 차츰차츰 쌓아가는 빛이 될 것이다. (262, 20-21)

118.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영혼은 주님께서 그에게 정해 놓으신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유산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

119. 이 존재는 깨어 살아가고 결코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전진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삶의 위기에서 승리하여, 확고한 발걸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120.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을 잊은 자의 태도는 얼마나 다른가! 그는 내가 인간 안에 심어 놓은 최고의 무기, 즉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지식의 빛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는 직관과 양심, 그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이성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 (278, 2-3)

121. 기도는 너희의 질문과 근심, 그리고 빛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영에게 계시된 수단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너희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어떤 신비를 가리고 있는 장막을 찢어낼 수 있다.

122. 기도는 영과 영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며, 이 대화는 다가올 시대에 꽃을 피우고 이 인류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다.

123. 오늘 나는 내 말을 듣는 이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하였으니, 그들이 영성화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276, 18-19)

기도의 힘

124. 너희 중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영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위해 — 전쟁 속에서 서로를 파괴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위해 — 기도할 때, 그 순간 너희의 영은 그 나름대로 악에 맞서 정신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평화와 이성, 정의, 그리고 선을 향한 열망인 너희의 칼이, 증오와 복수, 오만의 무기와 맞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125. 이제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될 때가 왔다. 기도가 진정으로 힘과 빛을 가지려면, 너희가 사랑을 담아 나를 향해 기도를 올려야 한다. (139, 7-8)

126. 사고력과 영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람 안에 모든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생겨난다.

127. 기도를 통해 약한 자는 강해지고, 겁 많은 자는 용기를 얻으며, 무지한 자는 깨달음을 얻고, 소심한 자는 당당해진다.

128. 영이 참된 기도에 이르기 위해 이성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본성에 관한 것들로부터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육체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고 악과 위험을 물리치고, 궁핍한 이들에게 빛의 불꽃 한 줄기, 향유 한 방울, 혹은 평화의 숨결을 전하는 데 전념하게 된다.

129.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 인류를 휩쓴 혼돈 속에서 너희가 영과 이성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깨달아라. 너희는 상반된 사상과 생각이 공존하는 세상에 있다. 그곳에서는 정욕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증오의

감정이 충돌하며, 사고는 물질주의에 의해 혼란에 빠지고 영혼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130. 기도를 통해 생각과 영적으로 빛의 영역, 평화의 경지로 올라가는 법을 배운 자만이, 모든 인간의 정욕이 반영된 투쟁의 세계에 들어가도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영의 빛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288, 18-22)

131.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기도를 통해 너희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방패이자 무기이다. 너희에게 적이 있다면 기도로 방어하라. 그러나 이 무기는 누구도 상처 입히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라. 왜냐하면 그 유일한 임무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80, 56)

132. 자연의 힘들이 인간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악을 물리치고 이웃을 보호할 권한을 주었음을 너희는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파괴의 요소들 에게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순종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 있다면,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33. 진심으로 기도하고, 내 영과 교감하라. 이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지 말라. 나무 아래에서, 길을 가다가, 산 정상에서, 혹은 잠자리의 구석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려와 너희와 대화하고, 너희를 깨우치며,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250, 24-25)

13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미 영과 생각과 의지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너희의 기도만으로도 서로를 덮치려 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나라들을 막기에 충분할 것이다. 너희는 적대감을 없애고, 동료 인간들의 온갖 악한 계획에 걸림돌이 되며, 권력자들을 물리치는 보이지 않는 칼과 같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와 같을 것이다.

135. 인류는 이 명백한 초월적 힘의 증거를 마주하고 잠시 멈춰 성찰할 것이며, 그 성찰은 자연과 그 요소들로부터 받게 될 수많은 심각한 타격과 재앙을 피하게 해 줄 것이다. (288, 27)

136. 만일 너희가 기도의 힘에 대해 큰 믿음과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사고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비의 행위를 행하게 될까. 그러나 너희는 기도에 그것이 지닌 모든 힘을 부여하지 않았기에, 진정으로 느끼고 드리는 기도가 단 한 순간에 무엇을 막아내는지 종종 깨닫지 못한다.

137. 너희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더 높은 존재가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기적에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전쟁의 소동을 저지하기 위해 정신으로 맞서는 수백만 남녀와 아이들의 기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나 이 활동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쏟아부으십시오.

138. 기도하라, 백성들아. 그리고 전쟁과 고통, 비참함 위에 너희 생각의 평화의 망토를 펼쳐라. 그 망토로 너희는 방패를 만들 것이며, 그 보호 아래 너희 동료 인간들은 깨달음과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323, 24-26)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139. 오, 나의 새로운 제자들아, 너희의 경배와 주님께 드리는 헌사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그것을 드리기 위해 특정한 시간이나 날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알라. 그러나 너희가 광신에 빠지지 않으면서 매일 나의 사랑의 업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의 삶 자체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드리는 끊임없는 경배가 되어야 한다.

140.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겸손히 청하는 바, 곧 너희의 잘못이 용서받게 해 달라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이 너희를 책망할 때, 기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다해 무장하라. 그래야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 말씀은 너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빛과 영성화(靈性化)에 이르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이다. (49, 32-33)

141. "내가 목마르다"라고 나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죽음의 고통을 즐기고 있던 그 군중에게 말하였다. 오늘날 내 고통을 알지 못한 채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단지 군중만이 아니라 온 세상임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142. 나의 갈증은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이 크며, 오직 너희의 사랑만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왜 너희는 사랑 대신 겉치레의 숭배를 나에게 바치는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청할 때, 너희는 나에게 쓸개와 식초를 건네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94, 74-75)

14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많이 고통받고 나를 자주 상처 입힌 자들이 나를 가장 뜨겁게 사랑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신성을 위한 제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선물도, 시편도, 세상의 제단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행하는 사랑의 행위가 나에게 가장 기쁜 제물이자 경배임을 알고 있다. (82, 5)

144. 날마다 너희의 영적 기도가 내게 닿는데, 그 언어는 너희의 세속적 본성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입술로 발한 말도 아니고, 너희 지성으로 형성된 개념도 아니기 때문이다. 영의 기도는 너무나 깊어서 인간의 능력과 감각을 초월한다.

145. 그 기도를 통해 영은 높은 영들이 거하는 빛과 평화의 영역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 본질을 마음껏 누린 뒤, 다시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돌아와

그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256, 63-64)

146. 백성아, 너희가 기도하는 법을 깨달아야 할 때가 너희에게 이르렀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땅에 엎드려라 하지 않으며, 입술로 기도하거나 아름다운 기도로 고른 말들로 나를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나에게로 향하고, 너희 영혼을 들어 올리거라. 그러면 내가 언제나 내려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의 회개와 생각, 그리고 고통이 내게 충분할 것이며, 너희의 사랑이 내게 충분하리라.

147. 이것이 바로 내가 듣고 이해하는 언어, 즉 말 없는 진실과 성실의 언어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이다.

148.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너희는 나의 평화와 안식, 그리고 희망을 느꼈으니, 그때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358, 53-55)

149. 나는 인간의 허영과 허세인 모든 것을 경멸한다. 왜냐하면 내 영에게 이르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 고귀하고 너그러운 것, 순수하고 영원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무한한 것, 순수한 것 안에서 나를 찾으라. 거기서 너희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150. 내가 너희를 위해 창조한 것을 왜 나에게 바치는가? 꽃이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꽃을 선물하는가? 반면, 너희가 나에게 사랑과 자비, 용서와 정의, 이웃을 돕는 행실을 바친다면, 그 헌사는 분명 영적인 것이 되어, 마치 자녀들이 땅에서 주님께 보내는 애무와 입맞춤처럼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36, 26, 29)

151. 또한 너희가 신에 대한 숭배를 물질적인 모임 장소에만 국한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의 영을 가두게 되고, 영이 영원을 얻기 위해 날개를 펼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52. 내가 너희에게 맡겨, 내가 기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제단은, 어떤 제한도 없는 삶 그 자체이며, 모든 종교와 모든 교회, 모든 종파를 초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신성한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 27-28)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153. 오늘 나는 너희에게 한 가르침을 전하러 왔다. 이 가르침은 일단 이해만 된다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해 보일지 모른다. 나는 너희의 삶과 행실,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입으로 말하지도 않고, 영감을 얻기 위해 의식적인 행위나 형상이 필요하지도 않은 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72, 21)

154. 사람들이 나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하느님을 알아보고자 할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눈꺼풀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로 결심했다.

155. 그들은 기계적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한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낙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외친다.

156.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마음과 이성을 영혼과 하나로 합쳤다면, 그들은 영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음성 을 듣고 그분의 임재가 그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외형적인 의식을 통해 나를 간구한다면, 어떻게 내 임재를 느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만든 형상들을 통해 주님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영혼이 감수성을 갖게 될 수 있겠는가?

157.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나와 쉽게 연결되고, 나를 느끼며, 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162, 17-20)

158. 영이 자신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고요함을 실천하라. 이 고요함은 지식의 샘과 같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는 내 지혜의 명료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고요함은 파괴될 수 없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과 같으며, 오직 영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지니고 있다.

159. 너희가 있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산 정상에 있든 계곡 깊은 곳에 있든, 도시의 소란 속에 있든 집의 평화 속에 있든, 또는 싸움 한가운데 있든, 어디서나 너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성소 깊은 곳, 고양된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으면, 우주적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의 문이 즉시 열려, 너희가 모든 영혼 안에 존재하는 너희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으로 머무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160. 시련의 고통이 너희를 짓누르고 삶의 고난이 너희의 감정을 무너뜨릴 때, 조금이라도 평화를 얻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느낄 때, 너희는 침실로 물러나거나 들판의 고요함과 고독을 찾아라.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 영혼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깊이 잠겨라. 고요함은 영의 왕국이며,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다.

161. 영적 황홀경에 들어서는 순간, 더 높은 감각이 깨어나고, 직관이 자리 잡으며, 영감이 빛나고, 미래를 예감하게 되며, 영적 삶은 먼 곳을 선명히 인식하고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한다.

162. 너희가 이 성소, 이 보물창고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너희 스스로 길을 닦아야 한다. 참된 순결을 지녔을 때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2, 36-40)

163. 인류를 훈계하기 위해 나의 예언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야망과 폭력에 눈이 멀어 서로를 파멸시키는 민족들이 있는 반면, 나의 빛을 받고 인류를 공평하게 판단하는 이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64. 만일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안다면,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임재의 빛 을 가리는 베일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덮고 있다. 나는 사람들의 육신이 쉬고 있는 순간에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을 부르며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 깊은 밤 도둑처럼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 안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67, 29)

165. 기도하면서 동시에 명상하는 법을 배워, 너희 각자에게 깨달음과 이해가 빛나도록 하라. (333, 7)

166. 영성은 자유이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듣고 이 해방적인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한 이들은, 자신들 앞에 넓은 계곡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때가 왔음을 증언하며 싸울 것이다. (239, 8)

167.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이었으나, 인간은 그것을 낮은 수준의 영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식과 형식으로 둘러쌌다.

168. 너희는 영의 시대, 즉 위대한 계시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 시대에는 모든 종교 의식에서 물질화, 기만,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을 통해 온전히 영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길을 통해 그는 완전한 교감의 형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195, 77-78)

169. 사람들이 일단 내 영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더 이상 책을 찾아보거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70.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는 이들에게 묻거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경전과 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118, 37)

171. 너희가 매일 짧은 시간 동안 명상하는 법을 배우고, 그 명상이 영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라면, 너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무수한 설명들을 발견하고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172. 너희 영혼은 이미 나를 묻고 나의 응답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빛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영혼은 이미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했다.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관찰력으로 놀라움을 주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은 명료하게 설명해 내는, 소박한 처지의 동료들을 살펴보라. 그들이 이를 책이나 학교에서 얻은 것일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관이나 필요성에서 영적 기도의 일부인 명상의 은사를 발견했다. 외딴 곳에서, 온갖 영향과 편견으로부터 격리된 채, 그들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참된 것과 연결되는 길을 발견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어떤 이는 덜 받았을지라도, 삶의 진정한 본질을 묵상한 모든 이들은 그들의 지성 속에서 영적인 빛을 받았다. (340, 43-44)

173. 너희는 나에게 기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고,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너희의 영이 아버지께 자유롭게 솟아오르게 하는 것,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행위에 자신을 맡기는 것, 마음과 이성으로 영을 통해 받아들여진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 참된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자는 삶의 매 순간 내 현존을 누리며 결코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286, 11)

174. 이 시대에 나는 그 존재의 가장 순수한 부분인 영 안에서 나의 법을 기록하고,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에 있지 않은 것, 그의 영혼에 있지 않은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175. 내 영광을 위해 거대한 물질적인 교회를 세우든, 화려함으로 가득 찬 축제와 의식을 내게 바치든, 그 제물은 영적이지 않으므로 내게 닿지 않을 것이다. 모든 외적인 숭배는

언제나 허영과 과시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세상이 보지 못하고 너희가 영에서 영으로 내게 바치는 은밀한 제물은, 그 겸손함과 진실함, 성실함, 한마디로 말해 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내게 닿는다.

176.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주었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로 알려진 그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이 모든 시대에 걸쳐 변함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80, 68)

177. 어떤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바로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의 십자가를 내게 맡기고, 너희의 슬픔을 내게 맡기고, 너희의 무너진 희망을 내게 맡기고, 너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나는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의 짐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라. 내 사랑의 성소에 들어와 우주의 제단 앞에서 고요히 머물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 곧 사랑의 언어로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라. (228, 73)

제18장 - 자비의 행실과 사랑의 핵심적 중요성

선행이 가져다주는 소급적 축복

1. 온갖 종류의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 궁핍함을 지켜보라. 그리고 사방에 널려 있는 고통을 목격할 때, 너희 마음이 점점 더 자비로워지도록 하라.

2.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너그럽고 고귀한 충동을 느낀다면, 그 충동이 마음속을 지배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라.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준비된 상태로 발견했기에 전하는 메시지이다. (334, 3-4)

3.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노력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유의하고, 자선을 베푼 것을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미덕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동시에 모든 고귀한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지혜와 힘, 그리고 고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웃에 대한 자비를 통해 너희는 영혼을 정화하고, 이 방식으로 과거의 빚을 갚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인간적인 삶을 고귀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고양시킬 것이다.

5. 그러면 언젠가 너희 모두가 두드리게 될 그 문에 다다랐을 때, 너희의 행복은 매우 클 것이니, 이는 영적 세계가 너희에게 보내는 환영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너희를 축복하고, 갱신과 영성화의 사명으로 부를 것이다. (308, 55-56)

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유나 건강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나의 일꾼들은 복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다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생에서든 다른 생에서든 — 그리고 너희는 그때 그들이 감옥이나 병원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이들보다 더 많은 건강과 더 큰 자유, 더 많은 빛을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에게 손을 내밀며 보답할 것이다.

7. 너희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순간 — 너희의 손이 그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그들로 하여금 나를 생각하고 느끼게 했던 그 순간은, 그들의 영혼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너희의 얼굴과 형제 같은 목소리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도 않을 것이니, 그 때문에 그들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나 너희를 알아볼 것이다. (149, 54-55)

8. 바람의 숨결과 태양이 너희를 어루만지듯, 내 백성아, 너희도 이웃을 어루만져야 한다. 지금은 궁핍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때이다. 너희에게 호의를 청하는 이는, 너희가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는 것임을 깨달아라. 그분은 너희에게 자비로워질 기회를 주시며, 이를 통해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신다. 사람은 세상에 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청하는 이는 사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깨달아라. (27, 62)

진정한 자선과 거짓 자선

9. 오 제자들아, 너희의 가장 높은 사명은 사랑의 실천이 될 것이다! 너희는 종종 자랑하지 않고 은밀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여 이를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의 실천이 동료 인간들에게 보여져야 할 기회들도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10. 보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나는 자녀들의 행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의로 보상해 주시는 아버지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참된 사랑으로 물 한 잔을 베풀면,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12. 내게로 올 때 "주님, 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 지식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하며, 이미 제 영혼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내게 말하는 이들은 복이 있도다. (4, 78-81)

13. 오직 너희 영혼의 구원과 보상에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소망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섰을 때, 실은 너희가 아무런 상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 실망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주겠다. 이웃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남녀들이 항상 존재해 왔으나,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영적 행복을 위한 공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답은 간단하다, 제자들아: 그들의 행위가 진실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아무런 선한 결실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언가를 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고통받는 이에게 대한 진정한 자비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자신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보상을 생각하며 행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기심에 이끌렸고, 다른 이들은 허영심에 이끌렸는데, 이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도, 이타적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 안에 진실함과 사랑이 없는 자는 진리를 심지 못하며, 또한 상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15. 겉으로 드러나는 자선 행위는 이 땅에서 너희에게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불러일으키는 경탄과 너희가 받는 아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내 왕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진실한 것만이 그곳에 이른다. 그곳에서는 너희 모두가 가장 작은 오점이나 부정직함도 숨길 수 없이 모두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전에, 너희는 화려한 망토와 왕관, 휘장, 칭호,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 앞에 단순한 영혼으로서 나타나, 전능하신 창조주( )께 맡겨진 임무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75, 22-24)

16. 사랑으로 이웃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삶이 제공하는 다양한 길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선에 헌신한다. 그는 자신이 신의 뜻에 따라 매우 높은 목적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인간 존재임을 안다. 오 제자들아, 내가 너희가 지식을 얻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여 상향 발전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들의 오류에서 해방시키게 하라.

17. 참된 사랑, 즉 인간의 마음속 감정을 초월하는 사랑은 지혜의

열매이다. 보라,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의 상상 속에 지혜를 심으니, 그 후 나는 너희 사랑의 열매를 기대한다.

18. 선을 행하는 방법도, 위로하고 섬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뿐인 사랑, 즉 영의 지혜인 사랑의 표현이다.

19. 어떤 이들은 과학의 길을 걷고, 어떤 이들은 영의 길을 걷고, 또 어떤 이들은 감정에 이끌릴지라도, 이 모든 것의 총합은 영적 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282, 23-26)

영적 및 물질적 사랑의 실천

20. 너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그 이유로 이웃을 도울 수 없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비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리라.

21. 연민을 낳는 참된 이웃 사랑은, 너희가 궁핍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돈 한 닢, 빵 한 조각, 물 한 잔을 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아무것도 준 것이 아니니, 차라리 너희가 주는 것을 내어주지 않는 편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22. 오 인류여, 언제쯤 사랑의 힘을 알게 되겠느냐? 오늘까지 너희는 생명의 근원인 그 힘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306, 32-33)

23. 너희를 둘러싼 모든 이에게서 적을 보지 말고 형제를 보라. 누구에게도 벌을 요구하지 말라. 너그러워하여 용서의 본보기가 되고, 너희 영혼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게 하라. 입을 다물고 너희의 일을 내게 맡겨라.

24. 병든 자들을 고치고, 혼란에 빠진 자들에게 이성을 되찾아 주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악령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잃어버린 빛을 다시 되찾게 하라. (33, 58-59)

25. 제자들아,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친 그 원칙,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 삶의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26. 어떤 이들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육체 노동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하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7. 나는 나의 어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겉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육체노동 속에서도, 너희가 이웃을 섬기겠다는 소망으로 일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28.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자신의 작은 노력을 다른 이들의 노력과 합친다면, 너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는 더 이상 비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각자가 자기만을 위해 일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다.

29. 너희 모두는 아무도 스스로로만 충분할 수 없으며 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보편적인 사명에 깊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의무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영감, 이상, 한마디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 열매는 결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334, 35-37)

30. 사랑의 법칙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한 것과 같은 완전한 행실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너희 삶 속에서 그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를 본받으려는 작은 선의와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만 보여도,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서서 너희의 길에 나의 은총과 능력을 드러내리라.

31. 너희는 결코 싸움에서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죄의 짐에 짓눌려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 이 사랑의 사명이라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길을 갈 때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믿느냐? (103, 28-29)

사랑의 포괄적인 의미

32. 모든 시대에 걸쳐 내 가르침은 너희의 가장 깊은 본질이 사랑임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

33.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다. 모든 존재는 이 힘에서 생명을 얻으며, 이로부터 생명과 온 창조물이 솟아났다. 사랑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운명에서 기원이자 목적이다.

34. 모든 것을 움직이고, 비추며, 생기를 불어넣는 그 힘 앞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죄는 증발하며, 정욕은 사라지고, 불순물은 씻겨 나가며, 불완전한 모든 것이 완성된다. (295, 32)

35. 나는 너희에게 나의 존재와 너희 존재의 이유를 밝혀 주었다. 나는 생명을 주고 만물을 활기차게 하는 불이 바로 사랑임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었다. 사랑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36. 보라. 너희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존재하며, 사랑으로 용서를 얻고, 사랑으로 인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135, 19-20)

37. 사랑은 너희 존재의 근원이자 이유이니라, 오 인간들아. 이 은총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나를 믿으라. 자기 안에 죽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많고, 단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들도 있다. 많은 이를 구원해 온 치유의 연고는 바로 사랑이었으며, 참된 생명으로 일으키고, 구원하며, 고양시키는 신성한 은사 또한 사랑이다. (166, 41)

38.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품고 있다. 바로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슬픔이다.

39.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이며, 신성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40.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들의 원한과 편견에서 벗어나, 내게로 와서 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내 무한한 다정함이 담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 안에 내 힘과 지혜와 진리가 있다. 사랑은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긴 사다리와 같아서, 낮은 곳에 있는 인간들로부터 완전함에 이른 가장 높은 영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42. 너희 나름의 방식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만, 사랑으로 용서하면 모든 원한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224, 34-36)

4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장 높은 형태로 그리고 절대적인 진실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할 것이며, 소유한 것도 매우 적을 것이다. 반면 온 영혼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안에 지혜의 빛을 품게 될 것이며, 실제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의 주인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소유한 것은 자녀들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68, 11)

44. 사랑은 너희에게 지혜를 주어, 다른 이들이 과학의 험난한 길에서 헛되이 찾는 진리를 이해하게 할 것이다.

45.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스승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라. 그분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본보기를 따라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신성한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될 것이다.

46. 너희가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온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21, 10-12)

47. 사랑하는 자는 이해하고, 배우는 자는 의지를 가지며, 의지를 가진 자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 고양도 지혜도 얻지 못할 것이며, 위대한 업적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24, 41)

48.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은 만물을 낳고

만물을 새롭게 살리는 그분의 영원한 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49. 영은 몸을 통해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이용한다. 너희가 오직 물질의 법칙에 따라 사랑한다면, 너희의 사랑은 유한하므로 덧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감정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변함없는 아버지의 감정과 같을 것이다.

50.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은 영과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영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에 있어 한계를 모르는,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신 '존재'의 그 신성한 불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80, 24-26)

51. 산 정상으로 이끄는 길을 따라 올라가라.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신성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완전해질 것이다.

52. 영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들의 보편적인 언어이다. 인간의 사랑도 말을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종종 그것은 말이 필요 없으며, 행동과 생각을 통해 더 잘 말한다. 인간의 사랑이 이미 그렇게 표현된다면, 너희가 나의 법 안에서 완성될 때 그 언어는 얼마나 더 위대하겠느냐? (316, 59-60)

53. 내가 지혜 그 자체임을 생각해보라. 그 지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나를 심판자로 인식한다면, 그 심판은 사랑에 기초한다. 나를 전능한 분으로 여긴다면, 나의 권능은 사랑에 달려 있다. 너희가 내가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면 — 나의 영원함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며, 생명은 영혼을 불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54. 사랑은 빛이며, 생명이며, 지식이다. 그리고 이 씨앗을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주었다. — 내가 완전한 농부로서 너희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린 유일한 씨앗이다. (222. 23)

사랑의 위대한 힘

55. 오,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식 속에서 너희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잊어버렸다. 너희는 모든 것에 영감을 주는 사랑,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는 고통과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에, 너희는 육체적 또는 영적 고통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56. 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 깊이 선하고 온유해야 한다. 이는 모든 영혼이 창조된 순간부터 지니고 있는 미덕이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 )의 참되고 고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려면, 선한 감정을 가꾸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원했지만, 오직 영적인 사랑만은 원하지 않았다. (16, 31-32)

57. 너희는 언제나 사랑의 힘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 법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행실의 더 큰 순결을 지닌, 너희보다 더 앞서 나간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방황과 죄악의 삶을 선과 희생, 그리고 실천적인 이웃 사랑에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너희에게 힘과 사랑,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58.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과 이웃 사랑이 부족할 때 초래되는 고통에 대한 분명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 바위보다도 무감각하여 — 일상생활이 주는 가르침과 본보기를 통해 배우지 못했다.

59. 사랑의 부름에 심지어 포식자들조차도 온화하게 반응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자연의 요소들과 힘들, 즉 물질적·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6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우주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축복해야 한다.

61. 축복한다는 것은 채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축복이란 선함을 느끼고, 그것을 말하며, 전하는 것이다. 축복이란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사랑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14, 56-60)

6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은 우주를 움직이는 변함없는 힘이다.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자 의미이다.

63. 이제 나는 모든 이를 위한 영적 부활의 시대를 열겠다 — 내가 십자가의 높이에서 세상에 쏟아 부어, 너희에게 사람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죽음'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명이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에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축복받은 사랑의 씨앗을 꽃피울 시기를 말이다. (282, 13-14)

V. 하나님의 계시 형태와 역사

제19장 –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일체성

1. 내 말씀의 빛이 이 제3의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내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 신앙 고백과 예배 형식의 차이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2. 오늘날 어떤 이들은 여호와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나의 삼위일체 때문에 다투고 분열한다.

3. 이제 나는 이 인류와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묻노라. 너희는 모두 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서로 거리를 두느냐?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면 —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너희가
성령으로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빛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4. 너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의 아버지만이
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세
신성한 인격체는 없으며, 오직 한
분의 신성한 영만이 세 가지 다른
발전 단계를 거쳐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이다. 이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던 인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한
분의 신성한 영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세 인격체를 보았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심판자로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스승이자 사랑으로 인식하라.
그리고 성령의 근원을 헤아려
보려 할 때는, 그분이 더 진보한
제자들에게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드러내실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알라.

5. 만일 내가 "초기 시대"의
인류를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발달된 상태로 만났더라면, 나는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 그들에게 나를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직 한 분뿐인 곳에서
세 신성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었으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상대로
접근하기 쉽고 작은 신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나의 길에서
멀어졌을 것이다.

6.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즉시, 그들은 약간의
사랑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오해 때문에 서로를 오해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7.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라면,
내가 사랑인 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호와와 별개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8. 성령이 지혜라면, 내가 지혜인
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 일부만 알더라도,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존재하셨고 영원히 오직 한 분뿐이실 것임을 깨닫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가 다른 때에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고하셨을 때, 그는 단순히 "내가 다시 오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곧 위로자의 영,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0. 그리스도께서 왜 성령과 분리되어 오셔야 하겠는가? 그분께서 자신의 영 안에서 진리와 빛과 위로를 가져오실 수 없으셨단 말인가? (1, 66-70, 73-76)

11.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그러나 나를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보지 말라. 나는 곧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12. 아들과 성령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성령과 아들은 한 분의 영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13.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나의 계시 속에서, 다양하고 각기 다른 교훈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보라. 그것은 많은 페이지가 있는 단 한 권의 책과 같다. (256, 4)

하나님의 세 가지 계시 방식

14. 이제 너희는 아버지께서 단계적으로 계시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삼위일체 개념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15. 더 이상 너희의 상상 속에서 나에게 육체적인 형상을 부여하려 하지 마라. 내 영 안에는 형상이 존재하지 않으니, 지성이나 사랑, 지혜가 형상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16.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를 노인의 모습으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노인이

아니다. 나는 시간 밖에 있으며, 내 영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이다.

17. 너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희 마음속에는 곧바로 예수의 육체적 형상이 떠오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신으로 태어난 신성한 사랑이시며, 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의 껍질을 벗으셨을 때, 그분이 나오신 내 영과 합쳐지셨다.

18.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대해 말할 때, 너희는 비둘기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그분을 어떤 형태로든 상상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상징의 시대는 지났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그분을 영감으로, 너희 영 안의 빛으로, 불확실성과 비밀과 어둠을 해소하는 명료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9, 42, 44-47)

19.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알게 된 이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통해 나를 아는 이들보다 진리에 더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싹트자 자비로운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찾게 되었다. (112, 3)

20. 나는 시대들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신성한 영은 발전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 너희와는 달리, 너희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발전의 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게다가 너희 존재 위에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다.

21. 그러니 아버지는 한 시대에, 그리스도는 다른 시대에, 성령은 또 다른 시대에 속한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원하시며 어떤 시대에도 속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시대가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떠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며, 성령 또한 너희 아버지 그 자신이시니, 그분은 너희 가운데서 그분의 가장 높은 계시 형태를 준비하시는데, 즉

어떤 세속적인 중재자의 도움도 없이 그러하신다. (66, 43)

22. 내가 너희에게 설명했듯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유일무이한 피조되지 않은 분, 곧 우주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은 그리스도, 즉 아버지가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의 계시이며, 너희가 "성령"이라 부르는 것은, 너희의 영이 나의 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너희에게 보내시는 지혜임을.

23. 그 성령의 빛,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곧 너희가 도래하는 것을 목격하는 이 제3의 시대에 통치하게 될 것이며, 영성을 필요로 하고 진리를 갈망하며 사랑을 굶주리는 인류의 사고를 비추게 될 것이다.

24. 또한, 백성아, 비록 세 가지 다른 측면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오직 한 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또한 진실이다. 그 첫 번째 시대의 아버지의 행적 속에서 사랑을 찾으면, 너희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며, 지혜의 빛을 찾으면, 너희는 또한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마치 너희가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 속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과 지혜를 만나게 될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 속에서 힘과 법과 권능뿐만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치유의 연고까지 발견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하겠느냐? (293, 20-21, 259 25-26)

25. 법, 사랑, 지혜 — 이것이 바로 내가 인간에게 나타난 세 가지 계시 형태로, 이는 인간이 자신의 발전 과정에서 창조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완전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 계시 단계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체는 절대적인 완전함이다. (165, 56)

26. 나 안에는 심판자, 아버지, 스승이 있다 — 단일한 존재 안에 있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계시 단계, 세 개의 힘의 중심, 그리고 단일한 존재의 본질: 사랑. (109, 40)

27. 나는 모든 시대에 너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온 여호와이다. 나는 모든 시대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신 나의 "말씀"이다. 그는 너희에게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또한 나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의 성령, 오직 하나의 "말씀"만이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28. 들으라, 나의 제자들아: "첫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고, 두 번째 시대에는 너희가 그 계명들을 해석해야 할 사랑을 가르쳤으며, 이제 이 세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빛을 보내어, 너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의 진의를 깨닫게 하노라.

29.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나의 것이신 한 분의 신성한 영만이 존재하시는 곳에 굳이 세 분의 신성을 발견하려 하는가?

30. 나는 첫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모세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명이 이미 끝나갈 무렵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나온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그분은 또한 너희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 그분은 내 뜻과 너희의 성장에 따라 내 계시의 신비를 밝혀 줄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31. 그러나 누가 내 비밀에 빛을 비추고 이 신비들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나 외에 누가 내 지혜의 책에 찍힌 인장을 풀 수 있겠느냐?

3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현재 여호와와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성령은,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보고 느끼게 하려고 내가 너희 영에게 드러내는 지혜 그 자체일 뿐이다. (32, 22-27)

33. 너희의 이성과 영 안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계시와, 너희에게 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아버지로서의 나의 계시들과, 너희에게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스승으로서의 나의 가르침들을 하나로 통합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의 본질, 즉 신성한 뜻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영적 빛의 길로 나를 찾아오는 것, 즉 단순히 너희에게 주어진 계시 그 이상의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자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곳에서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영원히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324, 58)

34. 사람들이 신성한 계시를 해석하거나, 그들의 눈에는 비밀로 보이는 어떤 일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이미 '제2시대'에, 내가 세상에서 설교 활동을 한 후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에 대해 의논하며, 그가 신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아버지와의 하나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인격인지 알고자 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나의 가르침을 평가하고 탐구했다.

35. 이제 나는 다시금 해석과 토론, 논쟁, 그리고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36.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영과 독립적인 것이었는지 검토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한 것이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 성령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37.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며, 너희가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제2시대"의 가르침을 활용할 때, 혹은 "제1시대"의 율법과 계시를 생각할 때, 너희는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의 빛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라. (216, 39-42)

창조주 영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

38. 나는 모든 피조물의 본질이다. 모든 것은 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 있다. 나는 모든 육체와 모든 형태 안에 있다.

나는 너희 각자 안에 있지만, 너희는 나를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39. 나는 모든 존재의 생명의 숨결이니, 이는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작품 속에 현존하고 있기에, 나를 숭배하거나 나와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 흙이나 대리석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인류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데에만 기여했을 뿐이다.

40. 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과 맺고 계신 조화를 예감하며, 내가 모든 존재를 양육하는 본질이며, 너희가 나 자신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185, 26-28)

41. 아버지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무수히 많은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온 우주는 신성의 물질적 현현에 불과하다. 모든 피조물은 진리의 반영이다.

42. 나는 나의 신성의 자녀인 영혼들의 존재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일련의 생명 형태로 둘러싸 주었으며, 그 안에 지혜와 아름다움, 생명력, 그리고 의미를 담아, 이 모든 거처에 나의 존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와 나의 권능에 대한 인식을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삶의 의미가 사랑과 지식,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 (168, 9-10)

43. 제자들아, 나로부터 세 가지 본성이 나왔으니, 곧 신성한 본성, 영적인 본성, 그리고 물질적인 본성이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자 소유주로서, 나는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물질적인 본성이 나로부터 나왔으므로, 나는 내 목소리와 내 말씀을 육체적으로도 들려줌으로써 인간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 있다.

44. 나는 완전한 과학이며, 만물의 근원, 모든 원인의 원인,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학문 위에 서 있다. (161, 35-36)

45. 지금은 이해와 영혼과 이성의 깨달음의 때로, 인간은

마침내 영적으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도,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며, 무한하고 절대적인 우주적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95, 29)

그리스도,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46.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그분은 물질적인 형상과 사건들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를 보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이전에 아버지로서 계시하셨으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태어난 것은 예수였으며, 그분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육신이었다.

47.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마침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보다 먼저 계셨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16, 6-7)

48.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영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싸울 힘을 준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는 이미 무한한 곳에서 너희를 비추었고 너희 마음에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므로, 나는 언제나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예수 안에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인류에게 수많은 시대가 지나가야만 했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은, 당시 내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영적 성장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300, 30)

49. 너희는 여호와 안에서 잔혹하고, 무섭고, 복수심에 불타는 신을 보았다고 믿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를 그 오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가 "아들을 알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하려 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다시금 죄에 얽매인 인류는 분노하고 모욕받은 예수를 보고 있다고 믿으며, 그분은 자신을 상처 입힌 자들이 "영적 골짜기"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그들에게 영원토록 가장 잔혹한 고통을 겪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50. 이제 너희가 내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여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할 때이다. 신성한 사랑은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나,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너희 양심의 무자비한 심판자가 너희에게 빛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16, 46-47)

51. 너희가 마땅히 나의 제자라 불릴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 스승과 같기를 원한다. 나의 유산은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거나 나를 그분 밖에서 보려 하지 말라. 나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이다.

52.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신성한 사랑이라고 말했으니, 그러므로 나를 아버지로부터 분리하려 하지 말라. 너희는 그분이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느냐? 이제 너희가 이를 깨달아야 할 때이다.

53. 누구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분의 참된 이름이기 때문이다. (19, 57-58)

54. 세상은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하느님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분으로부터 오직 사랑의 교훈과 무한한 지혜의 가르침, 완전한 정의의 증거만을 받았을 뿐, 폭력의 말이나 원한의 행동 혹은 징후는 결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분이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는지 보라. 그분은

온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권세와 모든 권능을 손에 쥐고
계셨으나, 세상이 그분의 참된
본성과 참된 정의와 자비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필요했다.

55.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그 대가로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가장 심한
모욕도 복수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모욕하는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영적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160, 46-47)

56.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너희의
이상이자 완전함의 실현이셨다.
너희가 그분 안에서 따를 만한
모범을 갖도록, 나는 너희에게
사람이 자신의 하느님을 닮기
위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했다.

57.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그분과 하나이시니,
그분은 신성의 "말씀"이시며,
너희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1, 33-34)

58. 제자들아, 그리스도는
신성한 사랑의 가장 높은
현현이시며, 영의 영역에서
생명이 되는 빛이시다. 어둠을
뚫고 모든 영적인 시야 앞에
진리를 드러내며, 신비를 풀고,
문을 열어 영혼의 지혜와 영원,
그리고 완전함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빛이시다. (91, 32)

성령 —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59. 지혜 안에는 너희 마음이
갈망하는 치유의 힘과 위로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한때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위로의
영으로 약속했다.

60. 그러나 발전의 길에서 멈춰
서지 않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63, 10-11)

61. 지금은 빛의 시대이며,
성령의 빛이신 신성한 지혜가
마음과 영혼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비추실 것이다. (277, 38) (참조: 본 장 8-10, 12, 18, 21-24, 27, 32, 36-37절)

제20장 - 하느님의 모성적 사랑, 마리아

겸손함 속의 마리아의 지상 삶

1. 마리아는 나의 천상 정원의 꽃으로, 그 본체는 언제나 내 영 안에 있었다.
2. 여기 겸손함 속에 그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는 이 꽃들을 보느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러했다. 순결과 경외심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에게는 아름다움의 마르지 않는 샘이요, 모든 존재에게는 자비와 다정함의 보물이다.
3. 마리아는 세상을 거닐며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감추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으나, 그 은총을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 주님의 뜻의 도구라고만 자처하셨습니다. (8, 42-43, 46)
4. 마리아는 자신이 지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왕을 잉태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인간들 가운데 여왕으로 자처했습니까? 광장이나 거리, 초라한 오두막이나 궁전에서 그녀의 입술이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아버지의 "독생자"가 그녀의 태에서 나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까?
5.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 안에는 가장 큰 겸손과 온유와 은혜가 있었으며,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아이를 낳기 전부터 —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후 아들의 일생 내내 — 그녀는 예수님의 소명, 즉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완수해야 할 사명과 그가 온 목적을 영적으로 알고 있던 가장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 소명에 저항하지 않았으니, 그녀 또한 그 일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6. 때때로 그녀가 눈물을 흘렸을 때, 그것은 인간 어머니로서의 울음이었고, 아들이자 자신의 살과 피인 그분의 고통을 육신의 본성이 느낀 것이었다.
7. 그러나 그녀는 스승이시며 아들이신 분의 제자였는가? 아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안에 계셨으며, 그 아름답고도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육신을 입은 것뿐이었다.
8. 그 훌륭한 어머니의 마음이 단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데에만 국한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작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은 위로와 고귀한 말씀, 조언과 자비, 기적, 빛, 그리고 진리 속에서 드러났다.
9. 그녀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고, 스승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요람이 되어 준 구유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또한 온 창조물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아들이 죽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둔 십자가 곁에도 있었다.
10. 그리하여 그녀는 인간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다했으며, 모든 어머니와 모든 사람에게 숭고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360, 28-31)

마리아와 예수

11. 사람들은 종종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죄인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시고 그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으면서도, 반면에 어머니를 방문하셨다는 기록은 전혀 없는지 의아해 해 왔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내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그리스도와의 마리아 사이의 유대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12.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인류에게 나를 드러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리아는 — 인간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이시니 — 어떤

더러움에서도 씻어낼 필요가 없었으며,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그분께 어머니의 자궁을 드리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기에, 믿음에 있어 어떤 결핍도 있을 수 없었다.
13. 나를 품에 안았던 것과 같은 순결과 온유함으로, 내가 왔던 천국으로 나를 돌려보내 준 그분을 방문하기 위해 내 영을 인간화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누가 내가 그녀의 고독 속에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방식과, 내 영이 그녀를 감쌌던 신성한 어루만짐을 알 수 있었겠는가?
14. 나는 예수님의 첫 방문이 어머니께 향했어야 한다고 자주 생각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15. 내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방식은, 마리아 마그달레나와 제자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내가 사용한 방식과는 얼마나 달랐겠는가. (30, 17-21)

마리아의 동정성

16. 스승이 계신 산 정상에는 마리아, 즉 보편적인 어머니도 함께 계신다. 그녀는 "제2의 시대"에 여성이 되어 "신성한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기적이 현실이 되도록 하신 분이다.
17. 인간은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방식을 수없이 판단하고 파헤쳐 왔으며, 이러한 판단들은 세상에 그분의 피를 쏟아 부으신 모성적 영의 순결한 옷을 찢어 놓았다.
18. 나는 이 시대에 불신자의 의심을 없애고 그에게 영적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 미지의 베일을 걷어냈다.
19. 사람들은 길과 같은 나의 진리에서 수많은 샛길을 만들어 냈고, 그곳에서 대부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어머니의 중재를 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를 오해하지만, 그녀의 사랑과 자애로움의 망토는 모든 이를 영원히 감싸 안는다.
20. 태초부터 나는 예언자들이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말했던 영적 어머니의 존재를 계시해 왔다. (228, 1-5)
21. 마리아는 그녀의 덕행과 모범, 그리고 완전한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졌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 중의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다른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으며, 세상은 그녀의 삶을 바라보고, 그녀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녀의 영혼과 육신의 순결함과 우아함을 알았다.

22. 그녀는 소박함, 겸손, 이타심, 그리고 사랑의 본보기이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당시 세상과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덕행과 동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그녀가 동정녀이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이 본성상 불신하며, 깨어 있는 영으로 신성한 업적을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경전을 연구하고 마리아의 성육신과 그녀의 조상들의 삶을 깊이 탐구한다면, 마침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221, 3)

23.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가장 다정한 사랑은 형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시대에 그 사랑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안에서 한 여인의 형체를 취했다.

** 따라서 마리아의 발현을 통해 알려진 마리아의 형상은 단지 일시적으로 취한 영적 계시의 형상으로만 간주되어야 한다.*

24. 마리아의 본질, 사랑, 그리고 섬세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성 안에 존재해 왔으므로, 마리아는 항상 존재해 왔음을 깨달아라.

25.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론과 오류를 만들어 냈는가! 그녀의 모성, 잉태, 그리고 순결에 관하여 말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얼마나 신성모독을 저질렀는가!

26. 그들이 그 순결을 진정으로 깨닫는 날,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불의 눈물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타오를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그들을 자비로 감싸 안으실 것이며, 신성한 어머니는 당신의 망토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아버지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니, 너희

안에서 내가 세상을 용서하고 축복하리라." (171, 69-72)

여성을 위한 마리아의 모범

27. 너희 스승의 삶은 모든 이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성한 자비의 화신인 마리아가 그들에게 보내졌다. 마리아는 인간들 가운데 여인으로 나타나, 너희에게도 겸손에 대한 신성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01, 58)

28. 축복받은 여성들아: 너희 또한 나의 사도 무리에 속한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다르며 양쪽의 사명도 다르지만, 남자의 영과 너희의 영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9. 너희 영혼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사랑이 그려 놓은 길을 따라가라. 그분의 말씀을 너희 것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를 품으라.

30. 나는 너희의 영에게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로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영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 여성의 마음이 본받을 모범을 찾고, 만일 너희가 삶 속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지탱해 줄 완전한 본보기가 필요하다면, 마리아를 기억하고 그녀가 지상에서 보낸 온 생애를 지켜보라.

31. 마리아의 겸손한 삶이, 그녀의 사역 기간 내내 그녀를 알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던 내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32. 그 삶은 — 아는 이에게는 겸손해 보이지만 — 탄생부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빛나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겸손한 마음과 끝없는 섬세함, 순수한 마음,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담긴 가르침의 많은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에,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33. 마리아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모성애 그 자체였으며, 인류에게 겸손과 순종, 그리고 온유함의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걸어간 발자취는
빛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삶은
소박하고 위엄 있으며 순수했다.
그녀 안에서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34. 오직 그녀만이 자궁에
하느님의 씨앗을 품을 수
있었으며, 오직 그녀만이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완수한 후
인류의 영적 어머니로서 남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35. 그러므로 마리아는 여성
여러분에게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그녀의 침묵과 겸손의 행실,
궁핍한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끝없는 자기 부정의 정신,
조용한 고통, 모든 것을 용서하는
연민, 그리고 중보와 위로, 달콤한
도움이 되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36. 처녀들이여, 아내들이여,
어머니들이여, 부모 없는
소녀들이나 과부들이여, 외로운
여성들이여,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너희는 마리아를
너희의 사랑스럽고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라 부르라.
마음속으로 그분을 부르며,
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속으로 그분을 느껴라. (225, 46-54)

인류의 중재자, 위로자, 공동 구세주이신 마리아

37. 마리아는 조용히 세상을
걸어다니셨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 주셨고,
궁핍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셨으며,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무지와 악함에 대해
용서와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영접했으니, 어찌 마리아께
의지하지 않겠느냐? 구세주의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 순간
아들의 피가 어머니의 눈물과
섞이지 않았느냐? (8, 47)
38. 나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생명과 영적 지혜의 책을
유산으로 남겼으니, 이는
수세기와 시대, 시대를 거쳐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책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마리아에게 "여인아, 이분이 네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 순간 인류를 대변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변모한, 영성화된 인류를 상징하는 요한을 바라보며 지목했다.

39. 또한 요한에게로 몸을 돌리며 나는 "아들아, 이분은 네 어머님이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제 그 말씀의 뜻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리라.

40. 마리아는 순결과 순종, 믿음, 연민, 그리고 겸손을 구현하셨습니다. 이 미덕들 각각은 제가 그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의 태중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다리의 한 계단입니다.

41. 그 연민과 순결, 그리고 사랑은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는 신성한 자궁이다.

42. 내가 인간이 되어 내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너희에게 내려온 그 사다리는, 너희가 인간에서 빛의 영으로 변모하며 그 사다리를 타고 나에게로 올라오도록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사다리와 동일하다.

43. 마리아는 사다리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녀에게로 향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320, 68-73)

44. 나는 십자가 아래, 내 피와 어머니의 눈물을 받아낸 그 언덕에 마리아를 남겨 두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녀들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왜냐하면 바로 그녀가 자녀들의 어깨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94, 73)

45. 마리아의 메시지는 위로와 다정한 보살핌, 겸손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성적 본성을 알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도록 자신의 동정녀의 자궁을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46. 그러나 그녀의 사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 너머에 그녀의 진정한 고향이 있었으니,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자녀들에게 연민과 보살핌의

망토를 펼쳐 줄 수 있고,
그곳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쏟아
부을 수 있다.
47. 마리아가 한 여인 안에서
인간이 되어 신성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기 수
세기 전, 하느님의 한 예언자가
그녀를 예고했다. 그 예언자를
통해 너희는 한 동정녀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48. 하늘의 모성애의 영이
내려오신 흠 없는 여인 마리아
안에서, 예언자가 예고했던
신성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49. 그 이후로 세상은 그녀를
알고 있으며, 사람들과 민족들은
사랑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 속에서 그녀를 어머니로
갈망합니다.
50. 너희는 그녀를 '고통의
어머니'라 부른다. 세상이 그녀의
가슴에 고통의 칼을 꽂았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며, 너희의
상상 속에서는 그 비통한 얼굴과
끝없는 슬픔의 표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51.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에서 그
영원한 고통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대신 마리아를
영적으로 활동하며 모든
자녀들이 스승이 제시한 길로
상향 발전하도록 돕는 자비롭고,
미소 짓는,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 생각해야 한다.
52. 이제 너희는 마리아의 사명이
지상의 모성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깨닫는가? 또한 '제2의
시대'에서의 그녀의 현현이
유일한 것이 아니었으며, 영에서
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새로운 시대가 그녀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알라.
53. 나의 제자 요한은 예언자이자
선견자로서, 황홀경 중에
태양으로 옷을 입은 한 여인,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한
처녀를 보았다.
54. 이 여인, 이 동정은 마리아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구세주를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완전함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사랑과 믿음, 겸손으로 자양분을 얻는 온 인류를 품에 안게 될 것이다.

55. 예언자는 그 여인이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고통받는 것을 보았으나, 그 고통은 인류의 정화와 영혼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다. 고통이 지나가면 영혼들 속에 빛이 비칠 것이며, 기쁨이 너희의 보편적 어머니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이다. (140, 44-52)

마리아의 신성한 본성

56. 너희 하늘 어머니의 망토는 태고적부터 세상에 그늘을 드리워 왔으며, 내 자녀들이자 또한 그분의 자녀인 너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었다.

영으로서의 마리아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모성적 본질은 언제나 나의 일부였다.

57. 그녀는 나의 순결과 거룩함의 배우자이다. 그녀는 여인이 되었을 때 나의 딸이었고, "성육신하신 말씀"을 잉태했을 때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 (141, 63-64)

58. 마리아는 본질상 신성하며, 그녀의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다. 그녀는 태초부터 인류에게 '신성한 말씀'이 성육신하실 순결한 피조물로 예고되었던 선택받은 딸이었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는가?

59. 그런데도 왜 인간은 모독하며 내 권능을 의심하고, 내 업적을 경외심 없이 파헤치는가? 그 이유는 그가 내 신성한 가르침에 깊이 잠기지 않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내 뜻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 오늘날, "제3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녀는 내 신성한 영 안에 거하는 가장 다정한 사랑의 화신이므로, 나의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다. (221, 4-6)

61. 마리아는 신성과 그토록 깊이 융합되어, 세 가지 계시 형태, 즉 성부, 성자, 성령의 빛이 나타내는

신성의 한 측면을 이루는 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리아는 신성한 보살핌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하느님의 영이다. (352, 76)

62.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장 높은 천국에 이르러 마리아를 만나기를 희망하는가. 그들은 마리아를 항상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계셨던,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모습으로 상상하며, 또한 아름답고 위엄 있는 왕좌에 앉은 여왕으로 상상한다.

6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너희 마음속에서 신성한 존재에게 형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영적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존재하시나, 그분은 여성의 모습도, 그 어떤 다른 모습도 지니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비가 무한히 펼쳐지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온화함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영혼들 안에서 다스리시나, 그분의 통치는 겸손과 자비와 순결의 통치이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왕좌를 가지지 않으셨다.

64. 그녀는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려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천상의 것이며, 너희는 결코 그 천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263, 30)

마리아의 보편적인 광채

65. 너희의 보편적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내 안에 살아 계시며, 그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다정한 애무를 베풀어 주신다. 그분은 너희 마음속에 계셔서, 그곳에 그분의 평화와 성소의 준비를 남겨 두셨다. 마리아는 세상을 지켜보며, 한 극에서 다른 극까지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종달새처럼 그 위에 날개를 펼치고 계십니다. (145, 10)

66. 내 신성 안에는 중보하는 사랑이 살아 계시니, 바로 마리아이시다. 믿음에 닫혀 있던 얼마나 많은 마음이 그녀를 통해 회개와 사랑으로 열렸는가!

그녀의 모성적 존재는 온 창조물 안에 현존하며, 모든 이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뻔히 보고도 부인한다. (110, 62)

67. 마리아의 신성한 모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신성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계시 중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68.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마리아를 부인하는 자들은, 내 신성 안에 존재하는 가장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69. 성경을 안다고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창조의 언어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해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70. 모성적인 영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 신성한 모성애는 축복받은 씨앗처럼 모든 피조물의 마음에 떨어졌으며, 자연의 모든 영역은 그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고,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세워진 제단이다. 마리아는 신성한 꽃이었고, 그 열매는 예수였다. (115, 15-18)

제21장 – 하나님의 전능, 전재, 그리고 그분의 정의

하나님의 능력

1. 오늘날의 인간이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자연의 원소들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영적 힘들에 자신의 권능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2. 우주의 천체들이 인간의 의지로 궤도나 운명을 바꿀 수 없도록 변함없는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질서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3. 내가 낮과 밤을 창조하였으니, 즉 내가 빛이며, 나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329, 31-33)

4.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능력이 인간의 죄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과, 따라서 죄가 진리와 정의의 빛 앞에서 물러나면 인간과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

5.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88, 59-60)

6. 나에게는 한 인간 존재의 회개와 갱신, 그리고 구원이 불가능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며, 인간이 나보다 더 강할 것이다. 너희는 내 능력을 인간 안에 있는 악이 가진 힘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가? 너희는 인간 안의 어둠을 신성한 빛보다 우월하다고 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이 내게 말하라.

7. 명심하라: 내 임무는 너희에게 존재를 부여한 후, 너희를 완전함으로 인도하고 너희 모두를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8. 나, 신성한 씨 뿌리는 자는 내 사랑의 씨앗을 모든 영혼 속에 눈에 띄지 않게 심는다. 나만이 이 씨앗이 온 인류 속에서 언제 싹을 틔울지 알고 있으며, 나만이 무한한 인내로 내 행위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다. (272, 17-19)

9. 나는 나의 위대함으로 너희를 비하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닿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권능과 지혜와 완전함을 지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에서 지극한 기쁨을 느끼게 하려 함이라.

10. 너희는 내 권능의 끝을 결코 목격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 영혼의 발전이 높을수록 나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하라. 주님의 위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임을 아는 데 누가 동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지상에 있을 때, 세상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기꺼이 그에게 경험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 자랑스럽고, 용감하며, 미덕으로 가득 찬 남자를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았느냐? (73, 41-42)

11. 내 권능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힘이란 무엇이겠느냐? 영성화의 무한한 힘에 맞서는 물질주의 민족들의 저항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12. 나는 인간이 권력에 대한 탐욕의 한계까지, 오만의 정점까지 나아가도록 허락했다.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의지 자유의 은사가 진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 함이다.

13. 그러나 그가 그 한계에 도달하면, 그는 빛과 사랑에 눈을 뜨고, 오직 너희 하나님의 것이신 유일한 절대 권능과 유일한 보편적 지혜 앞에 굴복하며 내 현존 앞에서 엎드릴 것이다. (192, 53)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14. 나는 무한한 공간 속에 거하는 특정하거나 제한된 장소가 없으니, 나의 현존은 신성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왕국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시선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너희의 행성은 끊임없이 회전하며,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하늘의 구역과 새로운 높이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15.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거리는 없으며, 너희를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유일한 것은 너희가 나의 완전한 법과 너희 영 사이에 끼워 넣는 허락받지 못한 행위들뿐이라는 것이다.

16. 너희의 순결함이 클수록, 너희의 행실이 고상할수록,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확고할수록, 너희는 나를 더

가깝고, 더 친밀하며, 너희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17. 마찬가지로, 너희가 선과 의로움, 그리고 허락된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어둡고 이기적인 삶의 물질주의에 빠져들수록, 너희는 나를 너희로부터 점점 더 멀리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내 율법의 성취로부터 멀어질수록, 내 신성한 임재에 대해 무감각해질 것이다.

18. 내가 왜 이 시기에 내 말씀을 이런 형태로 선포하며, 너희가 영과 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지 깨달아라.

19. 너희는 나를 무한히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겼기에, 내게로 오는 법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내 신성한 현존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는 그들을 갈라놓는 공간이나 거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너희를 찾아왔다. (37, 27-32)

20.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내 보좌를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상상하는 그 보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좌란 허영심 많고 오만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21. 내 영은 무한하고 전능하므로,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분은 어디에나, 모든 곳에,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 계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돌리는 그 보좌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22. 더 이상 나에게 지상의 왕좌와 같은 곳에 앉아 있는 물질적인 육신의 형상을 부여하지 마라. 너희가 늘 나에게 부여하는 인간의 형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라. 너희의 인간적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꿈꾸는 것을 그만두어라. 너희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은 마치 너희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 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며, 마치 너희 눈앞의 높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것이며,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면서 너희가 한계 없는 지평선과 끝없이 빛나는 창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나, 그곳은 너희의 영으로서는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23. 어떤 이들은 말하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거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이해하지도 못한다. 비록 내가 하늘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상상한 그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빛과 권능과 사랑과 지혜와 정의와 행복과 완전함의 하늘에 거한다. (130, 30, 35-36)

24. 나의 보편적인 현존은 모든 것을 채우고 있으며, 우주의 그 어떤 장소나 공간에도 공허함은 없으며, 모든 것이 나로 충만하다. (309, 3)

25.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매우 가깝다고, 너희 생각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어디에 있든 너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내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영감이나 빛나는 생각으로 너희의 지성을 비추는 빛이다.

26.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영이며, 너희를 심판하는 양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감각과 몸 안에 있다. 나는 온 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이다.

27. 너희 안과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나를 점점 더 깊이 느끼라.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을 때, 너희가 온전히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감각의 세계가 남길 수 있는 인상들로 인해 너희 영혼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될 무한한 순결의 근원이신 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80, 50-52)

28. 음성 전달자의 입술에서 발화되는 말 속에 담긴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근원은 선함, 신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우주적 빛에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나는 전(全)존재의 한 줄기 빛이거나 불꽃이며,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동하며 활동하고 끊임없이 그 궤도를

그리는 무한한 힘의 일부이다. 그것은 너희가 신성한 광채라고 부르는 것이며, 영혼을 비추고 생기를 불어넣는 신성한 영의 빛이다.

29. 그 광채는 영혼과 육체 모두에, 그리고 세계들과 인간, 식물, 창조의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영을 위한 영적이며, 물질을 위한 물질적이며, 이성을 위한 지성이며, 마음속의 사랑이다. 그것은 지식이며, 재능이며, 자기 성찰이며, 본능이며, 직관이며, 모든 존재의 감각 위에 서 있다. 각 존재의 질서, 성질, 종류,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 말이다. 그러나 그 근원은 오직 하나, 곧 하느님이시며, 그 본질 또한 오직 하나, 곧 사랑이다. 그러니 내가 이 피조물들의 이성을 깨우쳐 너희에게 영적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30. 식물들은 열매를 맺도록 내 영이 보내는 생명의 광선을 받아들인다. 별들은 궤도를 돌 수 있도록 내 영이 그들에게 발산하는 힘을 받아들인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접할 수 있는, 현재 살아있는 증거인 지구는, 그 품에서 수많은 기적을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 속에 마치 보석처럼 한 영의 현존이 빛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나와의 닮음이 근거를 두는 인간이, 내 영으로부터 그의 영으로 직접 신성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느냐? 그 빛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영적인 씨앗이니라. (329, 42-44)

31. 너희의 한숨 중 단 하나도 하늘에서 들리지 않는 것은 없으며, 모든 기도는 내 안에서 메아리를 찾고, 너희의 어떤 슬픔이나 삶의 위기라도 내 아버지의 사랑이 외면하는 일은 없다. 280 제21장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며, 모든 곳에 현존한다.

32.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로부터 물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오, 인간의 무지여, 그것이 그들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쓰라림을 안겨주었는가!
알아두라, 만일 내가 내 피조물
중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멀어지면, 그 피조물은 즉시
존재를 멈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을 주었을 때, 나는
너희 모두에게 영생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108, 44-45)

운명의 시련

33. 너희와 온 인류를 짓누르는
시련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 혹은 보복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이러한
시련들이야말로 인류를 구원의
항구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다.

34. 그것들을 정의, 속죄, 또는
교훈이라 부르라.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고 옳은 말이 될 것이다.
분노와 복수는 영혼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완전함과는 아직
거리가 먼 존재들에게나 있는
인간적인 정욕이다. 내 모든 일을
지배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저속한 이름인
"처벌"이나, 품위 없는 이름인
"복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35. 너희가 자발적으로
가시밭길이나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갔으며, 나의 사랑 어린
부르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너희 양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고통이
너희를 깨우고, 멈추게 하며,
정신을 차리게 하고, 참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와야만 했던 것이다. (181, 6-8)

36.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정의이기에, 내
계명을 어기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그 정의를 느끼게
한다. 영원하신 분께서 너희에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법을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37. 사람이 중대한 시련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심연으로
추락할 때,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아내가 울부짖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생계를 잃고 가정이 비참과 고통에 빠질 때, 그가 어떻게 탄식하는지 보라. 그는 자신의 불행에 당황하고 절망하지만, 기도하고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나를 거역하며 말하되,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징계하실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한다. 그러나 신성한 영께서는 실로 그 자녀들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그 눈물은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피이다.

3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가 도달한 발전 단계로 인해, 이 시대에 그들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오직 나의 자비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희생이지, 나의 형벌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법과 나의 빛은 모든 양심 속에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39. 나의 공의가 내려와 모든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려 하며, 심지어 자연의 힘들조차 이 공의를 집행하는 자로 드러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의 정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에 현혹되어 "우리가 이토록 큰 고통을 견뎌야 한다면, 애초에 왜 이 세상에 온 것일까?"라고 말하곤 한다. 고통과 죄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 그리스도의 또 다른 유사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잡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하고 타락한 본능과 성향을 의미한다.*

40. 인간은 정의와 속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채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반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신성모독이 뒤따른다. 오직 나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를 비난할 수 없다. (242, 19-21)

하나님의 정의

41. 너희는 때로 너무 마르고 병든 가지를 가진 관목과 같아서,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42. 나의 사랑의 정의가 인간의 나무에서 그 마음을 해치는 병든 가지를 제거할 때, 그것은 그를 바로 세운다.

43. 사람의 몸에서 한 지체를 잘라내야 할 때, 그는 병들고 죽은 것을 제거하여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탄식하고, 떨며, 겁을 먹는다.

44. 장미 또한 가지치기를 당하면 고통의 눈물처럼 생명의 수액을 흘리지만, 그 후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자신을 덮는다.

45. 나의 사랑은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잘라내는데,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46.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는 내 처형자들을 나의 자비와 용서로 감싸 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의 말과 침묵으로 나는 그들을 빛으로 채웠고,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했다. 이처럼 나는 악을 잘라내고, 나의 사랑으로 그것을 물리치며, 악을 행한 자를 보호하고 구원한다. 그 용서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의 원천이 될 것이다. (248, 5)

47. 나는 너희의 잘못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

48. 오직 나만이 너희의 잘못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크며, 얼마나 중대한지 알고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모습에 현혹되는데, 이는 그들이 이웃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와서 중대한 잘못을 자백하고 나를 모욕한 것에 대해 깊은 회개를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나는 그들을 깨끗하다고 인정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와서 자신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비록 그들의 손이 이웃의 피로 더럽혀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희생자들의 피가 그들의 영혼
위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돌을 던지면서 손을
숨기는 자들이다. 내가 계시에서
"비겁하다", "거짓이다",
"배신자다"라는 말을 할 때면,
그들의 온 존재가 떨렸고, 종종
그들은 자신을 심판하는 시선을
느꼈기에 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곤 했다. (159, 42-43)

49. 신성한 정의 안에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정의가 그러한
근원을 갖지 않았다면, 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죄와 끊임없는 범행은
신성한 인내를 고갈시켰을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인류는 여전히 살아가고,
영혼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오며, 매 순간, 모든 인간의 행적
속에서 사랑이자 무한한 자비인
나의 정의가 드러나고 있다. (258,
3)

50. 내 말씀을 깊이 헤아려라.
그래야만 너희가 많은 이들과
같이, 내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엄하게 벌을
내리면서도, 반대로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신성한
정의의 행위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51.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내가 겉보기에
가벼운 잘못만을 저지른 자를
엄하게 벌하는 것은, 내가
영혼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이들의 중대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큰 잘못이 영혼에게 그만큼
큰 회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52.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심지어 마음속으로라도
민족들 사이에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내 정의가
내리기를 바라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요,
나의 피조물임을 생각하라.
그들은 큰 죄악을 큰 속죄로
갚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손가락질하며 평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너희를 혼돈에 빠뜨린 자들이라고 지목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장차 올 시대에 인류의 위대한 평화의 주창자, 위대한 은인이 될 것이다.

53. 수백만 희생자들의 피가 땅 위에서 나의 신성한 공의를 부르짖고 있으나, 인간의 사법 제도를 넘어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에 닿는 것은 나의 공의일 것이다.

54. 인간의 사법 체계는 용서하지도, 구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나의 사법 체계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치고, 고양시키고, 빛을 비춘다; 그리고 바로 인류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나는 그들의 큰 속죄의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구원하고 구해 주리라. 그 과정은 그들이 정화되고 양심의 목소리에 완전히 깨어나, 자신들의 행위의 가장 깊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줄 도가니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희생자들, 즉 그들의 백성들에게 겪게 했던 그 길을 그들도 걷게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영혼의 순결에 도달하여, 땅으로 돌아와 파괴된 모든 것을 재건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09, 16-18)

55. 너희는 죽음이 너희에게 닥쳐야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신의 행실을 깨닫고 양심의 소리를 느낄 때 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6. 나의 심판은 언제나 너희 위에 있다. 인간 생활에서든 영적 생활에서든,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은 채로 있을 때, 영혼은 양심의 부르짖음에 무감각해지고 귀를 막아버린다.

57.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의 눈을 빛으로 열어 주기 위해,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심판한다.

58. 나의 심판에서 나는 너희가 나에게 가했을지도 모르는 모욕을 결코 계산하지 않으니, 나의 심판에는 원한도, 복수도,

심지어 형벌조차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59. 고통이 너희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가장 아픈 곳을 찌를 때, 그것은 너희가 저지르는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내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며, 새롭고 지혜로운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모든 시련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60.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시련의 원인을 깨닫게 허락했으나, 다른 경우에는 내 정의의 그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사업과 너희 영혼의 삶 속에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깊은 신비가 있기 때문이다. (23, 13-17)

61. "너희가 남을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재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 법칙이 이 땅에서 복수를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제쳐두기 위해 얼마나 자주 이용되었는지 모릅니다!

62.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 정의의 자를 들어 너희가 재었던 대로 너희를 재겠노라. 다만 덧붙여 설명하건대, 나의 모든 심판에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함께 계실 것임을 알려야겠다.

63.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스스로 심판을 내리는데, 때로는 끔찍한 심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너희 주님은 너희가 속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6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속죄를 피하고 싶다면, 제때에 회개하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삶을 진심으로 새롭게 하여 새로운 방향을 잡으라.

65. 내가 구원의 문임을 알아라. 참된 믿음으로 나를 찾는 모든 이에게 결코 닫히지 않을 문이다. (23, 19-23)

66. 이제 너희는 신성한 정의가 너희의 정의처럼 처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외형적인 겉모습이나 거짓된 변명이 통하지 않는 내 앞에서, 내가 너희의 법으로

너희를 심판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67. 내가 너희의 악함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의 끔찍할 정도로 가혹한 법들을 적용한다면 —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너희는 마땅히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68.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너희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떠나고 다시 돌아오며, 그렇게 너희는 순례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너희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분의 신성한 법에 복종하는 날이 올 것이다. (17, 53)

제22장 – 하나님의 사랑, 보살핌, 그리고 자비

하늘 아버지의 사랑

1.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어디든지 너희를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신성한 사랑의 형상을 보아왔다. 너희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너희는 악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그들이 너무 많이 울어 눈이 마르고,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나며,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남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향한 축복과 용서만을 품을 것이다.

2.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부모들이 너희에게 그토록 크고 순수하며 숭고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었거늘 — 그 마음을 지으시고 부모가 되는 임무를 맡기신 분이 너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어찌하여 너희는 놀라느냐? — 사랑은 지극한 진리이다. 진리를 위하여 나는

사람이 되었고, 진리를 위하여 나는 사람으로서 죽었다. (52, 27)

3. 내 사랑이 너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 종종 매우 쓰라린 잔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라.

4. 사람은 깊이 추락할 수도 있고, 어둠에 휩싸일 수도 있으며,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자기 내면에서 나를 느끼고, 더 이상 나를 멀리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나를 낯선 이로 여기거나 나의 존재와 사랑, 그리고 나의 공의를 부정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52, 30)

5. 나는 너희를 내 앞에 피고인으로 보고 싶지 않으며, 언제나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도움을 주려 준비되어 있는 나의 자녀들로 여기고 싶다. 나는 내 영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며 너희를 창조했다. (127, 41)

6.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너희의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어디로든 너희를 따르며, 너희가 그 영향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너희의 잘못이 클수록, 너희에 대한 나의 자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아라.

7. 사람들의 악의는 나의 사랑을 물리치려 하지만, 사랑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힘이자 신성한 권능이므로, 그 악의는 사랑에 대항할 수 없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의 증거는, 인류가 죄의 심연 속에서 길을 잃은 이 시기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자신을 드러냈을 때 너희에게 준 바로 그것이다. 나의 사랑은 인간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수는 없으나, 연민을 느낄 수는 있다.

9. 나를 알아보고, 내게로 와서 내 자비의 수정처럼 맑은 샘물에서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내라. 구하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97, 59-62)

10. 사람들은 잠시나마 자신이 나를 모실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믿어,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일단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받아들인 뒤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삶을 꾸리고,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종교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나를 오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놀라움이 큽니다. 그때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방법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11.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뿐이다. 나는 너희가 존재하기 전부터 너희를 사랑했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112, 14-15)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

12. 제자들아, 나는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었다.

13.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그 길"을 빨리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나의 것보다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성한 가르침을 거부한다.

14.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양들을 부르며,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세어 보며, 날마다 더 많은 양을 원하고, 그들을 먹이고 어루만지며, 돌보고, 그 수가 많음을 보고 기뻐하는 목자이다. 비록 모든 양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말이다.

15. 이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 중 많은 이가 내게로 오지만,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이는 적다. (266, 23-26)

16.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르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한 마음에 평화를 주며, 한 영혼에 빛을 비추는 동안, 내가 너희의 물질적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돌보겠으며,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라.

17. 내가 너희의 영에게 말할 때, 나는 또한 너희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있는 근심과 필요,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을 믿으라. (89, 6-7)

18. 아무리 미개해 보일지라도 — 심지어 접근하기 어려운 숲속에 살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조차도 — 내 사랑의 표현을 경험하지 못한 인종이나 부족은 없다. 그들은 위험의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조언해 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19. 너희는 결코 버림받은 채 살아온 적이 없다. 태초에 너희가 생명을 얻었을 때부터, 너희는 내 사랑의 보호막 아래에 있었다.

20. 자녀들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인간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즉 너희의 보살핌과 헌신, 사랑이 가장 절실할 때, 너희가 그들을 운명에 내맡길 수 있었겠느냐?

21. 나는 너희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고 너희를 상처 입힌 자들조차도, 너희는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걱정한다.

22. 그러나 너희가 자녀들의 곤경에 이처럼 반응한다면, 너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를 사랑하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과연 어떠하겠느냐?

23. 나는 언제나 너희를 도우러 왔으며, 너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한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선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345, 39-42)

24. 너희는 이제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길은 이미 닦여 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에 시련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어려운 길을 지나거나 고통의 잔을 비울 때마다, 너희를 격려하고 조언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어 너희를 돕고 일으켜 세우는 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치유 연고가 주는 부드러운 어루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280, 34)

25. 내가 너희가 고통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모든 시련이 담고 있는 교훈을 얻기보다는 그저 울고, 저주하거나, 단순히 고통의 끝인 죽음을 기다리는 데

만족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위로와 희망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 너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리라. 왜냐하면 그 승리 속에야말로 평화와 빛, 그리고 참된 행복인 영적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181, 10)

26. 내가 자연의 가장 작은 피조물 속에도 계심을 생각해보라. — 너희가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때 너희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와 갈라설 수 있겠느냐?

27. 나는 생명이요 모든 것에 있으니, 그러므로 아무것도 죽을 수 없다. 표현 방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감각을 가라앉히고 말의 핵심에서 나를 발견하라. (158, 43-44)

28.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성소, 곧 언약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은총과 축복의 샘,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9. 무력한 영혼은 없으며, 누구도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는 없다. 나의 신성한 자비 앞에서 온 우주에 자신을 가난하다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주님의 땅에서 추방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도 없다.

30. 자신이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이는, 자기 안에서 은총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현재 죄 가운데 길을 잃었기 때문이며, 눈이 멀었거나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31. 너희는 언제나 너희 안에서 이 은총의 선물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임재가 결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너희가 나의 왕국과 영광의 상속자이기에 "떡", "치유의 향유", "무기", "열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언제나 너희 안에 있을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345, 87)

32.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가 있으며, 이 유대가 바로 신성한 영과 너희 모두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262, 35)

33. 인류는 내 사랑과,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야 할 내 말씀을 필요로 한다. 스승은 너희 영혼이 매일 더 밝아져, 무지에서 해방되어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싸우고 있다.

34. 내 왕국의 문은 열려 있으며, 아버지의 "말씀"이 무한한 사랑과 함께 너희에게 임하여 다시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35. 나는 다시 인류에게 왔으나, 내가 영적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물질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느끼지 못하였다. 너희 영혼이 나의 신성한 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나를 느끼지 못했는가?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물질주의와 저급한 정욕에 묶어 두었기 때문이다.

36.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그분은 빛이 되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비추고 진리를 가져다주려 한다. (340, 13-15)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겸손

37. 내 말씀이 너희의 이성을 헛된 철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임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부를 제공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참된 생명의 왕국을 약속하는 유일한 하느님이다. 나는 허영 없이 자녀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내 어루만짐과 기적을 행하는 말씀으로 속죄의 길 위에서 일으켜 세우는 겸손한 하느님이다. (85, 55)

38. 내 종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나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39. 보라,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며, 홀이나 왕관을 쓰고 있지도 않다. 나는 너희 가운데 겸손의 본보기로, 더 나아가 너희의 종으로 와 있다.

40.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게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리라. 이는 내 사랑과 겸손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나는 오직 너희가 나를 알고 내 뜻을 행하기만을 청한다. 그리고 너희가 의무를 다하는 데 장애물에 부딪히면,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라. 그러면 너희의 공로가 더 커질 것이다. (111, 46)

41.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 그분 앞에서는 기도하며 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셨다면, 나는 그분 앞에 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영 안에는 겸손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42. 너희가 비록 나의 작은 자녀들이지만, 너희가 나에게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너희에게 내려와 말하고, 너희의 말을 듣고, 위로해 주도록 만들고 있음을 생각하라. (125, 19)

43. 너희 아버지가 결코 그 위대함으로 너희를 낮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완전한 겸손으로 그 위대함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기쁨을 누려라. (101, 63)

하나님의 연민과 함께 아파하심

44.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마찬가지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너희가 — 너희 모두가 결국 내게로 올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 내가 오늘날 고통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 점에서도 옳지 않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성한 영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는 없다.

45.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누가 모든 존재에게 이 감수성을 주었느냐? 너희가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 선한 일을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내 감수성에 상처가 되지 않는 악한 일을 무엇이 있겠느냐? 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인류가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언제 내가 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가시관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69, 34)

46. 어떤 이들이 나의 원수로 나설지라도, 나는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오직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만 본다. 자신을 학자라 여기며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을 나는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의 마음 에서 나를 없애려 하는 자들을 나는 무지한 자들로 여긴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멸할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73, 33)

47. 나는 너희에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겸손한 스승으로서 나타난다. 나는 너희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며, 너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대하고 자비롭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너희가 언제나 자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48. 나는 그토록 큰 사랑으로 창조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정된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돌보지도 않고, 그 삶이 그들에게 준비해 둔 완전함을 알고자 하는 소망조차 없이, 지상에서 고집스럽게 죽음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볼 때,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125, 59-60)

49.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에, 나는 필연적으로 자녀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 너희 각자가 고통받고 자신의 아픔을 느끼는 동안 — 신성한 영이 그 모든 자녀들의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50. 이 진리의 증거로서, 나는 세상에 내려와 인간이 되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의 불완전함이라는 짐을 어깨에 지고 너희의 모든 고통을 느꼈다면, 하물며 신으로서 내 자녀들의 고난을 마주할 때 무감각할 수 있겠느냐? (219, 11-12)

하나님의 용서, 은총, 자비

51. 나는 모든 이의 운명을 아는 유일한 분이며, 너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아는 유일한 분이다. 너희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는 분은 바로 나다. 나는 너희가 진리와 정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알고 있다. 내 자비는 내면 깊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이의 두려움에 찬 부르짖음을 받아주는 것이다.

52.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는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며, 너희의 병을 고쳐 주고, 너희가 용서받았으며 너희의 오점을 벗어났음을 느끼게 하여, 너희가 삶을 새롭게 꾸려 나가게 한다.

53. 또한 나는 내 자녀인 너희가 내게 가한 모욕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245, 39-41)

54. 이 시기에 내 말씀이 너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리라. 내가 내 은총을 풍성히 부어, 너희가 순결하고 고귀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시 죄에 빠진다면, 백성아, 너희를 내 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비록 이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너희 스스로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임을 알아라. 그러나 나의 용서와 사랑은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를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린 문과 같다. (283, 69)

55.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바로잡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낸다. 너희가 자기 뜻대로 살며 끊임없이 아버지를 상처 입혔을 때, 나는 그 죄악된 삶의 실을 끊지 않았고, 너희에게 숨 쉴 공기도, 먹을 빵도 거두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으며, 너희의 탄식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연은 여전히 그 풍요로움과 빛, 그리고 축복으로 너희를 감쌌다. 이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 땅에서 아무도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수 없으며, 아무도 나처럼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56. 너희의 영혼은 내가 영원부터 가꾸고 완성하여,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가장 완벽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거나 폭풍우의 힘에 내맡길 수 있겠느냐? 내가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아는 유일한 분인데, 어떻게 너희의 길에서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242, 31-33)

57. 그릇된 길로 가는 너희여,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고 내 힘과 빛을 주려 한다. 너희가 몸과 영혼에 큰 죄인들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해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가 너희를 모욕한 자들을 축복하게 하고, 그 기적을 너희 안에서 가능하다고 여기신 하느님을 축복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58.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큰 죄인들이 그들의 공로로 그 은총을 얻은 의인들처럼 똑같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59. 오, 사람들아,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가 그럴 자격이 있기 전부터, 오직 은혜로만 너희에게 내 은총을 베풀어 왔노라.

60. 나는 순수한 생각에도 응답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비록 아주 작은 겸손이나 깨달음의 불꽃이라도 솟아날 때, 더럽혀진 채 내게 다가오는 이의 슬픈 탄원에도 응답한다.

61. 나는 큰 무능함과 무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약한 자들의 수호자이다. 나는 우는 자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신성한 희망이며, 고통과 속죄 속에서 신음하는 자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는 자비로운 예수이다.

62. 나는 너희의 구세주요, 너희의 구속자이다. 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다. (248, 18-21)

제23장 –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

신성한 영감

1. 제자들아: 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지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그것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확실함이 너희를 괴롭힐 때면 들판의 고독 속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곳, 자연 한가운데서, 오직 드넓은 들판과 산들, 그리고 창공만이 증인이 되는 그곳에서, 너희 스승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라. 그분의 말씀에 깊이 잠기라. 그러면 곧 그분의 사랑 어린 응답이 너희에게 닿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지탱받고, 영감을 받으며, 알 수 없는 영적 황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2. 이 방식으로 너희는 더 이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 것이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성소이기 때문이다.

3. 너희가 준비가 되어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마다, 빛을 향한 너희의 갈망은 신성한 빛을 끌어당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자주 말했느냐? 산속의 고독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게 너희의 근심과 고통, 그리고 궁핍함을 털어놓으라.

4. 예수께서는 "제2의 시대"에 자신의 모범을 통해 이 교훈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셨다. 내가 설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물러났던 나의 본을 기억하라.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지내던 마지막 날들,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위해 감람산 숲의 고독을 찾았던 것을 기억하라.

5. 자연은 창조주의 성전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그분께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아버지의 기운을 직접적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곳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주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영감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어, 너희가 가는 길에서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느낄 것이다. (169, 28-31)

6. 제자들아,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이 대변자를 통해서만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이 잠든 순간에도 너희 영혼에게 나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준비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고, 너희 영혼을 세속적인 것에서 해방시켜 빛의 영역으로 승천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 영혼은 자신의 길을 밝히는 계시를 받게 될 것이며, 그 후 그 메시지를 이성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100, 30)

7. 너희가 때때로 믿었던 것처럼, 나는 결코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너희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적도 없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던 적도 없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너희는 더 높은 감각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육신의 감각으로 나를 인지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사람들에게 이를 허락했던 시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 일이다.

8. 만일 너희가 영적 관상, 기도, 예지력, 예언적인 꿈, 혹은 영적 환시 등을 통해 내면의 고양과 같은 너희의 영적 능력 중 몇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는 나와 연결되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의 질문에 대한 답과 신성한 영감을 너희의 생각 속에서 받았을 것이다.

9. 나는 언제나 너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너희가 고양되고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의 영에 나를 드러냄으로써 너희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은총을 얻기 위해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324, 52-54)

10. 너희의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정직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구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이웃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허영심을 덜 품고 내게 구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영감을 내려 주리라.

1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쌓아온 참된 지식은 모두

나에게서 온 것이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순수하고 고귀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허락한 것이므로, 이 시기에 너희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사용할 것이다. (17, 59-60)

12. 지금은 내 영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과 영혼, 이성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때이다. 내 목소리는 생각과 시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스스로 진리에 눈을 뜬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잠들어 있으며, 세상이 결코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06, 63)

13. "제3의 시대"에 나는 내 계시의 명료함으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 즉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 자신을 전달하는 일을 이루어 냈다.

14. 제자들아, 나를 이해하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과 영의 대화 속에서, 너희는 영원히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준비하는 법을 안다면, 더 이상 나에게 "주님, 왜 오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와 준비 부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15. 나는 제자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마음속으로 내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스승님,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을 느낍니다. 당신의 지혜는 나의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서 듣고자 하는 진정한 고백이다. (316, 54)

신성한 계시를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기

16. 신성한 것을 드러내기에는 너희의 언어가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비유와 은유로 너희에게 말해야만 했다 ; 그러나 이제 너희는 — 비록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했음에도 — 너희가 나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계시를 깊이 탐구하려는 필요한 의지가 너희에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14, 50)

17. 너희는 모든 시대에 나를 기다려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마다, 너희는 준비와 영성이 부족하여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임재가 어떤 형상을 취하든, 그 안에는 언제나 진리와 신성한 생명의 정수가 담겨 있을 것이다.

18. 내가 세상에 나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형상을 사용했다고 너희에게 말했노라. 그러나 그것들은 내 영을 너희에게 숨기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나를 인간화시키고 제한하여,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를 듣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노라.

19.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영혼에 빛이 비추는 확신이나 깨달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먼저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97, 11-12)

20. 사람들이 맹목과 무지 속에 머무르는 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인간화되고, 제한받으며, 작아지셔야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언제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너희가 보아야 할 그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겠느냐?

21. 너희는 내 위대함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해져야 하며, 그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위대함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오고 있다.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너희 위에 울려 퍼지는 신성한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다. (99, 26-27)

22. 시나이 산에서 아버지가 계시하신 것의 외적인 부분은, 그 안에 신성한 율법을 새겨 넣는 수단이 된 돌이었다.

23.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서 외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육신, 즉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24. 오늘날 내 계시의 외적인 부분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였으므로, 이 계시 형태는 과거의 것들처럼 끝을 맺어야 한다.

25. 너희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양육받아야 할 영적 백성의 자녀들임을 깨달아라. 너희가 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외적인 예배 행위나 의식,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4, 69-71)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 방식

26. 인류는 심연에서 그들을 구해 줄 새로운 메시아의 방문을 갈망하거나, 적어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조금만 관찰하거나 명상 중에 너희 영혼을 가다듬어 감수성을 키우면 , 모든 것이 너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돌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불가능해 보인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너희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위대함과 교만, 그리고 물질주의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 함이라. (61, 49)

27. 옛날의 깨달은 이들은 언제나 빛의 광채를 보았고, 언제나 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영감을 받은 자들, 선구자들, 그리고 높은 영성을 지닌 교리의 창시자들은 구름과 산, 바람, 혹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마치 불꽃과 신비로운 메아리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많은 이들은 감각을 통해 듣고 보고 느꼈으며, 다른 이들은 영적인 자질을 통해 그렇게 하였으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신의 감각으로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은 신성한 영감을

영적으로 해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 살았던 시대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영적 준비 상태에 따라 행한 것이었으며, 지금 너희가 "음성의 전달자" 혹은 "은사의 전달자"라고 부르는 인간의 도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들은 과거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신성한 계시의 순수함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변에 만연하던 생각들을 섞어 넣었으며,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진리의 순수함과 무한한 본질을 변질시켰으니, 진리는 실로 그 가장 높은 계시에서 사랑 그 자체이다.

29. 영적인 진동과 영감은 그들 안에 있었으며, "첫 번째 사람들"과 "마지막 사람들" 모두 그들의 영에 닿은 이 영감에 대해 증언해 왔고 앞으로도 증언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 또 다른 이들에게 일어날 것과 똑같이, 거의 항상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30. 말과 해석, 그리고 행동 방식은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기인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진리가 있다. (16, 11-14)

31. 때때로 내 영은 너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너희에게 말해야 할 이 필요성은, 내 법에 대한 너희의 불순종과 참된 길에서 벗어난 너희의 행태에 기인한다.

32. 인간은 누리고 있는 자유 의지 때문에 피조물 중 가장 반항적인 존재이다. 오늘날까지 그는 양심의 지시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33. 나의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제동을 걸고, 다른 이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이를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심연에서 구원하고자 한다.

34. "제2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 내가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갖지 말라. 내가 결코 두 번 같은 방식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라. 그것은 너희를 똑같은 가르침에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고, 너희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기 위해 온다. (283, 39-42)

35. 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해진다: 양심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는 시련을 통해서, 자연의 힘을 통해서, 혹은 나의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말씀은 보편적이다. 준비하는 자라면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264, 48)

신성한 계시의 필요성

36. 나의 신성한 가르침은 오직 영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도 닿아야 하며, 그래야만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37. 신성한 말씀은 이성을 깨우치고 사람의 마음을 감수성 있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말씀에 담긴 생명의 정수는 영혼을 양육하고 고양시키도록 되어 있다.

38. 인간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물질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고 고군분투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39.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 어둠, 불행, 비참함, 그리고 죽음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0. 유물론자들은 이에 반박하여, 사람들은 이미 땅과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여정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힘을 실어주는 영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이는 완전하고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영성처럼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존재일 뿐이다. (326, 58-62)

41. 나는 언제나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었으며, 항상 너희의

이해력과 마음의 수용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왔다. 내가 너희에게 내려온 것은, 너희의 보잘것없는 삶으로 몸을 낮추어 너희를 더 나은 삶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226, 54)

42. 여기에는 '제2의 시대'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지혜를 학자들과 교양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시고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43. 그렇다, 나의 백성아. 너희가 학자라고 부르는 자들은 거만해져서, 그들이 내게서 받은 빵 부스러기라고 여기는 것만을 가르치며 평민들을 억누르려 한다.

44. 반면 가난한 자들, 즉 "소시민"들은 삶이 가져오는 고난과 그에 따르는 결핍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된다.

45. 이제 내가 덧붙이겠다. 탐욕스러운 자가 관대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내가 덕을 실천하며 사는 자를 위해 준비해 둔 모든 것을 즉시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편파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50, 17)

신성한 계시의 무한함

46. 제3의 시대를 밝힐 이 가르침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은 아니다. 영적인 것에는 끝이 없다. 나의 법은 신성한 태양처럼 모든 양심 속에서 빛난다. 정체와 쇠퇴는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악덕, 약점, 혹은 정욕의 방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47. 인류가 일단 자신의 삶을 영적인 토대 위에 세우고,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영원성의 이상을 품게 된다면, 인류는 진보와 완전함의 길을 찾게 될 것이며, 다시는 상향

발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112, 18)

48. 너희가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영적 삶에 대해 너희에게 계시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신성한 가르침은 첫 번째 인간이 태어났을 때 시작되었으며, 세상이 존재하기 전인 영들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289, 18)

49. 사람들이 아직 자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조차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이 아는 것에 국한된 신을 상상했다.

50. 그러나 그들의 지성이 하나하나 신비를 풀어감에 따라, 그들의 눈앞에서 우주는 점점 더 넓어졌고, 경탄하는 인간의 지성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51.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너희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어야만 했다.

5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내 계시에는 물질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가? 아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지식은 너희가 보고 오랫동안 탐구해 온 자연 너머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내 계시는 영을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차원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준다.

53.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 즉 영적 세계가 자신을 드러내고 너희 삶 속에 현현한다는 것,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와 영역들이 너희에게 자신을 알린다는 것이 너희에게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이상하게 보이나? 너희는 과연 너희의 깨달음이 멈춰 서고,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더 이상 계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가?

54. 관습에 얽매여 믿지 말고, 너희 영의 깨달음에 한계를 두지 말라!

55. 오늘 너희는 영적 가르침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박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내일 진리 앞에 굴복할 것임을 안다.

56. 모든 신성한 계시는 나타날 때마다 반대와 거부를 받았으나, 결국 그 빛은 승리하였다.

57. 과학의 발견들 앞에서도 인류는 마찬가지로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275, 64-70)

58. 인류의 심장에서 성령의 성전이 무한히 솟아오르면, 그 가운데 새로운 계시들이 나타날 것이며, 영혼들이 위쪽으로 발전할수록 그 계시들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242, 62)

59.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을 때,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민족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의 영은 보편적이며 모든 피조물을 포용하는데, 과연 누구라도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60. 모든 것은 살아 있으며 나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그러므로 나의 보편적인 광선이 온 지구상에 내려왔고, 영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에서 나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이는 내가 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176, 21)

61. 나의 뜻을 따라 음성 전달자들을 통한 나의 계시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 백성에게 이 진리를 증언하고 전파하며 세상에 "제3의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규범, 법, 그리고 기초가 될 짧은 준비 단계여야 한다.

62.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가 번개처럼 덧없이 지나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계시에 참석하여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은 것은 오직 몇몇 사람들뿐이라는 것도 예정되어 있었다.

63. 반면에 영과 영의 대화는 시간적 제한 없이 온 인류에게 닿을 것이니, 이는 나를 찾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느끼는 이 방식 이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이다. (284, 41-43)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존

64. 나는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아, 너희가 나의 영의 자녀로서 나를 느끼도록 배우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본질로 이루어져 있고, 나의 일부인데, 어찌 내 현존을 너희 안에서 느끼지 못하겠느냐?

65. 너희가 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영성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아무리 많은 징후와 감성적 인상을 받아도 너희는 그것들을 물질적인 원인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66.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일부인 이상, 너희 존재 안에서 나를 느끼는 것이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 점을 고려할 때, 너희의 영이 마침내 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노라. 너희는 길을 잃었고, 이 땅에서 위대해지려는 욕망 속에서 영적으로 더 작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331, 25-26)

67.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내게 "주님, 왜 저를 멀리 떠나 계십니까,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인생의 길에서 제가 홀로라고 느껴집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68.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결코 내 자녀들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했고, 너희 스스로 나를 거부하며 너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336, 60)

69. 나는 너희가 나를 멀리 있다고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영성화를 통해 모두 나를 느끼고, 나를 직접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은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영적으로 너희는 나의 현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영이 나의 영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342, 57)

VI. 창조

제24장 – 영적 창조와 물질적 창조

영적 존재들의 창조

1. 세계가 생기기 전, 모든 피조물과 물질이 생명을 얻기 전부터, 나의 신성한 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물의 일체로서 나는 내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으니, 나는 마치 신하 없는 왕과 같았고, 제자 없는 스승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닮은 존재들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내 온 생애를 바치고, 그들을 그토록 깊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에게 내 피를 바치기로 결심했다.

2. 너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미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말해도 놀라지 마라. 그렇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345, 20-21)

3. 신성한 영은 홀로 존재하셨음에도 사랑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신성한 존재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사랑하셨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느끼셨습니다.

4.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의 아버지로 느끼셨는가? 그것은 그분에게서 나올 모든 존재와 모든 피조물들이었으며, 그들의 힘이 그분의 영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 영 안에는 모든 학문과 모든 자연의 힘, 모든 존재들, 모든 창조의 기초가 있었다. 그분은 영원이시며 시간이셨다. 세상과 존재들이 생명을 얻기 전부터, 그분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었다.

5. 그 신성한 영감은 신성한 사랑의 무한한 힘 아래서 현실이 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다. (150, 76 79) 6.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불릴 수 있도록, 그분은 자신의 품에서 영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신성한 속성을 닮은 피조물들이었다. 이것이 너희의 기원이었으며, 그리하여 너희는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났다. (345, 22)

7.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즉 나의 능력을 누군가와 나누고자 하는 신성한 갈망이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신 이유 또한 사랑이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싶었다. 법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에서 자유롭게 솟아나는 자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었다. (31, 53)

8. 모든 영은 신성의 순수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영들은 창조주의 완전한 작품이다. (236, 16)

창조 사업에서 위대한 영들의 활동

9. 엘리야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위대한 영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칭한다. 나는 그와 다른 위대한 영들을 통해 영적 우주를 움직이고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실행한다. 그렇다, 나의 제자들아, 나는 창조계를 다스리는 수많은 위대한 영들을 내 곁에 두고 있다. (345, 9)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생각

10. 들으라, 제자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내 영 안에는 너희의 영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아무런 공로도 쌓지 않은 채 내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거나, 누가 너희를 창조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미 존재하는 것을 소유하게 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너희가 방향도, 목표도, 이상도 없이 나를 떠나가게 하려 하지 않았다.

1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영을 주어 너희의 인도자가 되게 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은, 너희의 행위가 내 앞에서 참된 가치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주어, 그것이 언제나 빛나고 순수한 것으로 승화되기를 갈망하게 하였노라. 나는 너희에게 육신을 주어, 너희가 마음을 통해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고, 또한 그것이 너희에게 시금석이 되며, 끊임없는 시험이 되며, 나아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였노라. (35, 48-49)

영적 존재들을 위한 물질 세계의 창조

12. 공간이 영들의 존재로 인해 처음으로 밝아졌을 때, 그들은 — 아직 어린아이들처럼 비틀거리며 더듬거리고, 높은 영성의 장소에 머물 수 있는 발전이나 힘도 없었기에 — 자신을 강하게 느끼기 위한 지주, 발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물질과 물질 세계가 주어졌고, 그들은 새로운 상태에서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다. (35, 50)

13. 우주는 존재들로 가득 찼고,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 지혜가 드러났다. 주님께서 원자들이 결합하여 존재와 육체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형체를 부여하라고 명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품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과 같았다.

14. 먼저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였고, 먼저 영적 존재들이 있었으며, 그 후에야 비로소 물질적 자연이 생겨났다.

15. 많은 영적 피조물들이 물질 세계에서 살기 위해 육체의 형상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으므로,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준비된 상태로 만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것이 마련되었다.

16. 그분은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주에 생명을 넘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신성한 불꽃, 즉 영과 영혼을 심어주신 인간의 길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사랑을 바탕으로 지성, 힘, 의지, 의식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감싸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소명을 보여주셨다. (150, 80-84)

17.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을 속죄의 장소로 정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자녀들이 그 여정에서 약점과 과오에 빠질 것임을, 그리고 갱신과 완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안식처가 필요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 (250, 37)

인간의 창조

18. 들으라: 지극히 높으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가진 물질적인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지닌 능력, 즉 아버지의 능력과 유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19. 창조주의 형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너희의 허영심에 얼마나 달콤했는지. 너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도로 발달한 피조물이라 여긴다. 그러나 우주가 오직 너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얼마나 무지한지, 너희는 스스로를 창조의 정점이라 칭한다!

20. 지구조차도 오직 인간만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 신성한 창조의 끝없는 사다리 위에는 신성한 법을 성취하며 발전해 가는 무수한 영혼들이 있다.

21.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목적들은, 비록 원한다고 해도 인간인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나, 아버지의 모든 뜻과 마찬가지로 위대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주님의 피조물 중 가장 큰 존재도, 가장 작은 존재도 아니다.

22. 너희는 창조되었고, 그 순간 너희의 영은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에는 너희가 영원 속에서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특성이 담겨 있었다. (17, 24-28)

23. 나의 걸작인 인간의 영혼 속에 나는 나의 신성한 빛을 두었다. 나는 정원사가 정원의 귀한 식물을 돌보듯, 무한한 사랑으로 그것을 가꾸어 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이 삶의 공간에 너희를 두었다. 나는 너희 영혼에게 내세(來世)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너희 육신에는 감각을 주어 너희가 활력을 얻고 온전해지도록 하였다.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고, 이 진보와 완성의 길을 통해 내 법의 완전함을 체험하며, 생애 동안 나를 점점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너희의 공덕으로 내게 이르도록 이 세상을 너희에게 맡겼다.

24. 나는 너희에게 자유 의지의 은사를 허락하고 양심을 부여하였다. 전자는 너희가 내 법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너희가 내 법을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알려주는 완전한 심판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25. 양심은 내 신성한 영에서 나오는 빛으로, 단 한 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2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평화와 행복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이자, 또한 내 모든 말씀의 성취이다. (22, 7-10)

낙원에 대한 기억

27. 최초의 인간들, 즉 인류의 조상들은 한동안 그들의 영혼이 '영적 계곡' 에서 가져온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평화, 그리고 기쁨에 대한 인상으로, 육신의 정욕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 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

2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 사람들의 영혼은 비록 빛의 세계에서 왔지만, 너희가 오직 공덕을 통해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향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첫발을 내디딜 때 간직했던 순수함과 평화, 안녕, 그리고 건강의 상태는 빛의 시대로서 잊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 증언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또 그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다.

30. 그 증언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한, 물질에 사로잡힌 인간의 이성은 결국 첫 인간들이 살았던 낙원이 지상의 낙원이었다고

믿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 피조물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287, 12-13)

인간의 본성

31.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너희 존재는 이 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영이 있다. 전자는 빛의 딸이며, 후자는 땅에서 비롯된 물질이다. 둘은 하나의 존재 속에 결합되어 있으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의 인도하에 서로 싸운다. 이 싸움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결국 영혼과 육체는 조화를 이루어 내 법이 각자에게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32. 너희는 영혼을 마치 한 그루의 식물인 것처럼, 그리고 몸을 마치 땅인 것처럼 상상할 수도 있다. 물질 속에 심겨진 영혼은 자라나며, 인간으로서의 삶 동안 받는 시련과 교훈을 양분 삼아 곧게 뻗어 올라간다. (21, 40-41)

창조주와 피조물의 일체성

33. 하나님의 영은 마치 끝없이 거대한 나무와 같아서, 그 가지들은 세계들이고 잎사귀들은 존재들입니다. 줄기를 통해 모든 가지로, 그리고 가지들을 통해 잎사귀로 흐르는 것은 하나이며 동일한 수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를 서로 연결하고 창조주와 하나로 묶어주는 영원하고 거룩한 무엇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21, 38)

34. 만물을 포용하는 나의 영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 모든 것에는 나의 역사가 현존하며, 모든 삶의 차원에서 나의 완전함을 증언하고 있다.

35. 나의 신성한 작품은 내 우편에 거하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존재들부터, 모든 피조물에게 형체를 부여하는 식물이나 광물, 원자나 세포에 이르기까지, 간신히 감지될 수 있는 미생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36. 이를 통해 나는 너희에게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노라 —
물질적 존재들부터 이미
완전함에 도달한 영들까지.
이것이 나의 작품이다. (302, 39)
37. 최고의 법칙인 영적
법칙에서 벗어나는 자는,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하위
법칙이나 물질적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고의 법칙에
순종하고 그와 조화를 이루는
자는, 너희가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질서 위에 서
있으며, 과학이나 종교에서 얻은
지식만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이
느끼고 이해한다.
38.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너희가 기적이라 부르는
행적들로 너희를 경탄하게 하신
이유이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으로 너희에게 주신
가르침을 깨달아라. 온 창조계에
울려 퍼지는 신성함 안에는
초자연적인 것도, 모순된 것도
없음을 이해하라. (24, 42-43)

제25장 - 자연

자연의 법칙

1.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일(全一)로, 너희의 영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기적으로, 온 우주의 움직임과 작용을 일으키는 힘으로, 가장 단순한 식물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수백만 개가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세계들에서도 드러나는 생명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쳤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에 불복종하지 않는다.
2. 그 법칙은 바로 나, 너희의 하나님이며, 인간을 놀라게 하고 그에게 광활한 연구의 장을 열어주어, 자연의 신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끊임없는 발전의 법칙이다. (359, 74-75)
3. 그 법칙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의 사랑으로 닦아진 길이며,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라. 너희를 둘러싼 삶, 즉 무수한 원소와 유기체로 이루어진 삶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결국

모든 물질과 존재가 겉보기에는
낯설고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끌리는 듯한 길이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제정하신 법이다.
4. 이 중대한 과정들을 탐구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실제로는
최상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고,
움직이며, 성장한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15, 4)

자연 속의 하나님의 현존

5. 내가 이룬 모든 작품 속에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어디서나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들으려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력한
목소리 속에서 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존재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6. 나는 별 속에서도, 폭풍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리고
아침 노을의 사랑스러운 빛
속에서도 나를 드러낸다. 나는
새의 선율 있는 노래 속에 내
목소리를 울리게 하며, 꽃의
향기를 통해서도 나를 드러낸다.
그리고 나의 모든 표현 형태,
모든 측면, 모든 작품은 너희에게
사랑과, 정의의 법칙의 성취,
지혜, 영적 세계에서의 영원에
대해 말해 준다. (170, 64)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영적 세계의 비유

7. 많은 이들이 자연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적 근원으로서
신격화함으로써, 자연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존재가 그 품에서 나온 이 자연—
너희를 둘러싼 물질적 힘과
자연계—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것은 이전에 신성한 창조주에
의해 계획되고 창조된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원인도, 근원도
아니다. 오직 나, 너희의 주님만이
시작이자 끝,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26, 26)
8. 이 생에서 너희를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은 영생의
형상이며, 이해될 수 있도록

물질적 형태와 사물을 통해 설명되는 심오한 가르침이다.

9. 너희는 아직 이 놀라운 가르침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인간은 지상에서 사는 삶을 마치 영원인 양 여겼기 때문에 다시금 착각에 빠졌다. 인간은 겉모습만을 다루는 데 만족하고, 그 안에 담긴 신성한 계시, 즉 온 창조물에 존재하는 본질과 진리를 모두 외면해 버렸다. (184, 31-32)

10. 나는 내 자녀들의 보존과 건강, 양식, 안녕과 기쁨을 위해 내가 자연 속에 심어 둔 것 중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숨기지 않으리라.

11.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베풀고 신성한 정수를 들이마시며 영적인 향기로 기를 되살리도록 초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자연이 너희에게 베푸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조화, 건강, 활력을 얻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생명의 법칙을 올바르게 성취하게 될 것이다. (210, 22)

12.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는 본능에 이끌리는데, 본능은 그 존재의 내면의 목소리이자 스승이며 인도자이다. 본능은 마치 어머니인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빛과 같아서, 그 존재가 생애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 이 길 또한 위험과 위기가 도사린 길이다.

13. 각 종이 살아가는 조화, 부지런히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충성이나 감사의 모범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들은 신성한 지혜를 담고 있는 본보기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피조물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너희의 세상에서 너희를 둘러싸고 동행하며, 내가 지구에 심어 놓은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320, 34; 37)

자연에 대한 하느님의 자녀들의 권능

14.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고, 너희 이웃의 복을 위해 나에게

간구할 때, 자연의 힘들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18, 47)

15. 내가 너희에게,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조차도 너희의 기도를 듣고 진정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자녀들이 준비를 마쳤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39, 10)

16. 나는 영이 시련을 이겨내고 그 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에게 물질에 대한 권능을 주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거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믿는 유일한 왕국을 세운 이래,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해야 할 조화를 파괴해 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교만한 왕좌에서 그는 모든 것을 과학의 힘 아래 복종시키고, 자연의 원소와 힘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영적 법칙과의 우정의 끈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17. 내가 지금 이곳의 이 백성들에게 자연의 힘이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에게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은 결코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영과 물질의 법칙에 따라 사는 법을 아는 자, 즉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자는 생애 동안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되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처럼, 자연의 요소들이 자신을 섬기고 순종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105, 39)

18. 내가 너희에게 자연의 왕국들이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에게 순종하며 존중한다고 말할 때,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다.

19.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 진리의 증거로 기록되었으며,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의 힘과 요소들로부터 거듭거듭 인정받고 존중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어찌 너희에게 해당되지 않겠느냐?

20. 너희는 내 능력이나 인류에 대한 내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아, 내 영의 빛이 너희를 감싸고 있으니, 내 능력과 내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다. (353, 64)

인간과 자연

21. 그러나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 오 지상의 백성들아.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신성한 영감을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한다면 — 너희가 가진 미약한 지식을 계속해서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너희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통스럽고 엄중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공기, 불, 흙, 물, 그리고 모든 힘을 거스르고 있으며, 너희의 무분별함으로 인해 풀려난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있도록 제때에 너희의 행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이미 알고 있다.

22. 나는 너희가 나의 정의가 너희의 자유 의지에 허용하는 한계를 채우려 하고 있음을 주의를 환기한다. 너희는 자연을 너무나도 거스르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작으면서도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들이기에, 이 말씀은 너희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전해지는 것이다. (17, 60)

23. 나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나는 자연의 어떤 요소도 내 뜻 외에는 따르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말한다.

24. 또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연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축복과 어루만짐, 양식을 아낌없이 베푸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굶주림과 갈증이 지배하는 메마른 사막이 될 수도 있다; 삶과 선, 사랑, 영원에 대한 지혜롭고 무한한 계시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모독을 마주한 무자비한 심판자가 될 수도 있다.

25. 나의 아버지의 음성은 첫 인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6. 그렇다, 인류여, 나는 인간이 공중과 물속, 온 대륙과 창조의 자연계에서 주인이 되어 권세를 갖도록 그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학으로 지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노예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자연의 원소들을 지배한다고 믿지만, 그들은 자신의 미성숙함과 오만함, 무지함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7. 인간의 힘과 과학은 땅과 바다, 그리고 공중을 정복하였으나, 그들의 힘과 권세는 신성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생명과 지혜, 조화와 완전함인 자연의 힘과 권세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업적과 과학, 그리고 권력 속에는 오직 오만과 이기심, 허영과 악의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40, 26-30)

28. 너희는 자연의 힘들이 균형을 잃은 것과 그들이 겪은 가장 심오한 변화를 깨닫고 있는가? 너희는 왜 그 힘들이 풀려나 너희를 괴롭히는지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영적 삶과 물질적 삶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깨뜨렸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너희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 혼돈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생명을 지배하는 법칙에 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평화와 풍요, 그리고 행복으로 돌아갈 것이다. (108, 56)

29. 너희가 바로 너희의 생계 수단인 자연의 요소들과 적대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너희의 지상에서의 행실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30.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자연의 요소와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31. 너희 손에 있는 자연의 힘은 친구와 형제에서 너희를 엄하게 벌하는 심판자로 변할 수 있다.

32. 사람들이 더 이상 자연의 힘을 거스르지 않도록, 경험의 열매를 거둘 때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10, 43-46)

33. 과학의 나무는 회오리바람의 격노 앞에서 흔들리며 그 열매를 인류에게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 원소들의 족쇄를 풀어준 자가 인간 외에 누가 있겠는가?

34. 비록 옛날의 인간들도 현실을 깨닫고, 양심의 빛으로 나아가며, 법에 복종하게 되기 위해 고통을 겪기는 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발전되고, 의식이 있으며, 교양 있는 인간이 어찌 감히 생명의 나무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288, 28)

35. 내가 자연의 힘을 그들에게 풀어놓음으로써 인간을 벌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에 빠진 것이라고 말한다. 자연은 발전하고 변화하며, 그 변화나 전환 과정에서 격변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는 너희에게 한 고통을 초래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신의 벌로 돌린다.

36. 비록 그들 안에서 나의 정의가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가 — 너희 영혼을 비추는 신성한 불꽃으로 축복받은 존재들로서 — 너희를 둘러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면, 너희의 영은 자연의 변화와 그 힘의 거세함 위로 너희를 들어 올려 주었을 것이며, 너희는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280, 16)

37. 자연이란 거대한 피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 제자들아, 자연은 그 품에 내일의 인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하고, 정화되고, 펼쳐지며, 완성되어 가는 피조물이다.

38. 너희는 그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자연의 과도기적 현상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불만을 품으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벌로 여기는가? 너희

자신도 자연과 창조물과 함께 정화되고, 발전하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283, 57-58)

제26장 - 다른 세계들

그리스도의 보편적 빛

1. 한때 내가 너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말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은 세상 너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영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세계와 하늘, 그리고 거처들의 삶을 비추며, 모든 존재와 피조물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주적 빛이다. (308, 4)

2. 나는 영원한 씨 뿌리는 자이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불리기 전부터 나는 이미 씨 뿌리는 자였으며, 물질화나 오류, 무지 너머에 있던 자들—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 영역과 거처에 거주하던 자들—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3.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나를 알았던 이들 중에서, 나는 너희에게 많은 이들을 보내어 세상에서 나를 증거하고, 사랑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언자였고, 어떤 이들은 선구자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사도였다.

4. 내 발자취가 남은 곳은 이 세상만이 아니다. 구세주가 필요했던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 있었다.

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다른 세상들에서는 너희 형제자매들의 갱신과 사랑으로 인해 나의 십자가와 잔이 제거되었으나, 이곳 이 세상에서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가시관으로 관을 쓰고, 너희의 불완전함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며, 여전히

담즙과 식초가 담긴 잔을 마시고 있다.

6. 나의 사랑의 사역은 온 인류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에, 나는 무한한 인내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승천 기회를 허락해 주었고, 깊은 무감각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이 깨어나기를 수많은 시대를 거쳐 기다려 왔다. (211, 26-29)

7. 완전함에 이르는 사다리에는 많은 계단이 있고, "영적 계곡"과 끝없는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나를 드러내었으며, 그들이 처한 세계의 영적 단계에 따라 그들 가운데서 나의 계시가 이루어져 왔다. (219, 34)

8. 인간 피조물들이 나의 신성, 나의 존재, 나의 가르침을 논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로 하여금 완전함 속에서 사랑받는 세계들이 있다.

9. 어떤 이들은 가장 높은 영적 순수함에 도달한 반면, 너희 행성은 도덕적, 영적으로 큰 타락의 시기를 겪고 있다. (217, 65-66)

세계들 사이의 영적 연결

10. 나의 신성한 빛은 어디에나 비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1. 나는 모든 자녀들 사이에 조화가 깃들도록 노력하는 아버지이다. 지구에 거주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사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12. 모든 존재들 사이의 영적 조화는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드러내 줄 것이며, 거리를 좁히고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하며, 대립과 경계를 없애 줄 영과 영의 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286, 1-3)

13. 인간은 영성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높은 삶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형제들과 교감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4. 그는 또한 발전 수준이 낮은 존재들, 즉 뒤처진 존재들이

머무는 삶의 차원으로 내려가, 그들이 비참한 삶을 뒤로 하고 더 나은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15. 영혼이 완성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는 매우 길다. 그 위에서 너희는 무수히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존재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이고, 그들도 또한 너희에게 그들의 영적 풍요로움 중 일부를 선물할 것이다.

16.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만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일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행성에서 영혼이 발전하고, 모든 곳에서 영혼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며 활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가 모든 형제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며 돕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속에서 그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한다.

17. 내 이름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너희의 생각을 통해 이를 실천하라. 이 수행을 시작하면, 너희는 점차 그들의 간구와 가르침, 그리고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18. 나는 너희가 현재 너희의 고향인 이 행성 안팎에 있는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정의 유대를 맺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며, 또한 너희가 가진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도 서둘러 도움을 주라. (320, 44-46)

다른 세계와 생명체들을 알아가기

19. 너희는 종종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주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저 별들이 너희의 세상과 같은 세계들인지 나에게 물었다.

20. 너희의 호기심에 대한 나의 대답은 신비의 베일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한 필요한 성숙도를 갖추지 못했고, 다른 세계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성 또한 갖추지 못했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21. 너희는 아직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주는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벌써 다른 세계들을 찾으려 한다. 너희는 같은 세계의 주민으로서 서로 형제가 되는 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발견하려 한다.

22. 우선은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고 말했던 것과, 지금 그 말씀을 확인하며 너희가 우주의 유일한 거주자가 아니며 너희 행성이 유일한 거주 행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3. 미래 세대들은 다른 세계로 이끄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24. 자비와 평화가 꽃피는 선과 사랑은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우주적 조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될 것이다.

25. 오늘날 너희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기심이 너희로 하여금 영혼의 자유와 고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세상'만을 위해 살게 했기 때문이다.

26. 인간의 결점들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게 된다면, 허영심에 찬 너희들—물질주의로 인해 작아져 버린 존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뿌릴 씨앗은 무엇이겠느냐? 불화, 무분별한 야망, 허영일 것이다.

2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그 지식과, 그를 괴롭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로부터 그의 생각을 해방시켜 줄 그 계시를 얻기 위해, 인간은 크게 정화되고 깨어 있으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28. 내 비밀을 그에게 밝혀 주는 것은 과학만이 아닐 것이다.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영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29. 사람들의 삶이 일단 영성을 반영하게 되면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넘어 탐구하기 위해 애쓸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더 높은 거처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292, 3-11)

별들의 운명

30. 너희 아버지의 집에는 완전함으로 이끄는 사다리의 무한한 계단들인 많은 "거처"들이 있다. 거기서 "영적 세계"가 내려와 너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낸다.

31. 너희는 영과 영 사이에서, 너희 세상 위에 빛나는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나에게 여러 번 물으며, "스승님, 그 세계들은 비어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

3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완전히 계시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람이 영성을 얻어야 비로소 그에게 큰 계시가 주어질 것이며, 그는 내 신성의 그 사랑받는 존재들과 영과 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때 모든 형제들 사이에 생각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33. 그러나 너희는 이미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세계는 나의 피조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텅 빈 곳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신성한 자애의 화신인 마리아가 돌보는 축복받은 영역이자 정원이다.

34. 성령께서는 너희 입을 통해 너희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높은 가르침을 다시 전하실 것이다. 언제인가, 사랑하는 백성들아? 바로 너희 안에 영성이 깃들고 너희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이다. (312, 10-12)

35. 보아라, 나의 백성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너는 모든 별 속에 약속이 담겨 있음을, 너를 기다리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생명 세계들이며, 너희 모두가 거하게 될 곳이다. 너희는 모두 내 왕국을 알게 될 것이니, 그것은 단지 특정 존재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될 보편적인 고향으로 창조된 것이다. (12, 24)

제27장 - 저 세상

영적 삶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

1. 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영적 가르침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목격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나의 법과 가르침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한 고향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덕적 교훈으로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2. 여러 교파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 지식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심어 놓았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내 계시를 피하고 무지의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그들은 영적 삶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라고 주장하며 이를 변명으로 삼고 있다.

3.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류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는 영적 삶에 대해 말해 온 것이다. 비록 너희가 아직 모든 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기에 내가 너희에게 내 가르침 전부를 주지 않았을지라도, 때가 되면 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계시하신 것만으로도 너희가 영적 삶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25, 38-40)

4. 어떤 이들은 갈망하는 영적 삶이,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부정당하고 심지어 조롱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이를 품어주는 품이며,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는 팔이며, 영의 조국입니다. 이는 학자들에게조차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문을 여는 열쇠로 사랑을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80, 40)

"천국"과 "지옥"

5. 사람들은 지옥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상상해 왔으며, 그들의 생각에 내 계명을 어긴 모든 이들이 그곳으로 간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중대한

죄를 위해 이 지옥을 만들어낸 것처럼, 경미한 죄를 위한 또 다른 장소를 상상했고, 선도 악도 행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또 다른 장소도 상상했다.

6. 내세에서는 기쁨도 고통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 없는 자도, 기쁨 없는 자도 없다. 영혼이 지극한 평화를 얻기 전까지는 고통과 기쁨이 항상 뒤섞여 있을 것이다.

7. 들어라, 내 자녀들아: 지옥은 육신을 가진 자와 더 이상 육신을 갖지 않은 자, 이 세상의 주민과 영적 계곡의 주민 모두에게 존재한다. 지옥은 중대한 죄를 지은 자들이 겪는 심한 고통, 끔찍한 양심의 가책, 절망, 아픔, 그리고 괴로움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사랑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결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8. 반면,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를 상징하는 천국은 세상의 정욕을 등지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선택한 이들을 위한 곳이다.

9. 너희 양심을 되돌아보라. 그러면 너희가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죄를 속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의 평화로 충만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10.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영적 계곡'에 도달했을 때 거두게 될 너희 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각자는 자신의 지옥을 경험하고, 속죄의 세계를 거치며, 또는 신성한 영과의 고양과 조화가 주는 행복을 누린다. (11, 51-56)

11. 사람이 지상에서 내 왕국의 평화와 유사한 영적 평화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타락을 통해 악덕과 사악함, 양심의 가책으로 가득 찬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12. 내세에서도 영혼은 그 성향과 타락, 그리고 정열에 따라 어둠과 타락, 증오와 복수의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단지 세속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통해 상상할 뿐인 천국과 지옥은, 실은 영혼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는 덕과 발전을 통해
완전함의 정점에 이르렀고, 다른
하나는 어둠과 악덕, 그리고
망상의 심연에 빠져 있다.
13. 의로운 영혼에게는 자신이
있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는
창조주의 평화와 천국이 깃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불결하고 혼란스러운 영혼은
아무리 좋은 세상에 있다 해도,
내면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지옥을 끊임없이 느끼게 될
것이며, 그 가책은 영혼을
정화시킬 때까지 그 안에서
타오를 것이다.
14. 너희는 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의 모욕에
대해 영원히 복수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를
창조했다고 믿느냐?
15. 이러한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16. 어떻게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이 어떤 영혼이
맞이할 결말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일 것이다. 그들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 여기
스승이 계신다. 그들이 사랑이
필요하다면 — 여기 아버지가
계신다. 그들이 용서를
갈망한다면 — 여기 완전한
심판자가 계신다.
17. 나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의로움이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정화된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52, 31-37)
18. 아버지의 집이 가진 수많은
거처 가운데 어둠의 세계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곳에 그분의
빛이 있다. 그러나 영혼들이 무지
때문에 눈가리개를 한 채 그곳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19.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맹인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오직 어둠뿐이라고.
해의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82, 12-13)
20.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옥에 대한 상상을 품지 말라. 이 세상에는 너희가 전쟁과 적대감으로 만들어낸 삶보다 더 큰 지옥이 없으며, 내세에는 양심이 영혼에게 그 잘못을 상기시킬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 외에는 다른 불이 없기 때문이다. (182, 45)

21. 종교적 광신으로 인해 내세에서 오직 지옥의 형벌만을 기대하는 자들이 그 견해를 고수하는 한,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혼란은 인간의 이성의 혼란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이다.

22. 이제 너희는 묻는다. "스승님,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원은 모든 이에게 있지만, 그 어둠이 걷히기 전에는 평화와 빛이 그 영혼들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23. 혼란스러운 이성으로 인해 실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불쌍히 여긴 적이 있는가? 만약 저 세상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자기가 상상해 낸 지옥을 바라보는 그 존재들을 보게 된다면, 너희의 고통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227, 71)

24. 이 계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관념과, 과거에 너희에게 전해졌던 영원한 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하라.

25. "불"은 영혼을 괴롭히고 정화할 고통, 자기 고발, 그리고 회개의 상징이다. 마치 도가니 속에서 금이 정화되듯이 말이다. 이 고통 속에 내 뜻이 있으며, 내 뜻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

26. 만일 불이 인간의 죄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죄를 지은 자들의 모든 육신은 이 지상의 삶 속에서 불에 던져져야 할 것이다.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겠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 말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결코 영적 공간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 오히려, 일단 그 임무를 마치면, 그들은 땅속으로 가라앉아, 자신들이 생명을 얻은 자연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27.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불"이라 부르는 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또 다른 중대한 오해이다. 왜냐하면 영적 영역에는 물질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에서 태어난 것은 물질이며,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28. 나의 말씀은 어떤 신앙적 신념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아 인류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오류를 낳은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이다.

29. 내 법과 가르침이 영혼들을 오류와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영원히 끝없는 속죄 속에서 파멸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352, 44-48)

30. 어떤 이들은 죽음이 갑자기 닥쳐올까 두려워하여, 주님께 바칠 공덕이 없을까 봐 선행을 하려고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악을 멀리하지만, 단지 죄 가운데 죽어 이 생이 끝난 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할까 봐 두려워서일 뿐이다.

31.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의 신은 얼마나 일그러지고 불완전한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괴물 같으며, 잔인한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범죄를 합쳐도, 그것이 —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녀들을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정죄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그 끔찍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가장 높은 속성은 사랑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영원한 고통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신성한 속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64, 33-34)

32. 너희는 천국이 영원 속에 있는 한 영역이라고 믿으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침으로써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순간 용서를 얻고 나로부터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믿는 바이다.

33.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국은 특정 장소도, 지역도, 거처도 아니다. 영혼의 천국은 그 고귀한 감정의 세계이자 완전함, 즉 순결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항상 너희를 부르셨던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항상 귀를 막고 있던 너희에게 있는가?

34. 더 이상 무한한 것, 신성한 것을 제한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가 믿는 것처럼 — 특정 거처, 지역 , 혹은 특정 장소 — 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록 너희의 상상력이 온전한 실체를 다 포착할 수는 없더라도, 이제 영적인 것을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 가까워져야 한다. (146, 68-69)

천국의 음악

35. 너희는 천국의 천사들이 영원히 신성한 합창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 비유에 대해 생각할 때, 천국에서도 너희가 지상에서 듣던 것과 비슷한 음악을 듣는다고 믿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주의의 완전한 오류에 빠진 것이다. 반면에, 천국의 음악과 천사들이 그것을 들으며 누리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이 신성한 콘서트에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을 것이다.

36. 그러나 너희 각자의 영혼 속에 우주적 콘서트의 음률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어떤 이들은 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이들은 어째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가?

37. 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빛을 구하라. 명상 중에 나에게 묻거라. 너희의 질문이 아무리 광범위하더라도, 나는 영원으로부터 너희에게 답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희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니, 그리하여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리라.

38. 천상의 음악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이며, 너희가 영적인 아름다움인 참된 고양에 도달하게 되면, 그 콘서트 한가운데서 너희의 음색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음악이자 천사들의 노래이다. 너희가 이를 그렇게 체험하고 느낄 때, 진리가 너희 존재 안에서 반짝일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느낄 것이다. 삶은 너희에게 영원하고 신성한 콘서트를 선사할 것이며, 그 모든 음률 속에서 너희는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39. 너희는 아직 그 아름다운 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 때로는 감미로운 음들이고, 때로는 힘찬 음들이다. 우연히 그 음들을 감지하게 된다 해도, 그것들은 너희가 하나로 합칠 수 없는 모호한 음들로 보일 것이다. 너희는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너희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콘서트를 들을 수 있도록 감각과 정욕, 그리고 물질주의의 그림자를 뒤로 남겨야 한다. (199, 53-56)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40. 나의 사업은 점점 더 성장하여, 마침내 모든 영혼이 나의 율법을 성취하며 하나가 되고, 이 지상의 거처가 완전함의 세계 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나의 사랑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지구는 너희 영혼에게 단지 일시적인 곳이 될 것이며, 너희는 완전함을 갈망하며 다른 지역, 저 너머의 다른 차원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41.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이 더 큰 발전의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집에는 무한한 수의 처소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미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라, 제자들아. 이 행성에서의 너희의 체류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새로운 거처로 인도할 것이며,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완전함에 이르는 끝없는 사다리 위에서 영원히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317, 30)

42.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미 내 왕국과 천국,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는 없다. 나는 너희가 그것이 영혼의 완전한 상태이며, 그 안에서 영혼이 현재 너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영의 경이로운 삶을 체험하고, 느끼며, 깨닫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기를 바란다.

4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차원에 사는 영혼들조차도 그 삶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곳에서 살게 될 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신비에 대한 막연한 예감, 희미한 짐작만이 너희의 발전 여정에서 자극이 되어 너희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76, 28-29)

VII 완전함을 향한 발전의 길

제28장 - 죽어감, 죽음, 그리고 저편에서의 각성

영혼의 불멸

1. 지금은 사람들이 영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라고 자문하는 때이다.

2.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육체의 물질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신비를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에 대해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3. 어떤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영적 생명의 신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혼란스러워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부정한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기에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침묵하며 지켜보지만, 저 세상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이는 얼마나 적은가. (107, 1)

4. 제3의 시대에 나는 인류가 나를 가두어 둔 망각의 무덤에서 벗어나,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치기 위해 일어났으니, 나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죽을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끊는 자조차도, 자신의 양심이 믿음의 부족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52, 63)

5. 나의 가르침은 단지 너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과 확신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6.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을 굳건하게 해 주지만, 그 영혼에게 저 세상으로의 위대한 여정을 얼마나 적게 드러내고 준비시켜 주는가.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끝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이며, 그 순간부터 참된 삶의 무한한 지평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61, 52-53)

7. "죽음"은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며, "죽음"은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존재한다. 그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또는 무(無)가 있는 공포의 형상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뜨고 너희 또한

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는 육신과 분리되겠지만,
이것이 너희가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스승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누릴 것이다.
(213, 5)

이 세상을 떠날 준비

8. 너희는 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창조주께서 너희 안에
영적 본질과 영적 속성, 그리고
불멸성을 심어주셨기에, 너희가
창조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작품임을 깨달아야 한다.

9. 영혼에게는 죽음이 없다. 즉,
너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존재가 소멸되는 죽음은 없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에게
죽음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바로
그때 영혼은 더 높은 삶을 향해
눈을 뜨는 반면, 육체의 껍질은
세상에 대한 눈을 영원히 감는다.
그것은 온전함으로 이끄는 길
위에서 단지 한 순간의 전환일
뿐이다.

10. 여러분이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고, 그곳에 깊이
묶여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 )에서 소유한 것들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나의 신성한
정의에 대한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11. 인류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 왔습니다 — 너무나
사랑한 것은 그들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같은 이유로
영혼들이 얼마나
물질화되었습니까!

12. 죽음의 발걸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비로소 너희는 저 세상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오직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만 두려워하게
되는 그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너희는 아버지께
서약을 하고, 이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맹세한다. (146, 46-49)

13. 사람들은 이 삶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것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면 내 뜻에 반항하며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부르심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내 왕국의 평화를 외면하고, 세상의 재물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께 지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청한다.

14. 영적인 삶을 예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 그리고 너희 발전의 시작 단계에 안주하지 말라. —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니 — 그 위에는 더 높은 창조의 작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5. 내 뜻에 따라 죽음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또한 과학자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행하여 내 결정에 저항하고 너희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를 요구하지도 말라. 너희는 이 두 가지 실수를 몹시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2, 55-57)

16.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여 그 법칙을 따를 줄 알되, 그러나 높은 영적 세계에 거하겠다는 고귀한 목표를 항상 품으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육신의 껍질을 벗을 때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이 행성에서 사랑했던 것들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은 더 이상 속하지도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즐길 수 없는 세상에 묶여 쇠사슬에 묶인 채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84, 5)

17. 너희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누구도 자신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순간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내일 아침 자신의 눈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너희 모두는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주인에게 속해 있으며, 언제 소환될지 알지 못한다.

18. 너희 머리카락조차 너희 것이 아니며, 너희가 밟고 있는

흙도 너희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너희 자신조차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헛된 소유물은 필요 없다.

19. 영적으로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한, 모든 것을 의로움과 절제 속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삶을 내려놓을 때가 오면, 너희는 빛으로 충만하여 다른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승천할 것이다. (5, 95-97)

다른 세상으로의 이행

20. 매 순간 내 목소리는 평화가 있는 선한 길로 너희를 부르나, 너희의 귀머거리는 그 목소리에 대해 단 한 순간의 감수성만을 보일 뿐이며, 그 순간은 죽음의 고통이 육체적 죽음의 임박을 알릴 때, 너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여 잘못을 만회하고, 양심의 심판 앞에서 영혼을 달래며, 주님께 가치 있고 공로 있는 것을 바치고 싶어 할 것이다. (64, 60)

21. 너희가 영혼의 불멸을 추구한다면, 인간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 죽음의 도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하라. 죽음은 나의 명령에 따르므로, 비록 사람들이 종종 그 반대를 믿더라도, 죽음은 언제나 적절한 때와 정당한 이유로 찾아온다.

22. 어려운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빛이 부족하여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그의 회개를 원한다. 그러나 죽음이 불가피하게 될 때 —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든, 사람이 파멸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든 — 그때 나의 신성한 정의가 그 인간 존재의 생명의 실을 끊어 버린다. (102, 49-50)

23. 너희의 운명책에는 저 세상의 문이 열려 너희 영혼을 들여보낼 날과 시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라. 그곳에서 너희는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과 너희의 온 과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를 향한 비난이나 원망의 목소리를 듣거나, 너희를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자들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53, 49)
24. 너희 앞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해서 멈춰 서서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단 한
순간이라도 허비하면 나중에
너희 영혼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너희에게
목적지가 이 세상에 있다고
말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죽음이
끝이며, 그 순간에 내 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느냐?
25. 죽음은 마치 짧은 잠과
같으니, 그 잠에서 깨어난 영혼은
내 빛의 어루만짐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마치 그들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
깨어날 것이다.
26. 죽음은 너희가 육체의
물질에 묶여 있던 동안 갇혀 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동시에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기도 하다.
27.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속죄의 골짜기로 변해버린 이
행성은 영혼에게 있어 감금과
유배의 장소였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상에서의 삶은 생명의
사다리에서 또 하나의 단계이다.
왜 너희는 그 모든 교훈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많은 이들이
거듭하여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전 생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167, 22-26)
29. 너희는 영혼이 지상에
환생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길고 때로는
힘든 시련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준비 덕분에
영혼은 이 생에 들어설 때
당황하지 않는다. 영혼은 새로운
삶을 위해 과거에 대한 눈을
감고, 그렇게 하여 자신이 온
세상에 첫 순간부터 적응해
나간다.
30. 영혼이 육체와 세상을 떠난
후 영적 삶의 문턱에 서게 될 때,
그 태도는 얼마나 다른가.
고향으로 돌아갈 진정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은 혼란스러워하며 여전히 물질적 육체의 감정에 사로잡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31. 이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한 눈도 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떠났던 영적 세계를 향해 다시 눈을 뜰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녀의 모든 과거가 새로운 경험과 결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과거 공로가 새로운 공로에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2. 그녀가 빛을 되찾는 동안, 짙은 장막이 그녀의 사고력을 감싸고 있다. 그녀가 뒤로 남겨둔 모든 것들의 끈질긴 영향이 그녀가 자신의 영혼의 진동을 느끼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져 진정한 본성과 합쳐지는 동안 — 얼마나 큰 혼란이요, 얼마나 큰 고통인가!

33. 이 메시지를 듣고 읽은 후, 이를 무익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라며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맹목적인 완고함의 단계에 있는 자만이, 자신의 영혼이 깊이 감동받지 않은 채 이 빛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257, 20-22)

"죽음의 잠"

34. 너희의 지상적 본성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영적 평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이 기대하는 휴식은 활동이며, 선을 행하는 데 있어 배가되는 것이며, 매 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회복되고, 자책과 고통에서 벗어나며, 선을 행함으로써 활력을 얻고, 창조주와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안식을 얻는다.

3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너희 영혼이 지상에서 너희가 상상하는 휴식을 취하도록 가만히 두었다면, 절망과 두려움의 어둠이 그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니, 영혼의 생명과 빛, 그리고 그 가장 큰 행복은 일과 투쟁, 끊임없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36. 땅에서 '영적 계곡'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육신의 피로를 마음속에 새겨 안고 저 세상을 쉬고, 잊고, 삶의 투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안식처로 찾는다면 — 그러한 영혼은 가장 불행한 존재로 느껴질 것이며, 자신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내가 방금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인 영적 삶, 즉 사랑과 활동, 그리고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 위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승화할 때까지 평화도 행복도 찾지 못할 것이다. (317, 12-14)

저 세상에서의 재회

37. 나는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영적인 삶을 믿기를 원한다. 너희 형제자매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기지도 말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들과 다시 합치기를 원한다면, 노력하고 공덕을 쌓으라. 그러면 너희가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며 '영적 계곡'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9, 20)

38. 저 세상의 삶을 생각하며 불안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 중, 그들을 다시 한 번 보고 싶거나 적어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갈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39. 그러니 지금 공덕을 쌓아 두어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영적 계곡'에서, 찾고자 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더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오래전에 너희에게 말했듯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61, 31)

자신의 양심을 통한 영에 대한 심판

40. 어떤 큰 죄인의 영혼이 이 물질적인 삶에서 벗어나 "영적 계곡"으로 들어갈 때, 그 영혼은 자신이 상상했던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 들었던 그 불길은 자신의 양심이라는 무자비한 심판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영적 영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41. 이 내세에서의 심판, 그 죄인을 둘러싼 어둠 한가운데서 비치는 이 빛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상처 입힌 자를 위한 벌로 미리 준비된 고문이 아니다. 아니, 이 고통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며, 자신에게 존재를 선물해 주신 분을 상처 입혔다는 슬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간과 모든 은혜를 잘못 사용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다.

42. 너희는 내가 죄로 인해 나를 상처 입힌 자를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비록 죄가 그것을 범한 자 자신을 더 크게 상처 입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죄인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을, 그리고 내가 그를 벌함으로써 그가 자초한 불행을 더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나는 단지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양심의 가차 없는 목소리를 듣게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고, 물질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적 기억을 되찾아 자신의 기원과 운명, 그리고 서약을 기억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곳,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악을 근절하고, 도가니 속의 금처럼 그를 다시 녹여, 해로운 것, 쓸모없는 것,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해 주는 "불"의 작용을 경험해야 한다.

43. 어떤 영혼이 양심의 목소리와 심판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춘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순간 그 영혼은 내 면전에 있는 것이다.

44. 이 평온과 고요, 그리고 명료함의 순간은 모든 영혼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그 과정에 빠르게 들어서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덜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즉시,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악한 행실을 끝까지 속죄하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45. 다른 이들은 — 악덕 때문이든, 어떤 원한 때문이든, 혹은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든 — 눈이 멀어 있어,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46. 또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미소 짓고 있을 때 너무 일찍 이 땅에서 앗아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저주하고 모독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혼란에서 벗어날 기회를 늦추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들 외에도 오직 나의 지혜만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36, 47-51)

47. 너희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너희의 악한 행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너희 스스로에게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맑은 상태에 있는 너희 자신의 영이 바로 너희의 무서운 고발자이자 끔찍한 재판관이다. 반면 나는 그 거친 고발들로부터 너희를 변호하며, 너희를 무죄로 선고하고 구원하리니, 나는 정화하고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32, 65)

48. 너희는 머지않아 영적인 세계에 있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여전히 영혼을 위한 엄중하고 가혹한 심판이다. 아무리 자신이 나의 가장 합당한 종이라고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49. 내 뜻은 너희가 그 무한한 고향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지상의 두려움을 겪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섰다는 기쁨과 황홀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99, 49-50)

50. 인류가 해석해 온 최후의 심판은 오해이다. 나의 심판은 한 시간이나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꽤 오랫동안 너희에게 얹혀 있었다.

51.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육신들은 그들에게 상응하는 자연계와 융합되도록 정해져 있었고, 그 운명을 따랐으니, 땅에서 나온 것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영적인 존재 또한 나의 품인 고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5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하노니, 너희는 심판 때 너희 자신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의 양심과 자기 인식, 그리고 직관이 너희에게 어느 정도까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영적 고향에 거해야 할지를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따라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신성의 빛을 받게 되면, 너희의 행실을 깨닫고 너희의 공로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영적 계곡"에는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 너희가 언젠가 그곳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와 빛을 전하라.

54. 이미 지금 너희는 기도를 통해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이러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너희의 목소리는 그들이 머무는 곳에 울려 퍼져,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울 것이다. 그들은 울며 회개의 눈물로 자신을 정화할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한 줄기 빛을 받게 될 것이니, 그때 비로소 그들은 과거의 허영과 오류,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5. 양심이 영혼을 깨울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때 영혼은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는가! 용서를 구하는 간구와 서약, 그리고 내 이름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겸손하게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가!

56. 이제 영혼은 아버지의 완전함에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닫고, 목표에 더 가까워질 기회를 주었던 시간과 시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이 땅을 바라보며, 과오를 속죄하고 미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또 다른 육신을 청한다.

57. 그러면 누가 정의를 실현했는가? 스스로를 심판한 것은 바로 그 영이 아니었는가?

58. 나의 영은 너희가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거울이며, 그 영은 너희가 가진 순결의 정도를 알려 줄 것이다. (240, 345 41-46)

59. 너희 영혼이 인간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영적 생명의 성소 안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물러나 과거와 그 결실을 심판할 때,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완벽해 보였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 합당하며 상을 받을 만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행실들이, 그 자기 성찰의 순간에는 초라하게 보일 것이다. 영혼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으로 보였던 많은 행위의 의미가, 단지 허영과 거짓된 사랑,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자선의 표현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60. 여러분은 누가 영혼에게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한 심판자의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의의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며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그 영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각자에게, 이 땅에서 행한 선과 정의, 옳음과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길에 뿌린 악과 거짓, 불순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61. 내가 방금 너희에게 말한 성소는 바로 영의 성소이다.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분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성전이다.

62. 세상에서 너희는 그 내면의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결코 되어 있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의 인간적 인격이 언제나 모든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음성을 피할 방법과 수단만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6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던지면, 마침내 그 성소의 문턱 앞에서 멈춰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곳에 들어서, 영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양심이라는 빛 속에서 자신의 행실을 살피며,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심판자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듣게 될 것이다.

64. 그 어떤 필멸자도 그 순간의 온전한 엄숙함을 상상할 수 없으니, 너희는 모두 그 순간을 겪어야만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존하며, 또한 더 이상 영혼에 간직해서는 안 되기에 버려야 할 것들도 알게 될 것이다.

65. 그때 영혼이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고, 양심이 진리의 명료함으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줄 때, 그 존재는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느끼며, 차라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순간에 그 의식을 통해 자신의 온 생애가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 뒤로 남겨둔 삶, 소유했던 삶, 자신의 것이었던 삶,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삶 말이다.

66. 제자들아, 사람들아, 이 생에서 이미 그 순간을 준비하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영의 성전 문턱 앞에 섰을 때, 그 성전을 재판소로 변모시키지 않을 것이니; 그때 영혼의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와 비교할 만한 육체적 고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7. 내가 이 가르침에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여, 영적인 영역에서 너희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달으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상상 속에서, 마치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오른편으로 지나가게 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왼편에 세워 영원한 형벌로 정죄하시는 법정을 그리는 그 이미지를 지워버려야 한다.

68. 이제 빛이 너희 영혼과 이성의 가장 높은 영역까지 닿을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안에서 진리가 빛나고, 그가 영적인 삶을 합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라. (334, 5-11; 14-15)

되찾은 영적 의식

69. 나의 창조물 가운데 육체의 죽음만큼이나 각 영혼이 생애 동안 도달한 발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데 적합한 것은 없으며, 완전함에 이르는 데 있어 나의 말씀만큼이나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법과 가르침이 언제나 단호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려고 하는 이유이며, 고통과 고난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고양시키는 대신 심연으로 이끄는 그 길을 떠나라고 권고하는 이유이다.

70. 너희 양심이 지상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렸다고 말할 때, 너희 영혼은 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낄 것인가! 온 과거가 너희 눈앞에 펼쳐질 것이며, 너희의 행적이었던 모든 광경은 너희에게 끝없는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71. 너희의 기억이 항상 간직하지 못했던 내 법의 계명들도 마찬가지로 맑고 밝은 빛으로 너희 영혼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진리를 향한 열린 눈으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줄 공덕을 쌓아라.

72. 인간이 헛되이 밝히려 애써온 비밀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직관도, 과학도 사람들이 던진 수많은 질문에 답하지 못했는데, 이는 영혼이 '영적 계곡'에 들어섰을 때에만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이러한 놀라움들, 기적들, 계시들은 그들의 상급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 을 가린 채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영혼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명료해야 할 그곳에서 여전히 주변에 신비들만 보게 될 것이다.

73.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천상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많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너희가 언젠가 영으로 영원의 공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부터 너희를 둘러싸게 될 경이로운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켜 준다. (85, 42; 63-66)

74. 내 빛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그것이 너희 삶의 길을 비추고, 죽음의 순간에 너희가 의식의 혼탁함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저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너희가 누구인지,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가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100, 60)

75. 너희의 육신이 땅속으로 내려가 그 품에 안겨 땅과 합쳐져 땅을 비옥하게 할 때 —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힘과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너희 존재 위에 있는 너희의 영은 땅에 머물지 않고, 영혼과 함께 떠나 영혼에게 깊은 지혜의 가르침이 담긴 책처럼 드러날 것이다.

76. 그곳에서 너희 영혼의 눈은 진리를 향해 열릴 것이며, 한 순간에 너희는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웃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소유했던 모든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저지른 실수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와 참회를 느끼게 될 것이며, 개선과 속죄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결심이 너희 안에서 싹트게 될 것이다. (62, 5)

77. 지금부터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너희 영혼의 삶을 화해시키고 조화롭게 하라. 누구도 자기 형제보다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음의 순간에 너희의 발전 수준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것은 바로 나의 목소리일 것이다.

78. 그곳, 양심 앞에서 찾아오는 그 짧은 깨달음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상을 받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위대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79. 너희는 구원받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형제애의 길로 내게로 오라. 그것이 유일한 길이며,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은 내 가장 높은 계명에 기록된 바로 그 길로,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299, 40-4)

제29장 - 내세에서 영혼의 정화와 승화

양심의 가책, 회개, 그리고 자책

1. 나는 너희 영혼이 더럽혀지거나 참된 생명에 있어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해로운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나의 공의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너희 영혼은 내
품에서 나왔던 그대로 순수하게
내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2. 육신을 땅에 남겨두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이들은, 영을 비추는
영원의 빛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현존을 바라볼 때, 쓰라린 눈물과
자책의 절망 속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하는 동안,
아버지 또한 고통을 겪는다. (228, 7-8)

3.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양심의 가책과 고뇌 — 그 삶을
누릴 영성이 부족하여 겪는 고통,
이것과 그 이상의 것들이
더럽혀졌거나 준비 없이 영적
삶의 문턱에 도달한 영혼들의
속죄에 포함되어 있다.

4.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악을
자초한다는 것을 알기에, 인간의
죄나 불완전함, 타락을 아버지께
가해지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아두라. (36, 56)

5.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즉
너희의 자유 의지 중 일부를
희생하고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면, 너희의 삶은
얼마나 빛날 것이며, 너희의
학문은 얼마나 위대하고 지침이
될 것인가. 그때 비로소 너희의
과학은 물질적 경계를 넘어
초월적인 영역에 닿을 것이니,
지금까지는 그 경계에조차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6. 과학자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마침내 신성한 진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당혹감을
느끼겠는가! 그곳에서 영혼은
부끄러움에 가득 차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오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다.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
너머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책, 즉 창조주의 무한한
업적 앞에 서게 되니,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절대적인
지혜이신 분 앞에서 겸손으로
몸을 감싸야만 한다. (283, 48-49)

7. 영적 세계에 도착했을 때, 지상에서 저지른 죄를 생각해야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으로 씻김을 받고 마음속에서 회개가 솟아나며,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애쓰는다면, 너희는 합당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 면전에 나아갈 것이며, 그 누구도, 심지어 너희 양심조차도 너희의 과거의 불완전함을 감히 언급하지 못할 것이다.

8. 완전한 고향에는 모든 영혼을 위해, 시간 속에서나 영원 속에서나 그 주인의 도착을 기다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사랑과 자비와 믿음과 공덕의 사다리인 ' '를 통해, 너희는 하나씩 내 왕국에 들어올 것이다. (81, 60-61)

균형 잡힌 정의

9. 나는 이 세상에서 제자를 거의 두지 않았으며, 신성한 스승의 형상처럼 된 자들은 그 수가 더욱 적었다. 반면 영적 계곡에는 많은 제자가 있으니, 그곳에서야 비로소 내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진전을 이루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서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나의 어린 자녀들은, 인류가 그들에게 거절한 것을 스승으로부터 받는다. 바로 그곳에서, 지상에서 겸손함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은 그들의 덕행으로 빛나며, 이 세상에서 거짓된 빛으로 빛났던 이들은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10. 저 세상에서야말로,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축복하며 죄를 속죄했을 때, 이 땅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맞이하는 곳이다. 너희가 생의 여정 중에 한순간 격렬하게 반항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가 큰 고통의 날들을 겪었고, 그 속에서 순종을 보이며 내 이름을 축복했음을 고려할 것이다. 너희 또한 너희의 미약함의 한계 안에서, 비록 그것이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더라도, 몇 번의 골고타를 겪었으니 말이다.

11. 보라, 하느님께 대한 충실과 사랑의 몇 순간을 통해 너희는 내세에서 생명과 은총의 시간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사랑이 인간의 일시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방식이다. (22, 27-29)

12. 모든 선행은 그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받게 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지복(至福)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가. 영적 삶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설 때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때야 비로소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임을 모르고 있다. (1, 21)

13. 세상의 명예와 찬사를 갈망하는 자는 여기서 그것을 얻을지 모르나, 그것들은 잠시뿐이며 그가 영적 세계에 들어서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돈을 좇는 자는 여기서 보상을 받을지 모르나, 그것이 그가 추구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곳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오면, 비록 자선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할 권리는 조금도 없을 것이다.

14. 반대로, 아첨과 특혜를 항상 거절하고, 순수한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선을 베푸는 일에 전념하며,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기쁨을 느꼈던 자 — 그는 보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평화와 행복은 얼마나 클 것인가! (253, 14)

15.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순수하고 완전한 가르침을 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루의 일을 마칠 때, 너희가 생전에 참된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너희에게 인정될 것이라고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진리를 알았음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281, 17)

16. 선한 일을 행하는 순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가 행한 선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어떤 행위도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17. 너희가 언젠가 영적 왕국에 이르면,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작은 행위가 얼마나 자주 선행의 사슬의 시작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슬은 다른 이들이 점점 더 길게 이어가겠지만, 그것을 시작한 이에게는 영원히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292, 23-24)

18. 나는 너희가 공덕을 쌓도록 영감을 주노라.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희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는 안 되며, 너희는 이웃을 생각하며, 다가올 세대를 생각하며 행해야 한다. 그 세대들은 '선구자들'이 닦아 놓은 길을 마주하게 될 때 매우 크게 기뻐할 것이니라. 그때 너희의 행복은 무한할 것이니, 형제자매들의 기쁨과 평화가 너희 영혼에도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19. 오직 자신의 구원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경우는 얼마나 다른가? 그들이 자신의 행실로 얻어낸 그곳에 도달하더라도, 뒤에 남겨두고 온 자들이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단 한 순간도 평화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르침의 참된 제자들은 그들의 행실이 의롭고 순결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영이 곧 나의 빛이기 때문이다. (290, 76-77)

21. 너희가 겸손할 때, 너희를 기다리는 삶 속에서 너희의 영적 풍요로움이 늘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 존재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선사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 안에는, 아버지께서 내가 창조하신 모든 것의 충실한 수호자이시며,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화를 잃은 자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분을 섬기려는 갈망이 싹트게 될 것이다. (260, 29)

영혼들의 하나님 나라로의 승천

22. 이것이 바로 너희 영혼이 이미 지상에서 매우 높은 삶의 차원과 매우 큰 깨달음을 꿈꾸기 시작할 수 있는 "제3의

시대"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미 자신의 영혼 속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영적 은사의 꽃을 피운 채 떠나는 자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세계를 가로질러, 자신의 공로에 따라 거할 자격이 있는 그 세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자각하게 될 것이며, 어디에 있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사랑과 조화, 정의의 언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생각이 곧 영적 언어인 그 명료함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어떤 난관도, 혼란도, 눈물도 없을 것이며, 영원한 유산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에게 속한 고향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294, 55)

24. 신성한 천상의 사다리 위에는 영혼의 완성을 통해 그들이 도달한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차지할 수 있는 무수한 존재들이 있다. 너희의 영혼은 이 완성을 향한 사다리 위에서 발전하고, 창조주의 높은 뜻에 따라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속성을 지니고 창조되었다.

25. 너희는 그 영혼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처럼 완전하다.

26. 너희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나중에 너희는 그 은총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7. 너희와 같이 서로 다른 삶의 차원을 거니는 무수한 영혼들은, 곧 사랑인 더 높은 힘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 그들은 정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투쟁과 더 높은 발전을 위해 창조되었다. 내 계명을 이행한 자들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위대해졌다.

28. 그러나 너희의 영혼이 위대함과 권능과 지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하듯 무한하지는 않으므로

전능해지지는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창조주의 사랑이 첫 순간부터 너희에게 그려 놓은 바른 길 위에서, 너희를 완성의 정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32, 34, 37)

29. 너희 영혼은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일곱 단계의 영적 발전을 거쳐야 한다. 오늘날 너희가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지금, 너희는 천국의 사다리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30. 비록 내가 너희 영혼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너희에게 말해 줄 수 없다. (133, 59-60)

31. 모든 발판, 모든 단계, 모든 삶의 차원은 영혼에게 더 큰 빛과 더 완전한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영혼의 지극한 평화, 즉 영혼의 완전한 행복은 영혼들이 머무는 모든 일시적인 거처를 초월해 있다.

32. 너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을 미리 느끼는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생각하겠지만, 그 행복은 너희가 이 생을 마친 후 가야 할 다음 세상에 대한 미미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296, 49-50)

33.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꿈꾸며, 그 순간이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 하늘에서 영원히 나를 경배하게 해 줄 것이라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그 길은 그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천국의 사다리에서 단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무지가 바로 많은 이들이 내 가르침의 진의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164, 30)

34. 인간을 통해 파괴의 힘이 풀려났다. 전쟁은 모든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렸다. 인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전쟁은 그 행로에 얼마나 많은 버림받음과 비참함, 고아됨과 슬픔을 남겼는가! 너희는 전투에서 전사한 자들의 영혼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간 안에 깃든 생명의

일부인 영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35. 아니요, 백성들아: 영혼은 전쟁과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남는다. 내 영혼의 이 부분은 고통의 들판에서 일어나, 내 길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꽃피우며, 발전할 새로운 지평을 찾고 있다. (262, 26-27)

36.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 것은, 너희 모두가 동등하게 소유하고, 평화롭게 살며, 이곳을 일시적인 거처로 삼아 너희의 능력을 펼치고, 영혼이 새로운 고향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37.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주님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너희는 상승해 가는 만큼 그 거처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각각은 너희를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이끌 것이며, 너희의 행위에 따라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은 신성한 질서와 정의에 따르기 때문이다.

38. 아무도 너희가 한 삶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각 삶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너희의 영과 나의 영 안에는 환호와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39. 이러므로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는 것은,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이 길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의 첫 번째 행실만으로 만족하여 그것이 이미 그 고향들의 문을 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0.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후, 한 발전 단계의 끝에 이르러 잠시 멈춰 서서, 거대한 투쟁과 괴로움의 날들, 그리고 평화의 시간들로 가득했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은 영혼에게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일임을.

41. 마침내 너희 주위에 빛나는 승리와 보상, 그리고 정의가 있으며, 너희 아버지의 영이 현존하시며 영광스럽게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 다음 삶의 단계에 준비될 때까지 그 품에 안아 쉬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 마침내 가장 높은 성취에 이르러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된다. (315, 34-36)

42. 인간을 창조주와 닮게 하는 영의 불꽃은, 그 불꽃이 솟아난 무한한 불꽃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며, 그 불꽃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 자각하며, 사랑으로 빛나고, 지식과 힘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존재는 가장 작은 고통이나 곤란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하고 참된 행복이 지배하는 그 완전함의 상태를 누릴 것이다.

43. 만일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토록 많은 가르침을 통해 내 교리를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너희가 지상에서 평화롭게 살기에는 '초기 시대'의 법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4. 그러나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이 생을 넘어선 무한히 더 나은 세상을 약속했음을 생각하고, 게다가 다른 때에 다시 와서 너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인간의 영적 운명이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높으며, 그리고 약속된 행복은 여러분이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277, 48-49)

제30장 - 환생을 통한 영혼의 발전

발전의 법칙

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여러 번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내 법칙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법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7, 55)

2. 인간은 과학의 발전과 이전에는 믿지 못했을 것들의 발견을 목격해 왔는데, 왜 영혼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거부하는가? 왜 영혼을 정체시키고 잠들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영생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118, 77)

3. 깨달아라: 비록 창조가 겉보기에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발전하고, 변화하며, 완성되어 간다. 너희의 영혼이 과연 이 신성한 법칙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나의 자녀들아. 아무도 영적인 것, 과학, 혹은 삶에 대해 최종적인 말을 할 수 없으니, 그것들은 끝이 없는 나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79, 34)

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은 지식 때문에 영적인 위대함을 지녔다고 생각하지만, 내게 있어 그들은 단지 발전의 길에서 멈춰 선 몇 명의 아이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단지 지성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 영혼의 상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개발되어야 할 많은 능력들이 있다.

5. 이것이 바로 내가 — 사랑과 정의의 법칙 중 하나로 — 영혼의 환생을 제정하여, 영혼이 완전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더 긴 여정을 허락한 이유이다.

6. 모든 지상 생활은 짧은 교훈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나의 법을 성취할 기회는 너무나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그로부터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인간 완성의 기초가 되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더 높은 존재의 차원으로 나아가 영적 삶에 도달할 수 있다. 그곳에서 나는 너희에게 아직 가르쳐야 할 수많은 교훈과 그리고 내가 아직 주어야 할 수많은 계시들이 있다. (156, 28-29)

7. 모든 것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완성되고, 꽃피어 나는데 — 도대체 왜 너희 영혼은 수세기 동안 정체된 채 머물러야 하겠느냐?

8. 너희는 과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배웠으므로, 창조의 모든 존재 안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발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오랫동안 영혼을 방치해 온 그

후진성과 정체 상태에 영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리고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에게 자연이 그 비밀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날이 오며, 자연의 힘이 너희의 적이 아니라 종이자 협력자, 형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305, 6, 8)

"육체의 부활" — 올바르게 이해하기

9. 이제 세상은 영혼의 환생인 "육체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10. 환생한다는 것은 물질 세계로 돌아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혼이 자신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말했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진리이며, 그들은 이에 대해 왜곡되고 터무니없는 해석을 내놓았다.

11. 환생은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에게 주신 선물로, 영혼이 물질의 비참함, 지상에서의 덧없는 존재, 그리고 자연적인 결핍에 결코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영혼은 더 높은 본성에서 비롯되었기에, 세상에서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많은 육체를 사용할 수 있다.

12. 이 은총을 통해 영혼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씩 차례로 육신을 바꾸며, 아무리 많은 육신이 맡겨졌더라도 그 모든 것을 살아남음으로써, "육신"과 죽음,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것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우월성을 증명한다. 영혼은 시간과 저항,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자이다. (290, 53-56)

13. 너희는 어떻게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합쳐져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믿을 수 있었느냐? 다른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진 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14.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그 안에 머무르는 반면, 영혼은 자유롭게 상승하여 자신이 나온 생명으로 돌아간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내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육체의 부활"*은
영혼의 재육화이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간의 이론이라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새로운
계시라고 믿지만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인류의
시작부터 세상에 이 계시를
알리기 시작하였다! 그 증거는 내
행적의 증거인 성경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 고대 기독교 신조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립되었는데, 당시까지는 부분적으로 인정되던 환생 교리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이단으로 단죄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영혼의 "육신" 속에서의 재탄생은 "육신의 부활"로 바뀌게 되었다.*

15. 그러나 이 시기에 이 계시는
너희 영혼이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있을 때 너희에게 전해졌으며,
머지않아 이 계시는 창조주의
가장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법칙 중 하나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심판의 날"에 대한
관념을 버려라. 그것은 너희의 날
중 하나가 아니니, 그것은 단지
한 시기를 의미할 뿐이며,
"세상의 종말"은 너희가 살고
있는 행성의 종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 행성 위에서 만들어낸
이기적인 삶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76, 41 43)

16. "육체의 부활"이라는 비밀은
영혼의 환생에 대한 계시를 통해
밝혀졌다. 오늘날 너희는 이
사랑과 정의의 법의 의미가,
영혼이 에서 완성되어, 아버지가
제공하는 구원의 기회인 열린
문을 언제나 발견하게 되므로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고 있다.

17. 이 법에 근거한 모든 영혼에
대한 나의 심판은 완전하고
무자비하다.

18. 오직 나만이 너희를 심판할
수 있나니, 모든 운명은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다른 이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19. 영혼들이 죄로 인해 길을
잃고, 수많은 투쟁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긴 방황 끝에, 그들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어 내게로 올 것이다. 고통으로 정화되고, 공로로 고양되며, 긴 순례의 여정에 지쳐 있겠지만,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 것이다. (1, 61-64)

영혼들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

20. 오래전에 너희의 영혼은 나로부터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혼이 영적 발전의 길에서 똑같이 진전된 것은 아니다.

21. 모든 운명은 서로 다르나, 너희를 같은 목표로 이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시련이, 다른 이에게는 저 시련이 주어진다. 한 피조물은 한 길을 걷고, 다른 피조물은 다른 길을 따른다. 너희는 모두 같은 순간에 존재에 들어선 것도 아니며, 모두 같은 시점에 돌아갈 것도 아니다. 어떤 이는 앞서 가고, 어떤 이는 뒤따르나, 목표는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지, 누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지식을 가질 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며, 여러분의 허영심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10, 77-78)

22. 인류 역사의 먼 옛날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에, 너희는 고귀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아왔다. 만약 영혼이 연속적인 환생을 통해 상향 발전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가장 초기의 시대에 이미 성숙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23. 그 이유는 영혼이 육체와 동시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인류의 기원이 영혼의 기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영혼은 단 하나도 없다. 너희 중 누가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살기 전에 다른 영역에서 살았던 시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156, 31-32)

과거의 지상 생활과 자신의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

24. 영혼이 육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영혼은 자신의 전생에서 쌓은 공덕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영혼은 자신의 삶이 영원이며, 정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너희는 아직 자신이 어느 높이에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 (190, 57)

25. 너희의 이성은 영혼의 과거에 대한 인상이나 기억의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의 삶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짙은 베일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뇌가 영혼이 과거를 거치며 받아들인 이미지들과 인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떤 지성이 인간의 상식과 연관 지어,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26. 이 모든 이유로 인해,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영적으로 누구인지, 또 너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274, 54-55)

27. 나의 모든 행적은 '생명'이라 불리는 한 권의 책에 나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의 페이지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그 무한한 지혜는 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모든 분의 업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두신 간략한 요약이 담겨 있다.

28. 너희 또한 끊임없이 너희 삶의 책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 책에는 너희의 모든 행적과 발전의 전 과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자취가 기록되어 남을 것이다. 그 책은 너희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내일 너희가 어린 형제자매들의 길을 비추어야 할 지식과 경험의 빛이 될 것이다.

29. 너희는 아직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므로 누구에게도 너희의 책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머지않아 너희 존재 안에서 빛이 밝아질 것이며,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너희의 성장과 속죄, 그리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페이지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열린 책이 될 것이다.

30.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를 오르고 있음을 느낄 것이니, 그 사다리는 존재들을 창조주의 임재까지 이끄는 영적인 길이다. (253, 6-8)

영적·정신적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인 사랑

31. 너희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 공기, 태양, 물, 그리고 빵을 갈구하듯이, 영혼 또한 그 본성에 맞는 삶의 환경과 빛, 그리고 양식을 필요로 한다. 영혼이 자신의 양식을 갈망하며 높이 비상하려는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느낄 때, 영혼은 약해지고 시들며 무감각해진다. 마치 아이를 강제로 요람에 가두어 방 안에 갇혀 있게 하는 것과 같다. 아이의 사지는 마비되고, 얼굴은 창백해지며, 감각은 무뎌지고 능력은 위축될 것이다.

32. 영혼 또한 절름발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나는 심지어 이 세상이 영적으로 절름발이, 눈먼 자, 귀머거리,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갇혀 살며 자유롭게 꽃피울 수 없는 영혼은 지혜나 힘, 또는 덕성 어느 면에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258, 62-63)

3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지혜와 감성과 고양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신성의 모든 속성을 집약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을 모든 영적 피조물 안에 지펴 놓으셨다.

34. 너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내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었느냐! 신성한 자비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삶과 환생을 허락했느냐! 그 교훈은 배워질 때까지 필요한 만큼 반복되었다. 일단 성취되면 반복할 이유가 없으니, 다시는 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35. 너희가 나의 교훈을 빨리 배운다면, 더 이상 고통받거나 실수를 두고 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상에서 받은 교훈을 활용하는 존재는 다시 세상에

돌아올지 모르나, 언제나 더 큰 성숙함과 더 나은 삶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한 생과 다음 생 사이에는 항상 휴식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고 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263, 43-45)

환생의 다양한 이유

36.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인간에게 내 법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인 신성한 불꽃으로부터, 그의 영혼에 빛의 광선 하나, 그의 이성에 영감 하나, 또는 그의 마음에 예감 하나가 결여된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영혼은 눈앞에 어두운 눈가리개를 두른 채 저 세상으로 돌아갔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련의 골짜기인 이 세상 삶이 담고 있는 교훈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속죄를 완성하고 무엇보다도 배우기 위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184, 39)

38. 다른 세계에서도 영혼들은 마찬가지로 의지의 자유를 누리며 죄를 짓고 길을 잃기도 하고, 혹은 선을 굳게 지키며 그로 인해 발전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얻기도 하는데, 이는 너희가 지상에서 그러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살도록 예정된 이들은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오고, 다른 이들은 속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려온다.

39. 그러나 그들이 이 지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낙원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지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버지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오직 축복과 영혼을 위한 삶의 교훈으로 가득 찬 경이로운 삶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길이다.

40. 어떤 이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이들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떠난다. 그 이유는 너희 인간 본성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조화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6, 33-34)

41. 누구도 다른 육신을 입고 이 행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반발하지 말며, 환생이 영혼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지상에서 살도록 정해진 모든 영혼은 더 높은 발전을 이루고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환생의 법칙을 거쳐야만 했다.

42. 덜 발달한 영혼들만이 다시 환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영혼들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온다.

43. 엘리야는 지상에 온 예언자들 중 가장 위대한 자이다. 그러나 그가 행한 위대한 업적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시대, 다른 육신,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44. 이 사랑과 정의의 법칙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만일 그들이 예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를 앞당기는 빛으로서 모든 비밀을 밝히기 위한 몇 가지 계시와 징표를 너희에게 주셨다. (122, 25-28)

완전함으로 가는 길

45. 너희가 빛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은 멀다. 어떤 존재도 영혼이 걷는 길보다 더 긴 길을 걷지 않는다. 그 길 위에서 아버지, 곧 신성한 조각가께서 너희 영혼을 빚고 다듬어, 너희에게 완전한 형상을 주시는 것이다. (292, 26)

4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완전한 순결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이 이 세상과 영적 세계에서 아직 많이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47. 너희에게 필요할 때마다 너희는 이 행성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수록, 너희는 참된 삶으로의 최종적인 진입을 더 늦추게 되고

눈물의 골짜기에 머무는 시간을 더 연장하게 될 것이다.

48. 모든 영혼은 지상의 삶마다 매번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발전의 진전과 그 결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49. 자신의 복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선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되고, 그것도 이타적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명심하라. (159, 29 32)

50. 사람 안에는 항상 투쟁을 벌이는 두 가지 힘이 있다. 곧, 덧없는 인간의 본성과 영원한 영적 본성이다.

51. 이 영원한 존재는 자신의 영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전에 수많은 생을 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 영혼은 눈물과 고통을 겪고, 육체의 죽음을 여러 번 겪은 후에야 비로소 완전함에 대한 갈망 속에서 줄곧 찾아 헤매던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예감한다.

52. 반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육체는 울고, 반항하며, 때로는 영혼의 부름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오직 영혼이 성장하여 "육체"와 그 주변의 모든 것과의 투쟁에서 강해지고 경험이 풍부해졌을 때만, 비로소 육체를 지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53. 영혼의 순례는 길고, 그 길은 멀며, 존재의 형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모든 순간은 각기 다른 종류의 시련이다. 그러나 영혼은 이 시련을 통과해 나가면서 고양되고, 정화되며, 완성되어 간다.

54. 삶을 걸어가는 동안 영혼은 빛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고귀한 영혼에게는 종종 육체의 신음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지나가는 일임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여정에서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에 의해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5.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의 "육체"의 약점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녀는 잠시만 살다가 곧 땅속으로 사라질 것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8, 24; 27-28)

삶의 보편적 학교

56. 인류의 태초부터 영혼의 환생은 사랑과 정의의 법칙으로서, 또한 아버지가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증명해 오신 형태 중 하나로 존재해 왔다. 환생은 단지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문제이며, 너희는 내가 이 신비를 이제야 너희에게 계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가장 초기의 시대부터 인간 안에는 영혼의 환생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이 존재했다.

57. 그러나 물질주의적 과학과 세상의 보물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인간 마음의 그 섬유들이 굳어져 버렸기에, 사람들은 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귀머거리와 눈먼 자가 되어 버렸다. (105, 52)

58. 너희가 창조되기 전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었으며, 그 후 영적인 피조물로서 너희는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는 곳, 곧 생명의 정수와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참 빛의 근원이 있는 곳에 있었다.

59. 고통은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시절에는 너희에게 한숨 쉴 이유가 없었고, 불평할 것도 없었으며, 너희는 스스로 안에서 천국을 느꼈으니, 너희의 완전한 삶 속에서 너희는 이 존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60. 그러나 너희가 그 고향을 떠났을 때, 나는 너희 영혼에게 한 벌의 옷을 입혔고, 너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 후 너희 영혼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여,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자 아버지의 빛이 비추는 존재의 차원에 도달했다. (115, 4-5)

61. 모든 영혼의 목표는 정화와 완성을 거친 후 신성과 합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의 길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너희가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너희 영혼에 힘을 준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가 이룬 발전의 높이에 따라, 저 세상에서 너희가 거하게 될 영적 고향이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영혼을 위한 완성의 학교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195, 38)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3장 69절, 제58장 46절 등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62. 내가 이 생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면, 너희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자 하는 갈망을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생애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다른 생애에서 추구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더 높은 생애가 너희에게 약속해 주며, 이처럼 영혼의 끝없는 발전의 길 위에서 영원토록 단계적으로 계속된다.

63.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영혼이 그토록 큰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혼의 높은 소명을 의심하는 것은 오직 너희의 육안으로 보는 것, 즉 비참함과 무지, 악함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이에게는 영혼이 병들었고, 어떤 이에게는 마비되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눈이 멀었고, 어떤 이에게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비참함을 마주하고서는, 영원이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소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64. 너희는 이처럼 세상과 물질주의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내 진리의 빛이 너희에게 닿아, 이미 지나간 시대의 밤의 어둠을 몰아냈으며, 그 여명과 함께 내 가르침을 통해 영혼이 깨달음을 얻게 될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116, 17-18)

65. 너희 중 많은 이는 지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씻을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으며, 너희가 의지하는 그 도구인 육신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영혼에게 특권이지 결코 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총을 활용해야 한다.

66. 이 생이 끝나면, 너희는 새로운 교훈을 얻기 위해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고 완전해지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너희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며, 너희 영혼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221, 54-55)

67. 내 목소리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많은 영혼들에게 있어 지상에서의 순례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68.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낙담과 혐오, 그리고 슬픔은 그들이 이미 더 높은 안식처,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69.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걷는 마지막 여정을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지상에서 남기는 그들의 마지막 발자취가 뒤이어 세상에 다양한 사명을 수행할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276, 4)

70.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이 고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71. 너희 영혼이 이곳에서의 삶이 주는 교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즉 다른 세상에서 더 높은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땅에서의 투쟁 속에서 얻은 빛을 바탕으로 너희 영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삶의 모든 기복이 단지 내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경험과 교훈에 불과했다는 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깨닫는가. 고통이 나를 짓누르던 동안 그 삶의 여정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가.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영원을 생각하면 그 여정은 얼마나 짧고 덧없이 보이는가." (230, 47)

72. 기뻐하라, 사람들아, 눈물과 비참함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날아다니는 새들임을 생각하라! 기뻐하라, 이곳은 너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니, 더 나은 세상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73.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나라. 그러면 고통의 신음과 수고와 눈물은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작별을 고하고, 하늘 높이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로 날아오를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지구를 우주 속의 한 점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곳을 사랑으로 회상하게 될 것이다. (230, 51)

환생 교리의 설득력

74. 영성주의의 빛은 이제 환생에 대한 영적 능력에 내재된 진리, 정의, 이성, 그리고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당분간 이 계시를 완강히 반대하며, 선의의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를 낯설고 그릇된 교리로 보이게 할 것이다.

75. 각 교파가 신자들을 낡은 신앙 관념과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 체계라는 썰렁한 궤도에 묶어두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 능력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계시와 신성한 영감, 의심과 신비의 해명, 영적 해방의 시대를 위해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빛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76. 또한 인류가 사고와 정신,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형성될 그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90, 57-59)

영혼의 환생 경로

77. 나는 모든 지상의 순례자들에게, 그들을 상향 발전과 영생의 소유로 초대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도록 부른다.

78. "신성한 말씀"이 드러나는 이 날에 — 그 말씀을 활용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으라. 지식 속에 빛이 있고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79. 내 법이 너희 삶의 모든 행위에 있어 도덕과 의로움, 질서를 가르쳐 주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는 정반대의 길을 찾느냐? 그러나 너희가 저 세상으로 떠나 이 땅에 육신을 남겨두고 갈 때, 너희는

이 육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울게 된다.
80. 너희가 육신이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며, 내게로 올 때까지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느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 아이야, 네가 내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땅에서
내 계명을 지키며 살았느냐?"
81. 그러나 너희는 —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분께 드릴 사랑의
선물이 없어 부끄러워하고
낙담하여 — 너희 영혼을
짓누르는 사슬을 만들어 냈고,
영혼은 빛을 잃은 채, 은총을
잃어버렸다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울고 탄식한다. 영혼은 오직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듣는다. 그러나
발전하지 못했고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기다릴 뿐이다.
82. 시간이 흐르고, 영혼은 다시
그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찬 채, 누가
자신에게 말하는지 묻자,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깨어나라!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느냐?"
그러자 그녀는 눈을 들어 헤아릴
수 없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의 광채 앞에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지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고, 그 목소리가 나온
아버지께 이미 사랑받고
있었으며, 이제 그분이 그녀를
비참한 상태로 보시고 그녀를
위해 슬퍼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그녀는 투쟁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공로로 상을 얻기 위해
여러 고향으로 보내졌음을
깨닫는다.
83. 그러자 아이가 묻습니다.
"제가 이 땅에 보내지기 전에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었음에도, 왜 저는 덕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고통받고 고생해야만 했습니까?"
84. 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했다. "모든 영혼은 발전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길
위에서 나의 아버지 영은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은
자녀들의 선한 행실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상으로 보낸 것은, 너희가 그곳을 전쟁과 고통의 전장이 아니라 영적 완성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만들게 하려 함이다.

85. 나는 너희에게 번성하라고, 불모의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했노라. 그러나 너희가 '영적 계곡'으로 돌아올 때, 너희는 아무런 수확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한탄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부여했던 은총 없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 보내며 말하노니, "너희 자신을 정화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영적 승화를 이루어라."

86. 영혼은 땅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쉬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찾는다. 영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린아이의 몸을 찾아, 그것을 사용하여 내 법에 대한 자신의 죄를 속죄한다. 원인을 알고 있는 영혼은 이 땅에 오며, 자신이 아버지의 숨결임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있다.

87. 처음 몇 년간 영혼은 순수하며 그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 후 영혼은 죄를 알게 되며, 아버지의 의로운 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 반항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고, 본성상 거역하기 쉬운 '육체'는 악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유혹에 빠져 타락한 그녀는 지상에 가져온 사명을 잊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르려 한다. 영혼과 육신은 금단의 열매를 맛보고, 파멸에 빠진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88. 영혼은 다시 영적 삶의 공간에 있게 되는데, 죄의 짐에 지쳐 굽혀져 있다. 그때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말했고 여전히 부르고 있는 그 목소리를 떠올린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길을 잃은 듯하여 많은 눈물을 흘린 후, 그녀는 이미 한 번 그곳에 있었던 적이 있음을 기억해 낸다.

89. 그토록 큰 사랑으로 그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그 길에 나타나 말씀하신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90. 아이는 그 목소리에서 자신에게 존재와 지성, 능력을

주신 분의 말씀을 알아차린다.
바로 아이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정화하시며,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아이는 자신이 심판자 앞에 서
있음을 알고 떨며 말합니다.
"아버지, 제 불순종과 죄가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크니, 저는
공로가 없기에 아버지의
왕국에서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적 계곡'으로
돌아와 보니, 제가 쌓아온 것은
속죄해야 할 죄뿐임을
깨닫습니다."
91. 그러나 자애로운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길을 보여
주시니, 그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 인류의 일원이 된다.
92. 그러나 이제 이미 경험을
쌓은 영혼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신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육신의 껍질을 더 큰 힘으로
다스린다. 투쟁이 시작된다. 그
영혼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와
싸우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허락받은 기회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하며, 관자놀이에 흰 머리가
반짝이고, 예전에는 강인하고
튼튼했던 몸이 세월의 무게에
굽어지기 시작하며 힘을 잃을 때,
영혼은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며
경험이 풍부해졌음을 느낀다.
죄가 얼마나 크고 혐오스럽게
보이는가! 영혼은 죄에서 등을
돌리고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제
그녀는 오직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시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성한
법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 살아계신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93.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육신 속에서 죽음을
느꼈으나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하고 경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영 안에서
자신을 보았고, 마치 앞에 거울이
있는 것처럼 빛으로 가득 차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그녀에게 말하며 물었다. "딸아,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던 그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분의 빛이

자신의 존재 속으로 흘러들게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오 창조주여, 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시여, 저는 쉬기 위해, 그리고 성취를 당신께 바치기 위해 당신께 나아갑니다."

94. 빛은 갚아졌고, 영혼은 건강하고 순수하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녀를 기다리는 큰 상을 눈앞에 보았다.

95. 그 후 그녀는 그 아버지의 빛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행복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으며, 평화의 장소, 거룩한 땅을 바라보았고, 깊은 고요함을 느꼈으며,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었다." (33, 14-16)

제31장 - 구원, 구속 및 영원한 구원

구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의 바로잡기

1.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이 최초의 지구 거주자들의 죄로 인해 발생했다고 믿었다. 비유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러 오셨다고 말했다. 만약 이 주장이 옳았다면, 그 희생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고통받는가?

2.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삶과 행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길을 가르치셨다. (150, 43-44)

3. 너희는 모두 너희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고갈될 줄 모르는 나의 가르침을 준 것은, 너희가 발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피가 아니라, 너희 영혼 안에 있는 나의 빛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8, 39)

4. 제3의 시대에 나에게 새로운 십자가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높이에서 나는 인류에게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내

말씀의 영적 정수인 나의 피는
영혼을 위한 빛으로 변할 것이다.
5. 당시 나를 심판했던 자들은
오늘날 그들의 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빛을
가져다주어, 그들의 잘못을
만회하게 한다.
6. 인간의 악함에 대한 나의
가르침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기둥에서 채찍질당하고
조롱받으신 것처럼, 그 가르침도
먼저 채찍질당하고 조롱받아야
한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모든
상처에서 나의 빛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보이지 않는 피가 인류 위에
쏟아져야 한다. (49, 17-19)
7.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골고타에서 흘린 그 피는
모든 영혼을 위한 생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땅의 흙에 떨어진
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상징된 신성한 사랑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피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제 너희는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되었다.
8.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피를
흘렸으나, 그 피는 신성한 사랑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이며 인간적인 사랑을
구현한 것에 불과했다.
9. 그러나 예수의 피는 신성한
사랑을 구현하고 있으니,
그분께는 어떠한 흠도 없기
때문이다. 스승께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너희에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모든 것이시며,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심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온전히 헌신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
10. 땅의 흙이 스승의 몸 안에
생명이었던 그 액체를 흡수했을
때, 그것은 내 가르침 이 신성한
관개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정의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만 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11. 스승의 말씀과 모범에 대해
불신하고 회의적인 세상은 나의

가르침을 반대하며, 비록
예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12. 사람들은 구원의 피가 가진
그 힘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지만, 내 가르침의 진정한
핵심을 밝혀야 할 사람들은 빛을
갈망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의 질문을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1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답변과 설명보다,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질문이 더 깊고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1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다시 왔으니, 그 피가
실제로 신성한 정의 앞에서
죄인들을 구원했다고 믿는 자들,
곧 잃어버린 자요 심한 고통에
처해 있던 모든 자들을 위한 나의
말씀은 이러하다.
1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물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과
행실로 주신 온전한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셨다면,
진실로 그분을 결코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결코 무익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니, 열매를 맺도록
예정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을 보내어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고통받고, 죽게 하신 것은, 그것은
주님의 그 빛나고 풍성한 생명이
그분의 행적을 통해 지워지지
않는 길, 파괴될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참된
사랑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창조주께서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 또한 그분은 순수함과
무한한 사랑을 증언하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진 그 피가,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는
마음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올릴 사명을 완수하도록

가르칠 것임을 아셨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사명 완수를 바치고, 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17.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십자가 위에서 내 피가 흘려진 그 시간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을 알리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내 피는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 있고, 생생하게 남아 있어, 내 수난의 피 묻은 흔적으로 너희의 속죄로 향하는 길을 표시해 주었으니, 그 길은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고향을 얻게 할 것이다.

18.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나는 생명의 샘이니, 와서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내라. 그리하여 너희가 자유롭고 온전하게 너희 아버지이자 창조주께로 나아가게 하라."

19. 나의 근원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랑은 고갈될 줄 모르고 한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내가 흘린 피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것은 내 말씀을 확증하였고, 내 가르침을 입증하였다. (158, 23-33)

20. 그 사건으로부터 수 세기가 지난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 비록 내가 온 인류를 위해 내 피를 흘렸지만 — 오직 예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길을 걸은 자들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무지와 광신, 오류나 죄악 속에 머물러 있던 모든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느니라.

21. 내가 천 번이나 사람이 되어 천 번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따르지 않는 한,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의 십자가이다. 나는 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사람으로서 그 위에서 죽었으며,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 너희는 온유와 사랑으로 나를 따르고, 진정한 겸손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너희 사명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야 하며, 그리하여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아버지 곁에 있게 될 것이다. (168, 16-17)

22. 행복을 찾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행복이 지속될수록 더 좋은 법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높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며, 그 중에서 너희에게 가장 맞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

23.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만약 너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왜 그것을 심어 나중에 거두지 않는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낀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169, 37-38)

24. 너희가 지상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혼이 무엇인지,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5. 대다수의 신자들은 어느 정도 의롭게 살거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 그러나 인간에게 매우 마음에 드는 이 잘못된 생각은, 그로 인해 평생 동안 율법을 꾸준히 지키지 않게 되며, 결국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영적 세계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상상했던 기적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최고의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27.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존재들이, 그 대신 혼란스러운 것들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들은 육신의 거점이 없어 더 이상 지상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영적 빛의 영역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없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이지도 않고 깊이 영적이지도 않은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28. 그러자 영혼들은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이것이 천국인가? 이것이 영혼들이 지상에서 오랫동안 방황한 끝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처인가?

29. 아니요 — 다른 이들은 말한다 — 이곳은 오직 빛과 사랑, 그리고 순결만이 존재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일 수는 없다.

30. 점차 사색과 고통을 통해 영혼은 깨달음에 이른다. 영혼은 신성한 공의를 이해하게 되고, 영혼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과거 행실을 판단하며, 그것이 비참하고 불완전했음을, 자신이 믿었던 것을 누릴 자격이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31. 그 후, 이러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겸손이 드러나고,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 오점을 지우고, 잘못을 만회하며,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공덕을 쌓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

32. 인류에게 이 비밀들을 알려야만, 물질 세계에서의 삶이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을, — 그 공덕은 영혼을 고양시켜, 더 높은 영성화 단계에서 살 자격을 얻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뒤처지지 않고 단계별로 계속 상승하기 위해 다시금 공덕을 쌓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기" 때문이다.

33. 너희는 아버지의 영원한 법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랑을 통해 이러한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영혼은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며, 천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영혼의 완전함인 참된 천국으로 말이다. (184, 40-45)

3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가 이 시대에 사람으로 왔더라면, 너희의 눈은 내 상처가 아직 생생하고 피 흘리는 것을 보아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그치지 않았고, 그들이 골고다에서 내가 흘린 피, 즉 인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증거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심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의 행적을 바라보는 수치를 겪지 않도록, 영으로 왔노라.

35.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그러나 모든 영혼 안에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를 위해 흘린 것의 일부가 존재한다. 그

생명력과 그 피가 소멸되거나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들은 내가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낸 영적인 생명을 구현한 것이었다. 내 말씀을 확증하고 내가 지상에서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확고히 한 그 피를 통해, 사람들은 영혼의 갱신을 갈망하며 위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36. 나의 말씀과 나의 행적, 그리고 나의 피는 헛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내 이름과 내 말씀이 거의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희는 곧 그것들이 생명의 수액과 생명, 그리고 순결로 가득 차 다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치 끊임없이 공격받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씨앗과 같이 말이다. (321, 64-66)

37. 구원의 빛으로 변한 예수님의 피는 구원으로 모든 영혼에 스며들었으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영원히 내 영은 구원과 빛을 베풀며, 나는 끊임없이 어둠이 있는 곳에 내 빛의 광선을 비추고, 쉬지 않고 내 신성한 영을 — 인간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힘으로서, 영적인 생명으로서 — 내 모든 자녀들에게 쏟아 붓는다. (319, 36)

"천국"은 쟁취되어야 한다

38. 사람들의 정열이 일으키는 폭력에 휩쓸려, 그들은 죄악 속에 너무 깊이 빠져버려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인간의 폭풍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 — 일어나서,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는 자신의 운명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나의 법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39.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믿으며, 그 과정에서 투쟁과 고통의 무익함을 생각하는 자들은, 삶이 빚어내는 장인이며 고통이 완성시키는 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내가 고통을 만들어 너희에게 잔에 담아

건네주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 내가 너희를 넘어지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간은 스스로 불순종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또한 고통만이 너희를 완성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니,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31, 54-55)

40. 육신보다 영으로 더 많이 기도하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한 순간이나 사랑의 하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 너그러운 행실, 그리고 내 계명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큰 능력과 공감 능력을 주었다.

41. 나의 사업은 모든 이가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다. 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에 이끌린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3, 30-31)

42. 오직 완전한 것만이 내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영혼은 완전함에 도달했을 때에만 내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아무런 경험도 없이 나왔으나, 공로와 덕행의 옷을 두른 채, 나에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63, 22)

4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거하는 의인들의 영혼은 내가 그들에게 그 자리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실로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을 얻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지 길을 안내했을 뿐이며, 그 길의 끝에 높은 상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44. 내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주님은 길이며, 그 길을 비추는 빛이시며, 여행자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길을 안내하는 음성이시며,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니, 또한 주님은 목적지에 도달한 자를 위한 상이시니라." — 그렇다, 내 자녀들아, 나는 생명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라. (63, 74-75)

45. 오늘 아버지께서는 "누가 자신의 피로 인류를 구원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 "주님, 저는 제 피와 사랑으로 인류의 속죄를 위한 길을 닦을 준비가 된 어린 양입니다."라고 대답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46. 또한 나는 이 시대에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말씀"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는 너희에게 지나갔으며, 너희 영혼 속에 그 가르침과 고양을 남겼다. 이제 나는 영적 진보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공로를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80, 8-9)

47. 나는 너희 모두가 평화와 빛 가운데 거하며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점차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단지 나의 사랑으로만 아니라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하기를 원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의 만족과 행복은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45, 34)

48. 나는 인간적인 삶보다 더 높은 삶의 아름다움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고귀한 업적을 이루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주며, 사랑을 일깨우는 말씀을 가르치고, 희생과 믿음과 사랑의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그 영혼을 기다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행복을 약속하기 위해 왔다.

49. 너희는 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너희의 선한 행실이 너희 영혼을 참된 행복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할 것임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이다. (287, 48-49)

50. 만약 지구의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여행하기 위해,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높고 낮은 산과 바다, 민족과 도시, 나라들을 가로질러야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긴 여정을 거쳐야 하며, 그 긴 여정 속에서 영혼의 경험과 깨달음, 성숙과 발전을 얻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투쟁과 눈물을 흘린 끝에

마침내 누리게 될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것이다. (287, 16)

51. 너희는 빛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너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과 오류, 눈물로 가득 찬 삶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더라도 , 이러한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내 부름에 응답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의 세상을 비추며, 너희를 그 산을 오를 것을 초대하노라. 그 정상에 오르면, 너희가 지상에서 헛되이 쌓으려 했던 온전한 평화와 그 행복, 그리고 그 풍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308, 5)

52. 모든 세계, 모든 존재의 차원은 영혼이 그곳에서 발전하고 창조주를 향해 한 걸음 내딛으며, 그렇게 하여 완성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 흠 없이, 순수하고 온전하게 여정의 목적지인 영적 완성의 정점에 도달할 기회를 갖도록 창조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것이다.

53. 과연 누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아, 참으로 불쌍한 이성만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진정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지 못하구나! 너희가 내 품에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 즉 그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 생명의 근원에서 솟아난 모든 것이 제때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54. 모든 영혼은 나로부터 세상에 나왔을 때 처녀처럼 순결했으나, 그 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더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모든 것이 나에 의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정의에 입각하여 미리 예견되었기에, 나는 내 자녀들이 거쳐야 할 길 위에 그들의 구원과 갱신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즉시 마련해 두었다.

55. 비록 그 영적 순결이 많은 존재들에 의해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들이 모든 과오로부터 정화되어 그로 인해 본래의 순결을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정화는 내 눈에는
매우 공로가 큰 일이 될 것이니,
영혼이 믿음과 사랑, 충실함과
인내에 대한 크고 끊임없는
시련을 통해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56. 너희 모두는 노동과 투쟁,
그리고 고통의 길을 통해 빛의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육신으로 환생할 필요도,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의
영적 활동 능력은 이미 한 존재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너희의
영향력과 빛을 보내고 그것을
실감나게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313, 21-24)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

57. 보라, 여기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나를 들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 속에서
나의 신성한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창조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는 자신의 삶과
행실을 통해 나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63, 49)
58. 해가 온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별들도 땅에 빛을 비추는데,
하물며 신성한 영이 어찌 인간의
영혼에 빛을 비추지 않겠느냐?
59.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아,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라. 사랑에서
비롯된 정의의 빛이 세상에
퍼지게 하라. 나의 진리를 통해,
너희가 진정한 사랑 없이는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라. (89, 34-35)
60. 나의 빛은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너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 차원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형제자매들에게 행하는 사랑의
행위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신성한 계명을 이행할 때,
그들 모두는 해방되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다. (65, 22)
61. 사랑하는 백성아,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 말씀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는 "제삼의 날"이다.
이것은 내가 세상 앞에 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은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실 것이며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해주는 "세 번째 때"이다.
62.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선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앙과 사랑과 빛에 있어서는
육신 속에 죽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본다. 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영혼의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은 영혼의 구원이
오직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63. 예배 장소는 단지 학교일
뿐이다. 교회들은 율법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상이
삶이란 신성한 율법에서 배운
것을 내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적용해야 하는
길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152, 50-52)
64. 그리스도는 세상에 신성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잘난 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받은 가르침을 금방
잊어버리고 잘못 해석한다. 나는
사람들이 점차 정의와 사랑을
복수와 처벌로 혼동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영적으로 세상에 다시 돌아올
때를 너희에게 예고했다.
65. 그 약속된 때가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며, 나는
나의 정의와 신성한 지혜가 너희
하느님의 숭고한 사랑에 대한
완전한 가르침으로 드러나도록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업적이나 심지어 생명
자체를 파괴할까 두려워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 나는
오직 빛과 평화로 가득 찬 내
자녀들을 보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온 것이다.

66. 너희도 오직 나를 향한 사랑으로만 오는 것이 옳고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와야 한다.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죄를 피하는 자나,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상, 즉 영원에서의 자리를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자가 과연 신성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만 행동할 뿐이다. (164, 35-37)

67. 나의 모든 율법은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길이다. (243, 4)

모든 영혼을 위한 구원과 구원

68. 이제 나는 '두 번째 시대'에 나사로에게 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내 빛은 내게 속한 영혼을 깨우기 위해 온다. 그리고 그 영혼은 내 말씀의 진리를 통해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영혼은 현재 너희 존재 안에 품고 있는 나사로이며,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17, 52)

69. 영적인 삶 또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너희가 그 법칙에서 멀어지면 곧바로 그 불순종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70.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내 소망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오늘날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를 참된 생명으로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71. 골고타에서 흘린 나의 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내 가르침으로 돌아서게 하였듯이, 이 시대에는 나의 신성한 빛이 영혼과 육체를 떨게 하여 너희를 참된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2. 나는 은총의 삶에서 죽은 자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영혼이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69, 9-10)
73.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너희
동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깨달아라. 무지함 속에서
내가 오직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선한 자들을 구원하며,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스승, 형제, 혹은
친구로서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이를 구원하고
축복하며 용서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170, 23)
74.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아무리 자신이
하찮고 무능하며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존재들만큼이나 그분을
사랑받고 있으며,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75. 너희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악덕과 비참함을 짊어지고
거리의 추방자처럼 떠도는 그
사람들을 보느냐? 여전히
숲속에서 살며 포식자들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내 아버지의
사랑에서 잊혀진 이는 아무도
없다. 모두는 완수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는 발전의
씨앗을 품고 있고, 공로와 노력,
그리고 투쟁을 통해 영혼이 단계
단계로 나에게로 나아갈 길을
걷고 있다.
76. 단 한 순간이라도 나의
평화를 갈망하지 않았고, 이 땅의
삶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영혼은 이전에 살았던 세상,
즉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세상은 나의 모든
자녀들을 기다리며, 어떤 이들은
갈망하는 영생을 누리도록
그들을 초대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운 영혼을
지니고 희망도 믿음도 없이
살아가기에, 단지 죽음을
기다리며 존재를 끝내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이 이 존재들로 하여금 자신의 갱신을 위해 싸우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 안에 영원에 대한 갈망을 일깨울 수 있을까? 그들은 단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침묵, 그리고 끝만을 기다리고 있다.

77. 그러나 "세상의 빛"이, "길이요 진리"이신 분이 돌아오셨으니, 그분의 용서를 통해 너희를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너희의 지친 얼굴을 어루만지며,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자로 하여금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함이라. 그 목소리는 그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로 오라!" (80, 54-57)

78. 사람은 넘어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그로 인해 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도 죽지 않으며,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79.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들 중 오늘날 빛으로 가득 찬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죄와 악덕, 범죄의 오점을 흔적으로 남겼던 이들 중 이미 정화를 이룬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287, 9-10)

80. 비록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재 나를 잊었거나, 세상에서 만들어 낸 거짓 신들로 나를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내가 구원하리라. 그들이 지금 거짓 예언자를 따르느라,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의 가르침을 전했던 자비로운 그리스도를 잊었더라도, 그들도 내가 내 왕국으로 데려가리라.

81. 아버지께서는 누구도 "악한" 존재가 아니시며, 누구도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의 기원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자, 눈먼 자, 폭력적인 자, 반역자 — 내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 의지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빛이 비칠 것이며, 나의 자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54, 45-46)

82. 너희 모두는 나의 씨앗이며, 주인이 그것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 좋은 씨앗들 사이에 잡초의 씨앗이 섞여 있다 해도, 나는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내 손에 담아 황금빛 밀로 변화시킬 것이다.

83.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잡초와 진창, 범죄와 증오의 씨앗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거두어들이고 사랑한다. 나는 그 씨앗을 어루만지고 정화하여, 마치 밀이 햇볕 아래에서 빛나듯 빛나게 할 것이다.

84.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이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어낸 뒤, 너희가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을 내 정원에 너희를 심으리라. 너희를 내게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나의 신성한 사명이다. (256, 19-21)

85. 영혼이 내 빛의 불꽃을 품고 있는데,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내가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내게 있어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려질 수 있겠느냐? 비록 그 반항이 계속되거나 혼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세력들은 결코 나의 영원함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255, 60)

86. 가장 중대한 과오의 흔적으로 더럽혀진 존재가 높은 이상에 고무되어 자신을 정화하는 것은, 처음부터 빛을 사랑하여 끝까지 더럽혀지지 않으려 애쓰는, 확고하게 순수함을 지켜온 존재가 정화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있어 가치 있는 일이다.

87. 혼란에 빠진 영들이 빛의 영들과는 다른 성질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88.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불의하신 분이 되실 것이며, 또한 더럽혀진 자들과 불결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을 구원할 지혜와 사랑이 부족하여 그들을 모든 의인들과 함께 하나이자 동일한 고향에 모을 수 없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분이 아니실 것이다. (295, 15-17)

8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유혹자나 악마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조차도,

아버지가 그분의 고귀한 뜻과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혜롭게 이용하시는, 단지 혼란에 빠지거나 불완전한 존재들일 뿐이다.

90. 그러나 오늘날 영혼이 어둠에 휩싸여 있고,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능력을 잘못 사용한 이 존재들 중 많은 이들도, 그들에게 때가 되면 나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다.

91. 오 이스라엘아, 주님의 모든 피조물이 나를 영원히 찬양할 그 순간이 올 것이니라. 내가 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리라. (302, 31)

92. 이 땅의 부모들이 언제 오직 착한 자녀들만 사랑하고 악한 자녀들을 미워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그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이들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세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는가! 어 , 너희가 내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스승이 제자들에게 배워야 하는 일이 언제 있었단 말인가?

93. 그러니 내가 내 백성 중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너희가 그 길을 걷도록 영원히 초대하고 있으며, 빛과 평화와 선함인 내 왕국의 문들도 율법과 진리에서 멀어졌던 자들의 도착을 기다리며 영원히 열려 있다. (356, 18-19)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94. 나는 내 자녀 중 단 한 명도 길을 잃거나 심지어 멸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생식물을 열매를 맺는 식물로 변화시키리니, 모든 피조물은 완전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로 불려 나왔기 때문이다.

95.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나의 일을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일부이므로, 나는 이미 이전에 너희로 하여금 나의 속성을 누리게 하였다. 모든 것이

내 것이므로, 나는 너희를 나의 일의 주인으로 삼는다. (9, 17-18)

96. 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첫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었으니, 우상 숭배와 어둠을 의미하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인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97. 예수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스승인 내가, 다른 때에 세상에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세상에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약속의 성취이다.

98. 오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영혼을 위해 놀라운 지역들과 거처, 영적인 안식처를 마련해 두었음을 알린다. 그곳에서 너희는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나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전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었으니, 너희가 이를 의심할 수 있겠느냐? (138, 10-11)

99. 나의 신성한 소망은 너희를 구원하고, 빛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여, 영혼의 고양과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이상 덕분에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신성한 소망 속에서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눈이 멀었음에 틀림없다. (181, 13)

100. 명심하라: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언젠가 다른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아, 너희가 그 품에서 태어난 전능하신( )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영광을 뵙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147, 9)

101. 나는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행복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므로, 너희를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자 의무이며, 이를 위해 나는 영혼을 그 왕국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로서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263, 36)

102. 선과 지혜, 순결과 사랑의 높은 경지에 이른 영혼은 시간과 고통, 그리고 거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그 영혼은 한 곳에 머무르는 데 국한되지 않으며,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존재하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에서 어디서나 지극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천국이다. (146, 70-71)

VIII. 인간

제32장 - 인간의 화신, 본성 및 사명

지구에서의 육화

1. 너희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영적 계곡"으로 떠나갈 때, 그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고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울곤 한다. 반면,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 축제를 벌이는데, 그 순간 그 영혼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육신으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52, 58)

2. 너희는 육신의 자녀를 낳지만, 가족과 부족, 민족, 그리고 세계에 영혼들을 분배하시는 분은 바로 나이며, 이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정의 속에서 나의 사랑이 드러난다. (67, 26)

3. 너희는 현재에 살고 있어 내가 너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지상에 거주하며 어려운 사명을 띠고 올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 중 많은 이가 나의 사자들이 육신으로 태어날 그 존재들의 부모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의무는 그들을 맞이하고 인도할 줄 알도록 내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128, 8)

4. 나는 너희에게 많은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나, 너희는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희가 이미 어떤 종류의 거처로 지상에 내려왔는지 밝혀 준다면, 너희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5. 오늘 너희는 '영적 계곡'을 안다고 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이 육신에 깃들어 있는 한, 그 과거는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고, 마치 새로운 삶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존재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6. 설령 원한다 해도 너희는 기억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이곳에서 내가 계시하는 것에 대해 어렴풋한 짐작이나 직관을 간직하도록 허락할 뿐이다. 그래야 너희가 삶의 투쟁 속에서 인내하고 시련을 기꺼이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7.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그 영의 세계는 너희가 영적 존재였던 동안 정말로 너희의 고향이었습니다. 너희는 그곳의 주민이었으니, 그곳에서는 고통을 알지 못했고, 너희 존재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느꼈으니, 그분 안에는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8. 그러나 너희에게는 공로가 없었기에, 너희 영혼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왕국을 되찾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내려와야만 했다.

9. 그러나 너희는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마침내 너희의 근원인 신성하고 영적인 존재로부터 매우 멀어졌다고 느끼게 되었다. (114, 35-36)

10. 영혼이 땅에 올 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께 바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가장 훌륭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다.

11. 그러나 육신에 갇혀 있음을 깨닫고, 삶의 여정에서 수천 가지 방식으로 유혹받고 시험을 받게 되자마자, 영혼은 약해져서 "육신"의 충동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가며, 이기적이 되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며, 운명과 서약이 기록된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지 순간적일 뿐이다.

12. 내 말씀은 너희가 영적인 언약을 기억하고 유혹과 장애물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13. 아무도 내가 정해 놓은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은,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245, 47-48)

14. 사람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큰 영적 가르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인간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간을 둘러싼 물질은 영혼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에 거주하게 되고, 자신과는 다른 본성을 지닌 육체와 결합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에게 시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5. 여기에서 너희는 영혼이 자신의 과거를 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영혼이 막 태어난 무의식적인 피조물 속에 환생하여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그 육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시작한다.

16. 영으로부터는 양심과 직관이라는 두 가지 특성만이 남아 있지만, 인격과 행한 업적, 그리고 과거는 한동안 감춰져 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정하신 바이다.

17. 높은 고향의 빛에서 나와 이 세상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 영혼이, 만약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른 생애에서 자신의 영혼에 존재했던 위대함이 드러난다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허영심이 팽배하게 될까? (257, 18-19)

육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영에 의한 인도

18.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서 태어날 새로운 세대가 건강하고 그들의 영혼이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51, 59)

19. 너희 몸의 건강을 돌보고, 그 보존과 생명력을 챙기라.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영혼과 몸을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어려운 영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92, 75)

20. 너희 몸에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또한 몸이 오직 너희 영혼에게만 주어져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두지 마라.

21. 육신의 외피는 단지 영혼이 지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일 뿐임을 깨달으라. (62, 22-23)

22. 이 가르침이 너희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지 보라. 왜냐하면 육체의 물질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대지의 품에 가까워지는 반면, 영혼은 오히려 영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23. 육체는 영혼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쉴 수 있는 발판이다. 왜 그것을 묶는 사슬이나 가두는 감옥이 되게 내버려 두겠는가? 왜 그것이 너희 삶의 키가 되게 내버려 두겠는가? 눈이 보이는 사람을 눈먼 자가 이끄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126, 15-16)

24. 이 가르침은 모든 순수하고 신성한 것들처럼 단순하여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영혼의 노력은 육체 쪽에서 노력과 절제, 혹은 희생을 요구하며, 만약 너희에게 교양이나 정신적 훈련이 부족하다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25. 태초부터 영혼과 "육신"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옳고, 허용되며, 선한 것인지 이해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투쟁이 있어 왔다.

26. 이 힘든 투쟁 속에서, 너희는 마치 낯설고 악의적인 힘이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여 싸움에서 등을 돌리게 하고, 너희의 자유 의지를 행사하여 물질주의의 길을 계속 걷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2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 육체는 주위 모든 것에 민감하고, 굴복할 만큼 연약하며, 쉽게 넘어지고 유혹당하기 쉽다. 그러나 육체의 충동과 정욕, 그리고 약점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자는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유혹을 이겨낸 것이다. (271, 49-50)

28. 지구는 싸움터이며, 거기서는 배울 것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이 행성에서 몇 년의 삶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며, 너희는 거듭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보내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러움과 물질주의가 달라붙은 자신의 몸보다 영혼에게 더 음울하고 어두운 무덤은 없다.

29. 나의 말씀은 너희를 이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 후 너희에게 날개를 주어 너희가 평화와 영적 빛의 영역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한다. (213, 24-25)

인간 내에서의 영혼, 정신, 양심의 의미와 역할

30. 인간은 영 없이도, 오직 영혼이 깃든 육체적 생명만을 통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그는 인간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는 영혼을 소유하고 영이 없을 것이나, 스스로를 이끌 수 없을 것이며, 영을 통해 법을 깨닫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모든 신성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지고한 존재가 되지도 못할 것이다. (59, 56)

31. 영은 영혼을 비추어야 하며, 영혼은 육체를 이끌어야 한다. (71, 9)

32. 세상에서는 어떤 이들은 허영을 좇아 달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피조물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자신을 흙 속의 벌레에 비유하는 자들도 있다. 물론, 너희의 육체는 나의 창조물 가운데서 작게 보일지 모르나, 내가 지혜와 능력을 다해 창조하였기에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33. 그러나 어떻게 너희는 육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너희

존재의 위대함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 안에서 영혼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느냐? 영혼은 너희의 육체보다 더 위대하며, 그 존재는 영원하고, 그 길은 무한하다. 너희는 그 발전의 끝을 알 수 없듯이, 그 기원을 알 수도 없다. 나는 너희를 작게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위대함에 이르도록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언제 인간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지 아느냐? 그가 죄에 빠져 타락했을 때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34. 너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가 실제로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창조주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많은 특성, 능력, 은사들이 너희 존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혼과 영에 관해 잠들어 있으며, 바로 그 영적 특성들 속에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존재들처럼 살고 있다. (85, 56-57)

35. 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의 영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에게 증명해 주노라. 물질적 창조물 중 너희의 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빛을 발하는 왕성(太陽)도, 온갖 기적을 지닌 지구도, 그 밖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너희에게 준 영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영은 신성한 입자이며, 신성한 영에서 나온 불꽃이기 때문이다.

36.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영들만이 영적 지성, 의식, 의지, 그리고 의지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37. "육체"의 본능과 욕망 위로 너희의 영혼인 빛이 솟아오르며, 이 빛 위로 영인 인도자, 교과서, 심판자가 있다. (86, 68)

38. 인류는 물질주의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영의 왕국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오, 불신자들아, 너희는 '제3의 시대'의 도마이다. 연민과 자비, 다정함, 선함,

그리고 너그러움의 감정은
육체의 속성이 아니며, 너희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은총의
선물들 또한 그러하다. 너희
마음과 이성에 새겨진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능력은 영의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단지 한계가 있는 도구일
뿐이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
하나님의 한 원자이므로
위대하다.

39. 너희 존재의 핵심에서 너희
영의 거처를 찾고, 사랑의 영광
속에서 위대한 지혜를 찾으라.
(147, 21-22)

4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의 태초부터 인간은 자신
안에 영적 존재를 품고 있다는
직관적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
존재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삶의 다양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곤 했다.

41. 너희 주님은 때때로
너희에게 영의 존재와 그 본성,
그리고 그 숨겨진 실체를 계시해
주셨다. 너희가 그분을 내면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물질화에 휩싸인 베일이 너무나
두꺼워서 너희는 너희 존재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42. 인간은 많은 진리를
부정하려 감히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가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것 중
하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직감하고, 결국
깨달았기 때문이다.

43. 인간의 육신이 정욕과 악덕,
감각적 쾌락으로 인해 타락했을
때, 그것은 영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슬이자, 어두운
눈가리개이자, 감옥이자
장애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순간에
인간에게는 그를 도와주는
내면의 빛의 불꽃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4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의 가장 높고 순수한 표현은
양심, 즉 인간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를 첫 번째이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그 내면의 빛이다. (170, 56-60)

45. 나는 모든 백성에게, 비록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인간이 가진 가장 높고 아름다운 칭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임을 말한다.

46. 율법과 가르침의 의미는, 너희가 지극한 완전함 그 자체이신 그 신성한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계시하는 데 있다. (267, 53)

47. 너희는 너희가 "나를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너희의 육체적 형상을 떠올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 안에 있다. 그 영혼은 — 나를 닮기 위해 — 덕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해져야 한다.

48.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의로움이요, 선함이니, 이 모든 것은 신성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느냐? (31, 51-52)

49. 너희 안에는 신성의 반영이 있으며, 나는 진실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지닌 지성, 의지, 능력, 감각, 그리고 덕행들은 너희가 속한 더 높은 본성을 증언하며, 너희가 나온 아버지께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다.

50. 때때로 너희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너희 존재 속에 지니고 있는 나의 형상을 더럽히고 훼손한다. 그럴 때 너희는 나와 닮지 않는다. 창조주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참으로 닮은 점은 너희의 빛과 모든 이웃을 향한 너희의 사랑에 있다. (225, 23-24)

51. 나는 너희를 "나를 닮은 형상과 비유"로 창조하였으며, 내가 동시에 삼위일체이기에 너희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가 존재한다.

52. 너희의 물질적 육체는 그 완전한 형상과 조화 덕분에 창조를 대표한다. 육신화된 너희의 영혼은 인간 세상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람이 되신 "말씀"의 형상이며,
너희의 영은 성령의 신성한
빛에서 나온 찬란한 불꽃이다.
(220, 11-12)

53. 너희 영혼이 의지도 없고
자기만의 성향도 없는 육체
안에서 활동한다면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영혼과 육체 껍데기
사이의 투쟁은 힘 대 힘의
싸움이다. 거기서 영혼은 자신의
우월성과 위대함을 증명해야 할
시련의 시험대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영혼이 종종 세상이
'육신'을 통해 가져오는 유혹에
잠시 굴복해 버리는 시험이다. 이
(유혹들이) 영혼에 미치는 힘은
너무나 커서, 결국 너희는
초자연적이고 사악한 힘이
너희를 파멸로 끌고 가며 정욕
속에서 너희를 파멸시켰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54.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얼마나 큰가!
육신은 이 책임을 떠맡지 않았다.
죽음이 닥치면 육신이 영원히
땅속에 잠드는 것을 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완전한
거처를 차지할 자격이 있도록,
언제쯤 공덕을 쌓을 것인가?

55. 세상은 너희에게 허영과
교만, 그리고 거짓된 위대함만을
증명하는 면류관을 내민다.
이러한 허영을 초월하는 법을
아는 영혼에게는 내세에서 또
다른 면류관, 곧 나의 지혜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53, 9-
11)

56. 삶은 육체보다 영혼 안에서
더 드러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존재하는 은총,
즉 창조주가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신성한 불꽃을 드러낸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57.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영
안에서 투시력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58. 영은 나의 『신성한 지혜의
책』과 같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가! 영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 주는데, 때로는 그

계시가 너무 심오하여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59.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존재하는 그 빛의 불꽃은 인간을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는 끈이며, 그를 저 세상과 그의 아버지와의 접촉으로 이끄는 것이다. (201, 37-40)

60. 아, 너희의 물질적 본성이 너희 영이 예지력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너희의 영은 결코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비록 육체가 그 물질적 성질 때문에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언제쯤 너희는 너희의 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266, 11)

61. 삶을 잔혹하다고 부르며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인간 내면의 영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영혼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한, 너희는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62. 영혼을 물질과 그 욕망 위에 있는 더 높은 삶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영이다. 너희가 영성화를 실현해 낸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왜 그것을 '생명'이라 불렀는지 알게 될 것이다.

63. 이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한 후, 누가 감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겠는가?

64. 너희의 진정한 가치가 너희의 영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65. 그러면 영이 가련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 줄 것이나, 그 전에 인간은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정욕을 버리고 의와 지혜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너희에게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오늘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삶이다. 너희는 자신이 무엇을 경멸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의 완전함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기 때문이다. (11, 44-48)

인간 안의 하나님의 성전

66. 인류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유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었던 계시를 헤아릴 줄 몰랐기 때문이다. 준비할 줄 아는 이에게는 내가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어디에나 현존하지만, 물질주의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감수성이 없는 이에게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느끼거나 볼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67. 인간은 자신이 내 안을 품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과 정신의 빛 속에서 신성의 순수한 현존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83, 50-51)

68.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짓누르는 고통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면의 성소 문 앞으로 이끌고, 그곳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그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성소 내부에서 스승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내가 늘 머물러 온 곳, 곧 너희의 영 안에 있다." (104, 50)

69. 너희는 내 안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영적 생명과 물질적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내 안에서 태어났을 때, 나 또한 너희 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70. 나는 너희의 영 안에서 태어나, 너희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자라며, 너희의 사랑의 행실 속에서 온전히 나를 드러내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게 하리라. (138, 68-69)

71. 오늘 너희는 아직 어린 제자라 내 가르침을 항상 올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당분간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면 그분은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 영 안에서 말씀하실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가 될 것이며, 너희는 점차 그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목소리에 익숙해질 것이다. (205, 47)

72.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곳에는 창조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제2의 시대"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살아 계시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너희는 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73. 선을 행하는 자는 내 존재를 내면 깊이 느끼며, 겸손한 자나 모든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74. 너희 영혼 안에는 성령의 성전이 존재한다. 이 영역은 파괴될 수 없으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풍이나 회오리바람은 없다.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며, 그 기둥은 선함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어야 한다. 그 돔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며, 문은 신성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내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는 하늘의 어머니의 마음을 건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75. 제자들아, 여기 성령의 교회에 살아 있는 진리가 있으니, 너희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길을 잃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라. 돌로 지은 교회들은 단지 상징일 뿐이었으며, 그것들 중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76. 나는 너희 내면의 제단 위에 믿음의 불꽃이 항상 타오르기를 원하며, 너희가 너희의 행실로 언젠가 위대한 성소가 세워질 기초를 다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나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니, 이는 내가 내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들 모두를 참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148, 44-48)

제33장 -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결혼과 가정

남자와 여자의 관계

1. 너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희의 삶의 길과 성향을 알고 있었으며, 너희의 인생 여정을 돕기 위해,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밝혀 줄 한 마음을 너희 길에 두었다. 이 마음은 남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자의 마음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주어, 너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믿음과 도덕적 힘, 자비의 버팀목이 되게 하고자 했다. (256, 55)

2.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너희와 나누고자 하였기에, 나는 너희를 인간의 부모로 삼아, 너희와 닮은 존재들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영혼들이 그 안에 육신을 입게 하려 하였다. 신성하고 영원한 곳에 모성애가 있기에, 나는 인간 삶 속에 그것을 구현하는 존재가 있기를 원했으며, 그 존재가 바로 여성이다.

3. 태초에 인간 존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두 성별이 창조되었으니, 하나는 남자요, 다른 하나는 여자라. 그에게는 힘과 지성과 위엄이, 그녀에게는 다정함과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는 씨앗이요, 다른 하나는 비옥한 땅이다. 보라, 오직 서로 결합할 때만 완전하고, 온전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두 존재를. 그들의 조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육체', 하나의 의지, 하나의 이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4. 이 결합이 영과 사랑에 의해 영감을 받을 때, 그것은 결혼이라 불린다. (38, 29-31)

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본다.

6. 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자들을 발견하고, 모성을 회피하는 여자들을 발견하며, 남자에게 정해진 영역에 침범하는 다른 이들도 발견한다. 비록 옛날부터 너희에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7. 그러므로 여자는 자신이 뒤처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는 남자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8. 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결혼을 제정하고 거룩하게 한 이유이다. 영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다른 이 두 존재의 결합 속에야말로 완전한 경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66, 68, 69)

9. 사랑으로 신의 법을 실천하며 평화와 빛과 조화의 낙원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10. 사람들이 걸어온 길은 매우 길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고통과 실망만을 쌓아가는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을 선호한다. 금단의 열매란,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해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11. 남자와 여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생명의 열매를 취하며, 지상에서 새로운 존재를 잉태할 때 창조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 (34, 12-14)

12.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묻는다. "주님, 인간의 사랑은 주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고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은 오직 영적인 사랑만을 인정하십니까?"

13. 아니요, 백성들아. 비록 영에게는 가장 높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주어졌지만, 나는 인간의 몸에도 마음을 두어 그 마음이 사랑하게 하였고, 그 마음에 감정을 주어 그 마음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였느니라.

14. 그 뿌리가 오직 육체에 있는 사랑은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밝혀 줄 양심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한 결합에서는 언제나 선한 열매가 맺히며, 그 안에 빛의 영혼들이 환생할 것이다. (127, 7-8, 10)

15. 나는 너희에게 초인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남자에게 나를 따르기 위해 더 이상 남자가 되지 말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여자에게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 이상 여자가 되지 말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나는 남편을 그의 배우자에게서 떼어 놓지 않았고,

그녀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녀를 남편에게서 멀리하지도 않았다. 또한 부모들에게 나를 따르기 위해 자녀를 버리거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적도 없다.

16. 내가 그들을 "이 포도원의 일꾼들"로 삼았을 때, 나는 그들 모두에게 — 나의 종이 되기 위해 — 인간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133, 55-56)

남자의 본성과 사명

17. 너희 남자들에게 나는 유산, 즉 너희에게 맡겨진 아내라는 선물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녀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배우자가 내게 와서 너희의 무지함을 이유로 내 앞에서 호소하며 울었다.

18. 나는 너희가 강하다고, 너희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비하하고 그녀를 너희의 노예로 만들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19. 나는 너희가 너희 집에서 나를 대변할 수 있도록 너희를 강하게 만들었으니, 덕과 재능에서 강하게 만들었으며, 너희의 지상 생활에서 서로를 보완해 줄 동반자로서 여자를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상호 사랑 속에서 시련과 변덕스러운 운명에 맞설 힘을 얻게 하려 함이라. (6, 61)

20. 남자들이여, 생각해보라. 종종 너희가 바로 그 미덕 있는 여성들을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음을. 너희는 그들 안에서 감성적이고 연약한 면을 찾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는 맑았으나 오늘날 흐려진 그 거울들을, 너희는 다시금 그들의 영혼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비추게 해야 한다.

21. 왜 너희는 과거에 타락한 삶으로 유혹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오늘날 경멸하는가? 왜 여자의 타락을 한탄하는가? 이것을 깨달으라.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내 법의 길로 인도했다면, 즉 마음과 영의 법, 존중과 이웃 사랑의 법으로, 비하하는 정욕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너희는 울고 탄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그녀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22. 남자는 여자에게서 미덕과
아름다움을 찾고 기대한다.
그러나 너희는 왜 너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가?
23. 나는 너희가 가진 공로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본다. 너희의 행실과 말과
생각으로 너희가 파괴한 것을
다시 세우고, 명예와 도덕과
덕행에 그 본연의 가치를
부여하라.
24.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돕는 것이며, 선한
아내와 존경받는 어머니들로
인해 가정이 존경받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덕을 잃었던
이들에게 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기쁨은 클
것입니다.
25.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남자들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의 빛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너희가
파멸로 몰아넣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하라.
내 사랑의 생각이 그들의 이성과
마음에 닿게 하라. 감옥과 병원,
심지어 진흙탕 같은 곳까지 가서
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이
유혹으로 그들을 파멸로 끌고 갈
때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6. 모든 여자는 한때 아이였고,
모든 여자는 한때 처녀였으니,
그러니 너희는 공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27. 나는 이러한 미덕을 더럽히지
않은 남자들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행실로
너희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음을 기억하라. 영혼이
육신의 모습을 통해 말하게 하라.
28. 그러나 내가 그 존재 안에
심어 놓은 사랑의 매력을
존중하려 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라. 너희가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닌데,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이들이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며,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막지 못하게 하는가? 생각해 보라: 너희가 그 시든 꽃들에게 하는 일을, 너희 어머니나 자매, 혹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에게 한다면 너희 마음은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너희를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너희가 입힌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29. 양심의 빛 아래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너희 마음에 물어보라.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겠느냐?

30. 끊임없이 이웃을 상처 입히면서, 너희는 미래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희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너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정열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많은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니, 어떤 이들은 너희의 현재에 속하고 다른 이들은 너희의 과거에 속해 있다.

31. 나는 배신과 거짓의 보금자리였던 마음과 입이, 진리와 순결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32. 말씀과 너희의 모범으로 이웃들의 길을 밝혀 주어, 너희가 타락한 여성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라. 아, 너희 각자가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33. 그 여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그 모욕적인 말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상처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그들도 악한 심판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34. 다른 이들의 행동과 비밀을 존중하라.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로 넘어졌으나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남자들이, 순결을 뽐내면서도 죄를 짓는 위선자들보다 내게는 더 사랑스럽다. 나는 거짓된 덕행을 가장하는 것보다, 비록 큰 죄인이더라도 진실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너희가 자신을
치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실함의 예복이어야 한다.
35. 고결한 품성을 지닌 여인을
만나 그녀를 사랑하지만,
자신에게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그녀를
모욕하고 경멸했다가, 고통을
겪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뒤
위로를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로
돌아선다면, 너희는 헛되이
그녀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36. 각 남자의 삶에서 한몫을 한
모든 여인들이 그로부터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해의 말과 마음을
받았다면, 너희 세상은 지금과
같이 죄악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235, 18-32)

여성, 아내, 어머니

37. 여성들이여, 너희는 기도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작은 평화를
지키는 이들이다. 가정의 충실한
수호자로서 그곳에 사랑의
온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돌보는
이들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나가
되어 인간의 교만을 꺾는다. (130,
53)

38. 눈물로 이 세상의 길을
적시고, 피로 이 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여성들이여: 내 곁에서
쉬어라.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너희에게 지상에서
맡긴 사랑의 보금자리, 난로의
불꽃, 집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라.
너희가 앞으로도 남편과
자녀들을 날개로 감싸는
종달새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39. 나는 남자를 높이시고,
여자의 자리를 남자의 오른편에
두시나이다. 나는 결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나이다.
40. 이 시대에 나는 사랑의 칼을
들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노니, 이는 이전에 인간에 의해
뒤틀려졌기 때문이다. (217, 29-
31)
4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의 갱신은 여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일의 인간이 될 그들의 열매가,
너희를 타락으로 이끈 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42. 그 후에는 이 회복의 일에
남성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을 타락시킨 자는 누구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3. 오늘 나는 너희가 길에서 넘어진 여인을 구원하도록 영감을 주었노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해 낸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오면, 나는 그녀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꽃과 축복, 그리고 지극히 큰 평화를 주리라.

44. 너희가 이 임무를 이렇게 완수할 때,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그 존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45. 그들이 기도 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것을 들을 것이다. "아버지, 제 죄를 보지 마시고 오직 제 고통만을 보아 주십시오. 제 타락을 심판하지 마시고 오직 제 고통만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 순간, 그 고통받는 마음에 나의 위로가 내려와 눈물로 정화될 것이다.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죄인의 기도가 자신을 의롭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의 기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235, 16-17, 43-45)

46.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해, 사람들은 그 증거나 특징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서 신성한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은 모성애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타심과 자기 부정이 있으며,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는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42, 39)

47. 불임인 여인들에게 스승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몸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청하였으며, 어느 날 저녁이나 아침에 너희 뱃속에서 연약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날과 밤이 지나갔으나, 어떤 아이도 너희 문에 두드리지 않았기에 오직 흐느낌만이 너희 가슴에서 터져 나왔을 뿐이다.

48. 나를 듣고 있는 너희 중, 모든 희망의 과학으로부터 박탈당한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능력을 믿고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비로소 아이를

갖게 될 것인가. 깨어 있으라. 인내하라. 내 말을 잊지 말라! (38, 42-43)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49. 가정의 가장들이여, 실수와 나쁜 본보기를 피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만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저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0. 나는 수적으로만 아니라 덕행에서도 성장하고 번성하는 새로운 인류를 원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약속된 도시를 눈앞에 보고, 그들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기를 바란다.

51. 나는 지구가 사랑의 열매인 선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52.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라. 너희 마음이 그들의 죄악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주민들처럼 되지 말라. (38, 44-47)

53. 자녀들에게 열정을 다해 길을 가르치고, 영과 물질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이 이를 어길 때에는 바로잡아 주라. 너희는 부모로서 이 땅에서 나를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룩한 분노로 예루살렘의 상인들에게 하나님의 일, 즉 변함없는 법들을 수호하며 영원히 기억될 교훈을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 (41, 57)

54. 오늘날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므로 내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영혼이 너희가 가진 육체와 동시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둘의 기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품에 안고 어루만지는 그 어린아이들은 마음속에 순수함을 품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때로는 부모의 것보다 더 길고 불행한 과거가 숨겨져 있다. 그 영혼들이 성장의 길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돌봐야 할 이들의 책임은 얼마나 큰가.

55. 그러므로 자녀들을 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너희는 그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오히려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하고, 너희의 육신과 피를 통해 일시적으로 부모가 된 영적 형제자매들의 인도자이자 조언자가 되도록 너희 안에 자비를 두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56, 31-32)

56. 나는 가정의 가장들에게, 자녀들의 물질적인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와 관련하여 부여받은 사명 때문에 자녀들의 영적인 미래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81, 64)

57. 영혼이 육신에 깃들 때, 그 모든 능력을 지니고 온다는 것, 그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새로 무엇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라. 영혼은 메시지를 가져오거나 속죄의 과제를 안고 온다. 때로는 (좋은) 씨앗을 거두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빚을 갚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생에서 영혼은 언제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교훈을 받는다.

58. 이 생을 통해 자녀들을 인도하는 너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지나간 뒤에 그들이 내 율법의 길을 걷도록 돌보아라. 그들의 감정을 일깨우고,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며, 항상 선한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오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내게로 인도하는 자는, 나의 사랑인 그 신성한 불꽃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넘쳐흐를 것이다. (99, 64-65)

59. 영적으로 너희는 이미 먼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 너희는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세대가 드러내는 직관과 성장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한 영혼들이며, 이제 인류를 위해 앞장서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의 길로,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길로, 각자의 능력과 사명에 따라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서 사람들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존재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220, 14)

60. 너희는 타락하거나 악한 세속적인 아버지의 나쁜 본보기를 마주한 아이가,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아이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6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심과 이성이야말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271, 33-34)

62. 축복받은 순수함은 세상의 타락에 물들었고, 젊은이들은 숨 가쁜 속도로 그 길을 따르며, 처녀들조차도 수줍음과 순결, 그리고 예절을 잃어버렸다. 이 모든 미덕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세속적인 정욕을 키웠으며, 오직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쾌락만을 갈망하고 있다.

63.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니, 너희가 일어나 영혼의 성장을 향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라. (344, 48)

64. 젊은이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크고 고귀한 이상을 심어주라. 내일 정의와 사랑, 그리고 영혼의 거룩한 자유가 빛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싸울 것은 바로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준비하라. 예언들이 말하는 그 큰 전투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139, 12)

아이들과 처녀들에게 보내는 말씀

65. 너희 어린 영혼들은 모두 나 안에서 신성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현세에서 인간 부모를 주신 것은, 그들이 너희 육신에 생명을 주고 너희 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변하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너는 모든 피조물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고,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노라. 그러니 너희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 이 세상에 계신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라. (9, 19)

66. 오늘 나는 특히 내일 자신의 존재로 새로운 가정의 삶을 밝게 비추어야 할 소녀들에게 말하노니, 아내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성령이 내면의 성전을 비추듯이 그 성소를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67. 너희의 새로운 삶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 너희의 자녀들이 걸을 길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 영혼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형체를 갖추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너희 품에 다가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68. 내 회복의 계획과, 갱신과 정의의 사역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69. 이 시기에 너희 발걸음을 둘러싼 수많은 유혹에서 돌아서라. 수많은 여인이 파멸하고, 수많은 성소가 더럽혀지며, 수많은 등불이 꺼져가는 죄 많은 도시들을 위해 기도하라.

70. 너희의 모범을 통해 생명과 진리와 빛의 씨앗을 퍼뜨려라. 그 씨앗은 인류에게서 영성 결핍이 초래하는 결과를 막아 줄 것이다.

71. 이 민족의 처녀들이여, 깨어나라.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라! 마음의 정욕에 눈이 멀지 말고, 허상에 현혹되지 말라. 직관과 영감, 감수성과 섬세함이라는 너희의 재능을 펼치라. 진리 안에서 강해지면, 너희는 이 생의 싸움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다.

72. 너희의 피로 사랑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 즉 생명의 정수인 그 사랑으로 너희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너희를 관통하게 하며, 그 사랑을 깊이 느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가르침이 너희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바이다. (307, 31-36)

결혼과 가족

73. 결혼의 법은 조상들의 영을 통해 말씀하신 빛으로 내려왔으니, 이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창조주와의 언약을 의미함을 그들이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결합의 열매는 자녀이며, 그 자녀 안에는 부모의 피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것은 땅 위에서 결코 풀려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되느니라.

74.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는 그 행복은, 창조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셨을 때 경험하신 것과 비슷하다. 나중에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법을 깨닫게 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게 한 것은, 사람들이 자유 의지로 인해 간음과 정욕의 길로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75.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나는 예수로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나 사랑의 법칙인 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결혼을, 나아가 인간의 예의와 덕을 높였다. 나는 내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하였고, 결혼을 거룩한 제도로 만들었다.

76. 이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남자와 여자여,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결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에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나의 거룩한 제도는 더럽혀졌고, 그 생명의 샘에서 죽음과 고통이 솟아나고 있다. 이 율법서의 순백한 종이 위에는 남자와 여자의 오점과 흔적이 남아 있다. 달콤해야 할 열매는 쓰며, 사람들이 마시는 잔은 쓸개로 가득 차 있다.

77. 너희는 내 법에서 멀어지고, 비틀거릴 때면 두려움에 차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토록 고통이 많은가?' 육신의 욕망이 언제나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내가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어찌하여 너희에게 평화가 없는가?

78. 나는 하늘의 천장에 푸른 망토를 펼쳐 놓았으니, 너희가 그 아래에서 너희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짓고, 세상의 유혹과 얽힘에서 멀리 떨어져 새들처럼 단순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단순함과 진실한 기도를 통해야만 내 왕국의 평화와 수많은 신비의 계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79. 내 신성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모든 이 — 비록 그 결합이 어떤 성직자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는 나와 계약을 맺는 것이니, 이는 모든 운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남게 될 계약이다.

80. 누가 그곳에서 이 서로 얽혀 있는 두 이름을 지울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내 법 안에서 결합된 것을 풀 수 있겠느냐?

81. 내가 너희를 갈라놓는다면, 나는 내 자신의 업적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땅 위에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했고,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 그런데 왜 그 후에 너희는 서약을 지키지 않고 맹세를 저버리는가?
이것이야말로 내 법과 내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38, 32-37, 39-41)

82. 나는 마음속으로 순결을 지키는 법을 알지 못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다정함과 이해의 온기를 베풀 줄도 몰랐던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인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83. 남자와 여자가 인간 생활 속에 존재하는 중대한 잘못들을 먼저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의 영적 삶을 고양할 수 있겠느냐?

84. 나의 사역은 제자들이 삶 속에서 행동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통해 이를 증언할 줄 알기를 요구한다.

85. 나는 이쪽과 저쪽 모두에게 묻노라. 너희에게 자녀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가 단 한 순간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엿볼 수 있다면, 너희는 자신들의 부모라고 칭하기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지 말고, 자녀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을 삼가라.

86. 나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안다. 당사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 단 하나의 해결책, 즉 별거와 이혼만을 찾는다.

87. 사람이 영적 지식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와 영성 속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고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영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8. 나의 빛은 모든 마음, 심지어 슬퍼하고 낙담한 이들에게까지 닿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준다. (312, 36 42)

89. "제2의 시대"에 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혼한 많은 부부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내가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느냐? 다투며 평화와 사랑, 신뢰의 씨앗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과 식탁 위, 그리고 침상에서 적대감과 불화를 보았다.

90. 나는 또한 — 법에 의해 결혼 생활이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 서로 사랑하며, 마치 둥지 속의 종달새들처럼 함께 살며, 그들의 작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루만지고 보호하는 많은 이들의 집에도 들어갔다.

91.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 형벌이나 인간의 법, 혹은 사회의 판단을 두려워하여 그 분열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교제도 진실함도 없다.

92.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된 유대감을 과시하며, 가족과 교회를 방문하고 산책을 나간다. 세상은 그들이 사랑의 부재를 숨기는 법을 알기에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반면, 서로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은 숨어야만 하고, 진정한 일치를 감추며, 무지와 불의를 견뎌내야 한다.

93. 인간은 이웃의 삶을 꿰뚫어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다. 영적 및 세속적 법규( )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사례들을 처벌하기 위해 진정한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9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고하는, 인류가 완성될 그 이해와 통찰의 시대가 올 것이며, 그때 너희는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와 같이, 사랑하는 이들의 결합이 내가 오늘 내 자녀들에게 행한 것처럼, 즉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미래의 시대에도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결합할 이들의 부모와 친구,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극한 영성과 형제애, 그리고 기쁨 속에서 말이다. (357, 25-27)

제34장 - 의지의 자유와 양심

양심과 의지 자유의 중요성

1. 들으라, 제자들아: 인간은 영적인 선물로서 자유의지와 양심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미덕을 타고나 세상에 오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의 영혼 속에는 양심의 빛이 있다. 그러나 육체의 발달과 동시에 정욕과 악한 성향도 발달하며, 이들은 미덕과 대립한다.

2. 하느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시니, 투쟁 없이는 공로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것이 너희가 영적인 길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일 하느님의 자녀들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공로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갈망하는 것처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편안함과 부에 둘러싸여 영적인 진보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쟁이 없는 곳에는 공로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내가 투쟁이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가 자신의 약점과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펼치는 그 투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쟁들만이 내가 인간에게 허락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다스려, 영혼이 영에 의해 깨달음을 얻고 그 진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4. 나는 이러한 내적 투쟁을 좋게 여기나, 야망과 악의에 눈이 멀어 자기 과시를 갈망하며 벌이는 투쟁은 그렇지 않다. (9, 42-44)

5. 영혼은 승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면,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한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는 둘 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 사용한다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6. 너희는 어떻게 언제나 내 법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너희 행위의 심판자인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이다. 나는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환상이 아니라 실재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며, 여기에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너희에게 계시한다.

7. 너희에게는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아버지로서 나의 의무는 너희에게 참되고 가장 짧은 길, 곧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비추는 신성한 등대의 빛으로 항상 밝혀진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지식을 확증하고 믿음을 북돋워 줄 새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148, 53-55)

8. 나는 양심을 너희 존재 안에 심어 두었으니, 그것이 너희 모든 길의 지침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은 선과 악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빛을 가지고 너희는 속임을 당하지도, 무지하다고 불릴 수도 없을 것이다. 영적 실천자가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이웃을 속이거나 스스로를 기만하려 하겠느냐? (10, 32)

9. 지상의 인간은 나의 사랑과 정의가 그 칭호를 부여한 군주이며, 그가 태초부터 받은 사명은 지상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10. 나는 그에게 주어진 신성한 자유의지의 선물 위에, 그의 삶의 길을 비추어야 할 빛나는 등대, 즉 양심을 세웠다.

11. 행동할 자유와 선과 악을 구별할 양심의 빛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영혼에게

물려준 가장 큰 두 가지 선물이다. 그것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 안에 있다. 양심은 그를 인도하며, 절망 속에서도, 이성을 잃었을 때에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와 분리되지 않으니, 이는 양심이 영과 깊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92, 32-34)

12. 영혼은 구원을 얻기 위해 공덕을 쌓아야 하는 의지의 자유를 누린다.

13. 영혼이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그로 인해 길을 잃지 않도록 자유로운 발전의 길에서 영혼을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며, 조언하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양심이다.

14. 양심은 신성한 불꽃이며, 더 높은 빛이자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힘이다. 만일 양심이 사람을 선한 길에 머물도록 강요할 물질적 힘을 지녔다면, 사람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15. 나는 너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조언하는 바에 있어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데에 그 공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16. 여러분도 분명 이해하시겠지만, 그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려면 훈련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현재 이러한 순종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17. 양심은 언제나 인간 안에서 드러나 왔으나, 인간은 자신의 온 삶을 그 빛에 이끌리게 할 만큼 필요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법과 가르침, 규율, 종교, 그리고 조언이 필요합니다.

18. 사람들이 자신의 영과 교감하게 되고, 외부에서 영적인 것을 찾기보다 내면에서 그것을 찾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듣지 않았음에도 항상 그들 안에 살아있던 부드럽고 설득력 있으며 지혜롭고 공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와 연결되어야 할 진정한 중재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287, 26-30)

19. 너희 모두는 내 빛을 품고 있으며, 모든 영혼은 이 은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빛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라나, 밖으로 드러나 자신을 알리려 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오직 비밀스럽고 숨겨져 있으며 무의식적인 상태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영적으로 아무리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너희의 행위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20.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책임은 너희의 깨달음이 깊어짐에 따라 커지리니, 그때 너희는 양심의 지시에 점점 더 민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10, 69 70)

21.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과 양심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의 의지로 나를 향하는 바른 길을 걷도록 자유의지를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기도와 참회, 그리고 투쟁의 길이며, 이 길 위에서 너희 양심이 너희를 인도해야 한다. (58, 42)

22. 만일 영이 자유 의지를 박탈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그것은 영이 아니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고하신 분께 합당한 피조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며, 자기 생명도, 지성도, 의지도, 열망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20, 37)

23. 나는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그가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 때문에 나에게 원망을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의지력과 이성도 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동시에 나는 그에게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는 길인 나의 율법을 계시하였고, 영혼의 길을 비추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내면의

등대인 양심의 빛을 그 안에 밝혀 주었다.

24. 왜 죄가 존재하며, 악이 우세하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람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46, 63-64)

25. 세상은 나를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육신의 목소리는 그 울림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지혜인 성령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기심에 사로잡혀 그 목소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첨과 세상의 명예에만 신경 쓰며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취해 있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다. (164, 18)

의지 자유의 남용

26. 오늘날 나는 의지 자유라는 은사를 남용한 결과 영적으로 쇠약해진 인류를 마주하고 있다. 나는 정의와 사랑, 자비와 선의 길을 설계했다. 그러나 인간은 겉보기에는 빛나는 다른 길을 만들어냈고, 그 길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27. 내가 다시 올 때, 나의 말씀은 너희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바로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며, 이 가르침이 혼란을 주거나 무관심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자는 불의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자일 것이다. (126, 5-6)

28. 사람들이 서로를 파멸시키고 미워하며, 범죄나 사기, 배신을 서슴지 않고 권력을 빼앗는 모습을 보라. 수백만 명이 동료 인간들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가고, 또 다른 이들은 악덕의 영향으로 파멸해 간다. 과연 그들 안에 빛이 있는가? 과연 그들 안에 깃든 영이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은 어둠과 고통일 뿐이며, 이는 의지 자유라는 은사를 남용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며,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의 존재 속에 지니고 있는 그 신성한 불꽃, 즉 양심이라 부르는 신성한 빛줄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79, 31)

29. 자유의지는 인생의 여정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 가장 높은 표현이자 가장 완전한 선물이다. 이는 양심의 조언과 시련을 견뎌내는 투쟁을 통해 얻은 선에 대한 그의 끈기가 그를 아버지의 품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는 방종으로 대체되었고, 양심은 무시당하며,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영성은 물질주의로 대체되었다.

30. 이처럼 큰 혼란과 수많은 일탈을 마주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은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빠져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할 올바른 가르침이다. (157, 15-16)

31. 나의 말씀은 길이며, 너희를 완전함으로 이끄는 신성한 법이며, 영혼을 고양시키는 빛이다. 그러나 그 영혼은 '육신'이 완고함으로 우세해져 자신의 영이 내면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흐려져 버렸다.

32. 그러니 "육신"의 충동에 굴복하여 주위를 둘러싼 세상의 영향력에 지배당하고, 지도자의 지위를 인간적 정욕과 약점에 휩쓸려 방황하는 무방비한 존재의 지위와 바꿔버린 영혼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마치 바람에 방향 없이 휩쓸려 다니는 마른 나뭇잎들처럼 말이다.

33. 자유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이 결국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인간적 쾌락들을 박탈할까 두려워하여 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는 참된 삶으로 이끄는 길을 떠난다. (97, 36)

34. 사람들이 자유 의지를 쾌락과 저급한 정욕, 적대감과 복수를 위해 사용해 온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나의 정의는 죄의 길을 막고, 그 대신 화해와 갱신의 길을 열어, 사람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헛되이 찾아왔던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 (91, 80)

35. 나는 너희에게 의지의 자유라는 은사를 주었으며, 내

자녀들에게 허락된 그 축복받은 자유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 존재 안에 신성한 영의 빛도 심어 두었으니, 너희가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의 능력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과 육체 사이의 싸움에서 영혼은 패배를 당하였고, 고통스러운 추락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점차 나인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36. 그 패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의 굶주림과 갈증, 나약함과 어둠을 견딜 수 없게 되면, 심연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이 그 구원이 될 것이며, 그때 영혼이 자신의 영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강하고 빛나며, 열정적이고 영감에 차서 일어나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선이나 악을 위해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가 아니라, 오직 신성한 법칙을 성취하는 데만 그것을 바침으로써,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영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다. (257, 65 66)

양심의 충동에 따르는 것의 필요성

37. 오직 물질적인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수백만 존재들이 현재 현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향해 눈을 뜰 수 있겠는가? 오직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만 가능하다 — 그 목소리는 들리기 위해 집중과 성찰, 기도가 필요하다. (169, 16)

38. 너희가 따르는 길이 상승의 길인지 알고 싶을 때마다 양심을 물어보아야 한다. 양심 속에 평화가 있고, 너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너희의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으며 너희의 말이 위로와 치유를 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39. 그러나 만일 너희 마음속에 탐욕과 악의, 물질주의와 육체의 정욕이 뿌리내렸음을 발견한다면, 너희의 빛이 어둠과 속임수로 변해버렸음을 확신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황금빛 밀 대신 더러운 수확물을 내놓기를 원하느냐? (73, 45)

40. 제자들아: 만약 너희가 그릇된 길이나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다면, 양심의 빛으로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양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철저히 성찰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 오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41. 너희 안에는 거울이 있어, 그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너희가 순수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42. 영적 수행자는 그의 행실로 알려져야 하며, 그 행실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나의 제자라 칭할 자격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43. 누가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로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의도로 판단한다. 나는 너희 양심 안에 있으며, 그 너머에 있다. 내가 너희의 행실과 그 동기를 알 수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180, 11-13)

의지 자유와 양심 사이의 갈등

44. 최초의 인간들이 지구를 거닐 때, 창조주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영혼을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영에 당신의 빛을 비추셨고, 동시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45. 그러나 어떤 이들은 순결을 지키고 주님께 합당하며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 모든 유혹과 싸우며 선을 굳건히 지키려 애썼던 반면, 다른 이들은 죄에서 죄로, 잘못에서 잘못으로 하나하나 죄의 사슬을 이어갔으니, 오직 감각의 목소리에 이끌려 정욕에 사로잡혀, 동료들 사이에 오류와 유혹을 퍼뜨렸다.

46. 그러나 이 혼란에 빠진 영혼들 곁에는, 인류를 깨우고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 나의 신성을

전하는 천사 사자로서 나의
예언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250,
38-39)
47. "육신"은 양심이라 불리는 그
내면의 빛이 주는 지시를
따르기에는 너무 완고하고
거역적이어서, 본능과 정욕을
제멋대로 방종하게 만드는
충동에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
48. 인류는 결코 잠잠하지 않았던
양심과, 물질주의를 숭배와
법으로 삼고자 하는 "육신"
사이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왔으나,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에 오늘날까지도 물질도
영도 승리하지 못하였다.
49. 너희는 누가 승리할 것인지
내게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을 통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심의
절대적인 승리가 머지않았다.
50. 너희는 이토록 많은 투쟁과
긴 고군분투 끝에, 인간적이고
덧없는 육신이 나의 영원한
빛이신 영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느냐?
51. 이토록 긴 대립 끝에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 속에서
진동하며 살아 숨 쉬는 그
목소리와 영적 삶에 대해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던
감수성과 유연함을 얻게 될
것임을 깨달으라.
52. 너희는 모두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지상에서
선과 정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때, 너희는 그 투쟁과 전투,
그리고 시련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317, 21-26)
53. 보라,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앞에, 그리고 그 위에 서
있음을; 그가 자유 의지와 양심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임을. 이
자유 의지에서 인간의 모든
타락과 추락, 그리고 죄가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창조주의 정의와 영원 앞에서는
덧없는 과오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후 양심이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유혹에 맞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둠,
즉 무지를 의미하는 것에 대한
지식인 빛의 승리가 올 것이다.
그것은 사랑, 정의, 조화인 선이

이기심, 방종, 불의인 악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다. (295, 49)

54.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비록 때때로 인간의 뜻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다.

55. 인간의 자유 의지의 길, 지상에서의 지배, 오만의 승리,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하는 강압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덧없는 것이어서, 비록 어떤 면에서는 신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이나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 영의 뜻은 선을 보존하고 불순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존재에게 점점 더 드러날 것이다. (280, 9-10)

56. 사랑으로 이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영성화를 통해 세계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57. 그때까지 양심과 자유 의지 사이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인간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것이다.

58. 이 두 힘 사이의 투쟁은 절정에 달할 것이며, 승리는 영의 편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영은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헌신 속에서 그분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는 제 자유 의지를 포기하오니, 오직 저 안에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소서."

59. 나는 그렇게 내 앞에 나아오는 자를 축복하고 내 빛으로 감싸 주겠으나, 그에게 주어진 그 축복받은 자유를 결코 다시 빼앗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충실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213, 61-64)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심의 연마

60.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가르침은 영을 강화하여, 영이 "육신"에 대한 권능을 행사하고, 육신을 그렇게 민감하게 만들어 양심의 속삭임이 점점 더 쉽게 감지되도록 한다.

61. 영성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마침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2.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적 고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심오하고 지혜로우며 흔들림 없고 공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석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선과 악을 진정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63.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선한 충동에 따르고 모든 빛나는 영감에 순종할 수 있는 필요한 힘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유혹과 모든 부정한 생각이나 나쁜 감정적 충동을 물리쳐야 한다. (329, 56-57)

64. 사람들이 내면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의 것을 명령한다는 것을 알기에 듣기 싫어하는 그 심판자의 목소리, 즉 더 높은 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질 것인가.

65. 게다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양심의 지시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너희는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도 순종적이고 기꺼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다. 너희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칭송하며, 그리스도가 매우 위대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이 완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스승처럼 위대해지려 하지 않으며, 그분을 진정으로 본보기로 삼아 그분께 나아오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단지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위대해지도록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287, 35-36)

66.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나의 새로운 메시지 주위로 모을 것이며, 목자가 양을 부르듯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거친 날씨와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마구간의 평화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67. 너희는 겉으로는 믿음이나 영성의 흔적조차 전혀 없어 보이는 많은 이들이, 영혼의 가장

순수한 곳에서 영적 생명의 불멸의 원리들을 간직해 왔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너희에게 아무런 신앙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파괴될 수 없는 제단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68. 사람들은 이 내면의 제단 앞에서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오와 악행, 그리고 모욕을 뉘우치며, 불순종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그곳, 양심의 제단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은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종을 근거로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희생과 속죄,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사랑과 겸손, 믿음과 선의의 당연한 결실로 찾아올 것이다. (321, 9-11)

제35장 - 생각과 감정, 의지의 힘

생각의 발신과 수신 및 그 영향

1.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과학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힘들이, 끊임없이 너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선한 힘도 있고 악한 힘도 있습니다. 어떤 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어떤 힘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빛나는 힘도 있고 어두운 힘도 있습니다.

3. 그 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여, 그것은 정신과 이성, 그리고 감정에서 비롯된다.

4. 육신을 가진 영혼이든 영체 상태의 영혼이든, 생각할 때마다 진동을 발산하며, 모든 감정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은 이러한 진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5. 이제 여러분은 선하게 생각하고 사는 곳에는 반드시 유익한 힘과 영향력이 존재해야 하며, 선과 정의,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법과 규칙을 벗어나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해로운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 둘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서로 싸우며, 사람들의 감성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이를 분별할 수 있다면, 선한 영감을 받아들이고 악한 영향은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약하고 선을 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이러한 파동에 저항할 수 없으며 악의 노예가 되어 그 지배에 굴복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40, 58-63)

7.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것은 너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빛의 원천이며, 이 빛은 힘이자 권능이며 영감이다. 사상과 말과 행위에서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함과 고귀함에 상응하는 빛이 흘러나온다. 아이디어나 행위가 고상할수록, 그 진동과 거기서 발산되는 영감은 더욱 섬세하고 미묘해지나, 물질주의의 노예들에게는 이를 감지하기가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고상한 사상과 행위가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 (16, 16)

8. 너희 마음에서 빛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솟아나면, 그것은 자비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 만약 선한 생각 대신 불순한 기운이 너희 마음에서 발산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보내는 곳 어디에서나 해를 끼칠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생각 또한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너희 영혼 속에 존재하는 책에 기록되어 남는다.

9. 너희의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너희가 이웃에게 바랐던 것을 여러 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악을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편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10. 그러므로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노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는 너희가 이 생에서의 경험을 깨닫고, 너희가 거둔 열매가 너희가 뿌린 씨앗과 똑같으나 그 수가 배가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11. 오, 인류여, 너는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실천하지도 않으려 했구나! (24, 15-18)

12.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생각의 힘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 이유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생각은 목소리이자 귀이며, 무기이자 방패라고 말하노라. 생각은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생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 주고, 그 흔적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낸다.

13.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의 무기를 알아두라. 준비하는 법을 아는 자는 강하고 무적일 것이다. 너희가 살인 무기를 휘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희의 검은 순수하고 맑은 생각, 즉 ' '가 되어야 하며, 너희의 방패는 믿음과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 고요함 속에서도 너희의 목소리는 평화의 메시지로 울려 퍼져야 한다. (76, 34)

14. 깨어 있으라. 너희의 지성이 불순한 생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성은 창조적인 것이니, 만일 너희가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은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려 작용하여, 너희 영혼은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146, 60)

15.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면, 악한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그 받침대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160, 60)

16. 오늘 나는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미래에 생각에 의한 소통은 크게 발전할 것이며, 이 소통 수단을 통해 오늘날 여전히 민족과 세계를 갈라놓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너희가 생각으로 너희 아버지께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영과 영의 대화를 이룬다면 — 그때는 너희가 보이는 형제자매나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 곁에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와 소통하는 데 무엇이 더 어려움이 되겠느냐? (165, 15)

17. 너희의 생각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언제나 내게 닿으며, 너희가 항상 담아야 할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그 이유는 나의 영이 모든 존재의 진동과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이기심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오늘날 얽매여 있는 물질주의의 결과로 영적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 서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영을 단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비록 그들로부터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영혼들에게 "말하라".

20. 내일, 모든 이가 베푸는 법을 배웠을 때, 그들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적 소통의 징후들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238, 51)

감정, 소망, 또는 두려움의 힘

21. 매 순간 여러분에게서 사고적 또는 영적 파동이 발산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이기심, 증오, 폭력성, 허영심, 그리고 저급한 정욕을 발산하고 있다. 너희는 상처를 입으면 아파하고, 누군가 너희를 사랑하면 느끼지 못한다. 너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의 병든 생각들로 인해, 너희가 사는 주변을 점점 더 고통으로 채우고, 너희의 삶을 불쾌감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을 평화와 조화, 사랑으로 채우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해질 것이다. (16, 33)

22.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 너희가 이웃에게 품는 가장 깊은 감정을 생각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5, 37)

23. 폭력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보느냐? 머지않아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4. 나는 그들에게 오직 사랑의 발현인 선함으로만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력해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211, 22-23)

25. 너희에게는 얼굴을 들어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두려움도 불신도 없이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볼 믿음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26. 너희는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주 병들고 있는가? 너희는
걸음걸음마다 재앙이 뒤쫓아오고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생각으로 어두운 힘을
끌어당겨, 그것으로 너희의
물질적 삶과 영적 상승의 길을
어둡게 가린다.
27.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있어,
삶과 진리와 영원, 그리고 완전한
평화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불태우고, 또한 너희가 빛을
끌어당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다. (205, 28-29)

자기 극복의 부족

28. 인간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을 알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를 벗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육체적 쾌락으로
유혹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정욕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름발이와 같게 내버려
두는 이유이다.
29. 모든 분야에서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며, 어디를 가나
나약한 사람들만을 만난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너희가 빠져 있는 오물에서
벗어나고, 물질에 묶는 족쇄를
만드는 나태함을 극복할 용기와
충분한 의지력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 모든 악덕과 모든 잘못의
근원이다.
30.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힘, 즉 의지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의지는 제한 없는
입법자가 되어야 하며,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이성을
뒷받침으로 삼아 싸워야 할
것이다. 힘 대 힘, 지배 대 지배:
한쪽에는 정욕과 욕망이, 다른
쪽에는 이성과 의지가 맞서 싸워,
마침내 후자가 승리를 거두고
너희가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31. 그때 비로소 너희는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깨달은 자, "초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야생 동물들과 함께 살며 파충류들과 놀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짓누르는 과오들 때문에 너희는 그 작은 형제들을 두려워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2. 그러나 시간을 내어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사람들도 있고, 코브라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3, 3-6)

IX 신성한 지혜의 가르침

제36장 - 믿음, 진리, 그리고 깨달음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1. 연약함과 비참함, 궁핍과 정욕을 이기고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행이 필수적이다. 이는 불가능한 것을 정복하는 미덕이며, 그들 앞에서는 어렵고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2. 나는 "제2시대"에 나를 믿은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도왔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한 것은, 믿음이 치유하는 힘이자 변화시키는 힘이며, 그 빛이 어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20, 63-64)

3. 영성화에 아직 멀어진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하며, 나에게 "주님, 저는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려 한다. 그들에게 나는 말한다. "보지 않고도 믿은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성화 덕분에 마음속으로 나를 느꼈다는 증거를 보였기 때문이다." (27, 75)

4. 나는 너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믿음을 가진 자가 비할 데 없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 내면의 빛으로 비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아무리 가난하다고 여긴다 해도

결코 소외되거나, 버림받거나, 약하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삶, 자신의 소명,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믿음은 삶의 투쟁 속에서 그를 결코 침몰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그는 언제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36, 4-5)

6. 믿음은 너희가 영원의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 삶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7. 믿음은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가고 내일은 한 걸음 물러서는, 자신의 고통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자비에 의해서만 영의 승리를 믿는, 미지근하고 겁 많은 영혼들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8.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신 안에서 느끼며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이 느끼는 바로 그 믿음이다. 그들의 아버지의 정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커서, 이웃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 모욕과 잘못을 용서하지만, 자신의 공덕으로 정화를 이루었기에 내일 빛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9. 믿음을 가진 자는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소유하며, 내면에 선함을 지니고 있다.

10. 그는 영적으로, 심지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가 아니라 참된 부를 가진 것이다. (263, 12-16)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말하리라. 시련의 순간에 마음이 낙담하지 않을 때,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평화가 영혼을 관통할 때이다.

12. 믿음을 가진 자는 나와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이며, 건강이며, 구원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이 안식처와 이 등대를 찾는 자는 파멸하지 않는다.

13. 이 덕을 지닌 자는 인간의 과학을 초월한 기적을 행하며, 영과 더 높은 삶에 대해 증언한다. (237, 69-71)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14. 마음에 선한 믿음을 품고, 이성이 편견과 모호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때, 사람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진리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반면에 마음에 의심이나 허영을 품고, 이성에 오류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해 보이며, 빛조차도 어둠으로 보인다.

15. 진리를 찾으라. 진리는 생명이니, 그러나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찾으라. (88, 5-6)

16. 기도하라. 기도 중에 너희 아버지께 여쭈어 보라. 그러면 너희는 명상 중에 나의 무한한 빛의 한 줄기를 받게 될 것이다. 단 한 순간에 온전한 진리를 얻으려 하지 말라.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며 모든 신비를 파헤치려 애쓰고도, 여전히 갈망하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17.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셨다. 이 숭고한 계명의 의미를 너희는 상상할 수 있는가? 너희가 이 가르침대로 산다면, 인간의 온 삶이 변화될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신성한 신비의 진리를 너희에게 드러내 줄 수 있으니, 사랑은 너희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18. 진리를 부지런히 찾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사랑하고 선함 안에서 강해지면, 너희 본성에서 그릇되고, 불의하며, 불완전했던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신성한 은총의 빛에 더 민감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싶은 모든 것과, 여러분의 영혼이 지극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직접 여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6, 40-42)

19. 나는 사람들이 내게로 올 수 없었기에 그들을 찾아가는 "말씀"이다. 내가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나의 진리이니, 진리는 내 뜻에 따라 너희 모두가 들어가야 할 왕국이기 때문이다.

20. 내가 먼저 이를 위해 많은 포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겠느냐?

21.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22. 자만하는 자, 물질주의자, 무관심한 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벽을 허물기 전에는 진리를 알 수 없다. 그가 내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려면 자신의 정욕과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258, 44-47)

23. 진리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사랑과 빛과 선함을 갈망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계속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신성한 지혜의 책을 탐구하라. 그러면 그 책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니, 아버지는 간절히 묻는 자에게 결코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24. 책과 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학문 속에서 진리를 찾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까? 내가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영원한 진리의 씨앗을 심어 두었기 때문이다. (262, 36-37)

25. 나는 너희를 속일 수 없다! 나는 결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둠 속에 숨지 않는다. 나의 진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채로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영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나는 어떤 옷으로든 내 진리를 너희에게 숨기지 않는다. 나의 벌거벗음은 신성하고 순수하며, 거룩하니, 나는 이를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 상징으로서 나는 사람으로서 벌거벗은 채 세상에 왔고, 벌거벗은 채로 너희 곁을 떠났다.

26. 나는 내 백성들 사이에 항상 진리가 지배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진리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이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며,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27. 오직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참된 사랑만이 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의 사랑과 진리는 나의 것이 될 것이며, 나의 진리와 사랑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327, 33-34)

28. 나의 빛은 모든 영혼 안에 있다. 너희는 지금 내 영이 사람들에게 쏟아질 시기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 곧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 학자든 무식한 자든, 위대하든 미약하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29. 어떤 사람이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263, 33-34)

영적이며 신성한 것에 대한 인식

30. 내 자녀 중 누구도 나를 잊을 수는 없으니, 그 영혼 속에 내 영의 빛인 영을 품고 있기 때문이며, 그 빛을 통해 조만간 나를 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1. 어떤 이들에게는 내 말씀의 의미를 꿰뚫어 보고 그 안에서 빛을 찾는 것이 쉽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내 말씀이 수수께끼와 같다.

3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모든 이가 내 메시지의 영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이 내 계시의 빛을 향해 눈을 뜨게 될 새로운 시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36, 4-6)

33. 내가 너희에게 내 지혜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단 한 번의 지상 생애로 내가 너희에게 계시할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긴 발전의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인간의 과학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너희는 영혼의 완전한 발전 없이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34. 나는 영성을 과학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오해는 사람들의 것이지 결코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을 조화롭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길을 알아야 하며, 그

영의 법은 신성한 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79, 38-39)
35. 너희는 너무나 깊이 타락하여
영적인 것에서 너무나
멀어졌기에, 영에 속한 것이므로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성한 것을 초자연적이라
부르며, 마찬가지로 너희 영에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데,
이는 오류이다.
36. 그 이유는 너희가 오직 너희
감각의 영역이나 인간 지성의
이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인식할 뿐, 감각과 이성을 초월한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273, 1)
37. 자연 속에서 지식의 빛을 찾는
사람이나 영적 계시 속에서 나의
지혜를 찾는 사람 모두, 다른
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모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너희 영혼을 이 땅에서 한
생애 또 한 생애를 살도록
보내었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그
발전과 경험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것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다.
38. 원한다면 내 말을 철저히
검증하라. 그러나 그 후 그
관점에서 삶을 연구하고
관찰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에 담긴 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39.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과 과거에 너희에게 계시된 것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
오해에 사로잡힌 것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이가 빛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5,
54-56)

영적 깨달음을 위한 전제 조건

40. 겸손은 영혼의 빛이며, 반대로
겸손이 없는 것은 영혼 속의
어둠이다. 허영은 무지의
열매이다. 지식으로 위대하고
덕으로 존경받는 자는 참된
겸손과 영적 겸양을 지니고 있다.
(101, 61)
41. 모든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고
고귀한 생각을 품으라. 행복은
물질적으로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은
것에 있다. 깨달음은 소유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42.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겸손한 마음을 지닌다. 그는 단지 모든 (세속적인) 것을 알고자만 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모두 부정하는 세속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 안에 영감 받은 깨달음의 빛을 품은 자는, 그것을 기대하는 법을 아는 것처럼, 적절한 때에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스스로 학자라 칭하는 자들은 많았으나, 날마다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태양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수께끼였다.

43.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으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의 길을 가로지르는 개미조차 그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있다.

44. 사람들은 자연의 많은 기적을 탐구할 수 있겠지만, 신성한 사랑의 길 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영혼의 불멸의 생명 속에 담긴 참된 지혜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139, 67-70)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의 확장

45. 나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사고의 자유를 허락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노예였다 — 때로는 광신 때문에, 또 다른 경우에는 파라오와 황제의 그릇된 세계관의 노예로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영이 이제 얻은 자유와 그의 눈앞에 펼쳐진 밝음 앞에서 그가 눈이 부셔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의 이성은 아직 이 자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46.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력을 약화시켰고, 그 때문에 광신에 빠지고, 굽이치는 길을 걷게 되었으며, 타인의 의지의 그림자처럼 되었다.

47. 그는 자유를 잃었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생각도 지배하지 못하였다.

48. 그러나 이제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 너희가 사슬을 끊고 날개를 펴,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무한한 세계로 자유롭게 비상해야 할 때이다. (239, 4-7)

49.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기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하나는 지성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정체이다.

50. 실로 신성한 빛이 지성 능력 위에 비추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열매를 맺는 나의 위대한 영감이 그곳에서 솟아난다. 왜냐하면 지성은 이제 자유와 지식의 확장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 연구에 몰두하고, 탐구하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경탄하지만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51. 그러나 그 안에서 영적인 것, 즉 자신이 알고 있는 물질 너머에 있는 진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미지의 영역, 즉 자신이 금기시하는 것, (자신의 생각에) 오직 고귀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할 자격이 있는 존재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52. 그는 자신이 약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냈으며, 자신을 억누르는 편견을 의지력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왜곡된 해석의 노예임이 드러났다.

53. 인간의 지성이 영적 차원에서도 발전하지 않는 한, 그 지성의 발전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너희가 오직 현세적 삶에 대한 인식에만 몰두해 왔기에, 너희 영혼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아라.

54. 인간은 타인의 의지의 노예이며, 저주와 비난, 위협의 희생양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지식을 이해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된 것, 그리고 터무니없이 항상 비밀로 여겨왔던 영적 삶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55. 너희는 영혼의 삶이 지상의 인간에게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영과 관련된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한, 너희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너희는 식물과 동물들 사이에서 비참한 세상에 사는 피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서 전쟁으로 서로 싸울 것이며, 너희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 지배할 것이다.

56. 너희가 너희 본성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웃 안에서 모든 이에게 내재하는 영적 형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인류의 자녀들아, 비록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더라도 말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믿음과 깨달음, 그리고 사랑은 잘못된 것이 될 것이다. (271, 39-45)

57. 사람들은 나 안에서 무지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를 찾을 것이다.

58. 생명의 전제 조건이자 근원이며 기초인 영적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멈추며,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5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진리를 깨닫지도 따르지도 않는 한, 너희의 지상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273, 24-26)

60. 나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라.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고, 자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시기에 그에게 오랫동안 닫혀 있던 책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 한다. 그 책에는 내가 이미 '제2의 시대'에 내 영의 빛으로 너희에게 밝혀 주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61. 이제 너희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고 너희 영의 내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2. 인간은 자신의 기원과 운명, 사명, 능력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주위를 감싸고 흐르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 전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웃을 해칠 수 없게 될 것이며, 동료 인간들의 존재를 위협할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더럽히려고 감히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3. 그는 자신의 영혼이 담고 있고 감추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러면 영혼이 경이롭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원 속에서 그를 위해 마련해 두신 고향 또한 경이롭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287, 4-6)

제37장 -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이해

성경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해석

1.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데 전념해 왔으며, 예언과 약속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데 골머리를 앓아왔다. 내 가르침의 영적 의미를 찾아낸 이들이야말로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자들이다. 왜냐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해석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며, 내 계시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 민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혼란과 실망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 민족은 메시아를 현실이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기대했었다. (13, 50)

2. 인류가 초기에 나의 정의에 대해 품었던 그릇된 관념은 마침내 사라지고, 그에 대한 참된 인식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신성한 정의는 마침내 너희 아버지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사랑에서 솟아나는 빛으로 이해될 것이다.

3.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타고, 잔인하며,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그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욕에도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로서, 죄인을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아버지로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정죄하기보다 그에게 구원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재판관으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4.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인해, 분노가 단지 인간의 약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 여겼기에, 얼마나 많은 불완전함을 내게 돌렸는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지금 너희에게 그 표현을 신성한 정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5. “초기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방종한 자들이나 방탕한 자들도 선지자들이 그 형태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 사자들의 영감이, 영적 성숙도가 낮은 그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말로 표현되어야만 했다. (104, 11-14)

6. “초기 시대”의 경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전하고, 그 자손들의 이름과 업적, 실수, 믿음의 행적과 약점, 영광과 몰락을 보존하여, 이 책이 매 세대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해 온 과정을 증언하게 하려 했다. 그 책은 미덕과 정의를 사랑한 조상들의 이름, 즉 믿음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본보기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위험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실 때마다 항상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언자들과 미래를 내다보는 자들의 이름도 전하였다. 또한 그 책은 타락한 자들과 배신자들, 불순종한 자들의 이름도 전해주었는데, 모든 사건과 모든 사례는 교훈이며 때로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7.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 나는 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오직 필요할 때만 그 경전들의 본질과 그 저작들의 의미를 활용하였으니, 나는 물질적인 것과 실속 없는 것을 결코 칭송하지 않았다. 내가 의로운 아벨을 언급하고, 욥의 인내를 칭찬하며,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상기시켰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여러 차례 아브라함을 상기시키고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느냐? 또 모세를 언급하며, 내가 그가 받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102, 31-32)

8. 너희는 내가 모든 시대에 너희에게 준 신성한 계시들을

연구해야 하며, 너희에게 전해진 비유적인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고, 내 가르침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만 너희는 내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진실된 해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말씀도,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 말씀도, 또는 '제3의 시대'의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10. 이 인류가 일단 율법과 가르침, 예언과 계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관해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1.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한 의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참된 천국을 예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속죄와 정화, 그리고 보상이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322, 39-42)

12. 과거의 경전들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시 되풀이하는 바를 너희에게 드러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내 진리를 위조하여 왜곡된 채로 퍼뜨리기를 감행했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제 영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고립된 인류를 마주하고 있다.

13.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나의 깨우침의 외침이 대변자를 통해 들려오는 것이다. (221, 14-15)

14. "제2의 시대"에 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내 제자들의 기록이 왜곡되어 너희 손에 들어온다면, 나는 너희가 예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리라. 너희의 영은 내 사랑의 신성한 조화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으로 알아볼 것이다. (24, 19)

15. 인간은 영의 빛인 나의 계시 없이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으나, 그것을 깊이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해 왔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완강히 피한다면, 진리와 영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16. 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의 계시들이 오직 신성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내린 물질주의적 해석을 살펴보라. 너희가 어떻게 물질적 본성을 영적인 것과 혼동하는지, 얼마나 경외심 없이 심오한 것을 피상적인 것으로,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바꾸어 놓는지 보라. 그러나 너희는 왜 이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속적인 삶과 인간의 안락함에 내 가르침을 맞추는 방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281, 18-19)

17. 이 시기에 나는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주었으나 많은 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잊어버린 그 가르침이 모든 이에게 이해되도록 하며, 또한 나의 새로운 가르침에 따라 실천되도록 할 것이다. (92, 12)

18. 내 성령의 빛이 너희에게 내려오나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비둘기의 형상으로 묘사하는가? 내 새로운 제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형상과 상징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19. 내 가르침을 이해하라, 백성들아: 그 “제2의 시대”에 내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이는 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성령의 숨결과 닮았고, 그 흰색은 순결을 말하며, 그 온화하고 온순한 눈빛에는 순수의 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20. 세상에 알려진 존재들의 형상을 빌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신성한 것을 이해시킬 수 있었겠느냐?

21.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으며, 요한 자신도 예언적인 환상 속에서 나를 그렇게 보았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나의 모든 행적 속에서 나를 찾으면, 온 창조물 속에서 언제나 생명의 창조주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1-3) 22.

한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부자 중 탐욕스러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그 마음들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어야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의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유물과 재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만 필요하다. (62, 65)

23. 나는 지금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다. 제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성전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24.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외적인 숭배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 자리에 내가 나의 신성의 참되고 영적인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지금이 바로 “제3의 시대”, 즉 내가 나의 성전 재건을 마칠 제3의 날이다. (79, 4)

25.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시다. 만일 형상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인간과 같이 제한된 존재가 되실 것이며,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기 때문이다.

26. 그분의 “보좌”는 완전함, 정의, 사랑, 지혜, 창조력, 영원이다.

27. “천국”은 영혼이 완성을 향한 여정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그토록 높이 승화하여, 더 이상 어떤 죄나 고통도 닿을 수 없는 순결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얻는 지극한 행복이다.

28. 나의 예언자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때로 인간의 형상이나 너희에게 익숙한 사물들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곤 했다.

29. 선지자들은 지상의 왕들의 보좌와 같은 것들, 책들,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들, 벽걸이가 걸린 궁전들, 촛대, 어린 양, 그리고 그 밖의 많은 형상들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비유이자 상징이며,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계시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이는

너희에게 형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30. 이제 내가 상징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한 모든 비유와
가르침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그 뜻이 너희 영에
스며들고 상징적인 형식이 사라질
때가 되었다.
31. 너희가 이 깨달음에 이르면,
너희의 믿음은 진실해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 믿음을 진리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326, 37-42)
32. 만일 부름 받은 모든 이가
영혼을 양육하는 음식이 차려진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간다면,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나,
초대받은 모든 이가 온 것은
아니다.
33.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너희가 그들에게
부르심을 전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너희를 외면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3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식탁에 앉아 내게서
배우기 위해 끈기 있게 내 말을
경청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씀의 위대함과
이 가르침의 진의를 알리는
이들이 될 것이며, 이 가르침은
종말을 맞이한 세상을 재건하고
더 빛나고 높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285, 33 35)

사도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계시

35.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일곱 봉인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존재는 사도이자
예언자인 요한을 통해 인류에게
계시되었다.
36. 그 책의 내용은 오직 신성한
어린 양만이 너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 이는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정의에 대한 깊은 비밀을
너희에게 설명해 줄 의로운 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신성한 어린 양은
생명의 책을 봉인하고 있던
인장을 풀어,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62,
30)
37. 요한의 계시록이 어떤
이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여겨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잘못된 해석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인류가 그곳에 묘사된 내용을 이해할 만한 필요한 영적 성숙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 계시를 받은 예언자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8. 요한은 듣고 보았으며, 그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하였으나, 그 메시지가 자신보다 훨씬 후대에 올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27, 80-81)

39. 사람들은 언제쯤 내 사랑하는 제자가 글로 남긴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까? 그의 계시가 기록된 방식은 기이하고, 그 뜻은 신비로우며, 그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 과연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40. 요한의 계시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이 빠져들어 해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한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 조금 가까워지고, 다른 이들은 계시록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온 세상에 선포한다. 또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더 이상 탐구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결국 그 메시지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부정해 버린다.

41. "제3의 시대"의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진정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 그 계시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면, 너희는 영과 영 사이의 기도, 즉 요한이 유배 중에 행했던 바로 그 기도에 익숙해져야 한다.

42. 너희는 먼저, 신성한 계시가 비록 세속적인 형상과 이미지로 표현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의 영혼, 즉 그 영혼의 발전과 투쟁, 유혹과 타락, 신성 모독과 불순종에 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나의 정의와 지혜, 나의 왕국, 나의 사랑의 증거와 인간과의 교감, 인간의 각성과 갱신, 그리고 마침내 영성화에 관한 것이다.

43. 나는 너희가 영혼의 발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영적 삶의 여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그곳에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44. 그러므로 제자들아, 이 계시가 너희의 영적 삶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너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단지 세속적인 사건들을 근거로 이를 해석하려 한다면,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5. 비록 많은 세속적 사건들이 그 계시의 성취와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안에 담긴 사건들과 징조들이 또한 형상, 비유, 그리고 예시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가 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영혼의 순결이라는 길을 통해 나에게로 승천하여 너희의 소명을 이루도록 돕기 위함이다. 나의 제자 요한은 주님과 영과 영의 대화를 나누며 인류보다 수천 년 앞서 나갔으며, 너희에게 빛나는 본보기를 남겼다. (309, 47-51)

제38장 - 세 가지 계시 시기와 일곱 봉인 시대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적 연관성

1. 내가 인류의 발전을 세 시기로 나누었을 때, 나는 내 빛으로 너희에게 영혼의 승천을 위한 똑같이 곧고 좁은 길, 즉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유일한 길을 보여주었다.

2. 나는 가르침에서 가르침으로, 계시에서 계시로 너희를 인도해 왔으며, 마침내 너희가 이미 영과 영으로 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이 시기가 오게 되었다. 만일 인류가 “첫 번째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었겠는가? — 아니요, 인류는 신성하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물질적인 숭배와 의식, 전통적인 축제와 상징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다가서고, 신성한 차원으로 승화하며,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신비를 밝혀낼 수 없었던 이러한 무능력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각 종교는 사람들의 영적 후진성이나 진보의 정도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진리에 더 가까웠고,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영적이었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세기와 시대를 거치며 영혼들이 걸어온 길이며, 여러 종교가 가리키는 길이다. 어떤 이들은 지극히 더디게만 나아갔고, 어떤 이들은 멈춰 섰으며, 또 어떤 이들은 길을 잃고 더러워졌다. (12, 92-93)

3. 오늘 나는 영으로 오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이들은 내가 초창기에 오늘보다 너희에게 더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올 때마다 너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4. 너희는 내가 “첫 번째 시대”에 산 위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돌에 새긴 내 율법을 너희에게 내려주었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시대”에는 내가 산꼭대기를 떠나 너희의 골짜기로 내려가, 너희 가운데서 살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너희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너희의 마음을 나의 거처로 삼아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고 그 내면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3, 31)

5. 이제 너희는 내가 나의 신성한 계시를 세 가지 큰 시기로 나누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6. 인류의 영적 유년기 때,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7.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였으며, 인류가 영적 청년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나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은 완전한 스승의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아버지의 음성과 계명을 들었노라.

8.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어,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9. 자, 사랑하는 백성들아 —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단순하고 겸손한 말씀은 진리의 영의 목소리이며, 너희가 새 시대를 향해 눈을 뜨게 하려고 너희 존재 안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적 빛이다. 너희 주님의 모든 계시를 하나하나 명확히 깨닫게 해주는 이 빛은, 인류가 더 높은 영적 발전 단계, 즉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시기로 접어들 때 그들을 찾아오는 너희 아버지, 성령의 빛이다.

10. 이 빛이 너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에서, 너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며, 성령은 나의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132, 10-15)

11. 과거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시대"에는 율법이 인간의 영혼을 비추었고, "두 번째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비추었다. 오늘날 성령의 빛은 너희의 영혼을 비추어, 그것을 모든 인간적인 것 위로 들어 올리고 있다.

12. 너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 사이에는 한 시대가 흘렀다. 이는 영혼이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13.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성령의 제자들"이라 부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9, 50-52)

14. 내가 첫 계시들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면, 스승이시며 메시아이신 분이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이 시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 삶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 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마치 그것이 내 가르침의 마지막 말씀인 양, 옛날에 너희에게 계시된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16.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왔으며, 오랫동안 그들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 왔고, 여전히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니, 나의

마지막 말씀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느니라.

17.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지혜의 책에서 항상 마지막 말씀, 즉 이전에 주어진 것들의 의미와 내용을 밝혀 주는 새로운 장을 찾으라. (149, 44-45)

하나님의 세 성서

18. 모세, 예수, 엘리야 —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이 평화와 빛과 완전함의 왕국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간에게 제시하신 길이다.

19. 너희 삶 속에서 주님의 사자들의 현존을 느껴라. 그들 중 누구도 죽지 않았으니, 그들은 모두 길을 잃은 사람들의 길을 밝히고,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도록 돕고, 죄를 씻어내는 시련 속에서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살아 있다.

20. 여호와의 영감으로 모세가 지상에서 이룬 사역을 깨달으라. "신성한 말씀"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엘리야의 시대가 상징하는 나의 새로운 계시의 영적 의미를 찾으라. (29, 20, 22)

21. "두 번째 시대"에 나의 인간으로서의 탄생이 기적이었고, 육체적 죽음 이후의 나의 영적 부활이 또 다른 기적이었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 이 시대에 인간의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계시는 영적인 기적이다.

22. 이 시대에 내 예언들은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나의 세 가지 유언을 남긴다.

23. 이전에 아버지를 사랑과 희생, 용서로만 알았던 자는 이 시대에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어,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24. 너희가 "첫 번째 시대"에 율법을 따랐다면, 그것은 신성한 정의가 너희를 징계할까 두려워서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였노라.

25. 오늘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가 길을 잃지 않고 내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그 길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43-47)

26. 나의 새로운 가르침은 내가 "두 번째 시대"에 너희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확증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훨씬 더 넓다. 명심하라: 그때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했으나, 지금은 영에게 말하고 있다.

27. 나는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내 말 중 어느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들에 합당한 성취와 올바른 해석을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그것들을 성취하러 왔다." 그 율법과 예언들이 세 시대에 걸쳐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성전의 기초이자, 내가 세상에 오실 것을 알리는 예고인 데,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99, 24-25)

28. 오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시대에 내 말씀의 진의를 찾으면, 너희는 그 안에서 사랑의 영원한 율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바로 내가 지상에서 너희에게 제시해 준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9. 그 당시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벗어나고 율법을 왜곡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고 박해했다. 그러나 진리는 마치 태양의 빛이 어둠을 이겨내듯 언제나 승리한다. 이제 내 말씀은 다시금 반대에 부딪힐 것이니, 어떤 이들은 그 뜻 속에서 모순과 불명확함, 그리고 오류를 발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빛은 이 시대의 어둠 속으로 다시금 비추어질 것이며, 인류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길과 법이 그 당시와 같으며, 언제나 그러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56, 69 70)

30. 이 가르침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 가르침 속에서 고양되는 힘과 완전함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너희에게 가르쳤던 가르침과 이를 하나로 통합할 줄

알게 될 것이니, 그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31. 내 가르침에 담긴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자는 심지어 이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과 같은 목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해석에 현혹되거나 종교적 광신에 휩싸인 영혼들은 이 계시들의 진리를 당장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나의 계명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련의 길을 거쳐야 한다. (83, 42-43)

32.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라거나, 과거에 너희에게 주어진 신성한 계시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헛되이 말할 것이다. 내가 이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이미 제1시대와 제2시대에 예언적으로 선포된 것들에 그 뿌리와 기초를 두고 있음을 너희에게 확신시켜 준다.

3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혼란은, 그 계시들을 해석했던 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해석을 강요했기 때문이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옳았으나 부분적으로는 그릇된 것이었다. 또한 내 가르침의 그 영적 빛이 사람들에게서 숨겨지거나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 빛이 너희를 무지의 어둠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의 빛일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이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나의 말씀 중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세상이 영성주의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로다!”

35. 사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으나, 계시된 진리들 중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 기본 원리만을 너희에게 선포했을

뿐이다. 나는 너희가 점차 그것을
이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너희에게 남겨 두었으니,
그 당시 인류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55, 24-27)

제3의 시대

36. 이것이 바로 내가 인류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 줄 교훈을
너희에게 가르친 "제3의
시대"이다. 왜냐하면 언어와 인종,
그리고 다양한 이념이 더 이상
그들의 통합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영혼을 창조한
영적 본질은 모든 이가 지닌 것과
같으며, 사람들의 혈관을 흐르는
피를 구성하는 물질도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평등하며 내게 합당하고, 나는
모든 이를 위해 다시 왔다. (95, 9)

37. 인간 삶이 겪게 될 변화는
너무나 거대하여, 마치 한 세상이
끝나고 또 다른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너희에게 느껴질 것이다.

38.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의 삶이
시대나 시대로 나뉘어 왔고, 그
각각은 무언가로 구별되어 왔듯이
— 그것이 발견을 통해서든, 받은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든, 인간이
'예술'이라 부르는 아름다움에
대한 심미적 성취를 통해서든,
아니면 과학을 통해서든 —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영적 시대( ), 이미
새로운 여명처럼 밝아오는 이
시대는 영적 은사의 꽃피움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바로 너희
존재의 그 측면, 즉 수많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너희가 가꾸어
왔어야 했으나, 늘 나중으로
미루어 왔던 바로 그 측면 말이다.

39. 인간 삶이 영성을 함양하고,
영적 은사를 펼치며, 이 세상에서
양심이 지시하는 법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느냐?

40. 머지않아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신성한 계시들이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분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사다리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1. 어떤 이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빛의 시대라 부르고, 다른 이들은
성령의 시대라 부르며, 또 다른
이들은 진리의 시대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영혼의 상승적 발전과 영적 회복, 그리고 되찾음의 시대가 될 것이다.

42. 이것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 있기를 바랐으나, 인간 스스로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파괴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의 광채는 모든 이가 볼 수 있으며, 그 빛 아래에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은 배척하며, 자신의 진리를 떠벌리면서 타인의 진리는 부정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빛 대신 어둠을 주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135, 53-54, 57-59)

43.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 물질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하는 "제3의 시대"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할 세계관 간의 투쟁을 초래할 것이다.

44. 타락, 이기심, 오만, 악덕, 거짓말, 그리고 너희 삶을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은, 겸손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것들을 숭배하던 자들의 발치에 부서진 우상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295, 64-65)

구원사의 일곱 시대

45.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적 발전 단계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아버지의 첫 번째 종 아벨이 상징한다. 그는 희생의 상징이다. 시기심과 원한이 그를 대적하였다.

46. 두 번째 단계는 노아가 상징한다. 그는 믿음의 상징이다. 그는 신의 영감에 따라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안으로 인도했다. 군중은 의심과 조롱, 이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를 대적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씨앗을 남겼다.

47. 세 번째 시기는 야곱으로 상징된다. 그는 힘을 구현하며, '강한 자' 이스라엘이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의 우편에 앉기" 위해 올라갈 하늘의 사다리를 영적으로 보았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맞서 그의 힘과 인내를 시험했다.

48. 네 번째 시기는 모세가 상징하며, 그는 율법을 구현한다.

그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보여준다. 바로 그가 헤아릴 수 없는 믿음으로 백성을 해방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 그는 율법의 상징이다.

49. 다섯 번째 시기는 예수, 즉 "신성한 말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대표되며, 그분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사랑을 위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인간 세상의 고통을 겪으시며, 인류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도록 희생과 사랑, 자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스승으로서 오셔서, 비록 평범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살아가고,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죽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다섯 번째 단계를 구현하시며, 그분의 상징은 사랑이다.

50. 여섯 번째 시기는 엘리야가 대표한다. 그는 성령의 상징이다. 그는 자신의 "불의 수레"를 타고 오며, 너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나에게는 알려진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에 빛을 가져온다. 나는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현재 살고 있는 단계, 곧 엘리야의 단계이다. 너희를 비추는 것은 바로 그의 빛이다. 그는 숨겨져 있다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그 가르침들의 대표자이다.

51. 일곱 번째 시기는 아버지 자신이 구현하신다. 그것은 최종 목표이자 발전의 정점이다. 그 안에는 은혜의 시간, 일곱 번째 인장이 있다.

52. 이로써 일곱 봉인의 비밀이 풀렸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현재의 시대가 여섯 번째 봉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 중 다섯 개는 이미 지나갔고, 여섯 번째는 이제 풀렸으며, 일곱 번째는 아직 봉인된 채 남아 있고, 그 내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이 단계가 너희에게 다가올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오면, 은총과 완전함, 평화가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더 흘려야 하겠는가! (161, 54-61)

53. 일곱 봉인의 책은 너희 삶의 이야기이자, 지구에서의 너희 발전 과정이며, 그 모든 투쟁과 고난, 갈등, 그리고 마침내 선과 정의, 사랑, 영성화가 물질주의의 정욕을 이기는 승리를 담고 있다.

54. 모든 것이 영적이고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진정으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는 각 교훈에 마땅히 주어져야 할 올바른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5. 여섯 번째 인장의 빛이 너희를 비추는 동안은 갈등과 포기, 정화의 시간이 될 것이나,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는 일곱 번째 인장이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줄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준비된 자로 인정받은 이의 영혼은 그 새로운 시대를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맞이할 것인가. 여섯 번째 인장이 너희를 비추는 동안, 육체와 영혼은 정화될 것이다. (13, 53-55)

56. 하늘에서 봉인되었던 책이 제6장에서 열렸다. 그것은 지혜와 심판을 담고 있는 일곱 봉인의 책으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 봉인이 풀려 그 깊은 가르침을 너희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57. 인간은 신성한 영의 숨결에 힘입어 다섯 시기를 거쳐 지상에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영적 의미, 존재의 목적, 운명, 그리고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의 이성과 영혼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신비였으며,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없는 봉인된 책과 같았다.

58. 그는 영적인 삶을 희미하게 짐작했을 뿐, 존재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발전의 사다리를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다. 그는 지상에서 자신이 맡은 지극히 고귀한 사명을 알지 못했고, 투쟁에서 승리하고, 인간의 궁핍을 초월하며, 영적으로 완성되어 영원한 빛 속에 거하기 위해 자신의 영에 속한 미덕과 은사들을 알지 못했다.

59. 신성한 책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아야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인 무지의 어둠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었겠는가? 신학자, 과학자, 혹은 철학자였을까? 아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의로운 영혼들조차도 그 내용을 너희에게 드러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책이 간직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이다.

60. 오직 그리스도, "말씀", 그분 홀로, 신성한 사랑만이 이를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조차도 사람들이 나의 영적 현존의 광채에 눈이 부시지 않고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하여 인류는 시험과 가르침, 경험과 발전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 인류를 위해 간직하고 있던 신비를 알 수 있게 해 줄 적절한 성숙에 도달할 수 있었다.

61.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신성한 말씀,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자들, 그리고 사절들이 전한 모든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구원과 정의를 항상 선포해 온 신성한 약속에 대한 인류의 믿음을 지탱해 준 씨앗이었다.

62. 이제 너희가 내가 시대를 통해 너희에게 계시해 온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너희 자신이 누구이며, 너희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그 위대한 계시의 기대하던 때가 왔다.

63. 이제 너희가 이룬 영적 발전과 겪어온 시련, 그리고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 보물창고에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간직되어 있던 지혜의 빛을 내 영으로부터 너희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인류가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한 발전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나의 빛의 첫 번째 광선을 보냈으니, 바로 이것이 그것이라. 이 빛은 나의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무학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여 말하게 하였다.

64. 이 빛의 광선은 단지 준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니, 마치

새로운 날을 알리는 새벽빛과 같다. 훗날 내 빛은 온전히 너희에게 닿아 너희의 존재를 비추고, 무지와 죄와 비참함의 마지막 그림자마저 없애 줄 것이다.

65. 너희가 무한한 곳에서 그 여명을 경탄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인류의 영적 삶에 도래하는 여섯 번째 시대, 즉 빛과 계시, 옛 예언과 잊혀진 약속의 성취의 시대이다. 이것은 여섯 번째 인으로, 풀릴 때 정의와 깨달음, 계시로 가득 찬 메시지를 통해 그 지혜의 내용을 너희 영혼에 쏟아 붓는다. (269, 10-18)

66. 제자들아, 나는 너희 마음의 미덕이 너희 영혼의 나체를 가리는 옷이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시대”에 약속되었던 위로의 영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67. 아버지는 이미 인류를 짓누를 고통과 시련, 그리고 사람들이 도달하게 될 타락의 정도를 알고 계셨다. 위로자의 오심은 너희에게 여섯 번째 봉인의 해제를 의미하며, 이는 인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뜻한다. 이 시점부터 모든 사람에게 신성한 심판이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삶과 모든 행위, 모든 발걸음이 엄격히 심판받게 된다. 이는 한 시대의 끝이지, 생명의 끝이 아니다.

68. 이는 죄의 시대의 종말이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 여섯 번째 봉인의 모든 내용이 영혼들에게 쏟아져 내려 그들을 무기력함에서 깨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간이 스스로를 추스르고( ) 자신의 영혼이 온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체험하며, 또한 어린 양을 통해 일곱 번째 봉인이 풀릴 때를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 그 봉인은 고통의 잔에 남은 마지막 누룩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진리와 사랑, 그리고 신성한 정의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107, 17-19)

69. 나는 인류가 이 시기에 준비하여, 마지막 인장이 풀릴 때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서둘러 새로운 계시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를 원한다. 나는 국가들과 민족들이 그 날들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강해지기를 원한다.
70. 나는 그 시대의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을 복된 자라 칭할
것이며, 그들의 인내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상으로
그들을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남겨두겠다. (111, 10-11)
71. 일곱 번째 봉인이 다른 여섯
봉인과 함께 봉인되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던
그 책도 봉인된 채로 남을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새롭고 아무
기록도 없는 책을 펴시어, 그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억압받은 자의
해방, 죄인들의 갱신,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를 기록하실
것이다. (107, 20)

제39장 - 세속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과 그 실패

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들이 내면의 양심이
경고하던 율법을 지켰더라면,
너희에게 지도자나 예언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너희 주님이 너희에게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심지어 "첫 번째 시대"에 내가 내
율법을 돌에 새겨야만 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두 번째
시대"에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2.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은총의 선물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었을 때,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낮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본보기가
되고 사람들 사이의 형제애의
모범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3. 내가 이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지상에서 내 뜻의 도구가
되고 내 계시의 전달자가 되어,
모든 이에게 내 율법 안에서
살도록 초대함으로써, 결국 온
인류가 주님의 한 백성을 이루게
하려 함이었다.
4. 이 백성은 — 비록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 그 유산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민족들을 이방인으로 여겼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그들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타락과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한동안 그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해 두었을 뿐이다.

5. 그러나 그들이 이기심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위대하고 강하다고 믿었을 때, 나는 그들의 권력과 위대함이 허상임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하여 노예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왕들과 파라오들, 카이사르들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사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겠다고 제안했었다.

6. 무한한 사랑을 지닌 아버지는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오늘날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시선만이 인류 가운데서 내가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성령의 빛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7. 나는 너희의 영 앞에 나를 드러냈다. 왜냐하면 내가 자연을 통해, 그리고 너희가 기적이라 불렀던 물질적 현상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이미 너희의 영 안에서, 또한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느낄 수 있다.

8. 이 시대에 내 계시의 증인이 된 것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었다. 내가 찾는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너희의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을 찾고 있다. 곧, 시대를 초월하여 나의 자비로 받아온 영적인 씨앗을 지닌 백성을 말이다. (63, 64, 69)

유대 민족의 세속적 성향과 영적 성향으로의 분열

9.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떠나신 후, 이미 그 조상들에게 맡겨졌던 그 땅을 백성의 손에서 빼앗으셔야만 했다.

10. 어떤 이들에게는 속죄의
대가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상으로 그 땅이 빼앗겨졌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과거의 그
아름다운 팔레스타인은, 내가
영을 위해 마련한 참된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백성에게서 그
소유물이 빼앗겼을 때,
물질주의적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은 고향 없는 자로서 이
땅에 남겨졌으나; 그러나 다른 한
무리, 즉 언제나 나의 현존을
느꼈던 충실한 이들은, 과거의
유산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나의 뜻에 순종하며 남았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맡기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곧 그분의 말씀, 신성한
말씀,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라는
유산이다.
11.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미
“제3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나는 그들이 여전히 두 무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본다: 한 무리는
물질에 매몰되어, 세상의 재물을
자기 멋대로 한 보상이라 여기며
부유해졌는데, 그들의 힘은
세상의 기초마저 떨리게 할
정도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에 부어주신 힘과 재능,
은총의 선물을 자기 자신과 야망,
위대함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12. 보라, 그 민족이 물질주의의
한계 안에서도 과학, 의지,
지성에서 강함의 증거를
보여주었음을.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과거의 기근과 노예화,
모욕에 대한 원한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강하고 자랑스럽게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힘으로 위협하며, 지배하려 한다.
오늘날 그들은 스스로 배부른
자들이 되어, 수백만 명의 굶주린
자들과 거대한 노예 무리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금과 권력, 과학과
명성 추구의 노예들이다.
13.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또 다른
부분, 곧 굳건하고 충실한 자들, 즉
언제나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자들, 인간들 가운데서
나의 도래를 항상 알아본 자들,
나의 계시를 믿었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나의 명령을 이행해 온 자들도 보고 있다.

14. 그 다른 부분은 이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계시를 목격한 너희들뿐만이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온 땅에 흩어져 있으며, 각자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의 보살피는 사랑을 받고, 나의 임재를 느끼며, 나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내가 어디서 올지, 어떤 방식으로 올지 알지 못하면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15.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드러내셨는지 잘 알고 있는 자들, 곧 다가올 시대를 위해 준비된 자들은, 그 민족의 열두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14만 4천 명 중 일부를 이루는 너희들이다 —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치 14만 4천 명의 장수들처럼, “제3의 시대”의 영적 투쟁 속에서 그들을 대격전으로 이끌어 갈 백만 사천 사천 명이다.

16. 너희는 내 백성이 영원히 분열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가르침과 빛과 시련이 왔고, 그들에게는 나의 공의와 마찬가지로 징벌이 내렸다. 이제 나는 그들을 큰 걸음으로 그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고 있으며,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두 번째 오심을 부인했던 것처럼 내 세 번째 오심을 분명히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그들의 회심할 때가 멀지 않았다. 그들은 옛 전통 속에 살고 있으나, 나는 유대 민족의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확신보다는 안락함과 영적 계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통을 고수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들은 저 세상( )의 현현을 두려워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제안할 것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다.

17. 너희는 그들과 맞서야 할 것이며, 양측 모두 각자의 무기를 들게 될 것이다. 한쪽은 말과 생각, 기도와 증거를, 다른 쪽은 재능과 권력, 전통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립 속에 함께할 것이며, 나의 정의가 실제로 승리하도록 할 것이며, 영성이 승리하고, 영이 육체를 초월하여

그것을 굴복시키고 겸손하게
하도록 할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화해와 주님의
백성의 연합이 올 것이다.
18. 그 백성이 일단 준비되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 사명은
주님의 계시의 맏아들이자
수탁자가 되어, 형제자매들의
맏형으로서 나머지를 이끌고,
그들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며,
모두를 아버지의 우편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332, 17-21)

영적 이스라엘 백성

19. 내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백성"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지상에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온 자들, 곧 나의 율법을
알리고, 나를 선포하며, 나에게
충실했던 자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며, 아드님
안에서 아버지의 현존과 말씀을
알아볼 수 있었던 자들을 말한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자들이며, 이것이 곧
강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진리에 충실한 나의
군대이다.
20. 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나의 사자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자들 — 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 — 나를
부인하고 조롱하며 나의 피와
생명을 요구한 자들은, 비록
혈통상 이스라엘인이라
칭할지라도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백성, 깨달은 자들의
무리, 충성스러운 군인들에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인종을 지배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된 영적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21. 너희는 또한 내 백성에
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사랑과 자비와
열정,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
이를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2. 내 백성은 세상에서 특정한
나라나 도시를 소유하지 않으며,
내 백성은 특정 인종이 아니라
모든 인종에 걸쳐, 모든 사람

가운데 존재한다. 여기 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계시를 받는 이 무리들은 내 백성의 일부일 뿐이다. 또 다른 일부는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은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

23. 이것이 바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며, 내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이다. (159, 55-59)

24.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 시련 속에서 지혜롭고, 전투에서 용감하며, 고난 속에서 굳건한 그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소리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시켜, 모든 민족을 앞서가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날 그 백성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을 모든 인종의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25. 이 백성은 용감하고 투사적이어야 하되, 형제를 죽이는 무기도 전차도 가져서는 안 되며, 파괴를 노래하는 노래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깃발은 평화가 되고, 그들의 칼은 진리가 되며, 그들의 방패는 사랑이 될 것이다.

26. 아무도 이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적들은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백성이 물리적으로 한데 모인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단합과 질서, 조화는 영적인 차원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7, 48-50)

27.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의 영은 어디에서나 활동하고 있다. 내 임재를 느끼고, 내 오심을 기다리며, 내 공의를 신뢰하는 영혼들이 바로 그들이다.

28. 이 말씀이 다른 곳에 전해지면 많은 이들이 이를 조롱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29. 오늘 나를 듣는 이곳의 이 무리들은,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았으며 예언자들을 두었던 초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을 큰 재앙과 굴욕, 추방, 그리고 포로 생활로 이끌어내야만 했던 중대한 오해였다.

30. 너희는 내 사랑이 인종이나 신앙적 신념에 따라 너희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는 단지 내가 태초부터 지상으로 보내어 그들의 빛으로 인류의 길을 비추게 할 영혼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31.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살며 수많은 시련을 겪어 온 영원한 방랑자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인간의 법이 불의하며, 인간의 감정 표현이 진실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 속에 평온함이 없음을 깨달았다. (103, 10-14)

32.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한 인종에 국한된 백성이 아니라, 피나 인종, 언어가 아니라 영이 결정적인, 나의 수많은 제자들, 곧 군단 같은 무리일 것이다.

33. 이 백성은 글로만 내 가르침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 생명이 깃들게 하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이 백성은 글과 책만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본보기와 행실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34. 오늘 나는 너희를 모든 불필요한 것, 불결하고 잘못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너희 영혼이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고, 그 행실을 통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단순하고 순수한 삶으로 인도하리라.

35. 때가 되면, 나는 내 백성을 인류 앞에 선보일 것이며, 스승은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도 스승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는 세계관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와 겹칠 것이며, 그 전쟁

속에서 평화의 한 줄기 숨결처럼,
빛의 광선처럼 영성주의가
솟아오를 것이다. (292, 28-31)

36. 나의 백성은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으니, 이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그 영적
무리들 중에는 너희와 혈연으로
맺어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모, 형제자매, 혹은
자녀였을지라도 말이다.

37. 내 백성이 너무나 많아 지구가
그들을 모두 수용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이며,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내가 말해도
놀라지 말라. 내가 언젠가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내 자녀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았을 때,
그들에게는 끝이 없는 빛과
은총의 영역인 무한이 거처로
주어질 것이다.

38. 이곳 땅 위에서 나는 너희를
준비시킬 뿐이며, 너희가 그 삶에
어떻게 다가갈지 알 수 있도록
나의 가르침을 통해 필요한
지침을 준다. 이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삶을 완전함이라는 이상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계시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39. 인간의 대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나의 말씀인 이 신성한
메시지는, 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나의
말씀은 세상을 부르는
종소리이며, 그 본질은 민족들을
흥분시키고 깨우쳐, 영성화와 이
생 이후 영혼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이다. (100, 35-37)

144,000명의 선택받고 표식된 자들

40.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사역을 전파하기 위해, 나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영혼을 선택하였고, 신성한 빛의
입맞춤으로 그들을 표식하였다 —
유다의 입맞춤도 아니며, 너희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언약의
인장도 아니다. 나의 표식은
성령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새겨주신 표징으로, 그들이 이
"제3의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1. 이 표식을 지닌 자도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그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제2의 시대”에
내가 선택한 열두 사람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하는 바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의심과 연약함,
혼란의 순간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키스로 나를 처형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나를 배반한 자도
있었다.
42. 이 시대의 선택받은 자들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사십사천 명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43. 그 표징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
임무, 그리고 책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유혹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
선택받은 자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내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너희 영혼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느냐?
44.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백성 중에 그 선택받은
자들의 수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가 그 표징을 통해 베푸는
은사로 인류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안전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거나, 아니면
허영심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부르심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나의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내
말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45. 그 표징은 사랑과 존경, 열정과
겸손으로 그것을 지니는 자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표식이다.
그러면 그는 그 표징이 신성한
은총임을 깨닫게 될 것이니, 그
은총은 그를 고통 위에 서게 하고,
큰 시련 속에서 그를 깨우치며,
깊은 깨달음을 드러내 주고, 그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영혼이 더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46. 그 표징은 그것을 지닌 이를
영적 세계와 연결해 주는 사슬
고리와 같으며, 너희 세상에서
영적 세계의 생각과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표징을 받은 자는 나의 사자이며, 나의 사자이자 나의 도구이다.

47. 표식을 받은 자의 사명과 내 사업에 대한 책임은 크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혼자가 아니다. 그의 곁 에는 언제나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48.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법을 알았던 자는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제3의 시대'에 선택받은 자의 신성한 표식을 지고자 하지 않았던 그 선택받은 자의 길은 얼마나 험하고 쓰라렸는지.

49. 나를 듣는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며, 의롭고 순종적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영혼에게 가장 빛나는 환생인 이 생명이 헛되지 않게 되고, 나중에 잃어버린 시간과 활용하지 못한 재능을 후회하며 눈물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50. 표식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너희 모두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는 모두 내 사역 안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306, 3-4, 7-12)

51. "영에 따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매우 많다. 그 지파들 각각에서 내가 1만 2천 명을 택하여 그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14만 4천 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택받은 백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52. 스승께서는 "제2의 시대"에 많은 이가 부름받은 자에 속하고 소수가 선택된 자에 속한다고 가르치셨으나, 온 "이스라엘 백성"은 부름받으며, 나는 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표기할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평화와 영성, 그리고 영과 영의 교감의 시작을 심어줄 것이다. (312, 7-8)

53. 나는 우주적 아버지이며, 나의 사랑은 모든 이 마음속으로 내려온다. 나는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왔노라. 그러나 내가 이 멕시코 민족을 선택하여 내 말씀과 계시가 온전히 그들에게 쏟아지게 한 것은, 내가 그들을 겸손한 자들로 보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민들 안에서 미덕을 발견하였고,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들을 육신으로 보내었기 때문이라.

54. 그러나 모두가 이 국적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선택받은 자들의 수에 속하는 영혼들이 흩어져 있다. 그들은 표식을 받았으며,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감수성 있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영과 영으로 나와 대화한다. (341, 25)

55. 인류 가운데는 내가 표식을 새긴 14만 4천 명 중 일부가 살고 있다. 이 나의 종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으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인류의 형제애를 증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동료 인간들의 길을 밝히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직관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이 계시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 그렇게 한다.

56. 나의 사랑으로 표징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들도 있다.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삶에 깃든 영성, 그들의 행실, 사고 방식, 그리고 신성한 계시를 이해하는 태도뿐이다. 그들은 우상 숭배적이지도, 위선적이지도, 경박하지도 않다. 겉보기에는 종교를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과 주님의 영혼 사이에는 내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57. 성령의 빛으로 표징을 받은 이들은 마치 구명정 같으며, 파수꾼이자 조언자이며, 견고한 방벽이다. 나는 그들의 영혼에 빛과 평화, 힘, 치유의 연고, 가장 닫혀 있는 문도 은밀히 열어주는 열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무기"를 부여했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세속적인 직함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 그들은 과학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의사'이며, 법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조언자이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에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58.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는 단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 은사가
주어지거나 사명이 부여된 곳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혼이 지닌 빛은 그들이 긴
발전의 여정에서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다. (111, 18-21)
59. 인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나의 사업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다. 나는 신앙과 세계관
갈등의 시대에 순종과 사랑,
헌신으로 싸울 14만 4천 명의 표식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전투 한가운데서 그들은
세상에 노예의 사슬이 아니라,
자유와 형제애로 특징지어지는
영적 연대의 사슬을 제시하는
사슬 고리처럼 될 것이다. 이
병사들은 홀로 있지 않을 것이며,
나의 영적 세계가 그들을
동반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에서 기적을 행하며,
그리하여 나의 진리를 증언할
것이다. (137, 9)

제40장 – 선과 악의 힘

선과 악의 기원

1. 아버지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창조주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너희를 천국의 사다리의 첫 번째
단에 세우셨다. 그러나 첫 번째
발판을 떠날 때, 위쪽으로 향하는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는
얼마나 적었는가! 대다수는
불순종과 반항으로 뭉쳐,
자유라는 선물을 잘못 사용했고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그들은 물질에 지배당하여, 그
발산으로 악의 힘을 창조해 냈고,
그 영향력으로 형제자매들을 함께
끌어내려야만 했던 심연을
파냈으며,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약점과 타락, 그리고 고양과
순결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35, 38)

2. 원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나, 창조주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결합을 명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이었다. 죄는 사람들이 자유 의지의 선물을 남용한 데에 있었다. (99, 62)

3. “육신”은 영혼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쾌락을 통해 영혼을 유혹하여 그 해방을 막거나 적어도 지연시킬 방법을 찾는다. 보라, 인간이 자기 안에 자신의 유혹자를 품고 있음을!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그가 자기 자신을 이길 때 비로소 그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97, 37)

4.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공기, 흙, 물조차 오염된 이 시대에, 악이나 어둠에 물들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적은가! (144, 44)

5. 인류의 탄식이 내게 닿고, 아이들과 청소년, 중년의 남녀, 그리고 노인들의 두려움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는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이며, 영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의 씨앗은 썩어버렸으니, 지금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토록 깊은 곳에 있어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증오와 권력욕, 과학과 허영이 그 씨앗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며, 그곳에는 영성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의 잔은 점점 더 가득 차고, 세상은 그 잔을 찌꺼기까지 마시고 있다. (218, 12)

6. 제단에서 제단으로, 의식에서 의식으로, 종파에서 종파로,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며 찾아 헤매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실망 속에서 신성모독자가 되어 목적 없는 길을 걷고, 하나님도 법도 없이 살아간다.

7. 그러나 백성아, 그들 가운데 위대한 영혼들이 있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예언자들과 제자들을 발견함을 명심하라! (217, 49)

8. 교파들 안에서 사람들은 악의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간의 형상으로 의인화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강력한 왕국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있다고

믿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만, 유혹( )이 정욕과 약점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람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9. 이 시대에 악은 세상에서 우세하며, 모든 것에 드러나는 힘과 권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는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우며 악과 복수에 치우친 영혼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힘은 인간의 악의와 합쳐져 악의 왕국을 형성한다.

10. 그 세력은 “제2의 시대”에 예수님께 대항하여 그분께 자기들의 왕국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에 민감한 나의 “육신”은 유혹을 받았으나, 나의 영적 힘이 그 유혹을 이겨냈으니, 이는 내가 세상과 “육신”과 유혹과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힘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내려온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182, 42-43)

11. 너희가 영혼 속에서 느끼는 평화를 통해 내 임재를 알 수 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다. 어둠에서 온 영적 존재는 너희에게 그것을 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많은 마음이 상상 속에서 생명과 형상을 부여한 유혹하는 존재의 함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2. 사람들은 어둠의 군주의 존재를 얼마나 잘못 해석해 왔는가! 결국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의 권능보다 그의 권능을 더 믿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13. 악은 존재하며, 모든 악덕과 죄는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상에서든 다른 거처나 세계에서든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왜 너희는 존재하는 모든 악을 단 하나의 존재로 의인화하고, 왜 그것을 신성과 대립시키는가? 내가 묻노라: 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권능 앞에서 불결한 존재가 무엇이겠으며, 나의 완전함 앞에서 너희의 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4. 죄는 이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때, 어떤 이들은 선에 머물렀으나, 그 길에서 벗어난

다른 이들은 또 다른 길, 즉 악의 길을 만들어 냈다.

15. 옛날에 계시로서 상징적인 형태로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과 비유들은 인류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 왔다.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가졌던 직관적 지식은 그들의 상상력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점차 악의 힘을 중심으로 과학, 숭배, 미신적 관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신화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16. 하나님께서는 악마를 내보내실 수 없으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이성으로 지어낸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나의 대적자로 내세우는 그 존재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17. 나는 너희가 인간 존재와 영적 존재 모두로부터 올 수 있는 유혹과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깨어 있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18.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육체'보다 우선시하라고 말하였다. 육체는 너희가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이성과 감각은 세상의 정욕이 영혼을 채찍질하는 열린 문들이다.

19. 너희가 어둠의 존재들을 괴물처럼 상상했다면, 나는 그들을 단지 불완전한 피조물로만 본다. 그들도 나의 자녀들이기에,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손을 내민다. (114, 54-62)

20. 너희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고귀하고, 관대하며, 자비롭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면, 너희는 겸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내가 너희 영혼에게 그것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1. 그러므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인간적인 마음에 돌리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에 이러한 미덕을 부여하신 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22. 반면에 너희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너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그 행위를 아버지께

돌리며 말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록된
바였으며, 하나님이 원하셨고,
운명이다.”
23. 너희는 자신의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너희의 잘못과
비참함은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24. 전능하신 분께서 결코
강압이나 권능으로 너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는 오히려
너희보다 약한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한다.
2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과 불의, 조화의 결여는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사랑과 인내,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26. 너희가 사랑할 때마다, 너희
영혼의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이다. 반면에
너희가 미워할 때는, 바로 너희
자신,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를
부추겨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너희 삶에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너희의 소행임을
확신할 수 있다.
27. 그러나 그때 너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분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분도 울지
않으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겪지 않게 하시는 데
그분께 무슨 대가가 들겠는가?’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창조주의
너그러움은 너희의 이해력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29. 강해지고, 위대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파헤치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욕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니, 그때 는 너희가 그분을
뵙고 그분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248, 29-32)

교만과 겸손

30. 영적 승화를 이루기 위해 겸손을 너희의 가장 든든한 동맹으로 삼아라. 영의 왕국인 천국의 문은 교만한 자에게는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문을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겸손해지면, 내가 가장 먼저 그를 칭찬할 것이며,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나의 자비일 것이다. (89, 45)

31. 자, 제자들아, 이제 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강하고 위대하며 우월하다고 느낄 때,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진다. 왜냐하면 너희의 교만이 겸손의 감정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너희가 내 창조물 가운데 원자처럼 미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내게로 다가온다. 너희의 겸손함으로 인해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 곁에 계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재하신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며,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 마치 너희 영혼 속에서 신성한 속삭임의 메아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248, 22)

32. 제자: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허영에 눈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만일 이 비천한 감정이 자신의 내면에 스며든다면, 자신의 지성이 흐려지고 발전의 길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제자리에 머물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33. 허영심은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고, 번영하던 많은 민족을 멸망시켰으며, 너희의 문명을 무너뜨렸다.

34. 민족들이 행동력, 유능함, 그리고 진보를 이상으로 삼았던 한, 그들은 풍요와 영광,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오만함이 그들을 우월하게 느끼게 하고, 상향 발전이라는 이상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끝없는 야망으로 대체되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으면서도 단계적으로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결국
심연으로 추락했다.
35.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에
위대한 이상을 가진 민족이
생겨나되, 비록 자신의 선한
행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자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보는 막히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룬
영광은 내일 더 뛰어넘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금 더해질 것이다.
36.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단지 물질적인 목표만을
고무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말이 올바르게 해석되어, 너희가
그것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적용할 줄 알기를
원한다.
37. 허영심은 사람의 물질적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의
증거로, 그 기초가 허영과 교만,
그리고 허울뿐인 화려함에
갉아먹힌 거대 종교들의 몰락과
실패를 보라.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믿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들의 오류와
그릇된 길, 법과 진리에서 벗어난
점을 눈앞에 보여주었다.
38. 오직 양심 앞에서 내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할 때만, 이
인류는 고귀한 삶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빛인
양심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의로우니, 결코 허영에 빠지거나
비뚤어진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다. (295, 18-24)

선함,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

39. 너희 모두 나를 알아가라,
그리하여 아무도 나를 부인하지
않게 하라 — 나를 인식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진리에 기초하게 하고,
선이 드러나는 곳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라.
40. 선은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다. 선은 진리이며, 사랑이며,
자비이며, 이해이다. 선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고 혼동할
여지가 없다. 너희가 착각하지
않도록 그것을 알아라.

41.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선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결국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가 될 것이다.

42.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선한 것에 악한 듯한 외관을 씌우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고집스럽게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29, 45, 47)

43. 거의 2000년 동안 너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들었던 그 말을 되풀이해 왔다.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에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너희는 평화를 누릴 자격을 얻기 위해 언제 선한 뜻을 실천으로 옮겼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를 행했다.

44. 너희는 이 말을 되풀이할 권리를 잃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새로운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온 것은, 너희의 이성에 문구와 관용구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영에 스며들어야 할 내 가르침의 진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45.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대로 내 말을 반복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라. 너희가 그 말을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 말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깊은 감동과 겸손함으로 그 말을 내뱉고, 너희 마음속에서 그 말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온 존재를 떨리게 할 만큼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24, 33-34)

46.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리를 사랑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들은 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보호 아래 들어오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내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 그들의 영혼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투쟁 속에서, 그들의 필요 속에서, 그들의 시련 속에서 말이다.

47.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심하게 고통받을 때면 용서와 평화를 갈망하며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린다.

48. 그들은 고통이 종종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인내로 그것을 견뎌낸다. 오직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에만, 그들은 자기 십자가의 짐이 덜어지기를 간구한다. “주님,” 그들은 내게 말한다. “제 영혼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화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저보다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9.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삶의 시련에 적용하기 위해 스승의 모범을 찾기 때문이다. (258, 52-53)

악, 악에 타락한 인간

50. 이 시대에는 악의 영향력이 선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지배적인 힘은 악의 힘이며, 그로부터 이기심, 거짓말, 음란, 교만,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 파괴, 그리고 모든 저급한 정욕이 비롯된다. 이러한 깨어진 도덕적 균형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생겨난다.

51. 인간은 이러한 세력에 맞서 싸울 무기가 없다. 그들은 패배하여 영적 빛이 없는 삶, 건강한 기쁨이 없는 삶, 선을 향한 열망이 없는 삶의 심연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52. 바로 지금, 인간이 지식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심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53. 영원 속에서 너희의 시작과 미래를 아는 나, 나는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경멸하고, 악이 악을 대적하는 싸움을 택하였으니, 그 싸움에서는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리니, 모든 이가 패배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54. 악이 지배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세상의 끝에는 선이 승리할 것임을 의미한다.

55. 너희가 나에게, 내가 악의 세력이나 영향력에 맞서 싸우도록 사람들에게 준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것이 기도와 율법에 대한 인내, 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말하리라. (40, 65-70)

56. 악이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났도다, 나의 백성아. 선과 덕, 사랑은 악과 질병, 재앙, 전염병, 그리고 불행의 침입 앞에서 무력했다. 타락한 자들의 씨앗인 이 모든 것이 선한 이들의 마음을 오염시켰고,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 했으며, 신실한 이들의 수를 크게 줄였다. 이는 악이 인류에게 막대한 힘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57. 나는 너희에게 허락된 자유 의지를 위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타락과 어둠, 그리고 미혹 뒤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신성한 빛, 곧 영이 있기 때문이다. 빛의 영혼이라 불리는 원초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입맞춤, 즉 내가 모든 자녀들을 투쟁의 길로 보내며 새겨준 신성한 인장을 흠 없이 간직하고 있다. 이 표징 덕분에 그 어떤 영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345, 11-12)

선과 악의 투쟁

58. 너희는 또한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 남성과 여성들이 그들의 악의 속에서 드러낸 폭력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너희 역사의 책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너희 존재의 기억의 책, 즉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행실과 모든 업적을 기록하고 간직하시는 그 책에도 그들의 이름이 마찬가지로 담겨 있다. 그리고 너희는 한 영혼, 한 인간의 마음이 악을 위해 그토록 많은 힘을 품고, 자신의 행위에 전율하지 않을 만큼의 용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또한 그 마음이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워,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이 행성에서 그 영혼들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지루했는지.

59. 내 사랑과 정의에 맞서 자유
의지로 반항했던 이 사람들을,
나는 그들의 불순종 그 자체를
이용하여 내 종으로 삼았다.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내 정의의 도구였다.
60. 그러나 그 지배는 언제 끝날
것인가? —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의 지배가
인류를 결코 (완전히) 지배한 적은
없으니,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도
내게 충실하여 내 가르침에
순종한 자들과 내 율법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태초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
61. 그 두 힘 중 어느 쪽이
지금까지 싸움에서 우세했느냐?
악의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서 너희를
돕고, 너희의 희망과 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살리며, 너희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말해야만
했다. “너희는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원칙들을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과 사랑의 길이다.
(345, 48-49)
62. 보라, 나의 빛이 너희 세상의
안개를 찢어 버리는 것을. 내가
비록 사람들과 싸우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의 마음에 깃든 모든
악을 근절하기 위함일 뿐이다.
나는 나를 충실히 따르는
이들에게 내 사랑의 빛과 힘을
주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용을
찾자. 우리를 죄 짓게 하고 주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그 괴물을.”
그들은 바다와 사막, 산과 숲,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할 것이다. 오직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낳았고, 그곳에서 자라나
마침내 온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63. 내 광선검의 섬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를 때, 악에서
나오는 폭력은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말하리라. “주여, 주님의
자비의 신성한 힘으로 저는 용을
물리쳤나이다. 저는 그 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복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정작 제
마음속에 그 용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나이다."

64. 만일 모든 사람 안에서 지혜가
빛나게 된다면, 그때 누가 감히
선을 악으로 왜곡하겠느냐? 그때
누가 영원한 것을 덧없는 것으로
바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신성한 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오직 무지와 연약함의
결과일 뿐이다. (160, 51-54)

유혹과 미혹

65. 인류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가꾸고 있다. 사람들의 굶주림과
비참함은 그들로 하여금 그
나무들 아래서 그들에게 구원,
정의, 혹은 평화를 제공하는
그늘과 열매를 찾게 한다. 이
나무들은 종종 증오, 이기심,
권력욕, 그리고 과대망상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그 열매는 죽음, 피,
파괴, 그리고 인간 삶에서 가장
신성한 것, 즉 신앙과 사고와
발언의 자유를 모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정신적
자유의 강탈이다. 빛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다. (113, 52-53)

66.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했거니와, 악한
대변자들이 일어나 거짓 예수를
받아들이게 할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속임수를 쓰며 자신들을 통해
스승이 말씀하신다고 말할
것이다. 거짓 "지도자"와 거짓
"예언자", 거짓 "전사"들이 일어나,
그들의 말과 물질적 욕망으로
너희를 빛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것이다. (346, 38)

67. 기도하라. 지금이 바로 나의
정의와 빛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뒤흔든 때임을 깨달아라. 이는
어렵고 위험한 때이니, 어둠 속에
거하는 존재들조차 너희 가운데서
빛의 존재인 척하며 너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빛을
주는 것은,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내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68. 유혹자들은 단지 보이지 않는
존재들만이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인간으로 환생하여, 빛을
가장하지만 내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교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말아야 한다. (132, 7-8)

69. 내 왕국은 강하고 위대하며,
내가 내 힘과 권능 앞에 또 다른 힘,
즉 악의 힘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은 오직 내 힘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기만과 어둠을 마주할 때, 내 빛과
진리의 힘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
왕국이 비록 큰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그 왕국이 바로
그릇된 길과 유혹의 어두운
그림자이며, 실은 나의 도구이자
내가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70.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의 발전의 길에서 너희를
막기 위함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내 왕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전투 후에 승리를 거두고
내게로 오기를 원하며, 싸움 후에
강해지고, 긴 순례 끝에 영적
체험의 빛으로 충만해지며, 영
안에서 공로를 쌓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신성한 입맞춤을 주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순간에
너희가 겸손히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 그 입맞춤은 너희
영혼을 위한 모든 행복과 온전한
완성을 담고 있다. (327, 8-9)

도덕적 범죄

71. 사람들아,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가
자신의 악을 부인하고, 너희가
위대함이라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한편, 너희의 오점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겉으로
보이는 위대함 속에서 자신을
칭찬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다. 그리고
덕이 부족하여 타인의 잘못을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위선자이며
정의와 진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해야겠다.

72.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비방으로 마음을 찢어 놓는
자들도 살인자이다. 마음의

감정과 믿음, 이상을 죽이는
자들은 영혼의 살인자이다.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옥도 쇠사슬도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73.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가운데 파괴된 가정을 보기에
그러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들의
고통과 버림받은 심정을 돌보지
않은 채 가정 밖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여인이 타락에 빠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었는지 보라.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다정함과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의 행복을
죽이고 거룩했던 것을 파괴한
자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74. 너희는 악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단 한 순간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새로운 살상 무기를
발명하는 사람들조차 위대하다고
칭송한다. 심지어 그들을
학자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영을 통해서만
위대해질 수 있으며, 진리의 길을
걷는 자만이 학자일 수 있습니다.
(235, 36-39)

악의 무력함과 덧없음

75. 너희 눈에는 인간의 타락이
크고, 매우 크며, 사람들이
행사하는 악의 권세와 힘이
너희에게 끔찍하게 보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은 내 정의의 힘 앞에서는,
운명과 생명과 죽음과 온
창조물의 주인이신 나의 신성
앞에서는 미약하다. (54, 70)

76. 나처럼 전능한 존재만이 나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만일
나로부터 한 신성이 나온다면,
그것이 나를 대적할 것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그것이 무(無)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느냐? 무(無
)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77. 나는 모든 것이며 결코 태어난
적이 없다. 나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자 끝,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78. 너희는 내가 창조한 존재 중 하나가 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느냐? 모든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이 되려면 한계가 없어야 한다. 권력과 위대함에 대한 그런 꿈을 품은 자는 자신의 오만이라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73, 34-35)

7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 원수들은 비참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적대 세력은 약하며, 진리와 정의를 대적하려 했던 무기들은 언제나 허약했다.

80. 악의 세력이 신성한 정의에 맞서 벌인 싸움은 너희에게 끝없는 갈등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면 그것은 한 순간과 같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불완전했던 시기에 저지른 과오들은 너희의 덕과 나의 자비로운 정의가 영원히 지워버릴 작은 얼룩과 같을 것이다. (179, 12-13)

용서의 힘

81. 모든 인간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여기 있는 이 백성을 너희의 대리자로 삼아 보라. 언제 너희는 내면적으로 고양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가한 모욕을 용서하게 될 것인가? 언제 비로소 너희 행성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82.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만이 나의 가르침이며,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인을 덕을 갖춘 사람으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83.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세상에서 평화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천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면, 천 번이라도 용서하라. 적시에 화해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고통의 잔을 마시는 일을 면하게 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238, 12-14)

84. 너희가 인간인 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처형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치유했는지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도 너희의 험난한 삶의 여정 동안, 너희에게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마찬가지로 축복하고, 너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이며, 진실로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그의 고통은 언제나 잠시뿐일 것이니, 이는 내가 그가 시련을 겪을 때 내 힘을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63, 56)

85.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 과정에서 너희 자신과 너희에게 불의를 저지른 자 모두에게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에 증오나 원한의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 마음이 순수하면 너희는 평화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내 진리의 사도로서 살아갈 것이다. (243, 63)

제41장 - 현세와 내세의 연결

영적 세계를 통한 영감과 도움

1. 너희 모두는 영적 완성을 향한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 어떤 이들은 너희가 현재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고, 다른 이들은 너희 뒤를 따르고 있다.

2. 투쟁과 사랑, 그리고 노력으로 위대해진 위대한 영혼들은, 그들의 어린 형제자매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그리고 소홀한 자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들의 사명은 고귀하고 숭고하며, 나의 신성과 너희를 향한 그들의 사랑 또한 매우 크다.

3. 이 영혼들은 활동과 더 높은 발전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위(無爲)가 없음을 알고 있다. 창조 속에는 모든 것이 생명이며, 움직임이며, 균형이며, 조화이다. 그러므로 이 무수한 존재들은 그들의 투쟁 속에서 일하고, 노력하며, 기뻐한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진보와 완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4. 오늘날, 너희가 내 율법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너희는 이 형제자매들이 너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보내는 그 기운과 영감,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바치는 무수한 활동과 고귀한 업적에 대해 짐작하게 될 것이다.

5. 너희는 그 영혼들이 창조주의 법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창조의 기본 요소들을 불협화음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결코 취하지 않으며, 금기된 것을 건드리지 않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침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 세상에서 위대하고 강력해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내 가르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과학이라는 열쇠로 파괴적인 자연의 힘을 탐구하고, 미지의 힘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젖힘으로써, 그들을 둘러싼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는 지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가!

7. 인간은 언제쯤 영적 세계의 현명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 영감에 이끌려 나아가게 될 것인가?

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만으로도 너희가 마땅히 올라야 할 산의 정상에 안전한 길로 이르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 앞에 곧고 빛나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니, 그 길은 지금 오직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의 고난 속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영혼들이 걸어온 길이며, 그들은 너희를 한 걸음 한 걸음 길의 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 그곳에서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9. 내가 그 존재들의 선함과 영적 높이에 대해 너희에게 말했으니,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의지의 자유, 즉 참되고 거룩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받았음을 너희에게 말해야겠다. 이는 창조주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20, 28-36)

10.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 격려와 빛이 너희 각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게 느껴질 경우를 대비하여, 나는 모든 인간 피조물 곁에 영적인 빛의 존재를 두어 너희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미리 알려주며, 너희의 고독 속 동반자로서, 그리고 인생 여정의 지팡이로서 너희를 섬기게 하였다. 그들이 바로 너희가

수호천사나 보호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다.

11. 그들에게 결코 배은망덕하게 굴지 말고, 그들의 계시에 귀를 막지 마라. 너희의 힘만으로는 삶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보다 더 앞서 나간 자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기에 너희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

12. 너희가 영성화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 존재들의 투쟁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의 어려운 사명을 돕기 위해 너희 쪽에서 거의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만일 너희의 영성화가 너희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과시도 없이 활동하는 그 형제자매들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너희는 그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고 고통받도록 강요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너희 안에서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오직 너희의 마음에 이미 빛이 비쳤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연민과 감사, 그리고 이해가 깨어날 것이다.

14. 너희 수호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너희에 의해 지지받고, 그들의 영감이 너희의 고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낄 것인가!

15. 너희에게는 '영적 계곡'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있다.

16. 내일, 영적 삶에 대한 깨달음이 지구 전역에 퍼지게 되면, 인류는 너희 곁에 있는 그 존재들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나의 섭리를 찬양할 것이다. (334, 70-76)

1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육신의 감각으로 영적인 존재의 현존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영혼이 그 섬세한 감수성으로, 너희 주위에서 끊임없이 맥동하는 그 세계를 지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8. 그렇다, 인류여, 네가 영적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해도, 그 존재들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없으니, 그들에게는 거리도,
경계도, 장애물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영혼의 상향 발전과
완성이 최고의 목적인 인간
존재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 (317, 48-49)

19. 너희와 하나님 사이, 혹은
너희와 영적 존재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거리는 물질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이며,
이는 영감과 영적 영향을
받아들일 준비, 순수함, 혹은
의지가 너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20. 결코 너희와 너희 스승 사이,
혹은 너희와 영적 세계 사이에
그러한 거리를 두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찾는 법을 아는
이들에게 내 사랑이 쏟아내는
은혜를 언제나 누리게 될 것이다.
영적 세계가 그것을 느끼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너희는 언제나
갖게 될 것이다.

21. 이 시대의 인류가 자신과 영적
삶 사이에 두는 거리는 얼마나
큰가! 그 거리는 너무나 커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을
자신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느껴,
천국을 멀고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여긴다. (321, 76-78)

2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
세계의 영향 아래 살지 않는
인간의 이성은 단 하나도 없다.

23. 많은 이들이 이를
부정하겠지만, 인간의 이성이
영적 존재들과 자신의 동료
인간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진동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4.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계시이다. 이 계시는 널리 퍼지면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완고한
반대자들과 적대자들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25. 그러나 그들은 영적 왕국의
빛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빛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불신자들은 그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힘인

우주적 영향력 밖에 있다고
여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26. 나는 너희의 영과 영혼, 그리고
이성에 말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너희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로부터 메시지와 생각,
영감을 받고 있으며, 너희의
영혼이 이 육신에 환생하기 위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채로 너희
영혼에게 다가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282, 33-37)

혼란스럽고 악의적인 영들

27. 이 시대는 제1시대와
제2시대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풀려난 가시적·비가시적
요소들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은
자는 화를 입을 것이니, 그는
패배할 것이며, 준비된 자는
싸워야 합니다!
28.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눈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어떤
눈들은 너희의 길을 매복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다른 눈들은
너희를 보호하려 한다. (138, 26-27)
29. 혼란에 빠진 영혼들의 거대한
군단은 인간의 무지, 무감각,
그리고 영적 통찰력의 부족을
이용하며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사랑의 무기를 갖추지 않았기에,
이 싸움에서 마치 무방비 상태의
존재처럼 보인다.
30.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 나의 영적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이
필요했다.
31. 너희 자신의 세계 안에서
얽히고 살아 숨 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이성이나 감정, 또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복종하는
종들, 노예들, 도구들, 희생양들로
만드는 영향력이 발산되고 있다.
사방에서 영적인 계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을 둘러싼 것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32. 어둠을 파괴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내면에 빛이 비칠 때,

모두가 진정한 공동체로
연합하여,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해 온 그 세력들에 맞서
벌이는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인류는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영향력의 힘에 굴복해 왔다.
그것들이 일으킨 드물고 알려지지
않은 질병들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34. 인간은 얼마나 많은 불화와
혼란, 고통을 스스로 쌓아
올렸는가. 기도와 도덕, 영성의
부재는 불결하고 혼란스러운
존재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빛도 준비도 없이 고립된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35. 그곳에는 너희가 배신하고
억압했던 자들, 너희가 혼란에
빠뜨리고 모욕했던 자들이 있다.
그들은 너희에게 혼란과 어둠만을
보낼 수 있고, 복수할 뿐이며, 오직
너희를 비난할 뿐이다. (152, 22-28)

36. 어둠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뇌우 구름처럼 인류
속으로 밀려들어와 전복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비록 이
인류가 이러한 교활한 공격에
맞서 방어할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짐작하지
못한다. (240, 53)

37. 오늘날의 인류는 너희 눈에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 보일지라도,
그들을 둘러싼 영적 존재들의
세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그
군단들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의 길에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요동치는 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듣지도 못한다. (339, 29)

38. 죄악된 삶에 빠진 사람은 온갖
어둠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군단을
뒤따르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은
그가 가는 길에 불길한 영향의
흔적을 남기게 할 것이다. (87, 7)

39. 만약 너희가 이곳에서
물질화된 존재들이 거처하는
"영적 계곡"을 볼 수 있다면 — 즉,
이 생을 마친 후 영적 여정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 — 너희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그 대신 너희는 외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불공평하며, 잔인한가! 우리 영혼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냉담했는가!"

40.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존재들이 때때로 너희 삶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의 어둡고 평온하지 못한 삶에 대한 고통스럽고 두려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들은 영적 고향의 찬란한 빛도, 이전에 살았던 지구의 아름다움도 없는 세계의 주민들이다. (213,52-53)

41. 세상을 방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영혼들은, 종종 여러분에게 깨어나야 한다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육신을 땅속에 남길 때, 그들처럼 자신의 고독과 무지와 물질주의를 한탄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어둠 속에서도 빛이 솟아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듯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 영적 계시들이 결국 사람들을 가득 채워, 마침내 인류의 회의론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87, 65)

42. 너희 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이가 그 길을 찾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이가 영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이가 단시간 내에 평화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3. 어떤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 삶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이들은 격렬한 후회감에 시달리며, 또 다른 이들은 무감각한 채 육신과 함께 땅속에 묻혀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는데, 이는 애도,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무지가 그들을 붙잡아 두어 물질에 묶어

놓고 평화와 빛, 그리고 발전을 빼앗기 때문이라.

44.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사랑했던 재물을 버리게 하여, 진정한 유산이 기다리는 무한한 세계로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게 하라. (106, 35-37)

45. 너희가 "영적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환영을 받고, 너희가 그들에게 베푼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받는 것은 너희 영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때 빛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너희의 기쁨은 클 것이다.

46. 그러나 혼란으로 인해 어둠에 휩싸인 그 수많은 존재들을 마주하고, 그들이 너희에게서 사랑의 행위를 기대했으나 너희가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느냐. (287, 58)

4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인간을 그토록 많은 사랑과 자비로 대하듯이, 나는 저 세상에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보살핌의 사랑으로 다가가노라. 나는 이 존재들에게 내 빛을 보내어, 어둠과 같은 그들의 혼란과 '불'과 같은 자기 비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 후 그들을 인간들 가운데로 보내려 한다. 이는 과거에 마음속에 고통을 심었던 자들이, 이제 깨달음의 빛을 얻어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이자 보호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69, 6)

영들이 인간을 두고 벌이는 싸움

48. 너희의 인간적 삶 너머에는 영들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자매들이며,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너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49. 그 싸움은 서로가 처한 발전 단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사랑과 조화, 평화, 그리고 완성에 대한 이상을 품고 빛의 존재들은 인류의 길에 빛을 뿌리며, 항상 선을 고취하고 인류의 복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반면, 여전히 지상의 물질주의에 집착하는 존재들은 자기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불확실한 기간 동안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키우는 존재들은, 인간의 길을 혼란으로 뒤덮는다. 그들은 이성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눈멀게 하며, 의지를 노예로 만들어 인간을 이용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계획의 도구로 삼거나, 마치 자신의 몸인 양 이용하려 한다.

50. 빛의 영적 세계가 인간의 영혼을 얻어 영원으로 향하는 통로를 열어주려 애쓰는 동안; 그 축복받은 군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사랑을 더하고, 고통의 침상 곁에서 간병인이 되며, 큰 책임의 짐을 진 인간의 곁에서 조언자가 되고, 청소년의 지도자가 되며,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잊혀져 홀로 사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동안, 영적 지혜의 빛도 없고 고양되는 사랑의 감정도 없는 존재들의 군단 역시 인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너희가 영적 왕국으로 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 아니, 이 존재들의 의도는 정반대이며, 그들의 열망은 세상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이 되며, 지상에 영원히 남고, 인간을 지배하여 그들을 노예와 자신의 의지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 한마디로: 그들이 항상 자신들의 것으로 여겨왔던 것, 즉 세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51. 그러니 제자들아: 이 두 존재들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 여파는 날마다 너희 세상에서 느껴지고 있다.

52. 인간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자신을 둘러싼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선과 악, 빛과 어둠, 영성화와 물질주의가 맞서는 이 거대한 전투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가 어떤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53. 바로 빛의 영적 세계가 활동하고 투쟁하며, 언젠가 세상이 영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54.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너희 영적 형제자매들이 치르는 이 격렬한 투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이 투쟁은 마치 너희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선한 것을 받아내기만 할 뿐, 그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돕지는 않기 때문이다.

55. 그들과 함께할 줄 아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들의 영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시를 따르는 이 또한 드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힘차게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며, 어떤 기쁨과 영감이 그들의 영혼을 고양시키는지요!

56.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영향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영성화하기 위해, 즉 선과 지식, 영적 힘으로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의 투쟁 속에 있다.

57. 양심의 목소리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굴복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들은 승리한 줄로 여기고, 자유롭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포로라는 사실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빛의 군대가 어둠 속으로 내려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58. 나는 이 빛의 메시지를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보내니, 사람들이 깨어나 그들이 누구를 적대시해야 하며, 그를 물리칠 때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무기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하려 함이라. (321, 53, 63)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의 연결

59. 제자들아, 깨어나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도 나의 공의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자비가 너희에게 열어 놓은 저
세상으로 가는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 세계들로부터 빛과
희망과 지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60, 82)

60. 나는 너희가 잠시 동안 저
세상의 존재들과 교감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내가 "제2의
시대"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 당시에는 너희도
그들도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은 이
시대에 내가 열어 놓았으며, 이를
통해 나는 나의 예언자들의
예언과 나의 몇 가지 약속들을
실현하고 있다.

61. 1866년에 이 보이지 않는 문이
너희에게 열렸고, 빛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의 전달
기관도 함께 드러났다.

62. 그해 이전에, 지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내 도래를
알리는 선구적인 징조들이었던
영적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46, 15)

63.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무감각하지 않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끊임없이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며, 때로는 사람들의
각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4. 어떤 이들은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라 부르고,
다른 이들은 "저 세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왜 그럴까? 단순히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인간적인 비천함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느껴야 할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낯선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294, 32-33)

65. 너희는 영적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너희와 접촉한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너희 자신도
자신을 표현하고 심지어 다른
세계, 다른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

66. 너희의 "육신"은 기도하는
순간에 너희 영혼이 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이 은총을 통해 너희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는 단지 나의 영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너희가 기억하는 영적 형제자매들의 영에게도 마찬가지이다.

67. 마찬가지로, 너희는 몸이 잠든 휴식 시간에 영혼이 그 발전 단계와 영성화에 따라 몸에서 분리되어, 너희의 이성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포함한 먼 곳에 나타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68. 아무도 이 계시들에 대해 놀라지 말라. 너희가 현재 시대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148, 75-78)

69. 나는 순수한 생각이 영적 세계에 거하는 너희 형제자매들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진실로, 너희의 공덕과 선행은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의 영향력과 영감, 그리고 너희를 향한 그들의 보호는 너희가 함께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너희 삶의 여정에서 강력한 도움이 될 것이다.

70. 영적으로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는 삶 속에서 그 존재들의 자비로운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상에 자녀를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의 어루만짐 ,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조언을 말이다. (245,7-8)

71. 이 책은 영적 존재들이 그 안에 자신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고 거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 가르침의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자들은 오직 무지한 자들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72. 주님의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사자들이 영적 빛의 존재들의 영향 아래 인류에게 말을 건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또한 너희 각자가 영적 존재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도다! 그리고 바로 이 일, 즉 예로부터 항상 있어 온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확인해 주었노라. (163, 24-25)

73. 단지 호기심 때문에 저
세상과의 연결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며,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나 허영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참된 계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유혹이 거짓된 목표나 이기적인
이익으로 너희 마음을
현혹시킨다면, 너희는 마찬가지로
내 성령의 빛과의 연결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희의 경외심,
순수한 기도, 사랑, 자비, 영적
고양만이 기적을 일으켜, 너희
영혼이 날개를 펼치고 공간을
가로질러 내 뜻이 닿는 한 영적
고향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74.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자
위로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이자
동일한 고향을 바라보고, 죽음도
소외도 없으며, 영생에 있어 내
피조물 중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는 이 지상 생활에서
떠났으나 너희가 알고 사랑했던,
이 세상에서는 잃었으나
영원에서는 잃지 않은 그
존재들을 영적인 포옹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5.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나의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그
존재들과 교감해 왔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완전한 접촉 방식은
아니며, 육신을 입은 영혼과
육신을 벗은 영혼이 더 이상 어떤
물질적 또는 인간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즉 영감, 영적
감수성의 은사, 계시 또는
예지력을 통해 영과 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 영의 눈은 저 세상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후 너희 마음은 '영의 계곡'을
채우는 존재들의 삶의 표현을
공감하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
영의 환희와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깨달음과 사랑은 커질
것이다.
76. 그러면 너희는 너희 영혼의
삶이 무엇인지, 영혼이 누구이며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육체에
상응하는 그처럼 좁은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너희 육체의 물질이 실제로 작을지라도 — 너희의 영은 나의 신성한 영과 얼마나 닮았는가! (244, 21-24)

제42장 - 죄와 속죄, 시련과 고통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

1. 내가 너희가 이웃에게 안겨준 것과 똑같은 잔을 마시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어떤 이들은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자신이 초래한 악을 깨닫기 때문이며, 타인에게 겪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그들이 타인에게 느끼게 했던 고통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이해와 회개를 이끌어내며, 결과적으로 내 율법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다.

2. 그러나 고통을 겪거나 괴로움의 잔을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회개와 선행, 그리고 양심이 시키는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죄를 갚음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사랑의 빚을 갚게 될 것이며, 한때 이웃에게서 빼앗았던 명예와 생명, 혹은 평화와 건강, 기쁨, 그리고 양식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3. 내 정의의 실체가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게 대해 품었던 그 상상과 얼마나 다른지 보아라!

4. 잊지 마라. 내가 너희 중 누구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분명히 모든 빚이 갚아지고 모든 잘못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한다고도 말했었다. 내게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너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5. 만일 너희가 옛날의 보복의 법칙을 선호한다면, 오만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여전히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결과를 보아라!

6. 만일 너희가 동료 인간을 재는 그 잣대로 너희 자신도 재이기를 원한다면, 내 공의를 받기 위해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지상)에서, 너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너희가 동료 인간을 몰아넣었던 바로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그러나 너희가 더 높은 법이 너희를 도우기를 원한다면 — 단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귀한 생각과 선한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 기도하고, 나를 부르며, 그 후 너희의 투쟁의 길을 걸어가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시련 속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 — 한마디로: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와 이웃에게 지고 있는 빚을 사랑으로 갚기 위해. (16, 53-59)

8. 종종 누군가 나에게 묻곤 한다. "스승님, 당신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면 — 왜 우리가 고통으로 속죄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지만, 너희 영혼의 순결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잘못들을 만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64, 14)

9. 나는 너희에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작은 얼룩 하나까지도 지워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또한 각자가 자신의 오점을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고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남을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재어질 것이며",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150, 47)

10. 인류가 내게 바치는 물질적인 제물 중에서,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경우에만 그 선한 뜻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제물 속에 항상 너그럽고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악행을 감추거나 그 대가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너희의 어두운 얼룩은 아무리 큰 보물을 나에게 바친다 해도 물질적 부로 씻어낼 수 없느니라.

11. 회개, 나를 모욕했다는 것에 대한 아픔, 갱신, 개선,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겸손함으로 — 그렇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과 생각의 참된 제물을 나에게 바치게 되는데, 이는 향과 꽃과 촛불보다 너희 아버지께 훨씬 더

기쁘게 여겨지는 것이다. (36, 27-28)

속죄의 법칙

12. 너희는 계속해서 기회를 얻어 왔으며, 그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벌하거나 영원히 저주하는 대신,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고 너희 존재에게 실수를 만회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완성할 기회를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13. 이 가르침을 알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에 더 혹독한 속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지상의 사명을 저버리겠느냐?

14. 내 정의가 너희에게 오점을 지우고 잘못을 만회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시련의 수는 늘어나고, 저지른 잘못이 점점 더 중대해짐에 따라 고난과 고통도 매번 더 심해진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15. 너희의 의무는 — 이를 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만회하며, 마지막 죄까지 갚는 데 있을 것이다. 누구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지상에 있는 형제자매들, 혹은 "영적 계곡"에 있는 형제자매들조차도 —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을 것이나, 비록 내가 항상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긴 한다. 여러분이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영적 세계는 언제나 여러분의 십자가 짐을 지탱해 주기 위해 찾아올 것이다. (289, 45-47)

16. 오늘날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만이 그것을 갈망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나의 완전한 정의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17. 그들이 영혼의 버림받음이 이 세상의 고독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지상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고 용기 있게 버틸 것이다. (165, 73-74)

18. 내 자녀들이 아무리 나를 상처 입힌다 해도,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잘못을 만회하며 그들이 떠났던 길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와 마주하게 되며, 바로 그 결과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96, 55)

시련과 고통의 원인

19. 너희 자신을 깨달아라! 나는 모든 시대의 인간들의 삶을 지켜보았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다.

20. 태초부터 나는 사람들이 시기심과 물질주의,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서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은 오직 물질일 뿐이라고 믿으며 늘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했으며, 마침내 지상에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때가 오면, 영을 위한 그 어떤 행복도 거두지 못한 채 물질적 삶에서 이룬 것들만 남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찾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영의 미덕이나 지식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찾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11, 42-43)

21. 오늘날 너희는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본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순수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에서도 멀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상에서 보내는 날마다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각 단계마다 점점 더 큰 약함과 고통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 율법을 성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오, 땅의 주민들아! (16, 35)

22.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시련들은 우연이 아니니, 내가 너희가 공덕을 쌓도록 이를 보내었노라.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며, 나는 창조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있노라.

23. 깨어 기도하여, 너희가 각 시련에서 거두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너희의 속죄가 더 빨리

끝나게 하라. 사랑을 가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인내로써 그
속죄를 견디게 하리라. (25, 6)
24. 사람들이 웃음과 쾌락, 허영
속에서 나를 잊고 심지어 부인할
때, 왜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괴롭히는 눈물의 열매를
거둘 때 비탄에 빠지고 떨까? 그때
그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며
신성모독을 일삼는다.
25. 사람은 죄를 짓기에 충분히
대담하고, 내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속죄하고
빚을 갚을 때는 지극히 비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비겁함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약함을 보호하며, 너희를
무기력함에서 끌어내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며, 잃어버린 빛을
되찾고 내 율법의 잊혀진 길을
다시 찾도록 새로운 기회를 준다.
26. 나는 '제2의 시대' 때와 같이,
너희가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을 위한 생명의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주러 온다.
27. 나의 길에는 미덕이 꽃피지만,
너희의 길에는 가시와 심연,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
28. 주님의 길이 가시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나는 내 자녀 중 누구에게도
고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과 평화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은 그 길로 돌아올 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9. 너희는 왜 고통의 잔을
마셨느냐? 왜 주님의 계명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잊었느냐?
너희가 내 법을 너희의 법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며, 여기 너희
헛된 지혜의 결과가 있다. 쓰라린
고통, 전쟁, 광신, 실망, 그리고
너희를 질식시키고 절망으로
채우는 거짓말들이다.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모든 것을
자신의 계산에 종속시키고 이
세상의 물질적 법칙에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생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그릇된 길과 욕망의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때 너희 영혼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30. 여기서 너희의 죄의 짐을 떨쳐 버리고, 내 법을 지키며 속히 오라. 너희가 상처를 준 모든 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사랑할 시간은 짧을 것이기 때문이다. (17, 37-43)

31. 마음에 숨겨진 아픔을 품고 있는 모든 이여, 다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배신으로 인해 입은 고통을 마음속에 은밀히 간직하고 있으며, 너희를 깊이 상처 입힌 이가 지극히 사랑하던 존재였기에 그 원망이 매우 크다.

32. 마음속으로 고요해져라. 그래야 기도가 너희를 깨우쳐 주어, 혹시 너희가 배신당한 원인이 된 적이 있지 않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는 너희의 사랑과 믿음, 신뢰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건히 해 줄 것이다.

3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모욕한 자를 용서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나의 평화를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희의 영은 나의 영과 하나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 둘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기 위해 나의 망토를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312, 49-51)

34. 진실로 스승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영혼을 위해 평화와 완전함의 왕국을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이 왕국에는 또 다른 왕국, 곧 세상이 대립하고 있다. 내 왕국은 겸손과 사랑, 덕을 통해 얻는 반면, 저 다른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만과 야망, 자만, 탐욕, 이기심, 그리고 악의가 필요하다.

35. 모든 시대에 세상은 내 왕국에 대항해 왔으며, 언제나 나를 따르는 이들은 보이는 영향이든 보이지 않는 힘이든 간에 그들의 길에서 박해를 받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36. 너희가 나를 찾아 가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내 임재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던 너희 영혼이 비틀거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너희는 언제나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싸움을 벌여 왔다.

37. 내 영의 영감은 너희 내면을 비추며, 어둠의 세력들과, 거짓 빛들과, 거짓 미덕들과, 물질과, 모든 불필요한 것들과,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영광과 싸움을 일으켰다. (327, 3)

38. 내가 너희를 위해 견뎌낸 고통을 축복하노니, 나를 위해 겪는 모든 고통은 너희를 영원히 합당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338, 61)

시련 속의 믿음, 순종, 겸손

39. 인간의 삶은 영혼이 정화되는 도가니이자, 단련되는 모루이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인내로써 갈바리아 산 정상까지 지고 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이상을 품고, 창조주를 믿으며, 자신의 소명을 사랑해야 한다.

40.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가혹한 시련 앞에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높은 이상이 없으면 물질주의에 빠져들며, 실망을 견딜 힘이 없으면 낙담이나 악덕 속에서 파멸하게 된다. (99, 38-39)

4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깨에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에 반항한다면, 그 고통이 너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오 백성아, 나는 내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십자가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느냐? 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십자가는 바로 너희로 이루어져 있다. (144, 20)

42. 내가 정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은 시련의 길을 더 짧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그 고난의 길을 두 번 다시 걷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련 중에 반항이나 불만, 심지어 신성모독이 일어난다면, 그 시련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39, 49)

4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시련들은 매우 무겁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4.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통해 신의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인간 피조물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45. 인간이 영적 속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만 영혼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랑과 인내, 존중, 심지어 기쁨으로 자신의 고통의 잔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오점을 씻어내고, 빚을 갚으며, 법 앞에서 공로를 쌓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46. 사랑으로 고통받지 않고, 나의 정의에 대한 존중과 각자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에 대한 순응 없이서는 고통 속에서 영적 고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이러한 시련 속의 고양만이 사람들에게 영적 속죄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52, 36-37, 42-43)

고통과 아픔의 의미

47. 너희가 삶의 시련을 우연의 결과로 돌린다면, 너희는 강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속죄가 무엇인지, 정의와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믿음 속에서 고양과 순종을 발견하여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48. 내가 너희 영혼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길러내고, 다듬고,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이용하며, 의인과 악인 모두를 도구로 삼는다 . 때로는 빛을 이용하고, 때로는 어둠을 나의 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곧 너희의 스승을 생각하라. 그분은 모든 사랑으로 그 시련의 이유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49. 모든 이가 마셔야 할 잔들이 있다. 어떤 이는 일찍, 어떤 이는 늦게 마시게 되니, 이는 모든 이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함이다. 비참함, 질병, 비방, 모욕은 매우 쓰라린

잔들이며, 이는 죄인의 입술에만 닿는 것이 아니다. 그 '두 번째 시대'에 가장 의로운 분이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린 잔을 비우셨음을 기억하라.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에 동반되는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랑은 십자가를 더 가볍게 만들고 시련이 더 빨리 지나가게 할 것이다. (54, 4-6)

50.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은 너희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나, 모든 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너희가 고통의 잔에서 마시는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라. 그 아픔 속에서 너희는 지혜와 온유, 힘과 감수성인 빛을 얻을 수 있다. (81, 59)

51. 제자들아, 고통은 너희 마음에서 나쁜 열매를 제거하고, 경험을 주며,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는 것을 알라.

52. 이와 같이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내 지혜로운 교훈의 뜻을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고 헛되이 고통받으면, 너희의 고통은 무의미하며 너희는 그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258, 57 58)

53. 사람들은 외친다. "자비와 사랑의 신이 계시다면, 왜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 때문에, 의로운 자들은 죄인들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5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그 누구도 오직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이다.

55. 인간의 몸에서 나머지 장기가 병들었을 때, 건강한 장기와 온전한 장기가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

56. 이것은 너희가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물질적인 비유이다.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형제자매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선한 자들도 완전히 무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각자는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내 영의 일부이자 그와 닮았기에, 모든 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지성을 지니고 있다. (358, 18-19)

57.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라. 내 영이 지상에서 너희의 고통을 보고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말며,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너희에게 즐거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내 법들을 깨닫고 준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온다. 왜냐하면 그 법들은 너희의 존중과 준수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그 법들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25, 80)

58.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곳에서의 삶을 가능한 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된다. 내세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울고, 고통받고, “피 흘릴” 필요는 없다.

59. 만일 너희가 이 지구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내 법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행복의 세계로 바꿀 수 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삶은 내 눈에는 고통과 불행, 눈물로 가득 찬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니, 비록 너희가 그것을 견디려는 의지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219, 15-16)

60.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뻐하라. 너희의 고통은 일시적이며 곧 지나가리라.

61. 시련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에게 속죄와 정화의 시간은 덧없이 지나가나, 반면에 온전히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에게는, 실상 금세 지나갈 일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62. 너희 심장의 박동이 지나가듯이, 인간의 삶도 무한한 시간 속에서 지나간다.

63.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 또한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64. 하느님의 끝없는 자애로움 안에서, 너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은 허무로 사라져야 한다. (12, 5-9)

제43장 - 질병, 치유, 그리고 갱신

질병의 기원과 의미

1. 사람이 기도와 선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는 도덕적 힘과 영성을 잃고 유혹에 노출되며, 그 연약함 속에서 죄를 용납하게 되고, 이 죄들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2. 그러나 나는 의사가 되어 병자의 곁으로 가서 그에게 나의 모든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었다. 나의 빛은 열로 달아오른 입술에 신선한 물과 같았고, 그가 이마에 나의 연고를 느끼자 나에게 말하였다. “주님,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 영혼은 매우 병들었고, 죽음이 곧 저에게 닥칠 것입니다.”

3. 그러나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이신 내가 왔으니,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네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0, 39)

4.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병자가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가 인내와 순명으로 무장할 줄 알고, 하느님의 뜻 앞에 겸손하며, 고통 속에서도 나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의 공덕은 다양하고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모범은 어둠 속에 살고, 절망하며, 시련이 닥치면 악에 굴복하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매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믿음과 겸손, 그리고 희망의 모범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한 줄기 빛에 스쳐 지나간 것을 느낄 것이다.

6. 실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그 모범과 믿음을 통해 전해 준 영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7.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코 실패했다고 선언하지 말며, 고통의 무게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믿음의 타오르는 등불을 눈앞에 두십시오. 이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132, 38-39)

자신의 힘으로 치유하기

8. 너희는 내게 너희를 치유해
달라고 청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아무도 없다.

9. 너희가 자신의 잘못과 죄, 악덕,
그리고 불완전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의 고통을 없애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고통이 너희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원인이다. 보라,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그러니 죄와
싸우고, 죄와 단절하라. 그러면
너희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너희를 돕는 것뿐이다.

10. 너희가 양심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너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신성한 힘을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

11. 너희 자신의 공로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느낄 때, 너희의 만족감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이 나의 치유였고, 당신의
가르침이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8, 54-57)

12. 백성아, 모든 병을 고치는 참된
치유의 연고는 사랑에서
솟아난다.

13. 영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성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체의 병을
고치거나 인간의 사소한 곤란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밀과 영혼의 큰 두려움, 그
혼란과 양심의 가책을 해소할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14. 그 연고는 큰 시련을 풀어주고,
빛을 밝혀주며, 고통을 덜어주고,
옭아매는 사슬을 녹여 버린다.

15. 과학이 포기한 사람은 이
향유와 접촉함으로써 건강과
생명으로 돌아올 것이며, 떠난
영혼은 자신을 부르는 형제의
사랑의 말에 이끌려 돌아올
것이다. (296, 60-63)

16. 고통을 없애라! 내가 창조한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순종과 잘못에서 비롯된다. 고통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만들어낸 삶의 특징이다.

17. 시선을 들어 내 작품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신성한 합창을 들을 수 있도록 내면적으로 준비하고, 이 축제에서 스스로를 배제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면, 어떻게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슬픔과 고통, 병들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18. 나는 너희가 우주적 연주 속에서 조화로운 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음을 깨닫고, 모든 영혼 속에 나의 빛이 있음을 느끼기를 원한다. 언제쯤 너희는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영에 맡기오니, 제 뜻과 제 삶도 그러하오니"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성숙에 이를 것인가?

19. 너희의 감각이 병들고, 너희 영혼이 이기심으로 인해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한, 너희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20. 너희는 질병의 고통이나 질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혼의 타락에 비하면 육체의 질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영혼이 일어설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비 안에서 너희는 언제나 도움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21. 피가 너희의 혈관을 흐르며 온 몸을 생기 있게 하듯이, 하나님의 힘도 생명의 흐름처럼 너희 영혼을 관통한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병들 이유가 없다. 삶은 건강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며, 조화이다. 너희가 병들면 신성한 선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

22. 병든 생각과 마음, 혹은 몸을 가진 너희 인간들아,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전능하신 분의 자녀인 너희 영혼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의 고통을 치유하며, 너희의 약함 속에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라. (134, 57-59)

인간의 갱신

23. 허영심 — 첫 인간에게서 이미 드러났던 약점 — 은 영성화를 통해 극복될 것이다. 이는 영혼과 "육신" 사이에 예로부터 존재해 온 투쟁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아버지의 본질을 갈망하며 영원하고 고귀한 것을 향하는 반면, "육신"은 비록 그것이 영혼에 해가 되더라도 오직 자신을 만족시키고 아첨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4.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 투쟁은 세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결과로 인간 내부에서 생겨나는 힘이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은 그 본성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25. 만일 영혼이 그 힘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 안에서 두 본성을 조화시킨 것이며, 그로써 진보와 승화를 이룰 것이다. 반대로 '육체'의 힘에 지배당한다면, 영혼은 악으로 유혹당하게 될 것이며, 폭풍우 한가운데서 키를 잃은 배와 같을 것이다. (230, 64)

26. 너희 — 불신자들과 의심하는 자들 — 는 정의의 세상을 믿을 수 없으며, 너희의 지구에서 사랑과 덕이 넘치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는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다.

27. 그러나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내 모든 자녀 안에 있는 씨앗을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내 사랑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28. 나는 인간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으며, 그들의 구원, 그들이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승화를 믿는다. 내가 그를 창조했을 때, 나는 그를 지상의 주인으로 정하여 그곳에 사랑과 평화의 터전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의 영혼이 삶의 투쟁 속에서 강해져야만, 공로를 통해 너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완전함의 왕국 빛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리라 정하였기 때문이다. (326, 44-46)

제44장 - 신성한 의미에서의 삶

필요한 균형

1. 각자에게는 영적 사명과 인간적 사명을 통해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영적 행실뿐만 아니라 물질적 행실도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나는 너희의 영이 내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공로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171, 23)

2. 지금까지 인간의 오만함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지식의 부재는 그가 완전해지는 것을 방해해 왔다.

3.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힘과 정신적 힘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삶에서 있어야 할 균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91, 26-27)

4. 제자들아: 비록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영성화는 육체에 속한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을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5. 나의 법칙을 연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법칙과 하나로 통합하는 법을 아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그는 건강하고 강하며, 너그럽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290, 26-27)

선한 기쁨과 해로운 기쁨

6.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의무나 마음과 감각이 주는 건전한 기쁨을 저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몸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7.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양심이 명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이다. 허락된 기쁨을 외면하고 금지된 쾌락에 빠져드는 자는,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에도 왜 자신이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를 찾지도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쾌락에서 쾌락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심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8. 어떤 이들은 굴복하여,
즐거움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한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야만,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33, 44-46)

9. 과학자는 경외심 없는 손으로
과학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내는데, 먼저 내 법이 그에게
말하여 지혜의 나무의 모든
열매는 선하며, 그러므로 그것을
따는 자는 오직 이웃을 위한 선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10. 내가 든 이 예들은, 왜 인류가
그 내면의 낙원의 사랑도 평화도
알지 못하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 낙원은 인간이 법에
대한 순종 덕분에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11. 너희가 그것을 찾도록 돕기
위해, 나는 죄인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너희가 영(靈)을 부여받았으며,
양심을 지니고 있고, 온전한 이성(
)을 갖추어 선과 악을 온전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며, 평화와 지혜, 무한한
사랑, 불멸, 영광, 그리고 영원으로
이끄는 낙원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34, 15-17)

12. 인간은 나의 가르침을 항상
올바르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내 법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좋은 열매를 무시하거나
누리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다. 나는 단지 너희가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지 말며, 더욱이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을
뿐이다. 또한 너희가 영혼과
육체에 유익한 열매처럼 해롭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영혼이나 마음에 허용되고
그들에게 유익한 모든 것은,
그것이 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해 온 것이다.
(332, 4)

13. 인류가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너희는 항상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있었다. 하나는 더 큰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물질주의였으나, 이는 실상
영혼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해롭다. 그러나
너희는 또 다른 극단, 즉 '육체'를
죽이는 것, 이 생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었으며,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4. 나는 이 세상을 너희를 위해
창조하였으니,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갖추어
두었다. 나는 너희에게 인간의
몸을 주었으니, 이를 통해 너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15. 아버지는 너희가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선한 것을 스스로
거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는 육체를 영혼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덧없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358, 7-9)

축복이자 재앙인 부

16. 내가 너희를 세상의 재물
소유자로 삼고자 하는 뜻이라면,
나는 너희가 그것들을 궁핍한
형제자매들—재산이나 후원자가
없는 이들, 약한 자와 병든 자들—
과 나누도록 허락하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너희에게 그들의 영적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다. (96, 27)

17. 나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법을 알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되,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양쪽 모두에 진정한
가치와 위치를 부여하기를
원한다.

18. 무한히 부유한 사람의 영혼이,
그가 소유한 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스스로
해를 입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강력한 사람이, 때때로 물러나
기도할 줄 알고, 기도를 통해 나와
교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를
입을 수 있겠느냐? (294, 38)

19. 내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가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풍요와 쾌락, 그리고 향락을 봅니다.”

20. 내 백성은 이러한 사례들을, 나를 따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는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삶의 일부를 선을 행하는 데 바치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를, 너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부를 다 쏟아부어도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21. 어떤 이들은 세상의 재물과 영적인 재물을 동시에 소유하는 법을 안다. 다른 이들은 영적인 재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얻지 못하며, 또 다른 이들은 신성한 법이 세상의 부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재물에만 관심을 둔다.

22. 재물은 재물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너희는 많은 사람이 소유한 것 중 모든 것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서 받은 것을 보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소유한 모든 것을 훔친 자들도 있다.

23. 사람들이 인생에서 의무를 다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동전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평화이다. (197, 24-27)

24.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내게 세상의 것을 구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가! 무엇보다도 너희 영혼의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여기에는 도둑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 두라. 거기에서는 너희의 재물이 안전할 것이며, 그것은 너희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 쓰일 것이다.

25. 세상의 보물은 거짓된
위대함의 부와 권력, 그리고
직함들이다. 영의 보물은 선한
행실들이다. (181, 68-69)
26. 교만한 자는 자신이 위대하지
않음에도 위대하다고 믿으며,
마음과 영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생의
불필요한 부에 만족하는 자는
비참하다. 그의 소망과 탐욕,
이상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는
얼마나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가!
27. 그러나 사는 법을 아는 이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드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품에서
활력을 얻는 법을 아는 이, 그는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며,
겉보기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소유하는 길에
있다. (217, 19-20)

나눔의 법칙

28. 만일 사람들이 내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나를 품고 있다면, 한때
나를 듣던 무리들에게 내가 했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단지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조차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29.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무언가를 주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신이 가진 것을 혼자서
간직하는 편이 낫다고.
30.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공의 안에는 완전한 균형이
있으니, 너희가 소유한 것을
나누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보라, 보물을 모으고
쌓아두며 아무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게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느냐? 그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품고 있다.
31. 반면,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풀기 위해
헌신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홀로
버림받고 가난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 이들 — 이들은 언제나 믿음의
빛에 이끌려 왔으니, 그 빛은 저
멀리서 '약속의 땅'이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곳에서
나의 사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리라. (128, 46-49)

32.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참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베풀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자신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베풀 수는 없을 것이다.

33.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베풀라는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보라. 원소들, 별들, 존재들, 식물들, 꽃들, 그리고 새들 — 가장 큰 것부터 더 이상 감지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이 베풀 능력과 소명을 지니고 있다. 너희는 신의 은총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많이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외를 두는가?

34. 너희가 어린 형제자매들의 길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사랑, 덕과 능력에서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하는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가! (262, 50-52)

의무와 사명의 이행

35. "제3의 시대"에 내 영적 가르침은 영혼에게 날개를 펼치고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분께 참된 경배를 드릴 자유를 줄 것이다.

36. 그러나 인간으로서도 창조주께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하며, 이 헌사는 지상에서 의무를 다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법을 따르고, 자신의 행동 에서 도덕성과 올바른 판단력을 보이며, 아버지, 자녀, 형제, 친구, 주인,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37. 이런 방식으로 사는 자는 지상에서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상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29, 59-61)

38. 자신의 임무라는 짐을 회피하고, 바른 길을 떠나거나, 자신의 영혼이 나에 대해 맺은 의무를 외면하고 대신 자신의 취향이나 뜻에 따른 의무를 떠맡는 자는, 그의 영혼이 결코 만족하고 평온해질 수 없으므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거짓된 기쁨과 덧없는 만족감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고통과
불안함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쾌락을 찾는 자들이다.

39. 나는 그들이 오늘 나를 떠나고
나를 잊고 심지어 부인할지라도,
세상의 부와 지위, 쾌락과 명예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들을 지상의 위대함이라는
꿈에서 깨울 때, 사람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진리와 영원,
신성한 정의 앞에 서야 할 때
말이다.

40.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직관의
은사를 통해 너희 삶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너희를 위해 마련된
길과 그 길 위에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삶의 주인이 되고자, 어떤 영적
서약에서도 반드시 벗어나고 싶어
한다. (318, 13-15)

41. 너희 영혼이 이 행성으로
보내지기 전에, 그에게 "밭"들이
보여졌고, 평화를 심는 것이 그의
임무이며, 그의 메시지는 영적인
것임을 들었으며, 너희 영혼은
이를 기뻐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

42. 왜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왜 지금 너희
영혼이 그 임무를 맡았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일을 수행하기에
자신이 부적합하거나
무능력하다고 느끼는가? 너희가
정욕이 너희의 길을 가로막게
내버려 두어 영혼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유치한 변명으로 그 우유부단함을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43. 너희가 왔던 그 "계곡"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때
너희의 고통이 매우 클 것임을
나는 안다. (269, 32-34)

44. 각자에게는 인도하거나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할당되어
있으며, 이 임무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혼은
영적 세계에서도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게 된다.

45. 더 큰 영혼들은 더 작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이 작은
영혼들은 또 발전 단계가 더 낮은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당신의 양우리로 인도하십니다.

46. 내가 지금 더 큰 영혼들이 더 작은 영혼들을 인도한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그 영혼들이 태어날 때부터 컸다는 뜻도 아니고, 후자가 형제자매들에 비해 항상 작아야만 한다는 뜻도 아니다. 지금 위대한 이들은, 아직 그 영적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이들, 길을 잃은 이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위쪽으로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47. 오늘날 아직 작은 이들은, (131, 19-21)에 대한 끈질긴 인내 덕분에 내일에는 위대해질 것이다

제45장 - 예정, 삶의 의미와 성취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1. 이제 빛의 시대가 도래하여, 인간은 믿는 것 외에도 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밝히며,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2. 내 가르침의 목적은, 누구도 타당한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그 이유가 신성한 사랑이며, 모든 사람의 운명은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3.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4. 그들의 불확실성과 인식의 부족에 대한 일부 해답은, 내가 시간이 흐르며 너희에게 계시해 온 것들에 대한 내 설명과 그들의 성찰을 통해 얻었다.

5.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믿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책에 간직된 것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지 않는 한 그들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성한 지혜의 책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은 무한하다. (261, 4-6)

6. 운명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자비가 있다. 인간의 운명은 신성한 자비로 가득 차 있다.

7. 너희는 그것을 찾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종종 이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다.

8.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각 영혼을 위해 미리 정해진 운명 안에서 가혹하고 쓰라린 길을 헤쳐 나간다면, 나는 그 길을 누그러뜨리려 하되 결코 그 쓰라림을 더하지 않으리라.

9.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과하지도 않고, 누구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존재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10.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필요로 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필요로 한다.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필요로 하고,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필요로 한다. 무지한 자들은 아는 자들을 필요로 하고, 아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을 필요로 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필요로 하고,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필요로 한다.

11. 너희 각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제자리에 배치되었으며, 있어야 할 사람 곁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가야 할 영역이 정해져 있으며, 그곳에는 함께 살아가야 할 육신을 가진 영혼과 육신을 벗은 영혼들이 있다.

12. 그리하여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길을 따라, 점차 여러분을 고양시키는 사랑을 가르쳐 줄 임무를 가진 모든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통을 안겨줄 것이며, 다른 이들은 여러분의 괴로움을 상쇄해 주기 위해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 즉 여러분이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어떤 형태로든 너희 삶의 길을 교차하는 모든 육신을 가진 영혼과 육신을 벗은 영혼이

너희의 운명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14.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빛의 영혼들을 세상에 보냈는지,
그러나 너희는 내 사랑을
축복하기 위해 잠시 멈추지
않았도다!

15. 내가 너희에게 보낸 수많은
영혼들에게 너희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으니, 그들이 너희
운명의 일부였음을 깨닫지 못한
채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지 못했기에,
너희는 빈손으로 남게 되었고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도다.

16. 인류여, 너희의 운명은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조화는
모든 법칙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니,
그 안에서 너희는 하느님과
그분의 작품들과의 완전한 일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10-16, 22-25)

17. 자신의 소명을 부인하는 자는
“나의 신성의 자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가
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을 믿을 수도 없다.

18. 어떤 이들에게 이 생이
지독히도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이 삶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단지
겉보기에는 길게 느껴질 뿐이며,
모든 피조물의 운명 속에는 오직
나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신비가
있음을 알아두라. (54, 8-9)

19. 지구 위에서의 인간의 삶은
영원 속에서 단 한 순간에
불과하며, 잠시 동안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곧바로
떠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새로운 육체에 숨결을 불어넣는
생명의 한 줄기 숨결에 지나지
않는다. (12, 4)

20. 각자에게는 생의 여정 동안
주어질 것이 정해져 있다. 어떤
이들은 제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낭비하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영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에게 정해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얻거나 누릴 줄
몰랐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57, 31)

21.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며, 누구도 무작위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나를 이해하면, 누구도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모든 운명을 이끌고 지배하는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10, 29)

22.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고 믿고, 자신에게 미치는 그 어떤 높은 영향력에서도 자유롭다고 믿으며, 결국 스스로를 독립적이며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모든 이가 내 뜻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그 시간이 올 것임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다. (79, 40)

23. 너희 이웃을 위해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좋은 보상을 얻으라. 다가올 시기를 대비하라. 내가 떠나기 전에도 너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 모두에게 유혹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고 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선을 행하는 데 바치는 이 짧은 시간들은 너희 뒤를 이을 많은 세대들에게도 그 유익한 효과를 느끼게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오직 나에게만 속한 일이다. 나의 뜻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큰 어려움 없이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24.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내가 말할 때,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시험할 때와, 너희가 고통의 잔을 비우고 나서 나를 비난할 때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재판관이 되어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게 된다.

25.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아라. 동료들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만일 고칠 수 없다면 적어도 관용의 베일을 그들에게 덮어주어라. (64, 43-44)

26. 운명론자가 되지 마라. 너희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길에 정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신하며, 너희가 고통받을 때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기뻐할 때는 그것 또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지 마라. 나는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27. 그러나 이제 잘 들어라. 어떤 경우에는 너희가 즉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너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뿌린 씨를 베어 수확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정의에 대한 많은 잘못된 판단과 많은 불분명한 점들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195, 53)

삶의 학교

28.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아서, 길에서 마주치는 걸림돌이 단지 스승이 그들의 무분별한 질주를 멈추게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놓은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29. 나는 너희가 이제부터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행실과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너희의 말을 신중히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너희 삶에 지혜와 정의를 가져오는 길이다. 또한 너희는 삶이 영혼을 위한 헤아릴 수 없고 끊임없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30. 나의 길에서는 아무도 파멸하지 않으며, 비록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더 높은 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이 힘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167, 55-57)

31. 사람들이 이 가르침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순종을 통해 얻는 이해에 따라 그들의 행복이 좌우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땅에는 그런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오직 나만이 그것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로 너희 영혼의 평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32. 이제 너는, 오 사랑하는 백성아, 네 행복이 네 자신 안에 있음을 안다. 그리하여 네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성 깊은 곳, 즉 그들 생각에는 오직 괴로움과 증오, 원한, 후회와 눈물만 있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아무것도 끌 수 없는 빛, 곧 영의 빛이 존재함을 가르치도록 하라. (178, 6-7)

33. 너희의 영적 과거는 너희의 "육신"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너희 영혼에 새겨 두어, 영혼이 열린 책과 같이 되어 영과 직관을 통해 너희에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정죄하는 대신, 잘못을 만회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나의 정의이다.

34. 만일 과거가 너희 영혼에서 지워진다면, 너희는 이미 지나간 시련들을 다시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경험의 목소리를 듣고 이 빛에 비추어 본다면, 너희는 너희의 길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지평선을 더 환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84, 46)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

35. 인간의 본래 상태는 선함, 영혼의 평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알라. 생애 동안 이러한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는 자는, 그를 하느님을 깨닫게 할 참된 길을 걷는 것이다.

36. 그러나 이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할 법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눈물을 흘리며 영적 고양의 길에서 멀어져 살았던 순간들을 만회해야 할 것이다. 영적 고양은 인간이 항상 머물러야 할 본래의 상태이다. (20, 20)

37.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살고 있는 죄와 고통의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구는 눈물의 골짜기가 되도록 정해져 있고, 결코 평화와 화합, 영적 진보를 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38.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잠에 빠져 있다. 이 세상이 나에 의해 눈물의 골짜기와 속죄의 장소로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착각하고 있다. 내가 인간에게 선사했던 에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은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39.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고통의 장소로 정해졌다고 주장하는 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본래 육신을 입은 영혼들의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창조된
세상을, 자신들이 심판의
사명으로 정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40. 비록 인간의 타락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누구도 죄를
짓도록 예정된 자는 없었다.
41. 인간은 사랑을 통해 위로
성장하려 하지 않았고, 내 율법을
지키며 지혜로워지려 하지도
않았으며, 항상 피하려 했던 나의
정의가 완벽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었다. (169, 10-13)
42. 너희가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의
길을 걷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너희가 그 길에서
길을 잃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들은 너희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훈을 얻고, 너희에게 부족했던
경험을 쌓으며, 마침내 빛으로
가득 차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43. 너희의 영이 나에게서 나왔을
때,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꽃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불꽃과
같았으니, 이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너희의 빛이 신성의
빛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44. 나는 새로운 산의 정상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도착하는 날 이 왕국에는
축제가 있을 것이다.
45. 너희는 고통의 길을 걸어
그곳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너희의 잘못을 씻어낸다. 이는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다. 너희는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도 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희생과
고통의 길은 나의 피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었다. (180, 64-65)
46.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왕국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육체나 인간의 외피는
단지 그 감각을 통해 자신의 영이
이 시련과 속죄의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마침내 이 삶이 단지 놀라운 형상과 이미지로 묘사된 위대한 교훈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자들, 즉 모든 사람이 삶이 주는 교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면 영혼의 성장을 이루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투쟁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임을 — 그들을 다듬어 주는 고통, 고귀하게 만드는 고난, 깨우쳐 주는 지식, 그리고 고양시켜 주는 사랑을.

47. 만일 이 현세가 유일한 존재라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고통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오직 고통의 잔을 마시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고통받고 우는 자들은 과거에 방탕하게 향락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들을 정화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님의 거처에서 더 순수한 형태로 기쁨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할 것이다. (194, 34-35)

48. 인간의 삶이 안고 있는 시련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짐을 더 사랑스럽고 가볍게 만들어 주는 온갖 영적·육체적 기쁨으로 그 삶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49. 나는 가정의 온기 속에서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섬기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치와 조화, 그리고 평화는 우주 아버지와 그분의 영적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같기 때문이다.

50. 이러한 가정에는 영혼의 빛이 비추고, 내 왕국의 평화가 깃들어 있으며, 고통이 닥쳐도 견디기 더 수월하고 시련의 순간들도 덜 쓰라립니다.

51. 그 안에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데서 만족을 찾고, 이웃의 건전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들은 더욱 공로가 크다. 이들은 기쁨의 사도들이며,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52.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만족과 기쁨의

순간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매일 그런 순간들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너희의 감정과 삶에 대한 사고방식을 더 너그러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53.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는 빛으로 가득 차 있어, 너희의 길을 비추고 너희 존재에게 상향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는 너희가 평화롭게 살며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한 모든 것을 건전하게 누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54. 이 인류는 고통의 그림자와 싸우고, 잘못된 쾌락과 허망한 만족에 대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종교적 광신주의와 싸워야 할 것이며, 그들은 모든 것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파멸로 치닫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운명론과 싸워야 할 것이며, 영혼을 악덕과 고통, 절망과 어둠의 심연으로 내몰고 마는 감각적 쾌락, 즉 덧없는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주의와도 싸워야 할 것이다.

55. 내가 너희에게 내 빛을 주는 것은, 너희가 어둠을 벗어나 너희가 눈물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린 이 행성에서 마침내 영혼과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기쁨 곁에 비하면 다른 모든 즐거움은 하찮고 미미할 뿐이다. (303, 28-33)

X 물질주의와 영성주의

제46장 - 길을 잃은 물질주의적 인간

인간의 정신적 나태, 무지, 그리고 오만

1. 이 세상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다. 나는 인간의 기쁨을 위해 나머지 존재들과 자연의 힘을 더하여,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활력을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2. 만일 그가 영적 유년기인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고

인식했더라면, 오늘날 그는
무지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지식과 감정의 고양에 있어
모두가 평등한 위대한 영들의
세계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3. 그러나 인간의 발전은 얼마나
더딘가! 그가 지상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영적 사명과 진정한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에 죽지 않는
자신의 영적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영혼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깨닫지 못했고,
그 영혼의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그
영혼의 은사를 개발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15, 24)

4. 인간은 — 내 율법을 지키는
데서 등을 돌리면서 — 인류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영혼을 물질에 묶어 자유롭게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상, 이론, 종교 및 교리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내 성령의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며, 양심이라는 단 한
명의 인도자만이 있는 참된 삶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46, 44)

5. 유물론자는 오직 인간적인
삶만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안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기에,
그는 그 삶을 강렬하게 살아가려
애쓴다.

6. 그러다가 그의 계획이나
소망이 실현되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 고통이 닥치면, 그는
절망하고 신성모독을 일삼는다.
그는 운명에 도전하며,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7. 그들은 굽히지 않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영혼들이며,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하찮은
일들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

8. 물질화된 자들은 얼마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가!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흘러가기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258, 48-50)

9. 이제 너희는 내가 항상 지혜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낸 것이,
제한된 지성 능력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감이 없는 제한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발전을 통해 명료하고 개방적인 지성을 갖추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원시 시대와 다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11. 다른 이들은 과학 분야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으나, 지식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자만과 이기심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진보의 길에서 멈춰 서 있다. (180, 32-33)

12. 인간이 자신 위에 존재하고 진동하는 더 높은 삶에 대해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영혼에게 묻는 법을 안다면 —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심연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의심과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물질적 자연을 파헤쳤으나, 그들 안의 영혼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 영적 삶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에게 말이다.

13.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를 찾고, 자신의 투쟁을 돕기 위해 맡겨진 모든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깨어나야 한다.

14. 오늘날 인간은 마치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의 장난감이 된 작고 마른 잎사귀와 같아서, 수천 가지의 변덕에 휘둘리며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약하고, 죽음 앞에서는 연약하고 비참하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보낸 군주로서 지상의 주인이 되어야 할 존재이다. (278, 4-6)

15. 심판의 때가 왔으니, 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묻고, 다른 이들에게는 '왜 나를 박해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자가 내 왕국의 존재를 부인할 권리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으며 너희의 오만함이 매우 크다고.

1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를 부인한 것이다. 자기 안에서 힘을 얻으려 하고, 스스로를 독립적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오만한 감정을 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 멀리 가지 못할 것이며, 곧 길을 잃게 될 것이며, 그의 고통은 매우 쓰라릴 것이다.

17.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18. 지식이란 내 현존을 느끼는 것이다. 지식이란 내 빛에 이끌려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지식은 법을 이해하는 것이며, 지식은 사랑하는 것이다. (282,19-22)

19. 오늘날 너희의 영적 무지는 너무나 커서, 저 세상으로 떠난 이들을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 죽어서 모든 것을 뒤로 남기고 영원히 떠나버렸구나”라고 말하곤 한다.

20. 너희가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연민을 품고 너희를 바라보는지 알기만 한다면. 너희의 무지를 마주하며 그들이 너희에게 느끼는 것은 바로 연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을 볼 수만 있다면, 비록 단 한 순간일지라도, 진실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압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272, 46-47)

21. 너희는 물질적 가치에 그것이 가진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왔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너무나 커져서, 심지어 영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부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러한 지식이 지상에서의 너희 진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진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 빛은 인간에게 현재 과학으로는 아직

알지 못하는, 무한한 지식의 보물창고( )를 드러내 보여준다.
23. 인간이 영성화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거부하는 한,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그의 사랑과 고양, 그리고 지식으로 인해 내 영의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이 가져다줄 최고의 행복인 참된 영광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331, 27-29)

포기와 노력, 책임에 대한 의지 부족

24. 만일 인류가 그 무지를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지상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계명에 저항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협력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나의 법을 회피할 방법을 찾는다.
25.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들이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나에게 반항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26. 내가 사람들에게 내 축복을 풍성히 쏟아 부으면, 그들은 이기적이 되고; 내가 그들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면, 그들은 방탕해지며; 내가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힘을 시험하면, 그들은 불평하며;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 고통의 잔이 그들의 입술에 닿게 허락하면, 그들은 삶을 저주하며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내가 그들의 어깨에 대가족의 짐을 지우면, 그들은 절망하고, 내가 그들의 가족 중 한 명을 이 땅에서 데려가면, 그들은 나를 불공평하다고 고발한다.
27. 너희는 결코 순종하지 않으며, 너희가 시련 속에서 내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을 나는 결코 듣지 못하며, 너희가 내 창조 사업에 동참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지 못한다. (117, 55-57)
28. 나는 인간에게 위대함을 두었으나, 그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런 위대함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위대함은 희생, 사랑, 겸손, 자비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미덕을 피하며, 그로 인해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로서

그에게 부여하신 참된 위대함과
존엄성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29. 너희는 겸손을 비참함으로
여기기에 그것을 피한다. 너희는
시련을 피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고난이 너희 영혼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비참함이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영적인 것을 피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지식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로 인해 어떤 인간
과학보다도 더 높은 빛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3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니, 나를 사랑한다고
단언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많고, 나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다고. 그들은 내게
나를 따르겠다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십자가 없이 나를
따르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껴안는
사람은 누구나 산 정상에
도달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다.
(80, 37-39)
31.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비참함을 없애기보다는,
그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취하려고만 한다.
32.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더
순수한 감정과 영에 더 합당한
열망을 심어줄 이상을 갈망하며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그들의
궁핍과 세속적인 쾌락, 그리고
물질주의적 과학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3.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은 부와
쾌락을 누리는 데 사용했고,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다.
34. 인간은 위쪽으로 발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보다는, 무지한 오만함
속에서 더 낮은 차원의 존재
수준으로 추락한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신성과 영적 삶으로부터

그에게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러한 경고들에 대해 “생각을 낭비”하지 않기를 선호한다.

35.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적·육체적 상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가 이런 식으로 살고 생각하는 한, 그가 티끌과 비참함 그 자체일 수밖에 있겠는가? (207, 18)

36. 모든 시대에 걸쳐 율법을 해설해 온 나의 가르침은 빛으로 가는 길로서, 영을 위한 확실한 통로로서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행사하고 삶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언제나 물질화의 쉬운 길을 선택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언제나 영적인 쪽으로 이끄는 양심의 외침을 완전히 외면해 버렸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길 위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믿기 위해 숭배와 의식을 만들어 냈으나, 실상은 내 이름과 내 말씀을 삶에서 배제해 버린 자들만큼이나 이기적이었다. (213, 51)

37. 그 길은 이미 닦여 있으며, 내게 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문은 열려 있다.

38. 그 길은 좁으니, 이는 너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바이다. 내 법과 가르침이 지극히 순수하고 확고하여, 누구도 자신의 편의나 뜻대로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다.

39. 넓은 길과 활짝 열린 문은 너희 영혼을 빛과 평화, 그리고 불멸로 이끄는 길과는 정반대이다. 넓은 길은 방종과 불순종, 교만과 물질주의의 길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책임과 양심의 내적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따라가는 길이다.

40. 이 길은 진실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으므로 영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길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처럼 한계가 있기에, 인간은 언젠가 그 끝에 도달하여 멈춰 서서, 길의 끝을 이루는 심연에 공포에 질려 몸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참된 길에서 멀어진

자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닥칠 것이다.

41.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가 솟아나, 스스로를 구원할 충분한 빛을 찾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불공평하고 비논리적이라고 여길 그 끝을 마주하며 당혹감이 닥칠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항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빛으로의 귀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333, 64-68)

인간의 영적 비참함

42. 나는 내가 창조한 것에 있어 실수하지 않았으나, 인간은 정해진 길과 삶을 벗어나 버렸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탕진한 '탕자'처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43. 그는 자신의 과학으로 새로운 세상, 즉 거짓된 왕국을 창조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고, 왕좌를 세우며, 홀과 왕관을 두르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가! 나의 정의가 내뿜는 미약한 숨결 하나만으로도 그의 기초는 흔들리고, 그의 온 왕국은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그가 얻지 못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왕국은 인간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44. 사람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안겨주는 즐거움과 만족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 미소의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과 불안, 그리고 실망이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

45. 인간의 삶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으며, 영혼의 삶과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에 관해서는,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과 요소들이 존재하며, 인간이 시련과 유혹을 견디고 완전함을 향한 상승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과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곡되어 버렸다.

46. 무한한 곳에서 각 영혼에게 닿는 빛은 태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영혼이 저 세상에서 받는 힘은 땅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 영혼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사랑과 진리, 그리고 건강의 근원은 너희 바다나 샘물의 물이 아니다;

너희를 둘러싼 대기는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이 만물의 창조주, 즉 생명을
창조하시고 완전하며 변함없는
법칙으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부터 직접 받는 발현이자
숨결이며 영감이다.

47. 사람이 진리의 길로
돌아가려는 약간의 선의를
기울인다면, 그는 즉시 평화의
어루만짐을 자극으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물질의
영향 아래에서 물질화될 때마다,
그것은 물질의 덫에 빠지게 되며,
이 생명의 주인이자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 되는 대신,
인간의 약점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폭풍 속에서 난파를 당하게
된다.

48. 나는 이미 너희에게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온다고 말했으니,
마치 옷보다 몸이 먼저인 것과
같다. 너희가 가진 육체는 영혼을
위한 일시적인 옷일 뿐이다. (80,
49-53)

49. 아, 만일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떠오르는 빛을 바라보려
한다면 —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희망이 깃들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잠들어 있다. 그들은 매일
왕 같은 천체가 그들에게 보내는
빛, 즉 창조주에게서 발산되는
빛의 형상인 그 빛을 받아들이는
법조차 모른다.

50. 그 빛은 너희를 어루만지며
매일의 생존 투쟁으로 깨우지만,
창조의 아름다움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잠시라도 멈춰 서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
영광이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가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니,
그들은 언제나 근심에 가득 차
깨어나며,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51. 그들은 자연의 원천에서
육체의 힘을 찾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서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엇을 위해
그러는지 모른 채 애쓰고, 명확한
목표도 없이 무작정 나아간다.
바로 이러한 무감각하고 무의미한
생존 투쟁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물질화시키고 이기적으로
만들었다.

52. 그리하여 생명의 빛인 영의
법칙이 잊혀지면, 사람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며, 멈춰 서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죽이며, 서로의
양식을 빼앗는다. 53. 그러나
누군가 그들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인간 삶에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으며, 과학이 이토록 많은
비밀을 밝혀준 적은 없었다고
즉시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얼굴에 행복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말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영적 고통과 비참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104, 33-34)

54. 나는 영혼을 지상으로 보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노예나 희생양, 혹은
고통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정욕, 악덕, 그리고 무지의
노예이다.

55. 그는 영적 고양의 부족으로
인해 지상에서의 여정에서 겪는
고통, 실수, 그리고 운명의 타격의
희생양이다. 그는 삶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유산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궁핍하다.

56. 이 인류는 먼저 깨어나야만
영적 삶의 책에서 공부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면 곧 이 사상
세계를 대대로 전수함으로써 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받은
씨앗이 나타날 것이다.

57. 나는 너희에게 이 인류가
언젠가 영성화에 도달하여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영혼과
이성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305, 9-11)

잘못된 세속적 행동과 그 결과

58. 전쟁에 휘말려 세상의 보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들을 가치 없는
것들을 두고 다투는 어린아이들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금의 권력이나 약간의
금을 두고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지닌

미덕에 비하면 이러한 소유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9.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를 심어 민족들을 갈라놓는 사람은, 만물을 아우르는 형제애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동료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60. 모든 사람은 지상의 왕좌를 꿈꾸지만, 인류는 태초부터 이 세상에서 왕좌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경험해 왔다.

61. 나는 너희에게 내 왕국에서의 자리를 약속했으나, 그것을 차지한 이는 극히 적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늘 왕국의 왕의 가장 보잘것없는 신하라도 지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62.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칠 큰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이 어린 시절을 벗어나 곧 성숙에 이르러, 그때 — 경험의 열매를 맺고 — 외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옳으셨다. 그분께로 가자." (111, 3-7)

63.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멸을 갈망하며 물질적인 업적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명성—비록 일시적일지라도—이 눈부시게 보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 생명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영의 영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믿음의 부족과 영성화의 결여가 사람들의 눈앞에 회의의 장막을 드리운 것이다. (128, 45)

64. 인간의 발전, 진보, 과학, 문명은 결코 인간에게 있어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인 영적 영혼의 승화를 목표로 한 적이 없다. 인간의 추구, 야망, 소망, 그리고 염려는 언제나 이 세상을 목표로 삼아 왔다. 여기서 그는 지식을 구했고, 여기서 보물을 쌓아 올렸으며, 여기서 쾌락과 명예, 보상, 권력, 그리고 영예를 얻으려 했고, 여기서 자신의 영광을 찾고자 했다.

6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연은 끊임없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 정교함과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멈추지 않는 반면,
인간은 뒤처져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그가 겪는 운명의 타격들,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장애물, 그리고 고통들이 생겨난
것이다. (277, 42)

66. 나는 너희가 갈망을 품고,
열망하며, 위대하고 강하며
지혜로워지기를 꿈꾸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영적
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67. 왜냐하면 그 선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 겸손, 용서, 인내,
너그러움, 한마디로 말해 사랑과
같은 모든 미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미덕은
영혼을 고양시키고, 정화하며,
완성시킨다.

68. 이 비참한 세상, 이 덧없는
거처에서 인간은 — 위대하고,
강력하고, 부유하거나 학식 있는
자가 되기 위해 —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복수심에 차고,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비인간적이며, 오만해야만
했으며, 이 모든 것이 그를 진리,
사랑, 평화, 참된 지혜, 그리고
정의와 극명한 대립 관계로
몰아넣어야만 했다. (288, 32)

69. 사람이 영적으로 자신을
발견하면, 그는 자기 안에서
아버지의 현존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 그는 나를 멀리
있고, 낯설고,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느끼거나, 무감각한 채로 남게
된다.

70. 오직 깨어난 영혼만이 진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지식만으로는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71. 나는 사람들이 지식, 명성, 힘,
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보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그들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겉모습과 교활함
속에서가 아니라, 진리의 참되고
본질적인 속성 안에서, 즉 영적인
진리 안에서, 덧없고 기만적인
것들 속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한다.

72. 사람이 물질에 매몰되어 너희와 같은 세상의 좁은 공간에 갇히면, 그는 가난해지고, 자신의 영혼을 제한하고 억압하게 되며, 그가 소유한 것이나 아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는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며, 자신의 오류를 깨달은 후 다시 영원한 것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 (139, 40-43)

제47장 - 물질주의와 영성주의

지배적인 물질주의의 영향

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영성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내 가르침을 피할 것이나, 그들 안에서 말하는 것은 이성도 영도 아니요, 오직 "육체"의 저급한 정욕일 뿐이다.

2.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은 마치 오염된 환경을 벗어나듯 물질주의를 피한다. 고귀한 영혼은 평화가 지배하고 사랑이 머무는 곳, 곧 도덕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99, 41-42)

3.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여 그 순수함과 진실을 확신하게 되라.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용기 있게 너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혼을 위협하는 물질주의적 사상의 침투에 맞서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물질주의는 죽음이며, 어둠이며, 영혼에 대한 멍에이자 독이기 때문이다. 결코 너희 영혼의 빛이나 자유를 세상의 양식이나 하찮은 물질적 재물과 바꾸지 말라!

4.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율법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는 결코 물질적인 생계 수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내 영과 하나 되는 순간마다 내 무한한 자비로 인해 그는 언제나 영생의 양식을 받게 될 것이다. (34, 61-62)

5. 물질주의는 영혼의 발전에 있어 엄청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인류는 이 벽 앞에서 멈춰 서 있다.

6. 너희는 인간이 물질 관련 과학에 적용하여 지성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영적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물질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인식은 뒤처져 있다. (271, 37-38)

7. 너희 세계가 겪고 있는 시련들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이며, 물질주의 시대의 몰락이자 죽음의 몸부림이다. 왜냐하면 물질주의는 너희의 과학, 너희의 목표, 그리고 너희의 열정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질주의는 나에 대한 너희의 숭배와 너희의 모든 행적을 좌우해 왔다.

8. 세상에 대한 사랑, 세속적인 것에 대한 탐욕, 육체의 욕망, 모든 저급한 욕망에 대한 쾌락, 이기심, 자만심, 그리고 오만함은 너희가 너희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삶을 창조해 온 원동력이었으며, 나는 너희의 경험이 완전해지도록 그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하였다.

9. 그러나 이제 막 끝나가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 속에서 물질주의로 특징지어질지라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로운 시대는 영성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양심과 영의 의지가 지상에서 사랑으로 너그러운 존재들의 세계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녀들의 영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니, 그때는 오늘날 너희 존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이 무한을 활동의 장으로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5, 41-42)

영성주의의 본질

10. 영성주의는 종교들의 혼합이 아니다. 그것은 그 단순함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가르침이며, 이 "제3의 시대"에 인간의 영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이다. (273, 50)

11. 영성주의는 영의 삶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며,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연락하도록 가르치고, 너희를 물질적 삶 위로 끌어올리는 계시를 내가 지칭한 것이다.

1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직 이 시대에만 속한 것도 아니라, 인류의 영적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점차 더 많이 드러나 온 계시이다.

13.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영성주의로서, 너희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르치고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로 초대하는 것이니, 영성주의는 또한 '첫 번째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었고, '두 번째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친 것이기도 했다. (289, 20-22)

14. 영성주의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지침으로 세상에 전파했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 이해와 용서에 관한 나의 가르침이다.

15.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의 영적, 육체적, 지적 발달에 따라 단지 더 명확하게 너희에게 말했을 뿐이다. (359, 60-61)

16. 영성주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영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관습과 전통을 파괴한다. 영성주의는 영혼이 그 한 능력과 특성을 통해 정화되고 완성되어 마침내 창조주께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고양되는 과정이다. 영성주의는 영혼이 주님을 표현하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여준다. 영성주의는 영혼을 해방시키고 꽃피우게 한다.

17. 영적인 것은 만물에 존재하며 모든 이의 것이 되는 보편적인 힘이자 보편적인 빛이다. 누구에게도 나의 가르침이 낯설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18. 영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니, 이는 내 신성의 미덕이자 영원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함의 정도는 더 크거나 작아질 것임을 깨달아라. (214, 57-59)

누가 정당하게 영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

19. 끈기와 발전,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일정한 영적 경지에 이른 자는, 비록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영성주의자가 될 것이다.

20.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너그러움을 보이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지닌 것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236, 27-28)

21. 영성가는 전능자가 모든 것에 계시며, 세상과 우주, 그리고 무한함이 나의 본질과 나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안다.

22.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더 이상 상징이나 형상으로 영의 계시를 물질화하지 않을 것이다. (213, 31-32)

23. 영성주의는 너희가 소유하고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는 계시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단지 물질만이 아니며, 너희의 "육체" 위에 너희를 둘러싼 자연의 차원과 너희 정욕의 더러움 위로 끌어올리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24. 사람이 영성을 얻게 되면, 모든 계명과 교리가 그 영혼의 빛의 일부가 될 것이다. 비록 그의 기억이 나의 가르침 중 한 문장이나 단 한 마디도 간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이해했고, 느끼며,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자신 안에 지니게 될 것이다. (240, 17-18)

25. 진정한 영성인은 물질적 재물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주인처럼,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일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할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혼의 풍요로움에 비하면 세상의 보물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6. 또한 물질적 재산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지상에서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으로 삼는 자 또한 훌륭한 영성인이 될 것이다.

27. 나를 따르는 자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난하거나, 천대받거나, 비참할 필요는 없으니, 마찬가지로 내 사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통을 겪는 자들 중 하나가 될 필요도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뜻에 따라 너희는 언제나 강하고 건강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 창조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28. 언제쯤 너희는 너희 유산의 주인임을 깨닫고, 모든 은총을 소중히 여기며, 삶 속에서 모든 것의 제자리를 찾아줄 수 있게 될 것인가? (87, 28-30)

종교와 교파 속의 영성주의

29. 오늘날 사람들은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온 삶과 모든 노력이 그들의 영을 꽃피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영의 목표는 창조주의 영과 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30.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봉하는 숭배는 물질주의이다.

31. 신앙 교리와 종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고집하는 한, 세상은 계속해서 증오를 키울 것이며 참된 신 숭배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32.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나 비밀, 그리고 영생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 다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언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단합하여 서로를 향한 사랑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겠는가?

33. 그러므로 모든 교파, 모든 인간적 이념, 모든 종파 위에 있는 영성주의의 가르침이 지닌 진정한 목적을 깨달으라. (297, 38-41)

34. 영성주의는 과거 시대의 신앙 교리를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의 계시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기초이며, 나는 이 분열의 시대에 인류가 그 기원을 잊지 않도록 이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35. 인간의 행위와 관습, 그리고 다양한 종교 안에서 스스로를 아첨하고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들은,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사역과 상반된다. (363, 9)

36. 이 시대에 나는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 너희를 구원하고 고양시키는 사랑의 가르침, 비록 쓰라리더라도 너희 길에 빛이 되어 줄 진리들이다.

37. 이 시대의 영성주의는 과거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분노와 잔혹함, 격노로 맞서 싸우고 박해받을 것이나 ; 그러나 그 투쟁 한가운데서 영적인 것이 드러나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38. 물질주의, 이기심, 오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은 이 계시에 맞서 일어날 세력들이 될 것이니, 이 계시는 새로운 것도 아니며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전했던 것과 다른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계시한 이 가르침, 너희가 영성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에 너희에게 계시된 법과 가르침의 핵심이다.

39. 인류가 이 가르침의 진리와 그 정의,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무한한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편견을 몰아내고 이를 삶의 지침으로 삼게 될 것이다. (24, 48-51)

4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계 곳곳에 영성주의자들이 흩어져 있으니, 그들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성숙한 사람들이다.

41.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지구의 영성가들 간의 연합은 새로운 교회를 조직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일치는 사상적, 이념적, 그리고 그들의 활동 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힘은 무적일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 영 안에 있는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그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42.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나의 진리를 불어넣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과 이성에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리라. 이는 그것들이 나의 빛과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3. 너희 모두는 영적 능력을 통해 영성주의 교리가 설명되고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며, 인간의 철학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299, 30-32)

4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주의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빛나는 글자로 기록될 것이다.

45.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멍에에서 해방됨으로써 불멸의 명성을 얻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행진 속에서 사랑을 통해 불멸의 명성을 얻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영성주의자들도 영의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8, 64-65)

제48장 - 영적 은사와 영성화

인간의 영적 능력

1. 이 의심 많고 불신하며 물질주의적인 인류가 신성한 계시나 그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것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즉시 초자연적인 일이 없으며 그런 기적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이유나 증거를 찾으려 한다.

2. 비범한 영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조롱과 의심, 혹은 무관심으로 대한다. 그리고 자연이 나의 신성을 대변하는 도구로서 인류에게 정의의 목소리와 경고를 전할 때, 사람들은 이를 모두 우연의 결과로 치부한다. 그러나 인류는 이 시대만큼 신성하고 영적이며 영원한 모든 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귀머거리이며, 눈먼 적이 결코 없었다.

3.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지만,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비록 내가 인간으로서 행한 모든 일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고방식,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그들은 내 가르침의 본질을 알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4.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삶을 가르쳤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 주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5. 나는 약 한 알 없이 병자들을 고쳤고, 영들과 대화했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외부의 초자연적 영향에서 해방시켰으며, 자연과 교감했고, 인간으로서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서 다시 인간으로 변모하였으니,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언제나 너희에게 영혼을 발전시키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14, 1-4)

6. 너희는 너희 안에 진정한 보물, 즉 너희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능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으나, 무지함으로 인해 궁핍한 자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너희는 기도의 힘과 생각의 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영과 영 사이의

대화에 담긴 깊은 의미를 너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지, 이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인류여! (292, 14)

7. 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성화를 기대한다. 내게 있어 각 교회나 종파를 구별하는 이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들의 의식과 외형적인 예배 형식의 화려함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인간의 감각에만 닿을 뿐, 나의 영에는 닿지 않는다.

8. 나는 사람들에게 영성화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고양, 완성에 대한 이상, 선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귀의, 사랑의 실천,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타인과의 조화이자 따라서 하나님과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326, 21-22)

9. 영성화는 위선적인 경건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고, 또한 외적인 숭배의 형태도 아니다. 영성화는 인간의 모든 능력, 즉 인간의 육체적 부분에 속하는 능력과 육체적 감각을 초월하여 영혼의 힘, 특성, 능력, 감각에 속하는 능력 모두를 꽃피우는 것을 의미한다.

10. 영성화는 인간이 지닌 모든 은사를 올바르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영성화는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326, 63-66)

11. 그 당시 나는 너희에게 자비라는 가장 큰 미덕을 가르쳤고, 너희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 감정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너희의 영적 영혼이 지닌 은사들을 너희에게 드러내어, 너희가 이를 발전시키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다.

12. 영적 삶에 대한 지식은 너희가 너희 스승이 행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희가 능력을 개발하면 진정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85, 20-21)

13. 너희 모두는 영혼들이 이룬 발전을 통해 이 "제3의 시대"에 피어오르기 시작한 영의 은사를 지니고 있다. 직관, 영적 안목, 계시, 예언, 영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예고이자, 이 시대에 여섯 번째 장이 펼쳐진 '일곱 봉인'의 책에서 비추는 빛이다.

14. 그러나 이러한 현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너희는, 너희의 영적 은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라. 언제나 사랑 어린 도움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법에 부합하게 될 것이며, 동료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며, 그로 인정받을 것이다. (95, 18)

15. 언젠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며, 마음속에 겸손이 깃들고,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육신"도, 세상도, 정욕도 더 이상 너희가 앞뒤의 길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짙은 장막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영화된 "육체"는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과 같을 것이며, 오늘날 그것이 그러하듯 영의 눈앞에 놓인 장애물, 함정, 눈가리개가 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122, 32)

16. 영적 통찰, 예지력, 예언인 직관은 이성을 밝히며, 마음이 무한한 곳에서 받는 메시지와 목소리에 더 크게 뛰게 한다. (136, 46)

17.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 직관의 은총을 통해, 너희는 마음의 비밀 속에 감춰진 많은 것들—동료들의 지상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비극들—을 발견할 수 있다.

18.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 어떻게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그들의 비밀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동료들의 삶을 어둡게 가리는 그 숨겨진 고통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노라 : 영적 통찰력의 일부이며 기도를 통해 너희 안에서 온전히 꽃피워져야 할 그 능력인 직관은, 너희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312, 73-74)

19. 인간에게 아직 얼마나 많은 비밀이 남아 있는가. 인간은 이미 눈에 보이고 느껴져야 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존재들에 둘러싸여 있다.

20. 아름다움과 계시로 가득 찬 삶이 인간의 존재 위에 맥동하고 있으나, 눈먼 인간들은 아직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 (164, 56-57)

21. 나의 가르침으로 준비된 사람은 초인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영혼과 몸에서 빛이 흘러나올 것이며, 그 힘과 능력은 지성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실현하게 해 줄 것이다. (252, 4-5)

22. 지금은 나의 제자들 안에서 신성한 빛이 온전히 비추게 될 때이며,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고, 선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 세상의 재물이나 세속적인 학문이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희망이 없는 병자들을 회복시키며, 물을 향유로 바꾸고,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다. 그들의 기도는 폭풍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힘을 진정시키며, 전염병과 악한 영향력을 물리칠 힘을 가질 것이다.

23. 귀신 들린 자들은 내 새로운 제자들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권능을 통해 귀신 들림과 박해자, 억압자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160, 28-29)

24. 영성화는 감정의 고상화, 삶의 순결, 믿음, 이웃 사랑, 이웃 돕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받은 은사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한다. 너희가 이러한 미덕 중 일부라도 이룰 수 있다면, 너희는 영적인 시선으로 사랑과 완전함의 고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영성을 얻게 되면, 비록 기도하는 순간뿐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땅에서 너희가 영적 고향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너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밝혀주는 빛을 받게 될 것이니, 상승하는 영혼에게 다가올 일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25. 그렇다, 제자들아, 오직 인간 삶 속에서만 사람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26. 인간은 자신의 존재 기간 동안 겪어야 할 모든 시련에 대한 지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그 신비의 장막을 드리워,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일과 견뎌내야 할 고통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의 이성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

27. 반면, 힘을 부여받고 영원을 위해 창조된 존재인 영혼은 그 안에 미래를 아는 능력, 즉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는 은사와,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시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 길이 법에 대한 순종으로 걸어졌을 때, 그 끝에서 약속의 땅, 즉 영혼의 낙원에 도달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곳은 영혼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고양과 순결, 그리고 완전함의 상태이다.

28. 너희는 스승의 영적 경지에 이르지 못하므로, 너희의 운명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 내면의 고양 덕분에, 나는 어떤 사건이 임박했음을 너희가 예감하게 할 것이다.

29. 이러한 예감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시선, 그리고 너희의 운명에 대한 지식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너희 존재가 점차 영성화의 길을 따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진실함이며, 삶에 대한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며, 주님에 대한 겸손과 사랑이다. (160, 6-9, 13-14)

30.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래야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의 신성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서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여 전자의 행위는 확증하고 후자의 행위는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다.

31. 이는 모든 세력이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이다. 선이 악과, 빛이 어둠과, 지식이 무지와, 평화가 전쟁과 싸우는 것을 보라. (256, 66)

진정한 영성의 전제 조건과 특징

32. 모든 사람 안에는 유다가 깃들어 있음을 알라. 그렇다, 제자들아, 너희의 경우 육신이 영혼의 유다이기 때문이다. 육신은 영성화의 빛이 비추는 것을 거부하며, 영혼을 매복하여 물질주의와 저급한 정욕 속으로 빠뜨리려 한다.

33. 그러나 너희의 육신이 너희를 심연의 가장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아니, 너희는 진보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며, 내가 내 사랑으로 유다를 이겨냈듯이, 너희도 영성화를 통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150, 67-68)

34. 내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내용을 설명하러 떠나기 전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해야 한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을 살며, 사랑의 행실과 빛으로 너희의 길을 수놓아야 한다. 만약 너희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미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영성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본성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 대한 명확한 인상을 얻을 수 있고, 너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

35.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포기, 노력, 그리고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더 높은 존재에 대한 갈망이 깨어났을 때, 너희 존재 안에서 사랑이 빛나기 시작했을 때, 혹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을 때, 희생이나 포기 대신에 너희에게 있어서는, 너희 안에 있는 쓸모없고 해롭거나 나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269, 46-47)

36. 비록 겉으로 보이는 운명은 각기 다르더라도, 너희는 내 앞에서 모두 동등하며, 모두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37.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이는 너희 모두가 — 비록 방식은 다르더라도 —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공덕을 쌓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코 누구도 열등하다고 여기지 말라.

38. 영성주의자에게는 결코 허영심이 뿌리내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진정한 겸손이 항상 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면 그의 행위는 거짓된 빛으로 눈부시게 하는 대신, 동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22, 32-34)

39. 영성주의의 훌륭한 씨 뿌리는 자들은 결코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복장도, 휘장도, 혹은 어떤 특이한 말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단순함과 겸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언가로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웃 사랑과 영성일 것이다.

40. 영성주의의 참된 설교자들은 그들의 웅변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지혜와 소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위의 진실성과 삶의 선함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194, 24-25)

41. 영성화는 명료함이며, 단순함이며, 사랑에 대한 헌신이며, 영혼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다. (159, 64)

영성의 축복된 효과

42. 영성화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이성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물질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43. 한번 생각해 보라: 영혼의 영적 고양이 자연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물질적 창조물을 연구할 때나 그 밖의 어떤 인간적 목표를 추구할 때 실현된다면, 여러분의 발견이 단지 이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주시는 영적 계시도 함께할 때, 여러분이 거둘 수 있는 결실 을 상상해 보십시오. (126, 26-27)

44. 사람들이 영성화를 이룬다면,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보다 우월한 피조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단지 약한 존재에 불과하여, 인간보다 우월해서는 안 되는 자연의 법칙과 힘, 그리고 영향력에

내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인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280, 29)

4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화 또한 대대로 전해질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순수함과
영적인 것에 대한 수용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정욕에서
자유롭고, 맑은 이성과 감수성
있는 마음,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깨어 있는 영혼을 지닌 몸을
선물함으로써 자비를 베풀었기에
너희에게 감사할 것이다. (289, 65)

46. 내 사역이 목표로 하는 유일한
것은 모든 사람의 영성화이다.
왜냐하면 영성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성화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신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왔기에 영적
분리의 원인이 되어 온 종교들의
명칭과 외형적 형태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7. 모든 이가 각자의 다른 영성화
길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유일한 것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그동안 물질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던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48. 영성화야말로 내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전부이며,
그러면 그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이
실현되고 가장 심각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21, 22-23, 29)

XI 인류

제49장 - 종교와 사법

어떤 종교나 교파도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1. 나는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
광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개선과 믿음,
이웃 사랑, 영성을 원한다. 광신은
눈앞을 가리는 어두운
눈가리개이며, 불건전한
열정이며, 어둠이다.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이 악한 씨앗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
광신주의가 때로는 사랑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 이 어둠이 이 시대에 인류를
덮쳤음을 깨달으라. 이교도
민족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인류의 대다수가 참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들의
전쟁과 증오, 그리고 조화의
결여는 그들이 아직 마음속에
나를 살게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이 종교적 광신과 우상 숭배의
어둠 위로, 인류의 영적 숭배를
정화할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무한한 공간에
평화의 무지개가 빛날 것이다. (83, 60-62)

4. 나는 영혼이 하느님께 이르는
길인 종교들이 지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했다. 선과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를 찬양하는 모든 종교는
빛과 진리를 담고 있기에 선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타락하여 본래 선했던 것을
악으로 뒤바꾸면, 그 길은
물질주의와 죄악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5.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길이자 생명의 본질이며
법인 나의 진리를 다시금
보여준다. 이는 너희가 등대이자
인도하는 별인 이 법을, 형식과
의식을 넘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넘어 찾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이렇게 찾는 자는 영성인이 될
것이다. (197, 10-11)

6. 아무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길로 더 빨리 도착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따르는 길로 더 늦게 도착할
것이다.

7. 모든 종교에서 사람은
선해지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탓하며,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

8. 모든 종교는 길이다.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완전하지만, 모두 선을 지향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 해도, 나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은 사랑의 힘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4, 43)

9. 종교들은 영혼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작은 지름길들로서, 그곳에서 영혼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 내게 이르게 된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고백하는 한, 그들은 분열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사랑과 진리의 길에 들어서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유일한 빛과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243, 5)

10. 종교의 통합은 사람들의 정신이 물질주의와 전통, 편견, 그리고 광신주의 를 초월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예배,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선을 위한 예배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인류는 완성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187, 43)

11. 사람들의 영적 분열은 어떤 이들은 (신성한 계시의 나무)의 한 가지를 이용했고, 다른 이들은 또 다른 가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나무는 하나뿐이지만, 그 가지들은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논쟁은 그들을 갈라놓고 의견 차이를 심화시킨다. 누구나 자신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고,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느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오직 한 가지의 열매만을 맛보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한, 모든 열매가 신성한 나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전체가 비로소 완전한 진리를 이룬다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진리에 대해 말할 때, 스승이 여러 종교의 겉으로 드러나는 숭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그 기초로 삼고 있는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임을 생각하라.

13. 이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 돌풍이 나무를 흔들어

다양한 열매들을 떨어뜨리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들이 그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14. 그러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 광신에 사로잡혀 —
단지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형제들이 건네준 모든 열매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길을
잃고 눈이 멀어 있었는가!"
15. 나의 빛의 일부는 모든 인간
집단과 모든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온전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깨달아라: 너희가 영원의
핵심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도달한 곳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한쪽의 깨달음을 다른 쪽의
깨달음과 통합해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다른 모든 이들과도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 이
조화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했던
맑고 매우 밝은 빛이 비추어 나올
것이다.
16.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며, 신앙 고백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인간을 위한
나의 가장 높은 계명이다.
17. 이 지극한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가까워지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각자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129, 36-41)

종교들의 발전 저해성

18. 인간은 비록 육체적 삶은
덧없고 영적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종종 깨닫고 있었음에도,
영적 삶보다 육체적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문명과 과학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고 종교
안에서 잠들어 버린 이유이다.
19. 종교들을 하나씩 살펴보라.
그러면 그 어느 것도 발전, 전개,
또는 완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종교는 최고의
진리라고 선포되지만,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깨달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20. 신성한 계시들, 하나님의 법,
나의 가르침과 나의 계시는
처음부터 인간이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임을 너희에게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너희의 어떤 교파도 이 진리를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는가?

2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영혼을 깨우고, 그 안에 빛을 밝혀 주며,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며, 비틀거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 오직 그러한 가르침만이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내 가르침이 언제나 너희에게 밝혀 온 바가 아니었느냐?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랫동안 영적으로 정체되어 왔으니, 이는 너희가 영혼에 관한 일보다 지상의 삶에 관한 일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 위해, 너희는 종교를 지상의 일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

23.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 종교적 전통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한다고 여기며, 그것으로 양심을 달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확보했다고 믿는다.

24. 오, 인류여, 이 얼마나 무지한가! 언제쯤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되겠느냐? 너희가 종교적 관습을 따를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 또한 텅 빈 채로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25. 너희가 교회를 떠나며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때, 너희는 큰 착각에 빠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무언가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며, 오직 나에게서 많은 것을 받고 너희 자신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6.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장소들을 찾는 데 그친다고 믿는데, 이는 또 다른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그 장소들은 제자가 나중을 위해 배워야 할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그는 배운 교훈을 실제로 적용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다. (265, 22-27)

종교와 과학의 관계

27. 태초부터 율법과 영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과학자를 적으로 여겨왔다. 양측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으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논쟁들에 대해 말해 줄 때가 되었다.

28. 나는 이 세상을 육신을 입은 영혼들의 일시적인 거처로 삼기 위해 창조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영과 이성과 의지의 능력을 부여했다.

29. 나는 내 피조물들의 운명과 발전을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지구와 그 내부, 표면, 그리고 대기에 인간 존재의 보존과 유지, 발전, 그리고 활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아 두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의 원천인 자연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그의 지성이 깨어나게 허락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과학의 초석이 드러났으니, 비록 항상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인류의 복리와 기쁨을 위해 자연의 힘과 원소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과학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

31. 또한 나는 위대한 영들을 지상에 보내어, 과학을 초월하여 이 자연 위에 있는 초자연적인 삶을 너희에게 계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삶, 즉 영혼의 영생을 마련해 주는, 보편적이고 강력하며 창조적이고 전능하며 전지전능한 존재의 존재가 예감되었다.

32.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적인 사명을, 다른 이들은 과학적인 사명을 띠고 왔기에, 종교와 과학은 모든 시대에 걸쳐 서로를 적대시하며 대립해 왔다.

33.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질과 영은 대립하는 힘이 아니며, 둘 사이에는 조화가 지배해야 한다. 나의 영적 계시는 빛이며, 과학의 계시와 발견 또한 빛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과학자들의 업적을 종종 비판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그들 중 다수가 자연의

에너지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요소 및 힘을 파괴, 적대감,
증오, 복수, 세속적 지배, 그리고
무분별한 권력 추구의 해로운
목적으로 남용해 왔기 때문이다.
34.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사랑과 선한 의도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한 이들, 즉 경건하고
겸손하게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나의 딸인
인류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큰
비밀들을 계시해 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35. 과학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가 물질적 진보의 길을 걷게
하였으며, 그 길 위에서 인간은
걸음마다 과학의 열매를 발견해
왔으니, 어떤 것은 달콤하고 어떤
것은 쓰디짰다.
36. 이제 너희는 모든 빛이 내 영에
속하며, 모든 생명은 내 신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나 는 온
창조의 비밀 보물창고이자
근원이며 시초이기 때문이다.
37.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사이의 그 갈등은 사람들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며, 결국
영적인 것과 과학이 하나의
빛으로 통합되어 인간의 길을
무한한 곳까지 비추게 될 것이다.
(233, 25-34)

세속적 정의의 가혹함과 불공정함

38. 나는 너희의 잘못된 법들을
폐지하러 오노니, 오직 나의
계명으로 형성되고 나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법들만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나의 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의
신성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변함없고 영원하나, 너희의 법은
덧없고 때로는 잔혹하며
이기적이다.
39. 아버지의 법은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위로를
주고 죄인을 일으켜 세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게
하는 향유와 같다. 아버지의
사랑의 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언제나 도덕적 갱신을 위한
너그러운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너희의 법은 정반대로 죄를 지은
자를, 그리고 종종 무고한 자와
약한 자까지 모욕하고 징계한다.
40. 너희의 사법에는 가혹함과
복수, 그리고 자비의 결여가 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 담긴 설득력, 무한한 정의, 그리고 지극한 정직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재판관이지만, 나는 너희의 지칠 줄 모르는 변호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잘못을 갚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사랑으로, 다른 하나는 고통으로 갚는 것이다.

41. 스스로 선택하라. 너희는 여전히 자유의지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 (17, 46-48)

42. 나는 그 잘못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지 않는 신성한 재판관이다. 내 앞에 와서 자책하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내게는 깨끗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반면에 자신의 깨끗함을 떠벌리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내게는 타락하고 유죄인 것으로 드러나는가.

43. 인간의 사법 제도는 얼마나 불공정한가!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형편없는 재판관들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갚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이 감옥의 철창이 눈앞에서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는가. 반면 죄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도둑질과 범죄라는 짐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짊어지고 있다. (135, 2-3)

44. 인간의 사법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희의 감옥은 희생자들로 가득 차 있고, 처형장은 무고한 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 아,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세상에서 자유와 존경을 누리는지, 그리고 너희는 얼마나 많은 타락한 자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는지!

45. 너희가 이 존재들이 영적 세계에서 살며 그들의 영혼에 빛이 비추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숭배 대신, 너희는 그들의 깊은 회개를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도를 보내겠지. (159, 44-45)

인간의 냉혹한 독선

46.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참된 신의 위로자의 사자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심연으로 추락하지 않은 너희는 언제나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이웃을 정죄하는데,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47. 너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한다면 — 내가 장담하건대, 너희의 판단은 더 자비로워질 것이다. 너희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악한 자로 여기고, 병원에 있는 자들을 불행한 자들로 여긴다. 너희는 그들이 내 사랑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는 그들도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온기를 주기 위해 창조된 태양의 광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48. 속죄의 장소에 갇힌 그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추고 싶어 하지 않는 거울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거울이 드러내는 모습이 많은 경우 자신에 대한 고발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9, 51-53)

필요악으로서의 지상 사법

49. 여전히 지상에 존재하는 사법 제도는 공정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의 부족과 이해심 결여, 그리고 마음의 강퍅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직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0. 내가 이 시련들을 허락하였으니, 사람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따르는 데서 멀어지는 한, 세상에는 그의 마음을 꺾고 상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51.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세상에는 재판관이 필요 없을 것이며, 형벌도 없을 것이며,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며, 모든 이는 나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나의 율법에서 영감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행실은 언제나 자비롭고, 영성화와 사랑을 목표로 할 것이다.

52. 그러나 인류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했다. 부도덕과 악덕,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고, 그 결과는 이러하다. 너희는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하며, 비록 너희의 형제이면서도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서 모욕을 당해야 한다.

53. 그러나 겸손하라. 인내로 심판을 견뎌라. 내가 완전한 심판자임을 기억하라. (341, 53)

제50장 - 교육과 과학

허영과 지식에 대한 자만

1. 나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진보했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노라. 너희는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도, 이웃을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노예로 삼지 않고 평화를 이루며, 권력을 얻고, 번영을 이룰 방법을 찾아냈느냐? 도덕적으로는 진흙탕에 뒹굴고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너희의 진보가 과연 참되고 진실하다고 믿느냐? 나는 과학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인간에게 과학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너희가 때때로 과학을 사용하는 그 목적이다. (37, 56)

2. 인류가여, 빛의 딸이여, 눈을 뜨고 네가 이미 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라!

3. 왜 나를 잊고 네 힘을 내 힘과 겨루려 했느냐? 내가 말하노니, 학자가 자신의 과학으로 너희와 닮은 존재를 창조하고, 그에게 영혼을 부여하며, 정신을 불어넣는 그날, 내가 내 홀을 네 손에 맡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둘 열매는 당분간 다른 것이 될 것이다. (125, 16-17)

4. 창조주가 그들에게 허락한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 과학을 알게 된 후, 그것을 신성한 과학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가? 그들의 허영심이 그들로 하여금 겸손과 경외심으로 주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표와 보좌를 찾기 때문이다. (154, 27)

5. 오늘날 인간은 자신을 위대하게 여기며, 자신의 인격을 과시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자만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지위의 받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분께 다른 이름들을 붙인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우주적 지성', '우주의 건축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으니, 이는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르친 바와 같다. 사람들은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신의 인격이 낮아지거나 훼손된다고 생각하는가? (147, 7)

6. 인간은 얼마나 깊은 물질주의의 늪에 빠져, 마침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부인하게 되었는가!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이토록 어두워질 수 있었는가? 너희의 과학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생명과 자연을 모독할 수 있었는가?

7. 너희 과학이 발견하는 모든 작품 속에 나는 현존한다. 모든 작품 속에서 나의 법칙이 드러나고 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느끼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가? 나의 존재와 나의 사랑, 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진보와 문명의 표징인가?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자연의 힘과 자연의 기적 속에서 신성하고, 높고, 지혜롭고, 의로우며, 전능한 존재의 업적을 발견할 줄 알았던 원시인들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선함을 그 존재에게 돌렸고, 그래서 그것을 숭배했다. (175, 72-73)

8. 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내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알게 하고, 그들의 영의 목소리를 통해 깨어나 이 생이 끝난 후 영혼을 기다리는 위대한 신성한 기적들을 깨닫게 하려 한다.

9. 나는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니, 영적인 것과 교감하기 위해 기도하는 법을 아는 자도 이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과학을 통해 자연의 신비에 깊이 파고드는 자 또한 이를 증언하리라. 이 두 가지 길을 통해 이성과 영은 더 많이 탐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0.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학문과 연구를 위해 사랑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때가 언제 올 것인가? 오직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의 업적은 세상에 오래 남을 것이다. 과학의 동기가 권력 추구, 오만, 물질주의 또는 증오인 한, 인간은 자신의 경솔함을 벌하는 거침없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끊임없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11.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악과 오만, 그리고 헛된 야망으로 부풀어 올랐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참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로 왕관을 썼는가. 너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과 나의 진리 사이의 대립은 얼마나 큰가! (277, 31-32, 36)

물질주의적 이성적 사고의 결과

12.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면, 그들이 처한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들 안의 모든 것이 조화와 평화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성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과학적 진리, 즉 추론된 진리—그들이 인간의 사고 과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만을 원한다. 그들은 마음이 아닌 뇌에 호소하는 진리를 원할 뿐, 마음에 닿는 진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물질주의의 결과를 맞이했다. 바로 이기적이고, 거짓되며, 고통으로 가득 찬 인류이다. (14, 42)

13. 너희 과학의 성과에 대해 자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과학에서 그토록 큰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참과 불안, 질병, 그리고 형제상살의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4. 인간은 아직 진정한 과학, 즉 사랑의 길을 통해 얻는 과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5. 보라, 허영심이 너희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모든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들을 갖기를 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과학자들은 주님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인간이 삶에 대해 가진 지식은 아직 피상적일 뿐이다. (22, 16-18)

16.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 건강, 그리고 진리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적용해 온 방식으로는 너희의 과학이 너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지 못할 것이다.

17. 학자들은 자연에게 묻고, 자연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지만, 그 질문들 뒤에는 항상 선한 의도나 선한 마음, 혹은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비밀을 강제로 빼앗고 그 내면의 본질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어리석다. 그들은 진정한 형제자매처럼 서로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자연의 근원에서 원료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때로는 해로운 목적을 위해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다.

18. 온 창조물이 그들에게 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목소리는 사랑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 언어를 듣고 이해할 줄 아는 이는 얼마나 적은가!

19. 만물이 내가 거하는 성전임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 채찍을 들어 상인들과 그곳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실까 두려워하지 않는가? (26, 34, 37)

20. 나는 인간에게 빛인 과학의 은사를 계시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어둠을 만들어내고 고통과 파괴를 초래했다.

21. 사람들은 자신이 인류 진보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내가 그들에게 묻노라. 너희는 땅에 평화를 이루었느냐? 사람들 사이에 형제애가, 가정에는 도덕과 미덕이 지배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느냐? 약한 자를 배려하느냐?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안에 이러한 미덕이 있었다면, 너희는 인간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소유했을 것이다.

22.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지배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를 파멸로 이끈 자들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왜 사람들에게 왔는지 묻지 말고, 내가 죄인과 무지한 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라. 너희가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실제로 불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9, 52-54)
23. 학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찾으며, 자신의 학문으로 자연
밖에는 어떠한 원리나 진리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무지한 자들로 여긴다.
(144, 92)
24. 과학자들은 자만심에 차서
신의 계시를 자신들의 관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고양되기를 원치 않으며,
자신들을 둘러싼 것 중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부정한다. 그들 중
많은 이는 오직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한다.
25. 창조를 지배하는 사랑의
근원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게다가 삶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겠는가? (163, 17-18)
26. 이 인류는 나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
안의 모든 것은 피상적이고,
거짓이며, 겉치레에 불과하고,
허영에 찬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힘은 무의미하며,
영혼의 힘과 성숙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과학의 품에
안겨 지성을 발전시켜 왔다.
27. 이런 식으로 인간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 강하고 위대하며
강력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힘과 위대함은 너희가
성장하고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영적 영혼의 힘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275, 46-47)
28. 오늘날 너희는 날마다 과학의
나무가 맺은 쓴 열매를 먹고 있다.
그 나무는 너희가 모든 재능의
조화로운 꽃피움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에, 인간들에 의해 그토록
불완전하게 가꿔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성만 단련하고
영혼과 마음은 소홀히 했으니,
어떻게 너희의 발견과 업적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겠느냐?
29. 너희 중에는 마치 야수처럼
자신의 정욕을 완전히 방종하고,
이웃을 증오하며, 피에 굶주려

형제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30. 만일 누군가 내 가르침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큰 오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의심하는 자들과
유물론자들, 오만한 자들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그들이
과학의 열매를 거두어 배불리
먹을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며,
마침내 그들의 영혼에서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 오직 당신의
능력만이 우리가 무분별함 속에서
풀어놓은 그 세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82, 15-17)
31. 인간의 과학은 인간이
물질주의 속에서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선, 그리고
완성에 대한 영적 이상에서
영감을 받은 과학은 너희가 이끈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32. 너희의 과학적 진보가 상호
사랑을 동기로 삼지 않았다는
증거는 민족들의 도덕적
타락이며, 형제상살의 전쟁이며,
곳곳에 만연한 굶주림과
비참함이며,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이다. (315, 53-54)
33. 오늘날의 학자들에 대해,
자연과 그 힘과 원소들에
도전하여 선(善)을 마치 악( )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들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겠느냐? 그들은 과학의
나무에서 미숙한 열매를 뜯어
먹었기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열매는 오직
사랑으로만 익힐 수 있었던
것이었다. (263, 26)
34. 인류가 온 창조물을 지배하는
우주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자연의 힘의
폭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35. 인간은 원자를 분열시켰고,
발달된 뇌는 이 발견을 이용하여
막대한 힘을 얻고 죽음을
초래한다.
36. 만일 인간이 자신의 과학과
지성과 같은 수준으로 영적으로
발전했다면, 새로운 자연의 힘을
발견했을 때 이를 오로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적
후진성은 크다. 그러므로 그의
이기적인 이성은 창조적 힘을
인류를 해치는 데 사용했고,
파괴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원칙에서
멀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서 불의 홍수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는 하늘
자체가 열리거나 태양의 불이
너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죽음과 파멸을 뿌릴
인간의 소행이다. (363, 23-25)

37. 민족들은 전진하고 있으며,
그들의 과학적 지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사람들이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있는 영적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38. 그것은 인간의 과학이며,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병든
인류가 이해하는 학문이다.

39. 그러면 그 지식은 거짓이며 그
과학은 악한 것이다. 너희는
그것으로 고통의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빛 대신
어둠이 지배하고 있으니, 너희는
민족들을 점점 더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40. 과학은 빛이며, 빛은
생명이고, 힘이며, 건강과
평화이다. 이것이 너희 과학의
결실인가? 아니, 인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의 빛이 너희 이성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너희의 행위는 결코 높고
영적인 기원을 가질 수 없으며,
단지 인간적인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58, 31-34)

41. 의사들도 소환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밝혀 준
건강의 비밀과, 내가 그들에게
맡긴 치유의 연고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물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타인의 고통을
느꼈는지, 고통받는 이를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 가장
초라한 침상까지 몸을 낮추었는지
물을 것이다. 동료들의 고통 —
그들이 항상 달래주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그 고통 — 으로 인해
화려함과 안락함, 사치를 누리게
된 자들은 나에게 무엇을

대답하겠는가? 모든 이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양심의 빛 속에서 나에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63, 62)

42.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육신의 죽음이 그들을 내 곁으로
데려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
음성은 그들을 참된 삶으로
일으켜 세우고 어루만져 줄
것이다. 그들은 참된 회개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능력이
있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여겼기에, 이
땅에서 어떤 갱신에 대한 갈망을
품을 수 있었겠는가?

43.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포기당하고 희망 없이 내게 온
자들 외에도, 학자들에 의해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내 곁에 이르렀다. 생명을
소유한 나, 내가 그들을 육체적
죽음의 손아귀에서 구해냈다.
그러나 내가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맡겨 준 자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이
성취해야 할 그 고귀한 사명을
그들은 도대체 모르는 것인가?
건강과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파송한 내가, 끊임없이
그들의 희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54, 13-14)

하나님과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새로운 과학적 통찰의 영감

44. 너희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과학자들이 사랑과
선함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미 내가 이 시대의
과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준비해 두었는지 발견했을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자만하는
그 아주 작은 부분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45. 솔로몬은 그의 판결과 조언,
그리고 말들이 지혜로 가득 차
있었기에 지혜로운 자라
불렸으며, 그의 명성은 왕국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 나갔다.

46.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왕이었으나, 자신이 단지 나의
종일 뿐임을 깨달았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지혜와

힘, 보호를 간구하였으며, 내
앞에서 그의 홀과 왕관을
내려놓았다. 만약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지혜는
얼마나 위대하겠으며, 나의
'신성한 지혜의 책'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그들에게 계시되겠는가!
(1, 57-59)

47. 너희의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정직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구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형제들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더 적은 허영심으로 내게
구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영감을 내려 주리라.

4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쌓아온 참된 지식은 모두
나에게서 온 것이다. 그들이 가진
순수하고 고귀한 모든 것을, 나는
이 시대의 너희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것이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17, 59-60)

49. 인간의 영혼은 발전해 왔기에,
그의 과학도 진보해 왔다. 나는
그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발견하도록
허락하였으나, 그가 오직
물질적인 일에만 전념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영적 삶 속에서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빛을
허락한 것이다. (15, 22)

50. 너희가 너희 과학의 일부를
나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면, 너희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물질주의를 없애기까지
스스로를 탐구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혹시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훌륭한 과학을 통해
너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신성한 사랑의
본질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지식은 너희가 뇌를 지치게
하거나, 너희가 심오하다고
여기지만 실은 너희의 손이 닿는
곳에 불과한 지식들을 연구하느라
지칠 필요 없이, 너희의 이성에
쉽게 다가올 것이다. (14, 44)

51. 위대한 인간적 업적들에는
높은 영적 존재들의 영향과
작용이 담겨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육신을 입은
형제자매들에게 미지의 것을
영감으로 주거나 계시해 준다.
52.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시대의
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너희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영적 존재들에게
얼마나 자주 단지 도구로만
봉사해 왔는가! 너희는 너희
발견의 파급력에 자주 놀라지
않았는가? 너희는 이미 실현해 낸
것을 스스로 시도할 능력이
없었다고 은밀히 인정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그 답이 있다.
그런데도 왜 그것으로
자랑하느냐? 너희의 일이 더 높은
존재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들의 영감을 결코
바꾸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나 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182, 21-22)
53. 인류는 과학의 발전을
목격하고, 이전에는 믿지 못했을
발견들을 보아왔는데, 왜 영혼의
발전을 믿는 것을 꺼리는가? 왜
자신을 가로막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에 집착하는가?
54. 이 시대에 내 가르침과 계시는
너희의 발전과 조화를 이룬다.
과학자는 자신의 물질적 업적과
과학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언제나 내
계시와 저 세상에서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 존재들의
도움이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55. 인간은 창조의 일부이며,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이 그러하듯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 본성, 지성, 그리고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가장 고귀한 것인 영혼의
발전과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혼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며, 그분의
지혜를 경외할 수 있다.
56. 너희가 세속적인 지식으로
자만하기보다 내 모든 일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었을 것이며,
너희는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알아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했을 것이다.

선함과 자비와 사랑이 너희 안에 있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아버지와의 일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23, 5-7)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인정

57. 인간의 과학은 이 시대에 인간이 도달한 영적 능력의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이다. 이 시대에 인간의 업적은 단지 이성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영적 발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106, 6)

58. 물질에 초점을 맞춘 과학은 너희에게 많은 비밀을 밝혀 주었다. 그러나 결코 너희의 과학이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밝혀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 시대 사람들의 과학에도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선포한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자, 너희는 깜짝 놀랐다. (97, 19)

59. 너희는 내 사자들이 사랑의 메시지로 가져온 그 빛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그들을 예언자, 선견자, 깨달은 자, 의사, 철학자, 과학자, 혹은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든 간에 말이다.

60. 그 사람들은 빛을 전파했으나, 너희는 그 빛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너희보다 앞서 갔으나, 너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희생과 고통, 자비의 길을 본보기로 남겼으나, 너희는 그 본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나를 따르는 자들의 고통이 영의 기쁨이며, 꽃으로 가득한 길이자 약속으로 가득한 지평선임을 깨닫지 못한 채였다.

61.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꽃 향기를 맡으러 온 것도 아니었고, 세상의 덧없는 쾌락에 취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의 갈망은 더 이상 불결한 것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62. 그들은 고통을 겪었지만 위로를 구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 투쟁 끝에 진리에서 멀어진 모든 이들의 영혼이 믿음과 생명으로

부활하는 기쁨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63.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존재들은 누구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빛과 사랑, 희망과 건강, 믿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한 모든 이들이다.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든,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든, 지상에서 어떤 직함을 가졌든 상관없다. (263, 20-24)

64. 나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맡겨 주었으므로 그들에게 내 인정을 거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에게는 진정한 인류의 도우미가 되기 위한 기도와 이웃 사랑, 그리고 영혼의 고양이 부족했다. (112, 25)

65.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여 온 지구를 지배하고 횡단하고 있다.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대륙, 나라, 바다는 없다. 그들은 육지, 바다, 공중에 길을 닦았으나, 행성에서 물려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지배 영역을 갈망하며 창공을 탐험하고 탐구한다.

66. 나는 내 자녀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축복하며, 그들이 지혜롭고 위대하며 강해지려는 열망은 나의 전적인 기쁨을 얻는다. 그러나 나의 정의가 용납하지 않는 것은, 종종 그들의 야심 찬 목표의 토대가 되는 허영심이나, 때때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목적이다. (175, 7-8)

67. 나는 인간에게 자연의 구성과 그 현상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지성을 부여하였으며, 그에게 우주의 일부를 바라보고 영적 생명의 발현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68. 내 가르침은 영혼을 가로막지도 않고,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해방시키고 깨우쳐, 그가 탐구하고, 숙고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지적 탐구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304, 6)

제51장 – 통치자, 권력 남용, 그리고 전쟁

세속적인 권력과 위대함에 대한 덧없는 망상

1. 너희 영혼이 내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너희 앞에 시련을 놓는 이는 바로 나다. 시련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허락하는 것은, 그 시련 하나하나가 마치 너희 마음을 다듬는 끌과 같음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이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쾌락을 추구해 왔으며, 권력과 화려함을 탐하여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지배하려 했다.

3. 내가 너희 모두를 똑같은 사랑으로 창조했거늘, 어찌하여 항상 더 높은 존재인 척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모욕하며 채찍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는가? 왜 하찮은 자들을 외면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줄 때에도 마음이 무감각한 자가 있는가? 이는 그들이 나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또한 모든 생명체의 유일한 주님으로서 아직 인식하지 못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권력을 찬탈하고 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의 공의를 위한 도구로 나에게 봉사하며, 비록 스스로를 위대한 영주나 '왕'이라 여기지만, 그들은 단지 종일 뿐이다. 그들을 용서하라! (95, 7-8)

5. 세상 사람들과 통치자들을 보라. 그들의 영광과 통치는 얼마나 짧은가. 오늘은 백성들이 그들을 높이 들어 올리지만, 내일이면 그들을 왕좌에서 밀어내리라.

6. 아무도 이 생에서 자신의 왕좌를 찾지 말라.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행보를 방해하게 될 것이니, 너희의 운명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 내 왕국의 문에 도달할 때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124, 31)

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날의 권력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인해 위대하고 강하며, 강력하고 지혜로워질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128, 50)

8. 현재 오직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향한 야망만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영성임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대적한다. 그리고 이미 다가오고 있는 싸움, 즉 영과 악의 대결을 예감하며,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영감의 형태로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는 빛을 거부한다. (321, 12)

9. 지상에서 위대하고 강력했던 자들이 영적 보화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기에, 얼마나 궁핍한 모습으로 내 천국의 문에 다가오는가! 내 왕국의 진리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드러나지만, 학자들과 교양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들은 영적 지혜를 가지고도 세속적인 과학을 대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허영을 위한 보좌와 다툼을 위한 무기를 찾으려 할 것이다. (238, 68)

사람들과 민족들에 대한 자의적인 권력 행사

10. 민족들을 이끌고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보라. 각자는 자기 교리의 우월성을 선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이 모든 것의 열매가 무엇이였느냐? 빈곤과 고통, 파괴와 죽음을 동반한 전쟁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러한 이론을 내세운 자들이 거둔 수확이었다.

11. 내가 인류의 자유 의지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비록 그 자유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이웃 사랑, 이성에서 멀어지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음을 너희에게 말해야만 한다. (106, 11)

12.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인간으로 지상에 다시 오신다면, 골고다에서 더 이상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성령의 빛을 풍성히 받고 있으며, 영혼들은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러므로 누구도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되돌려 줄 수 없는 것을 빼앗을 권리도 없다.

13. 사람들아, 너희는 단지 종교가 있다고 말하고 겉으로 보이는 예배를 지킨다고 해서 내 율법을 지키는 줄로 여기느냐? 율법에서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죄의 제단 위에서 이웃의 피를 강물처럼 쏟아붓고 있으니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19, 27-28)

14. 나는 세상에 평화를 제안하지만, 허위의 권력과 허위의 영광을 가진 거대해진 국가들의 교만은 양심의 모든 부르심을 거부하며, 오직 야심 찬 목표와 증오심에 휩쓸려 갈 뿐이다.

15. 인간은 여전히 선과 정의, 이성의 편으로 기울지 않고, 여전히 일어나 이웃의 일을 비난하며, 여전히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이 재판관이라기보다 차라리 살인자나 사형 집행인이라 불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16.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나,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다. 군중들은 빵과 정의, 집, 옷을 외친다. 정의를 세울 이는 나일 것이요, 사람이나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리라. (151, 70-72)

17. 축복받은 백성아: 각국과 지상의 민족들 속에서 오만과 권력욕으로 우쭐대는 그 사람들은 권능을 갖춘 위대한 영혼들이며, 중대한 사명을 지닌 자들이다.

18. 그러나 그들은 나의 신성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한 재능과 능력을 사랑과 자비의 봉사에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 법, 왕좌, 신하들, 지배 영역,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19. 그러나 시련 속에서 그들의 왕좌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강력한 적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감지하며, 그들의 보물과 명성이 위험에 처했다고 여길 때,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 과대망상과

세속적인 허영, 증오와 악의에
사로잡혀 적에게 달려들며,
그들의 업적과 이념이 고통과
파괴, 악의 흔적만을 남길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적을 파멸시키고,
민족과 부, 일용할 양식,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거대한 왕좌를 세우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219, 25)

20. 지구상에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제국이나 강대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때가
되었으나, 여전히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폭력으로
정복하려는 원시적인 성향이
우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271, 58)

21. 사람들이 세상에 지배해야 할
영적 평화를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먼가! 그들은 폭력과
위협을 통해, 그리고 자랑하는
과학의 결실을 통해 그것을
강제로 얻으려 한다.

22. 나는 결코 인간의 진보를
폄하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니,
그것 또한 그들의 영적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폭력의
사용과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너희의 자만은 내 앞에서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더
가볍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가장
거룩한 원칙들을 모독하고,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생명들을
침해하며, 평화와 건강, 안녕 대신
고통과 눈물, 슬픔과 피를 뿌리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식을 얻는
샘이 사랑과 지혜, 건강과 생명이
무궁무진한 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행위는
정반대를 드러내는가?

23. 나는 “제2의 시대”에 이미
설교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
사이에 평등을 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지
물질적인 평등만이 아니다. 나는
사랑에서 우러나는 평등을
너희에게 영감으로 주며, 이를
통해 너희 모두가 형제자매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
(246, 61-63)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

24. 지금은 시련과 고통, 고난의 시대이다. 인류가 그토록 많은 상호 증오와 악의의 결과를 겪고 있는 시대이다.

25. 무기의 요란한 소리와 부상자들의 비명 소리만 들리는 전장을 보라. 한때는 젊은이들의 튼튼한 육신이었던, 참혹하게 훼손된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들이 어머니, 아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잔을 직접 마셔보지 않은 자라면, 누가 그 이별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26. 수천, 수만 명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모와 아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과 증오, 복수의 전장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빛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의 탐욕과 오만 때문에 강요된 일이었습니다.

27. 이 수많은 젊고 건장한 남자들은 산산조각 난 채 전장에 쓰러져 있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민족들을 다스리며 동료 인간의 생사에 대한 주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보다 더 자비로운 대지, 어머니 대지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감싸 안기 위해 품을 활짝 열었습니다. (9, 63-66)

28. 나의 영은 모든 존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나는 너희의 가장 사소한 생각 하나까지도 직접 살피고 있다.

2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세속적 이념과 권력 쟁탈을 위해 싸우는 군대 한가운데서, 잠깐의 평온한 순간마다 강제로 병사가 된 평화롭고 선의의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내 이름이 그들의 입술을 스칠 때 그들의 가슴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가족들, 부모, 아내, 자녀, 형제자매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오직 믿음의 성소만을 성전으로, 오직 사랑의 제단만을 제단으로, 오직 희망의 빛만을 빛으로 삼아, 무의식중에 무기로 초래한 파괴에 대한 용서를 간절히 바라며 나에게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들은 온 존재의 힘을 다해 나에게 간구하기 위해 나를 찾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혹은 그들이
적의 공격으로 쓰러져야만
한다면, 적어도 내가 자비의
망토로 그들이 지상에 남겨둔
이들을 덮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30.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를 내가
축복하노니, 그들은 살해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다.
살인자들은 다른 이들인데,
심판의 시간이 오면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내 앞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1.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내가 왜 그들이 심지어 전장과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리게 내버려
두었는지 자문한다.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인간의
이성이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유를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너희의 영은 그것이
속죄를 이루고 있음을 알고 있다.
(22, 52-55)
32.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는
세상의 평화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그들이 이를 위해 나서고
기도하게 하노라. 열방은 곧
나에게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것이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들에게 베풀어 온 평화라.
33. 그 전에 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맛보게 하였으니,
그들이 인간의 피가 강처럼
흐르는 것을 보고, 고통의 광경과
시체 더미,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들을 목격하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가정이
황폐해지는 모습, 무고한 이들의
절망, 고통에 미쳐 자녀들의
찢겨진 몸을 입맞추는 어머니들을
보게 하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모든 통곡을 가까이서 체험하게
하여, 그들이 오만 속에서 굴욕을
느끼고 양심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려 했다. 그들의 위대함과
권력과 지혜는 거짓이며,
유일하게 참으로 위대한 것은
신성한 영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34. 이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은 경악할 것이다. —
그들의 눈이 보는 끔찍한 광경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 때문에
경악할 것이며, 양심의 시선과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들은 내면에서 어둠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불길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생명과 모든 고통, 심지어 그들 때문에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2, 40)

35. 민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골짜기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모인다.

36. 그러나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동료들의 피로 손을 더럽힌 그 자들은 감히 내 이름을 입에 올린다. 이것이 과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교훈의 꽃이나 열매인가? 너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자신을 해친 자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죽어 가시는 순간에도 자신의 처형자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배우지 않았는가?

37. 사람들은 내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을 소홀히 하였기에, 온전히 폭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에 나는 그들이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거두며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9, 31-33)

전쟁의 부도덕함과 무의미함

38.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과 용서, 겸손이 솟아나, 증오와 오만함에 맞서는 진정한 무기가 되어야 할 때이다. 증오가 증오를, 오만함이 오만함을 부딪힐 때, 민족들은 서로를 멸망시킬 것이며,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39.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진보를 오직 평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권력 과 허위의 위대함이라는 이상을 좇으며, 그 과정에서 동료 인간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파괴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39, 29-30)

40. 1945년은 전쟁의 마지막 그림자를 싹쓸이해 갔다. 낫은 수천 명의 생명을 베어 넘겼고, 수천 명의 영혼이 영적 고향으로 돌아갔다. 과학은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 파괴 무기로 지구를 뒤흔들었다.

승자들은 패자들의 재판관이자
처형자가 되었다. 고통과 비참,
굶주림이 퍼져 나가며 그 뒤를
이어 과부와 고아, 그리고
냉랭함을 남겼다. 전염병은
나라에서 나라로 퍼져 나가고,
심지어 자연의 힘조차도 수많은
악행에 대한 정의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괴와
죽음, 황폐함의 잔해밭이 바로
문명인이라 자칭하는 인간이 이
행성의 표면에 남긴 흔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인류가 내게
바치는 수확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이 수확물이 내
곡창에 들어갈 가치가 있느냐?
너희 악의 열매가 너희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신성한 계명을 따랐더라면
심을 수 있었을 나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145, 29)

41. 너희가 마음의 평화조차 얻지
못했는데, 언제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죽이는 마지막 무기가 파괴되지
않는 한, 사람들 사이에 평화는
없을 것이다. 형제 살해의 무기란,
사람들이 서로의 생명을
앗아가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와 건강, 영혼의 평화를
빼앗거나 신앙을 말살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119,
53)

42. 나는 인류에게 그들의 문제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한, 그 무기가 아무리
끔찍하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오히려
그 결과로 더 큰 증오와 더 많은
복수심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오직 양심과 이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만이 평화의
시대가 싹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빛이 사람들의
내면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고통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내야 한다. (160,
65)

43. 만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더라면, 전쟁의
고통만으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그들은 빛의 길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참혹한 학살의 쓰라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44. 아버지이시며 신성한
사랑이신 내가 전쟁을 통해
너희를 벌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너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너희에게 범죄와 형제 살해, 살인,
복수, 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느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쌓아온
물질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174, 50-51)
45. 나는 태초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였으나, 그의
자유는 언제나 양심의 빛과
함께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내면의 심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의 길에서
멀어져, 결국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살인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들을
일으켰으니, 이는 그가 인간성,
자비, 존중, 영성이라는 모든
감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46.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속죄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파괴와 전쟁을 피했어야
했다. 알아두라. 그들이 내게 오기
전에 선함으로 자신을 정화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들을 다시 이
눈물과 피의 골짜기로 보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완전함을
거스르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이다. (188, 6-
7)
47.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걸음걸음마다 기적을
발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불완전하다고 여긴다. 어떤
이들은 평화야말로 세상의
영성화와 도덕의 정점이라 꿈꾸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전쟁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선포한다.
48. 이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쟁은 세상의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야망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조장하는 자들이 처해
있는 물질주의 때문일 뿐이다.
그들 중에는 영적인 삶을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의 삶만을 믿는 자들도

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학자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이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227, 69-70)

제52장 - 불의와 인류의 쇠퇴

강자에 의한 약자의 억압과 착취

1. 만일 사람들이 지구가 모든 이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가득한 물질적·영적 보물을 동료 인간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적 왕국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12, 71)

2. 인류가 민족과 인종으로 나뉘는 것이 얼마나 원시적인 일인지 믿지 않느냐?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문명의 진보가 진실하다면, 더 이상 폭력과 악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고, 너희 삶의 모든 행위가 양심의 법칙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느냐? — 그리고 너희 백성아, 이 심판에서 스스로를 제외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도 나는 다툼과 분열을 발견하노라. (24, 73)

3. 역사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다. 그들은 이집트의 포로 생활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땅에 도달하기 위해 투쟁했다.

4. 오늘날 온 인류는 바로 파라오의 포로 상태에 있는 그 백성과 같다. 사람들에게 신조와 교리, 법규를 강요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더 강한 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굶주림과 굴욕이라는 채찍질 아래에서의 가혹한 생존 투쟁과 강제 노동은 오늘날 인류의 대다수가 먹고 있는 쓰라린 빵이다.

5.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방과 평화,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을 점점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115, 41-43)

6. 온 인류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이 세상은 분쟁의 씨앗이자, 무의미한 권력 다툼과 배신,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삶은
학문과 영적 성찰,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 시련과 교훈을
활용하여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에 쓰여야 마땅하지만,
인간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원한과 분노, 물질주의, 불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116, 53)

7. 오, 지상의 불쌍한 백성들아 —
어떤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어떤 이들은 억압받으며,
나머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있구나!

8. 너희의 신뢰가 배신당했기에,
너희 마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재판관들의
정의나 관대함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약속이나 말,
혹은 웃는 얼굴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너희는 위선이 마음을
장악하여, 이 땅에 거짓과 허위,
사기의 왕국을 세웠음을
목격했다.

9. 가련한 백성들아, 너희는 견딜
수 없는 짐처럼 고난을 어깨에
지고 있다. 그 고난은 더 이상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었던
그 축복받은 법이 아니라,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찬 생존 투쟁으로
변해 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생명을 바치는
대가로 무엇을 얻는가? 내용 없는
빵 한 조각, 쓴맛으로 가득 찬 잔
하나.

1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의 기쁨과
유지를 위해 이 땅에 두었던 생계
수단이 아니니, 이것은 불화의 빵,
허영의 빵, 비인간적인 감정의
빵이라 — 한마디로 너희의 인간적
삶을 좌우하는 자들에게서 영적
성숙의 결핍이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11. 나는 너희가 서로 빵을 빼앗는
것을 보노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니,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빵을
빼앗고, 약한 자들은 강자들이
먹고 즐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12.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이
인류의 도덕적 진보는 무엇에

있는가? 그들의 가장 고귀한
감정의 꽃피움은 어디에 있는가?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이 동굴에 살며
가죽으로 몸을 감쌌던 시대에도,
그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았고, 가장 강한
자들이 역시 가장 큰 몫을
차지했으며, 약한 자들의 고생은
그들을 폭력으로 지배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인간과 부족과
민족들은 마찬가지로 서로를
죽였다.
14. 그렇다면 오늘날의 인류와 그
시절의 인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5. 그래, 너희가 나에게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할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문명과 과학을 내세울
것임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단지
위선의 가면일 뿐이며, 너희는 그
뒤에 너희의 진정한 감정과
여전히 원시적인 본능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영혼의 성숙이나 내
법의 성취를 위해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 내가 너희에게 과학적 연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정반대다. 찾고, 연구하고,
물질적 삶에서 지식과 지성을
키워가되,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의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며, 어떤 법도 인간이 동료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 한마디로, 사람들아, 내
최고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너희 삶에 적용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빠져든 도덕적, 영적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희 얼굴을
가리던 거짓의 장막이 벗겨질 때
너희의 빛이 비추고, 진실함이
빛나며, 너희 삶에 진실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7. 내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어
영적으로 강해져서, 앞으로
너희의 말이 언제나 자비와 지혜,
형제애의 진정한 행실로 입증되게
하라. (325, 10-20)
18.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보내노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잊는
사람들이 있는 한, 땅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19. 평화는 인간의 영광이나 부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의와
상호 사랑, 즉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데에 기초한다. 아,
세상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적대감은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날
것이다. (165, 71-72)

인류의 타락

20. 인류는 죄와 악덕의 폭풍
속에서 난파를 당하고 있다.
성인이 된 사람만이 자신의
정욕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아이조차도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전복되는 경험을
한다.
21. 계시로 가득 찬 나의 말씀은 이
인류 한가운데서 마치 거대한
등대처럼 솟아올라, 난파당한
이들에게 올바른 항로를
알려주고, 믿음을 잃을 뻔했던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다. (62,
44)
22. 인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죄도 늘어났다. 세상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들이
부족하지 않으며, 그 도시들의
악행은 온 땅에 메아리쳐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킨다. 그
죄악의 도시들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으나, 그 주민들은 대낮에
죄를 지었기에 위선자들은
아니었다.
23. 그러나 자신의 정욕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그 후에는 의로움과
순결을 가장하는 오늘날의 인류는
소돔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4. 이는 모든 과거 세대의 불길한
유산으로, 그들의 중독과 악덕,
질병이 이 시대에 열매를 맺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악의 나무이다. 죄로 인해
결실을 맺게 된 이 나무의 열매는
계속해서 남녀를 유혹하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25. 이 나무의 그늘 아래에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남녀들이 누워 있다. 그곳에는
파괴된 미덕과 더럽혀진 인간의

존엄, 그리고 수많은 망가진
삶들이 남겨져 있다.
26. 어른들만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유혹에 이끌려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든 이에게 시간이
흐르며 쌓인 독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악의 불길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자들은 —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그들의 행위에
분노한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는 드물고, 삶의
일부를 악과 싸우는 데 바치는
이는 더욱 적다.
2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의 나무가 아직 살아 있는 한, 내
왕국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력은
파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과 정의의 칼을 가져야 한다.
죄가 저항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자비가 내
가르침의 본질이며, 너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가르침이 될
것임을 깨달아라. (108, 10-14)
28. 너희의 물질주의는 내가
인간에게 맡긴 에덴을 지옥으로
변모시켰다.
29. 사람들이 사는 삶은
그릇되었고, 그들의 쾌락과 권력,
부, 학식과 과학 또한 그릇되었다.
30. 부자와 가난한 자, 너희 모두는
소유하는 것이 허망한 돈에
사로잡혀 있다. 너희는 고통과
질병을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은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것을 얻기를
갈망한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과 열정, 욕구, 그리고
야심 찬 목표들은 오직 물질적인
삶, 육체의 굶주림, 저급한 정욕,
인간의 욕망에만 국한되어 있다.
마치 인간이 실제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31. 세상과 물질은 영혼을
일시적으로 제압하고, 점차 다시
노예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결국
인간 삶에서 영혼의 사명을
무너뜨렸다. 왜 너희는 너희 삶을
짓누르는 그 굶주림과 비참함,

고통과 두려움이, 실은 너희
영혼의 비참함과 고통을 충실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지 못하는가?
(272, 29-32)

32. 세상은 나의 말씀을 필요로
하며, 민족과 국가들은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통치자, 과학자, 재판관, 목회자,
교사 — 그들 모두는 나의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며,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와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이성을
비추기 위해 왔다. (274, 14)

33. 너희 행성은 여전히 사랑이나
미덕, 평화의 장소가 아니다. 나는
너희 세상에 순수한 영혼들을
보내지만, 너희는 그들을 나에게
더럽혀진 채로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은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34. 나는 이기심과 복수심, 증오의
폭풍에 휩쓸리는 영혼들 사이에서
미덕들을 마치 작고 흩어진
불빛들처럼 본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나에게 바치는 열매이다.
(318, 33-34)

미성숙한 인류의 뒤집힌 세상

35. 너희에게는 백성을 다스릴
정의와 관대함이 마음속에 없는
통치자들이 있다. 그들은 권력과
부라는 하찮은 목표를 좇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 자비가야말로 그들의 사명의
본질임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
그리고 정의를 복수와 혼동하며
법을 해로운 목적으로 남용하는
판사들.

36. 비뚤어진 길을 걷고, 자신의
양심의 등대인 그 빛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초래하는 심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다.

37.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임무를 가로챈 자들도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스스로 떠맡은 임무를 수행할 데
필요한 능력이 전혀 부족함을
증명하고 있다.

38.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백성을

이끌면서도 자신의 발걸음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 —
가르칠 은사가 결여되어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사들,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마음속에 연민의
감정이 솟아나지 않는 의사들,
그리고 이 은사를 진정으로 지닌
자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이다.

39. 나의 모든 기본 원칙들은
사람들에 의해 모독당했으나,
이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심판받을 때가 왔다. 이것이 나의
심판이니, 이를 집행하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계명을
지키라. (105, 16-19)

40. 이 세상을 보라 — 교만하고,
도발적이며, 이 세기의 세대들을
경탄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의
업적에 대해 자만하고 있다.
대다수는 영적인 것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내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학의
도움으로 창조해 낸 기적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

41.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과학,
투쟁, 전쟁, 그리고 눈물을 통해
세운 이 경이로운 인간의 세계를,
그들은 결국 자신의 손과 무기로
파괴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완성을 향한
열망이 결여된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지속 불가능하고 허약한지
인류가 깨닫게 될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

42.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나로부터만 힘과 생명과 지성을
받아 인간의 영( )과 육체 사이에서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82, 9-11)

43. 사람들은 과거의 시대, 고대,
긴 세기, 끝없이 긴 시대들에 대해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본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거의 성숙하지 못했음을
본다. 내 눈에는 너희가 성숙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의 세상은 여전히 유년기에
머물러 있다.

44. 아니, 인류여, 너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숙과 상향 발전, 완성, 그리고 진보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영혼이 아닌 한, 너희는 필연적으로 겉보기에는 위대해 보이지만,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도덕적 내용이 없고 오래가지 못하는 인간의 업적만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325, 62-63)

45. 지금은 영혼들에게 결정적인 시기이며, 참으로 투쟁의 시기이다. 모든 것이 다툼과 싸움이다. 이 전쟁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모든 제도의 내부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46. 지상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형태로 예견했던, 그리고 이 시대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환상 속에서도 엿보이는 '대격전'이다.

47. 그러나 이 전투는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지만, 인류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인류가 바로 이 전투의 일부이자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48. 오늘날 인류의 행보는 빨라졌으나,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은 이토록 서두르며 어디로 향하는가? 이 현기증 나는 길에서 과연 행복을 찾겠는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모든 마음이 이기적으로 갈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얻겠는가?

4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간이 그 분주함으로 실제로 얻는 것은 완전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삶에 대한 환멸과 쇠진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심연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50. 그는 이 심연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 완전한 탈진 속에서, 증오와 쾌락, 충족되지 않은 권력욕, 죄와 간음, 영적 및 인간적 법칙의 유린이 뒤섞인 이 혼돈 속에서 그의 영혼은 겉보기에는 '죽음'을, 그의 마음은 일시적인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51. 그러나 나는 인간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그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삶 속에서

모든 이상들의 재탄생을 위해, 영적 영혼의 기원이자 그 고유한 속성과 유전자인 모든 원칙과 모든 미덕의 부활을 위해 싸우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영혼 은 나로부터 나왔고, 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며, 나의 완전함에서 마셨고, 나의 은총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360, 6-8)

XII 인류의 심판과 정화

제53장 - 심판의 때가 왔다

인류의 씨앗이 맺은 열매

1.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시대는 인류를 위한 심판의 시기이다. 너희가 빚을 갚기 시작할 기한이 지났다. 너희는 이제 과거에 뿌린 씨앗의 수확, 즉 너희 행위의 결과나 후과를 거두고 있다.

2.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을 행할 시간이 주어지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는데, 후자가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고통받고 울고 있다. 너희에게 파종할 때와 수확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너희가 그분의 율법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때와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

3. 너희는 지금 신성한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고통은 너희로 하여금 울게 하며, 인류는 자신의 눈물로 정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속죄에서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이는 심판의 때로, 너희는 자신의 운명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상과 영성화를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그 목소리는 너희를 오도하거나 속이지 않고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11, 58-61)

5. 이것이 인류에 대한 심판의 때이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내 신성함으로 심판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영으로 오셔서 인간의 이성에 나의 광선을 내리셨으며, 이를 통해 너희에게 누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셨다. (51, 61)

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미 “주님의 날”에 살고 있으며, 이미 그 심판 아래 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현재 심판받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행위가 이 심판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 너희의 눈을 뜨고, 신성한 정의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라. (76, 44)

7. 옛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심판에 대해 말해 왔으니, 이제 예언자들이 마치 하루인 양 묘사했던 그 예고된 때가 이르렀다.

8. 너희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요, 결코 철회되지 아니하느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9. 만일 사람들이 내 말씀을 믿는 것 외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결코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건망증이 심하며, 믿음이 없다. 시련이 닥치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이나 보복, 혹은 진노로 돌린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시련은 너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10. 대홍수, 불로 인한 도시의 멸망, 적의 침입, 재앙, 전염병, 기근 및 그 밖의 재앙들은 너희가 준비하고 놀라지 않도록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미리 선포되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언제나 사람들이 깨어나고, 준비하며, 강해질 수 있도록 깨어 있고 무장하라는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24, 74-77)

1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이 세상에 매우 큰 시련이 닥칠 것이 사실이지만, 고통의 날들은 단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깨어나 나를 향해 눈을 들어, 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나의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근절할 것이다. 그 전에 나는 모든 것을 살피리라: 종교 공동체, 학문, 그리고 사회적 제도를. 그러면 신성한 정의의 낫이 그곳을 지나가며, 가라지를 베어내고 밀만 남겨둘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선한 씨앗은,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계속 싹트도록 보존할 것이다. (119, 10-11)

심판 속 인류의 정화

13.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양심을 통해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은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언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법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물질주의의 시대가 끝났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14. 당분간 그들은 자연의 힘으로부터 여러 형태로 시련을 겪어야만, 인간의 물질주의가 그보다 훨씬 미미한 더 높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15. 땅은 흔들릴 것이며, 물은 인류를 정화하고 불은 그들을 정련할 것이다.

16. 인간 존재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알지 못한 곳에서는, 자연의 모든 요소와 힘이 지구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17. 이를 통해 자연은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의 멸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조화를 추구할 뿐이다.

18. 자연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위반 행위와 법칙에 대한 부조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40, 20-25)

19. 인간의 손이 스스로에게 심판을 불러들였다. 그의 뇌리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이 모든 것이 자연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자연의 요소들은 제멋대로 날뛰고, 계절은 거칠어지며, 재앙이 일어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너희의 죄가 커져 질병을 일으키고, 어리석고 오만한 과학이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내가 단지 이 말을 해준다고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결과에 실망할 수 있도록, 너희 행위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너희는 너희가 뿌린 모든 것의 결과를 경험하는 인생의 그 순간에 도달했다. (100, 6-7)

21. 지상의 삶은 인간에게 있어 언제나 시련과 속죄와 함께해 왔으나, 이 발전의 길이 지금처럼 고통으로 가득 찼던 적은 없었고, 그 잔이 이토록 쓴맛으로 가득 찼던 적도 없었다.

22.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삶의 투쟁에 맞서고 있다.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실망과 멍에, 구타, 장애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더 말해 주겠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고통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23. 이 시대에 지상에 오는 존재들의 속죄 의무는 크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이 인간의 소행임을 기억해야 한다. 생명의 길에 가시를 뿌린 자들이 이제 그 가시를 거두게 하는 것보다, 내 정의에 더 큰 완전함이 어디 있겠느냐? (115, 35-37)

24. 너희는 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너희가 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너희에게 알려 주노라.

25. 오직 나만이 세상이 처한 이 시기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시간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

26. 사람들은 태초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더럽혀 왔으며, 결국 자신의 감성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병들고 불안하며 슬픈 삶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제 정화의 시간이 도래했다. (274, 11-12)

27. 모든 영혼에게 수확의 때가 왔기에,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보게 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혼돈 속에서 각자는 자기의 씨앗을 거두게 될 것이다.

28. 그러나 끊임없이 내 법을 어겨 온 내 자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진실로, 잠만 자고 내 가르침을 연구하거나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시련에 휩쓸려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시를 따랐던 모든 이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격려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상이 될 것이다. (310, 7)

29. 이 시기에 스스로를 새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가장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니, 그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법과 진리와 생명과 화해할 귀중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30. 반면에, 이 물질적인 삶에서 의무를 다한 데서 오는 평화와 만족을 안고 영적인 고향으로 넘어가는 이들은 내 빛에 비추어 밝게 빛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환생해야 할 자들에 속한다면, 나는 그들이 인간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켜, 그들이 더 순수하고, 더 영성화되며, 더 큰 지혜를 지니고 그곳으로 부활하도록 할 것이다. (91, 38-39)

심판 속의 하나님의 사랑

31. 고통은 그 모든 내용을 세상에 쏟아 부었으며, 수천 가지 형태로 느껴지게 한다.

32. 인류여, 너희는 얼마나 끔찍한 분주함 속에서 살고 있는가! 너희는 매일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된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 때문에 남자들은 제때에 늙어가고, 여자들은 조기에 늙으며, 소녀들은 한창 꽃피는 나이에 시들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감정이 무뎌진다.

33.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통과 괴로움, 시련의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평화를 찾고, 조화를 이루며, 고통을 떨쳐내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나는 영으로 나타나 너희에게 내 말씀을 보내니, 이는 너희 영혼에 위로와 치유, 평화의 이슬이 될 것이다.

34. 부활이자 생명이신 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안에서 너희는 믿음과 건강, 그리고 싸우고 살아갈 기쁨을 되찾을 것이다. (132, 42-45)

35. 오늘은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속죄의 시간이다. 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각자의 행실이 저울 위에 올려졌다. 비록 이 심판이 영혼들에게 무겁고 고통스럽더라도, 심판자보다 더 사랑이 많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또한 너희의 중재자이신 마리아의 사랑이 너희를 감싸고 있다. (153, 16)

36. 인류여, 나의 정의가 임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꺾어, 그가 자신의 악함과 물질주의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37. 그렇다, 백성아, 나는 그릇된 위대함에 빠진 인간을 꺾어 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로 하여금 나의 빛을 보고 일어나, 진정으로 위대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빛과 너그러움, 선함, 힘,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285, 15-16)

38. 인류는 나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나의 현존을 부인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내가 사랑과 자비로 나의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채찍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그들을 은혜의 삶으로 들어올리고 나의 말씀이자 진리인 수정처럼 맑은 물로 그들을 정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39. 세상은 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를 키웠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은 거대한 시련의 도가니를 겪고 고통의 잔을 마시고 있다. 그들의 물질주의가 그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334, 29-30)

40. 이제 민족과 인종, 언어와 피부색으로 나뉜 인류는 나의 신성한 영으로부터 각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몫, 즉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투쟁, 시련의 용광로,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과 모든 인종을 위해 마련해 둔 속죄를 받고 있다.

41. 그러나 너희는 내 심판이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시련들이 사랑의 시험이라는
것을, 비록 이러한 시련 속에
겉보기에는 불행이나 재앙,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구원과 선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다.

42. 이 모든 것 뒤에는 생명과
영혼의 보존,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있다. 아버지는 언제나
"탕자"를 기다리시며, 그를 지극한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328, 11)

제54장 - 세계관, 종교 및 교회의 투쟁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이 도래하기 전의 영적 투쟁

1.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나의 재림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인간들 사이에 나의
영성화 왕국을 세우기 위한
선구적인 징조로서, 신앙 고백과
세계관, 종교들 간의 "전쟁"을
너희에게 예고한다.

2. 나의 말씀은 불꽃 칼처럼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사로잡아
온 광신을 파괴하고, 그들의
무지의 장막을 찢어 버리며, 나를
향해 이끄는 밝고 빛나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209, 10-11)

3. 내 왕국의 평화가 사람들
사이에 세워지려면, 먼저 신앙
교리, 종교, 이념 간의 "전쟁"이
치러져야 한다. 이는 어떤 이들은
나의 이름과 진리를 다른 이들의
거짓 우상들에 대항하여
내세우고, 한 교리가 다른 교리와
싸우는 대립이다.

4. 이것이 바로 새로운 투쟁, 영적
전투가 될 것이며, 그 속에서 거짓
신들은 받침대에서 밀려나
쓰러지고, 너희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거짓말은 영원히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혼란과 어둠의 혼돈
속에서 진리가 빛나며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121, 40)

5. 영매주의는 세계관, 신조,
종교적 숭배 사이에서 전
세계적인 전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대립이 끝난 후,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축복받은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며, 모든 영혼 위에 나의 신성한 정의의 태양이 빛나게 할 것이다. (141, 11)

6. 나는 너희가 세계관의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경고하노니, 그리하여 너희가 영혼의 내적 갈등과 사상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7. 인류의 모든 세계관, 교리, 신학, 철학, 그리고 신앙 고백이 흔들릴 것이며, 이는 폭풍우를 상징할 것이니, 곧 진정한 영적 폭풍이라. 너희는 내 뜻에 따라 그 요동치는 파도 위를 항해하며, 폭풍과 어둠이 지나갈 때까지 그 위에 꿋꿋이 버텨야 한다.

8. 이 시련을 무사히 헤쳐 나가기 위한 더 나은 처방은 기도와 내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없으니, 이를 통해 너희의 믿음은 끊임없이 굳건해질 것이다.

9. 그 세계관의 투쟁, 그 신앙 고백과 이념의 충돌, 그 전투는 모든 종교와 제도의 근저에 쌓여 온 결함과 오류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0. 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정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허상과 기만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모든 사람이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그 영향력이 물질적 생명의 기초임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몸을 위해 태양이 주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들은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강화하며, 깨우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활용할 것이다.

12. 그러면 인간의 삶이 나의 법이 정한 규범인 참된 삶의 원리에 점점 더 부합하게 됨에 따라, 인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323, 19-22)

지구상의 영적 패권을 둘러싼 투쟁

13. 이 시대에는 세계관과 신앙 교리 간의 투쟁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기심과 사리사욕이 얽힌 이 투쟁 속에서 과연 누가 옳은가? 과연 누가 진리의 소유자인가?

14. 스스로가 완전한 길 위에 있으며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는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며, 다른 이들의 믿음에 담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더 이상 겸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노라.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15. 동료들의 믿음과 신념을 비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니, 이는 그의 교만과 경솔함 속에서 자신이 신과 같아지려 하기 때문이다. (199, 4-6)

16. 너희는 내가 이 시대의 인류에게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묻는다.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내가 추구하는 것은 너희가 빛으로 깨어나고, 영성화되며, 화합하는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영의 보화를 추구한 반면, 다른 이들은 세상의 부에 대한 사랑에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영성주의와 물질주의는 끊임없는 투쟁 속에 있었고, 영성주의자와 물질주의자는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은 나의 진리를 믿는 자들과 부인하는 자들로 갈라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영으로 나를 기다린 자들이 믿는 자들이었고, '육신'의 감각으로 나를 기다린 자들이 나를 부인한 것이다.

18. 이 두 세력은 이 투쟁을 통해 진리가 밝혀질 때까지 다시금 맞서야 할 것이다. 그 싸움은 치열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그들의 과학과 발견들이 마치 자신들이 창조한 세상, 자신들만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175, 4-6)

19. 오늘날 모든 사람은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모든 종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선언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도 절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계시된 그 일부조차도 자신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과 오류를 혼동하며, 그 일부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

21. 각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관철하고자 하기에, 이 모든 세력들이 서로 싸우는 투쟁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여 자리 잡는 것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도, 과학적 이론도, 종교적 신조도 아니며, 오히려 모든 선한 관점들, 모든 고귀한 신앙적 신념들, 가장 높은 영성으로 승화된 모든 숭배 형태들, 그리고 진정한 인류의 진보에 헌신하는 모든 과학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형태일 것이다.

22.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발표하도록, 다른 이들이 자신의 숭배 형식과 의식을 공개적으로 행하도록, 토론하고 대립하도록, 과학자들이 가장 진보된 이론을 전파하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와 빛을 보고 드러나도록 허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수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 그날은 양심이 무자비한 낫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뿌리째 잘라내는 날이다. (322, 15-18)

영성 교리에 대한 탄압

23. 이 시대의 성직자들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 상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왕처럼 차려입고, 비록 그 과정에서 내 이름과 내 대리권을 내세우지만, 나는 그들의 이성이 혼란스럽고, 음모와 정욕의 폭풍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고 예언자로서

선포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니, 그들 가운데 영적인 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서약했던 자들의 성취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초기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나, 후계자 중 한 명이었던 바울과 같은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24. 그러므로 스승이 다시 너희에게 다가와 가르침을 재개하려 한다. 이미 나는 새로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달려드는 것을 보고 있다. 바로 그때 내가 묻겠다. “내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교만한 자들, 거짓된 자들, 부자들,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내 진리에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다시 나를 조롱하고 박해할 때,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희생을 요구했던 자들이 될 것이다. (149, 32-33)

25. 물질주의의 파도는 치솟아 요동치는 바다, 즉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인간의 불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바다가 될 것이다.

26. 오직 한 척의 배만이 그 정욕과 탐욕, 그리고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할 것이며, 그 배는 내 율법의 배일 것이다. 그 때가 올 때 강인한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27. 그러나 잠든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약한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종교적 광신주의의 토대에 신뢰를 둔 민족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그 격렬한 파도의 먹잇감이 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28. 오 인류여, 그 전투를 예감하지 못하느냐? 그 시간이 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하도록 내 말이 너를 움직이지 않느냐?

29. 내 빛은 모든 이 안에 있으나,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본다. 내 빛은 예감, 영감, 직관, 꿈, 그리고 암시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영적인 부르심에 귀를 막고, 모든 신성한 표징에 무관심하다.

30. 머지않아 너희는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31.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이름은 모든 공격과 박해의 표적이 될 것이며, 진리의 적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일어나서 신앙을 수호하는 이들에게는 빛의 검이 될 것이며, 무고한 이들이 피난처를 찾는 방패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은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저주받을 것이다.
32. 인간의 모든 능력이 발동될 것이다: 지성, 감정, 열정; 그들의 정신적 능력은 깨어 있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33. 그때 얼마나 큰 혼란이 닥칠 것인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들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34. 많은 가정과 마음속에서 사랑과 희망의 등불은 꺼져 있을 것이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세상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300, 35-40)
35.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숭배가 그들을 비통한 실패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으려 할 것이며, 등진 그 원칙과 법칙들을 찾아내려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 속에서 그들은 교리를 만들어내고, 규율을 세우며, 철학, 세계관, 그리고 이론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36. 이 모든 것은 새롭고 거대한 전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세속적 권력에 대한 부당한 탐욕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다. 살인적인 무기들이 더 이상 생명을 앗아가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투는 달라질 것이니, 그때에는 주요 종교 공동체들이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종교들과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37.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어떤 종교도 이 분쟁에서

승자로 남지 못할 것이며, 오늘날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살육의 전쟁에서 어떤 민족도 승리자로 남지 못할 것과 마찬가지이다.*

** 여기서 언급된 제2차 세계대전에는 이른바 승전국들이 있었지만, 지상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은 전쟁이 끝난 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 결국 어떤 세계 강대국도 승리자로 남지 못할 것이다.*

38.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위에는 나의 정의가 지배할 것이며, 나중에 어떤 교리나 종교를 관철하기 위한 그 전투에서는 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39. 유일하고 지극한 진리는 폭풍우 치는 밤의 번개 빛처럼 비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신성한 번쩍임을 보게 될 것이다.

40. 내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전해질 것이며, 너희 모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다가올 시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며, 내가 영혼과 세계와 인종과 민족의 주인이기에, 모든 이에게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288, 33-36, 45)

영적 계시와 영적 치유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

41. 영적 세계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와 현존을 증언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곳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끈질기게 말해 주는 징후, 증거, 계시, 그리고 메시지들이 나타날 것이다.

42. 종교 지도자들이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릴 것이며, 과학은 그러한 사실들을 거짓이라고 선언할 것이기에, 민족들 사이에 논쟁과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43. 이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일어나, 자신들이 받은 증거들의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과학에 의해 포기당했던 자들 중 영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들이 일어설 것이며, 그들은 기적적인 치유와 무한한 힘, 그리고 절대적인 지혜의 계시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44.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빛으로 가득 찬 말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남녀들이 대중 앞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가장 격렬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증언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 부인될 때, 바로 그때가 엘리야가 학자들, 귀족들과 통치자들을 심판하고 시험에 처하게 할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45. 그 시간에 거짓된 자들과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때 완전한 정의가 그들에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46. 그것은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영혼이 그곳에서 참된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며, 많은 마음이 믿음으로 부활할 것이며, 많은 눈이 빛을 향해 열릴 것이다. (350, 71-72)

제55장 - 심판 속에서의 지구와 인류의 정화

정화 심판에 앞서 하나님과 자연이 보내는 경고의 목소리

1. 나는 너희에게 온 인류에게 매우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노라 — 그 시련은 수세기에 걸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하리라.

2.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 모두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형태로 메시지와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내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율법에 대해 깨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3. 세상의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이 모습으로 나타난 이 백성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나의 의무는 내 자녀들의 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24, 80-81)

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기 영혼에 남긴 오점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자연의 힘들이 전령이 되어 내 심판과 내 영광을

선포하고 인류를 모든 부정함에서 정화하러 올 것이다.

5.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주님의 날"이 왔음을 느끼며 내 이름을 찬양하는 남녀와 아이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악의 통치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들에 사는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겠는가! (64, 67-68)

6. 첫 인간들의 낙원은 눈물의 골짜기로 변했고, 이제는 피의 골짜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왔으니, 나는 인류를 영적 잠에서 깨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한다. 나는 이 시대에 나의 계시와 말씀을 그들의 행실로 증거할 운명을 지닌 영혼들을 찾고 있다.

7. 나를 통해 표징을 받은 이들이 나의 법에 따라 하나가 되면, 땅과 별들이 흔들릴 것이며 하늘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때에 주님의 목소리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들릴 것이며, 의인과 예언자, 순교자들의 영들에 둘러싸인 그분의 신성한 영이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성령의 시대가 그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26, 43-44)

8. 많은 민족들이 물질주의의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였고, 다른 민족들은 추락 직전에 있다. 그러나 그 추락의 고통은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할 것이다.

9. 한때의 영광을 누리다 쇠퇴를 겪고 고통과 악덕, 비참함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바로 그 나라들이다. 오늘날 죽음과 혼돈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이다.

10. 민족들의 교만은 나의 공의로 인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니네베, 바빌론, 그리스, 로마, 카르타고를 기억하라. 그들 안에서 너희는 신성한 공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1. 사람들이 권력의 지팡이를 쥐고, 그들의 마음이 불경, 교만, 그리고 무모한 정욕으로 가득

차게 내버려 두어, 그로 인해 자기 백성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갔을 때마다, 나의 정의는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권력을 박탈하였다.

12.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들 앞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비추는 횃불을 밝혀 두었다. 시련의 순간에 내가 그들을 그들 자신의 힘에만 맡겨 두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105, 45-47)

13. 인간은 심연에서 심연으로 영적으로 추락하여, 나를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곧 자신의 본질인 영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극단에 이르렀다.

14. 오직 나의 자비만이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기 위해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하는 고통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나의 사랑으로 내 자녀들의 길에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다. (173, 21-22)

15. (대홍수의) 물이 더 이상 땅을 덮지 않게 된 그날,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 창공에 평화의 무지개를 빛나게 하셨다.

16.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오, '제3의 시대'의 인류여, 너희는 바로 그 모든 시련을 겪으며 정화된 바로 그 존재들이라. 너희는 머지않아 새로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17. 그러나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과, 이 시대에 내가 내 뜻을 알게 한 온 인류를 경고하러 왔다. 잘 들어라, 내 자녀들아: 여기 방주가 있으니, 그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18. 오 이스라엘아, 너에게 방주는 내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에 내 계명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방주 안에 있을 것이며, 강해질 것이며, 내 사랑의 보호를 느낄 것이다.

19. 그리고 온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말하노라: 방주는 나의 사랑의 법이다. 이웃과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302, 17-19)

20. 나는 너희가 준비할 시간을 항상 주었고, 너희를 구원할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한 시대나

한 시기가 끝날 때 너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나의 심판을
보내기 전에, 나는 너희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며 회개와 개선,
선을 행하도록 권면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나타내었다.
21.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나는 너희가 이미
회개했는지, 준비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악과 불순종 속에 머물러
있는지 묻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22. 나의 심판은 정해진 시각에
찾아왔으며, 제때에 방주를 지을
줄 알았던 자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예고되었을
때 조롱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323, 51)

악의 권세와 지배는 깨어질 것이다

23. 지금까지 세상에서 승리해 온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다.
인류의 태초부터 그랬듯이,
지배하고 승리해 온 것은
폭력이었다. 사랑했던 자는 악의
희생양이 되어 패배했다.
24. 악은 그 왕국을 확장하고 땅
위에서 강해졌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와서 그 세력들에
맞서 내 무기를 휘두르리니,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정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리라.
25. 그 전에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에게 내 영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전쟁을 치르고
모든 악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33, 32-33)
26. 사람들은 자기 길의 끝에
이르러 그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그들이 뿌린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속에 회개가 솟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굶주린
늑대들이 양들을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46,
65-66)
28. 육체적이지 않은 나병이 땅에
퍼져, 마음을 갉아먹고 믿음과
덕을 파괴하고 있다. 사람들은

영혼의 누더기를 뒤집어쓴 채 살아가며, 사람들은 물질 그 이상을 보지 못하므로 아무도 이 비참함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29. 그러나 양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마치 너희가 주님의 날이나 그분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때 어떤 이에게는 수치심이 솟아오르고, 다른 이에게는 회개가 솟아오를 것이다.

30.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타오르는 듯 뜨겁고 무자비한 그 목소리를 통해, 내면에서 삼키고, 파괴하며, 정화하는 불을 느낄 것이다. 이 심판의 불 앞에서는 죄도, 순수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다. 오직 영혼만이 신성한 힘을 부여받았기에 그 불길에 견딜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의 불길을 통과한 영혼은 자신의 잘못에서 정화되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82, 58-59)

31. 인간이 초래한 모든 고통은 하나의 잔에 담겨, 그것을 일으킨 자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통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자들은 그때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떨게 될 것이다. (141, 73)

32. 잠시 동안 하늘이 모든 이에게 닫혀야 하며,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오직 한 분임을 깨닫고 땅에서 단 하나의 외침이 올라올 때 비로소 다시 열려야 한다.

3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 형제 살해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에 맡기고, 그 속에서 사랑과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때까지 정화할 것이다. 오늘날 자기 민족을 파멸로 이끌고, 현재 온갖 악덕을 뿌리고 퍼뜨리며, 불의의 왕국을 세운 자들에게도, 나는 속죄의 사명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타락을 근절하며, 악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도록 명할 것이다. (151, 14 + 69)

34.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를 행사하며 발전의 길을 왜곡하여, 자신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잊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는 미덕과 사랑, 선과 평화, 형제애가 자신의 본성에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타락하여, 이기심과 악덕, 죄를

가장 자연스럽고 허용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35. 새로운 소돔이 온 땅에 퍼져 있으며, 새로운 정화가 필요하다. 선한 씨앗은 구원받을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형성될 것이다. 회개의 눈물로 적셔진 비옥한 밭에 내 씨앗이 떨어질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 더 높은 형태의 경배를 드릴 미래 세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울 것이다. (161, 21-22)

36. 나는 사람의 손이 파괴와 죽음과 전쟁을 가져오도록 허락하겠지만,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의와 타락, 어둠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37. 그때 내 낫이 올 것이며, 그것은 지혜로 내 뜻이 정한 것을 베어낼 것이다. 내 낫에는 생명과 사랑, 그리고 참된 정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백성아, 깨어 기도하라! (345, 91)

38. 예전에는 땅이 눈물의 골짜기였으나, 지금은 피의 골짜기이다. 내일은 무엇이 될 것인가? 죄를 태워버리고, 영혼을 소홀히 한 사랑 없는 사람들의 교만을 무너뜨린 심판의 불길이 지나간, 연기가 자욱한 폐허의 전장이 될 것이다.

39. 마찬가지로 지혜의 성전에서도 과학의 장사꾼들이 쫓겨날 것이니, 그들은 빛을 이용해 이자를 착취했고 진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315, 61-62)

40. 큰 나라들은 오만하게 일어나,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며, 자신들이 창조한 거짓 세상의 허약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지성과 과학을 자랑한다. 내 정의의 가벼운 숨결 하나면 이 인위적인 세상이 사라지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41. 그러나 자신의 업적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의 손일 것이며, 자신이 이전에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일 것이다.

42. 나는 인간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준 인간의 업적만이 남도록 하여, 그것이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계속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모든 것은 나의
무자비한 심판의 불길 속에서
파괴될 것이다.
43. 물질주의적인 인류가
창조하고 파괴한 세상의 폐허
위에, 경험을 기초로 삼고 영적
상승 발전을 이상으로 삼는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이다.
(315, 55-56)

종말론적 전쟁, 전염병, 재앙 및 파괴

44. 너희는 사람들이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비우며 정화되는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언을 연구해 온 자들은
국가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45. 아직 인류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과 전염병이 나타나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일은
남아 있다. 그러나 고통이
인간들에게 절정에 달할 때,
그들은 여전히 “신의 벌이다!”라고
외칠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벌하지 않는다. 너희 가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법칙에서 벗어날 때,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다.
46. 인간의 무분별함이 아니라면
누가 자연의 힘을 풀어놓고
도전했느냐? 누가 내 법칙에
거역했느냐? 과학자들의
오만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고통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난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는 데 쓰일 것이다.
47. 들판은 시체로 뒤덮일 것이며,
무고한 자들조차 죽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불에, 어떤 이들은
굶주림에, 또 다른 이들은 전쟁에
죽을 것이다. 땅은 흔들리고,
자연의 힘은 요동치며, 산들은
용암을 뿜어내고, 바다는 거세게
일렁일 것이다.
48. 나는 사람들이 자유 의지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타락을
저지르게 내버려 둘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경악하여 영혼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느끼게 하려 함이라. (35,
22-26)
49. 과학의 나무는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려 그 열매를 인류에게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인간

외에 누가 그 원소들의 사슬을 풀어 놓았는가?

50. 비록 최초의 인간들도 현실을 깨닫고, 양심의 빛으로 깨어나며, 법칙에 순응하기 위해 고통을 겪기는 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발달하고, 의식이 있으며, 교양 있는 인간은 — 어떻게 감히 생명의 나무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288, 28)

51.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며, 인류의 상당수가 그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과학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질병들이 될 것이다.

52. 온 세상이 잡초로부터 정화될 것이다. 나의 심판은 이기심과 증오, 그리고 끝없는 권력 추구를 제거할 것이다. 거대한 자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53. 나라들이 황폐해지고 광활한 땅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너희 마음에 울리는 경종일 것이다. (206, 22 24)

자연과 지진해일

54. 인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는 데 써온 모든 것을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루는 데 썼더라면, 너희의 삶은 아버지의 축복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쌓아 둔 부를 파괴와 고통, 죽음을 퍼뜨리는 데 사용해 왔다.

55. 이것이 하나님의 형제자매이자 자녀인 너희가 살아야 할 참된 삶일 수는 없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내가 너희 영혼에 새겨 놓은 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56.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 화산이 분출하고 땅에서 불이 솟아올라 '잡초'를 멸할 것이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며, 홍수가 온 땅과 나라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57. 이와 같이 자연계는 인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연결해 주던 우정과 형제애의 끈을 하나씩 끊어버렸기 때문에, 자연계는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164, 40-42)

58. 인류에게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며, 자연에는 격변이 일어나고, 원소들은 족쇄를 끊어

버릴 것이다. 불은 광활한 땅을 황폐화시키고, 강물의 물결은 제방을 넘쳐흐르며, 바다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59. 물의 홍수 속에 묻혀 버리는 지역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땅들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생명체가 목숨을 잃을 것이며, 인간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들도 멸망할 것이다. (11, 77)

60. 자연의 힘들은 세상에 들이닥쳐 지구를 정화하고 정결하게 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 민족이 죄가 많고 교만할수록, 그들에게 내릴 나의 심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61. 이 인류의 마음은 굳고 귀가 먹었다. 그들이 양심의 목소리, 율법과 신성한 정의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면, 그들에게 고난의 잔이 닥쳐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다. (138, 78 79)

62. 지구를 인간의 더러움으로부터 정화시킨 그 대홍수와 소돔에 내린 불은, 오늘날 너희가 전설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시대에도, 공기와 물과 불의 힘으로 지구가 흔들릴 때 인류가 어떻게 뒤흔들릴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방주를 보내리니, 그것이 곧 나의 율법이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63. 심판의 때에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는 모든 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 오직 이웃에게 늘 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만이 그러하리라.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57, 61-62)

64. 새로운 대홍수가 닥쳐와 인간의 타락으로 더러워진 땅을 씻어낼 것이다. 그것은 거짓 신들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오만과 불경건의 탑인 그 건물의 기초를 돌 하나하나씩 파괴하며, 모든 거짓 가르침과 그릇된 철학을 말살할 것이다.

65. 그러나 이 대홍수는 예전처럼 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손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 자신에게 맞서게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리고,

스스로를 벌하며 심판한다. (65, 31)

66. 자연의 왕국들은 정의를 외칠 것이며, 일단 그 힘이 풀리면 지구의 일부가 사라져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사라져 그 자리에 땅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67. 화산들은 심판의 때를 알리기 위해 분출할 것이며, 온 자연은 격렬한 움직임에 휩싸여 뒤흔들릴 것이다.

68. 너희가 선한 제자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는 삼위일체-마리아 영성 교리가 마음속에 퍼져 나갈 적절한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60, 40-41)

69.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사라지고, 혼돈을 살아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될 일부만 남을 것이다. 너희는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38, 24)

70. 착각하지 마라. "여섯 번째 봉인"이 끝나기 전에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별들은 의미심장한 징조를 보일 것이며, 지상의 민족들은 신음할 것이며, 이 행성의 3분의 2는 사라지고 오직 1분의 1만이 남을 것이며, 그곳에서 성령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싹트게 될 것이다.

71. 인류는 그때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언어, 그리고 평화와 형제애라는 하나의 유대로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250, 53)

72. 나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 말하노니, 너희는 그 고통을 점점 더 키우고 있으며,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넘쳐흐를 것이다.

73. 나는 결코 내 자녀들에게 그런 잔을 건네지 않을 것이나, 나의 공의 안에서 너희가 너희의 악의와 교만, 그리고 경솔함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너희가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74. 사람들은 과학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나의 권능과 공의를 거역하였으며,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무자비할 것이다.

75. 원소의 힘들이 풀려나고, 우주는 뒤흔들리며, 땅은 진동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닥칠 것이며, 그들은 도망치고 싶어 하겠지만 도망칠

곳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풀려난 힘을 다스리려 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너무 늦게 후회하며, 형벌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찾게 될 것이다. (238, 15-17)

76.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안다면 —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덜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의 시기가 닥쳐오도록 내버려 둔 채, 눈멀거나 나태한 상태를 고집해 왔다.

77.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깨우쳐,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예고되었던 그 큰 고통들을 피하게 하리라.

78. 오직 너희 삶의 개선을 통해서만 너희는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그 힘이나 능력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나 기도만이 운명의 타격과 삶의 역경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믿음과 기도는 덕이 있고 순결하며 선한 삶과 함께해야만 한다. (280, 14-15, 17)

79. 머지않아 세상에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땅은 흔들릴 것이며, 태양은 이 세상에 표면을 태워버릴 만큼 뜨겁고 불타는 광선을 내리쬐게 될 것이다. 대륙들은 한 극에서 다른 극까지 고통에 시달릴 것이며, 온 지구가 정화될 것이고, 그 가혹함과 속죄를 느끼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80. 그러나 이 거대한 혼돈이 지나간 후, 민족들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며 자연의 힘도 가라앉을 것이다.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그 "폭풍우 치는 밤"이 지나면 평화의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며, 모든 것이 그 법칙과 질서, 조화로 돌아갈 것이다.

81. 너희는 다시 하늘이 맑고 들판이 비옥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강물은 다시 맑아지고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다.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들판에는 꽃이 피며, 수확은 풍성할 것이다. 정화되고 건강해진 인간은 다시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의 승화와 나를 향한 귀환의 길이 평탄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82. 모든 이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목격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근본적으로 깨끗하고 정화될 것이다. 이는 내가 새로운 인류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351, 66-69)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와 자비

83. 세상에 심판이 온전히 느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심판받을 것이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자들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나의 신성한 저울에 달릴 것이다.

84. 그러나 정의와 보복을 혼동하지 말며, 보상과 처벌을 혼동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는 것은, 그 맛과 효과를 통해 그것이 선한지 해로운지, 너희가 선한 것을 뿌렸는지 악한 것을 뿌렸는지 분별하게 하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85.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 흘린 무고한 피, 과부와 고아, 그리고 추방당하여 비참과 굶주림 을 겪는 자들의 슬픔과 눈물 — 이 모든 것이 정의를 외치고 있으며, 나의 완전하고 사랑스럽지만 무자비한 정의가 모든 이에게 내릴 것이다. (239, 21-23)

86. 나의 정의는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고 모든 인간에게 미치리니, 마치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임하여 나의 심판을 집행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표시를 한 자들만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으리라.

8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깨어 있고 구세주이시며,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 속죄의 길을 완수하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신성한 어린 양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니, 이는 내 피가 사랑의 망토처럼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 또는 모독하는 자는 자신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재앙을 당할 것이다. (76, 6-7)

88.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에게 향하는 구원의 외침이 치솟아, “나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가 망해가고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에게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나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명해 주리라. (294, 40)

89. 너희 삶의 일상적인 흐름은
갑자기 거센 폭풍에 휩쓸릴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무한한
공간에서 한 별의 빛이 비칠
것이며, 그 광선은 육신을 입은
영혼이 영원에 대해 성찰하는 데
필요한 평화와 빛, 그리고 평온을
선사할 것이다. (87, 52)

심판의 영향

90. 인간에게 모든 것이 끝났고,
죽음이 승리했거나 악이 만연해
보이는 순간, 어둠 속에서
존재들은 빛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죽음에서 참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며, 파멸의 심연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따를 것이다.

91. 모든 이가 그 심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정욕과 야망, 증오의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여
새로운 소돔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들은 많은 죄를 지었으나
제때에 멈춰 서서, 시기적절한
회개와 완전한 갱신을 통해 많은
눈물과 고통을 피하게 될 것이다.
(174, 53-54)

92. 인류의 그 모든 도덕적, 물질적
구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오점을 지우고,
모든 죄를 제거하며, 오직 선한
씨앗을 품은 것들만 남기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3. 나의 현존과 나의 정의가
발하는 빛의 광채는 온 땅에 비칠
것이며, 그 빛을 마주하여
우상들은 쓰러질 것이며( ), 익숙한
전통들은 망각의 늪에 빠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의식은 버려질
것이다. (292, 33-34)

94.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단 하나의
문만이 열려 있을 것이다. 바로
영성화의 문이다.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오만과 허영,
저급한 정욕,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95. 사람들이 그 큰 전투에서
마셔야 할 잔은 매우 쓰라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잔을 마시고 정화된 자로서 이 땅을 떠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돌아올 때, 그들의 메시지는 빛과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89, 60-61)

96. 그 쓰라림이 가득한 "마지막 전투들"과 "마지막 회오리바람들"은 아직 닥치지 않았다. 모든 힘이 소용돌이치고 원자들이 혼돈 속에서 맴돌게 되어, 그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죽음처럼 보이는 무기력, 피로, 슬픔, 그리고 혐오감이 찾아올 날은 아직 남아 있다.

97. 그러나 그때야말로 감수성이 예민해진 영혼들 속에서 나팔 소리의 울림이 들리는 순간이 될 것이며, 그 소리는 저 세상에서 너희에게 선의의 사람들 가운데 생명과 평화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98.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아버지는 긴 여정에 지치고 거대한 투쟁에 지친 "탕자"들을 맞이하시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들의 영혼을 인치실 것이다.

99. 그 "날"부터 인간은 전쟁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서 증오와 원한을 몰아내고, 죄를 쫓아내며, 속죄와 재건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빛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100. 그것은 은혜의 시대, 평화의 시대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101. 석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과학의 시대도 지나갈 것이며, 그 후 인류 가운데서 정신의 시대가 꽃피게 될 것이다.

102. 생명의 샘은 사람들이 선의 과학, 정의, 그리고 사랑에 굳건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대한 비밀들을 드러낼 것이다. (235, 79-83)

XIII 세계와 창조의 변화와 완성

제56장 -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의 승리와 인정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한 영적 가르침의 전파

1. 이 시대에 나의 법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과 고통, 비참함의 대홍수 물이 쏟아져 나올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의 영성, 환대, 그리고 평화에 이끌려 긴 행렬을 지어 이곳으로 올 것이며, 그들이 이 계시를 알게 되고 내가 성령으로서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되면, 나도 그들을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부를 것이다.

2.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어, 형제들에게 내 말씀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게 할 나의 사자들이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을 알기 위해 이 나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니, 많은 이가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10, 22)

4. 너희는 모두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더 나은 시절을 약속한다.

5.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화 이후, 내가 보내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들은 순결한 영혼을 지닌 자들로, 순종하는 인류 가족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6. 너희 세대 이후로 네 세대가 더 지나야 내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310, 50)

새로운 말씀의 인정을 위한 투쟁

7. 오늘은 나를 둘러싼 무리가 적지만, 내일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 다가와 내 가르침에서 오류를 찾아내어, 대중의 여론을 내 사역에 대항하도록 선동할 것이다. 그들은 내 사역을 파헤치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꿰뚫어 보일 것임을 알지 못한다. (66, 61)

8. 그 당시 나를 심판한 이는 세 명의 재판관, 곧 안나스와 빌라도와 헤롯이었으며, 백성들이 나에게 판결을 집행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나의 재판관이며, 이 시대에 내게 고통을 줄 자들의 수는 더욱 많으리라.

9. 그러나 사람들이 내 율법과 내 가르침을 더 혐오할수록 — 그것들이 가장 심하게 박해받고 거부될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니, '제2의 시대'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다. (94, 67)

10. 이 시대에 내가 전한 말씀이 겉보기에는 지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짧은 기간이 있을 것이다.

11. 그러면 사람들은 영적 가르침을 지어내고, 새로운 법과 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스승, 사도, 예언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할 것이며, 나는 한동안 그들을 말하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거둘 때 그들이 무엇을 뿌렸는지 깨닫게 하리라.

12. 시간과 자연의 법칙이 그들의 씨앗 위로 지나갈 것이며, 그 과정은 이 모든 인간 자녀들에게 심판과 같을 것이다.

13. 세상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임수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시기에 너희에게 전해 준 진리와 생명의 본질이, 그 온전한 순수함과 영성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106, 9-10)

성령의 가르침의 힘

14.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것은 빛의 시대이며, 그 존재는 모든 사람의 영적 여정에서 정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깨어나고, 성찰하며, 전통과 광신, 그리고 오류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어떤 이들은 더 일찍, 어떤 이들은 더 늦게, 그러나 점차 모든 종교와 종파는 보이지 않는 성전, 곧 내 사역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성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은 모든 민족과 세대의 사람들을 기다리며, 끝없이 솟아오르는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다.

16. 모든 이가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 내 성소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구든 똑같이 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정점이 완성되면, 모든 이는 동일한 법 아래 하나로 연합하여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아버지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12, 94-96)

17. 내가 길러내고 어둠과 무지에서 구해낸 백성과 함께, 나는 과거에 주어진 예언들을 성취할 것이며, 나의 증거와 기적 앞에서 세상은 떨게 될 것이고, 신학자들과 예언 해석자들은 그들의 책을 불태우고 이 계시를 연구할 내적 준비를 할 것이다. 학위를 가진 자들, 학자들, 왕권과 왕관을 가진 자들은 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발걸음을 멈출 것이며, 많은 이들이 말하리라.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 (84, 60)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씀은 너희 현세와 너희 삶의 전모를 변화시킬 것이다.

19.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세상과 그 즐거움은 삶의 의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은 육체보다 영혼을, 옷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세속적인 영광을 좇는 대신 영혼의 불멸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20. 처음에는 영적인 것을 위한 광신주의가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추구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영성화는 진리와 순수함으로 꽃피게 될 것이다. (82, 30-31)

21. 나의 가르침은 세상에 큰 변혁을 일으킬 것이며, 풍속과 사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내가 머지않아 지상에 보내게 될 영혼들은 이 모든 예언들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해설하고 그 일들을 묘사하여, 이 세상의 회복과 상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52, 71)

22. 나를 볼 수 없었으나,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았기에 결국 나를 보게 된 모든 이들의 영혼으로부터 “새로운 노래”가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는 자는 언제나 나를 찾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3. 나를 부인하고, 나를 피하고, 내 이름을 숨기고, 내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길 위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할 시련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292, 35-36)

24.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거센 강물처럼, 영성주의자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만들어 낼 물결도 그러할 것이다. 그 힘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에 방해물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물살에 휩쓸려 갈 것이다.

25. 이 땅에서 누가 영혼의 발전이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막을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절대적인 권능과 공의를 지닌 유일한 존재는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모든 영혼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정하셨다.

26. 만일 사람들이 잠시 동안 나의 신성한 법들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인 삶에 있어 죽은 자들조차도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나의 목소리를 듣게 하리라. (256, 40-42)

27. 인류가 그제야 나의 가르침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가르침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신성한 정의( )와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확실한 길이자 인도자라는 믿음을 굳게 갖게 될 것이다.

28. 이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면, 부모에게는 덕을, 부부에게는 충실함을, 자녀에게는 순종을 북돋아 주어 가정 생활을 밝게 비추고, 교사들에게는 지혜를 채워 줄 것이다. 통치자들은 관대해질 것이며, 재판관들은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다.

학자들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이 빛은 인류의 복리와
영적 발전을 위한 위대한
비밀들을 그들에게 밝혀 줄
것이다. 이와 같이 평화와 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349, 35)

전 세계에 퍼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인식

29. 사람이 심연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투쟁과 고통에
지쳐 스스로를 구원할 힘조차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약함과
절망, 실망의 심연에서
영으로부터 비롯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놀랍게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해방의 시간이 왔음을 깨닫게
되면, 그는 날개를 펼치고 허영과
이기심,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의
잔해 위로 떠오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기, 버림받은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곳곳에서,
매일매일 헛되이 죽이려 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오신다.” (154, 54)

3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때 왕들조차 내가 태어난
비참한 처지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그 소박한 방식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놀라게
될 것이다. (307, 52)

31. 현재 인류는 준비 단계에 있다.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의가 그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만과 오만한 물질주의 속에서,
자신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사건들을 우연의 결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머지않아 나의
부르심이 그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그들의
오만과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33.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위한 십자가의 시간이 될 것이니,
그는 큰 실망 끝에 잠시 동안
절대적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자신의
독선적 자만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지, 자신의 이념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34. 그러나 이 혼란의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니, 그때 내 사자들이 나타나 내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35. 과거에 내 가르침의 사자들이 동쪽에서 출발하여 내 말씀의 지식을 서쪽 으로 전했던 것처럼,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 때 세상은 다시 내 사자들이 민족들과 가정에 이 메시지의 빛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6. 이제 빛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일 것인가? 그 때문에 그들은 내 사자들이 내 이름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334, 42-45)

37. 나를 인정하지 않는 종족들이 있고, 내 법에서 완고하게 멀어지며, 내 가르침을 알기를 원치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여겨 그에 저항하는 민족들이 있다.

38. 나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야말로 세속적인 자유를 고집하는 자들이다. 또한 종종 관대함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

39.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에게는 나의 정의와 시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마치 경작할 수 있는 밭과 같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마침내 비옥하게 만들고, 경작이 끝난 후 그 안에 씨앗, 즉 나의 사랑과 정의와 빛의 영원한 씨앗을 심기 위해 날마다 찾아온다.

40. 그 민족들은 나를 사랑으로 말할 것이며, 그 인종들은 그때 나를 희망으로 삼을 것이며, 이 인류의 모든 민족의 영혼 속에서 환호하는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니, 그것은 모든 사람의 유일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합창이리라. (328, 12)

제57장 - 모든 영역에서의 회개와 변화

새롭고 더 깊은 깨달음

1. 영적 계시가 사람들에게 빛나는 길을 밝혀 주어, 그들이 창조의

품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알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2. 내 영의 빛은 너희에게 참된 과학을 습득하는 방법을 밝혀 줄 것이니,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피조물들과 창조의 자연력으로부터 인정받고 순종을 얻어, 인간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직 영으로 깨달음을 얻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연약함에 그 힘과 빛을 부과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22, 19)

3. 사람들이 영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이미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신자라고 여기는 많은 이들은 믿지 않고, 보는 줄 아는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삶에 속한 영적 존재( )를 세상의 열매로 계속 먹여 살리는 것이 유치하고 불공평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그러면 그들은 종교 속에서 빛을 찾게 될 것이며, 영혼의 고뇌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속에서 교리의 허위를 제거하고, 다양한 종교 의식에서 발견되는 모든 피상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을 뿌리 뽑아, 마침내 신성한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03, 42)

5. 인류는 계속해서 증오와 폭력, 이기심을 뿌리는 것에 분명 지쳐갈 것이다. 그들이 뿌리는 증오의 씨앗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여, 그 수확을 거둘 힘조차 부족해질 것이다.

6. 이 예기치 못한, 그리고 인간의 힘을 초월한 결과는 그들이 숨 막히고 광기 어린 질주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 후 나는 모든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여, 오직 이기심만이 있던 곳에 이웃 사랑을 피워나게 할 것이다.

7. 사람들은 다시 나에게 모든 완전함과 전지전능함, 그리고 지극한 공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 없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무의 잎사귀와 생명체, 별들이 우연히

움직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71, 30)

8. 내 목소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인류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은 비록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들 안에 존재해 왔던 무언가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일어선 후,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영일 것이다.

9. 그러면 지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아래에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 고양의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1, 38-39)

10. 이성이 더 이상 영을 자극하여 과학을 관찰하고 심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성을 고양시키고 인도할 때 비로소 인간은 현재 탐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지성을 영성화하자마자 그에게 계시되도록 예정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5, 37)

11. 나는 너희에게 모든 곳, 모든 나라, 모든 대륙에 빛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빛은 인간의 영적 수련에 따라 비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 창조에 대한 새롭고 더 정확한 관념, 영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적·정신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200, 41)

12.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을 완성하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 섬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며, 인간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법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류는 영적, 지적 측면에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91, 25)

13. 인류를 이루는 민족들의 마음속에 이 나의 씨앗이 싹트면, 사람들의 삶에는 절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과거 사람들의 삶의 방식, 믿음, 숭배, '투쟁', 사고방식과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인간적인 삶과 영적인 신 숭배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얼마나 클 것인가.

14. 광신과 우상 숭배, 물질주의, 그리고 터무니없는 신앙 교리가 만연했던 그 시절의 흔적은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 자신이 다가올 세대에게 물려주는 모든 오류는 제거될 것입니다. 선과 진리의 본질을 지니지 않은 모든 것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려받은 모든 선한 것은 그들이 보존할 것입니다.

15. 과거보다 더 영적인 형태로 제시된 이 가르침은 사람들, 민족들, 교회들, 그리고 종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내리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짧은 혼란의 시기가 지나가면, 평화가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며, 그들은 내 말씀이 본래 품고 있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할 것이다.

16. 나의 신성, 영적 삶, 그리고 너희 존재의 목적에 대한 관념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이 너희 스승과 그분의 사자들, 예언자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잘 해석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7. 그 표현 방식은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이해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점차 커지는 영적 및 이성적 수용 능력에 맞춰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알고 싶어 했기에, 오직 영적인 방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에 물질적인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모순과 잘못된 관념에 얽매이게 되었다. (329, 22-2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한 계몽

18. 나는 너희 가운데서 살게 될 큰 빛의 영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지구에 다가와 육신을 입고, 회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19. 그 영적 존재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되면 — 너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20. 너희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과학자나 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며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바른 길을 마음속에 새기게 할 것이다.

21. 그 품에 이러한 영적 존재 중 한 명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복이 있으리라. 내 사자들의 사명 완수를 방해하려는 자들이 짊어지게 될 속죄의 짐은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238, 30-31)

22.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에는 큰 빛을 지닌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의 길을 비추고 너희 삶에 사랑을 뿌려 줄 것이다.

23. 인류는 언제나 지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누려왔으나, 이제 너희가 만들어낸 거짓된 세상을 없애고, 평화가 깃들며 진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고귀한 빛의 영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올 것이다.

24. 그들은 사람들의 악의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사자들 중 누구도 박해와 조롱, 적대감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는 그들의 지상에서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5. 그들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질 것이다. 아버지의 의로 가득 찬 그들의 말씀은, 겸손이라는 영혼의 옷을 허영과 오만, 거짓 권력과 거짓 영광이라는 호화로운 옷으로 바꿔 입은 모든 자들의 교만과 자만심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이다.

26. 이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사자들을 가리킬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 종들이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 그들이 세상에 가져온 진리에 대한 위대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7. 너희는 현재 그들이 인간 삶의 어떤 길에서 나타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이들은 거대한 종교 공동체의 품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통합과 영적 조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8. 다른 이들은 과학자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들의 영감의 결실을 통해 과학의 진정한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영적 완성이지, 인간의 비참화와 파멸이 아님을 보여 줄 것이다.

29.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법을 마음에 품고, 말과 행실로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확증할 나의 종들이 드러날 것이다. (255, 43-47)

인간의 변화

30. 나는 너희에게 예언적으로 새로운 세상과 영성화된 인류를 알리나, 이 말씀이 알려지더라도 다시금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31.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의 교만은 폭풍우와 홍수, 전염병과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인류의 비통한 울부짖음이 우주를 뒤흔들 것이다.

3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새로운 지구 주민들은 자기 성찰과 영성 수양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난 세대가 그들에게 물려준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의 보물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신성한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33. 모든 영혼에는 신성한 씨앗이 존재하는데, 이는 그 영혼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이 부모의 외모나 성품을 물려받듯이, 영혼들도 마침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즉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320, 9-11)

34. 새로운 대홍수 이후, 무지개가 평화와 인류가 주님과 영적으로 맺게 될 새 언약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다.

35. 너희는 힘든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너희 모두는 악의 용과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용의 무기는 명예심, 증오, 세속적 권력, 방종, 허영, 이기심, 거짓, 우상 숭배, 광신주의 등 — 모두 인간의 마음에서 태어난 악의 세력들이다. 너희는 이 세력들을 물리칠 때까지 큰 용기와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36. 너희의 빛의 무기로 너희 열정의 용이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비록 같은 세상이지만,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모든 행위에 영성화의 이상을 불어넣음으로써, 그 세상을 자신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37. 마음은 고귀해질 것이며, 사람들의 이성은 깨달음을 얻고, 영은 자신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은 번성할 것이며, 모든 고양된 것은 인간 행위의 씨앗이 될 것이다. (352, 61-64)

38. 인간은 심연까지 추락하였고, 양심은 그곳까지 그를 따라가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왔다. 머지않아 이 목소리는 너희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39. 그러나 이는 인류가 오만과 물질주의, 그리고 죄악의 심연에서 벗어나, 회개의 눈물 강물 속에서 자신을 씻고, 영성화의 길로 나아가 발전하기 시작하게 할 것이다.

40. 나는 모든 내 자녀들을 도울 것이니, 이는 내가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부활이자 생명이기 때문이다.

41. 내가 오늘 인류에게 제시하는 그 삶 안에서, 사람들은 내 뜻을 행하며 사랑으로 인해 자유 의지를 포기할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종도 노예도 아니라 참된 하느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사랑과 지혜의 열매인 참된 행복과 완전한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79, 32)

4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제3의 시대"에는 — 비록 너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 인류의 갱신과 구원은 어렵지 않을 것이니, 구원의 역사는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43. 내 사랑이 사람들을 빛과 진리의 길로 다시 이끌어 줄 것이다. 모든 마음속으로 은밀히 스며들어,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고, 모든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사랑은, 단단한 바위를 감수성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완고한 죄인들을 선과 평화와 선의를 지닌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이다.

44.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보다 너희 영혼의 발전을 더 잘 아는 이가 없기 때문이며, 나는 오늘날의 인간이 비록 심한 물질주의와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죄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정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보기에 '육신'과 물질적인 삶에 빠져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의 사랑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는 즉시, 그는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의 길을 따라 나에게로 빠르게 올 것이다. (305, 34-36)

45. 깨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부인했던 자들의 회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참된 길에서 멀어졌던 자들의 귀환을 보게 될 것이다.

46. 파괴의 원소와 힘을 찾는 데 평생을 바쳤던 과학자들은 심판이 다가옴을 느끼면 진리의 길로 돌아와, 세상의 도덕적·물질적 재건에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바칠 것이다.

47. 오만함으로 내 영혼 속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다른 이들은 그들의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나를 본받으려 할 것이다. 또한 한때 민족들을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애쓰게 될 것이다. (108, 39)

48. 내 빛이 모든 마음속에 스며들고, 민족을 이끄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모든 이들이 양심이라 불리는 그 더 높은 빛으로부터 인도와 영감을 받게 된다면, 그때 너희는 서로를 믿을 수 있을 것이며, 형제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빛이 모든 이 안에 있을 것이며, 내 빛 속에서 내 임재와 사랑의 정의가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358, 29)

49. 인류가 다시 내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나, 이는 내 법이 사람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은 언제나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법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50. 이 세상은 내 비유 속의 탕자의 모습을 닮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식탁에 앉혀 음식을 대접하실 것이다.

51. 이 인류가 내게로 돌아올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아직 유산의 일부가 남아 있어, 그들은 그것을 잔치와 쾌락으로 탕진하다가, 결국 벌거벗고 굶주리며 병들어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들게 될 것이다.

52. 세상의 재물을 좇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실망이 완전해지도록, 그리고 마침내 금과 권력, 직위와 육체의 쾌락이 결코 그들의 영혼에 평화와 안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아직 몇 “순간”을 더 허락해 주어야 한다.

53. 양심의 빛 아래에서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이 온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때 학자들과 신학자들, 과학자들과 권력자들, 부자들과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거두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줄 영적, 도덕적, 혹은 물질적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자문하게 될 것이다.

54. 그 시점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지상에서 누렸던 명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적 삶의 열매로만 양육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이 빠진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가 부족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73, 19-20, 57-58)

55. 영성과 사랑이 없는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내 말씀으로 이미 수없이 예언해 온 세대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오늘날 서로를 오해하고, 전쟁을 벌이며, 서로를 파괴하는 이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56. 그때 내 심판이 모든 이를 지나가고 잡초가 뿌리째 뽑히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의 ‘피’가 고통과 회개의 도가니에서 정화되었기에, 더 이상 그 ‘피’ 속에

불화나 증오, 시기심이라는 씨앗을 품지 않을 것이다.

57. 내가 그들을 맞이하여 말하리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던 그대로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덧붙이노니, 구하는 법을 깨달으라. (333, 54)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와 격변

58. 물질 세계인 이 행성은 소멸 직전에 있지는 않으나, 오류와 죄악, 어둠과 잘못된 과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종말은 내 가르침의 빛에 의해 초래될 것이며, 그 폐허 위에 나는 진보와 평화의 새로운 세상을 세울 것이다. (135, 5)

59. 인류가 머지않아 겪게 될 변화는 거대할 것이다. 사회 조직, 원칙, 신조, 교리, 관습, 법률 및 인간 삶의 모든 질서는 그 기초부터 뒤흔들릴 것이다. (73, 3)

60. 인간, 국가, 인종, 민족, 이 모든 이들은 인간의 영혼이 지상의 속박에 지쳐 일어나 물질주의의 사슬을 끊고 영적 해방의 환호성을 지를 때, 신의 부름에 따라야 할 것이다. (297, 66)

61. 내 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적 법과 세상의 법, 즉 영원한 권능과 세속적인 권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올 것이다.

62. 이는 과거와 같이 영혼들을 노예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 빛이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자유이다.

63. 그때 도덕은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고, 진정한 교육의 장이 생겨나며, 너희의 풍습과 관습 속에 영성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양심이 그 목소리를 내며,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신성과 영과 영으로 소통하고, 인종들이 서로 융합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64.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차이점과 분쟁이 사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 비록 너희의 세상이 이토록 작음에도 불구하고 —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에게 통일된 형태의 경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65. 옛 바벨은 너희를 민족과 인종의 분열로 내몰았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영적 성전을 세우는 일은 너희를 그 속죄에서 해방시켜, 너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할 것이다. (87, 10)

66.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토록 뜨거워져, 이 눈물의 골짜기를 조화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며, 전쟁을 막기 위해 자기 희생과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올 것이다.

67.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양시킬 것이며, 인간 삶에서 고통의 잔을 치워 버리고, 지난 세대들이 맹목적인 권력 추구와 물질주의, 그리고 경솔함 속에서 파괴해 버린 모든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68. 그들이야말로 나를 향한 참된 숭배를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즉, 광신이나 겉치레적이고 무익한 의식 행위가 없는 숭배를 말이다. 그들은 인류에게, 인간 법칙과 영적 법칙 사이의 조화, 그리고 그 이행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임을 깨닫게 하려 노력할 것이다. (297, 68-69)

69. 의식과 제단, 그리고 교회 종소리의 시대는 이제 인류 사이에서 끝나가고 있다. 우상 숭배와 종교적 광신주의는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예고해 온 그 투쟁과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다.

70. 그 후 폭풍우가 지나가고 모든 영혼에 평화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기리기 위해 왕궁을 짓지 않을 것이며, 종소리에 이끌려 군중이 모이지도 않을 것이며,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대중을 지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겸손과 형제애, 그리고 인류에게 영적 은사의 평등을 가져다주는 영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302, 37)

71. 오늘날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라는 사명을 띤 추수꾼이 현존한다. 이

거대한 투쟁 속에서 오직 정의와 진리만이 승리할 것이다.

72.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일부는 남을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진리가 빛날 것이나, 다른 곳에서는 오직 기만만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낫은 지상에 있는 모든 씨앗이 가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베어 나갈 것이다. (200, 11)

73. 이것이 내 가르침의 연속이지만, 인간이 해석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주에서 공전할 것이며, 영혼들은 계속해서 지구로 와서 자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을 것이다. 인간들은 앞으로도 이 행성을 채울 것이며, 오직 사람들 사이의 삶의 방식만이 변할 뿐이다.

74. 인간 삶이 겪게 될 변화는 거대할 것이며, 그토록 막대하여 너희에게는 마치 한 세상이 사라지고 또 다른 세상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117, 14)

75. 너희는 모두 그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너희 마음이 예감하는 것처럼 심연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76. 비록 너희가 영성화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겠지만, 죽음도,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이 인류의 삶의 흐름과 영적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죽음보다 강하므로, 너희가 죽게 되더라도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되돌려 줄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너희를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7. 사랑하는 인류여, 내가 너희에게 밝혀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나의 신성한 지혜의 책에는 여전히 많은 놀라움이 준비되어 있다. (326, 54)

제58장 -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과 창조의 완성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을 지배하는 힘

1. 내가 너희에게 그 큰 고통의 시기를 예고했던 것처럼, 혼란이 지나가면 사람들 사이에 조화가 찾아올 것임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2. 교만한 자들,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들, 이웃 사랑과 정의가 없는 자들은 한동안 저 세상에서 머물게 될 것이니, 이는 선과 평화와 정의가 지상에서 발전하고 그 가운데서 영성화와 올바른 학문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50, 39-40)

3. 인간의 삶에서 악은 언제나 선을 억압해 왔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이 승리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사랑과 정의의 법이 인류를 다스릴 것이다. (113, 32)

4. 그 시절 인류 속에 환생하는 영혼들은 대다수가 선에 그토록 헌신할 것이기에, 악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그들 앞에 제시하는 진리의 빛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들은 악을 통해 선한 자들을 질식시키고, 감염시키며, 꽉 묶어두는 힘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292, 55)

5. 그 시절, 오 제자들아,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높은 수준의 영성화에 도달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높은 영적 발달을 이룬 영혼들만을 너희 가운데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너희의 덕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낼 것이다.

6.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은 내가 너희에게 순수한 영혼들을 보내주는데, 너희는 그들을 더럽혀서 내게 돌려주고 있다. (318, 46)

새로운 인간

7.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며, 인류는 가장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서 겸손하고, 물질적 재물은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강하며, 내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한 민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성소는 내면적이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므로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그 길을 비추는
지워지지 않는 빛이 타오를
것이다. 그 삶의 여정과 시련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결코
그로 인해 약해지지도, 불만이나
슬픔으로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사도의 힘을 지녔기에
나에게 등을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러움과 진흙,
죄악에서 벗어나 율법과 덕으로
승화하여 사랑과 은혜의 길을
걸을 것이다. 어디에서나 내 영이
느껴질 것이며, 모든 눈은 나를
바라보고, 모든 귀는 나를 들을
것이며, 모든 이성은 나의 계시와
영감을 깨달을 것이다.

8. 서툴고 무식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나의 예언자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시든 마음에
수정처럼 맑은 물이 될 것이다.

9. 예언자들은 이 물을 지혜와
진리의 근원인 나로부터 길어
올릴 것이며, 그 안에서 사람들은
건강과 순결,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68, 38-39)

10. 나의 왕국은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선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왕국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위에서도, 또한
모든 영적 고향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왕국은 평화와
빛, 은총과 힘,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희는 이 모든 것을 —
비록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
이미 이 생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충만함은
너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선 곳에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08, 32)

1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보다
육체가 더 많지만, 내일은
육체보다 영혼이 더 많아질
것이다.

12.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물질화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그 완전한 물질화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다이아몬드와 같으며,
다이아몬드는 비록 흙 속에
떨어졌더라도 결코

다이아몬드임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230, 54)

13.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의무와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과학과 힘, 재능, 그리고 마음을 나의 신성한 대의에 바칠 것이다. 그들은 영혼과 육신에 유익한 건전한 기쁨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갱신과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타인의 악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타락과 뻔뻔함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영혼은 육신의 껍데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얻게 될 것이며, 비록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더라도 사랑과 형제애, 평화의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4. 그때야말로 전쟁이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상부상조가 넘치며, 너희가 더 이상 이웃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삶도, 자녀와 배우자의 삶도, 이 땅도 너희 소유가 아니며, 온 창조물의 주인은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내 것이 되는 모든 것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15. 그러나 내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자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피조물을 죽이거나, 누군가를 해치거나,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이 아닌 자들은 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빼앗아, 그것에 대해 처분권을 행사하려 하는가?

16.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영적 발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이 세상은 진보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17. 너희는 이 시기가 지난 후 다시 이 행성에 살게 될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은혜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자들을 정할 것이며, 그들은 다른 시대에는 눈물과 파괴와 죽음의 골짜기였던 이 지상의 영역을 보게 될 것이다.

18. 그토록 많은 고통의 증인이었던 바다와 산, 들판은 그때 평화의 장소로, 저 세상들의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19. 나는 너희에게 싸움이 그치면 내 왕국이 이미 너희 곁에 있을 것이며, 그때 너희 영혼이 미덕으로 꽃피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 속에 깃들 것이며, 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1, 28-30)

20. 나는 인류가 순종 가운데 일어설 시대를 준비해 두었다. 너희의 손주들은 내가 이 땅에 쏟아 부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21. 내가 너희에게 지상의 낙원으로 맡겨 준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하고 투쟁해 온 영혼들이 이 행성에 올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신성한 빛이 지구를 비추고, 나의 법이 이 땅에 지배할 것이다. (363, 44)

약속의 땅이자 천국의 반영인 지구

22.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범죄로 얼룩지며, 탐욕과 증오로 훼손된 이 지구는 그 순결함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선과 악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향이 될 것이며, 평화와 형제애, 이해와 고귀한 열망이 넘치는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은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할 시련을 겪어야 한다. (169, 14)

23. 나는 죄와 증오, 악덕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지 않을 것이며, 갱신과 경험, 회개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울 것이며,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며, 죽음 속에서 나는 생명을 창조할 것이다.

24. 비록 사람들이 지구를 더럽히고 모독했더라도, 내일 그들은 선한 행실로 이 고향을 합당하게 만들 것이며, 이곳은 그들이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찾아올 약속의 땅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때 누가 세상의 변혁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82, 44-45)

25. 나는 지금 성령의 성전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워지면, 더 이상 집회소나 교회, 성지 순례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종교적 상징과 의식, 전통과 함께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의 위대함과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교회로서 우주를, 예배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26. 대자연의 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솟아나, 너희의 과학을
번영의 길로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의
음성이신 양심에 의해 올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27.
뇌는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고 깨우칠
성령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126,
35-36)

28. 그때 세상이 다시 해방되어
엘리야의 빛에 이끌려 이 의롭고
선한 삶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생을 넘어 너희를
기다리는 영적 삶의 반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영원히 너희
아버지의 평화와 빛을 누리게 될
것이다.

29.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던 그 지파들처럼,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나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될지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모든 민족이 '광야'로 이끌려 가게
되면, 시련이 그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새로운 만나'가 모든
궁핍한 마음 위에 내려올 것이다.
(160, 39)

30.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되었던 것처럼, 온
땅이 인류에게 분배될 것이다.
이는 때가 되면 — 정화 이후에 —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므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는 정의와
평등이 지배할 것이다. (154, 49)

31. 영성에서 비롯된 도덕성을
지닌 인류의 발전을 상상해 보라.
제한과 국경이 없는 인류를
상상해 보라. 그 인류는 지구가 그
자녀들에게 베푸는 모든 생계
수단을 형제애로 나누게 될
것이다.

32. 인간 과학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상으로 삼고, 인간이
기도에 의해 자신이 추구하는
지식을 얻는다면, 그 과학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라.

33. 사람들이 의식과 외형적인
예배 형식에 의지할 필요 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랑과 믿음,
순종과 겸손의 예배를 나에게
바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지
생각해 보라.

34.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진정한 삶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그들은 평화를 호흡하고, 자유를
누리며, 오직 진리를 담은
것만으로 양육될 것이기
때문이다. (315, 57-58)

35. 사람들의 죄는 지워질 것이며,
모든 것이 새것처럼 보일 것이다.
순결과 순결함으로 가득 찬 빛이
모든 피조물을 비추고, 새로운
조화가 그 인류를 맞이할 것이며,
그때 사람들의 영혼에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36. 태초부터 자녀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어머니 지구는 다시
가장 아름다운 축제 의상으로
단장할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피와
눈물의 들판으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37. 이 세상은 우주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성소와 같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교감을 나누며, 자신의
영혼을 무한한 세계로 들어 올릴
것이다.

38. 내 자녀들의 영혼에는 내 법이,
그들의 마음에는 내 말씀이
새겨질 것이며, 과거에 인류가
악을 즐기고 죄에서 기쁨을
찾았다면, 그때에는 선(善) 외에
다른 이상을 갖지 않을 것이며, 내
길을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다.

3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신의 과학이나 문명을
포기하고, 외딴 계곡이나
산속으로 물러나 원시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는 여전히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가꿔온 과학의 나무의
열매를 누릴 것이며, 그때 그의
영성이 더 커지면 그의 과학 또한
더 커질 것이다.

40. 그러나 세상의 끝 무렵, 인간이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무에서
마지막 열매를 따냈을 때, 그는
예전에는 그토록 위대해 보였던
자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될 것이며, 영적인 삶을

이해하고 느끼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창조주의 업적을 경탄하게 될 것이다. 영감을 통해 그는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삶은 단순함과 자연스러움, 영성화로의 회귀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나의 모든 자녀들은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111, 12-14)

창조의 완성

41. 나는 모든 내 자녀들을 대(大) 우주 심판에 모아 둘 그 골짜기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완전함으로 심판할 것이며, 나의 사랑과 자비가 인류를 감싸 안을 것이며, 그날 너희는 모든 악에서 구원과 치유를 얻게 될 것이다.

42. 오늘 너희가 과오를 속죄한다면, 너희 영혼이 정화되도록 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각자를 위해 마련해 둔 유산을 나로부터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237, 6)

43. 나의 사랑은 모든 사람과 모든 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킬 것이다. 내 앞에서는 인종, 언어, 부족의 차이가 사라질 것이며, 심지어 영적 발전의 차이조차도 사라질 것이다. (60, 95)

44. 나의 영은 모든 영혼 위에 내려왔으며, 나의 천사들은 우주 곳곳에 있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사명을 완수했을 때, 무지는 사라지고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선만이 이 행성을 다스릴 것이다. (120, 47)

45. 내 자녀들이 완성되어 가는 모든 세계는 마치 끝없이 넓은 정원과 같다. 오늘 너희는 아직 연약한 싹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내 가르침의 수정처럼 맑은 물이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 물로 적셔짐으로써 너희는 지혜와 사랑을 점점 더 키워 나갈 것이다; 어느 날 영원 속에서 나무들이 완숙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신성한 정원사가 자신의 사랑의 열매를 맛보며 자신의 업적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314, 34)

46. 나는 투쟁이 끝날 때, 내 모든 자녀들이 영원한 영적 고향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너희 각자가 신성한 일에 건설적으로 또는 회복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창조주인 나의 무한한 행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47. 너희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태초부터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되살아나며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48. 그러므로 수많은 존재들이 오랫동안 길을 잃어 방황했고, 많은 이들이 생명의 업적 대신 파괴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방황의 시간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나빴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속죄를 얻게 되고, 나의 끊임없는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협력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49. 인류가 지구에서 겪었던 몇 세기의 죄와 어둠이, 끝없는 발전과 평화의 시간인 영원과 비교하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자유 의지로 인해 나로부터 멀어졌으나, 양심의 이끌림을 받아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317, 17-20)

50. 나는 가장 거대한 별들로부터 너희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이르기까지, 온 창조물의 경의를 받았다.

51. 모든 것은 발전의 법칙에 따르며, 모든 것은 제 길을 가고, 모든 것은 전진하며, 모든 것은 변화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며, 완성되어 간다.

52. 그러면 그것이 완전함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의 영적인 미소는 온 우주에 끝없는 여명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흠, 모든 비참함, 고통, 그리고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질 것이다. (254, 28)

회복된 창조의 조화를 찬양하는 노래

53. 내 영 안에는 아직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찬양의 노래가 존재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54. 그 노래는 고통과 비참, 어둠과 죄가 사라질 때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이다.

55. 그 신성한 음색은 모든 영혼 속에서 메아리칠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들은 이 조화와 행복의 합창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219, 13)

56. 나는 너희 안에서 승자로서 높이 솟아오르리라 —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너희 안의 악을 물리치는 만군의 왕으로 여기고, 너희 자신을 영적 고결함과 만족, 그리고 영혼의 평안으로 충만한 군인으로 여기기를 원한다.

57. 그러면 가장 위대한 승리, 곧 다가올 그 승리의 순간에 '보편적 조화의 찬가'가 울려 퍼질 것이니, 그 때 너희 아버지나 너희 자신은 사랑으로 인해 '패배자'를 두게 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58. 우리의 "패배자"는 영혼들이 아니라, 악과 모든 어둠, 죄, 그리고 불완전함일 것이다.

59. 아버지의 승리는 어둠과 악에 뿌리내렸던 모든 뒤처진 영혼들의 구원에 있을 것이다.

60. 누군가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리라.

61. 너희가 악마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들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혼들이며, 비록 오늘날 그들이 길을 잃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62. 언제 그들에게 참 빛이 비칠 것인가? 바로 너희가 빛의 영적 군대들과 함께 기도와 사랑과 자비의 행실로 그들의 무지와 죄를 물리칠 때이다.

63. 주님의 위대한 날이 너희 아버지의 날이자 너희의 완전한 행복이 될 것이다. 너희 모두가 언젠가 그분의 식탁에서 영생의 빵을 먹게 될 때, 그 보편적인 잔치가 열릴 것이다. (327, 47-48)

64.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 영광의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영광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공로를 쌓기만 하면 된다.

65.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오직 너희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만을 원한다. (18, 60-61)

66. 존재들을 생동하게 하고 유기체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모든 힘은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세계들을 비추었던 모든 빛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창조의 영역들에 쏟아졌던 모든 아름다움은 다시 아버지의 영 안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다시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생명은 영적 본질로 변하여 모든 영적 존재들, 곧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들을 결코 너희에게서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7. 지혜, 영생, 조화, 무한한 아름다움, 선함,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분과 함께 완전함의 처소에 거할 때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18, 55-56)

XIV 선교의 사명

제59장 -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

책의 제본, 발췌본 및 번역에 관한 지침

1. 이것이 내가 인류에게 말해야만 했던 예고된 때이며, 나는 너희가 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으로 책들을 엮고, 나중에 그 발췌본과 해설을 만들어 너희 이웃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6, 52)

2. 내 말씀을 모아 한 권의 책을 엮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내 가르침의 순수함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얻으라. 전달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에서 오류는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 자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3. 나의 전달자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단지 겉핥기식으로 읽지 말고,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 그 완전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명상하라. (174, 30)

4.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 언어로 듣게 하였으나, 나중에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언어로 번역하라는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다.

5. 이 방식으로 너희는 참된 "이스라엘의 탑"을 짓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모든 민족을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시키고, 너희가 세상에 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알게 된 그 신성하고 변함없으며 영원한 법칙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탑을 말이다. (34, 59-60)

6. 내 말씀이 책으로 엮여 온 세상에 퍼져야 할 때, 그것이 내게서 나온 그대로 순수하게, 오류 없이 인쇄되기를 원한다.

7. 너희가 그것을 책에 그대로 담을 때, 그로부터 인류를 비추는 빛이 흘러나올 것이며, 그 영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19, 47-48)

8. 내가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맡기니,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너희 이웃에게 전하라. 그러나 가르칠 때 결코 격렬하게 논쟁하지 말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삼가되, 순수한 모범만으로도 사람들을 영성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174, 66)

9.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10.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이"라고 말하지 "모든 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들은 '초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바로 그때, 내가 움직이고 영감을 준 너희 입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292, 67)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을 알 권리가 있다

12. 오, 지극히 사랑받는 백성아, 너희는 땅의 여러 길로 나아가야 한다. 보라, 멕시코 민족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아직 내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3. 보라,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면서도 내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14. 그러나 내 신성으로부터
풍성한 은총을 받은 너희, 너희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
앞에서 숨어서는 안 되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거절해서도
안 된다. (341, 16)
15. 지금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다. 그 후, 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닦기 위해 너희가
나서야 할 날이 올 것이다.
16. 그때가 되면 세상은 고통을
통해 정화될 것이며, 내 말씀은 더
이상 낯선 언어로 들리지 않고,
마음과 영혼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17. 나는 너희에게 진리와 사랑에
대해 말하는 이 책을 건네주니,
너희가 이를 온 인류에게 전하길
바란다.
18. 이 땅에 이 계시가 필요하지
않으니 너희가 갈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 어떤 민족이 단지 이름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어떤 나라가 자신의
영성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124, 15-16)
19. 이 메시지가 끝날 때, 나는 더
이상 이 전달자들을 통해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 후에는 미묘한
방식으로 영혼들 안에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20.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새로운 책에
기록된 나의 말씀은, 평화의
씨앗으로서, 참된 지식의
빛으로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악에 대한
치유제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21. 내 말씀은 나의 사자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내 뜻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속에 닿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씨앗을 지키고, 그 씨앗을 위해 흙을 준비하며 길을 닦는 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적절한 때에 그 말씀을 민족들과 국가들, 그리고 가정들에 이르게 하는 이 또한 바로 나일 것이다.

22. 그것은 이미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내 약속들을 기억하여 마음이 기대에 차 있을 때, 자기 위대함, 오만, 물질주의, 허영이라는 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닿을 것이다. (315, 28-29)

23. 나는 내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 나는 그들이 가는 길에서 선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그들이 내 계시를 땅 끝까지 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리라. (323, 75)

24. 너희를 통해 율법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미래를 위한 길을 준비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래야 장차 새로운 세대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인류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5. 이스라엘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다양한 세계관이 생겨난 이 시대에, 종파는 종파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교파들은 서로 싸우고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26. 그러나 너희는 빛과 평화의 자녀들이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진리는 제3의 성서의 뜻 속에 담겨 있으며, 그곳에 이 시대에 주님의 임재와 재림에 대한 증거가 있다.”

27. 너희는 인류에게 이 책을 알려주고, 내 율법을 온전히 이행함으로써 그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 (348, 42 43)

영적 가르침의 전파를 위한 지침

28. 백성아, 깨달아라: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는 이 신성한 계시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메시지를 온전히 충실하고 진실하게 전파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너희는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너희 동료 인간들에게 영적인 길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받고

선택되었다. 그 길은 너희를 평화와 참된 빛,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형제애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270, 10)

29. 인내와 이해심을 가지라. 인류가 인정해야 할 대상은 너희가 아니라 나의 사업, 나의 가르침이며, 이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임무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방법을 밝혀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84, 11)

30. 견고한 땅 위에 세우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안에 세워 놓은 영성과 갱신이 불신자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

31.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이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를 대낮의 밝은 빛 아래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노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씨앗을 잘 지키라. 나는 내 메시지가 지구의 각지로 전해지도록, 너희 양심이 너희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말할 때마다, 너희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 시대에 너희는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하 묘지를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32.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 대해 말하거나 증언할 때 주저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것이며, 너희의 믿음을 불태우기 위해 내가 행한 기적들을 부인할 것이다.

33. 내가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남겨 두리니,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라. “보라, 이것이 스승이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참으로, 내 말씀을 듣는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믿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새롭게 될 것인가!

34. 너희 삶의 시련이 너희를 준비되지 않은 채 덮치지 않도록,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라. (246, 69-70)

35. 너희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그리고 영적 삶과 인간적 삶에 대한

새로운 관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깊이 파고들어 판단할 줄 안다면, 각각은 너희에게 선하고 올바른 부분과, 정의와 사랑이며 완전함인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그릇된 부분을 보여 줄 것이다.

36. 너희가 오류나 무지, 혹은 악을 발견하는 곳에서는, 내 가르침의 본질을 전파하라. 그것은 내 것이기에, 불순물이나 오류와 섞여서는 안 된다.

37. 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며, 포괄적이고 완전하다. (268, 58-60)

38.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씨앗을 진정으로, 내가 맡긴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뿌리는 자들은 평안히 그들의 길을 갈 것이다. 그들의 노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문들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며, 비록 그들이 대적당할지라도 결코 싸움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덕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39. 반면에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나를 배반하는 자들은 언제나 원수들에게 내버려질 것이며, 평안 없이 살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252, 24-25)

40. 백성아, 세상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비록 너희가 오늘은 그 방식을 알 수 없더라도, 나의 사랑의 법이 모든 영혼을 감동시킬 것이다.

41. 이 영적 빛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나, 이는 너희가 강해졌을 때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42. 누구도 이 일이 진리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감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니, 그럴 경우 아무도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확고하고 확신이 진실하다면, 아무도 너희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87, 52-53)

제60장 -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활동하기

새로운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질, 미덕, 그리고 능력

1. 이 시대에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어렵게 보이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가 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것은 어렵지 않다.

2. 모든 시대에 약한 자들은 투쟁을 마주할 때 낙담하지만, 강한 자들은 내 율법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아, 네 운명은 세상에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와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었기에, 때로 너희는 믿음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3.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씨앗을 받아 뿌려라. 너희가 불모지라고 여겼던 밭들 중, 내 말씀의 진리로 비옥해지면 얼마나 많은 밭이 결실을 맺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4. 너희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하지 않는 자는 고의로 율법을 어기는 자만큼이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5.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잊지 말라. 너희가 행한 악한 일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오 모두 너희 영혼에 고통을 초래할 것임을 알라.

6. 내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며, 너희의 사랑의 행실로 그들을 설득하고, 나를 듣도록 초대하라. 그러면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빛이 타오를 때, 나는 그들을 새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66, 14-17)

7. 진흙과 더러움,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봉사와 실천적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나는 내 가르침에 죄인을 새롭게 하는 빛과 은총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내세울 것이다. 이 본보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퍼져 나갈 것이다.

8. 누가 나를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행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들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위선자요 거짓 설교자라고
부르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9. 너희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속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정신은 깨어 있으며, 비록
삶의 물질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라도, 그들은 모든 영적
현상에 대해 예민하다. 그러나
너희가 이웃을 속일 수 없다면,
과연 너희의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느냐?

10. 스승의 사랑이 너희 존재 안에
거처를 삼게 하여, 그분이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들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닻이 될 것이다. (65, 44-46)

11.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 입을 통해 말할 것이며,
너희를 통해 내 말씀을 증거할
것이니, 그 메아리는 세상의
끝까지, 큰 자와 작은 자, 통치자와
과학자, 신학자들에게까지 닿을
것이다. (7, 37)

12.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논쟁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셨다고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로 말하라.

13.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였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숨어 계셨던
육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셨던 살아있는 성전이었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영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그분의 영적 왕국으로 인도할
길을 가르치신다. (88, 62-63)

14. 종파와 교파들의 비판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예언의 책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나를
기다릴 줄 몰랐다. 반면에 너희는
성령으로서 내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렸다. 이제

"제3의 시대"가 도래했으나, 인류는 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33, 26)

15. 이토록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영적 혼란이 극심한 시대에, 어떻게 인류로 하여금 영성을 얻게 할 수 있겠느냐?

16. 너희의 사명이 어렵다는 것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 속에서 강인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7. 너희는 내 법에 대해 내려진 잘못된 해석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숭배의 불완전한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매우 노력해야 한다.

18. 그러나 너희는 사상과 예배의 형태를 순식간에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선의를 갖추고 너희의 행실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226, 60)

19. 오직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로 떠날 수 있으니, 그들은 이 사역의 진리를 증언할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이 사자들이 그들을 기다리는 나라들로 떠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종교적 광신이 지워져 있어야 하며, 아첨이나 찬사를 바라는 사소한 욕망조차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이 행하는 사랑의 일을 위해 세상의 돈으로 손을 더럽히는 일조차 감히 해서는 안 된다.

21. 그들은 기적을 팔아서는 안 되며,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가를 매겨서도 안 된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

22. 너희가 참된 겸손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 너희는 섬기는 법을 알았던 자가 실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임무 속에서 자유로웠으며, 그의 삶에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평화가 함께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78, 11-12)

23. 너희 영혼이 이웃들에게 내 가르침을 전할 준비가 되면, 너희는 그것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를 찾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양심의 목소리를 아주 분명하게

듣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없을 것이다. (169, 36)

24.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래야 나중에 이를 해석하여 이웃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말로 전하고, 본보기를 보이며, 너희의 행실로 가르쳐라. 감수성을 기르라. 그래야 말할 적절한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너희의 행실이 내 가르침을 증언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5.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파할 단 하나의 언어를 주리니, 그 언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다.

26. 이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위로가 되는 언어로, 그들이 마음속에 쌓아 올린 바벨탑을 돌 하나하나씩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게 되므로 나의 심판은 끝날 것이다. (238, 27-28)

27. 너희가 내면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 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영성이 진정할 때 비로소, 그들은 나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6, 38)

28. 내 가르침은 너희의 상상과 이해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의 신성한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내가 그에게 계시하기 전에는, 아무도 내 계시 중 어떤 것도 알고 있었다거나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9. 과학자들이 물질적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겸손한 이들에게 영적인 삶,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 근원, 그리고 설명이 되는 진정한 삶을 계시한다.

30. 너희가 전하는 지식으로부터 사람들이 내 사업에 대해 갖는 관념이 생겨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해가 부족하여, 너희의 초라한 모습에 따라 내 가르침을 평가할 것이니, 마치 '제2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한 외모와 소박한 옷차림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또 그분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도 소박하게

차려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누더기로 몸을 감싼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내 가르침을 통해 영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세상의 허영을 버렸을 뿐이다.

31.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내 사역을 연구하려 하고 너희를 찾아와 질문할 때, 너희가 내게서 받은 지식 때문에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겨 유혹에 빠지지 말라. 너희가 더 겸손하게 행동할수록, 그들은 너희를 더 고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32. 이처럼 광신을 해소하고 영혼을 해방시키는 빛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점차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던 자들은 이 빛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알게 되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영적 삶에 대한 고양된 관념을 그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226, 17-21)

33. 너희는 거짓되거나 단지 겉으로만 꾸민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성숙해졌으며, 그들의 눈을 가리던 장막은 오래전에 이미 벗겨졌기 때문이다.

34. 그들에게 영성을 전하고, 평화를 선사하며, 주변에 안락함과 형제애의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이 너희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말들에는 나의 영감과 힘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35. 너희가 설교하고 평화를 가르칠 때는 너희 자신도 평화로워야 한다. 사랑에 대해 말할 때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느껴라. 동료들이 너희에게 그 열매를 건네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가 접하는 모든 것을 살피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타당하고 옳은 것들에 충실하라.

36. 너희는 또한 종교적 실천에 있어 광신적으로 변해, 그들의 의식을 물질화함으로써 이해력을 저하시킨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넓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이 나의 가르침에 깊이 몰입할 때 그들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을 보여 주어야 한다.

37. 너희는 그들에게 나의 보편적 영에 대해, 영혼의 불멸과 그 끊임없는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참된 기도, 즉 영의 대화를 가르치고, 편견과 오류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사명이다 — 사랑과 인내의 사명이다. (277, 6-7)

38. 육체의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모든 고통을 치유하라. 너희에게는 이웃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묻노라. 너희 자신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 영혼이 근심과 고통, 양심의 가책, 그리고 저급한 정욕으로 뒤엉켜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평화가 흘러나올 수 있겠느냐?

39. 너희가 마음속에 쌓아 둔 것만이 너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이다. (298, 1-2)

40. 나는 너희가 죄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살며, 가시밭길을 걸어도 상처 입지 않고, 잔혹한 행위와 추악한 일들을 목격하면서도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비참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가운데 머물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베풀고 모든 길에 선의 씨앗을 뿌리기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1. 인간의 죄로 인해 지상의 낙원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오점을 씻어내고, 그리하여 삶에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한다. (307, 26-27)

42. 나는 은총의 삶에서 죽은 자들을 사자로 보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중심성에서 마음을 정화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43. 내 말씀의 전령은 나의 제자여야 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내 평화가 느껴지게 해야 한다.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그의 말에서는 언제나 영혼이나 이성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 (323, 60-61)

말씀을 전할 때의 올바른 태도

44. 나의 새로운 제자들은 이 축복받은 씨앗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갖게 될 것이나, 결코 겸손과 소박함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방식이 그러했듯이,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민족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나아갈 때, 너희는 영적 메시지의 전령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너희의 투쟁은 참된 영성, 갱신, 그리고 형제애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82, 66)

45.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한다면, 너희가 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날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한 일들을 돌아보기만 하면 된다.

46.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를 받아들이며, 고된 일과에서 쉬게 하였다. 나는 너희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계급을 판단하는 데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너희 죄의 나병을 깨끗이 씻어 주고 너희의 병을 고쳐 주었다.

47. 나는 너희의 결점을 판단함에 있어 이해심 있고, 관대하며, 자비롭게 대했다. 나는 너희가 이웃을 구원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가르침을 주어, 너희를 참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48. 내가 너희 각자에게 행한 이 일들 속에서, 너희는 육체와 영혼이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서, 곧 너희에게 무리를 지어 찾아올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49. 내가 이곳의 이 백성에게 말할 때, 나는 인류에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의 임무는 내일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구원의 사업을 완성할 나의 말씀을 형제애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258, 21-24)

50.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 누군가 너희를 모욕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 온유하라. 사람들은 너희에게 모욕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내 메시지가 될

너희의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이들은 너희의
부르심에 무감각하고 귀를 막고
있을지라도, 그 대신 다른 이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갱신과 회개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51. 용기와 믿음, 그리고 힘으로
무장하여 싸움에 맞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노니, 너희 동료 중 한
사람과 대화할 때 그가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거나, 그가
공작, 영주, 혹은 장관으로
불린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

52. 세상이 주인이라 부르는 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바울과
베드로를 본받으라. 그들은
영적으로 위대했으나, 누구에게도
주인임을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종임을 고백했다.
그들의 본을 따라 너희 행위의
사랑으로 내 진리를 증거하라.
(131, 60-62)

53. 또한 내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여 이웃을 상처 입히거나,
홀처럼 사용하여 그들을 모욕하는
자는 내 제자라 할 수 없음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을 말할 때 흥분하고
평정을 잃는 자도 마찬가지니,
그는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4. 준비된 제자는 자신의 신앙, 즉
신념의 가장 신성한 부분이
공격받는 것을 보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자일 것이다. 그는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등대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92, 9-10)

55. 죄인을 선으로 인도하려 할 때,
그가 뉘우치지 않으면 나의
심판이나 자연의 법칙, 혹은
고통을 내세워 위협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에게 내 가르침 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줄 뿐이다.
온전히 사랑과 자비와 용서이신
참된 하나님을 보여 주라. (243, 36)

56. 동료들의 조롱에 상처받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는 무지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대가는 너희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가, 나의 참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평화에 놀라게 될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57. 그러나 너희는 종교적 광신으로 우상 숭배자가 된 자들을 결코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비록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를 찾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58.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그 오류를 지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광신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내 가르침을 그것이 요구하는 영성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동료 인간들의 오류를 진리의 빛으로 드러내는 데 충분할 것이다.

59. 인류가 조만간 내 말씀의 영적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에 진정한 경의를 표하며, 모든 인간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며 세속적인 형제를 인식하게 하려면, 너희는 많은 인내와 큰 자비, 그리고 참된 사랑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312, 20-22)

60. 나는 너희에게 무지하거나 눈이 가려진 자의 눈에서 어두운 장막을 벗겨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니, 그에게 해를 끼치거나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도 말이다. 나도 너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자신에게 사랑과 용서, 인내와 관용이 가혹함이나 정죄, 폭력 행사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172, 63)

61. 내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흔적을 남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나설 때, 그들이 너희 말을 듣게 해 달라고 간청하지 말라. 너희의 사명을 품위 있게 수행하라. 그러면 너희를 믿는 자들이 바로 내가 제자로 삼기 위해 선택한 자들이 될 것이다. (10, 50)

말씀 선포의 올바른 방식

62.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준 것은 너희가 거리와 광장에서 선포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실 줄 아셨고, 그분을 시험하려던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셨다.

63. 너희는 작고 연약하니, 그러므로 동료들의 분노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주의를

너희에게 쏠리게 하려 하지 말라
— 너희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라. 또한 모든 사람이
오류에 빠져 있고 오직 너희만이
진리를 알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애쓰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너희의
씨앗으로 아무런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64. 너희가 영적, 도덕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너희의 미흡한
점을 바로잡고, 스승께 겸손히
기도하여 그분의 온유함에서
영감을 얻으라. 그리고 너희의
선행을 결코 드러내지 말라는
그분의 조언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왼손이 오른손이
한 일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
65.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느니라. 내 자비가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끌어 줄
것이니라.
66. 그러나 내 율법을 이행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가 없다면, 그로
인해 근심하거나 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바로 그때가
너희가 곁에 없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며, 너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67. 너희 형제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말라. 너희는 모두
각자의 발전 단계에 맞는
깨달음을 얻게 됨을 이해하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공로가
없는데도 내 빛을 허락한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고
허영심에 빠져 타락할 것이며,
너희의 지혜는 거짓이 될 것이다.
68. 나는 너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앞에서
겸손하려면, 너희 이웃에게도 그
겸손을 보여야 한다.
69. 제자들아, 사랑과 지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는 다른
하나의 일부이다. 어찌하여 어떤
이들은 이 두 미덕을 분리하려
애쓰는가? 이 둘은 성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이를 통해 너희는
내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70.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많은 친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친절과 진심,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오직 이 미덕들의 도움으로만 너희의 영혼이 이웃을 향한 길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미덕들은 모두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가장 깊은 본질 속에 사랑을 품고 있는데, 이는 영혼이 신성한 불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30, 29-36)

71.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도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이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종교 단체나 신앙 고백을 공격함으로써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72.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분노를 일으킬 것이나, 그들은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결국 믿음으로 변모하게 하여, 내가 전하는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135, 28)

73. 내가 내 신성한 메시지를 너희 안에 심어줄 때, 그 메시지는 형제애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 인류의 물질주의적인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진리의 인장을 가져야 한다. 만일 너희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무언가를 감추면, 너희는 제3시대에 내 계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진실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172, 62)

74. 내가 마주하는 인류의 도덕적, 영적 후진성은 얼마나 큰가! 이 시대에 내 말씀의 은총과 빛을 받은 자들의 책임은 얼마나 큰가!

75. 제자들아, 스승이 되어라. 너희 마음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무관심과 나태함을 몰아내라. 너희가 진정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임을 깨달아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자들은 바로 너희이며, 인류가 잊어버린 내 가르침의 원리들을 밝혀내야 할 자들도 바로 너희이다.

76. 너희는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한 그대로 이웃에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할 줄 알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라. 교묘한 웅변으로 감명을 주려는 말을 찾지 말라. 영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소박한 방식으로 말하라. (189, 11-13)

77. 새로운 제자들아, 이 진리에 대해 말할 때 지치지 말라. 두려움 때문에 내 말씀을 입에 담지 못하는 미숙한 입술들아, 결심하는 순간 마음을 열어라. 내 이름으로 한 마디만 해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며, 악에 빠져 반항하게 된 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심연을 메울 수 있다. 너희는 내 말씀이 가진 능력을 알고 있는가? 너희는 너희 권한의 힘을 알고 있는가?

78. 본보기가 되는 행실로 말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내 사역의 그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라.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269, 6)

79. 너희 동료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얕보지 말라.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온 땅에 퍼질 때 비로소 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80.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에는 아직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한 곳이 여전히 있다. 구세주가 그분의 말씀과 피로 너희에게 주신 신성한 사랑의 씨앗을 먼저 받지 않은 채, 오늘날의 이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그 민족들에게 닿을 수 있겠느냐? (288, 44)

81. 너희가 진리를 한 번 이해하고 느끼게 되면,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도 영혼이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 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닦아 놓게 될 것이다.

82. 나는 너희에게 아이들을 맡기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명한다. 그들을 모아, 사랑과 헌신으로 나에 대해 이야기하라.

83. 버림받은 자들, 즉 비참과 악덕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자들을 찾아가라. 나는 너희의 말에 영적인 힘을 주어, 그 말이 너희 입술을 통해 나올 때 구원의 길이 되게 하리라.

84. 무지한 자들 앞에 참된 생명의 책을 펼쳐라.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장하게 하라. 너희 스승과 같아지면, 너희의 말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64, 70)

85. 나는 길을 찾은 자들이 그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동료 인간들에게 그 길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걸림돌로 가득 채워, 나를 찾는 자들이 내게 올 수 없게 막지 않도록 하라. (299, 34)

86. 나는 너희 영성가들에게 인류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쌓아 올린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긴다. 그 장벽은 잘못된 믿음, 영원에 대한 겉으로만 보이는 믿음, 물질화, 그리고 불필요한 숭배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87. 너희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임무는, 비록 자신들이 우상 숭배와 이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그 받침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285, 54-55)

88. 영적 가르침이 마치 무지와 기만, 속임수에 근거한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인상을 없애라. 내 가르침이 지닌 온전한 순수함과 숭고함을 보여 주어,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자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막고 그 자아로부터 모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 무지, 광신, 그리고 완고함을 해소하게 하라. (287, 42)

89. 이 계시들을 받은 너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류에게 나의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아니라면 누가 이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90. 만일 너희가 종교 공동체의 고위 인사나 성직자들이 인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설령 그들이

나를 보더라도 인류에게 “보라, 저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께로 가라!”라고 말하기 위해 입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92, 13)

91.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준 그 시절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다가, 그때서야 일어나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예언된 바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92. 아니, 백성아, 너희가 그것을 미리 알리고, 예언하며,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약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닦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는 지상에서 영성화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 될 것이다.

93. 그때 세상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영이 너희에게 전례 없는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인간의 영이 상상조차 못했던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너희는 모든 신조와 이론, 규범, 제도, 과학이 뒤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때 인류는 겸손하게 겉보기에는 낯선 교리를 설교했던 이들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이 성취되면서 그 진리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94. 그때 너희는 지상의 민족들이 영적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로운 계시들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영적인 것에 대해 늘 무관심했던 많은 이들이 현재와 과거의 계시들을 연구하는 데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16, 16-17)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라는 사명

95.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큰 은사를 맡겼다. 그중 하나는 치유의 은사, 즉 이 은사로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임무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치유의 연고이다. 너희 행성은 언제나 고통이 있는 눈물의 골짜기이기 때문이다.

96. 이 능력을 통해 너희는 내 뜻에 따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넓은 영역을 앞에 두고 있다. 나는 이 치유의 향유를 너희 존재 속, 너희 마음의 가장 섬세한 현에 심어

두었으며, 너희는 그것으로 힘을 얻었고, 그 기적들 앞에서 너희는 고개를 숙였으며, 사람들의 고통으로 너희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너희는 언제나 자비의 길을 걸어왔다.

97. 계속해서 이 치유의 향유를 베풀어라. 그것은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연민과 위로와 이해의 시선을 통해 전달되고, 선한 생각을 통해 전해지며, 유익한 조언과 빛의 말씀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98. 치유의 은사는 한계가 없다. 너희가 그 은사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만일 시련을 겪으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연고로도 그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너희의 고통을 잊으며 고통이 더 큰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 자신과 동료 인간들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11, 18-19)

99.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100.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양육하고, 치유하며,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의 상향 발전을 위한 길을 보여 주라고 가르쳤다.

101.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영혼의 인도자, 의사, 그리고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에는 빛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평화와 위안의 선물이 담겨 있을 것이다. (294, 3-4)

102. 내가 너희에게 치유 연고의 한 방울을 주노니,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큰 전염병이 돌 때, 즉 낯설고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질병들이 창궐할 때, 내 제자들의 권능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103. 나는 너희에게 가장 녹슨 자물쇠, 즉 가장 완고한 마음과 심지어 감옥의 문까지 열어, 무고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를 맡긴다.

104. 너희는 언제나 평화와 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 천사들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의 사명 완수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고, 너희가 내 씨앗을 뿌리기 위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 가정, 병원, 감옥, 불화와 전쟁의 현장까지 —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260, 37-38)

105.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그들 중에는 과학과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도마"가 깨어 있는 눈으로 탐구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도 더듬고 만지며, 오직 그렇게 해야만 나의 현존과 인류 가운데 차례로 일어날 영적 사건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사건들에 대해 증언해야 하며, 그래야만 "제3시대의 토마스"가 그의 의심과 유물론 속에서 나의 사랑에 의해 정복될 수 있다. (319, 38)

106.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일을 시작해야 할지 지시를 내리리라. 왜냐하면 그 때는 너무나 크고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는 때라, 너희는 영적 세계의 부름과 이 세상의 부름을 듣게 될 것이니, 이 세상은 그 사건들을 통해 너희의 싸움의 시간이 왔음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영과 영으로 너희에게 말하며 그 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107. 그러나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나아가기 전에 의사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의 고통을 달래 주면, 그들은 내 말씀이라는 맑은 물의 샘에서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처와 종기, 혹은 병을 찾아내어 그들의 고통을 치유한 뒤에, 비로소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라.

108. "제2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 이웃에게 나아가, 내 말씀 앞에 치유의 향유를 가져다주라. 그러나 그 향유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 제자들아? 혹시 축복받아 병자들을 위한 약으로 변한 샘물의 물인가? 아니라,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연고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곳에 내가 그것을 귀한 정수로

담아 두었으니,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열어 쉼 없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109. 너희가 어떤 병자에게 그것을 부어주고자 한다면, 치유하는 것은 너희의 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위로로 넘치는 그 영일 것이다. 너희가 생각을 두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110. 너희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자연의 존재들과 요소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하노니,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라.

111. 귀신 들린 자들과 인간의 이성으로 혼란에 빠진 자들에 관해서도, 너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 너희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절망과 망각에 빠진 존재들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 권능을 드러내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모든 속박과 불의를 깨뜨리며, 이 세상이 주님을 인식하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자기 자신과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백성의 위대한 사명 중 하나이다. (339, 39-41)

세계 선교를 향한 출발의 시기

112. 세상은 현재 너무나 눈이 멀어 진리의 빛을 알아볼 수 없고,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으므로, 너희는 기도하고 영적 토대를 다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민족이 파괴하고 방어할 준비에 몰두하고 있기에, 너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3. 절망과 증오, 공포와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더욱 눈이 멀게 될 것이다.

114. 그때 역시 내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니, 너희는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외치는 자와 같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23, 27-29)

115. 지구가 한 극에서 다른 극까지 재앙을 겪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 제도, 모든 가정이 뿌리까지 심판받은 후, 그리고

인류가 모든 오점을 씻어낸 후에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가서 내 가르침을 너희 형제들에게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42, 54)

116. 때가 되면, 사랑하는 백성아, 너는 길을 떠나 네 이웃들에게 나의 거룩한 말씀을 실감나게 전해야 한다. 너희는 훌륭한 제자로서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이 새로운 복음이 널리 퍼질 것이다. 여섯 번째 봉인에서 발산되는 이 빛은 이 시대의 인류를 비출 것이며, 그 빛으로 인해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117. 나의 가르침은 다른 나라들에 뿌리를 내릴 것이며,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일곱 봉인이 비추는 빛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이 가르침들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49, 43)

XV. 권면, 경고, 가르침

제61장 - 주님의 권면과 경고

계명과 명령

1. 이스라엘아, 세상과 맺은 의무만 이행하지 말라. 율법도 이행하라. 너희는 아버지께 대한 책임을 맡았으니, 그 이행은 엄격하고 고귀하며 영적이어야 한다.

2.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물질주의에서 돌이켜 광신자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그치게 하려 함이며, 사람이 만든 물질적인 물건을 숭배하거나 그것으로 숭배 의식을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우상 숭배와 광신, 그리고 거짓 숭배의 뿌리가 자리 잡기를 원치 않는다. 내게 닿지 않는 제물을 바치지 말라. 나는 오직 너희가 새롭게 되고 영성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할 뿐이다.

3. 너희의 과거 습관에 대해 새롭게 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버린 것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너희가 상향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멈춰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좁으니, 너희는 그 길을 잘 알아야 한다. 내일 너희는 그 길 위에서 형제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니, 내가 너희가 길을 잃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4. 나는 너희의 회개와 선의를 기다리며, 내 은총과 자비로 너희를 가득 채워 주려는 인내심 깊은 아버지이다. (23, 60-63)

5. 나의 말씀은 언제나 너희에게 선과 덕을 권고한다. 즉, 이웃에 대해 나쁘게 말하여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 것, 너희가 전염병이라 부르는 병을 앓는 이들을 경멸의 눈으로 보지 말 것, 전쟁을 조장하지 말 것; 도덕을 파괴하고 악덕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 것; 창조된 어떤 것도 저주하지 말고, 소유자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지 말며, 미신을 퍼뜨리지 말 것.

6. 너희는 병자들을 방문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덕을 지키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7. 내 교훈을 배우고 너희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가르쳐라.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가르침을 전파하겠느냐? 그리고 배운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훌륭한 사도로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6, 25-26)

8. 백성아, 너희가 전진하고자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나태함을 극복하라. 너희가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행위에 내 원칙들을 적용하라. 너희가 스스로를 알고자 한다면, 내 말씀을 통해 너희 자신을 탐구하라.

9. 사랑과 지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내 말씀이 너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라. 그러나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라. 세상에는 너희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을 갈망하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이들이 많으니, 너희는 내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85, 50-51)

10. 이 백성이 인류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은 매우 크다. 진정한 영성화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내적 신앙 실천과 기쁘게 드리는 제물, 하느님께 합당한 경배를 바치는 방법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너희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너희의 행실을 판단하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충실히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도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80, 73)

12. 너희가 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온전한 의미를 잃게 된다.

13.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내 율법과 가르침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지 기억 속에나 입술에만 얹어 두고, 자신의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 자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269, 45)

14. 너희는 마음속에 이 생의 경험이라는 빛을 지니고 있으며, 영혼 속에는 여러 번의 지상 생애를 거치며 쌓아온 발전의 빛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 영혼은 자신에게 무익한 일에 집착하며,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이 자주 눈물을 흘리는가?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으라. 진리는 모든 길에 있으며, 낮의 빛처럼 밝고 명료하다. (121, 48-49)

15.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하라. 너희의 의롭고 덕스러운 삶이 바로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즉, 그들은 너희가 설교하는 가르침에 대한 확증을 너희의 행실에서 찾기 위해, 심지어 너희의 사생활 속에서도 너희를 살피고 관찰할 것임을. (300, 57)

16. 내게 말하라.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너희를 외면했느냐? 어떤 걸림돌에 걸려 멈춰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뒤로 남겨두고 버려두었느냐? 고통에 짓눌려 넘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엄한 모습을 보였느냐?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큰 사랑으로 제자라 부르는 이들이, 불행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개선하도록 돕기는커녕 배척하며,

때로는 자신들이 판단할 권한이 없는 일에 참견하여 심판자가 되기도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18. 이것이 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아니, 너희 양심이 내게 말하리라.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여, 너희 감정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거친 모서리를 다듬고,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68, 46)

믿음, 소망, 사랑, 겸손, 확신

19. 너희가 겸손하면 위대해질 것이다. 위대함은 많은 이들이 믿는 것처럼 교만과 허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말해 왔다.

20.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사랑하라. 너희 육신을 위한 왕좌나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를 돋보이게 할 이름을 찾지 말라. 그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내며, 너희 안에 선한 뜻을 품으라. (47, 54)

21. 나는 '제2의 시대'에 내게로 온 병자들이 보여준 그 믿음, 즉 마비된 자와 눈먼 자, 그리고 불치병을 앓던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을 너희에게서 보고 싶다. 나는 아버지로서 사랑받고, 의사로서 찾으며, 스승으로서 경청받기를 원한다. (6, 46)

22. 믿음이나 소망에서 약해지지 말라. 이 생의 여정이 끝날 날이 올 것임을 항상 명심하라. 너희의 기원이 나에게 있었고, 최종 목적지 또한 나에게 있을 것임을 잊지 말라. 이 목적지는 영원이다. 영혼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23. 너희가 추구하는 이상으로 영원을 삼고, 삶의 기복 속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 이것이 지상에서 너희의 마지막 환생인지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누가 감히 너희에게, 오늘 너희가 가진 이 육신으로 내 정의 앞에 지은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간을 잘 활용하되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믿음과 순종으로 너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그 잔을 비운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공로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24. 너희가 결코, 결코 완전해지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영이 항상 전진하도록 힘쓰라. (95, 4-6)

25. 너희의 형제자매인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불멸을 얻으리라. 만일 너희가 이기심에 빠지고 자기애에 갇혀 버린다면, 너희가 남긴 씨앗은 너희의 명성을 오래도록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26. 마음속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언제나 나의 은총으로 충만할 것이다. (256, 72-73)

27. 너희의 소명은 위대하다! 그러나 불길한 징조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다가오는 괴로움의 날들이 인간의 각성과 정화를 위해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영성화의 시대가 승리로 도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라.

28.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낙담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말며, 건강을 돌보아라.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과 희망을 불태우는 나의 가르침을 보여줌으로써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북돋워 주라.

29.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한 채로 살아가는지 보라. 그들은 삶의 투쟁에서 패배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일찍 늙고 백발이 되었는지, 얼굴은 시들고 표정은 우울한지 보라. 그러나 강해야 할 자들이 약해지면, 청춘은 시들어가고 아이들은 주변에서 오직 슬픔만을 보게 될 것이다.

30. 너희 백성아, 비록 덧없는 것이지만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건전한 기쁨을 너희 마음에서 빼앗지 말라. 너희의 소박한 빵을 평안 가운데 먹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너희는 그 빵이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느껴질 것이다.

31. 내 말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확신과 믿음, 낙관주의, 마음의 평화와 힘이며, 너희의 고난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속에 쓴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만일 너희 마음이 고통과 근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어떤 친절이나 격려를 줄 수
있겠느냐?
32. 바로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일수록, 너희는 고양과 믿음,
그리고 겸손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33. 자신의 삶에 이러한 영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느끼며, 잠을 잘 때조차도
그 잠은 평온하고 상쾌하여,
영혼이 육신을 떠나 저 세상으로
향할 수 있게 해 주며,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을 양육하고 육신과도
나누는 그 신성한 힘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292, 45-51)

기도, 연구, 경각, 갱신, 영성화

34.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연약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영혼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깨어 있는" 법을 아는 영혼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의 발전을 이룰 때까지
유산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36. 이 사람은 깨어 있는 삶을 살며
결코 육신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므로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삶의
위기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나설
것이며, 확고한 발걸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37.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을
잊은 자의 태도는 얼마나 다른가!
그는 내가 인간 안에 심어 놓은
최고의 무기, 즉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지식의 빛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는 직관과 양심,
그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이성은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 (278, 1-3)
38. 혼란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땅에 묶인 자들을 위해, 땅속에서
아직 육신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계속되는 무분별한 애도
때문에 고통받고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39. 또한 너희 마음에 악을 심은
자들을 용서하고,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지 마라. 그들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너희의 용서를

애원하는 모습을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무한한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너희의 사랑 어린 기억으로 그들을 들어 올려라.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107, 15)

40. 너희는 영혼의 완성을 위해 충분한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며, 너희의 첫 번째 행적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매일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더 큰 계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작품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라.

41. 지식을 갈망하는 제자는 언제나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이며, 시련의 순간마다 나의 아버지 같은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42. 진보한 제자는 동료 인간들에게 사랑의 원천이 될 것이며, 진정으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위대한 영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설 시기를 알아차릴 것이다. (280, 40-42)

43. 너희가 더욱 완전해질수록, 너희는 목표를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구원에 단 한 걸음만 남았는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지 알 수는 없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단지 내 신성한 영의 목소리인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끌려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44. 율법을 어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호소를 마음에 새겨라.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리는 간청이다. 내가 너희가 헛되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너희의 불순종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322, 60)

45.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내가 심판자로서 무자비하다고 너희에게 말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삶의 여정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나를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찾으라. (344, 31)

46. 놀라지 말라, 나의 백성아. 항상 깨어 살며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라.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확신시키려고 너희 형제자매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47. 굳건히 버티라. 내가 내 대의에 충실한 '전사들', 즉 세계관과 신앙 고백, 종교가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시기에 맞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상을 주리라.

48. 너희는 내 일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존중해야 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남겨 줄 가르침을 알려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더라도 내버려 두어라. 내 성령의 빛이 그들에게 닿을 것이니,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가 깃들게 될 것이다. (336, 18)

49. 멈추지 마라, 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늘 말해 왔듯이, 너희의 발걸음은 선과 진보의 길 위에 확고히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선만이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직 덕과 진리만이 투쟁과 대립의 길 위에서 그를 지탱해 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50. 기만이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 이기심, 모든 악한 씨앗이 무거운 재앙과 몰락, 그리고 타격으로 인해 종말을 맞이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51. 그러므로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선함 안에서 더욱 강해져라! 내 백성아, 네가 행하는 선에 대하여 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 만일 너희가 땅에서 행하는 선에 대하여 악한 열매나 악한 보상을 거둔다 해도, 그 악한 열매는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이 최종적인 열매가 아님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수확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332, 31)

계시 교회들에 대한 경고

52. 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는 그 일로 인해 내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라.

53.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지녀야 할 책임을 깨닫지 못한 채 진리를 왜곡하는 데 전념해 왔다.

54.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을 해석할 줄 몰라 알지 못하는 이 심판의 시기에,

심판은 각 영혼 안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여정 동안 사랑의 법 안팎에서 행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55. 이 글들에서 영감으로 주어진 내 계시의 본질을 변경하는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6. 그러므로 너희는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이 가르침들은 육신으로 있든 영으로 있든 더 상세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한 나의 사랑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20, 12-14)

57. 이스라엘아, 나는 네게서 거짓을 보고 싶지 않다. 언젠가 그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들이 스승의 제자들인가? 만약 그들이 거짓 제자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거짓을 전한 스승 또한 거짓이었을 것이다." (344, 10)

58. 너희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키지 못한 신성모독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59.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매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60.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광신주의는 내 눈에 혐오스러운 것이며, 바로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고자 한다. 양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344, 17-18)

61. 내 말을 들어라, 백성아, 들어라, 제자들아: 나는 지금 너희에게 빛을 주며, 사슬과 족쇄와 어둠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일을 또 다른 종교로 만들거나, 예전처럼 형상과 의식으로 채우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 아니!

62.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것을 새로운 광신주의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63. 너희의 이성과 함께 영혼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짓된 두려움과 편견의 홍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그것들로부터 해방시켜, 너희가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보고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였거늘. (297, 20-21)

64. 땅은 내 씨 뿌리는 자들의 씨앗을 기다리며 촉촉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니, 여기서 너희는 이 씨 뿌리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가 광신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숭배에서 해방된 후 , 이 백성이 새로운 우상 숭배를 들고 나온다면 옳은 일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제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가는 길의 매 걸음마다 교훈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292, 44)

1950년 이후의 계시 지속에 대한 경고와 거짓 “그리스도 계시”

65. 나의 신성이 정한 날이 지나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영과 마음, 그리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66. 그 이후에 누가 자신을 대변자라 자처하며 나의 광선을 부른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심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67. 나는 너희가 거짓 예언자, 거짓 대변인, 거짓 “그리스도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경고한다. 나는 너희가 제때에 혼란을 피하고 너희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너희를 깨운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가르침들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29, 40-41)

68. 이것이 이미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마지막 시기이다. 이를 믿으라. 또한 내가 내 말씀을 물질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하물며 사람이 되기 위해 돌아오지는 않을 것임을 믿으라.

69. 무장하라. 내가 돌아왔다고,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문이

너희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신실함을
지키며 확신에 차서 말해야 한다.
“주님은 영적으로 그분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
70. 그러나 만일 너희가 잠들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가 내 말씀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며, 신성모독자이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광선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그들에게
말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그분께 찬송과
찬미를 바치자.”
71.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광선은 더 이상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2.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겉보기에 빛나는 말들이 너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너희
마음이 이를 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시련을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의 순종과 겸손 위에
내 영감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73.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1950년 이전에 이 공동체들이
하나의 백성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곧 혼란이 휩쓸게 될
것이니, 이는 스승이 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 백성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
위협을 아직 예감하지 못했느냐?
74. 너희 안에는 여전히 형제애와
일치의 정신이 깨어나지
않았으며, 너희는 사건들이
너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기대한다면, 그 대신
전염병과 혼란, 전쟁, 그리고
자연의 심판이 터져 나와,
세상에는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지구의 표면에도, 그 내부에도,
바다에도, 공중에도 말이다. (146, 24-26)
75.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 이
교회당에서든, 너희 집에서든,

혹은 야외에서든 — 그 모임에서 영적으로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76. 그러나 깨어 있으라.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교감을 가진다고 떠벌리며, 거짓 지시와 영감을 전하는 거짓 제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77. 나는 너희에게 진리와 속임수를 구별하고,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라고 가르쳤다. (260, 65-66)

78. 나는 너희에게 많은 '영성주의'가 등장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는 무엇이 진리에, 무엇이 속임수에 기초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예고해 두었다.

79. 너희는 내게 귀속되는 거짓 선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신성한 사자들에 대한 소문들, 일곱 봉인의 이름을 내건 종파들, 그리고 수많은 혼란스럽고 모호한 가르침들을 보게 될 것이다.

80.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자초한 거대한 영적 혼란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적 혼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니, 가장 큰 어둠의 순간에도 내 말씀이 빛이 되어, 내 맑고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252, 15-17)

악덕, 위선, 타락

81. 허영심은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학식 있고, 강하고, 무오하며,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긴 자들 속에 자리 잡았으니, 그들은 자신이 종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러했다.

82. 나는 이 가르침의 빛 아래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이 민족 가운데, 내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자신이 그리스도의 환생이나 새로운 메시아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

83.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내 진리의 전모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가 제시한 겸손의 길에서 멀리 벗어난 자들이 될 것이다.

84.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깊이 연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겸손에

관한 깊고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7, 3-6)

85. 가장 심각한 성격적 결함 중 하나는 위선이다. 너희가 이웃 안에서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사랑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86. 유다의 입맞춤을 비난했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형제에게 가식적인 형제애의 입맞춤을 주었고 뒤에서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고통받는 이들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돈을 받고 빛과 진리와 자선을 전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가.

87. 누군가 질문으로 너희를 위축시켰을 때, 왜 너희는 베드로가 약한 순간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며, 너희가 나를 알지도 못했다고 단언하는가? 왜 너희는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88.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성한 정의와 너희의 죄 사이에는 너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너희의 하늘 어머니 마리아의 중보가 서 있다. (75, 34)

89. 아무도 이웃의 행실을 심판할 권리가 없으니, 깨끗한 자도 그러지 않는데, 어찌 마음속에 오점을 지닌 자가 감히 그러하겠느냐?

90.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늘 형제의 씨앗을 뜯어보려 하며, 거기서 결점을 찾아내어 그에게 너희의 씨앗을 보여주고, 너희의 일이 더 순수하고 완전하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모욕하려 하기 때문이다.

91. 너희의 행실을 저울질할 줄 아는 유일한 심판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저울을 들고 나타나실 때, 그분의 눈에는 더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형제이자 주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알았던 자가 더 큰 공로를 인정받을 것이다. (131, 5557)

92. 배우고 행하며,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을 깊이 음미하라. 너희의 행실로 내 가르침을 확증하라. 나는 제자들 가운데 위선자를 원치 않는다. 이토록 많은 사랑과

인내로 세워진 이 일이, 너희 삶 속의 도덕과 미덕, 진실함의 결여로 인해 무너진다면 인류와 너희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깊이 생각해 보라. (165, 25)

93.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나 경박한 일들을 좇지 마라. 너희 삶을 흠잡을 데 없이 꾸려 나가겠다는 이상을 따르라. 내가 너희의 전 생애 동안 너희 마음에 활력을 주는 그 만족감을 주겠으니. (111, 61)

94. 너희 영혼 속에 있는 미덕보다 악한 성향이 더 강해지고, 나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을 행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나의 빛이 너희를 깨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도록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55, 6)

95. 이 시대에 그들의 추행과 불순종으로, 내가 영적인 사명을 띠고 땅에 보낸 자녀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비명과 조롱 속에서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가며, 단지 축복만을 베풀던 한 사람을 왜 고문하고 죽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었던 그 군중과 같고자 하는가?

96.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때마다 그 순수한 아이들은 울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눈물은 육신보다 영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중에 나를 따르고 사랑하였는가! 그들의 순수한 눈으로 목격했던 그 기억이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69, 50-51)

잘못된 참회와 잘못된 기대

97. 잘못 이해된 참회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박탈하지 말라. 오히려 육신에게 해로운 것은, 비록 그것이 육신에게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피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 영혼에 유익하고, 따라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회가 될 것이다. (55, 40)

98. 너희는 이미 하느님을
심판자라기보다는 완전하고
무궁무진한 사랑의 아버지로서
보고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느님 안에서
너희 아버지를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말하건대,
너희도 그 옛 백성들처럼 새로운
잘못에 빠질 수 있으며, 그 잘못은
너희가 도덕적, 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아버지는 무엇보다 사랑이시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중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데에 있을 수 있다.
100. 참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아무리 중대한 죄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죄는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신성한 사랑에서 무자비한
정의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01. 이 모든 것을 명심하여,
너희가 내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으로 받아들인 바가 진리에
부합하고, 너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그릇된 생각을
없애도록 하라.
102. 아버지의 사랑은 너희를
용서하시지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점은 너희 영혼에
새겨져 남으며, 너희는 공덕을
통해 그것을 씻어내야만( ) 비로소
너희를 용서해 주신 사랑에
합당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라.
(293, 43-44)
103. 한 목소리가 너희를 깨웠다.
자비롭고 위로가 되는 그
목소리는 너희를 빛과 생명의
왕국으로 부르나,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 영혼을 비하하고
율법을 무시하기를 고집한다면,
그 목소리는 정의로 변할 수 있다.
104.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내
말씀은 이러하다. 굳건히 버티라.
그러면 내 은총을 많이 얻게 될
것이며, 형제자매들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105. 어리석은 자에게 내
목소리가 말하노니, 네가 이
축복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네가
살고 있는 죄의 더러움이나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메시지에서 무엇을 전하셨는지,

또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신 영적 은사가
무엇이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네
영혼 위로 시대와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06. 비록 모든 이에게 구원을
얻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적절한 때가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날을 미루는 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몰두하느라 영혼의 성장을
이룰 기회를 놓치는 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야 할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지 못하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괴로움도 알지 못한다.
107. 여기에는 아버지의 가장
사소한 보복이나 가장 가벼운
형벌도 없으나, 오직 그분의
엄격하고 무자비한 정의만이 있을
뿐이다.
108. 내가 너희 가운데 와 있는
오늘, 너희가 이미 과거의
기회들을 놓치거나 활용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너희 영혼이
오래전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너희가 과연 알고 있느냐?
109. 너희의 마음이나 이성은
너희 영혼의 과거, 그 운명, 빚,
과제, 그리고 속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른다!
110.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의
완성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영혼을 유혹해서도 안 된다.
영혼은 다른 길, 다른 목표, 다른
이상을 따라야 한다. (279, 16-19)

지상의 민족들과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111.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침내
자비와 실천적인 이웃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악한 행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 자신의 손이
그들 위에 자연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민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잔을 쏟아붓고자 한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를 거두게 되더라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벌이다.”
(57, 82)

112. 우상 숭배와 광신, 그리고
전통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나의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영혼이 깨어날 때의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113. 비록 나의 가르침이 세상을
뒤흔들겠지만, 싸움이 끝나면
지상에서 진정한 평화, 곧 나의
영에서 솟아나는 그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오직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마음이 굳은 자들만이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272, 12-13)

114. 나는 전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의 굳은
마음속에서 내 존재를 느끼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내 뜻이
그들의 전쟁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만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 내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온 땅에 내 정의가 드러날 것이다.
(340, 33)

115. 다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예언들을 조롱할
것이며, 물의 홍수가 이미 그들의
몸을 덮쳐 묻어버리고 있음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믿고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다.

116. 나의 자비는 너희가
경솔하게 행동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막고자 했으나, 너희는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회개를 느끼고 멸망을 피하도록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117. 예루살렘에게도 나는
기도하고 참된 하나님 숭배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
불신하고 육신적인 마음은 나의
아버지 같은 권고를 거부했고,
결국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
예루살렘에게 그 날들이 얼마나
쓰라렸던가!

118. 너희는 이제 너희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다는 진실을
깨닫는가? 너희는 성장하여 내
말씀 속에 담긴 지혜의 길로
올라가기 위해 영적인 어린
시절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9.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노니, 이는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깨어 있고 경계하도록 하는 예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내용을 믿는다면 복이 있으리라.

120.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되, 그 후에는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면의 빛이 너희를 인도하고 더 높은 힘이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가 안전에 이를 때까지 지켜 줄 것이니라. (325, 73-77)

제62장 – 멕시코에 모인 청중들을 위한 말씀

멕시코에 있는 청중들을 위한 말씀

1. 제자들아,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서 예전처럼 나를 듣고 느껴라.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이자 운명의 빛임을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제때에 주어질 것임을 잊지 말라.

2. 너희 등불에 기름을 다시 채워라. 그래야 믿음과 지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이다.

3.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스승께서 예전처럼 너희의 거처에 들어오실 때, 너희가 내 존재를 발걸음마다 느꼈던 그 영적 열정의 날들처럼, 너희를 놀라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너희를 비추던 그 빛이 다시금 너희 삶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빛은 풍요와 지혜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확신을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4, 27-29)

5.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나를 인간 지성을 통해 계시하시는 동안 나의 현존을 믿고, 종종 내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영성주의자라고 칭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선을 실천하고, 삶의 본질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너그러우며 결실 있고 덕스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성인이 되기를 원한다. (269, 55)

6. 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신분을 주어, 그들이 삶 속에서 스승을 본보기로 삼게 하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부유한 가정을 주어,

비록 왕이었으나 자신의 “왕좌”를 버리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였다.

7.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자의 공로는, 그 이웃이 누구이든 간에, 가난하고 무명의 삶에서 사랑의 길을 따라 의인들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자의 공로와 마찬가지로 크다. (101, 55-56)

8. 너희는 내가 왜 너희에게 왔는지 묻는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가 나온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할 길을 잊어버린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다시 너희에게 보여준다.

9. 그 길은 나의 법이며, 그것을 따름으로써 영혼은 불멸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그 당시 내 가르침으로 너희 눈앞에 보여 주었던 그 길만큼이나 좁은 문을 보여준다. (79, 2-3)

10. 나를 듣는 너희는, 영적으로 나를 받아들일 자들을 위해 길을 마련해야 한다. 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내 곁으로 이끈 것은 우연이 아니었듯이, 인간의 매개자 없이도 내 현존을 느끼게 될 자들 안에서 영적 은사를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80, 4)

11. 나는 너희를 지상에서 참된 영성이자 선을 전파하도록 정했다.

12. 너희는 스스로가 너무 무능하고 하찮다고 느끼는가? 너희는 이런 종류의 임무를 너희 영혼에 짊어질 만큼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나의 지혜와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가 자연을 통해 너희에게 매 순간 보여주는 가르침의 본보기를 맑은 마음으로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태양의 광선이 모든 것을 비추며, 가장 오염된 웅덩이에도 닿아 그것을 증발시키고, 대기로 올려 보내어 정화한 뒤, 마침내 구름으로 변하게 하여 땅 위를 지나며 비옥하게 만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150, 51-53)

14. 내 면전에서 너희 영혼의 모든 불순물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어떤 비밀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희 자신보다 너희를 더 잘 알고 있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고백하라. 나는 그 누구보다 너희를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너희의 법 위반과 죄를 용서하리라. 나만이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이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화해하고, 너희 존재 안에서 너희 영혼이 부르는 승리의 찬가를 듣게 되면, 평안히 내 식탁에 앉아, 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라. (39, 71)

16. 너희 중 많은 이가 고통을 저주한 뒤 울면서 내게로 온다. 나는 너희의 실수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여 그것을 용서한다.

17. 너희 마음을 진정시키고 너희 정신을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라, 생명의 어린 제자들아: 만일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동안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떨어져 홀로 머물라. 거기, 너희 침실의 아늑함 속에서, 너희 영혼과 대화하고, 너희의 고통을 마주하여 마치 어떤 물건을 손에 들어 살펴보는 것처럼 그것을 탐구하라.

18. 이런 방식으로 너희의 슬픔을 탐구하여,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왜 찾아왔는지 알아내라. 너희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묵상 속에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위한 빛과 평화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19. 빛은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며, 평화는 시련이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286, 26-28)

20. 너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너희 가운데 질병이 있는 것은, 영성화와 믿음이 부족하여 이 생의 비참함과 고통 위로 올라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21. 나의 가르침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246, 40-41)

22.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말하고 있다. 너희의 물질적 사고방식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 존재 안에서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성이 너희 삶의 일부가 된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 안에 나의 현존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목소리가 양심 속에서 울려 퍼지고, 내면의 심판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265, 57)

23. 이 가르침은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개선과 고귀한 감정을 향한 결심이 싹트게 될 것이다.

24. 너희가 내게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많이 고통받고 울었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이 고통받은 자는 그로써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것이니 용서를 얻으리라. (9, 37-38)

25. 내 백성아, 너희는 회개하는 마음속에서 스승의 사랑을 느끼기에 울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영혼에 무거운 죄를 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도 용서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었다.

26.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내 신성한 공의를 그토록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장 많이 죄 지은 자들에게 내 가장 다정한 말과 가장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르침을 선포하고는 영원 속에서 그와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27, 41)

27. 너희 삶의 쓰라리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나의 지혜롭고 완전한 법이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라.

28. 나는 너희가 그 고통을 통해 나를 찾게 하려고 너희의 고통 속에 함께 있었다. 나는 너희가 구하는 법과 겸손함,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가난으로 너희를 시험했다.

29. 나는 심지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조차 주지 않았으니, 이는 신뢰하는 자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새들과 같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들은 내 존재의

상징인 새벽을 맞이하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감사와 신뢰의 증거로 지저귐을 하늘로 올리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다. (5, 55-57)

30. 때때로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주님의 영적 사업에 동참하고 자선을 베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으로서 변덕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오늘의 모든 결심은, 내가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면 바뀌게 될 것임을 알아두라.

31. 오직 하느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만이 변함없다.

32.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준다면 너희가 파멸할 것임을 나는 미리 알고 있다. 나는 너희의 선택과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9, 55-57)

33. 내가 너희에게 쾌락을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결국 내가 너희가 기뻐하는 것보다 고통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생각했다.

34.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가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35. 내가 너희에게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단지 영혼에 해롭거나 너희 몸에 해로운 것들만을 의미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영과 마음에 유익하고,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303, 27)

36.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 나는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요구한 적조차 없다. 너희의 육체적 병을 고쳐 주고, 너희 영혼에 평화를 주거나, 너희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을 주며, 내가 먼저 나서서 증거를 보여준 것이다.

37. 그 후, 너희가 나를 믿고 신실하게 내 율법을 실천하고자 할 때, 나는 각자에게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맡으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형제자매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각자의 사명을 보여주었다.

38. 너희는 가르치는 자들이 모두 스승이라고 믿느냐?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는
자들이 모두 나의 사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명령하는 자들이 모두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백성아! 진실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 지위를
맡아야 할 자들은 모욕을 당하고
소외되어 있다. (76, 36-37)

39. 누군가 이 계시에서 나의
현존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무엇도 나의 진리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기적을 창조한 신성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 (88, 7)

40. 오늘 너희는 내 가르침의 빛을
위해 너희 마음과 이성의 문을
열고 있다. 어떤 행실로 나를
영화롭게 하겠느냐?

41. 너희 모두 침묵하고, 영혼도
침묵하며 육신도 내 앞에서
침묵한다. 너희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바라볼 자격이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인도 노예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추방자나 버림받은 자로
여기는 피조물을 찾지 않는다.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오니, 그들이 내
아버지의 목소리 를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을 영적 상승의 길로
들어올리기를 원한다. (130, 39-40)

42.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일을
열심으로 지키고 내 지시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
너희의 사랑스러운 어머니께서
또한 너희에게 내려오셔서
은총으로 너희를 채워 주시며,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 마음을 자비의 샘으로
변화시켜, 너희가 이웃들

가운데서 위대한 사랑의 일을
이루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녀는 나의 협력자이며,
스승이자 심판자로서의 나의 말씀
곁에는 어머니이자 중재자로서의
그녀의 말씀이 있다. 사랑하라,
백성아,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리아는 너희를
지켜보고 너희 곁에 계시니, 이는
단지 이 시련의 날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러하리라. (60, 24)

43. 내가 너희를 "마리아의
백성"이라 불렀으니, 이는 너희가
신성한 어머니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을 알며, 다정함을
갈구하는 아이처럼, 혹은 중재를
구하는 죄인처럼 그분께 나아오기
때문이다.

44. 세상에 계신 마리아의 현존은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그녀의 순결은
너희에게 드러난 천상의
기적이다. 그녀는 내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여인이 되었으니,
이는 그녀의 태중에 '말씀'이
말씀하실 예수님의 몸이 될
신성한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그녀는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5,
9-10)

45. 인간의 마음은 그녀의 영이
세상에 전한 귀중한 메시지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며,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된 후에는, 너희가
그녀에게 바쳤던 모든 우상
숭배와 맹목적인 숭배를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 대신 영적인
사랑을 바쳐야 한다. (140, 43)

46. 어떤 이들은 내게 말하길,
"주님, 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뵙는다고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뵙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47. 아, 믿기 위해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연약한 마음들아! 너희의
영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감정을
통해 나의 신성한 본질을
무한하고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상 속에서
인간 형상의 예수를 보는 데서
무슨 공로가 있단 말이냐?

48. 너희는 영적인 것을 형상이나
상징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들에게 말하는 상징이나 비유이기 때문이다.

49. 너희의 은사에 만족하고, 너희가 받는 증거들을 깊이 탐구하며, 항상 그 의미와 빛, 가르침, 진리를 찾으라. (173, 28-30)

50. 결코 내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라. 내 업적을 오직 순수함만을 담은 책으로 제시하라. 그러면 너희가 여정을 마쳤을 때, 내가 너희를 로 맞이하리라. 나는 너희 영혼의 얼룩을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나의 신성한 입맞춤을 주리니, 이것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상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한 줌의 씨앗을 준 것은, 너희가 비옥한 밭에 뿌리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그것을 번식시키게 하려 함이다. (5, 27)

51.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의 책임을 헤아려 보라. 너희가 놓치는 하루는, 이 기쁜 소식이 너희 이웃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을 하루 더 늦추는 것이며, 너희가 놓치는 가르침 하나는, 너희가 궁핍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빵 한 조각이 줄어드는 것임을 명심하라. (121, 40)

52. 너희는 이미 이 나무 열매의 맛을 알고 있으니, 장차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그러나 너희 이웃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내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한다.

53.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내 백성에게 자신들이 나의 사자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었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 내 이름으로 왔다고 말할 것이다.

54. 너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절하거나, 내 가르침에 영적 내용이 없는 말들을 섞어 넣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112, 46-47)

55.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 귀에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호한 목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며, 나중에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 형제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56. 내가 너희를 경계하게 하는 것은, 이 계시들이 일단 끝나면 너희가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은 빛의 영들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세워 놓은 것을 파괴하려는 혼란에 빠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57. 반면에, 준비하는 법을 아는 자, 즉 두드러지려 하기보다 유익하게 쓰이려 하고, 사건을 서두르기보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은사들, 즉 영감, 직관, 예감이며, 기도와 영적 통찰, 그리고 예언적인 꿈을 통해 전달될 것이다. (7, 13-14)

58. 오늘 너희는 황홀경에 빠져 너희에게 말하는 이 대변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비록 어떤 이들의 불신이 아무리 크더라도, 너희는 이 전달자들을 통한 나의 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젠가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평소의 상태에서 신성한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59. 너희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 영감 아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너희는 믿음을 얻기 위해 큰 영적 준비와 마음의 순결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16, 52-53)

60. 너희가 길을 가며, 내 계시에 직면하여 그들의 행실이나 사고방식으로 영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결코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그들을 깨우게 될 말씀을 내가 이미 그들을 위해 남겨두고 있음을 믿으라.

61. 너희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말씀들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말씀들이다. (104, 42-43)

62. 광신 없이 믿고 행하라. 일어나서, 어떤 편견이나 가르침도 없이 모든 이웃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라. 신앙고백

63. 단지 그가 미숙하거나 불완전한 신앙을 실천한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의 이타적인 행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64. 집단으로 뭉쳐서 활동의 폭을 좁히지 마라. 모든 영혼에게 빛이 되고, 모든 슬픔에 치유가 되어라. (60, 27)

65. 만일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따랐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너희를 멸시하며 말한다면, 귀를 막고 침묵하라.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일을 빌미로 그들을 심판하려 한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영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며,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1, 27)

66. 그러니, 내 백성아, 모든 사람이 너희와 똑같이 생각하고 믿기를 바라지 말라. 너희는 결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며,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너희의 제안과 가르침,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 심판을 내리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모든 이웃을 똑같이 깊은 존중과 참된 영적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각자가 자신의 종교 수행과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길에서 자신의 영적 능력에 따라 마땅히 도달해야 할 위치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사람들을 보는 그 지점은 바로 그들 자신의 발전이 이끈 곳임을 알게 될 것이다. (330, 29)

67. 나는 이미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며, 너희가 키워온 믿음, 즉 너희가 특권을 가진 존재들의 민족이라는 믿음은 오해임을 알라.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68.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일 너희가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을 동료 인간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며, 나는 너희가 후손들 앞에서 더 높은 존재로 비치기를 원치 않으며, 또한 너희의 공로가 너희를 내 말씀을 들은 유일한 자들로 만들 만큼 가치 있게 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69. 너희는 이해심 있고, 겸손하며, 소박하고, 고귀한

마음을 지닌 자비로운 형제자매가 되어야 한다.

70. 너희는 강해야 하되 거만해서는 안 되니, 그래야 약한 자들을 비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가르침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되니, 그래야 너희 곁에 있는 동료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75, 17-19)

71. 바로 이곳, 나의 일꾼들 가운데서도 — 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경외와 숭배를 받을 만한 더 높은 존재라고 여긴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높은 영이 자신의 은사에 자만하는 것을 옳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겸손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그가 반드시 가져야 할 본질적인 덕목이 아니겠느냐. (98, 15)

72. 내가 한 번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가 기생식물처럼 살게 하려고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한 데서 만족을 찾기를 원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어 악을 행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른 것이다. (153, 71)

73. 오, 길을 잃은 양처럼 울부짖으며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목자를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희가 너희를 둘러싼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너희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의 행복과 불행에 무관심하다고 믿는다.

74.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며, 나의 완전한 공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얼마나 불공정한가!

75. 너희가 오직 괴로움으로만 살아가고, 너희가 사는 세상은 행복이 없는 세상이며, 너희가 사는 삶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때,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76. 너희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모든 자비를 거절한다고 믿을 때만 나를 느끼고, 너희 아버지의 다정함과 선하심을 잊어버린다. 너희는 삶의 은혜를 축복하기보다 불평만 한다.

77. 이는 너희가 진실을 외면하고 주변에서 고통과 눈물만 보며, 모든 것이 보답 없이 남을 것이라고 믿기에 절망에 빠지기 때문이다.

78. 이 반항과 무지 대신, 매일 너희의 첫 번째 생각이 너희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이 되고, 너희의 첫 번째 말이 그분의 사랑이 너희에게 베푼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이 된다면, 너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79.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이러한 미덕을 느낄 수 없으니, “육신”이 너희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마음에서 몰아낸 바로 그 감정들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11, 4-9)

80. 너희는 죄를 지었고, 결혼을 파기했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되자, 너희는 자신의 범행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시련과 속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불공평하다고 믿는다. (17, 33)

8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큰 시련을 겪었다. 모든 시련에는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기에, 그것이 너희를 싸움에서 강하게 하기 위함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떤 죄를 속죄하기 위함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결코 시련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시련은 그런 목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며, 또한 너희의 도덕적 또는 영적 힘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7, 26)

82. 왜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너희의 운명이 나에 의해 시련과 고통, 형벌, 혹은 불행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두려워하는가?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너희에게 가시밭길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행하고 시련으로 가득 찬 길은 바로

너희가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길이다. 너희는 그 길에서 기쁨과 자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너희에게 정해진 길, 즉 참된 평화와 안전, 힘과 건강, 안녕과 풍요가 있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83. 내가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길은, 너희가 마침내 그 길에서 너희가 갈망하는 것을 찾게 하려고, 너희 영혼이 창조된 순간부터 미리 정해져 온 길이다. (283, 10-11)

84. 너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피상적으로 판단하며, 너희를 괴롭히는 시련들이 바로 너희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시련들이 너희에게 닥칠 때, 너희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운명이 바뀌어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란다.

85. 그 이유는 너희가 영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여, 너희가 거두는 모든 것은 너희 스스로 뿌린 것이며, 모든 고통은 너희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86. 아니, 너희는 진실 속으로 파고드는 법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에, 고통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 때, 너희는 스스로를 신의 불의의 희생양이라 여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불의도 존재할 수 없다.

87.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불변하며, 영원하다. 그러므로 신성한 영이 분노와 격노, 격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믿는 자는 큰 착각에 빠진 것이다. 그러한 약점은 영혼의 성숙함과 정욕을 다스리는 능력이 결여된 인간 존재 에게서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88. 때때로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를 ‘대가를 치러야’ 하며, 왜 다른 이들이 맺은 쓰라린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까?” —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너희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90, 9 12)

89.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제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코 허영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이 약점에 굴복한다면, 너희 양심이 너희의 잘못을 지적할 때조차 더 이상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간적 삶을 정화하고 고상하게 가꾸기 시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의 발걸음은 빗나갈 것이며 그의 행실에는 진리의 씨앗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90.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교훈에서 조언으로 내려와, 너희가 인간 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때 나는 사람의 마음에 말하며, 갱신을 권면하고, 악덕이 육체에 끼치는 해악과 영혼에 가하는 해악을 깨닫게 한다.

91. 나는 너희에게, 악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이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며, 진정한 힘은 덕으로 악을 이겨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92. 육신에 패배한 그 사람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존심을 저버렸으며,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지위에서 싸우기에는 너무 비겁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93. 그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 빛과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주는 대신, 어둠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고, 자신과 아내, 자녀들의 십자가를 무겁게 하며, 주변 모든 이들의 영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다. (312, 32-35)

94. 너희 중 누구라도 악한 길을 버리면, 그로 인해 악의 세력이 그 힘의 일부를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의 삶이 행실과 말과 생각에서 의로울 때, 그 길 위에 선한 씨앗을 남기게 될 것임을, 너희의 조언이 경건한 마음에서 나올 때 기적을 일으킬 힘을 갖게 될 것임을, 또한 기도가 연민과 사랑의 마음에서 솟아날 때, 그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이에게 빛의 메시지가 될 것임을. (108, 16)

95. 여기 내 곁에서 너희는 모든 오점을 씻어낸다. 아, 너희가 평생 이 순결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나 너희가 이 교제와 가르침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영성과 형제애의 분위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시는 공기는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

96. 그러나 너희는 내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수록, 너희를 세상에 묶어두는 사슬이 하나하나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56, 26-27)

97.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의 길에는 자칭 내 사람이라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나, 첫눈에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이 보여주는 겸손과 지혜와 사랑을 보고 믿으라.

98.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겠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먼저 속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맡은 사명과 너희가 처한 위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너희는 눈과 귀를 열어두고, 또한 많은 것을 용서해야 한다. (12, 55-56)

99.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잠들지 말라! 아니면 박해가 잠든 너희를 덮치기를 기다리려는 것인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려는 것인가? 이질적인 교리가 폭력이나 공포를 통해 지배하게 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볼 것인가?

100. 깨어 있으라. 동방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힘을 합쳐 너희의 목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고, 인류에게 제때 경고를 전하라. (61, 25)

101. 인류에게는 큰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모든 고통과 재난 속에서 깨어 기도하라. 많은 고통은 완화될 것이며, 다른 고통들은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 그 궤도가 막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02. 다른 교파와 종파의 신도들이 이 백성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빛의 말씀을 얹어 주시리니, 그 말씀은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

103. 나는 너희를 방어하기 위해 죽이는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칼을 준다. 그 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섬광 하나하나가 그로부터 발산되는 미덕이 될 것이다.

104. 너희가 말로 내 사역을 박해하는 무리를 제압하고, 사랑의 행위로 그들을 회개시켜 내게로 이끌어 온다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은총을 얻게 될까.

105. 이것이 바로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이미 잊어버렸던 가르침이다.

106. 인간의 이성은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성 교리를 이해하려 할 때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물질화된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해 서툴기 때문이다. (55, 58-63)

107.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식탁 위에 내가 그토록 큰 사랑으로 대접한 음식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는가. 그들이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된, 지금과 같은 은혜의 시기를 언제 다시 경험하게 되겠는가?

108. 그들은 거친 바위와 같아서, 폭풍우와 시간이 필요하여 비로소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의 유산은 그들에게서 박탈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간직될 뿐이기 때문이다. (48, 8)

109. 너희 중 일부는 내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고 준비되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인간의 삶은 바로 광야와 같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혼들 한가운데서도 홀로라고 느끼며, 목마름에 시달리는데도 그에게 물 한 모금 건네줄 사람이 없는 이들이 있다. 내가 바로 그곳으로 나의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리라.

110. 나는 내 이름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다시 불려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감동 속에 들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있다. 나는 모든 이가 나를 알게 되고, 그들 안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기를 원한다. 모든 이가 나를 듣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50, 3)

111. 나의 말씀은 너희의 이기심에 부딪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는 것을 너희가 다시 너희 동료들에게 알리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이들에 대한 의무를 지기보다는 오직 나의 가르침으로만 위안을 얻고자 한다.

112. 그러나 스승께서는 너희에게 쓸모없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너희가 이 신성한 교훈을 배워, 나중에 너희 삶에서 이웃에게 적용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도록 하셨다.

113. 나는 이 순간 너희에게, 고통이나 곤경, 혹은 간청을 안고 너희에게 오는 모든 이에게 너희 영혼이 오래된 빚을 지고 있음을 밝힌다. 내가 그들을 너희 삶의 길에 어떤 사랑으로 두었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여 그들을 너희 실천적 이웃 사랑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너희의 속죄를 완수하게 하라. (76, 20)

114. 너희가 고통의 시기에 지상으로 돌아와 너희의 실수나 이기심의 열매를 거두지 않도록 이를 완수하라.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시기에, 너희가 에서 시작하여 남겨둔 씨앗을 가꾸며 활력을 되찾기 위함일 것이다.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 너희를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의 양심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13. 17)

115. 여기에는 다른 시대에 율법의 교사나 학자였던 이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들의 지성은 영적 지식에 눈을 떴으며, 그들은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는 최고의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116. 여기에는 다른 시대에 지상에서 권력자와 부자였으나, 지금은 가난과 비천함을 경험한 이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순종과

완전함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들을 축복한다. 이는 나의
자비로운 공의의 증거이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지혜의 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다시 지상으로 보내었기
때문이다. (96, 16-17)

117. 세상은 너희에게 많은
기쁨을 선사하는데, 그중 일부는
내가 허락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는 어떤
이에게는 반항심을, 또 다른
이에게는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118. 나는 너희에게 말해야 한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는
'육체'의 쾌락과 만족 속에
잠들거나 파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들의 사명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11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 중에 모든 쾌락을 맛보지
못하고 모든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영혼은 단 하나도 없다. 오늘
너희의 영혼은 나를 사랑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왔지, 다시 세상과 금과 정욕이나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84, 47)

120. 이상(理想)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민족들, 국가들을
보라. 그들은 투쟁의 화형대에서
타들어 가면서도 세상의 영광과
소유, 권력을 꿈꾸고 있다. 그들은
지상의 덧없는 명성을 위해
죽어가고 있다.

121. 그러나 너희는, 영혼 속에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성한 이상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비록 목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일부를
바쳐 동료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은가?

122. 너희 위에서는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비롯된 모든 악, 수세기에 걸친
모든 죄, 혼란에 빠진 모든 인간과
저세상의 영혼들, 모든 타락, 불의,
종교적 광신과 우상 숭배,
어리석고 야심 찬 야망과 거짓이
하나로 합쳐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관통하여
나를 대적하는 힘으로 변모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힘이다. 의 군대는 거대하고
무기는 강력하나, 그들은 나를
상대로 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상대로 강한 것이다.
123. 나는 나의 정의의 칼로 이
군대들과 싸움을 벌일 것이며, 내
뜻에 따라 너희가 그 일부가
되어야 할 나의 군대들과 함께 그
전투에 임할 것이다.
124. 이 전투가 쾌락을 좇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동안,
내가 내세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낄 수 있는 은사를 맡긴 너희는
형제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리라.
125. 위엄 있는 전사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칼을
뽑으셨다. 그 칼이 낫처럼 악을
뿌리째 잘라내고, 그 광선으로
우주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126. 너희 입술이 침묵한다면,
세상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야곱의 영적
자손이며, 나는 그에게 너희를
통해 땅의 민족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너희가 강해지도록 너희를
하나의 가족으로 연합시키려
한다. (84, 55-57)
127. 나는 이 백성의 품 안에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28. 오직 나만이 너희 행위의
진정한 공로나 가치를 알고
있으니, 너희 스스로조차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하찮은 일이 너희에게는 매우
크게 보일 것이며, 또 다른 일들은
너희의 공로가 내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이다.
(106, 49-50)
129. 나를 들었던 너희 수많은
사람들아, 언제쯤 너희의 은둔과
어둠에서 나올 것인가? 혹시 (그때
다가올) 대결을 두려워하여
고의로 너희의 준비를 미루고
있는 것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자만이 두려워할 뿐이다. 내
말씀을 알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사람들을 피하기보다는
그들과 만나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은 후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107, 41)

130. 이 메시지는 모든 종교와 모든 종파 및 신앙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간 지도에 빛을 비춘다. 그러나 제자들아, 너희는 내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너희는 이런 식으로 그 나무에 꽃을 피우려 하는가? 꽃이 피게 하라. 그 꽃들은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임을 예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131. 왜 너희는 이 메시지들을 숨기고, 이 기쁜 소식으로 세상에 이 새로운 시대의 놀라움을 전하지 않는가? 왜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너희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는가? 말하고, 너희의 사랑의 행실을 통해 내 가르침을 증언하라.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을지라도, 다른 이들은 귀를 열 것이니, 그때 너희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꾀꼬리의 노래처럼 달콤하고 아름답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114, 46)

132. 인류는 나의 새로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나의 일꾼인 너희가 씨앗과 농기구를 내팽개친다면, 이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했느냐?

133. 너희의 양심은 결코 너희를 속이지 않으며, 너희가 의무를 다했는지 항상 말해 줄 것이다. 너희가 겪고 있는 불안은 너희가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133, 10)

134. 너희는 때로 내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수가 더디게만 늘어난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이루는 무리를 늘리고 배가시키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고, 너희의 영적 은사가 꽃피지 않았으며, 너희의 이성에 영적 지식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불신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이러한 미덕이 꽃피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의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내면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135.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이해로 이끌 수 없고, 느끼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감정을 일깨울 수 없다. 이제 너희가 내 말씀을 증언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을 때, 왜 너희 입술이 더듬거리고 말문이 막혔는지 깨달아라.

136. 사랑하는 자는 더듬거릴 필요가 없고,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느끼는 자에게는 자신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증명할 많은 기회가 있다. (172, 24-26)

137. 오늘 너희는 왜 너희가 이스라엘인지를 설명하려 하지만 논거가 없고, 왜 너희가 영성주의자인지를 설명하려 하지만 말이 부족하다. 너희는 너희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해설할 논증과 영적 성숙이 부족하다. 그러나 너희의 상향적 발전이 실현되면, 필요한 말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너희는 사랑의 행위로 너희가 누구이며, 누가 너희를 가르쳤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2, 27)

13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설마 폐허 위에서 예언을 하려는 것인가? 나는 너희가 동료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언제든지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하고 계시해 준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중대한 논거들로 너희가 공격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139.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각자가 내 진리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베푼 위대한 기적들을 잊지 말라. 그러면 너희를 조사하고 내 말씀을 샅샅이 뒤지는 자는 , 그것이 내가 지난 시절 너희에게 말하고 예언했던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140. 싸움은 거대할 것이니, 그토록 거대하여 한때 내 제자였던 자들 중 일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부인하며, 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141. 내 계명에 충실하며 그 싸움에 맞서는 자들을,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망토로 덮어 주리니, 그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헤쳐 나갈 것이다.

142. 이 씨앗을 잘못 뿌리거나 이 일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매 순간 심판과 사람들의 박해, 그리고 불안이 닥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키운 나무는 그 열매의 맛으로 알아볼 것이다.

143. 나는 내 백성의 영적 투쟁의 시기를 위해 위대한 기적들을 준비해 두었다. 학자들과 과학자들을 경탄하게 할 기적과 일들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너희 자신의 힘에만 맡겨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제2의 시대'에 군중이 너희 스승을 조롱했던 것을 잊지 말라. (63, 42-44)

14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은 너희를 대적하고 있으며, 나는 너희가 사랑과 자비의 무기로 너희 믿음의 대의를 수호할 줄 알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승리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145. 이제 너희의 희생은 피의 희생이 아니겠지만, 너희는 여전히 비방과 경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승께서 너희를 변호하고 위로해 주시러 계실 것이니, 어떤 제자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48, 17)

146. 백성아, 더 이상 타락에 익숙해지지 말고, 순결함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그것과 싸우라. 또한 동료들의 잘못에 대해 분개하지도 말라. 말과 행동에 있어 재치 있고, 정확하며, 자비롭게 행동하라. 그러면 세상은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의 가르침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다시 말해야 하겠느냐? (89, 66)

147. 내 백성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내어, 다시금 신성한 가르침을 악용하여 다투고, 서로를 해치며,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 사이에서 평화의

전사로서 형제애, 조화, 이웃 사랑, 그리고 이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131, 58)

148. 마침내 너희 모두가 같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그 사랑을 실현한 방식의 차이 때문에 다투지 말라.

149. 너희는 신앙적 신념과 전통, 관습이 어떤 존재들 속에 너무나 깊게 뿌리내려 , 너희가 가르침을 전하는 첫 순간에 이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너희는 이를 이룰 것이다. (141, 9)

150. 1950년이 저물어 갈 때, 너희 중 많은 이에게 불확실성과 의심이 생길 것이다.

151. 내 계시를 믿는 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지닌 자들조차도, 왜 내 계시를 의심하는가? 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도, 이성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는 모든 새로운 것, 자신에게 낯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

152. 그러나 너희, 즉 약하고 무식하여 지성을 통해 인정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야말로 믿는 자들이며, 너희는 영적 세계의 신비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 왜냐하면 영이 이성에게 영생과 그 기적들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153. 인간의 지성은 이제 너희가 맞서 싸워야 할 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를 통해 영적인 것에 대한 사상과 관념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들은 영에 의해 계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4. 이 싸움을 위해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그 힘 또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힘이어야 한다. 너희의 힘은 결코 육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돈의 힘이나 세속적인 수단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 안에 살아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만이 (249, 44-46) 그 대립 속에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155.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된 자라고 부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손을 내밀어라. 너희에게 진실인 이 일이 다른 이들에게는 거짓으로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들의 눈에는 종교들이 인정받기 위해 받은 성스러움이 이 일에는 결여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156.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이 대변자들의 말을 통해 내 뜻을 드러낸다고 믿는다면, 동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가르침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내 메시지에는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 너희가 이 무기를 잘 활용할 줄 안다면 결코 패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57. 너희가 열정적으로 진리와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아무도 너희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그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빛을 향해 나아갈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297, 51-53)

158.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여러 나라와 가장 먼 민족들, 심지어 원시림 속까지 들어가게 되면, 인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너희 모두가 형제 임을 깨닫게 하고, 내 영적 가르침을 증언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사랑의 증거들에 놀라게 될 것이다.

159. 문명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부터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의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을 늘려 줄 위대한 영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60. 병자들은 너희의 길에서 치유의 향유를 받고 회복될 것이며, 슬퍼하던 자들은 마지막으로 울겠지만, 그들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다.

161. 너희가 보여 줄 그 증거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스승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처럼 환호를 받게 될 것이다.

162. 그러나 너희를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너희가 지닌 영적 은사들로 충만한 남자와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예언의 은사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치유의 향유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말씀이 수정처럼
맑은 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마치 마르지 않는
씨앗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1, 38-40)

163. 백성아, 지금 열국에는
겉으로만 평화가 깃들어 있으나,
너희는 평화가 왔다고 선포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입술을 다물어라.
참된 평화는 두려움이나 물질적
안락함이라는 토대 위에서는
일어설 수 없다. 평화는 사랑과
형제애에서 솟아나야 한다.

164. 사람들은 현재 바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며, 파도가 다시 밀려와 그
벽을 때리면 그 건물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141, 70-71)

165. “태초”부터 나는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그러나 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 왔다.

166.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났고,
인간의 영적 영혼은 발전하여
성숙에 이르렀으며, 이제 영적
영혼으로서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심연과 파멸의
문턱에 서 있는 인류는
너희로부터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167. 이것은 어둠과 빛 사이의
싸움, 마지막 싸움이며,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싸움이다. 현재
모든 어둠의 영들이 연합하고
있으며, 모든 빛의 영들은 그 힘에
맞서야 한다.

168. 나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을 품고 계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세속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목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류를 위해 싸우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부터 가장 교양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169. 영의 세계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모든 이 위에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신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고통을 무한한

아픔으로 지켜보시는
아버지이시다.
170. 이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너희 각자는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야 한다.
(358, 20-23)

제63장 -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

1. 내 임재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백성아, 네 마음속에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환호하라.
마침내 너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으니.
2. 너희는 이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여전히
옛사람들처럼 생각하며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 복수심에 차
있고, 받으신 모욕에 대해 원한을
품고 계시며, 그 때문에 그분을
그토록 자주, 그토록 심하게
모욕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낫과 채찍과 고난의 잔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영
안에는 분노도, 격노도, 혐오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크게 놀랐으며, 비록 세상이
전례 없이 울부짖고 애도하고
있더라도,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하고 이
잔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인류가 이제
자신의 행실대로 거두는 수확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4. 비록 이 시기에 닥친 모든
불길한 사건들이 너희에게 미리
예고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벌로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반대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악과 유혹을 경고해
왔으며, 너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도왔다. 게다가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부르심에 대해 항상 귀를 막고
불신해 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160, 40-41)
5. 이 시기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니,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보라, 비록 이 시대가 빛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방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6. 너희는 내 말씀을 통해 내가 세 번째 오실 때 이 민족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이 민족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비밀을 남기지 않으려는 스승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비밀이었다. 그분은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어, 너희에게 묻는 자들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오신다.

7. 나는 이 땅의 주민들이 항상 나를 찾고 사랑해 왔음을 보았으며, 비록 그들의 숭배가 항상 완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들의 의도와 사랑을 순수함과 희생, 그리고 고통의 꽃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신성의 제단 위에는 이 향기로운 꽃이 항상 놓여 있었다.

8. 너희는 "제3의 시대"에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준비되었다.

9. 오늘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생시켰음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존재 속에 살아 있는 씨앗과 너희를 인도하는 내면의 빛이, 내가 이미 "첫 번째 시대"에 야곱의 집에 부어 주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안다.

10. 너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지니고 있다. 너희는 인류에게 그늘과 열매를 베풀게 될 그 축복받은 나무의 가지들이다.

11.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장자라 부르고, 이 시대에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통해 세상에 나의 제3의 계시를 알리려는 이유이다.

12.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 가운데 영적으로 부활하여, 인류가 참된 "육신의 부활"을 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183, 33-35)

13. 너희는 내가 내 말씀을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리라 생각했느냐? 아니! 이 점에서도 나의 새로운 계시는 과거의 계시와 유사하니, 그때에도 나는 단 하나의 민족에게만 나를 드러냈고, 그 민족은 나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메시지에서 받은 씨앗을 뿌리는 임무를 맡았느니라. (185, 20)

14. 다른 민족들이 물의 홍수로 땅이 황폐해지고, 전쟁으로 나라들이 파괴되며, 전염병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러한 민족들은 — 과학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교회의 화려한 외관에 취해 잠들어 있는 — 이 소박한 형태의 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영 안에서 내 계시를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땅이 흔들려야 하며, 자연이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때가 찼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셨다.

15. 인류가 깨어나 눈을 뜨고, 온 것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게 하려면, 먼저 인간의 권력과 오만함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임무는 깨어 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62, 53)

16. 나는 한때 인류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었고, 비록 수세기가 지났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와 있다. 너희의 영은 평화를 갈망하고, 진리를 갈구하며,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고, 나의 영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걸맞은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 내려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영적 정체 상태에 머물거나, 의식과 전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77, 19)

17. 세상에서 학식이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에 놀라지 말라. 내가 오래전에 너희에게 “아버지여,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당신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고, 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이를 예고했으니 말이다.

18. 그러나 이는 내가 내 진리를 누군가에게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들이 그들의

(영적) 가난함이나 하찮음 속에서
나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반면,
재능이 있어도 마음이 이론과
철학, 교리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를 위한
진리는 정해진 때에 각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50, 45)

19. 내 율법을 알고도 숨기는 자는
내 제자라 할 수 없다. 입술로만 내
진리를 전하고 마음으로는 전하지
않는 자는 나를 본보기로 삼지
않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행실로 정반대를
증명하는 자는 내 가르침을
배반하는 자이다.

20. 마리아의 순결과 완전함을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
이는 그의 무지함으로 인해
하느님께 도전하고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의
시대”에 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는
자는 아직 잠들어 있으며, 인류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계시를
예고했던 과거 시대의 예언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이다. (73,
28-29)

21. 그들은 너희가 오류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여 와서
나를 시험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내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대답하면, 그들은 더욱 열렬히
나를 부인할 것이다.

22.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빛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신성한
지식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로 인해 분명하고
빛나는 계시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비밀과 수수께끼가 되게
할 것이다. (90, 49-50)

23. 지금 나는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단지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으나, 인류는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다.

24.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보내고 너희를 바라보는 그 “산”
위에서, 나는 작별을 앞둔 날

저녁에 이렇게 외쳐야 할 것이다. “인류여, 인류여, 네 곁에 누가 계셨는지 알지 못했던 자여!” 마치 내가 “제2의 시대”에, 죽음을 앞둔 순간 산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곁에 있던 선함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25. 그분이 울었던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여전히 빛이 없었고 진리를 얻기 위해 아직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함이었다. (274, 68-69)

26.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과 마지막 권면을 전한 날로부터 수세기가 지났으나, 오늘 나는 너희에게 성신으로 나타나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려 한다.

27. 나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며, 영으로 오나니, 준비된 자들만이 나를 볼 것이다.

28. 너희가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는 동안, 다른 이들은 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한다. 나는 그들에게 큰 증거를 보여 주어야만 했으며, 그 덕분에 점차 그들의 불신을 이겨냈다.

29. 내가 너희에게 늘 보여 온 사랑과 인내를 통해, 오직 너희 아버지만이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가르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너희를 지켜보며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 준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평화를 느끼게 해 준다. (32, 4)

30. 내 말씀, 나의 가르침은 겉보기에는 오늘 오직 너희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그 지혜와 사랑은 온 우주를 아우르며, 모든 세계와 육신을 입은 영혼과 육신을 벗은 영혼을 하나로 묶기 때문이다.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리 오라.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나를 찾으라.

31. 나는 너희의 고통을 알고 너희를 위로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사랑을 너희에게 불어넣는다. 이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이며, 너희 주변에 그 사랑을 퍼뜨리기 위함이다.

32. 너희가 진실로 이 음성 전달자들을 통해 내가 드러내는 지혜 속에서 나의 임재를 알아본다면, 영적 길 위에서 건설적인 일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또한 깨달으라.

33. 아, 부름받은 모든 이가 서둘러 왔더라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식탁은 제자들로 가득 찼을 것이며, 그들 모두는 같은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대받은 모든 이가 온 것은 아니니, 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핑계로 삼아 신성한 부르심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렸다.

34. 서둘러 온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12, 76-80)

35. 이 시대에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 중 모두가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라, 식탁에 빈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많은 나의 어린 자녀들이 은혜를 받은 후 떠나버리고, 책임과 사명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아아,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각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나에게 했던 서약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면! (86, 43)

36. 나는 지금 너희에게 제3의 성서를 유산으로 남기지만, 너희는 앞선 두 성서조차 이해하지 못하였다. 만일 너희가 이 시대에 준비되어 있었다면, 내 말씀이 물질적으로 들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영적으로 말했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사랑으로 내게 응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86, 49)

37. 이것이 바로 "제3의 시대"의 빛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를 시험해 보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신성한 광선이 그의 이성을 비추지 않는 한, 너희가 그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해도 그에게 영적인 가치와 진리를 담은 말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38. 영혼이 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육신을 사용하는 것처럼, 잠시 동안 그 육신에서 떨어져 나와 그 자리에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39. 너희가 내게로 오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며,
아버지께 닿는 가장 기쁘게
여겨지는 기도는 너희 영혼
속에서 고요히 솟아오르는
기도라고 가르친다. 바로 이
기도가 너희가 나를 듣게 하는
나의 광선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나의 신성을 기쁘게 하는 것은
노래나 말이 아니다. (59, 57-59)
40. 너희는 내 말씀이 분명하지
않다고, 혹은 불완전함을 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 내게서
어떤 모호함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떤 오류라도 발견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자의 잘못된
전달이나 너희의 부족한 이해력
탓으로 돌릴지언정, 결코 내
가르침 탓으로 돌리지 말라. 내
말씀을 훼손하는 그 전하는 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내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는 양심의
끊임없는 질책을 겪게 될 것이며,
영혼의 평화를 잃게 될 것이니라!
(108, 51)
41. 너희를 배려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베풀기
위해 죄인의 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의로운 자, 순결한
자를 내게 보여 주라. 너희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를 내게
지목해 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사용할 것임을 너희에게
장담하노라.
42. 내가 죄인들을 이끌기 위해
죄인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의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니, 그들은
이미 빛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16, 25)
43. 너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에도 이 씨앗이 죽지 않는
것을 보라. 어둠과 함정, 장애물과
시련을 이겨내고 , 날마다 계속
싹트고 자라는 것을 보라. 왜 이
씨앗은 죽지 않는가? 진리는
불멸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44.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가르침이
때때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새로운 싹들이
무성하게 돋아나 사람들이
영성화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99, 20)

45. 내 가르침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이 가르침이 너희 종교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46. 나는 너희에게 이 가르침의 포괄적인 특징과 보편적인 의미를 계시해 주었으니, 이는 인류의 일부나 (특정)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너희 세계의 궤도를 넘어 모든 생명 세계가 있는 무한을 포용하는 것이며, 그곳에는 —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하고 있다. (83, 6)

47. 내 말씀이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사업은 모든 이념과 신조, 종교가 영적으로 통합되어 약속의 땅 문턱에 도달하게 될 빛나는 길이다. (310, 39)

48. 너희 영혼이 양분을 얻는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스승으로, 성령의 충실한 사도로 변화시키려 한다. (311, 12)

49. 나는 너희를 내 종으로서, 제3시대의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성가들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영성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물질보다 영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이며, 삼위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 시기에 걸쳐 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며, 마리아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삶의 길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너희의 우주적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70, 36)

50.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내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이 백성의 자녀라 불릴 것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이 법을 사랑하고 이 씨앗을 퍼뜨리는 자는 누구나, 비록 이 계시를 통해 나를 듣지 못했더라도, 내 포도원의 일꾼, 내 사역의 사도, 이 백성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94, 12)

51. 백성아, 너희가 서로 다른 모임 장소에 모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오직 무지함만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로 묶는 영적 유대를 깨닫지 못하게 할 뿐이다. (191, 51)

52. 너희가 이 모임 장소나 저 모임 장소, 혹은 여러 모임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의 대변인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은 기쁨과 믿음으로 가득 차며, 너희는 그 가르침을 이 공동체들이 영성화됨으로써 하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집회에 참석하면, 너희는 마음속으로 상처를 입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이 백성 안에 존재해야 할 일치가 없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40, 71)

53. 나는 너희가 나의 선하고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공동체 내에서 직책이나 영예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덕을 통해 완전함에 이르며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너희의 이상이 되어, 너희의 삶이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당히 소유할 만한 공로가 없다면, 명예로운 자리나 칭호, 이름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65, 17)

54. 나의 사역은 수많은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니며, 세상에 또 하나의 종파가 아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져온 이 계시는 영원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너희는 영성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의식을 덧붙였고, 얼마나 많은 부정한 것들을 더하여 마침내 그것을 왜곡해 버렸는가. 너희는 내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의식을 도입했느냐? 너희는 너희가 한 모든 것이 내게서 영감을 받아 지시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믿고 있다. (197, 48)

55. 너희는 곧 겉치레의 예배에 지치고 종교적 광신에 싫증을 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들에게 전할 영성화의 메시지는 신선하고 상쾌한 이슬처럼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다.

56. 너희가 광신적인 의식과 영성화와 상반되는 행동 방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다면, 세상이 너희를 신성한 메시지의 전령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은 너희를 새로운 종파의 광신자로 여길 것이다!

57.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내게 이렇게 말하느니라. "스승님, 로케 로하스가 유산으로

남긴 많은 의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58.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제2의
시대’의 그 예를 들었던 것은, 당시
백성들이 의식과 형식, 전통,
명절을 따르는 데만 급급하여 법,
즉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렸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59. 나는 너희가 오늘날에도, 비록
로케 로하스로부터 배웠더라도,
모세의 백성이 당시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것처럼, 전통과
의식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 스승의 그
행적을 상기시켜 주었다.
60.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나쁜 것을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들은 단지 백성이 신의
계시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상징과 행동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모든 숭배
형식이나 상징성을 제거해야만
했다. (253, 29-32)

61. 내 법을 이해하지 못한 종들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의심과
불확실성을 품고, 그들의 무지와
이기심 때문에 내가 백성들
가운데 더 머무를 것이며, 그들의
인간적 뜻에 따라 내 보편적
광선을 다시 내려 보내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는가.
6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내가 내 말씀 속에서
언제 우유부단함이나 불확실함,
혹은 의지의 갈등을 보인 적이
있느냐? 결코 없노라. 참으로, 만일
그러했다면 나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자 창조주가
아니었을 것이니라.
63. 내 안에는 단호함과 단일한
의지가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밝은 대낮의 빛처럼 분명하게
말하여, 모든 이가 나의 현존과
본질, 그리고 권능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영이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주신 (근본적인) 이성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노라.

64.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라. 사람은 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교회라 불렀으며, 그곳에 들어오는 백성은 경의를 표하고, 광신과 우상 숭배를 부추기며, 사람 자신이 만든 것을 숭배한다. 이는 내 눈에는 혐오스러운 일이니,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처음에 알고 들었던 모든 것을 네게서 제거하여 네가 광신주의를 버리게 하였노라.

65.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처는 인류에게 알려져야 하며, 닫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연약하고 길을 잃은 자, 지치고 병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준비와 내 지극한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내 율법을 따름을 통해, 나는 내 신성의 참된 제자들의 행적 속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66. 거짓 대변자들과 거짓 교회 지도자들, 거짓 “일꾼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신성모독적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하며, 내 말씀과 내 보편적 광선이 계속해서 백성 가운데 가르침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67. 나는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내 뜻대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지, 누가 오직 자기 뜻만을 드러내는 자인지 밝히겠으며, 그가 저지른 행위와 그가 만든 율법을 드러낼 것이니, 그들은 배척받고 추방될 것이다.

68. 이는 내가 신성한 은총과 능력을 거두어 들일 것이기 때문이며, 유혹이 그들을 그물 속에 가둘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가는 자 는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내 성령의 은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363, 52-56)

69. 너희가 나의 사도라고 떠벌리지 말고, 그저 사도가 되어야 한다. 비록 스승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제자라고 말해야 한다.

70.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지 말며, 손에 책을 들고 다니지 말며, 집회소를 짓지 말아야 한다.

71. 또한 너희는 땅 위에 내 사역의 중심이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며, 내 자리를 대신하여 사람 위에 서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72. 너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도자들은 마지막 자들이다.
기도와 영성 수양, 그리고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246, 30-31)

73. 내가 제자들에게 묻노니,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같은
완전한 사역을 인류에게, 마치
그릇된 길로 여겨지거나, 이
시대에 지배적인 영적 혼란의
산물로 생겨난 수많은 교리나
이론 중 하나로 간주되도록
묘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74. 내가 너희의 증언이
순수하도록 그토록 사랑하고 내
말씀으로 가르쳤던 너희가,
너희의 실수의 희생양이 되어
세속 법정의 손에 넘겨지거나,
너희 이웃들이 너희를 해로운
존재로 여겨 박해받고 흩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75. 너희는 내 가르침이 —
올바르게 따를 때 — 그러한
사건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제자들아.

76.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게
두어라.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 내가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때, 너희는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스승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에
시달릴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분의 지혜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52, 26-27)

77. 나는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하나님 없는 백성’, ‘성전
없는 백성’이라 부를 것이니,
너희는 나를 숭배할 화려한 교회
건물도, 엄숙한 예배 의식도,
형상으로 나를 찾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유언으로 한 권의 책을 남기리니,
그것이 시련 속에서 너희의
방패가 되고, 너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길이 될 것이다. 오늘
너희가 대변자를 통해 듣는 이
말씀들은 내일 경전 속에서
흘러나와, 너희가 다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시기에
다가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129, 24)

79. 나는 지금 인류에게 새로운 책, 새로운 유언을 남긴다. 제6의 인장이 풀릴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제3의 시대'의 나의 말씀, 곧 신성한 음성이다.

80. 너희의 이름이나 행적이 역사에 기록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나의 말씀은 영원히 인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울림 있고 맑은 목소리처럼 될 것이며, 나의 백성은 영성화의 이 길 위에서 남긴 발자취를 후세에 남길 것이다. (102, 28-29)

81. 내 말씀이 드러난 모임의 장소들은 수없이 늘어났으며, 그곳마다 참된 지식의 학교와 같아서, 내 제자들이 모여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열망하며 찾아오는 곳이다.

82. 만일 이 각 공동체가 내 자비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기적들에 대한 증언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내 첫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내 모든 대변자를 통해 전한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모아야 한다면, 이는 너희가 해낼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83.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을 통해 인류에게, 내 말씀의 정수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일들의 증언이 담긴 책을 전해 줄 것이다. 이 임무를 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영감을 주어, 이 책에 꼭 필요한 가르침들이 기록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152, 39 41)

84.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다미아나 오비에도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포가 시작된 이래로 결코 변한 적이 없다. 내 가르침의 요지는 항상 동일했다.

85. 그러나 그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전파되었던 그 시절의 첫 번째 신성한 메시지들은 숨겨져 있다.

86. 너희가 내일 이 계시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침들이 빛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첫 가르침이 있었던 날짜와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며, 1950년—이 계시 시대가 끝날 것으로 정해진 해—이 너희에게 가져다줄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도 알게 될 것이다. (127, 14-15)

87. 너희는 내 말씀을 숨기고 내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라.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너희가 그들에게 너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내 일이 내일 비난받고 내 법이 왜곡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40, 39)

88.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 언어로 듣게 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이가 알게 하도록 너희에게 명한다.

89. 이 방식으로 너희는 참된 "이스라엘의 탑"을 짓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모든 민족을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시키고, 너희가 세상에 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알게 된 그 신성하고 변함없으며 영원한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탑을 말이다. (34, 59-60)

영적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90. 나는 현재 나의 새로운 계시를 중심으로 모은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이 "제3의 시대"에 부름받은 각 사람 안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91.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며, 내가 너희에게 이 이름을 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상의 한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92. 이 이름은 지상에서 다시 알려지게 될 것이나, 오류 없이, 영적인 그 진정한 의미 그대로 알려질 것이다.

93. 너희는 이 이름의 기원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그 백성의 자녀라는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너희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왜 이 명칭을 받았는지에 대해 완전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내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가할 공격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274, 47 50)

94. 나는 너희에게 순종을 원하며, 너희가 믿음과 영성화로 강해진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야곱의 후손인 세대들을 번성하게 하였듯이 — 그 백성을 덮친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 영 안에서 그 씨앗을 품고 있는 너희가 너희의 투쟁 속에서 견뎌내어, 너희 백성이 다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95.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임을 알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소명에 대해 더 포괄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인류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이와 관련된 예언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당부하였다.

96. 왜냐하면 땅 위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즉 육신으로 말미암은 유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름을 너희에게서 빼앗으려 하고 너희에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나, 이는 다툼을 일으킬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97. 그들은 아직 너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희는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 땅을 방황하며 영적으로 평안을 잃은 이 백성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계시해 주었다. 그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자신들의 엄청난 배은망덕함과 완고함 때문에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다.

98. 내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으나, 수세기에 걸쳐 나를 부인해 온 자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그곳에 못 박혀 있으며, 나는 그들이 깨어나 회개하는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베풀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것을 주기 위함이다. (86, 11-13)

99. 이 시대에, 전통에 얽매이고 보수적이며 광신적이어서 수세기 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가 가져다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제2시대"의 유대

백성처럼 되지 말라.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진리의 빛을 볼 수 없었기에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 (255, 19)

100. 먼 땅과 나라들에서 너희는 영혼의 해방을 갈망하는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옛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올 것이니, 마치 옛날 이스라엘 지파들이 광야를 건너던 때와 같으리라.

101. 그 땅은 자신의 왕국을 새로운 유산으로 제시해 주신 분을 그 품에서 내쫓은 이래로 길고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은 오아시스에 다가가고 있다. 그곳에서 쉬며 내 말씀을 묵상한 뒤, 내 율법을 깨달음으로 굳건해진 채, 오랫동안 잊혀졌던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계속할 것이다.

102. 그때 너희는 많은 이들이 너희 민족이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은 이 세상 너머에 있으며, 그곳에 이르려면 이 시대의 시련이라는 거대한 광야를 건너고 나서 영적으로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이 나라가 단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일 뿐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103. 그러나 너희는, 백성아, 그 오아시스가 지친 여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들의 갈증으로 메마른 입술에 맑고 시원한 물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0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그늘과 그 물은 무엇인가? 나의 가르침이니라, 백성아, 사랑의 실천에 관한 나의 신성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은총과 축복의 풍요로움을 누구에게 두었는가? 바로 너에게 두었노라, 백성아, 그리하여 네가 네 마음을 모든 이기심에서 점점 더 해방시키고, 네 모든 행실에서 그것을 맑은 거울처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려 함이니라.

105. 너희의 사랑으로 인해, 전통에 얽매여 영적으로 정체된 그 백성을 삼위일체 마리아 영성

교리로 회심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너희의 영혼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겠느냐? “옛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 )을 통해 회심하게
된다면, 즉 전자가 후자를 통해
은총을 얻게 된다면,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겠느냐?

106. 지금까지는 유대 민족이
도덕적, 영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옛 전통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민족이다.

107. 이 길을 잃고 온 세상에
흩어진 백성이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태초부터 그들의 구세주로
약속되었으나, 그분을 악한 자로
여기고 그분에게서 아무런 선함도
찾지 못해 오해하고 죽였던
그분을 찾게 될 때가 가까워졌다.
(35, 55, 58)

108. 내가 다른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택했다는 사실을 특혜로
받아들이지 말라.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이 이룬 민족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109. 모든 민족은 지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며, “이스라엘”이 가져온
소명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자이자, 믿음의 등대이며,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다.

110.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예언과 계시들은,
인류가 그것을 이해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다.

111.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지상의 한 민족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영혼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신성한 가족을
형성할 것이다. (221, 27-30)

제자도와 영성

112.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선하고 고귀하게 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삶에는 너희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행적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라.

113. 나는 모든 이에게 말하며, 수세기에 걸쳐 너희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결점들을 제거할 것을 너희 모두에게 촉구한다. (21, 22-23)

114. 너희의 기원이 나의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말라. 오늘날 너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있지만, 일단 다시 모든 영적 영감에 열려 있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80, 15)

115. 이 세상은 일하기에 적합한 밭이다. 여기에는 고통, 질병, 온갖 형태의 죄, 악덕, 불화, 길을 잃은 청년들, 존엄성을 잃은 노년, 악을 위해 남용된 과학, 증오, 전쟁, 거짓말이 있다.

116.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일하고 씨를 뿌려야 할 밭들이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그 싸움이 거대하게 보인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것이 크기는 하나, 너희가 스스로와 벌여야 할 싸움, 즉 영혼과 이성과 정신이 육체의 정욕, 자기애, 이기심, 물질주의와 벌이는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를 이기지 못한다면 — 어떻게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 순종, 겸손, 그리고 영성화에 대해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73, 18 19)

117. 미덕은 경멸받아 왔으며 해롭거나 무익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너희가 미덕만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느끼게 하며, 만족감으로 채워줄 것임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미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기 전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와 시련을 겪어야 한다.

118. 미덕을 수호하는 병사들은 큰 노력과 굳건한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선과 실천하는 이웃 사랑,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이 병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바로 그 병사라고 믿는가?

119. 너희는 내면을 성찰하고, 너희가 아니라고 내게 대답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모두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병사들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64, 16)

120. 사랑하라.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라. 너희가 나의 선택받은 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첨을 피하고, 너희가 행하는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 조용히 일하며, 사랑의 행실로 내 가르침의 진리를 증언하라.

121.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현생과 전생의 흠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113, 58-59)

122. 아첨을 멀리하라. 그것은 너희의 고귀한 감정을 파괴할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 마음에 불어넣은 그 믿음을 죽일 수 있는 칼이다.

123. 어떻게 사람들이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제단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106, 47-48)

124. 겸손을 옷차림의 초라함과 혼동하지 마라. 또한 자기 안에 열등감을 품고 있어 그 때문에 타인을 섬기고 그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믿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된 겸손은 비록 자신이 누군지 판단할 줄 알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몸을 낮추려 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는 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다.

125.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너희에게 애정과 이해, 겸손 을 보일 때, 너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가. 너희는 너희보다 지위가 낮거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전할 수 있다.

126. 몸을 낮추는 법을 알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손을 내미는 법을 알며,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한 경우 애정의 증거나 도움, 위로를 받는 자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자 또한 행복해지니, 그는 자신보다 위에 계신 분께서 그에게 사랑과 겸손의 증거를 주셨음을 알기 때문이며, 그분은 그의

하나님이자 주님이시니라. (101, 60, 62)

127. 순결하고, 겸손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라. 인간적인 영역에서 정당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다하라. 너희 삶에서 불필요한 것, 인위적인 것,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대신 너희 존재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에서 위안을 얻으라. (131, 51)

128. 누구도 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보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너희가 끝까지 이를 견지한다면, 지상에서 정의와 사랑이 승리할 것이며,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123, 65)

129. 너희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라. 오직 너희 자신과 관련된 것만을 느끼기에만 몰두하고 애쓰게 하지 말라. 인류가 겪고 있는 시련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말라.

130. 언제쯤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피를 이어받고 너희의 살과 뼈인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이웃을 포용하여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커질 것인가?

131. 너희가 육체보다 영혼의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육신의 껍질보다 영혼의 존재로서 형제자매임에 틀림없다. 영혼은 영원에 속하는 반면, 육체는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32. 그러니 이 땅에서 가족은 오늘은 생겨나고 내일은 다시 사라지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90, 39-41)

133.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내가 다른 교파를 믿는 동료 인간들에 대해 너희 마음에 혐오나 악의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제자들아. 너희야말로 형제애와 화합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다. 너희는 너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애정으로 모든 이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한다. (297, 49)

134. 나는 너희의 깨달음이 클수록,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도 커질 것임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참된 삶을
사랑하라. (297, 57-58)

135. 제자들아, 너희 투쟁의
목표는 더 이상 고통이 닿지 않는
그 영혼의 경지임을 알라. 그리고
이 목표는 공로와 투쟁, 시련, 희생,
그리고 포기함을 통해 달성된다.

136. 너희가 때때로 동료 인간들
중에서 발견하는 인내, 믿음, 겸손,
그리고 순종의 사례들을
주목하라. 그들은 인류 가운데
덕행의 본보기가 되도록 내가
보낸 영혼들이다. 겉보기에는 이
피조물들의 운명이 비참해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왔음을 알고 있다.

137. 너희는 역사 속에서 내
사자와 제자들의 위대한 본보기를
받아왔으니, 너희에게 잘 알려진
이름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작은 본보기들을
간과하지 말라. (298, 30-32)

138. 예언자와 선구자, 빛의
영들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품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내가 그들 중
일부를 보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사자가 아니라 신으로
여겼고, 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종교와 숭배를 만들어
냈다. (135, 15)

139. 제자들아, 너희 형제의 눈에
박힌 '티'를 바라볼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너희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보라.

140. 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파에
속한 동료들의 행실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4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모든 길에는 고귀하고
희생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나를
찾는 마음들이 있다.

142. 그럼에도 제자는 나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왜 때로는 서로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키며,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다양한
세계관을 허용하느냐고.

143. 이에 대해 스승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허용된 이유는, 정확히 똑같은 이해와 같은 빛, 같은 믿음을 가진 두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너희가 너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코 율법의 길을 걸으라고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길로 초대받았기에, 진리를 갈망하며 진정한 공덕을 쌓을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297, 23-24)

144. 나는 너희가 판단에 있어 경솔하지 말고, 첫인상에 의해 성급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배우기를 원한다.

145. 내가 이 조언을 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리고 교리나 종교, 철학, 종파, 영적 계시 또는 과학에 대해 판단해야 할 때, 너희가 아는 것이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며, 너희가 아는 진리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절대 진리의 극히 일부일 뿐,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266, 33)

146. 동료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그들의 교회에 들어갈 때는 진실한 경건함으로 머리를 숙여라. 너희는 내가 모든 예배에 함께 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147. 나를 따르기 위해 세상을 부인하지 말고, 세상에 의무가 있다는 핑계로 나와의 관계를 끊지도 말라. 두 법칙을 하나로 융합하는 법을 배우라. (51, 53)

148. 내가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온 인류를 축복하지 않는가? 그 축복의 '망토'는 선하고 온유한 자들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와 범죄자들까지 감싸고 있다. 어찌하여 나를 본보기로 삼지 않는가? 혹시 너희는 다른 이들의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인가?

149. 너희가 인류의 일부임을 잊지 말라. 인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너희가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웃에게서 보는 모든 것은, 너희 자신에게도 더 많거나 적게 존재한다.

150.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 너희 영혼과 도덕적

모습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스스로를 판단할 줄 알게 될 것이며, 타인을 바라볼 자격도 갖게 될 것이다.

151. 이웃에게서 결점을 찾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결점만으로도 충분하다. (286, 41-42)

152. 너희가 사랑을 이기적으로 가족에게만 국한시킨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이행하고 있다고 믿느냐? 종교 공동체들이 오직 자신들의 신자들만을 인정하고 다른 교파에 속한 자들을 배척한다면, 그 최고 계명을 이행하고 있다고 믿느냐?

153. 문명과 진보를 자랑하는 세상의 강대국들은, 그들의 모든 노력이 형제 살해의 전쟁을 준비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면, 과연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랐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154. 아, 너희 인간들아, 너희는 내 말씀의 가치를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고, 주님의 식탁이 너희에게 너무나 소박해 보였기에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식탁은 여전히 너희 영혼을 위한 생명의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98, 50-51)

155. 내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름다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너희 영혼에게 무겁다고 말하지 마라. 진정으로 무거운 것은 너희 자신의 악과 타인의 악이라는 십자가이며, 그 때문에 너희는 울고, 피 흘리고, 심지어 죽어야만 한다. 너희가 그들을 품어 준다면, 그 배은망덕함과 무지, 이기심, 그리고 비방은 짐처럼 너희 위에 얹힐 것이다.

156.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혹하고 힘들게 보일지 모르나, 이는 율법이 완전하여 악함도 거짓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은 그의 방패이자 버팀목이며 구원이 된다. (6, 16-17)

157.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야 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 너희는 이 땅 위에서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158.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가 온 세상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는 것,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 있어 가장 큰 이타심과 진실함을 실천하는 것이다.

159.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너희를 결코 의심한 적이 없으며, 너희의 구원을 믿고, 너희가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 힘을 내리라 확신한다. (167, 5-7)

160.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너희의 인간적 삶이나 영혼에 해로운 모든 것에서 멀어져라. 이것이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하는 바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려움과 불가능함을 보느냐?

161. 아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것은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개선과 갱신, 그리고 영성화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너그러운 마음과 높은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모든 의심과 무지, 그리고 우유부단함이 사라져야 함을 알고 있기에, 계속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돌을 영생의 양식으로 바꾸고, 바위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다. (149, 63-64)

162. 나는 너희에게 그 법을 상기시켜 준다. 그 법은 너희의 정신에서 지워질 수도, 너희의 마음에서 잊혀질 수도, 의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 법은 모든 사람이 내면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성, 즉 우주적 지성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163. 삶의 모든 행위가 진리와 정의에 기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법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과연 너희의
영이 너희를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은
결코 무활동하거나 무관심한 적이
없었다. 내면의 빛을 거부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며, 또한
너희의 이성이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 즉 외적인 빛의 찬란함에
매료되어 있다. (306, 13-14)

164. 오늘, 내가 내 가르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
영혼이나 육체를 지배하는 법칙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해야겠다.

165. 양심과 직관, 그리고
깨달음은 너희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 넘어짐을 피하게 해 줄
인도자들이다. 이 빛들은 영에
속한 것이나, 그것들이 빛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그
명료함이 너희 각자에게 깃들면,
너희는 외치게 될 것이다. “아버지,
당신의 구원의 씨앗이 제 존재
안에서 싹텄고, 당신의 말씀이
마침내 제 삶 속에서
꽃피었습니다.” (256, 37-38)

166. 나는 너희 영혼에 위대함을
주기 위해 왔으니, 그 위대함은
나의 사랑인 나의 율법을
성취하는 데 그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을 따르는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이 위대함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343, 29)

167.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되, 내 율법의 범위
안에서 누릴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온전하리라.

168. 너희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듣게 되는데, 이는 너희가
몸과 영혼을 내가 주신 법에 따라
조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69.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종종 계속
죄를 짓는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170. 너희 안에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희망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가?
우울함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항상 너희와 함께하시는
나의 사랑을 생각하라. 너희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서
찾으라. 그러면 곧 새로운 계시로
인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과 희망의 빛이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빛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155, 50-53)

171. 너희를 상처 입힌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남을 상처
입히는 사람은 단지 영적인 빛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생각해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용서만이 그
마음속에 빛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원한이나 복수는
어둠을 더하고 고통을 불러온다.
(99, 53)

172. 너희에게 완전한 행실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너희 양심은,
너희가 이웃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 때까지 너희를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173.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이 단지
너희가 내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 뿐인데, 어찌 그들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용서하면
공덕을 쌓게 될 것이며, 천국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지상에서
너희의 영적 상승을 도왔던
자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버지께 그들도 구원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할 것이며, 너희의
중보 기도가 그들에게 그 은총을
얻게 할 것이다. (44, 44-45)

174. 절망 속에서 나나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위해 내 향유 한
방울을 너희에게 주리라.

175.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통해 너희를 상처 입히는
누구에게나 용서할 준비를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러한 시련 속에서
진실하고 참된 용서를 베풀
때마다, 그것은 너희 영적 발전의
길에서 도달하는 또 하나의
단계가 될 것이다.

176. 그러니 너희는 원한을 품고,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에게
용서를 거절하겠느냐? 나를
본보기로 삼는 영적 기쁨을
포기하고, 모든 타격을 갚아주기
위해 폭력성이 너희의 뇌를
어둡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17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인류는 아직 용서의 힘과 그것이 일으키는 기적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일단 내 말씀을 믿게 되면,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111, 64-67)

178.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 너희가 나와 대화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은 사랑을 통해 가장 심한 모욕조차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를 왜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359, 25)

179. 모욕을 당할 때마다 용서하라. 용서해야 할 횟수조차 신경 쓰지 마라. 너희의 소명은 너무나 높기에, 이 길의 덫에 걸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앞에는 너희를 기다리는 매우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180. 너희의 영혼은 더 높은 차원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사랑과 이해,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81. 과거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행실로 영의 영원한 책에 아름다운 페이지를 써 내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따라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는 모범이 되고, 앞으로 이 땅에 올 새로운 세대들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다. (322, 52)

182. 평화를 가꾸고, 사랑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인류는 얼마나 평화를 필요로 하는가!

183. 삶의 변덕스러운 운명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강인함을 유지하며 너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베풀 준비를 하라.

184. 모든 영혼의 유산인 그 평화는 이 시대에 사라지고 전쟁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국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제도를 파괴하며, 영혼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185. 그 이유는 악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증오, 무분별한 야망, 제멋대로인 탐욕이 퍼져 나가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86. 너희의 기쁨과 위안을 위해, 나는 너희의 해방이 이미 가까웠음을, 형제애와 순결, 건강의 분위기 속에서 숨 쉬기를

갈망하며 이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린다. (335, 18)

187. 너희는 삶의 전 과정에서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너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다. 준비할 줄 안다면,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도
이루어 낼 것이다.

188. 동전 한 닢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은 — 비록 그것 또한
사랑의 실천이기는 하지만 — 더
낮은 차원의 것이 될 것이다.

189. 너희는 이웃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190. 나는 더 이상 내 율법으로
보호받는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웃의
고통을 느끼는 제자들을 원한다.
회개하며 일어서는 모든 이에게,
그들이 어느 종파나 교회를
따르든 상관없이, 나는 용서할
것이며 그들에게 참된 길을 아주
분명히 보여 주리라. (10, 104-107)

191. 내 말을 들어라.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며 선을 베풀어라.
그래야 하늘에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악을 행할 때 증인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선한 일을 할 때
증인이 있는 것이 어찌 기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단지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192. 너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인간적이기에, 칭찬의
말은 너희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193. 왜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한
직후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자선은 거짓이며,
그의 사랑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194. 세상이 너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을 보게 하되, 명예를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직
좋은 본보기와 교훈을 주고 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만 하라.
(139, 56-58)

195. 너희 영혼이 "영적 계곡"에
이르러 지상에서 보낸 시간과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가장 많이 물을

것은 너희가 이웃을 위해
간구하고 행한 모든 일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날 내가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36, 17)

196. “제2의 시대”에 인류는
나에게 나무로 된 십자가를
주었고, 사람들은 나를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정죄했다.
그러나 내 영혼 속에는 또 다른, 더
무겁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가
있었다. 바로 너희의 불완전함과
배은망덕함의 십자가였다.

197. 너희가 이웃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렇게 하여 내 면전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지상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고 내 앞에 나아올
때 비로소 너희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십자가가
너희에게 약속된 왕국의 문을
열어 줄 열쇠가 될 것이다. (67, 17-18)

198. 나는 너희에게 “제2의
시대”에 나를 따랐던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 중에는 부모를 떠난 이도
있었고, 배우자를 떠난 이도
있었으며, 집과 고향, 어선과
그물을 버리고 —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에게 이
시대에 너희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80, 13)

199. 너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관습과 전통이 영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너희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63, 15)

200. 너희는 현재 ‘영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내적 고양을 이루라고
요구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201.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불어넣는 이상을
이해하며, 이들은 서둘러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261, 38)

202. 너희가 진정으로 영성화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면, 끈기 있고, 인내심 있으며, 배움에 열정적이고, 주의 깊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는 가는 길에서 점차 너희 행위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빛이자 참된 삶에 대한 깨달음인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172, 9)

203. 나는 너희가 지상에서 영적으로 사는 법,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새로운 교훈을 전한다.

204. 나는 이미 너희에게 “영성화”가 위선이나 종교적 광신, 혹은 초자연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영성화는 영혼과 육체의 조화, 신성한 법과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 삶에서의 소박함과 순수함,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깊은 믿음,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신뢰와 기쁨, 도덕과 영혼의 완성을 향한 이상을 의미한다. (279, 65-66)

205. 너희는 ‘천국의 사다리 일곱 단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고 있으며, 너희 스승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숫자 ‘일곱’은 영성을 의미하며, 바로 그 영성이 내가 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6. 너희는 모든 미덕과 발전된 능력을 갖추고 내게로 와야 한다. 너희 발전의 일곱 번째 단계에서 너희는 에서 내게 도달하게 될 것이며, 하늘이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40, 6)

207. 먼저, 사람들이 완전한 영성화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들은 물질적인 교회가 필요할 것이며, 내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눈앞에 조각상이나 그림을 두게 될 것임을 이해하라.

208. 사람들의 영성화나 물질주의의 정도는 그들의 종교적 숭배 방식에서 가늠할 수 있다. 물질주의자는 세상의 사물 속에서 나를 찾으며, 자신의 바람대로 나를 뵙지 못하면, 마치 내가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형상화한다.

209. 나를 영으로 이해하는 자는 자기 안에서, 자기 밖에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안에서 나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125, 49-51)

210. 나에게 영적인 경배를 드리고, 금과 보석으로 덮인 교회와 제단을 세우는 자들처럼, 긴 순례를 떠나고, 거칠고 잔혹한 채찍질로 자신을 징계하며, 입술로만 기도하고 기도문을 읊조리며 무릎을 꿇지만, 여전히 나에게 마음을 바칠 능력이 없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 나는 양심을 통해 너희에게 경고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이 한 일을 말하고, 그것을 떠벌리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공로도 없다. (115, 9)

211.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너희 영혼을 항상 너희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

212. 나는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주로 고독과 고요함을 찾는 것을 보았으며,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고자 하거나 나에게 감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평정심과 자제력, 내 임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내 도움을 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40, 34-35)

213. 침묵 속에서 나에게 너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너희의 갈망을 나에게 맡겨라.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가 점차 너희만의 기도를 구성하는 법을 배워, 마침내 너희 영혼이 아버지와의 완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110, 31)

214. 너희는 기도가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었고, 영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든 물질적인 곤경을 해결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서든, 기도를 올릴 때 그 안에 내재된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이해하게 되었다.

215. '아버지'라는 한 마디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희의 온 존재가 떨리고, 그분의 사랑이 주는 위로가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기억하라.

216. 너희 마음이 진심으로 나를 부를 때마다, 나의 영도 기쁨으로 떨고 있음을 알라.

217.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이 너희 내면에서

터져 나올 때, 너희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들리며, 너희는 신성한
지혜로부터 어떤 비밀을 밝혀내게
된다. (166, 49-51)

218. 너희는 청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전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공로이다.
날마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1950년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이가 영적으로
빛으로 부활하도록 허락하리라.
(84, 53)

219. 오늘 너희는 아직 제자일
뿐이며, 항상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느님께 말하라.
그러면 그분은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 영혼 안에서 울려 퍼질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가 될 것이며, 너희는 점차
그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목소리에 익숙해질
것이다. (205, 47)

220.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종교 공동체의 모든
화려함과 권세와 호화로움이
사라져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이미
사랑과 진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게 될 영적인
식탁이 차려져 있을 것이라고
해도, 놀라거나 분개하지 말라.

221.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내 말이라고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들에게 왜 분개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물을 것이다. 그들의 삶인가? 그건
내가 지키고 있다. 나의 법인가?
그것도 내가 지키고 있다.

222. 두려워하지 마라. 내 대의를
수호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오직 악만이
죽을 뿐, 선과 진리와 정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125, 54-56)

223. 이 과학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상이 다시 영성화를 향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내 권능은
무한하므로 믿기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적 고양, 믿음, 빛,
그리고 선은 너희 육신에게 있어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만큼이나 영혼에게 절실한
필요이다.

224. 비록 영의 은사, 능력, 그리고
특성들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더라도, 나의 부름에 따라
깨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기적과 계시와 함께 영성이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것보다 더
위대할 것이니, 이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159, 7-8)

발달

225. 너희가 인간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영혼
또한 그 안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육체는 성장에 한계에
부딪히지만, 영혼은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육체와
영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너희가 환생하는 이유이다.

226. 너희는 하나님의
부성적·모성적 창조 영으로부터
순수하고 단순하며 깨끗한 씨앗과
같이 태어났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것이
위대하고 완전하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27. 이를 갓 태어난 아이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 많은
어른에 비유할 수 있다.

228. 이것이 너희 영혼이
발달하는 대로, 모든 삶의
단계에서 너희의 사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얼마나 더디게 나아가는가! (212,
57-60)

229. 깊이 연구하고 숙고하라.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너희
영혼이 나의 신성의 일부라면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의 빛이 성령의 빛의 한
조각이라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어둠에 싸여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230. 이 발전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공덕을 쌓아, 너희
영혼을 무지하고 미성숙한
영혼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위대한 빛의 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라.
(231, 12)

231. 나는 너희가 선해지기를 원하며, 또한 너희가 완전해지기를 갈망한다.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너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내 빛의 한 조각이므로 물질적인 것들과 세계들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232. 너희는 영적 존재들이다. 너희는 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내가 왜 너희를 완전함의 길로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4, 60)

233. 너희는 발전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것이 너희가 환생하는 이유이다. 오직 나의 영만이 발전할 필요가 없다. 나는 변하지 않으시니.

234. 태초부터 나는 영혼들이 나에게 이르기 위해 올라가야 할 사다리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 오늘날 너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의 차원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육신을 벗어날 때 너희는 자신의 발전 단계를 알게 될 것이다. 멈춰 서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뒤따르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5. 비록 서로 다른 차원에 머물고 있더라도 영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언젠가 너희는 일곱 번째 단계, 즉 가장 높은 단계에서 하나가 되어 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8, 25-27)

236. 나는 너희가 단 한 번만 지구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그 발전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육신을 입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제 나는 덧붙여 말하노니,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든 길어지든, 그것은 너희의 소망에 따라 너희에게 달려 있다. (97, 61)

237. 너희 중 누가 이 생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재탄생을 겪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자들 중에서, 아버지와의 계산을 다 마쳤으며 여전히 '수취' 쪽에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238. 아무도 자신이 어느 단계의 완성에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끝까지 투쟁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라. (46, 58-59)

239. 내가 너희에게 이 새로운 계시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으로서 인류에게 나타났을 때와 이 시대에 영으로 다시 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너희가 지구상에서 수많은 환생을 겪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지난 교훈을 요구할 때, 그리고 내가 너희 영혼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려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3, 52)

240.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몸을 갖기 위해, 너희는 몇 번이나 지구로 돌아와야 하겠느냐?

241. 너희 영혼이 이 생에서 종달새처럼 봄을 맞이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라. 그리고 그 순례의 여정에서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얻게 하라.

242. 부자들이 너무나 덧없는 보물을 쌓아두는 동안, 너희는 경험과 참된 지식을 쌓아야 한다. (142, 72)

243. 이 시대에 너희는 모든 분야에서 물질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환생에서 얻은 경험 덕분에 덜 잔혹하고 더 높은 수준에 이른 인류의 무지와의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244. 오늘날 대다수가 하는 방식대로 신을 숭배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 비록 그것이 너희에게 낯설고 거슬리더라도 — 더 이상 그를 산 채로 불태워야 한다고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 21-22)

245. 너희는 동료 인간들과 영혼의 환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너희는 그 안에 담긴 사랑 어린 정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인가?

246. 이 속죄의 방식을, 지옥의 끊임없는 불길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보라. 인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협하기 위해 그 개념을 이용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신성하고 완전하며 자비로운 정의의 개념을 너희에게 전해 주는지 말하라.

247. 하나는 잔혹함, 끝없는 원한, 복수를 드러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용서, 아버지의 사랑, 영생을 얻으리라는 희망만을 담고 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내

가르침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었는지!
248. 나는 너희가 가르칠 내용
때문에 너희가 공격받을 것임을
알기에, 너희를 그 싸움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희를 대적하는 동료
인간들에게 죽음이 닥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때 내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이 믿는
영원한 불길과 새로운 삶에서
정화될 기회를 두고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고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광신에 눈이 멀어 생전에 그것을
반대했더라도, 그들은 두 번째
해결책을 택할 것이다. (120, 15-17)
249. 내가 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말했듯이, 영혼의
환생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희 마음속에 빛이
밝혀지고, 너희는 나의 자비로운
공의를 더욱 경외하게 될 것이다.
250. 각 교파가 이 가르침들에
대해 내놓은 이론들과 다양한
해석들을 비교해 보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을
선택하라.
251.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이 시대에 영을
가장 크게 감동시킬 계시 중
하나이며,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내적 깨달음이 깨어나는 때이다.
(63, 76)
252. 너희는 영혼의 환생이
인류가 알고 믿어야 할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임을 확증해야 한다.
253. 어떤 이들은 이를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정의
속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너희를
신성모독자나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254.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했을 때, 나의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은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255. 나중에 세상은 그 계시를
받아들였으나, 내가 장담하건대
그들은 그 가르침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에, 이
시대에 내가 와서 너희에게
“육체의 부활”은 오직 영혼의

환생만을 가리킬 수 있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혼이야말로 삶의 본질이자 근원이며,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육체가 단지 영혼의 덧없는 옷에 불과했다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다시 부활해야 하겠는가?

256. 육체는 땅속으로 가라앉아 땅과 섞인다. 그곳에서 그것은 정화되고 변형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반면, 영혼은 계속해서 상향 발전하며,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이 땅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영혼에게 있어 인간적인 삶으로의 부활이며, 또한 그 새로운 육체적 외피에게도 영혼과 결합된 부활이다.

257. 그러나 물질은 불멸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반면, 영적인 것은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찾고, 가르치며, 내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영혼이다. (151, 56-58)

258. 너희의 영혼은 내가 너희의 완성을 위한 기회로 주었으나 너희가 활용하지 않은 삶들을 통해 만들어진 사슬을 힘겹게 끌고 다닌다. 매번의 삶은 사슬의 한 고리를 이룬다. 그러나 너희가 내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법을 준수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와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259. 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곧 시간 그 자체인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연구하여 내 사업 안에서 너희에게 마땅히 주어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라. 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가 영적 상승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보물을 너희에게 준다. 나는 너희의 일생 동안 너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168, 250)

260. 나는 나의 신성에 대한 오해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끝날 것을 원한다. 너희 모두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달아라. (181, 63-65)

261. 우주를 바라보고 그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하라. 우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너희가 창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사고는 나의 신성으로 고양될 것이다. (169, 44)

262. 이 시대의 빛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장막을 찢어 버리며, 그들을 묶어 두어 참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사슬을 끊어 버린다.

26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가르침이 모든 지식 분야의 탐구를 금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관심과 경탄, 호기심을 일깨우는 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사고 능력을 주었으니, 그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264. 나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성의 빛을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발견하고 탐구하되, 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너희의 태도가 경건하고 겸손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허용될 것이니라.

265. 나는 너희가 사람들이 쓴 책들을 접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에 걸려 넘어지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인간이 어떻게 삶과 투쟁을 시작했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266.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 가르침과 계시의 샘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와 목표를 보여줄 수 있다. (179, 22 23)

267.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너희가 관심과 사랑으로 이 가르침의 진의를 깊이 탐구하려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걸음걸음마다 영적 지혜와 완전한 사랑, 신성한 정의의 참된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계시들을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268.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삶을 살아가듯이, 내 계시를 지나치지 말라.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생각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대로 말이다. (333, 11-12)

269. 나는 너희가 나의 영이나 영적인 것을 마치 물질적인 대상인 양 조사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과학자처럼 나를 연구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는 크고 비통할 만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76, 17)

270. 나의 모든 가르침은 너희 존재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식에서 빛이 태어나,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곧 하나님으로 이끄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262, 43)

정화와 완성

271. 오늘 너희는 내가 그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라며 나에게 너희의 고통을 보여 주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나의 사명이며, 내가 이를 위해 온 것이니, 이는 내가 신성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272. 그러나 내 치유의 향유가 너희 상처에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내 어루만짐이 너희에게 닿기 전에, 너희 자신에게 집중하여 너희의 고통을 살펴보고, 탐구하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여 이 성찰을 통해 이 시련이 담고 있는 교훈과,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깨달음을 얻도록 하라. 이 깨달음은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며, 진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것이며, 너희 중 많은 이가 이해하지 못했던 시련과 교훈에 대한 해명이 될 것이다.

273. 고통을 마치 만질 수 있는 것인 양 탐구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경험의 아름다운 씨앗, 즉 너희 존재의 위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통은 너희 삶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이다.

274. 고통을 스승으로 여기고, 갱신과 회개, 그리고 개선을 위해 고통이 보내는 경고를 온유함으로 따르는 자는, 나중에 행복감과 평화, 그리고 건강을 알게 될 것이다.

275. 자신을 면밀히 성찰해 보라. 그러면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타인을 심판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8, 50-53)

276.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는 즉시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 준다면, 그 속에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각자는 내 법을 어긴 것을 스스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공로이다. 그러면 고통이 너희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기에, 훗날 너희는 실수와 잘못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277. 저지른 잘못과 그 자연스러운 결과 사이에 진실한 회개가 자리 잡으면, 고통은 너희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미 그 시련을 순순히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78. 세상은 매우 쓴 잔을 마시고 있으나, 나는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이 지나면 그들은 나를 부르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그때 배은망덕했던 자들도, 그들의 존재를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신 분께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33, 30-31)

279. 너희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것이 정화되고 고양되도록 도와라. 이를 이루면, 너희가 영혼과 육체 모두에서 얼마나 강해질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280. 명심하라. 영혼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영혼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91, 72-73)

281. 만일 이 땅이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며, 그 위에 큰 영적 시련이 없다면, 너희 중 누가 내 왕국에 오기를 갈망하겠느냐?

282. 또한 고통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그 고통을 자초한 것이니 말이다. 인내로 그것을 견뎌내라. 그러면 그 고통이 너희를 정화시키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83. 너희가 이 세상의 영광과 만족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아느냐? 자, 너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려는 갈망이 매우 격렬해질 때가 올 것이다.

284. 영적 고양을 통해 시련을 이겨내는 자는 그 극복 속에서 평화를 경험한다. 땅 위에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걷는 자는 비틀거리지 않으며, 속죄의 길에 있는 가시들에도 발이 찔리지 않는다. (48, 53-55)

285.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길을 먼저 걷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속죄의 길을 끝까지 다 걷지 못해 씻어내지 못한 영혼의 얼룩을 보게 되어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86. 환생은 너희를 지나갔으나, 너희 중 많은 이가 아버지가 이를 통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287. 명심하라: 기회가 많을수록 너희의 책임은 더 커지며, 이 기회들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기회 하나하나마다 속죄의 짐과 균형을 맞추는 정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존재들이 그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짐이며, 오직 나의 가르침만이 너희에게 이를 밝혀줄 수 있다. (67, 46)

288.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시련들은 그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이며, 그들 자신의 씨앗이 맺은 결과이다. 때로는 그 열매가 전년도에 뿌린 씨앗의 결과이고, 다른 경우에는 수년 전이나 다른 환생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이기도 하다. (178, 2)

289. 불순종의 결과가 즉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조만간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나의 정의가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너희의 잘못이 아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말이다.

290.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심판자로서 무자비하며, 너희의 심판의 때가 오면 너희가 양심의 빛을 향해 눈을 뜨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298, 48)

291. 오, 내 말을 듣는 영혼들이여, 세상의 삶의 문제들이 너희 마음에 흔적을 남기게 하지 말고, 더구나 너희를 굴복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련 속에 담긴 빛을 찾으라. 그리하여 그것이 너희가 강하고 절제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게 하라.

292. 영혼이 육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육신이 영혼을 굴복시키고 지배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영혼들은 약해져서 육체와 함께 죽는다고 믿게 된다. (89, 11-12)

293. 너희는 인생에서 온 존재를 사로잡아 양심과 도덕,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 육체적 정욕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294. 이는 육신에 거하는 악의 짐승의 유혹과 힘이 영혼을 굴복시켜 영혼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다.

295. 그리고 그 열정에서 벗어나 그 영향력을 극복했을 때, 깊은 행복감과 평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96. 이 평화와 기쁨은 영혼이 육신을 이긴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헤아릴 수 없는 투쟁, 즉 '피비린내 나는' 내적 전투를 통해 쟁취한 승리이다. 그러나 영혼이 양심의 자극과 조언을 받아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서기만 했을 뿐인데, 이미 육체의 충동을 제압하고 더 이상 파멸로 끌려가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297. 이러한 투쟁과, 이러한 포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이 싸움 속에서, 너희는 너희 내면에 거하고 있었으나 너희의 삶은 아니었던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지 무의미한 정욕에 불과했다. (186, 18-19)

298. 너희 안에 가장 강력한 적이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그를 이겨내면,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말한 "일곱 머리를 가진 용"이 너희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진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그분께 말할 수 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에는 입술만이 아니라 영이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73, 20)

299. 머지않아 너희는 삶이 너희 인간에게 잔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에게 잔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해심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게 한다. 너희는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기적이고 냉혹해진다. (272, 34)

300.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쓰라린 잔을 건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01.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율법을, 너희가 추락과 파멸,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로 계시해 주었다. (215, 65)

302. 오늘날 너희는 아직 너희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그것들을 불필요하고, 불공평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너희가 늙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 영적 영역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시험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의와 분별력이 담겨 있었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301, 44)

303.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간구를 감지하고 있으나, "세상"은 나의 영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들의 이성에 나의 신성한 생각이 빛나도록 준비되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할 때 나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한다.

304. 그러나 나는 너희를 신뢰하며, 너희를 믿는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나로부터 나온 불꽃인 영혼과 나의 형상인 영을 너희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305. 만일 내가 너희가 완전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나의 신성한 뜻에서 비롯된 가장 위대한 사업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을 것이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6. 나는 너희가 너희 영혼이 그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로 나아갈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안다. 그 후, 너희 영혼은 빛으로 가득 차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238, 52-54)

이 세상과 저 세상

307. 스스로를 단련하라.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너희를 덮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갈 그 순간을 위해 너희는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가? 너희는 여전히 물질과 정욕, 그리고 세상의 소유물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놀라움을 당하고 싶은가? 길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채 저 세상으로 들어가, 이 생의 피로를 영혼에 새겨 넣고 싶은가? 준비하라, 제자들아,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308. 이 지상의 골짜기를 떠나야 한다고 해서 탄식하지 마라. 비록 이곳에 기적과 영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은 영적 삶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저 희미한 반영에 불과하다.

309. 깨어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낯설게 보이는 빛이 비추는 새로운 길의 시작에 섰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310. 눈물 없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아픔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거라.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며, 너희 영혼의 해방을 말해주는 평화의 미소를 육신의 얼굴에 남기라.

311.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존재들과 여러분을 갈라놓지 않으며, 부모, 형제자매, 자녀였던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 책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지도 않습니다.

312. 사랑과 의무, 그리고 감정, 한마디로 영혼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 (70, 14-19)

313. 죽음이 찾아와 이 생을 위해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너희 영혼이 스스로 고양되어 그 공덕으로 이룬 고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큰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라.

314. 이 사업의 제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닥쳤을 때, 영혼과 육신을 연결하는 끈이 얼마나 쉽게 끊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상의 안락함을 떠나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고통은 없을 것이다. 영혼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방황하며, 빛과 사랑, 평화를 갈망하며 문에서 문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 (133, 61-62)

315. 너희 영혼을 고양시켜, 오직 영원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에서만 기쁨을 찾도록 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살아온 삶으로 인해 물질화된 너희 영혼은 육체와 남겨진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정화를 이룰 때까지 한동안 혼란과 쓰라린 고통 속에서 (영적) 공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316. 내 법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때이르게 죽음을 부르거나 바라지 말라. 죽음이 오게 내버려 두라. 죽음은 언제나 내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너희를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영적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56, 43-44)

317. 너희 집에서 평화롭게 살아라. 그곳을 성소로 만들어라. 그래야 '영적 계곡'에서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침입했을 때, 그들이 너희 존재 안에서 그들이 찾는 빛과 평화를 발견하고, 저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 (41, 50)

318. 영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목표에 집착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더 이상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지구가 인간에게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면, 영혼에게는 더욱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저 세상, '영적인 계곡'에서는 빛으로 가득 찬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는 선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319. 인간으로서 내 말을 듣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것을 돌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영혼이 의지하는 지팡이이자 싸움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이 육체의 물질적인 눈을 통해 이 삶을 바라보고, 그 입을 통해 말하며 동료 인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57, 3)

320. 이제 스승이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의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으며, 너희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사라졌다고 왜 울고 있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눈에는 죽은 자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살아 있다. 너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들은 내 곁에 있다. 너희가 죽음을 보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너희가 끝을 보는 곳에는 시작이 있다. 너희가 모든 것이 신비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라 여기는 곳에, 영원한 여명처럼 빛나는 빛이 있다. 너희가 무(無)라 믿는 곳에 모든 것이 있으며, 너희가 큰 침묵이라 여기는 곳에 '연주회'가 있다. (164, 6)

321. 죽음으로 육신의 존재가 끝날 때마다, 이는 영혼에게 휴식 시간과도 같습니다. 영혼은 다시 환생할 때 새로운 힘과 더 큰 빛을 지니고 돌아와, 미완성된 그 신성한 교훈을 계속 배워 나갑니다. 이처럼 시대를 거치며 너희 영혼인 밀이 익어 갑니다.

322. 나는 영적 삶에 관해 너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었으나, 지금 너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으며, 오직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것만 알면 된다고 말하노라. 그곳에서 나는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99, 32)

323. 영적 삶으로 돌아가며, 지상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정해 주신 소명을 다한 자의 행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의 만족과 평화는 영혼이 인간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보다 무한히 더 크다.

324.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분의 왕국으로 돌아갈 때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 속하고, 깊은 당혹감이나 후회 속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자들에 속하지 않도록 이 기회를 너희에게 제공한다. (93, 31-32)

325. 이 계시의 끝이 이미 가까워졌으니, 이제 너희의 창조주와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더 높은 형태로 이를 재개할 것이다. 이는 내 곁에 거하는 높은 영적 존재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157, 33)

326.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적 세계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주님의 뜻이 명하는 것만을 행하는 참된 종들인, 그 순종하는 영적 존재들의 무리를 의미한다.

327. 내가 이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조언자, 보호자, 의사, 그리고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으니, 그들 안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으니, 긴 여정 속에서 얻은 그들의 발전과 경험의 빛이 그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칠 권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도움의 요청이든, 어떤 곤경에 처하든 기꺼이 겸손하게 달려간다.

328.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내어, 너희에게 지침과 증언, 그리고 격려를 전하라고 명한 이는 바로 나다. 그들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길을 정화하고, 너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움을 베푼다.

329. 내일이면 너희도 이 빛의 군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적 존재들의 무한한 세계에서 오직 인간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만 활동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사랑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330. 그들과 같아지고자 한다면, 너희의 삶을 선에 바쳐라. 너희의 평화와 빵을 나누고, 사랑으로 궁핍한 이를 맞아들이며, 병자와 갇힌 자를 찾아가라. 진정한 길을 찾아 헤매는 이웃들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고귀한 생각으로 무한한 우주를 채우고, 곁에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그들을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331. 그때 죽음이 너희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하고 너희 눈의 빛이 꺼지면, 너희는 그 조화와 질서, 그리고 정의로 인해 경이로운 세상에 눈을 뜰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모든 행실과 시련, 그리고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332. 한 영혼이 그 고향에 도달하면, 끝없는 평화가 점점 더 강하게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곧바로 그 영혼은 아직 그

행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떠올리게 되며, 사랑하는
이들도 그 신성한 선물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상의
형제자매들의 구원과 안녕,
평화를 위해 싸우고 일하는 영적
군대에 합류하게 된다. (170, 43-48)

333. 누가 이 빛의 군단들이
끊임없이 너희를 위협하는 혼란에
빠진 존재들의 침입에 맞서
벌이는 전투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너희가 눈치채지 못한 채
양측이 끊임없이 서로 벌이는 이
싸움을 발견한 인간의 시선은
없다. (334, 77)

334. 여기 내 사역의 계속을 보라.
기록된 대로, 나의 위대한 천사
무리에 둘러싸여 '제3의 시대'에
위로의 영으로 오시는 나의
모습을 보라.

335. 내 곁을 따르는 이 영적
존재들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위로의 일부를 나타내며,
그들의 유익한 조언과 덕행의
모범을 통해 너희는 이미 그들의
자비와 평화의 증거를 받았다.
나는 그들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그들은
너희와 내 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336. 너희가 그들에게 고유한
은총의 선물과 그들의 겸손함을
깨달았을 때, 너희는 그들이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행실을
실천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았다.
그들이 너희 집을 방문했을 때,
너희는 그들의 영적 현존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여겼다.

337. 너희가 그들의 너그러움을
깨달았다면 복이 있도다. 그러나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너희는 그들이 항상 덕이 있는
존재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 중 많은 수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과 중대한 과오를 겪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338. 그러나 지금 그들을 보라.
그들은 더 이상 어떤 흠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으로
깨어나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그들은 정화되어
당당히 승화할 자격을 얻었으며,
오늘날 인류에 봉사함으로써 나를
섬기고 있다.

339. 그들의 영혼은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임무를 맡아, 지상에 살던 시절에 소홀히 했던 모든 것을 만회하고자 하였으며, 신성한 선물로서 이전에 뿌리지 못했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미완의 일을 바로잡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340.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그들의 겸손과 인내, 온유함을 경이로움으로 목격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이 속죄를 위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장애물보다 더 큰 그들의 사랑과 깨달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들은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354, 14-15)

341. 너희는 지상에 오기 위해 떠났던 영적 고향을 짐작이라도 하고 있는가? "아니요, 스승님," 너희는 내게 말하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342. 그렇다, 백성들아, 너희가 순결과 순수함에서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그 평화로운 삶과 안녕의 상태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343.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었으니, 나를 향하는 자들을 약속된 왕국으로 이끄는 그 길은 너희에게도 열려 있다.

344. 그것은 "첫 사람들"이 떠난 그 평화의 낙원이 아니라, 영의 무한한 세계, 지혜의 세계, 참된 영적 행복의 낙원, 사랑과 완전함의 천국이다. (287, 14-15)

신성한 계시

345. 만물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창조하신 사랑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안에서 느껴지게 된다. (102, 17)

346.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시나이 산에서 너희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계시하셨을 때 너희가 여호와라 불렀던 분이시며, 그분 안에 내 말씀이 있었기에 너희가 예수라 불렀던 분이시며, 내가 진리의 영이시기에 오늘날 너희가

성령이라 부르는 분이시다. (51, 63)

347.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 앞에 율법의 책이 펼쳐진다.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책이다. 내가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말할 때, 그것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를 깨우치는 지혜의 책이다. 이것들은 단 한 분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므로 하나의 가르침을 이룬다. (141, 19)

348.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정의이시다.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대변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290, 1)

349.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와 슬퍼하는 자들의 무리를 뒤따르셨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가난이나 슬픔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비록 내가 병든 자와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찾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과 건강, 그리고 희망을 채워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나는 기쁨과 생명, 평화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13, 60)

350. 그렇다, 백성아, 나는 너희의 시작이자 끝이며,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비록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준비해 둔 모든 가르침을 아직 너희에게 전하거나 계시하지는 않았으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가르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51.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많은 새로운 교훈을 계시하겠지만, 너희가 거만해지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 교만한 우월감 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자신의 업적에 자부심을 갖는 자가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업적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용히 일하라고 가르쳤다. (106, 46)

352. 너희는 아직 너희 지식의 일부가 되도록 예정된 많은 계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계시들에 대한 지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고 여겨 왔다. 누군가 그 계시들을 해석하거나 그 속을 파고들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즉시, 그는 즉시 신성모독자라 불리거나 건방진 자로 여겨진다. (165, 10)

353. 너희는 나의 영감과 나의 부르심에 민감해지기 위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너희는 누가 너희를 부르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진동을 얼마나 자주 감지했느냐! 그 '언어'는 너희에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영적인 현현들을 환각이나 물질적인 원인으로 돌리고 만다. (249, 24)

354. 내가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면서도 너희 가운데 나타나 사랑을 구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나는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너희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의 완전함과 위엄을 감춘다. 만일 너희가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통곡하며 울겠는가! (63, 48)

355. 나를 너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껴라. 나는 너희 삶의 힘든 순간들에 그 증거를 보여준다. 너희가 마음속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여 그 안에서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356.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느낄 수 없는가? 어떤 이들은 자연 속에서 나를 보고, 어떤 이들은 모든 물질 너머에서만 나를 느끼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것 안에, 어디에나 있다. 내가 너희 안에도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항상 너희 밖에서 나를 찾는가? (1, 47-48)

357. 세상에 종교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너희 존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너희 내면의 성전에서 나의 임재를 발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358.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가장 아름다운 면모와 가장 깊은 가르침을 보여주는 지혜의 책을 발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359. 그러면 너희는 세상이 마음속에 바른 길을 품고 있으면서도 길을 잃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또한 수많은 빛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무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31, 31-32)

360. 오늘 나의 보편적인 언어는 모든 이에게 들리게 하여 그들에게 말하노니, 비록 내가 너희 각자에게 있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나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존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이다.

361. 나는 주님이요,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자녀라 부르려 한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아라. 나의 뜻을 사랑하고 나의 법을 지키며, 나의 명령에는 불완전함도 오류도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 (136, 71-72)

362.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던 그 희생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파멸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363. 그러나 너희는 내 사랑으로 양육받는다면, 너희 아버지께도 똑같이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노니, "나는 목마르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146, 3)

364. 어떻게 내가 더 많이 고통받는 이를 덜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의 고통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의인은 이미 구원받았으며,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병들었다고 느끼고, 양심의 빛 속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찾으러 온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임을 확신하라.
365.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거나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함이었을 것이다.
(100, 50-51)
366. 내 아버지의 집은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그곳에 가면 진정으로 그곳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자녀들이 마치 거지처럼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아버지가 왕실의 방에서
살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겠느냐? (73, 37)
367. 율법을 배우고, 선을
사랑하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으로 옮기고, 너희 영혼이
고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유를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368. 너희가 내게 이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본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본보기로 삼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며, 그를 통해 나를 찾고,
그의 신성한 발자취를 따라
내게로 오라.
369.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육체적 형상이나 그분의 초상
속에서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의례나 외형적인 형식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너희의 분열과 적대감, 그리고
광신주의 속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70. 예수 안에서, 그러나 그분의
영과 가르침 안에서 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한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사랑,
그리고 가 하나됨의 지혜로
통합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나는
인류에게 그분의 영의 존재와
전능함을 알게 하였노라. (1, 71-72)

인간과 그 소명

371. 너희는 이미 오랫동안 나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너희가
실제로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창조주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수많은 특성,

능력, 그리고 은사들이 너희 존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혼과 영에 관해 잠들어 있으며, 바로 그 영적 특성들 속에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85, 57)

372.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노라: 이 세상에서 너희의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너희 심장이 뛰는 한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너희의 영은 나의 신성에서 비롯되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숨결이며, 내 영의 한 원자가 육신화된 것이니, 너희의 몸 또한 나의 법칙에 따라 지어졌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 영의 도구로 너희에게 맡겼으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된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며, 그분은 너희를 일시적으로 그것의 소유자로 삼으셨다. 너희의 물질적 삶은 영원 속에서 단지 한 걸음에 불과하며, 무한함 속의 한 줄기 빛일 뿐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하고 결코 죽지 않는 것, 즉 영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7, 8)

373. 영이 이성을 이끌어야 하며, 오직 인간적인 위대함을 갈망하는 마음에만 이끌리는 이성이 너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374. 명심하라: 만일 너희가 뇌가 명령하는 바에 이끌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뇌에 과부하를 주게 될 것이며, 뇌의 미약한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37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너희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불타오르는지 알고자 한다면, 너희의 마음과 이성의 힘이 영에 의해 인도되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능력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286, 7)

376. 올바른 것은 영이 인간의 이성에게 지혜를 계시하는

것이지, 이성이 영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다.

377. 많은 이들이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오랫동안 삶의 질서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295, 48)

378. 제자들아, 영성화는 양심이 더 큰 명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하며, 이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는 자는 속지 않을 것임을 알라.

379. 양심과 친해지라. 그것은 우호적인 목소리이며, 주님께서 아버지로, 스승으로, 혹은 심판자로서 그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빛이다. (293, 73-74)

380. 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끌처럼 너희 성품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듬는 일을 맡아, 너희가 동료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조차 스스로 다룰 준비가 될 때까지 다듬어 줄 것이다.

381. 너희는 그들 안에서 고통과 속죄의 강박, 그리고 보상해야 할 의무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특별히 어렵지 않은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너희가 직관과 계시, 그리고 투시력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너희 이웃을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382. 이러한 영적 은사는 그것을 행하는 이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을 때에만 그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149, 88)

383. 나 안과 나의 일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사람들은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가? 오히려 사람들의 악하고 불완전한 행위가 "초자연적"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나온 근원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항상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깊은 설명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것도 어둠 속에 남지 않는다.

384.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비로 감싸인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초자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 영혼이 공덕을 통해 고양되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 창조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385. 몇 세기 전 인류에게 오늘날 인간이 이룰 진보와 발견들을 예고했다면, 과학자들조차 의심했을 것이며 그러한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발전하여 인간 과학의 진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기에, 비록 경탄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 (198, 11 12)

38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이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인간의 육체와 세상의 삶이 필요하다고 믿지 말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혼이 받는 교훈들은 그 완성에는 큰 도움이 된다.

387. 육체는 영혼의 발전과 경험, 속죄와 투쟁을 돕는다. 이것이 육체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너희는 내가 인간의 뇌를 빌려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신성의 현현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적인 것만을 위해 영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 물질 세계 내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영적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388. 나는 너희 영혼에게 사색의 계기와 호소를 보내니, 너희 영혼이 자신을 지배하는 물질적 영향력을 초월하고, 직관의 은사를 활용하여 너희의 빛을 마음과 이성에 비추게 하라.

389. 나의 이 빛은 너희 영혼에게 해방으로 가는 길이며, 나의 이 가르침은 너희가 인간적 삶을 초월하여 모든 행위의 주인이 되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 저급한 정욕의 노예도, 약점과 곤경의 희생양도 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78, 12-15)

390. 나 외에 누가 영혼을 다스리고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지배에 대한 욕망으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자는 자신의 성향과 변덕, 권력에 대한 탐욕과 허영에 부합하는 왕국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그것은 물질과 저급한 정욕, 비천한 감정의 왕국이다.

391. 너희는 양심을 억누를 수 없으니, 그 안에는 완전한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영혼 안에서 오직

순수함만이 고귀한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오직 선함만이 이를 움직인다. 한마디로, 영혼은 오직 참되고 선한 것으로만 양육된다. (184, 49-50)

392. 내가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기쁨을 위해 지었으니, 그것을 항상 너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나 너희 안에,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알려주는 목소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 내면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

393. 너희가 육신을 위해 거처와 보호, 생계와 만족을 추구하여 삶을 더 쾌적하게 하듯이, 영혼에게도 그 안녕과 상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허락해야 한다.

394.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 있는 더 높은 영역에 이끌린다면,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라. 영혼을 가두지 말라. 영혼은 영양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 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혼이 이런 방식으로 자유로워지도록 허락할 때마다, 영혼은 행복하게 육신의 껍데기로 돌아올 것이다. (125, 30)

395. 영혼은 살고자 하며, 불멸을 갈망하고, 자신을 씻어내고 정화하고자 하며, 지식에 대한 갈망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라. 너희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하라.

396.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이 생이 끝난 후에는 오직 너희의 영혼만이 남을 것이다. 영혼이 미덕과 공덕을 쌓아 그 안에 간직하게 하라. 그래야 해방의 시간이 왔을 때, 약속의 땅 문 앞에서 비참한 영혼이 되지 않을 것이다. (111, 74-75)

397.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속죄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의 영혼이 별들이 창공을 아름답게 하듯, 그들의 빛으로 내 왕국을 비추고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171, 67)

398. 내 말씀은 오랫동안 서로 적대해 온 영혼과 육신을 화해시킬 것이니, 너희가 영혼의 발전 길에 방해물이자 유혹으로 여겨왔던 너희 육신이, 지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38, 51)

399. 너희가 나의 지시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영혼과 육체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사랑으로 몸을 순종하게 하되, 필요할 때는 엄격함을 발휘하라. 그러나 광신주의에 눈이 멀어 몸을 잔혹하게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의 존재를 하나의 의지로 통합하라. (57, 65)

400.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서 태어날 새로운 세대가 건강하고 그들의 영혼이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육체를 단련하라고 말한다. (51, 59)

401. 나는 너희가 유일한 하느님을 믿는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자기 부정을 실천하는 성전과 같은 가정을 말이다.

402. 그곳에서 너희는 아이들의 스승이 되어야 하며, 아이들을 다정함과 이해심으로 감싸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애정을 담아 지켜보며 보살펴야 한다.

403.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에게도, 겉보기에는 추한 자에게도 너희의 사랑을 베풀어라. 아름다운 얼굴이 항상 그만큼 아름다운 영혼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추해 보이는 그 존재들 뒤에는 너희가 높이 평가해야 할 미덕으로 가득 찬 영혼이 숨어 있을 수 있다. (142, 73)

404. 너희 뒤를 이을 세대들, 너희 자녀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육체적 존재를 주었듯이, 신앙과 덕행, 영성이라는 영적 삶을 그들에게 주는 의무도 있다. (138, 61)

405. 너희 가정의 덕과 집안의 평화를 지키라. 가장 가난한 자들조차도 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라.

406. 인간 가족이 영적 가족의 구체화임을 깨달으라. 그 안에서 남자는 아버지가 되며, 이를 통해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진정한 닮음을 갖게 된다. 신성한 자비( )로 가득 찬 모성적 마음을 지닌 여자는 신성한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며, 그들이 함께 이루는 가족은 창조주의 영적 가족을 구현한 것이다.

407. 부모가 자기 수양에 힘썼다면, 가정은 너희가 나의 법을 실천하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성전이다.

408. 부모와 자녀의 운명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는 서로의 임무와 속죄의 의무를 돕고 서야 한다.

409.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십자가는 얼마나 가벼워지고 삶은 얼마나 견딜 만해질까! 가장 무거운 시련도 사랑과 이해를 통해 덜어질 것이다. 신의 뜻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평화라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199, 72-74)

410. 너희를 둘러싼 영혼들과 너희 삶의 길에서 마주치는 영혼들을 깊이 관찰하여, 그들의 미덕을 알아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그들이 너희에게서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라.

411. 왜 운명이 너희 길에 두었던 이웃들을 경멸했느냐? 너희는 그들이 전해 주려 했던 교훈을 배우지도 못한 채,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412. 너희는 종종 너희 영혼에게 평화와 위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멀리해 왔으며, 그 후 너희 잔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면 한탄하곤 한다.

413. 삶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놀라움을 안고 오는데, 오늘 오만하게 외면했던 그 사람을 내일 간절히 찾아야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414. 오늘 거절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을 내일 간절히 찾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11, 26-30)

415. 우주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조화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얼마나 훌륭한가! 생기로 가득 차 우주 공간을 누비는 빛나는 천체들, 그 주위를 다른 천체들이 맴돌고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온기를 주는 빛나는 신성한 천체이다. 그러나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자는 얼마나

적으며, 궤도에서 멀리 벗어나
맴도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가!
416. 너희는 나에게 물질적
천체들은 자유의지가 없으며,
반대로 바로 그 자유가 인간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유의지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의
조화 법칙에 순종할 줄 알았던 각
영혼의 투쟁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는가. (84, 58)
417. 이 영적 가르침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누구도, 물질적 삶에서
가난하고 다른 이들이 풍족하게
누리는 많은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에서
결핍과 궁핍을 겪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평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오직 단 하나의 존재만을
가진 물질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418. 너희 영혼은 아버지께
그렇게 말할 권리도,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운명에 불평할
권리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지상에서 긴 발전의
여정을 거치며 경험과 기쁨,
그리고 인간적인 만족의 모든
단계를 이미 겪어왔기 때문이다.
419. 영혼의 영성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너희
마음이 견디고 겪기를 꺼리는 그
고통과 가난이 바로 이를 돕고
있다. 모든 영적·물질적 재물은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너희는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도록 이를 깨달아야 한다. (87,
26 27)
420.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는 포기해서는 안 될
정해진 자리가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된다.
(109, 22)
421. 왜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너희 영혼이
과거에 쌓아온 모든 경험을
헛되이 내버려 두려는 것인가?
수확을 거두지도 않고 씨앗을
저버리려는 것인가? 아니,
제자들아.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승리의 순간을
늦추고 어떤 길을 가든 어차피
겪게 될 고통을 더할 수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267, 14)
422. 아버지의 나라는 모든
자녀들의 유산이며, 이 은총은

오직 영혼의 큰 공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그 은총을 얻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423. 내 말씀에서 너희가 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만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이 목표에 맞추는 자는 실망을 겪지도 않고, 배신당했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많은 수고를 치르고도 이를 얻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는 달리, 혹은 이를 얻었다가도 곧 그것이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보며 고통을 겪는 이들과는 달리, 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00, 42-43)

424.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열 열쇠를 준다. 이 열쇠들은 자비, 용서, 이해, 겸손, 평화가 솟아나는 사랑이며, 너희는 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425. 너희 영혼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성령의 빛을 누릴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 (340, 56-57)

426. 병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영혼들, 혹은 성숙도가 미약한 영혼들을 늘 저 세상으로 보내왔던 이 땅이, 머지않아 내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바칠 것이다.

427. 너희가 건강하고 고양된 삶을 살아간다면, 병과 고통은 너희 삶에서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영적 고향으로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17, 24-25)

428. 오, 내가 특히 내 말씀을 전하는 영혼들이여, 낙심하지 마라. 내 길 위에서 꾸준히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는 그 행복을 경험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429.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의 행복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이 그 신성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너희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430. 내가 너희 곁에 서서 온 길을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의 사명이 너희의 사명과 하나이며, 나의 운명이 너희의 운명과 하나임을 인식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272, 61)

악덕, 과오, 타락

431. 너희 삶에서 더 이상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 가르침을 깨달아라.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으로 이웃에게 가하는 모든 상처는 너희 양심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그 양심은 너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책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432.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신성한 계획이 성취되고 인간들 사이에 만연한 이 거대한 영적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너희 모두가 필요하다.

433.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고통도 존재할 것이다. 너희의 무관심과 이기심, 경멸을 사랑과 연민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평화가 얼마나 빨리 너희에게 찾아올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11, 38-40)

434. 인간 삶 안에서 너희의 발전을 추구하되, 결코 과도한 야망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이며, 물질주의가 너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51, 52)

435. 나는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되, 동시에 너희가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도록 바로잡는다. 이기심은 영혼을 가장 깊이 끌어내리는 약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436. 나는 양심을 통해 너희를 일깨워, 형제자매로서의 의무를 기억하고, 내가 '제2의 시대'에 가르쳐 준 대로 너희의 길에 사랑의 행실과 용서를 뿌리도록 한다. (300, 29)

437. 오늘날 물질의 힘과 세상의 영향은 너희를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물질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과 그 영향 또한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인내심 있는 재판관이며, 나의 정의는 생명과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시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그들보다 더 유죄로 판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438. 내가 과연 내 처형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는가? 내가 그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축복하지 않았는가? 이 죄로 인해 한때 세상에서 길을 잃었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오늘날 정화된 모습으로 영적 세계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았더라면! (54, 47-48)

439. 또한 너희 이웃의 숨겨진 감정을 들추려 하지 마라. 모든 존재 안에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 오직 너희 형제의 것이기에 — 너희에게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 베일을 찢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더 두껍게 하라.

440. 나는 사람들이 형제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그의 도덕적 혹은 영적 약점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즐기며 즉시 세상에 알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는가.

441. 타인의 사생활을 이처럼 모독한 자 중 누구도,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누군가 자신을 폭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 그때 그는 자신을 재는 것이 정의의 잣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동료 인간들을 재던 것은 불의의 잣대였기 때문이다.

442.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자비의 망토로 드러난 자들을 덮어 주며, 사람들의 험담에 맞서 약한 자들을 지켜라. (44, 46-48)

443.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며”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해석하거나 계시를 설명하는 모든 이가 나의 사자는 아니다. 많은 이들이 허영심이나 원한, 혹은 인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 메시지를 남용하여 모욕하고 심판하며,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116, 21)

444. 일어나라, 인류여, 길을 찾아라, 삶의 이유를 찾아라!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라! 한 가정을 다른 가정과 갈라놓는 벽은 얼마나 얇은가, 그런데도 — 그 주민들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너희 나라의 국경에서 —
외국인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요구되는가! 만약
너희가 인간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러한다면 — 다른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또 무엇을 했겠느냐?
너희는 그들과 너희 사이에
장막을 내렸다 — 잊음의 장막이
아니라면, 짙은 안개와 같은
무지의 장막이다. (167, 31)

445. 무분별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만 살며, 그 과정에서
이웃의 생명을 무시하고, 나,
그들의 창조주가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느냐? 그들의 행실이
오직 시기, 증오, 탐욕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 깨닫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빛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이들보다,
바로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446.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는
모든 고통을 용서하고, 너희의
순수한 생각으로 그들이 이성을
되찾도록 도와주어라. 그들을
둘러싼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악한 생각으로
그들에게 어둠만을 보낸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113, 30)

447. 율법에서 너희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야망은
숭배하고, 공물을 바치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냈다.

448. 내 율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이며 우상
숭배자들이다.

449.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고, 허영심을 부추기며,
약점에 굴복한다. 그들은 지상의
보물을 사랑하여, 그 보물을 위해
자신의 평안과 영적 미래를
희생한다. 그들은 육신을
숭배하며, 때로는 타락에
이르기까지 하고, 쾌락에 대한

갈망 속에서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450.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너희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라. 너희는 언제
나를 이웃 안에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느냐? 언제 너희는 동료
인간들을 괴롭히는 고통을
덜어주고 돕기 위해 잠을
희생하거나 건강을 해치기도
했느냐? 그리고 언제 너희는 내
가르침이 고무하는 고귀한 이상
중 하나를 위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느냐?
451. 너희가 물질적인 삶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숭배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우선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참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숭배하는 다른 신들이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118, 24-26)
452. 너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희의 삶이 가장
자연스럽고, 평범하며,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바빌론과 로마가 그들의
모든 타락과 죄를 이 인류에게
전가한 것처럼 보인다. (275, 49)
453. 너희는 오늘날 영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너희는 악을
선이라 부르며,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보는 듯 여기고,
불필요한 것을 필수적인 것보다
더 선호한다. 그러나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도움을 주시는
나의 자비는 제때에 개입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멀어진
그 빛나는 진리의 길을 보여 줄
것이다. (358, 30)
454.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여,
너희의 눈이 항상 경계하고
유혹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라.
악은 너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패배시키며, 너희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예리한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것이 너희를 노리고 있을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리하게 관찰하라. (327, 10)
45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류는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초래한 모든 악을 한순간에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이들은 정신을 잃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목숨을 끊을 것이다. (61, 52)

인류의 정화와 영성화

456. 너희는 율법을 잊고, 자연의 힘이 내 공의를 상기시켜 줄 때까지 기다렸다. 허리케인, 제방을 넘치는 강물, 지진, 가뭄, 홍수는 너희를 깨우치고 내 공의를 전하는 외침이다.

457. 이 시대에 인류가 내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불화와 물질주의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느냐? 수년 동안 나의 가르침을 들어온 이 백성 또한 내게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수확을 바칠 수 없다. (69, 54-55)

458. 너희는 정의의 외침을 듣지 못하느냐? 자연의 힘이 한 지역 또한 지역을 차례로 휩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덕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내 정의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순결한 자로 여겼다면 너희를 정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69, 11)

459. 비록 현재 너희에게 인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평화가 올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은 영성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460.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세상은 많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들은 세속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인류의 유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악행과 이기심, 쾌락 추구의 무분별한 행보에 대한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고가 될 것이다.

461. 이와 같이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니,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선의 세력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62. 이 정화는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처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길에서 벗어나거나 길을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63.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는 고통 속에서 아무런 유익을
발견할 수 없으나, 자신이 영원히
살 영혼을 지녔음을 생각하는
자는 그 같은 고통 속에서 빛과
굳건함, 그리고 갱신을 얻게 된다.
464. 너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온전히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이
어떻게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465. 시간은 흐르고, 그 큰
시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세상에서 평화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인류가
내 법의 길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느껴라, 그분과
화해하라!”라고 말할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는
평화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466. 그러면 너희의 삶의 방식이
바뀔 것이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각자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정의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사랑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232, 43,
47)
467. 물질적인 면에서도 너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강에는 물이 풍성해지고, 불모의
들판은 비옥해질 것이며, 자연의
힘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신성한 창조물 사이,
인간과 생명의 창조주가 정하신
법칙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52, 65)
468. 사랑하는 증인들아,
염려하지 마라. 오랫동안 오직
자신이 만지고, 보고, 제한된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만을 믿어
온 이 물질주의적인 인류가
영적으로 변하여, 영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임을 너희에게
알린다. (307, 56)
469. 너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영적 존재들의 무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니, 그것들은 너희
눈앞에서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흰 구름과 같을 것이며, 그

구름에서 사자나 사절들이 떨어져 나올 때, 너희는 그들이 빛의 불꽃처럼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70. 너희의 영적 시선은 아직 예리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저 세상, 즉 너희가 아직 볼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오면 너희는 모두 예언자가 되어, 현재는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만 실은 가까이에서 진동하며, 너희를 둘러싸고 비추며, 영감을 주고 끊임없이 너희의 문을 두드리는 그 경이로운 삶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71, 37-38)

471. 감수성, 예지력, 계시, 예언, 영감, 선견, 은사, 내면의 말씀 — 이 모든 것과 그 밖의 은사들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472. 오늘날 너희는 어떤 이들이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영적 은사를 숨기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러한 은사를 지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473.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오는 것은, 너희가 몸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의로운 사람은 정화가 필요 없다. (80, 5-6)

474. 오늘날 너희는 아직 성직자와 재판관, 그리고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일단 높아지면, 너희는 더 이상 이러한 버팀목이나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 안에는 재판관, 영적 지도자, 스승, 그리고 제단이 있을 것이다. (208, 41)

XVI. 예언과 비유, 위로와 약속

제64장 – 예언들

옛 예언과 새로운 예언의 성취

1. 예언자들이 선포한 바는 이 시대에 성취될 것이다. 나의 새로운 말씀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를 조롱하고 다른 이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의 놀란 눈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린 예언들의 성취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151, 75)

2. 과거 시대의 그 예언자들은 지상에서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위임도 받지 않았으며, 어떤 권위에도 복종할 의무가 없었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만 전념하였으니,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의 입술에 그분의 말씀을 두셨다.

3. 믿음과 용기로 충만했던 그들은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가르치고, 사제들의 무관심과 오류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종교적 광신에서 벗어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무엇도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 (162, 7-8)

4. 인류여, 이 시기에 너희를 둘러싼 고통과 비참함, 그리고 혼란이 너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보이나?

5. 너희가 놀라는 것은, 내 예언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모든 것이 예견되었고, 모든 것이 예고되었으나, 너희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 결과로 너희는 지금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고 있다.

7. 오늘날에도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예언한다. 어떤 예언은 곧 이루어지고, 다른 예언은 먼 훗날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8. 이를 듣는 이 백성에게는 이를 인류에게 알릴 큰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 예언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여, 심연으로 치닫는 광란의 질주 속에서 잠시 멈추게 하는 빛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76, 41 42)

9.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한 것 중 많은 부분은 때로는 가까운 시기를, 때로는 먼 미래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성한 메시지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한다.

10. 그러나 이 말씀은 다가올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가득 차 부활할 것이며, 그들은 그 안에서 위대한 계시들을 인식하고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은 과학자들을 경탄하게 할 것이다. (216, 13)

1945년 1월 10일,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내려진 위대한 민족 예언

11. 이 순간, 나는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나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빛으로 너희는 마치 생명의 주인인 양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던 자신의 행실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12.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파멸과 고통은 많은 이에게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켰으며, 나를 찾고 부르짖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빛으로 깨우쳤고, 그들로부터 나에게 "아버지, 1945년의 전쟁이 과연 끝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묻는 통곡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13.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노라, 오 일곱 나라여! 808 제64장 세상에서 내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 치켜세운 일곱 수장들이여!

14. 영국아: 내가 너를 깨우치노라. 나의 공의가 너를 엄히 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게 힘을 주며, 네 마음을 어루만지며 말하노니, 네 권력에 대한 야망은 무너질 것이며, 네 부는 빼앗겨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15. 독일아: 나는 이 순간 네 교만을 징벌하며 네게 말하노라. 준비하라, 네 자손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새로운 땅을 내게 구했으나, 사람들이 내 높은 뜻에 간섭하였도다. 나는 네 목을 굽히고 네게 말하노라. 내 힘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믿으라.

16. 그러나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네 교만에 빠져버린다면, 너는 홀로 남게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은 아니다. 이제 내가 주인들을 무너뜨리고 노예들과 포로들을 해방시킬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나의 빛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라.

17. 러시아: 내 영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세상은 네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를 다스리는 이는 바로 나일 것이다. 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오만을 꺾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빛을 전한다.

18. 이탈리아: 너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주인이 아니다. 오늘날 조롱과 노예 상태, 그리고 전쟁이 너를 파멸로 이끌었다. 타락의 결과로 너는 큰 정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 자신을 새롭게 하고, 광신과 우상 숭배를 버리며, 나를 지극히 높으신 주님으로 인정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감과 빛을 부어 주리라. 내 치유의 연고를 받아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19. 프랑스: 너는 네 고통을 내 앞에 가져온다. 네 통곡이 나의 높은 보좌까지 닿는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너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했으나, 이제 너는 네가 짊어지고 다니는 사슬만을 내게 보여주고 있다.

20. 너는 깨어 있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너는 육체의 쾌락에 빠져 있었고, 용이 너를 먹잇감으로 삼았다.

21.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 아내들의 탄식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내게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너는 구원받고자 하며, 내가 너에게 내 손을 내민다. 그러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깨어 기도하고 용서하라!

22. 미국: 이 순간, 나도 너를 받아들인다. 나는 네 마음을 살핀다 — 그것은 돌이 아니라 금속, 금으로 되어 있다. 나는 네 금속으로 된 뇌가 굳어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네게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영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나는 오직 과대망상, 야망, 그리고 탐욕만을 본다.

23. "그대로 계속해라", 그러나 내가 묻노라: 언제 내 씨앗이 네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인가? 언제 네가 네 "황금 송아지"와

"바벨탑"을 허물고, 그 대신
주님의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인가?
24. 나는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너희의 양심을
어루만지며 너희를 용서한다.
나는 너희를 깨우쳐, 시련이
절정에 달하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너희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맑게 생각하며, 내가 너희
위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리라.
25. 내가 너에게 빛과 힘과 권능을
준다. 내 고귀한 뜻에 간섭하지
마라. 만일 네가 내 지시에
순종하지 않거나 내가 그은
경계를 넘어서면, 고통과 파괴와
불과 전염병과 죽음이 네게 닥칠
것이다.
26. 일본아,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네게 말하노라. 내가 네 성소에
들어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노라.
너는 마지막이 되고자 하지 않고,
항상 첫 번째가 되고자 했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씨앗은 내 앞에
기쁘게 여겨지지 아니하노라.
27. 네 마음이 정화되려면 네가
고난의 잔을 비워야 한다. 네
"언어"*가 다른 "언어"들과 섞여야
한다. 세상이 너에게 다가와야
한다. 세상이 준비되고 정화되면,
내가 그들에게 맡길 씨앗을 네게
가져다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네게서 내 신성의
영적 씨앗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길을 닦을 것이다. * 이는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되는 사고방식과 상상 세계를
의미한다.
28. 머지않아 온 세상에 세계관의
혼란이 닥치고, 과학과 이론의
혼돈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혼란이 지나간 후 빛이 너에게
닿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준비시키고 용서하며, 너희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돌보겠다.
29. 때가 되어 열방에게 평화가
찾아올 때, 거역하지 말고 내 높은
뜻에 간섭하지 말며, 내 뜻에
대항하지도 말라. 열방이 평화를
맺었을 때, 그들에게 배신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30. 일곱 나라여! 일곱 머리여!
아버지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셨다.
너희 앞에, 너희의 통치 아래에
세상이 놓여 있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31. “일곱 봉인의 책”의 빛이 모든 나라에 비추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준비하게 하라.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127, 50-65)

전쟁과 자연재해 — 하늘의 징조

32. 너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랫동안 전쟁터였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조상들이 물려준 엄청난 경험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양심에 의해 펼쳐진 책처럼 오늘날의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33.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굳어 있어, 빛의 유산과도 같은 그 경험의 결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유일한 것은 피를 통해 전해진 증오, 자만, 원한, 탐욕, 오만, 그리고 복수뿐이었다. (271, 65)

34. 심판의 때가 왔음을 명심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속죄될 것이다. 땅 그 자체가 인간이 땅과 그 자연의 왕국을 잘못 이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35. 파괴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창조주에 의해 사랑의 뜻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바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 유일한 뜻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축복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80, 67)

36. 나는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며, 너희는 이를 바다 건너편으로 전해 나가야 한다. 나의 말씀은 구대륙을 가로질러,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채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상쟁의 싸움에 뛰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닿아야 한다.

37. 너희는 세상이 겪게 될 시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모두 평화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 평화는 자연의 힘이 나를 증언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243, 52)

38. 나의 자연의 힘들이 풀려나와 광활한 땅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별비”*가 너희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단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사람들에게 알릴 뿐이다. (182, 38)

** 복음서에서는 이 심판의 징조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말로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지구로 떨어지는 거대한 유성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39. 나는 이미 내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있음을 너희에게 계시한 바 있다. 즉, 영적인 씨앗이 온 지구에 뿌려져 있다는 뜻이다.

40. 오늘날 너희는 사소한 일로 인해 서로 불화하며 심지어 서로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적 교리가 너희 모두를 압도하려 할 때, 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너희는 마침내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때가 오면, 너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표징을 주리니, 그것은 너희 모두가 똑같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리라. 그때 서로 이에 대해 증언하며, 너희는 놀라워하며 말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도다." (156, 35-36)

멕시코 교회들의 분열에 대한 예언

41.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백성아, 그리고 내 말씀을 합당하고 진실하게 따르도록 하라.

42. 나는 너희가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을 보노라. 너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 영혼에 새겨 놓은 율법을 모두 지키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날 '초기' 때와 같이 백성이 분열될 것이다.

43. 나는 너희에게 많은 말을 하였고, 모두를 위해 단 하나의 길을 표시해 두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 자녀들 중 일부가 내게 불순종한다면, 너희 아버지의 뜻으로 정해진 날이 와서 이 계시를 끝낼 때,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44.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해방자로 오셔서, 광야를 통과하는 길, 즉 해방과 구원을 위한 영적 '투쟁의 여정'을 보여 주었으며, 마지막에는 영혼에게 평화와 빛, 그리고 행복이 되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약속해 주었다.
45. 해방과 영성화를 갈망하며
길을 떠나 이 여정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광활한 사막이 가져다주는
시련 속에서 결코 버림받거나
약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니라.
46.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 즉 계속해서
우상과 전통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육신', 즉 물질주의이자
우상 숭배인 '파라오'의 노예가 될
것이다.
47. 약속의 땅, 곧 영의 조국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선한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48. 이 길을 따라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희망을 두면
길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신뢰가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나의 진리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269, 50-51)

제65장 – 비유, 위로와 약속

나쁜 청지기들의 비유

1. 자비를 갈망하는 굶주린 자,
병든 자, 벌거벗은 자들의 무리가
한 집으로 다가왔다.
2. 그 집의 청지기들은 지나가는
이들을 식탁에 대접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를 했다.
3. 그 땅의 주인이자 소유주인
지주가 연회 주재자로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
4. 시간이 흘러, 궁핍한 이들은 그
집에서 언제나 음식과 거처를
얻었다.
5. 어느 날 그 주인은 식탁 위의
물이 탁하고, 음식이 건강하지도
맛있지도 않으며, 식탁보가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6. 그러자 그는 식탁 준비를 맡은
사람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그 식탁보를 보고, 음식을 맛보고,
그 물을 마셔 보았느냐?"
7. "네, 주인님," 그들이 대답했다.

8. “그러면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먼저 너희
자녀들에게 먹여 보아라. 그들이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 그
손님들에게도 주도록 하라.”
9. 아이들이 빵과 과일, 그리고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
보았으나, 그 맛이 역겨워 불만과
소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격렬하게 불평했다.
10. 그러자 지주님은 아직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무 아래로 오시오.
내가 내 정원의 과일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소.”
11. 그러나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너희가
실망시킨 자들의 입술에서 그
역겨운 맛을 없애라.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맞아들여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깨끗한 물을 대접하라고
명했으나, 너희는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일은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12. 그 땅의 주인은 이제 직접
잔치를 준비했다. 빵은 영양이
풍부했고, 과일은 건강하고 잘
익었으며, 물은 신선하고
상쾌했다.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던 자들—거지, 병자, 나병
환자들—을 초대했고,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기쁨이 컸다. 곧 그들은
건강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 그
농장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13. 그들은 밭을 일구기 시작하여
농부가 되었으나, 힘이 약하여 그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씨앗들을 섞어
뿌렸고, 그 결과 수확물은
변질되었으며, 밀은 잡초에 눌려
죽고 말았다.
14. 수확의 때가 되자, 영주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관리만 맡겼는데,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뿌린 씨앗은 좋지 않다.
밭을 일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가서 밭에서
엉겅퀴와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집안 일을 관리하라. 우물은
말라버렸고, 빵은 힘을 주지
못하며, 열매는 쓰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대로
행하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이웃의 고통을 없애 주었다면, 내가 내 집에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196, 47-49)

사막을 건너 큰 도시에 이르는 비유

15. 두 명의 여행자가 넓은 사막을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뜨거운 모래 때문에 발이 아팠다. 그들은 멀리 있는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희망만이 그 힘든 여정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빵과 물이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중 더 젊은 쪽이 지쳐 가기 시작하며, 힘이 다해 버렸다며 동료에게 혼자서 여행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16. 연로한 여행자는 곧 오아시스를 만나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젊은이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으려 했으나, 그는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17. 노인은 그 황무지에서 그를 버려둘 생각이 없었기에, 자신도 지쳐 있었지만 기진맥진한 동료를 등에 업고 힘겹게 여정을 이어갔다.

18. 청년은 휴식을 취한 뒤, 자신을 어깨에 메고 있는 이에게 끼치는 고생을 생각하며 그의 목에서 내려와 그의 손을 잡았고, 그렇게 그들은 길을 계속 나아갔다.

19.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이 노년의 방랑자의 마음을 채웠고, 그 믿음은 그에게 피로를 이겨낼 힘을 주었다.

20. 그가 예감했던 대로 지평선 너머에 오아시스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그늘 아래에서는 시원한 샘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여 그 상쾌한 물을 배불리 마셨다.

21.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고, 깨어났을 때 피로가 사라진 것을 느꼈으며, 배고픔이나 목마름도 없었다. 그들은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고, 그들이 찾던 그 도시에 도달할 힘을 얻었다.

22. 그들은 사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여정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물로 그릇을 채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23. 젊은이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노년의 여행자가 말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은
아껴서 써야 합니다. 길에서 지쳐
쓰러져 목마르거나 병든
순례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테니까요.”
24. 젊은이는 이에 반대하며,
자신들에게도 모자랄지 모르는
물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 귀중한 물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니, 만일
그런 상황이 닥치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5. 노인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물을 곤경에 처한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26. 젊은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길에서 마주칠
누군가와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그릇에 담긴 물을 혼자 다
마시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27. 노인의 예감은 다시금
적중했다. 그들 앞에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음을 앞둔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행렬이
보였기 때문이다.
28. 착한 노인은 서둘러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을 마시게
했다. 지친 이들은 즉시 기운을
차렸고, 병든 이들은 눈을 뜨고 그
여행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아이들은 목마름으로 울음을
그쳤다. 행렬은 다시 일어나
여정을 계속했다.
29. 고귀한 마음의 그 여행자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물통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동료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들이 소비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되돌아가 샘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0.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선한 여행자가 말했다.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31. 그러나 젊은이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서 동행과
작별을 고하고 샘을 찾아
되돌아가기를 원했다. 한때
고난을 함께했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한 사람은 목적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길을 계속
나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막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죽음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을 품은 채 샘을
향해 달려갔다.
32. 마침내 그는 헐떡이며 지친 채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만족스럽게 물을 배불리 마시고,
홀로 떠나보낸 동료를 잊었으며,
포기했던 도시 또한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사막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33.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고
목마른 남녀들로 이루어진 한
행렬이 근처를 지나갔다. 그들은
그 샘물의 물을 마시려고
조급하게 다가왔다.
34. 그러나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을 마시거나
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아시스를 차지하고 사막의
주인이 된 그 젊은 방랑자였다.
35. 그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가난해서 목마름을 해소해 줄 그
귀중한 보물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가지고
있던 적은 돈을 내놓아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기 위해 물을 조금
사고는 길을 계속 이어갔다.
36. 머지않아 그 사람은 주인에서
왕으로 변모했다.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잔의 물에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권력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37. 그 남자는 사막 너머의 도시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을
어깨에 메고 그 황무지에서 죽는
것을 막아준 형제 같은 동행은
더욱더 기억하지 못했다.
38. 어느 날 그는 큰 도시를 향해
단호하게 나아가는 한 행렬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힘과
기쁨으로 가득 차 걸어가며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9. 그 남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고,
캐러밴의 맨 앞을 자신의 여행
동료였던 그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을 보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40. 캐러밴은 오아시스 앞에 멈춰 섰고, 두 남자는 마주 서서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오아시스 주민은 자신의 동행이었던 그에게 물었다. “말해 보시오. 어떻게 목마름도 느끼지 않고 피로함도 없이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41. 그가 이렇게 물은 것은, 더 이상 누구도 물이나 숙소를 구하러 찾아오지 않게 될 그날부터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마음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42. 그 선한 여행자는 동행자에게 말했다. “나는 그 큰 도시에 도착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병든 자, 목마른 자, 길을 잃은 자, 지친 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모두 내 영혼을 채우는 믿음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었기에, 우리는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하며 어느 날 그 큰 도시의 성문 앞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43. 그곳에서 나는 그 왕국의 주님 앞에 불려갔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사막을 잘 알고 여행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시고, 고통스러운 사막 횡단 여정에서 여행자들의 인도자이자 조언자가 되기 위해 돌아가라는 임무를 주셨다.

44.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나는 또 다른 캐러밴을 이끌고 그 큰 도시로 데려가야 한다. —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가 오아시스에 남아 있던 자에게 물었다. — 그자는 부끄러워하며 침묵했다.

45. 그러자 그 선한 여행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이 오아시스를 독차지하고 물을 팔며 그늘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들은 네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힘에 의해 사막에 놓여진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46.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느냐? 그들은 목마름도 느끼지 않고 피로도 느끼지 않으니 오아시스가 필요 없다. 내가 그들에게 큰 도시의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보내신 메시지를 전해 주기만 하면, 그들은 곧바로 길을 떠나, 그들이 가진 숭고한 목표, 즉 그

왕국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덕분에 걸음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47. 목마른 자들이 그곳에서 상쾌함을 얻고, 사막의 고난을 겪는 자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샘을 그들에게 내어주어라.

48. 네 자만과 이기심이 너를 눈멀게 했다. 그러나 이 황무지에서 살며, 우리가 함께 향하던 그 큰 도시를 알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렸다면, 이 작은 오아시스의 주인이 된 것이 네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우리 둘이 가졌던 그 높은 목표를 벌써 잊어버린 것이냐?"

49. 그 남자는 한때 충실하고 이타적인 동행자였던 그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허영으로 치장한 허울뿐인 옷을 벗어 던지고, 사막이 시작되는 곳에 있던 출발점으로 향해, 그를 그 큰 도시로 이끌어 줄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빛에 비추어 길을 걸어갔다. 비유의 끝

50. 나는 그 큰 도시의 주님이시며, 내 비유 속의 노인은 엘리야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이며, 타보르 산에서 변모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신 계시를 성취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분이다. 그는 "제3의 시대"에 너희를 큰 도시로 인도하는 분이며,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기다리며 내 사랑의 영원한 상을 주려 한다.

51. 오, 사랑하는 백성아, 엘리야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삶과 신앙 생활, 그리고 이상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52. 너희는 너희의 불완전한 종교적 실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느냐? — 아니, 나의 제자들아. 내일, 너희의 영혼이 지평선 너머의 위대한 도시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28, 18-40)

왕의 관대함에 관한 비유

53.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반란을

일으켰던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54. 왕과 그의 신하들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그러자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팔의 힘이 승리하여 내 왕국을
확장시켰으나, 패배한 자들을
너희처럼 사랑하리라. 내 영지에
밭을 주어 포도나무를 심게
하겠으니, 너희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55. 시간이 흘러, 그 왕의 사랑과
정의로 정복된 백성들 가운데 한
남자가 나타나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그가 잠든 틈을 타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저 상처만
입혔을 뿐이었다.
56.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남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장 어두운
숲속으로 도망쳐 숨었고, 왕은 그
부하가 배은망덕하고 자리를 비운
것을 한탄하였으니, 그의 마음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7. 그 남자는 도주 중에 왕에게
적대적인 한 부족에게 붙잡혔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의
신하라는 혐의를 받자, 그는 갓
왕을 죽였기에 도망자라고 목청껏
외치며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를 고문한 뒤 화형에
처하도록 판결했다.
58. 그가 이미 피를 흘리고 불 속에
던져지려던 참에, 반역자를
수색하던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왕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는
팔을 들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반역자들아?” 그리고 왕의 위엄
있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반역자들은 그 앞에
엎드렸다.
59. 여전히 불 가까이 묶여 있어
형벌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배은망덕한 신하는, 왕이 죽지
않았음을 보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자신의 묶인 줄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했다.
60. 그는 그를 불에서 데리고 나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새하얀
옷을 입혀 주었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이렇게 말했다. “내

신하여, 어찌하여 내 앞에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다치게
했느냐? 말로 대답하지 마라. 나는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만 바랄 뿐이며, 이제 네게
말하노니, 와서 나를 따르라."
61. 이 자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놀라움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 그들은 그 왕의 순종하는
신하임을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은혜만을 받았고, 한때 반역했던
그 신하는 왕의 그토록 큰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의 그 완전한
행위에 감동받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숭배함으로써 그 무한한
애정의 증거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했다.

비유의 끝

62. 보라, 백성들아, 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가!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며 나와
맺은 우정을 잃어버린다.
63.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는가? 나의 가르침과 법이
그들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는가?
64. 알라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자주 상처 입히더라도, 매번
너희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도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를 모욕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할 의무가 있다.
65.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면, 나도
너희에게 다가가기 위해 똑같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 너희가
성전의 문을 내게 닫아 버리면,
너희가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릴
것이다. (100, 61-70)

복된 자들과 축복

66. 인내로 고통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온유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성장의
길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힘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67. 모욕을 겸손히 견디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의롭다 하리라. 그러나 이웃의
행위를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도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니라!
68.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모든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9. 자신의 옳은 일이나 그른 일을 내게 맡겨 심판받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4, 52-55)

70. 땅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비방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의 무죄함을 증언하리라. 나를 증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내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는 자를, 내가 인정하리라. (8, 30)

71.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자, 울면서 나를 축복하는 자, 자기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신뢰하는 자, 이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작고 슬퍼하며 조롱받지만 온유하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강한 이들은 진실로 나의 제자들이다. (22, 30)

72. 주님의 뜻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자신의 고통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것이 자신의 오점을 씻어 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인 산을 오르기 위해 자신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308, 10)

73. 모든 이는 새로운 날의 빛, 더 나은 시대의 시작이 될 평화의 여명을 기다린다. 억압받는 자들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병든 자들은 그들에게 건강과 힘, 삶의 기쁨을 되찾아 줄 치료제를 희망한다.

74.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잃은 것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다림을 축복하노니, 이는 나를 믿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286, 59-60)

75. 충실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시련의 끝까지 굳건히 버티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도다. 내 가르침을 통해 얻은 힘을 헛되이 쓰지 않은 자들에게 축복이 있나니, 그들은 다가올 괴로움의 시기에 삶의 우여곡절을 힘과 빛으로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311, 10)

76. 창조의 제단 위에서 나를 축복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신의 벌로 돌리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77. 내 뜻을 따르는 법을 알고 겸손히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 모두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325, 7-8)

상향 발전을 위한 격려

78. 겸손과 믿음으로 영혼의 승화를 나에게 청하는 이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9. 기다리는 법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 자비로운 도움이 적절한 때에 그들의 손에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80. 청하는 법과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 내 사랑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 내 뜻이 너희의 모든 필요와 시련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라. (35, 1-3)

81. 평화와 조화의 낙원을 꿈꾸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82.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영혼에게는 더욱더 유익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과 허영, 그리고 정욕을 경멸하고 무관심하게 여긴 자들은 복이 있도다.

83. 아무 소용없는 광신적인 종교 의식을 없애고, 오래되고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절대적이고 순수하며 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복이 있기를.

84. 나는 세상이 평화를 주지 않으며, 그 평화를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점점 더 깨닫고, 외적인 것을 거부하고 대신 영적 성찰과 사랑,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몰두하는 이들을 축복한다.

85. 진리가 두렵지 않았고, 진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은 너희 중의 그대들에게 복이 있나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빛이 폭포처럼 너희 영혼 위로 쏟아져 내려, 너희의 빛에 대한 갈망을 영원히 채워 줄 것이니라. (263, 2-6)

86. 내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때가 되면 영원 속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87. 내 말씀에 깊이 잠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고통의 이유와 속죄와 보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절망하거나 신성모독을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대신, 믿음과 희망으로 일어나 싸우므로, 그의 죄의 짐은 날마다 가벼워지고 그의 고통의 잔은 덜 쓰라려질 것이니라.

88. 기쁨과 평화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본래 주어진 것이다. (283, 45-47)

89. 너희의 진보나 상향적 발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진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영역은 물론 내 모든 작품 속에서 나의 신성한 현존을 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어디서나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영혼으로, 심지어 육신으로까지 나를 느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온 존재에 섬세함을 부여한 자들이며, 진정으로 영화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305, 61-62)

90. 너희는 내가 나의 “높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나의 평화와 축복으로 감싸고 있음을 알고 있다.

91. 모든 것은 매 시간, 매 순간 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92. 내 자녀들에게서 저주나 심판은 결코 나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나 죄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나의 축복과 사랑의 입맞춤, 그리고 나의 평화를 내려주노라. (319, 49-50)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하느님의 부르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소:

"사람들아, 사람들아, 일어나라. 시간이 촉박하니, 이 '날'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지상 생활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들어 있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죽음이 너희를 깨우게 하기를 원하느냐? — 물질 없는 너희 영혼의 회개의 불길에 휩싸여? 진실하라. 영적 삶에 처해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진리의 면전에서, 그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너희의 물질주의를 변명할 수 없으며, 너희는 진정으로 누더기 차림의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 더럽혀지고, 더럽고, 찢겨진 그 옷은 너희 영혼이 입게 될 옷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곳에서 너희는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그토록 큰 수치심을 느끼며, 가장 깊은 회개의 물로 자신을 씻어내고 싶은 헤아릴 수 없는 갈망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오직 깨끗해진 자만이 성령의 잔치에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현재 너희의 자부심이자 만족인, 온갖 결함을 지닌 인간적 이기심을 넘어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게 말하라. 너희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꼈는지, 너희 마음속에 여인들의 흐느낌이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지. 그러니 내게 말하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었느냐?" (228, 62-63)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호소:

"나에게로 오라, 죽음을 지겨워하고 마음속으로 실망한 지식인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혼란스러워하며 사랑하기보다 미워했던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내 계명에 순종하는 영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성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학문으로 인도하리라." (282, 54)

고생하고 짐 진 자들에게 보내는 부르심:

"나에게로 오라, 슬퍼하고 외롭고 병든 사람들아. 죄의 사슬을 끌고 다니는 너희, 비천해진 자들, 의를 갈망하고 목마른 자들아, 내 곁에 머물라. 내 면전에서 너희의 많은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너희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선물을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가 선한 용도로 쓰기 위해 세상의 재물을 구한다면, 너희의 청이 고귀하고 의로우므로 내가 그것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가 동료 인간들과
그것을 나누게 하도록 그 재물의
증식을 허락하리라.” (144, 80-81)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호소:

"이스라엘아, 인류의 지도자가
되어라. 그들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주고, 이 영적 업적을 보여
주어, 다양한 종교들이 내 가르침
안에서 영성화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라." (249, 66)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보아라. 너희 양심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듣고, 너희의 영적인
귀로 하늘의 선율을 들어라.
그리하여 너희의 마음과 영이
기뻐하고, 너희가 평화를 느끼게
하라. 나는 평화 그 자체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살도록
초대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에게 품어
온 사랑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2의 시대’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랑을
가르치며, 너희의 영과 마음에
참된 가르침을 심어 주기 위해 그
가장 귀한 피를 흘리신 이유이다.”
(283, 71)

"길을 잃었을 때 나를 바라보라.
오늘 나와 함께 하라.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로 향하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친구에게
믿음으로 말하듯 나와 대화하라."
(280, 31)

"나의 가르침 아래서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느끼며, 나의
미덕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길에 나타나실
것이다." (228, 60)

"백성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대화하라 — 그와 같은 연민과
확고함, 그리고 희망으로.
그들에게 물질적 재물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상향
발전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넘어
믿고 희망하게 하는 믿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라.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므로, 그 영원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359,
94-95)

참고 문헌

라이히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6741 1720
진실한 생명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 (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

생명을 위한 도서 서비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7371 929 66 42, 이메일: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실한 삶의 책, 제7, 8, 9, 10, 11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생명의 책』 소개 (무료)

진정한 삶 영성 연구 협회 A.C.
Orinoco N° 54 Interior 5, Col. Zacahuitzco,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이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들

웹사이트

www.reichl-verlag.de

www.das-dritte-testament.com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